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일반국민



국 방 대 학 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보고서 [일반국민]

2020. 10.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제 출 문

국방대학교 총장 貴中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 제출

본 보고서를 2020년 귀 대학교의 조사연구사업인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관 :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연구 책임자 : 정종원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이사)

참여 연구원 : 김규화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선임연구원)

공영철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선임연구원)

장정예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전임연구원)

최고봉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전임연구원)

박예린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연구원)

2020년 10월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의식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2.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에 수집된 2020 통계는 실질적인 정책대안 개발에 도움을 주 고자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개요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 의해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그래프·도표·교차분석표 내 통계 자료의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 었으므로 이 과정에서 세부항목 수치의 합계와 총계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이 보고서의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0.0】 단위 미만
 - ▶ 【-】 해당숫자 없음
 - ▶ 【%p】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계산

목 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2. 조사 설계	2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
4. 조사 내용	3
5. 응답자 분포	6
II. 조사 결과 요약	7
1.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 사항	8
2.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3
3. 북한 관련 사항	18
4.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22
5.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24
III. 세부 조사 결과	30
1.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 사항	31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31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34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37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40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43
6)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46
7)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49
8) 국가정체성 평가	52
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58
10)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61
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67
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79
1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91
14)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103
15)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108
16)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111

2.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114
1) 한·미 동맹관계	114
2)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117
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120
4)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132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135
6) 주한미군 주둔 시기	137
7)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한 의견	140
8)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	143
9)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46
10)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149
1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152
12)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155
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58
3. 북한 관련 사항	161
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61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64
3)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167
4)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70
5)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173
6)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176
7)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179
8)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182
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185
10)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188
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191
12)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194
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197
14)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200
15)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203
16)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206
17) 한반도 통일 시기	209
18) 한반도 통일 방식	212
19) 통일비용 지불 의지	215
4.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218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	218
2) 과거 대비 병무 부조리 수준	221
3)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224
4)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227

5.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230
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230
2)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233
3) 군에 대한 신뢰도	236
4)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239
5)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242
6)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245
7)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248
8)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251
9)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254
1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257
11)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260
12)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263
13) 한국군의 해외파병 찬반	266
14)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278
15)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281
16)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응소 여부	284
17)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286
18)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289
19)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292
20)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310
21)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313
22)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316
2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1순위)	318
24) 지난 1년 간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321
25)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339

IV. 부록 342

1. 시계열 분석	342
2. 성평등 조사	378
3. 설문지	384

표 목 차

[표 3-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33
[표 3-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36
[표 3-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39
[표 3-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42
[표 3-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45
[표 3-6.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48
[표 3-7.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51
[표 3-8.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54
[표 3-9.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57
[표 3-10.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60
[표 3-1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63
[표 3-1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66
[표 3-13.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69
[표 3-14.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72
[표 3-15.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75
[표 3-16.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78
[표 3-17.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81
[표 3-18.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84
[표 3-1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87
[표 3-2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90
[표 3-2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미국]	93
[표 3-2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일본]	96
[표 3-2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중국]	99
[표 3-24.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러시아]	102
[표 3-25.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 중국]	105
[표 3-26.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 러시아]	107
[표 3-27.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110
[표 3-28.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113
[표 3-29. 한·미 동맹관계]	116
[표 3-30.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119
[표 3-31.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군사동맹 강화]	122
[표 3-32.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125
[표 3-3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128
[표 3-34.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131
[표 3-35.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134
[표 3-36. 주한미군 주둔 이유]	136
[표 3-37. 주한미군 주둔 시기]	139
[표 3-38.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한 의견]	142
[표 3-39.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	145

[표 3-40.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48
[표 3-41.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151
[표 3-42.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154
[표 3-43.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157
[표 3-4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60
[표 3-45.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63
[표 3-46.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66
[표 3-47.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169
[표 3-48.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72
[표 3-49.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175
[표 3-50.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178
[표 3-51.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181
[표 3-52.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184
[표 3-5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187
[표 3-54.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190
[표 3-55.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193
[표 3-56.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196
[표 3-57.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199
[표 3-58.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202
[표 3-59.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205
[표 3-60.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208
[표 3-61. 한반도 통일 시기	211
[표 3-62. 한반도 통일 방식]	214
[표 3-63. 통일비용 지불 의지]	217
[표 3-64.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	220
[표 3-65.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223
[표 3-66.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226
[표 3-67.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229
[표 3-68.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232
[표 3-69.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235
[표 3-70. 군에 대한 신뢰도]	238
[표 3-7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241
[표 3-72.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244
[표 3-73.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247
[표 3-74.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250
[표 3-75.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253
[표 3-7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256
[표 3-77.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259
[표 3-7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262
[표 3-79.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265
[표 3-80. 국가 위상 증진을 위해 필요]	268
[표 3-81. 국가이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	271
[표 3-82.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	274

[표 3-83.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	277
[표 3-84.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280
[표 3-85.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283
[표 3-86.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응소 여부]	285
[표 3-87.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288
[표 3-88.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291
[표 3-89.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테러]	294
[표 3-90.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297
[표 3-91.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자연재해]	300
[표 3-92.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원전사고]	303
[표 3-93.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사이버 테러]	306
[표 3-94.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감염병]	309
[표 3-95.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312
[표 3-96.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315
[표 3-97.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317
[표 3-98.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1순위)]	320
[표 3-99.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323
[표 3-100. 국방백서]	326
[표 3-101. 국방일보]	329
[표 3-102. 국방FM]	332
[표 3-103. 국방TV]	335
[표 3-104.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338
[표 3-105.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341

그 림 목 차

[그림 2-1. 한국의 전반적 안보 상황]	9
[그림 2-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9
[그림 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10
[그림 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10
[그림 2-5.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11
[그림 2-6.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11
[그림 2-7.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12
[그림 2-8.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12
[그림 2-9.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14
[그림 2-10.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제시)]	14
[그림 2-11.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15
[그림 2-12.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15
[그림 2-13. 주한미군 주둔시기]	16
[그림 2-14.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16
[그림 2-15.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17

[그림 2-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7
[그림 2-17.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9
[그림 2-18.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9
[그림 2-19. 향후 2~3년 내에 김정은 체제의 무력 도발 가능성]	20
[그림 2-20.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20
[그림 2-21.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21
[그림 2-22.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21
[그림 2-23. 선호하는 병역제도]	23
[그림 2-24.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23
[그림 2-25.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25
[그림 2-2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25
[그림 2-27. 군에 대한 신뢰도]	26
[그림 2-28.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26
[그림 2-29.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27
[그림 2-30.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27
[그림 2-31. 한국의 국방비 수준]	28
[그림 2-32.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28
[그림 2-33.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29
[그림 2-34.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29
[그림 3-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1
[그림 3-2.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전년도 비교]	32
[그림 3-3.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4
[그림 3-4.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전년도 비교]	35
[그림 3-5.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7
[그림 3-6.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전년도 비교]	38
[그림 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40
[그림 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전년도 비교]	41
[그림 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43
[그림 3-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전년도 비교]	44
[그림 3-11.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46
[그림 3-12.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전년도 비교]	47
[그림 3-13.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49
[그림 3-14.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전년도 비교]	50
[그림 3-15.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52
[그림 3-16.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 전년도 비교]	53
[그림 3-17. 국가정체성 평가(대한민국 국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55
[그림 3-18. 국가정체성 평가(대한민국 국민) 전년도 비교]	56
[그림 3-1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58
[그림 3-20.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59
[그림 3-2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61
[그림 3-22.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전년도 비교]	62
[그림 3-2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64
[그림 3-24.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전년도 비교]	65

[그림 3-25.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67
[그림 3-26.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태도 전년도 비교]	68
[그림 3-27.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70
[그림 3-28.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의 태도 전년도 비교]	71
[그림 3-29.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73
[그림 3-30.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태도 전년도 비교]	74
[그림 3-31. 한반도 위기상황시 러시아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76
[그림 3-32. 한반도 위기상황시 러시아의 태도 전년도 비교]	77
[그림 3-33.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79
[그림 3-34.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80
[그림 3-35.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82
[그림 3-36.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83
[그림 3-37.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85
[그림 3-38.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86
[그림 3-39.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88
[그림 3-40.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89
[그림 3-41.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91
[그림 3-42.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92
[그림 3-43.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94
[그림 3-44.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95
[그림 3-45.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97
[그림 3-46.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98
[그림 3-47.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00
[그림 3-48.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101
[그림 3-49.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03
[그림 3-50.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전년도 비교]	104
[그림 3-51.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06
[그림 3-52.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08
[그림 3-53.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109
[그림 3-54.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11
[그림 3-55.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112
[그림 3-56. 한·미 동맹관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14
[그림 3-57. 한·미 동맹관계 전년도 비교]	115
[그림 3-58.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17
[그림 3-59.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전년도 비교]	118
[그림 3-60.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군사동맹)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20
[그림 3-61.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군사동맹) 전년도 비교]	121
[그림 3-62.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경제 분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23
[그림 3-63.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경제 분야) 전년도 비교]	124
[그림 3-64.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사회문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26
[그림 3-65.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사회문화) 전년도 비교]	127
[그림 3-66.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세계문제)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29
[그림 3-67.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세계문제) 전년도 비교]	130

[그림 3-68.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32
[그림 3-69.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전년도 비교]	133
[그림 3-70. 주한미군 주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35
[그림 3-71. 주한미군 주둔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37
[그림 3-72. 주한미군 주둔 시기 전년도 비교]	138
[그림 3-73.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40
[그림 3-74.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전년도 비교]	141
[그림 3-75.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43
[그림 3-76.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144
[그림 3-77.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46
[그림 3-78.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전년도 비교]	147
[그림 3-79.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49
[그림 3-80.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전년도 비교]	150
[그림 3-8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52
[그림 3-82.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전년도 비교]	153
[그림 3-83.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55
[그림 3-84.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56
[그림 3-8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58
[그림 3-8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전년도 비교]	159
[그림 3-87.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61
[그림 3-88.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전년도 비교]	162
[그림 3-89.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64
[그림 3-9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전년도 비교]	165
[그림 3-91.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67
[그림 3-92.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전년도 비교]	168
[그림 3-93.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70
[그림 3-94.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전년도 비교]	171
[그림 3-95.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73
[그림 3-96.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174
[그림 3-97.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76
[그림 3-98.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전년도 비교]	177
[그림 3-99.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79
[그림 3-100.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180
[그림 3-101.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82
[그림 3-102.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183
[그림 3-10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85
[그림 3-104.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전년도 비교]	186
[그림 3-105.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88
[그림 3-106.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전년도 비교]	189
[그림 3-107.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91
[그림 3-108.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전년도 비교]	192
[그림 3-109.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시 주요 국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94
[그림 3-1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시 주요 국가 전년도 비교]	195

[그림 3-111.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197
[그림 3-1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전년도 비교]	198
[그림 3-1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0
[그림 3-114.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전년도 비교]	201
[그림 3-115.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3
[그림 3-116.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전년도 비교]	204
[그림 3-117.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6
[그림 3-118.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전년도 비교]	207
[그림 3-119. 한반도 통일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09
[그림 3-120. 한반도 통일 시기 전년도 비교]	210
[그림 3-121. 한반도 통일 방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12
[그림 3-122. 한반도 통일 방식 전년도 비교]	213
[그림 3-123. 통일비용 지불 의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15
[그림 3-124. 통일비용 지불 의지 전년도 비교]	216
[그림 3-125.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18
[그림 3-126.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219
[그림 3-127.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21
[그림 3-128.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전년도 비교]	222
[그림 3-129.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24
[그림 3-130.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전년도 비교]	225
[그림 3-131.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27
[그림 3-132.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228
[그림 3-133.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30
[그림 3-134.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전년도 비교]	231
[그림 3-135.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33
[그림 3-13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전년도 비교]	234
[그림 3-137. 군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36
[그림 3-138. 군에 대한 신뢰도 전년도 비교]	237
[그림 3-139.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39
[그림 3-140.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전년도 비교]	240
[그림 3-141.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42
[그림 3-142.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전년도 비교]	243
[그림 3-143.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45
[그림 3-144.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전년도 비교]	246
[그림 3-14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48
[그림 3-146.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전년도 비교]	249
[그림 3-147.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51
[그림 3-148.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252
[그림 3-149.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54
[그림 3-150.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전년도 비교]	255
[그림 3-151.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57
[그림 3-152.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전년도 비교]	258
[그림 3-153.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60

[그림 3-154.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전년도 비교]	261
[그림 3-155.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63
[그림 3-156.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전년도 비교]	264
[그림 3-157. 국가 위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66
[그림 3-158. 국가 위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267
[그림 3-159. 국가이익 창출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69
[그림 3-160. 국가이익 창출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270
[그림 3-161.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72
[그림 3-162.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273
[그림 3-163.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75
[그림 3-164.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276
[그림 3-165.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78
[그림 3-166.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전년도 비교]	279
[그림 3-167.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81
[그림 3-168.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282
[그림 3-169.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응소 여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84
[그림 3-170.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86
[그림 3-171.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전년도 비교]	287
[그림 3-172.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89
[그림 3-173.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전년도 비교]	290
[그림 3-174.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92
[그림 3-175.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293
[그림 3-176.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95
[그림 3-177.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296
[그림 3-178.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298
[그림 3-179.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299
[그림 3-180.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01
[그림 3-181.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302
[그림 3-182.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04
[그림 3-183.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305
[그림 3-184.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07
[그림 3-185.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308
[그림 3-186.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10
[그림 3-187.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전년도 비교]	311
[그림 3-188.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만족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13
[그림 3-18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만족도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314
[그림 3-190.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16
[그림 3-19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18
[그림 3-192.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전년도(1순위) 비교]	319
[그림 3-193.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21
[그림 3-194.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접촉 전년도 비교]	322
[그림 3-195. 국방백서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24
[그림 3-196. 국방백서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325

[그림 3-197. 국방일보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27
[그림 3-198. 국방일보 접촉 전년도 비교]	328
[그림 3-199. 국방FM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30
[그림 3-200. 국방FM 접촉 전년도 비교]	331
[그림 3-201. 국방TV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33
[그림 3-202. 국방TV 접촉 전년도 비교]	334
[그림 3-203. 국방관련 뉴미디어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36
[그림 3-204. 국방관련 뉴미디어 접촉 전년도 비교]	337
[그림 3-205.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339
[그림 3-206.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전년도 비교]	340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표본 수	1,200명	62명
조사 방법	개별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년 8월 28일 ~ 9월 16일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pm 2.83\%$ (일반국민)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IBM SPSS 21.0에 의해 분석됨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성, 연령, 거주 지역, 지역 크기, 최종 학력, 직업, 군 복무 경험, 군 복무 경험 방식, 생활 수준

조사항목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국가정체성 평가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 안보적 측면
 - 경제적 측면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 중국
 - 러시아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한·미 동맹관계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있어 저해 요인(1+2순위)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군사동맹 강화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주한미군 주둔 이유
주한미군 주둔 시기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한 의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한반도 통일 시기
한반도 통일 방식
통일비용 지불 의지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군에 대한 신뢰도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한국군의 해외파병 찬반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응소 여부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테러
- 해적, 마약, 조직범죄
- 자연재해
- 원전 사고
- 사이버 테러
- 감염병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1순위)
지난 1년 간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 국방백서
- 국방일보
- 국방FM
- 국방TV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5. 응답자 분포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1,262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5.1
	전문가	62	4.9
전문가 소속별	대학	30	48.4
	연구소	32	51.6
[일반국민]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7.3
	중	497	41.4
	하	136	11.3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18-29세	303	25.3
	30대	256	21.3
	40대	314	26.2
	50대	327	27.3
지역별	서울	238	19.8
	경기/인천	393	32.8
	대전/세종/충청	128	10.7
	광주/전라	110	9.2
	대구/경북	109	9.1
	부산/울산/경남	175	14.6
	강원/제주	47	3.9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9	45.8
	중소도시	610	50.8
	군지역	41	3.4
직업별	자영업자	182	15.2
	블루칼라	351	29.3
	화이트칼라	409	34.1
	전업주부	163	13.6
	학생	69	5.8
	무직/기타	26	2.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9.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5.9
	4년제 이상	535	44.6
생활 수준별	상	137	11.4
	중	700	58.3
	하	363	30.3

II. 조사 결과 요약

1.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 사항

- 국가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36.3%로 불안정(29.3%) 대비 높았으며 이는 전년대비 11.4%p 증가한 수치임,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위기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높다는 시각이 40.8%로 낮다(15.4%) 대비 높았으며, 전년 대비 6.3%p 증가하였음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47.8%) 전년대비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내요인 중에서는 국내 경제의 불안(49.4%)과 국내 정치의 불안(46.7%)이 비슷한 수준에서 높았음
-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33.2%), 남북 교류 협력 확대(30.7%)가 비슷하게 나타나 대외요인과 고려하여 생각하였을 때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상반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 각 85.0%, 46.8%로 높았는데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경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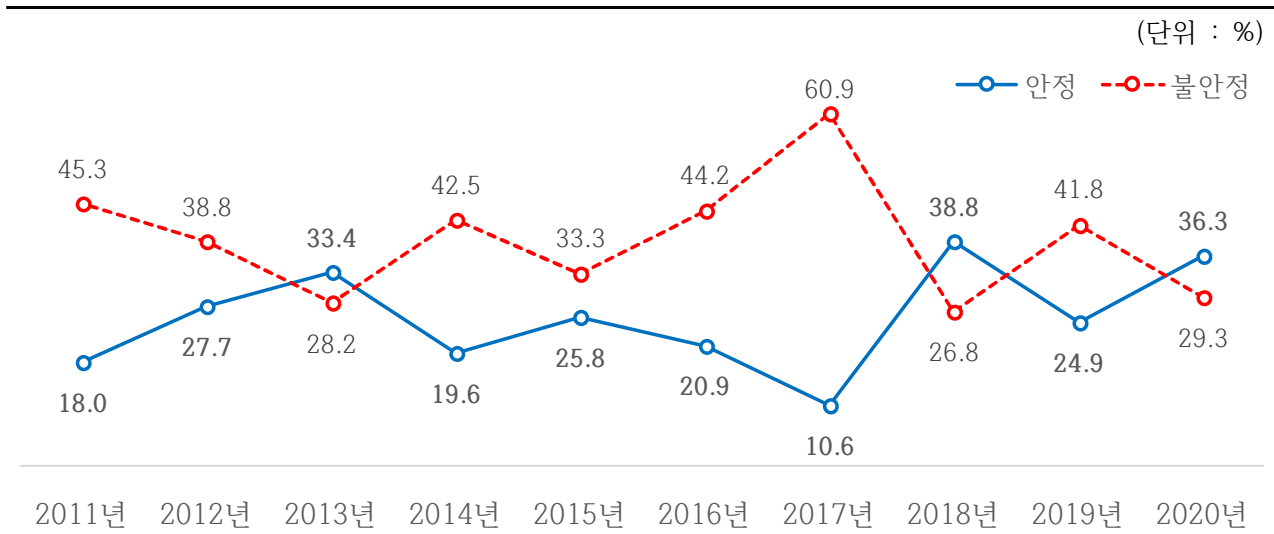
(단위 : %)

문 항	결 과
국가안보상황	2020년 안정 36.3 > 불안정 29.3, 6.9%p 2019년 안정 24.9 < 불안정 41.8, 16.9%p 2019년 대비 안정 11.4%p 증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2020년 높다 40.8 > 낮다 15.4, 25.4%p 2019년 높다 34.5 > 낮다 19.5, 15.0%p 2019년 대비 높다 6.3%p 증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외요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47.8), 북한의 체제불안(37.3) 등의 순 2019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40.8) 7.0%p 증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내요인	국내 경제의 불안(49.4), 국내 정치의 불안(46.7) 등의 순 2019년 대비 국내 경제의 불안(48.1) 1.3%p 증가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33.2), 남북 교류 협력 확대(30.7) 등의 순 2019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40.1) 6.9%p 감소, 남북 교류 협력(20.8) 9.9%p 증가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미국 85.0 > 중국 9.5, 일본 4.5, 러시아 0.6 2019년 미국(76.8) 대비 8.2%p 증가, 그 외 국가들 감소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미국 46.8 > 중국 39.2 > 일본 11.3 > 러시아 1.8 2019년 대비 미국(49.6) 2.8%p 감소, 중국(29.0) 10.2%p 증가

전반적 안보 상황이 안정 36.3% > 불안정 29.3%, 6.9% 차

- 전반적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다’는 의견은 36.3%로 ‘불안정하다’는 의견 29.3% 대비 6.9%p 차로 높음, 2017년 대내 정치적 문제와 대외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이후에 최근 3년 동안 안정과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등락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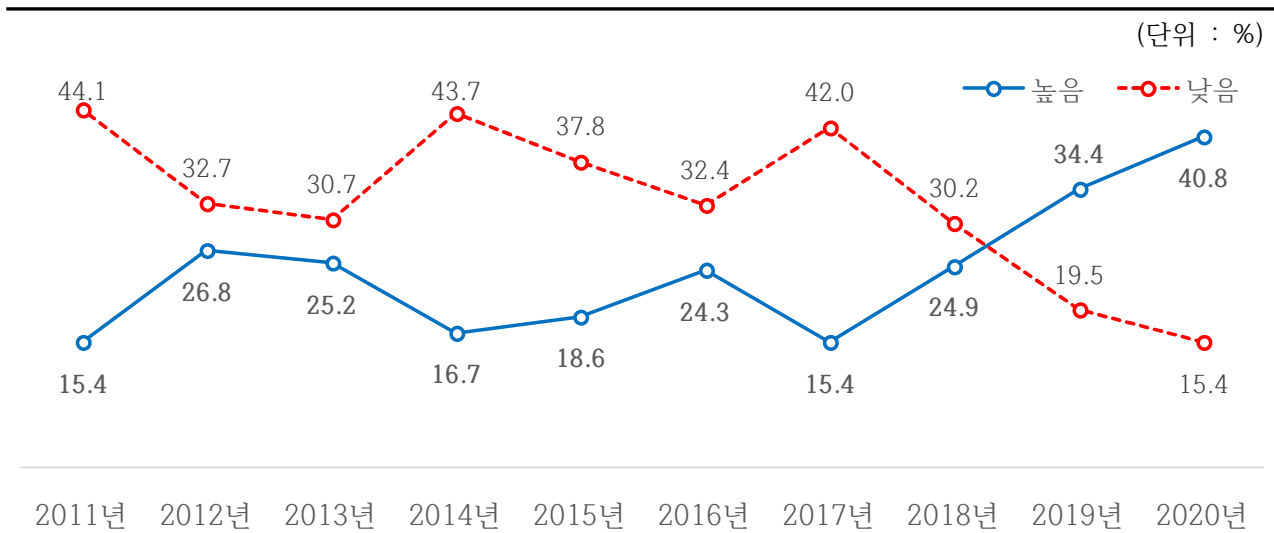
[그림2-1. 한국의 전반적 안보 상황]



2017년 이후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상승 추세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40.8%로 ‘낮다’ 15.4% 대비 25.4%p 차이로 높았으며, ‘높다’는 인식의 경우 2011년과 2017년 각 15.4%로 가장 낮았지만,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2-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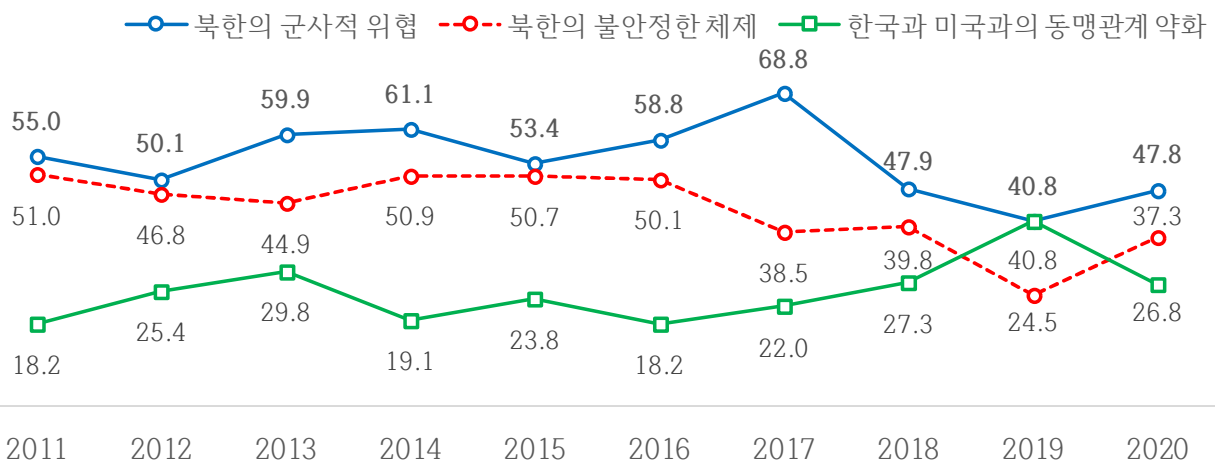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47.8%)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외요인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위협 47.8%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열적으로 2011년 이후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3가지의 주요 요인들의 수치는 2018년의 수준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남

[그림2-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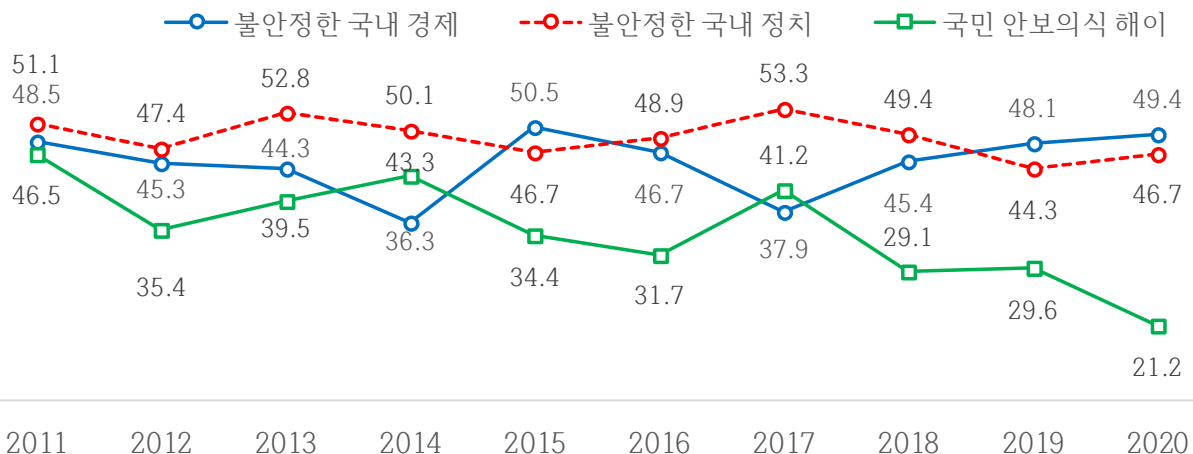


불안정한 국내 정치·경제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내요인

-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내요인으로 불안정한 국내 경제와 정치가 비슷한 수준에서 높았음
특히, 국내 경제의 경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국내 정치의 경우 2017년 가장 높은 요인이었지만 이후 하락하다 2020년 반등함

[그림2-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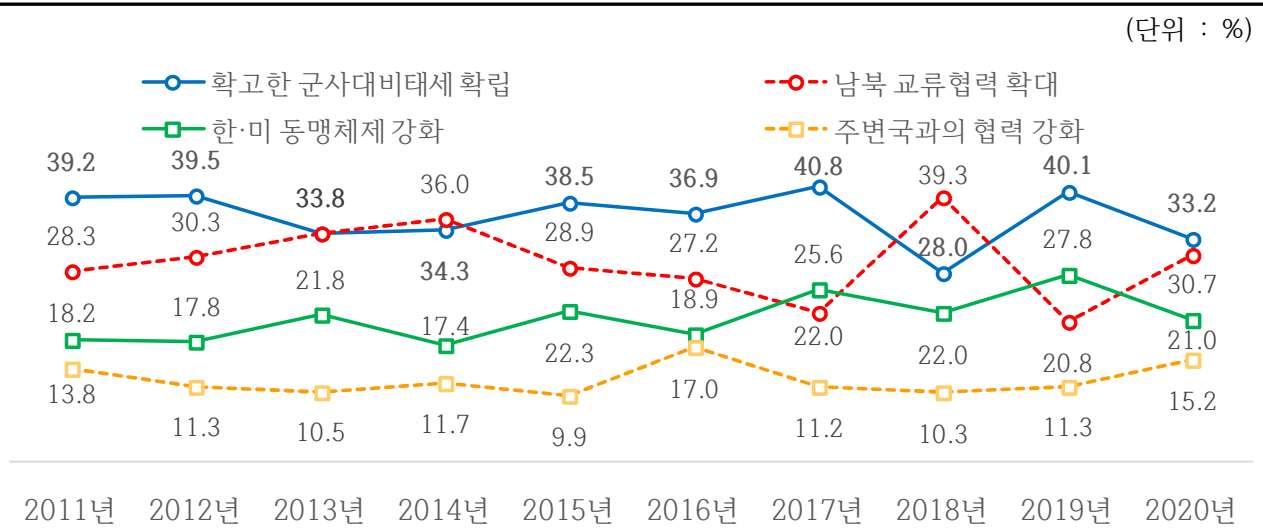
(단위 : %)



안보위협 요인 감소를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 필요

- 전반적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0년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2018년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6.9%p 감소한 반면,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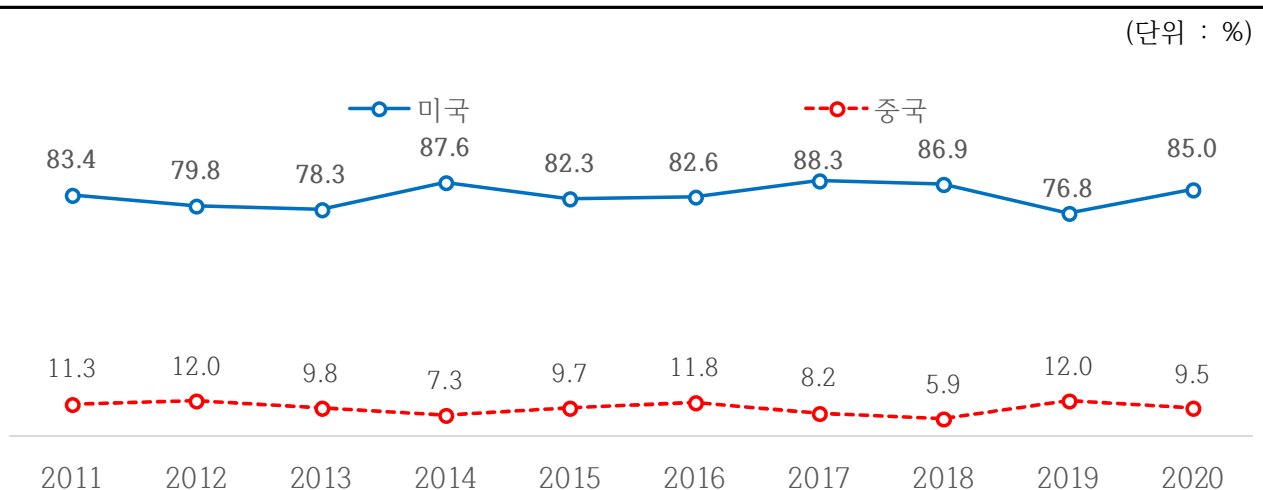
[그림2-5.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미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 85.0%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9.5%로 다음으로 높음(일본과 러시아는 수치가 낮아 표시하지 않음)

[그림2-6.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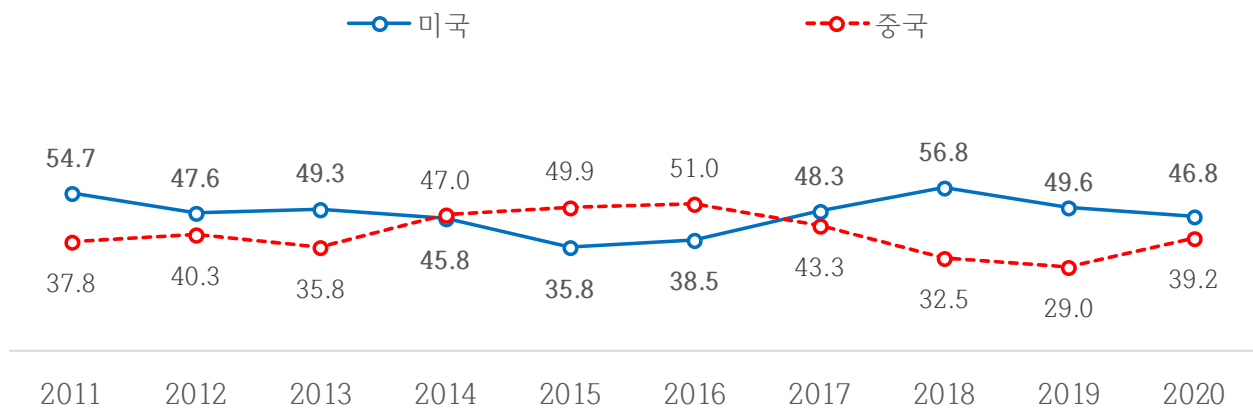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 46.8%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 46.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39.2%로 높아 두 국가가 양분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2019년 대비 10.2%p 상승하여 그 중요도가 증가함

[그림2-7.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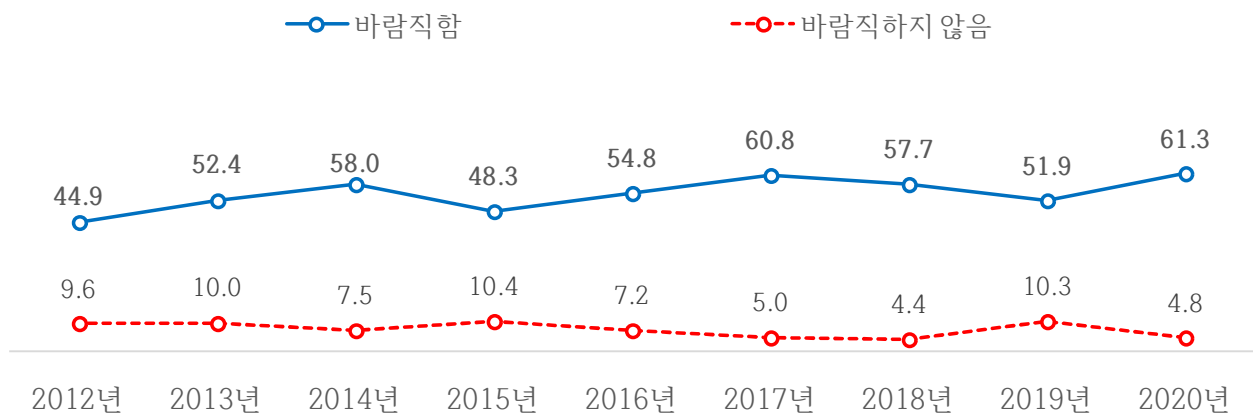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바람직 61.3% > 바람직하지 않음 4.8%, 56.6%p 차

- 우리국민의 과반수는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상승추세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

[그림2-8.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단위 : %)



2.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현재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51.0%로 불편(9.0%) 대비 42.0%p 높았으며 전년대비 5.3%p 증가한 수치임
- 현재 국민 과반수는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발전에 있어 저해하는 요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37.2%) 생각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75.2%로 중요하지 않다(2.7%) 대비 72.5%p 차이로 높기는 하지만, 그 중요도는 전년 대비 4.9%p 감소하였음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시 한국이 우위라는 의견은 40.0%로 북한 우위 19.2% 대비 20.8%p 높았으며 전년도와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지만 2.7% 증가함
- 주한미군 주둔 시기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33.5%)와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31.4%)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에서 높았음
-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5.7%로 필요하지 않다 7.2% 대비 58.5%p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4.0%p 감소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46.1%로 증가할 것 14.6% 대비 31.5%p 높았으며 전년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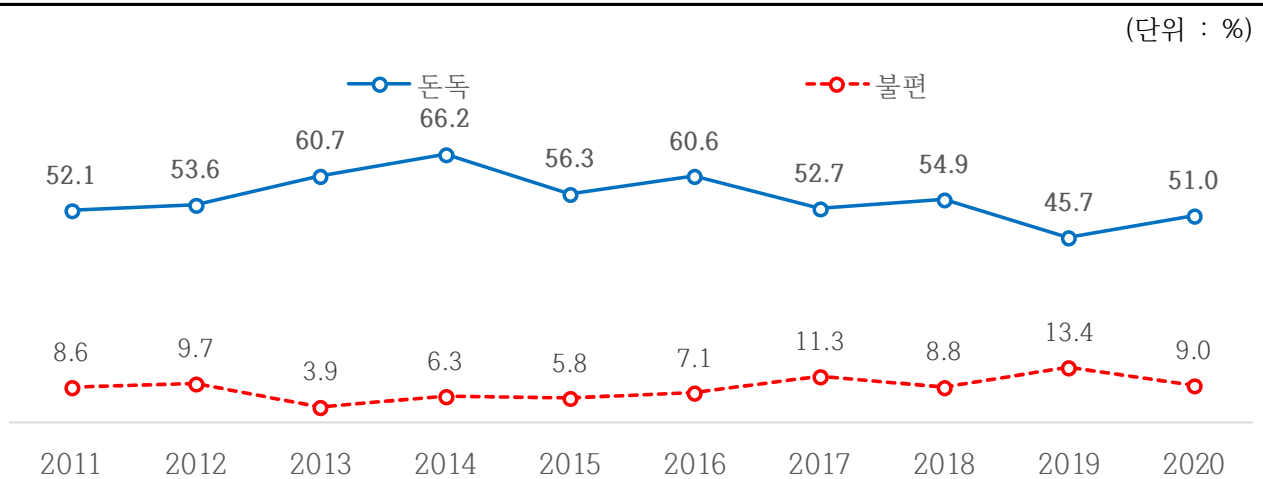
(단위 : %)

문 항	결 과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2020년 돈독 51.0 > 불편 9.0, 42.0%p 2019년 돈독 45.7 > 불편 13.4, 32.3%p 2019년 대비 돈독 5.3%p 증가
한·미동맹관계 발전의 저해요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37.2),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30.0),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29.5) 등의 순 2019년 대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30.2) 7.0%p 증가
주한미군의 중요성	2020년 중요 75.2 > 중요하지 않음 2.7, 72.5%p 2019년 중요 80.1 > 중요하지 않음 1.8, 78.3%p 2019년 대비 중요 4.9%p 감소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2020년 한국 우위 40.0 > 북한 우위 19.2, 20.8%p 2019년 한국 우위 37.3 > 북한 우위 25.8, 11.5%p 2019년 대비 한국 우위 2.7%p 증가
주한미군 주둔 시기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33.5),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31.4) 등의 순 2019년 대비 각 4.3%p, 3.2%p 감소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필요성	2020년 필요 65.7 > 필요 없다 7.2, 58.5%p 2019년 필요 69.7 > 필요 없다 4.0, 65.8%p 2019년 대비 필요 4.0%p 감소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 변화	2020년 감소 46.1 > 증가 14.6, 31.5%p 2019년 감소 48.4 > 증가 13.5, 34.9%p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 2.4%p 감소

현재의 한·미동맹관계는 돈독 51.0% > 불편 9.0%, 42.0%p 높음

- 현재의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하다는 의견은 51.0%로 불편하다 9.0% 대비 42.0%p 높았으며, 전년 45.7% 대비 5.3%p 상승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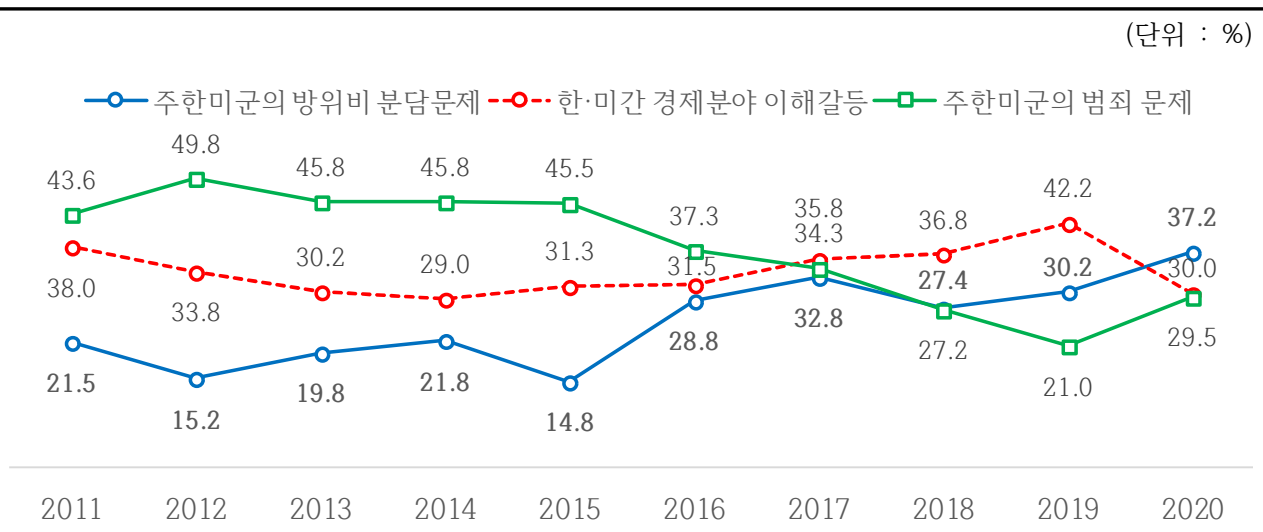
[그림2-9.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한·미동맹관계 저해요인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문제(37.2%)

- 2018년 이후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방위비 분담문제가 상승추세를 타면서 올해 조사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경제분야 이해갈등은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함, 주한미군의 범죄문제의 경우 201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함

[그림2-10.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기준, 상위 3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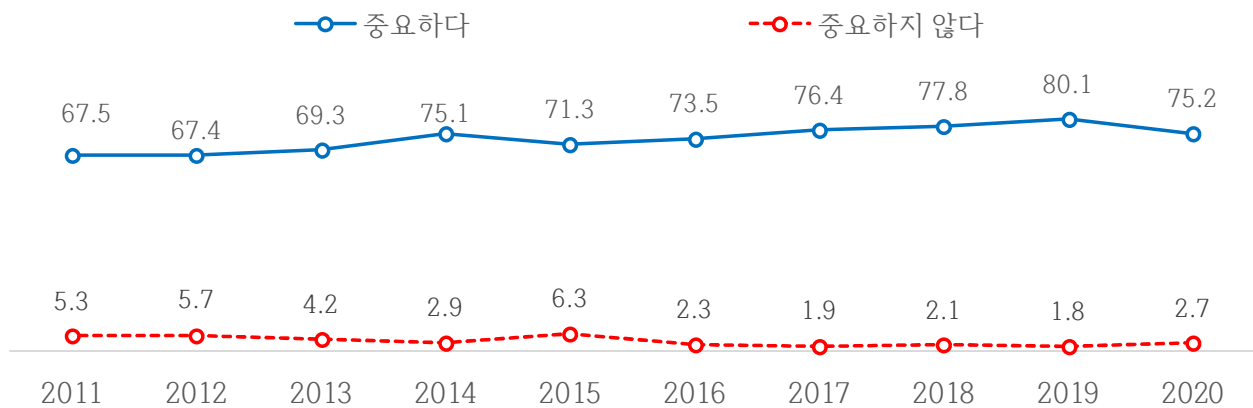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있어 중요 75.2% > 비중요 2.7%, 72.5% 차

-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은 75.2%로 중요하지 않다 2.7%p 대비 72.5%p 차이로 높음,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4.9%p 하락함

[그림2-11.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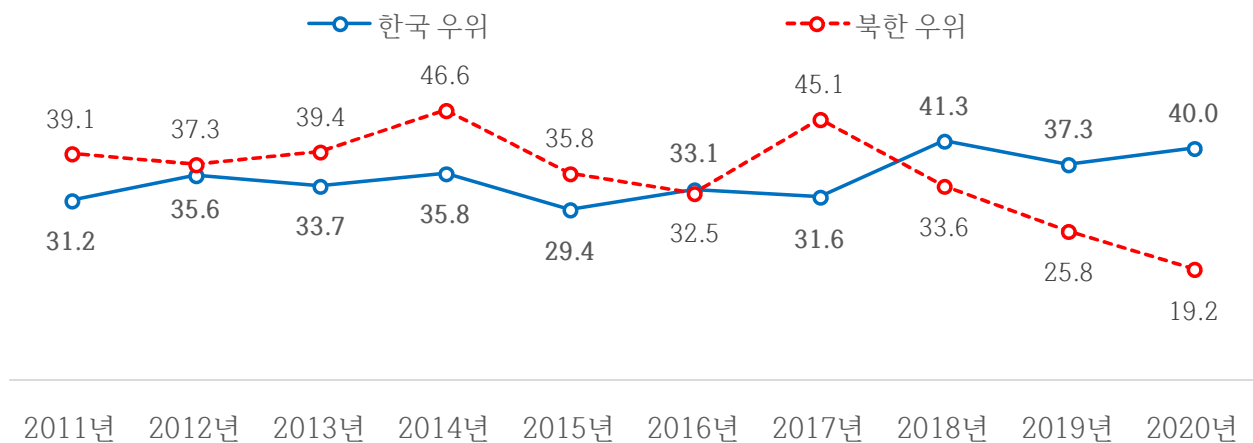


주한미군 제외 시 군사력은 한국 우위 40.0% > 북한 우위 19.2%, 20.8%p 차

- 2010년 이후 주한미군을 제외한 군사력 비교 시 한국이 우위라는 의견은 상승 추세인 반면, 북한이 우위라는 의견은 하락 추세임, 특히 북한이 우위라는 의견은 2017년을 기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 우위는 상승함

[그림2-12.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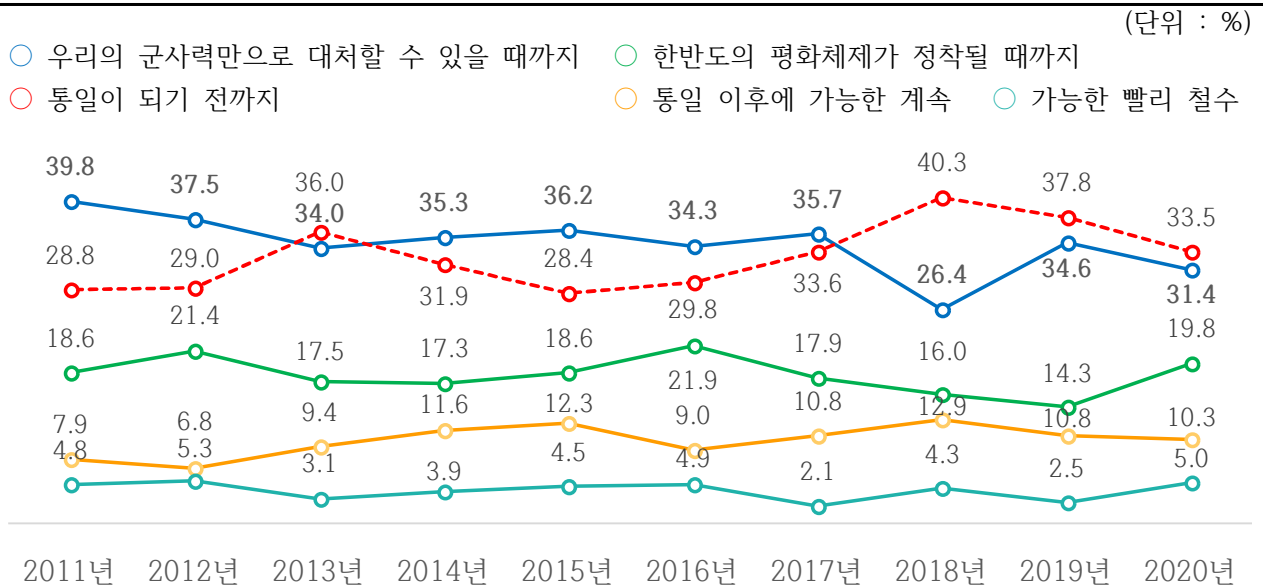
(단위 : %)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33.5%) ≒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31.4%)

- 주한미군 주둔시기에 대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락하였음,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임(5.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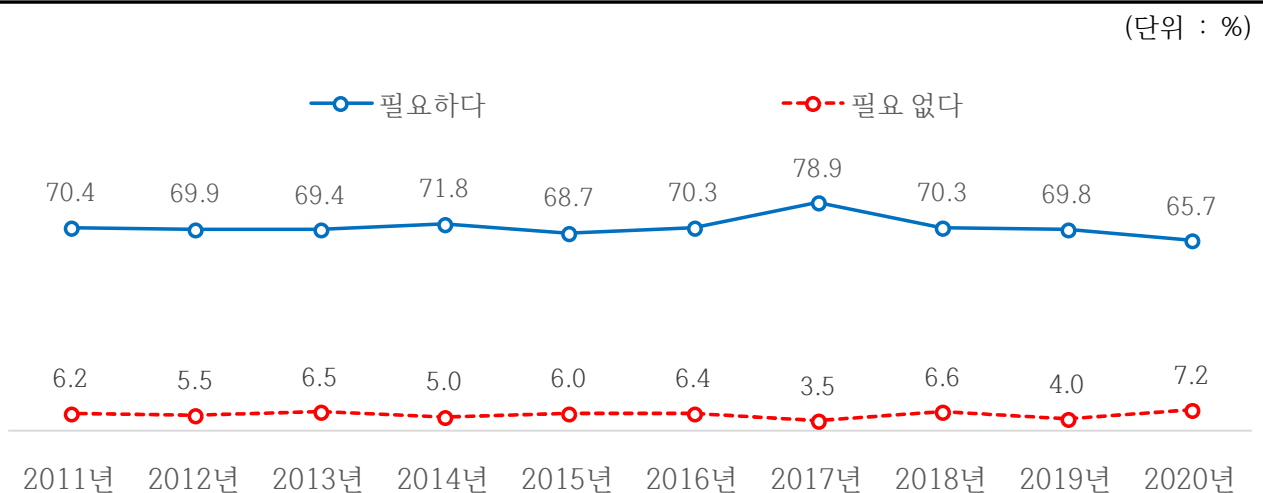
[그림2-13. 주한미군 주둔시기]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은 필요 65.7% > 필요 없다 7.2%, 58.5%p 차

- 한·미연합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은 7.2% 대비 58.5%p 높음, 필요하다는 의견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시 4.0%p 감소하였는데,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음

[그림2-14.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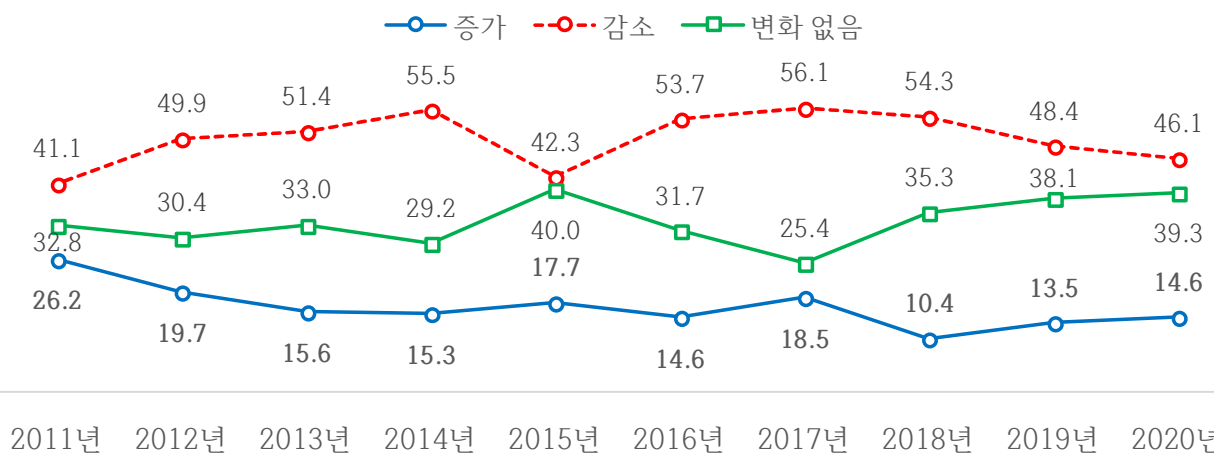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은 감소할 것 46.1%

-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46.1%로 다른 의견보다 아직 높지만, 2017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음,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둘의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2-15.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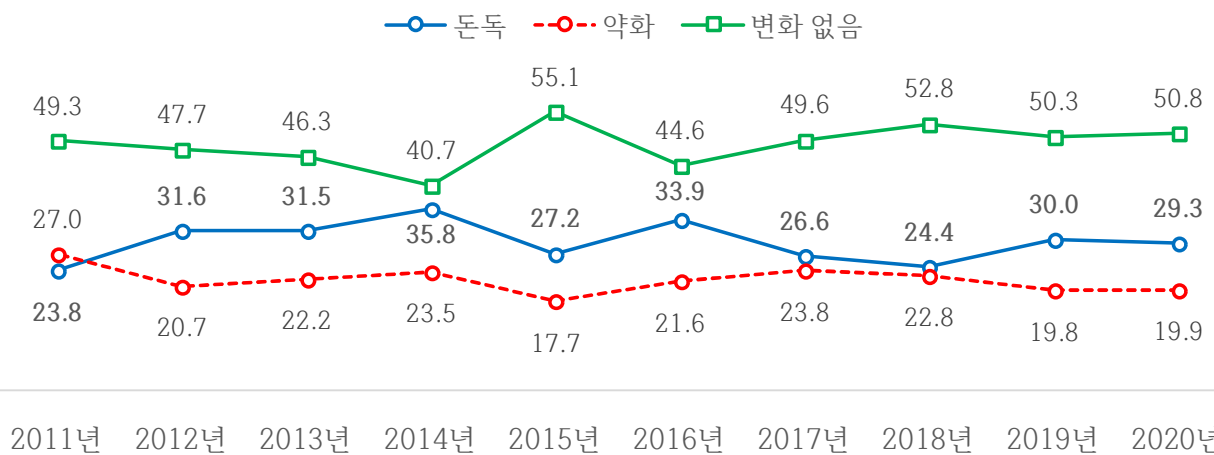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미동맹은 변화 없음 50.8%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미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5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2-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단위 : %)



3. 북한 관련 사항

- 북한 정권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의견은 45.5%로 가장 높았으며 협력 대상이라는 의견(30.2%) 대비 15.3%p 높음. 전년(36.4%)과 비교 시 9.1%p 증가
- 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의견(23.2%) 대비 15.7%p 높음, 전년(42.0%)과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3.2%p 감소
-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 높음(30.3%)과 낮음(33.8%)은 3.4%p 차이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47.8%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3% 대비 28.5%p 차이로 높음,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전년 47.3%와 비슷한 수준임(0.5%p 차)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은 71.7%로 위협이 안된다는 6.2% 대비 65.5% 차이로 높음, 위협이 된다는 전년 66.8%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4.9%p 증가함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지원을 더 얻기 위함이라는 의견은 24.3%로 높았음, 체제 보장이라는 의견은 전년 40.2%와 비슷한 수준임(0.5%p 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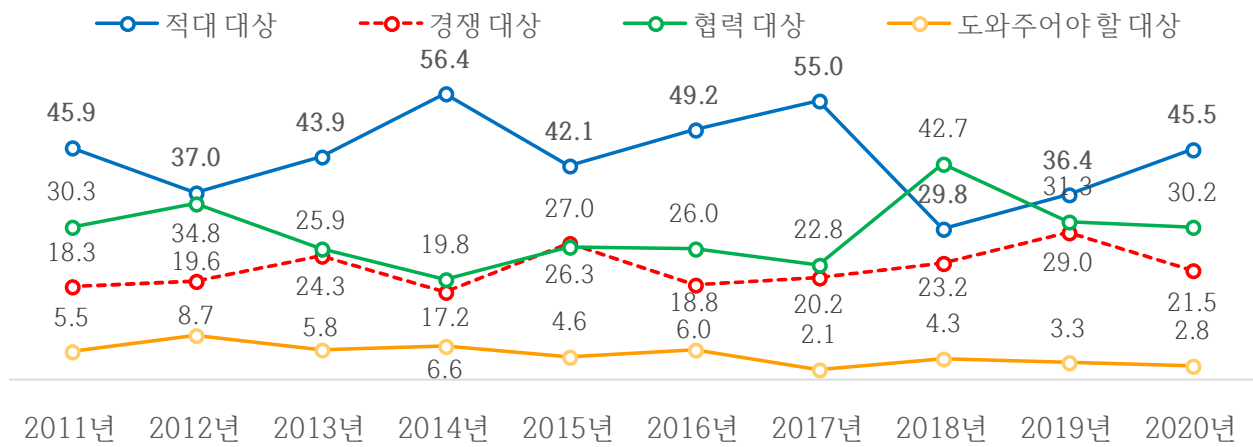
문 항	결 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45.5) > 협력 대상(30.2) 2019년(36.4%) 대비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의견은 9.1%p 증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38.8) > 적대 대상(23.2) 협력해야 할 대상 기준, 2019년 42.0% 대비 3.2%p 감소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무력 도발 가능성	2020년 높음 30.3 ≒ 낮음 33.8, 3.4%p 차 2019년 높음 35.6 > 낮음 29.1, 6.5%p 차 높음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5.3%p 감소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2020년 영향 47.8 > 영향을 주지 않음 19.3, 28.5%p 차 2019년 영향 47.3 > 영향을 주지 않음 20.5, 26.8%p 차 영향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0.5%p 상승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	2020년 위협 71.7 > 위협 안됨 6.2, 65.5%p 차 2019년 위협 66.8 > 위협 안됨 8.6, 58.2%p 차 위협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4.9%p 증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39.8),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24.3) 등의 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은 2019년 40.2%와 비슷한 수준(0.5%p 차)

북한 정권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45.5%

- 북한 정권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8년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2018년 이후 증가 중인 반면, 협력 대상이라는 의견은 감소 중)

[그림2-17.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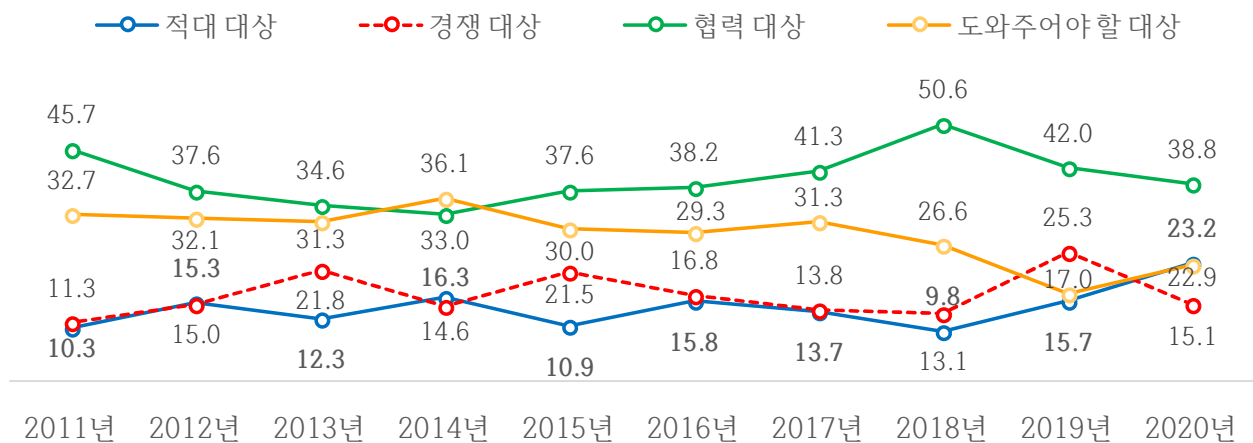


북한 주민은 협력 대상 38.8%

- 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 중에 있으며, 정권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증가 중에 있음

[그림2-18.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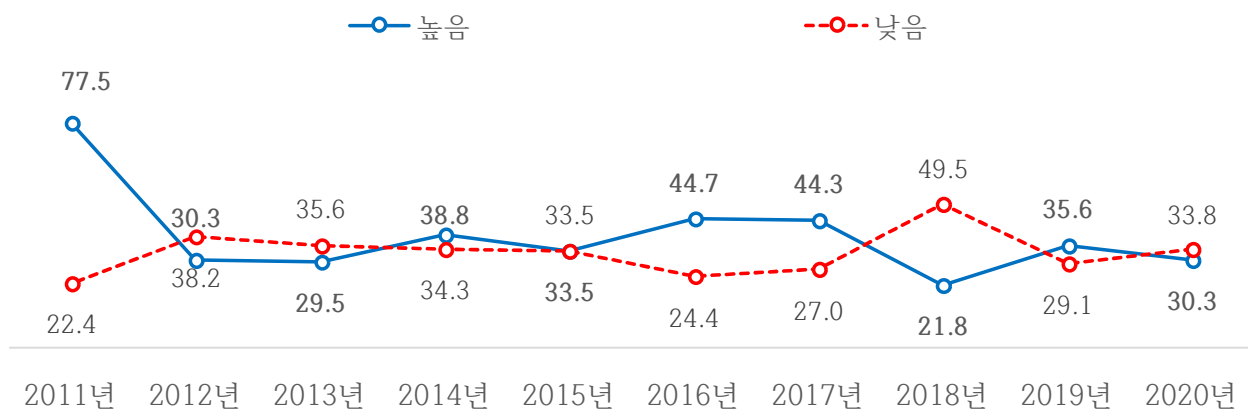


김정은 체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낮음 33.8% ≒ 높음 30.3%

-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높고 낮음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님, 하지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증가하였으며, 낮다는 응답은 감소하였음

[그림2-19. 향후 2~3년 내에 김정은 체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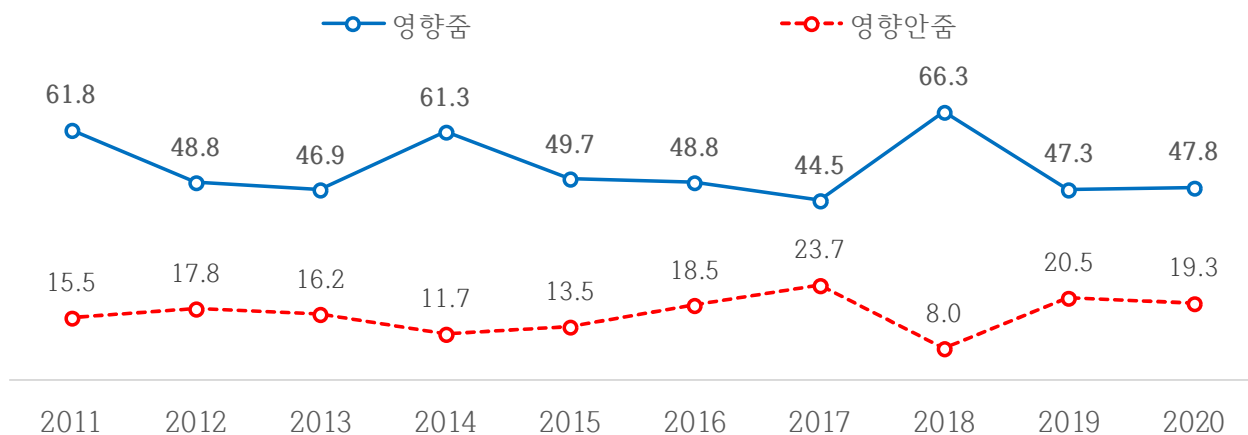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 47.8% > 영향 없음 19.3%, 28.5%p 차

- 남북한 교류·협력이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시계열적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18년의 경우 특이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그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2-20.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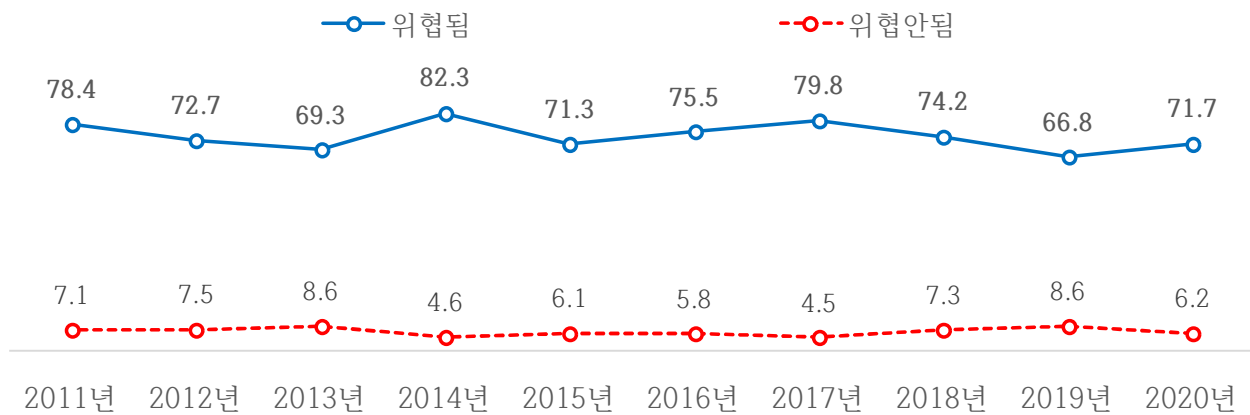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 개발은 한국 안보에 위협 71.7% > 위협 안됨 6.2%, 65.5%p 차

-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71.7%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6.2% 대비 65.5%p 높게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시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4.9%p 상승하였지만 2010년과 비교시 11.8%p 감소하였음

[그림2-21.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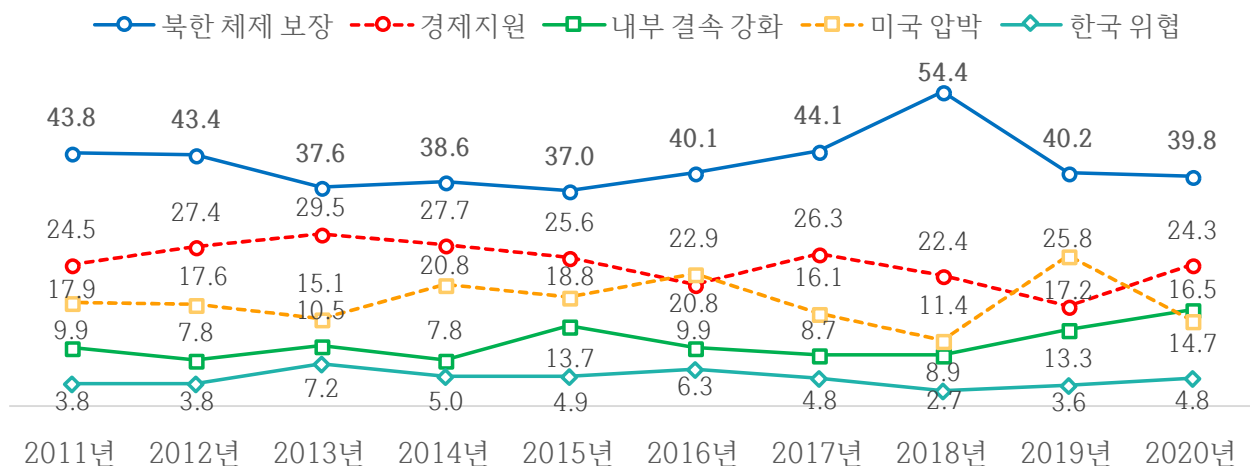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는 북한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39.8%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가 북한 체제의 보장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으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전년과 비교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증가)과 미국 압박(감소)을 위해 보유한다는 응답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그림2-22.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단위 : %)



4.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 선호하는 병역제도로 국민개병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모병제 도입,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31.8%보다 32.0%p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국민개병제의 경우 13.9%p 감소, 모병제의 경우 9.5%p 증가함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 들었다는 의견이 50.3%로 늘어났다는 의견 10.9% 대비 39.4% 차이로 높았으며,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줄어 들었다는 의견은 2.5%p, 늘어났다는 의견은 0.5%p 감소하였지만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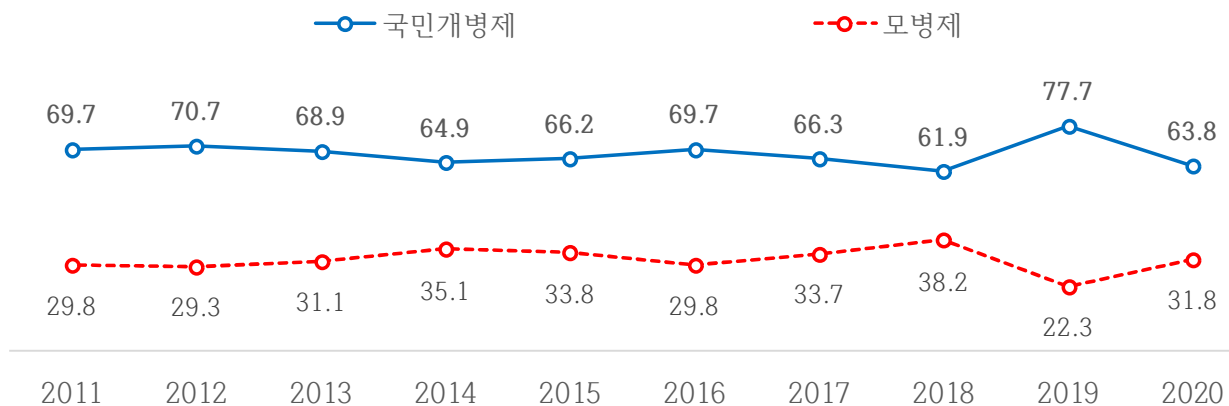
문 항	결 과
선호하는 병역제도	2020년 국민개병제 63.8 > 모병제 31.8, 32.0%p 차 2019년 국민개병제 77.7 > 모병제 22.3, 55.4%p 차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은 2019년 대비 13.9%p 감소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	2020년 줄어듦 50.3 > 늘어남 10.9, 39.4%p 차 2019년 줄어듦 47.8 > 늘어남 11.4, 36.4%p 차 줄어 들었다는 의견은 2019년 대비 2.5%p 감소

선호하는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 63.8% > 모병제 31.8%, 32.0%p 차

- 병역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개병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63.8%)이 모병제 도입,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31.8%)보다 32.0%p 차로 높은 가운데 시계열적으로는 전년 대비 국민개병제에 대한 선호는 감소, 모병제에 대한 선호는 증가함

[그림2-23. 선호하는 병역제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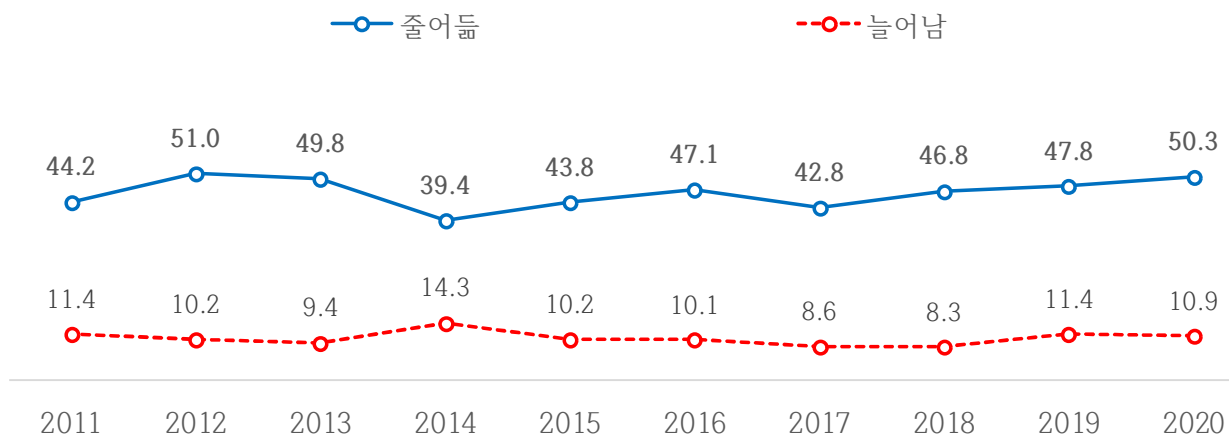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듦 50.3% > 늘어남 10.9%, 39.4%p 차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은 줄어듦이라는 의견(50.3%)이 늘어남이라는 의견(10.9%)보다 높게 나타남, 시계열적으로는 전년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014년 이후 줄어듦이라는 의견은 증가 추세인 반면 늘어남이라는 의견은 과거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림2-24.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단위 : %)



5.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57.1%로 신뢰하지 않는다(39.4%) 대비 17.7%p 높았으며 전년과 비교 시 9.9%p 증가함,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임(42.5%)
- 우리나라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64.7%로 신뢰하지 않는다(33.2%) 대비 31.5%p 높았으며 신뢰도는 전년대비 7.7%p 증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임(53.8%)
- 군 전력증강 사업이 공정하지 않다는 51.8%로 공정하다(41.6%) 대비 10.2%p 차이로 높으며, 공정하지 않다는 전년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공정하다는 5.7%p 증가
- 국방비 사용이 비효율적이라는 48.7%로 효율적이다 44.2% 대비 4.5%p 높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7.1%p 감소함
- 한국의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30.6%는 줄여야 한다는 15.6% 대비 15.0%p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34.7% 대비 4.1%p 감소
-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가 34.2%로 가장 높음, 전년도 23.8% 대비 10.4% 증가함
-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찬성한다는 73.0%로 반대 6.2% 대비 66.8%p 차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57.3% 대비 15.7%p 증가함
-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29.1%로 축소해야 한다 10.8% 대비 18.3% 차로 높으며 전년 34.4% 대비 5.3%p 감소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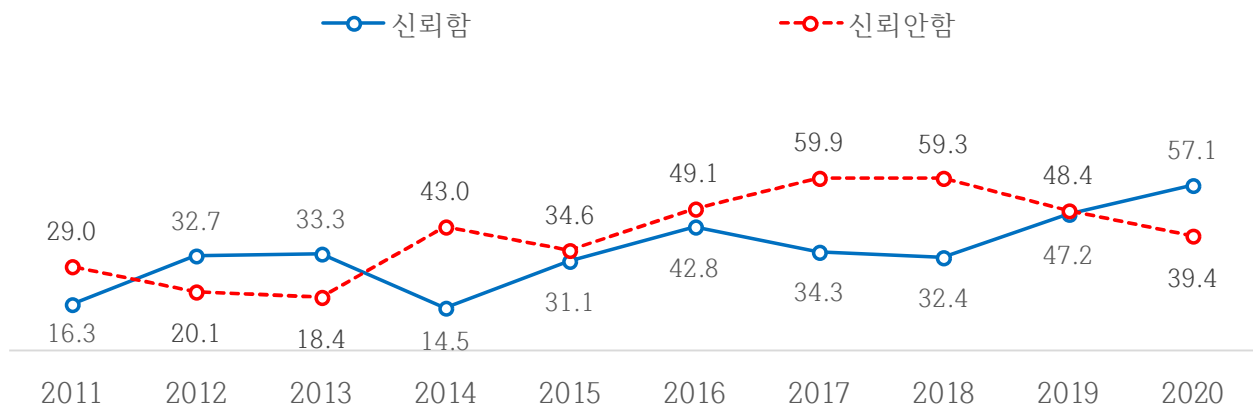
문 항	결 과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2020년 신뢰 57.1 > 신뢰하지 않음 39.4, 17.7%p 차 2019년 신뢰 47.2 > 신뢰하지 않음 48.4, 1.2%p 차 2019년 대비 신뢰 9.9%p 증가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45.2 2019년 27.0 대비 18.2%p 증가함
우리나라 군에 대한 신뢰도	2020년 신뢰 64.7 > 신뢰하지 않음 33.2, 31.5%p 차 2019년 신뢰 57.0 > 신뢰하지 않음 38.9, 18.1%p 차 2019년 대비 신뢰 7.7%p 증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53.8 2019년 47.5 대비 6.3%p 증가함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2020년 공정하지 않음 51.8 > 공정 41.6, 10.2%p 차 2019년 공정하지 않음 53.8 > 공정 35.9, 17.9%p 차 2019년 대비 공정하지 않음 2.1%p 감소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2020년 비효율적 48.7 > 효율적 44.2, 4.5%p 차 2019년 비효율적 55.8 > 효율적 35.1, 20.7%p 차 2019년 대비 비효율적이다 7.1%p 감소
한국의 국방비 수준	2020년 늘려야 함 30.6 > 줄여야 함 15.6, 15.0%p 차 2019년 늘려야 함 34.7 > 줄여야 함 10.4, 24.3%p 차 2019년 대비 늘려야 함 4.1%p 감소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첨단무기체계 확보 34.2%, 2019년 대비 10.4%p 증가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찬반	2020년 찬성 73.0 > 반대 6.2, 66.8%p 차 2019년 찬성 57.3 > 반대 6.5, 50.8%p 차 2019년 대비 찬성 15.7%p 증가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2020년 확대 29.1 > 축소 10.8, 18.3%p 차 2019년 확대 34.4 > 축소 6.0, 28.4%p 차 2019년 대비 확대 5.3%p 감소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 57.1% > 신뢰안함 39.4%, 17.7%p 차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57.1%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 39.4%보다 높으며, 전년 대비 9.9%p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는 2018년 이후 상승 추세

[그림2-25.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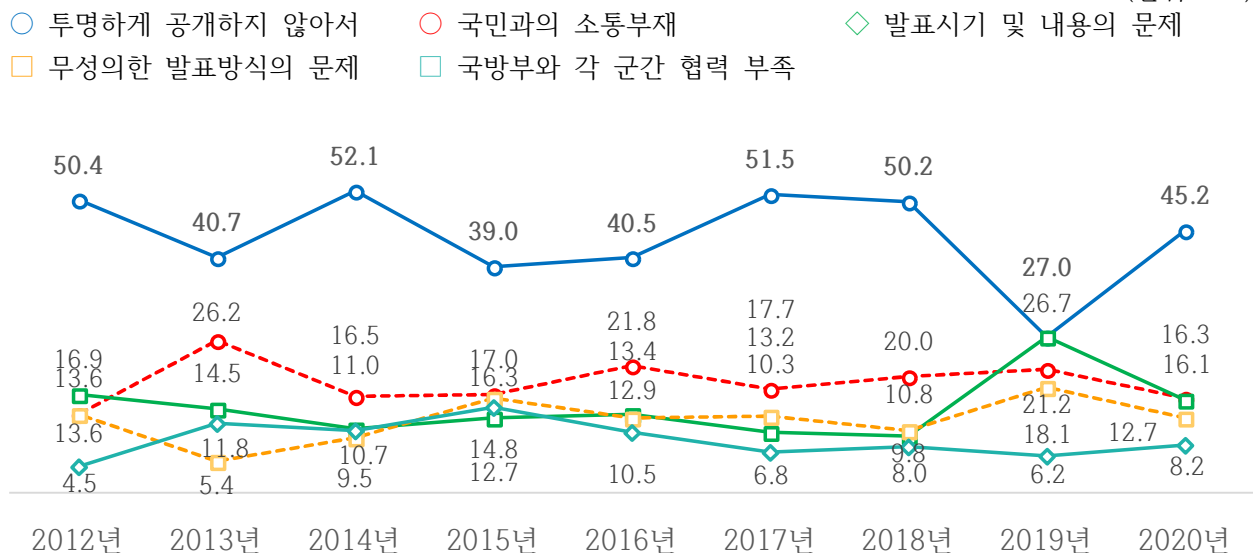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음(45.2%)

-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27.0% 대비 18.2%p 상승한 수치임. 국민과의 소통 부재라는 의견은 16.3%이며 전년 21.2% 대비 4.9%p 감소하였음

[그림2-2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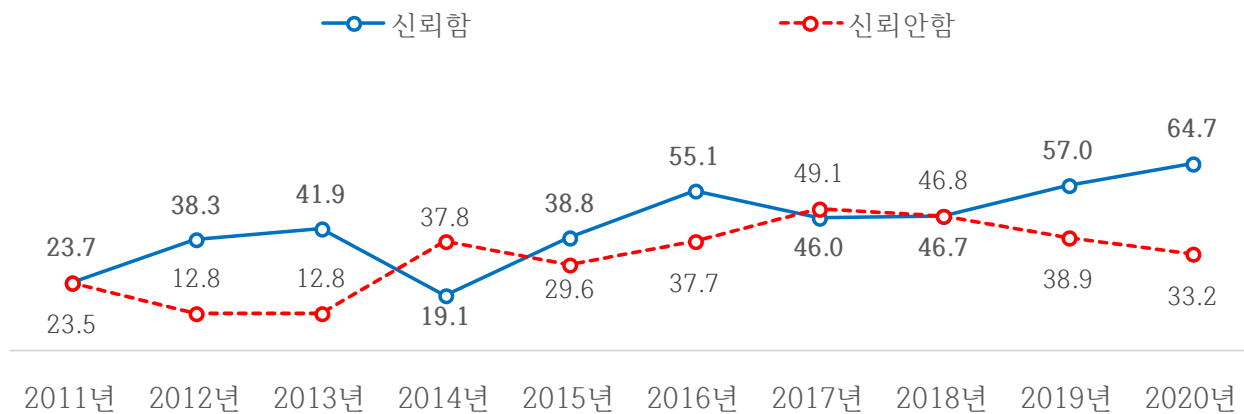


우리나라 군에 대해 신뢰 64.7% > 신뢰안함 33.2%, 31.5%p 차

- 우리나라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64.7%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 33.2%보다 높으며 (31.5%p 차), 전년 대비 7.7%p 상승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그림2-27.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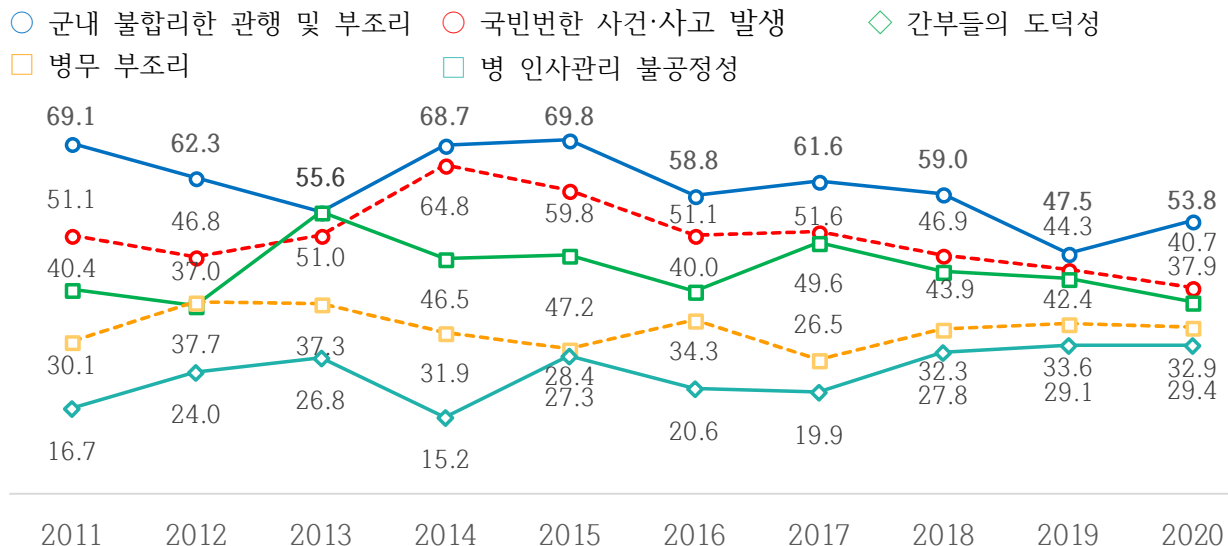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때문에 군을 신뢰하지 않음 53.8%

- 우리나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때문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47.5% 대비 6.3%p 상승한 수치임, 그 외 이유들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

[그림2-28.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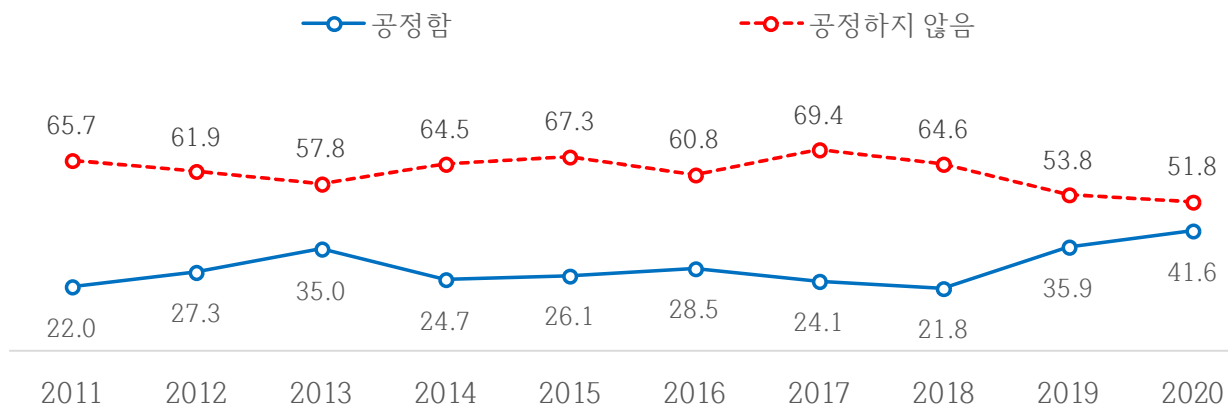


군 전력증강 사업은 공정하지 않게 결정 51.8% > 공정하게 결정 41.6%, 10.2%p 차

-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 사업 추진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응답은 41.6%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51.8% 대비 10.2%p 차이로 낮음,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년 53.8%와 비슷한 수준(2.1%p)이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5.7%p 상승

[그림2-29.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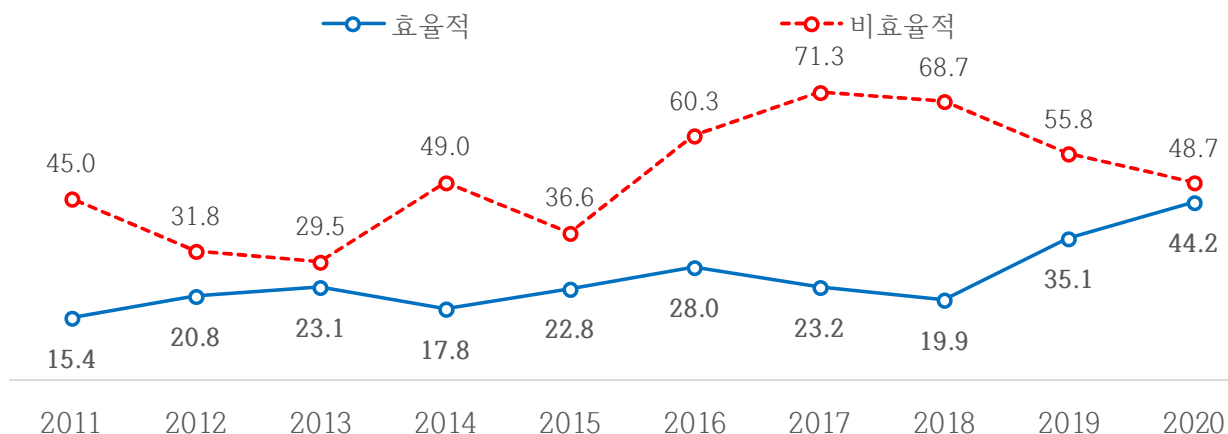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음(48.7%) ≒ 효율적으로 사용(44.2%)

-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48.7%)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44.2%)는 4.5%p 오차범위 이내 차이로 비슷한 수준임
2018년 이후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승,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은 하락 추세임

[그림2-30.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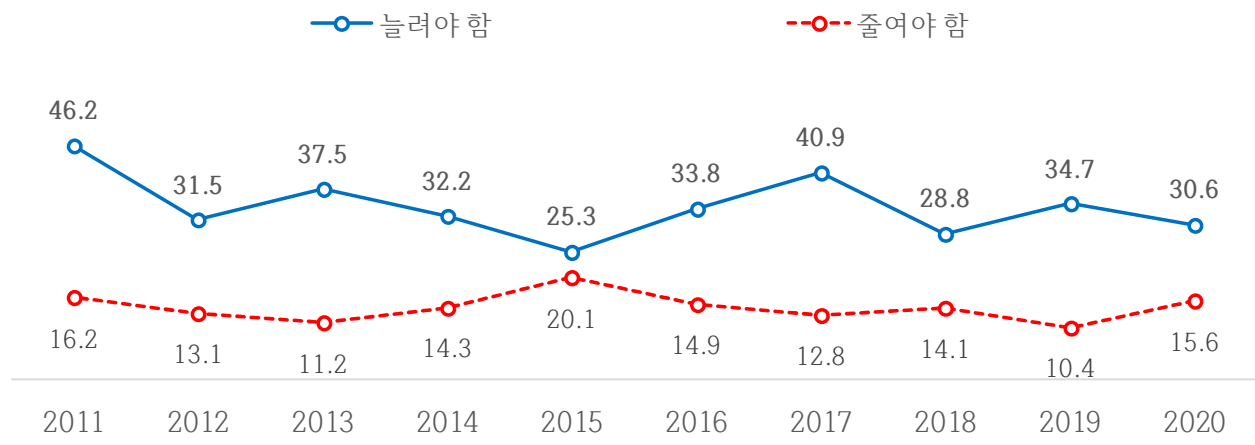


한국의 국방비 수준은 늘려야 함 30.6% > 줄여야 함 15.6%, 15.0%p 차

- 한국의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30.6%)은 줄여야 한다(15.6%)보다 15.0%p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4.1%p 감소한 반면, 줄여야 한다는 5.2%p 증가함

[그림2-31. 한국의 국방비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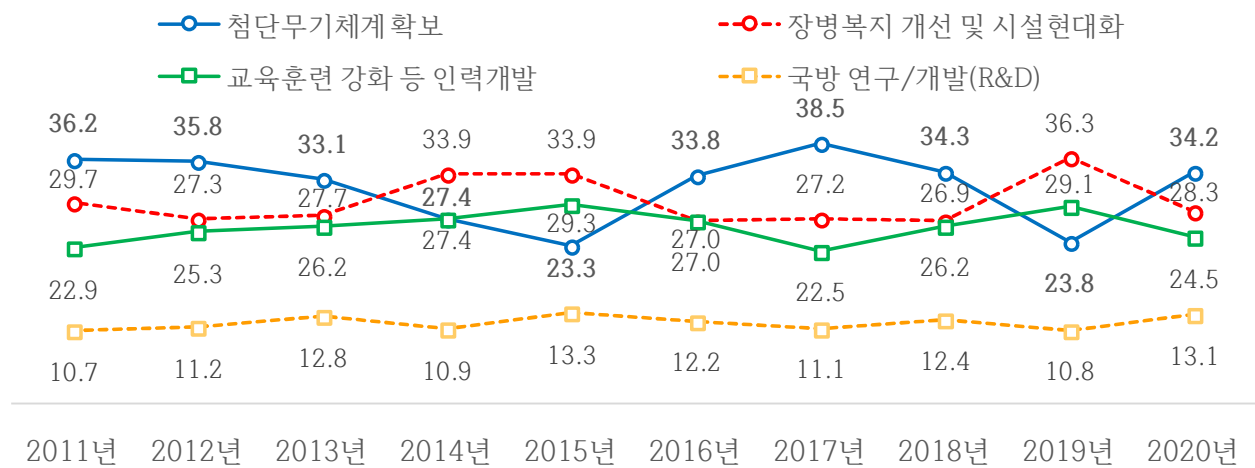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첨단무기체계 확보 34.2%

- 향후 국방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할 분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23.8% 대비 10.4%p 증가한 수치임,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3%로 높았으나 전년 36.3% 대비 8.1%p 감소함

[그림2-32.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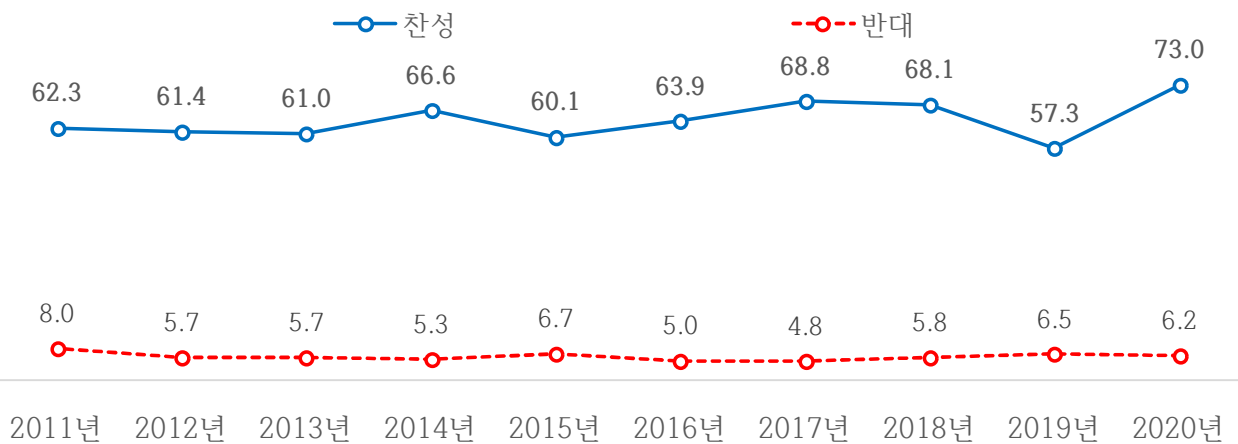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찬성 73.0% > 반대 6.2%, 15.7%p 차

-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년 57.3% 대비 15.7%p 증가한 73.0%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의 경우 전년 6.5%와 비슷한 수준인 6.2%로 나타남

[그림2-33. 한국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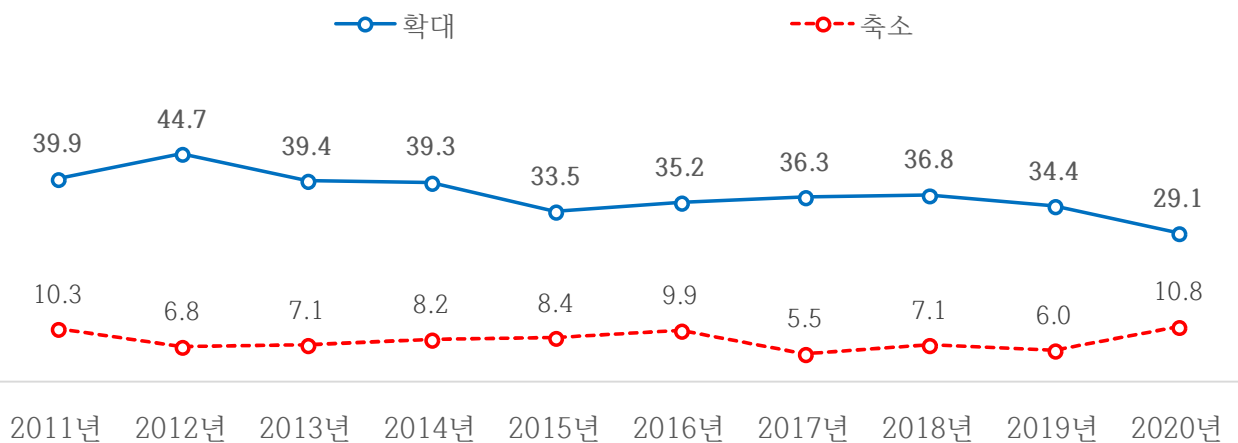


국제평화유지활동 확대 29.1% > 축소 10.8%, 18.3%p 차

-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년 34.4% 대비 5.3%p 감소한 29.1%이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년 6.0% 대비 4.8%p 증가한 10.8%로 나타

[그림2-34.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단위 : %)



III. 세부 조사 결과

1.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 사항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Q.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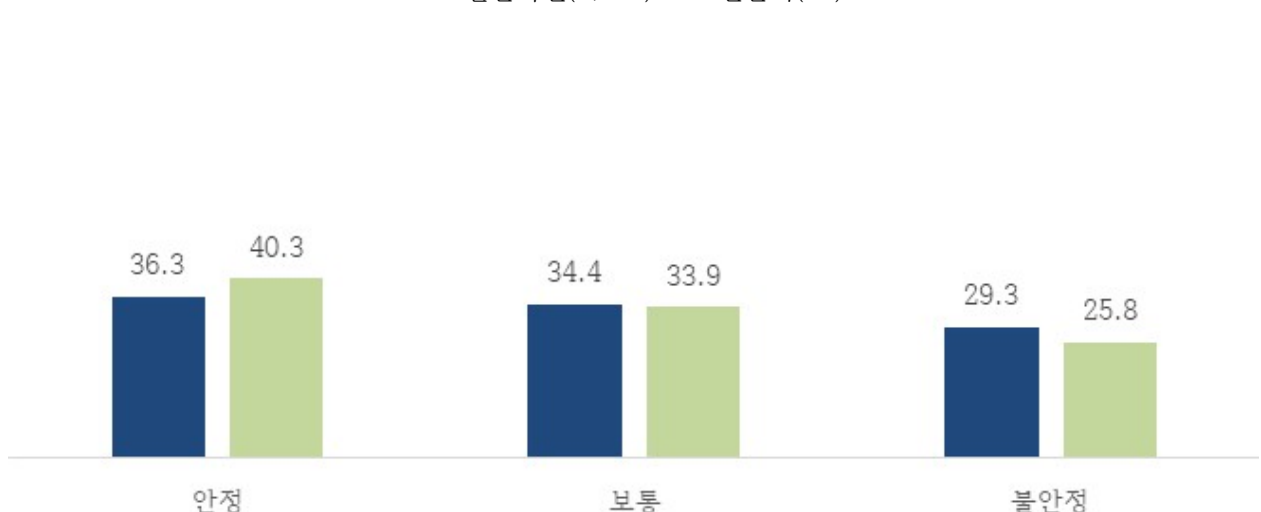
‘안정적’ 의견: 일반국민 36.3%, 전문가 40.3%

- [일반국민]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불안정적’(29.3%)이라는 응답보다 6.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6.3%로 11.4%p(2019년 24.9%) 증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9.3%로 12.5%p(2019년 41.8%) 감소함
- [전문가]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40.3%로, ‘불안정적’(25.8%)이라는 응답보다 14.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40.3%로 15.3%p(2019년 25.0%) 증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5.8%로 21.1%p(2019년 46.9%) 감소함

[그림 3-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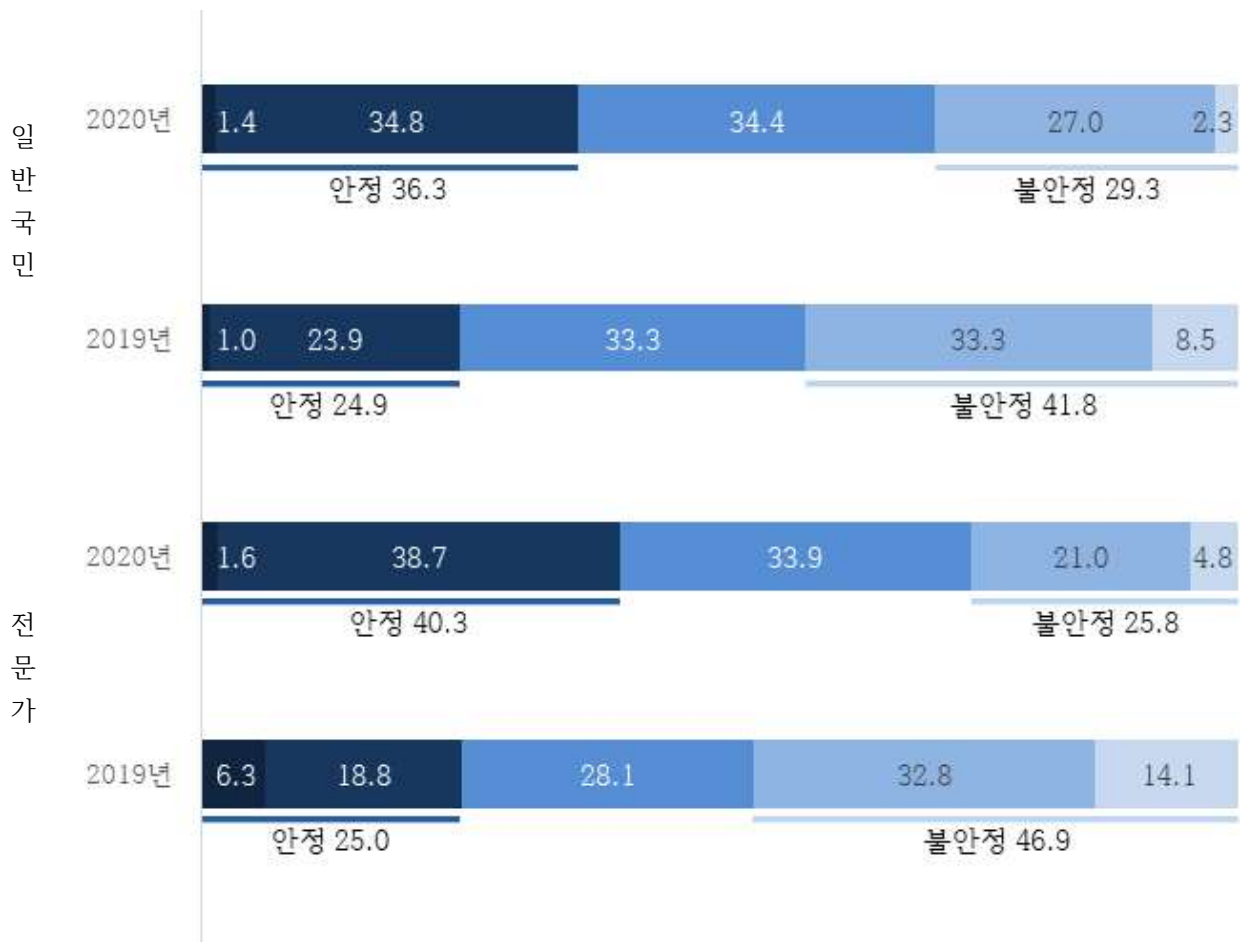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2.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안정적이다 ■ 안정적인 편이다 ■ 보통이다 ■ 불안정한 편이다 ■ 매우 불안정하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안정적 이다	안정 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 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 하다	종합		
								안정	보통	불안정
전체		(1262)	1.4	35.0	34.4	26.7	2.5	36.5	34.4	2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	34.8	34.4	27.0	2.3	36.3	34.4	29.3
	전문가	(62)	1.6	38.7	33.9	21.0	4.8	40.3	33.9	25.8
소속별	대학	(30)	0.0	40.0	36.7	20.0	3.3	40.0	36.7	23.3
	연구소	(32)	3.1	37.5	31.3	21.9	6.3	40.6	31.3	28.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5	44.4	30.3	21.0	1.8	46.9	30.3	22.8
	중	(497)	0.4	28.6	38.6	30.8	1.6	29.0	38.6	32.4
	하	(136)	0.7	17.6	36.0	38.2	7.4	18.4	36.0	45.6
성별	남성	(720)	1.0	35.1	34.2	27.6	2.1	36.1	34.2	29.7
	여성	(480)	2.1	34.4	34.8	26.0	2.7	36.5	34.8	28.8
연령별	18-29세	(303)	1.0	29.0	38.3	28.4	3.3	30.0	38.3	31.7
	30대	(256)	2.3	34.8	36.7	24.2	2.0	37.1	36.7	26.2
	40대	(314)	1.6	39.2	31.5	26.1	1.6	40.8	31.5	27.7
	50대	(327)	0.9	36.1	31.8	28.7	2.4	37.0	31.8	31.2
지역별	서울	(238)	0.8	25.2	41.6	31.1	1.3	26.1	41.6	32.4
	경기/인천	(393)	1.8	38.4	29.3	28.8	1.8	40.2	29.3	30.5
	대전/세종/충청	(128)	0.0	44.5	43.0	11.7	0.8	44.5	43.0	12.5
	광주/전라	(110)	2.7	51.8	30.0	15.5	0.0	54.5	30.0	15.5
	대구/경북	(109)	0.9	33.9	31.2	22.9	11.0	34.9	31.2	33.9
	부산/울산/경남	(175)	1.7	25.1	32.6	38.9	1.7	26.9	32.6	40.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25.5	42.6	25.5	4.3	27.7	42.6	29.8
	대도시	(551)	1.1	30.7	35.9	30.3	2.0	31.8	35.9	32.3
	중소도시	(608)	1.3	38.5	32.9	24.5	2.8	39.8	32.9	27.3
	군지역	(41)	7.3	36.6	36.6	19.5	0.0	43.9	36.6	19.5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39.0	31.9	26.4	1.1	40.7	31.9	27.5
	블루칼라	(351)	0.6	35.0	37.6	25.4	1.4	35.6	37.6	26.8
	화이트칼라	(409)	2.2	31.5	32.8	30.8	2.7	33.7	32.8	33.5
	전업주부	(163)	1.8	38.7	32.5	24.5	2.5	40.5	32.5	27.0
	학생	(69)	0.0	33.3	37.7	21.7	7.2	33.3	37.7	29.0
	무직/기타	(26)	0.0	34.6	38.5	23.1	3.8	34.6	38.5	26.9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	36.7	33.3	26.6	2.3	37.9	33.3	28.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	39.5	34.1	23.5	1.6	40.8	34.1	25.1
	4년제 이상	(535)	1.7	30.8	35.3	29.3	2.8	32.5	35.3	32.1
생활 수준별	상	(137)	2.9	44.5	34.3	16.8	1.5	47.4	34.3	18.2
	중	(700)	1.0	37.9	34.3	24.9	2.0	38.9	34.3	26.9
	하	(363)	1.7	25.3	34.7	35.0	3.3	27.0	34.7	38.3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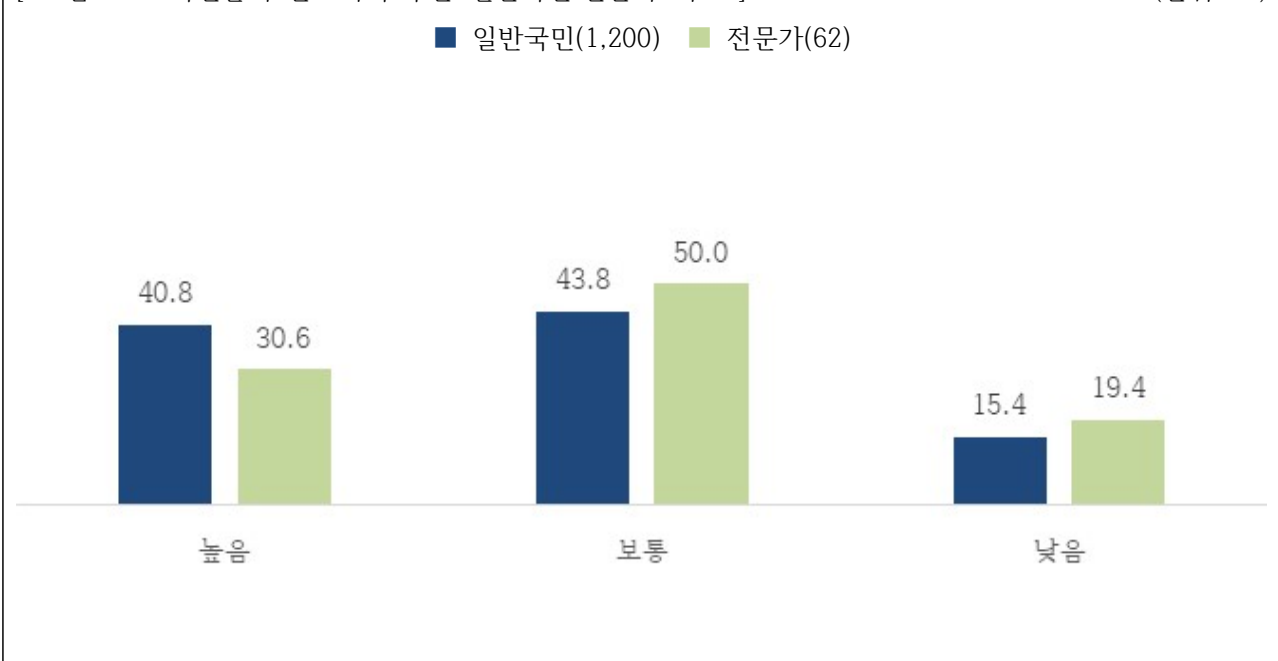
Q.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음’: 일반국민 40.8%, 전문가 30.6%

- [일반국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0.8%로, ‘낮다’(15.4%)는 응답보다 25.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40.8%로 6.4%p(2019년 34.4%)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5.4%로 4.1%p(2019년 19.5%) 감소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높다’는 응답이 30.6%로, ‘낮다’(19.4%)는 응답보다 11.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30.6%로 19.4%p(2019년 50.0%) 감소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9.4%로 0.6%p(2019년 18.8%) 증가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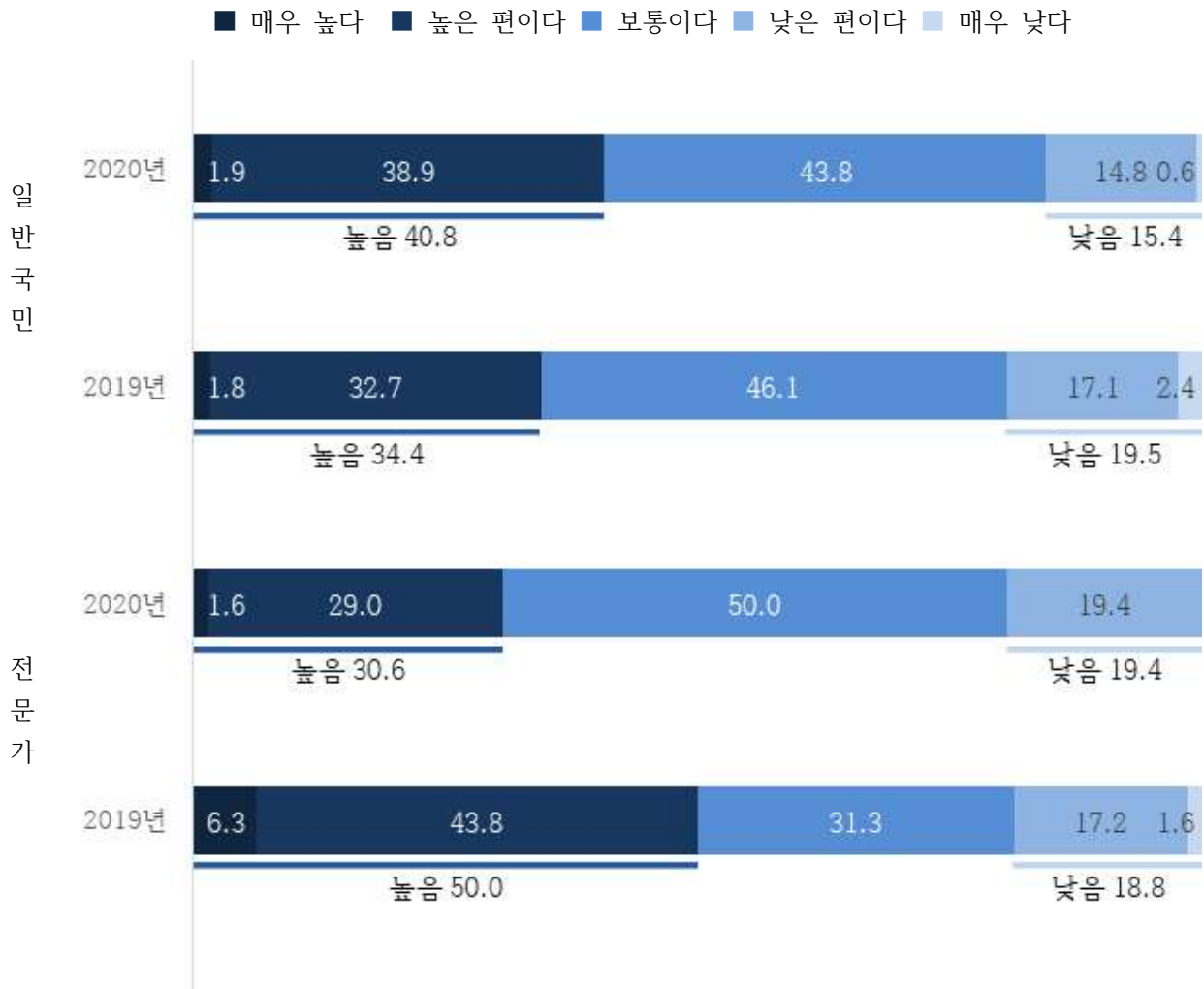
[그림 3-3.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4.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2)	1.9	38.4	44.1	15.1	0.6	40.3	44.1	15.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	38.9	43.8	14.8	0.6	40.8	43.8	15.4
	전문가	(62)	1.6	29.0	50.0	19.4	0.0	30.6	50.0	19.4
소속별	대학	(30)	3.3	30.0	56.7	10.0	0.0	33.3	56.7	10.0
	연구소	(32)	0.0	28.1	43.8	28.1	0.0	28.1	43.8	28.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7	56.6	31.2	7.6	0.9	60.3	31.2	8.5
	중	(497)	0.4	28.0	56.7	14.9	0.0	28.4	56.7	14.9
	하	(136)	0.0	5.1	48.5	44.9	1.5	5.1	48.5	46.3
성별	남성	(720)	2.1	40.3	41.9	14.7	1.0	42.4	41.9	15.7
	여성	(480)	1.7	36.9	46.5	15.0	0.0	38.5	46.5	15.0
연령별	18-29세	(303)	1.7	34.3	44.2	18.8	1.0	36.0	44.2	19.8
	30대	(256)	2.7	38.3	45.3	12.9	0.8	41.0	45.3	13.7
	40대	(314)	1.0	42.0	43.9	13.1	0.0	43.0	43.9	13.1
	50대	(327)	2.4	40.7	41.9	14.4	0.6	43.1	41.9	15.0
지역별	서울	(238)	1.7	30.7	51.3	16.4	0.0	32.4	51.3	16.4
	경기/인천	(393)	2.5	45.8	39.7	11.5	0.5	48.3	39.7	12.0
	대전/세종/충청	(128)	1.6	43.0	46.9	8.6	0.0	44.5	46.9	8.6
	광주/전라	(110)	2.7	62.7	27.3	7.3	0.0	65.5	27.3	7.3
	대구/경북	(109)	0.0	32.1	38.5	25.7	3.7	32.1	38.5	29.4
	부산/울산/경남	(175)	1.1	25.1	54.3	19.4	0.0	26.3	54.3	19.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23.4	42.6	27.7	2.1	27.7	42.6	29.8
	대도시	(551)	2.0	31.6	48.8	17.1	0.5	33.6	48.8	17.6
	중소도시	(608)	1.8	46.4	39.0	12.2	0.7	48.2	39.0	12.8
	군지역	(41)	2.4	26.8	46.3	24.4	0.0	29.3	46.3	24.4
직업별	자영업자	(182)	2.7	46.2	40.7	10.4	0.0	48.9	40.7	10.4
	블루칼라	(351)	0.9	32.8	47.6	17.9	0.9	33.6	47.6	18.8
	화이트칼라	(409)	2.7	39.1	44.0	13.4	0.7	41.8	44.0	14.2
	전업주부	(163)	1.2	44.2	42.9	11.7	0.0	45.4	42.9	11.7
	학생	(69)	1.4	40.6	36.2	20.3	1.4	42.0	36.2	21.7
	무직/기타	(26)	3.8	30.8	34.6	30.8	0.0	34.6	34.6	30.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4	40.1	43.8	14.1	0.6	41.5	43.8	14.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6	39.5	42.4	14.8	0.6	42.1	42.4	15.4
	4년제 이상	(535)	1.9	37.8	44.5	15.3	0.6	39.6	44.5	15.9
생활 수준별	상	(137)	2.9	42.3	44.5	8.8	1.5	45.3	44.5	10.2
	중	(700)	2.3	43.0	41.7	12.7	0.3	45.3	41.7	13.0
	하	(363)	0.8	29.8	47.4	21.2	0.8	30.6	47.4	22.0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Q. 귀하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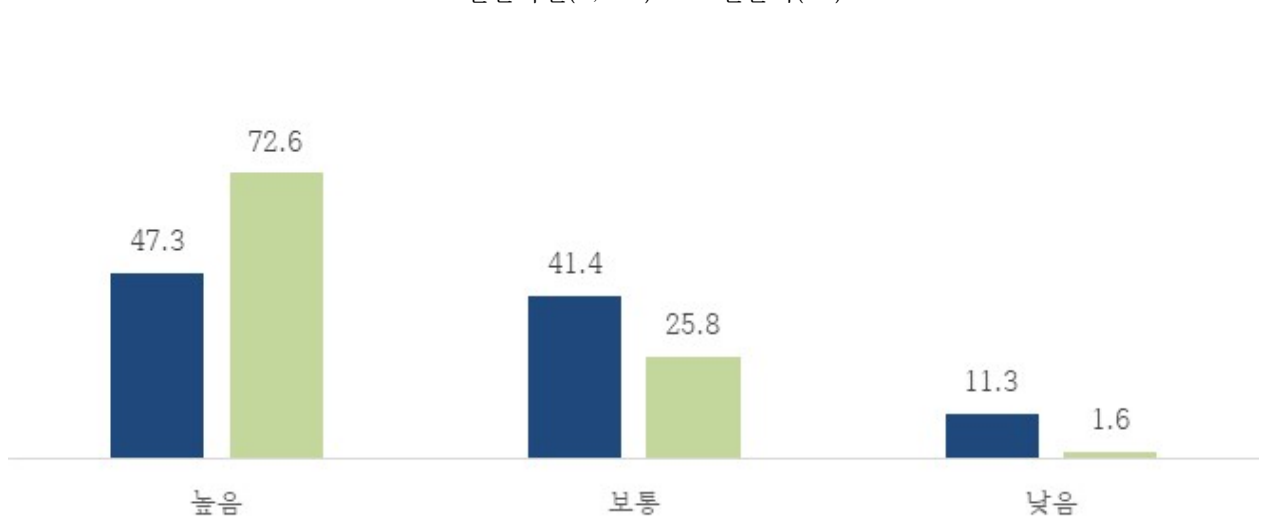
‘높음’: 일반국민 47.3%, 전문가 72.6%

- **[일반국민]**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47.3%로, ‘낮다’(11.3%)는 응답보다 35.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47.3%로 13.3%p(2019년 34.0%)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1.3%로 4.6%p(2019년 15.9%)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높다’는 응답이 72.6%로, ‘낮다’(1.6%)이라는 응답보다 71.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2.6%로 13.3%p(2019년 85.9%) 감소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6%로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3-5.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6.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남성, 지역별로 경기/인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2)	4.0	44.5	40.6	10.4	0.5	48.5	40.6	10.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	43.8	41.4	10.8	0.5	47.3	41.4	11.3
	전문가	(62)	14.5	58.1	25.8	1.6	0.0	72.6	25.8	1.6
소속별	대학	(30)	20.0	60.0	20.0	0.0	0.0	80.0	20.0	0.0
	연구소	(32)	9.4	56.3	31.3	3.1	0.0	65.6	31.3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성별	남성	(720)	4.7	47.1	39.9	7.8	0.6	51.8	39.9	8.3
	여성	(480)	1.7	38.8	43.8	15.4	0.4	40.4	43.8	15.8
연령별	18-29세	(303)	1.7	42.2	40.9	13.5	1.7	43.9	40.9	15.2
	30대	(256)	3.9	42.6	43.0	10.5	0.0	46.5	43.0	10.5
	40대	(314)	3.5	43.9	42.7	9.6	0.3	47.5	42.7	9.9
	50대	(327)	4.9	45.9	39.4	9.8	0.0	50.8	39.4	9.8
지역별	서울	(238)	3.4	30.7	47.9	18.1	0.0	34.0	47.9	18.1
	경기/인천	(393)	4.6	55.5	33.3	6.1	0.5	60.1	33.3	6.6
	대전/세종/충청	(128)	1.6	42.2	50.0	6.3	0.0	43.8	50.0	6.3
	광주/전라	(110)	1.8	62.7	29.1	5.5	0.9	64.5	29.1	6.4
	대구/경북	(109)	1.8	27.5	53.2	15.6	1.8	29.4	53.2	17.4
	부산/울산/경남	(175)	4.6	37.7	45.1	12.6	0.0	42.3	45.1	12.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31.9	40.4	21.3	2.1	36.2	40.4	23.4
	대도시	(551)	3.6	35.6	45.9	14.0	0.9	39.2	45.9	14.9
	중소도시	(608)	3.6	51.6	37.3	7.2	0.2	55.3	37.3	7.4
	군지역	(41)	0.0	36.6	41.5	22.0	0.0	36.6	41.5	22.0
직업별	자영업자	(182)	3.8	45.6	44.0	6.6	0.0	49.5	44.0	6.6
	블루칼라	(351)	3.1	41.9	42.2	11.7	1.1	45.0	42.2	12.8
	화이트칼라	(409)	4.9	46.2	38.1	10.5	0.2	51.1	38.1	10.8
	전업주부	(163)	1.8	42.9	42.3	12.9	0.0	44.8	42.3	12.9
	학생	(69)	0.0	43.5	43.5	13.0	0.0	43.5	43.5	13.0
	무직/기타	(26)	3.8	23.1	53.8	15.4	3.8	26.9	53.8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3	39.8	43.2	14.4	0.3	42.1	43.2	14.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5	41.8	41.8	11.6	1.3	45.3	41.8	12.9
	4년제 이상	(535)	4.3	47.5	40.0	8.0	0.2	51.8	40.0	8.2
생활 수준별	상	(137)	3.6	63.5	24.8	7.3	0.7	67.2	24.8	8.0
	중	(700)	3.6	44.3	42.7	9.1	0.3	47.9	42.7	9.4
	하	(363)	3.3	35.3	45.2	15.4	0.8	38.6	45.2	16.3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Q.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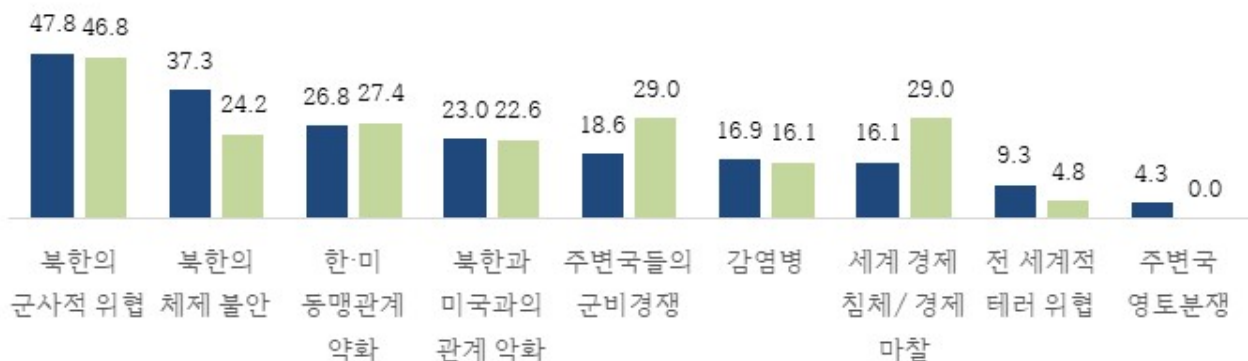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일반국민 47.8%, 전문가 46.8%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3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7.0%p(2019년 40.8%), ‘북한의 체제 불안’ 응답은 12.8%p(2019년 24.5%) 증가함
- [전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변국들의 군비경쟁’과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각 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18.8%p(2019년 65.6%) 감소한 반면,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이라는 응답은 16.5%p(2019년 12.5%) 증가함 한편,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2019년 32.8%)

[그림 3-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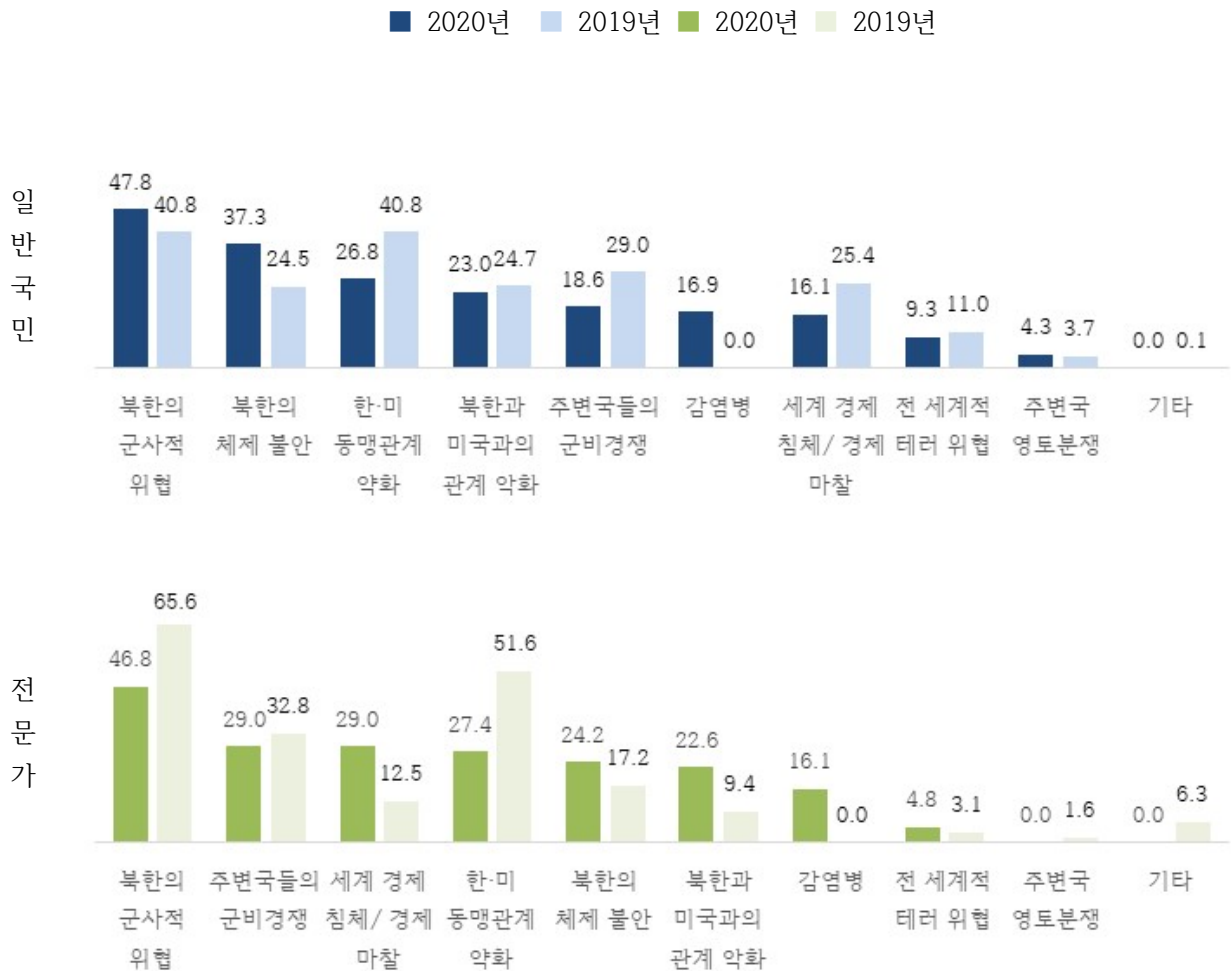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남

[표 3-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명)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체제 불안	한미 동맹 관계 악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	주변국 들의 군비경 쟁	감염병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전 세계적 테러의 위협	주변국 영토 분쟁
전체		(1262)	47.7	36.6	26.9	23.0	19.1	16.9	16.7	9.1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7.8	37.3	26.8	23.0	18.6	16.9	16.1	9.3	4.3
	전문가	(62)	46.8	24.2	27.4	22.6	29.0	16.1	29.0	4.8	0.0
소속별	대학	(30)	50.0	26.7	33.3	23.3	33.3	13.3	20.0	0.0	0.0
	연구소	(32)	43.8	21.9	21.9	21.9	25.0	18.8	37.5	9.4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0.3	38.6	28.4	22.2	19.0	14.1	14.5	7.9	4.9
	중	(497)	45.3	34.6	25.2	22.9	18.9	22.1	16.9	10.5	3.6
	하	(136)	46.3	41.2	26.5	26.5	15.4	9.6	19.9	11.0	3.7
성별	남성	(720)	48.6	37.9	25.8	23.2	18.6	16.0	16.0	10.0	3.9
	여성	(480)	46.5	36.3	28.3	22.7	18.5	18.3	16.3	8.3	4.8
연령별	18-29세	(303)	51.8	36.3	23.4	21.1	21.1	18.8	14.9	9.2	3.3
	30대	(256)	50.0	31.3	32.8	19.5	15.6	18.0	17.6	10.9	4.3
	40대	(314)	43.6	38.9	26.1	24.5	20.4	16.9	15.9	9.2	4.5
	50대	(327)	46.2	41.3	26.0	26.0	16.8	14.4	16.2	8.3	4.9
지역별	서울	(238)	40.8	35.7	27.7	18.9	16.4	22.7	20.2	14.3	3.4
	경기/인천	(393)	52.2	39.7	22.6	27.0	16.0	15.8	16.3	5.1	5.3
	대전/세종/충청	(128)	48.4	46.9	30.5	27.3	17.2	4.7	14.1	8.6	2.3
	광주/전라	(110)	40.0	31.8	33.6	19.1	20.9	17.3	17.3	15.5	4.5
	대구/경북	(109)	61.5	28.4	22.9	18.3	26.6	23.9	11.9	5.5	0.9
	부산/울산/경남	(175)	41.7	34.9	32.6	23.4	21.7	16.6	13.1	11.4	4.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53.2	40.4	19.1	17.0	19.1	14.9	17.0	8.5	10.6
	대도시	(551)	45.2	39.7	25.9	20.4	20.2	17.9	16.6	11.1	3.1
	중소도시	(608)	51.0	35.6	27.9	24.3	17.4	16.6	15.4	7.0	4.9
	군지역	(41)	34.1	29.3	24.4	39.0	14.6	9.8	19.5	19.5	9.8
직업별	자영업자	(182)	41.2	36.8	25.3	28.6	17.6	19.8	15.4	11.0	4.4
	블루칼라	(351)	52.4	39.9	27.6	20.5	17.4	14.2	18.5	6.8	2.6
	화이트칼라	(409)	44.3	37.7	27.6	21.5	18.6	19.6	16.1	10.8	3.9
	전업주부	(163)	47.9	35.6	26.4	26.4	21.5	15.3	12.9	9.2	4.9
	학생	(69)	56.5	31.9	23.2	18.8	23.2	17.4	13.0	8.7	7.2
	무직/기타	(26)	61.5	23.1	26.9	30.8	11.5	0.0	15.4	11.5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9.7	36.4	24.9	26.6	16.7	15.8	16.4	8.8	4.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4.1	41.5	28.3	23.8	19.0	14.1	14.8	10.9	3.5
	4년제 이상	(535)	48.6	35.3	27.3	20.2	19.6	19.3	16.6	8.8	4.3
생활 수준별	상	(137)	48.9	36.5	32.1	25.5	14.6	16.1	15.3	7.3	3.6
	중	(700)	44.0	37.7	27.1	24.1	21.1	17.0	14.9	10.0	4.0
	하	(363)	54.5	36.6	24.2	19.8	15.2	17.1	18.7	8.8	5.0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Q.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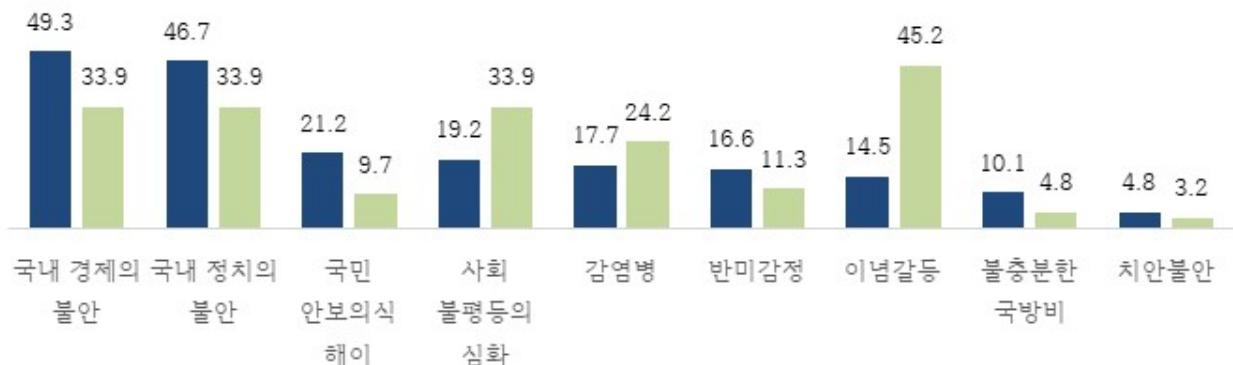
‘국내 경제의 불안’: 일반국민 49.3%
‘이념갈등’: 전문가 45.2%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4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1.2%p(2019년 48.1%),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2.4%p(2019년 44.3%) 증가하였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이념갈등’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이념갈등’이라는 응답은 3.2%p(2019년 48.4%)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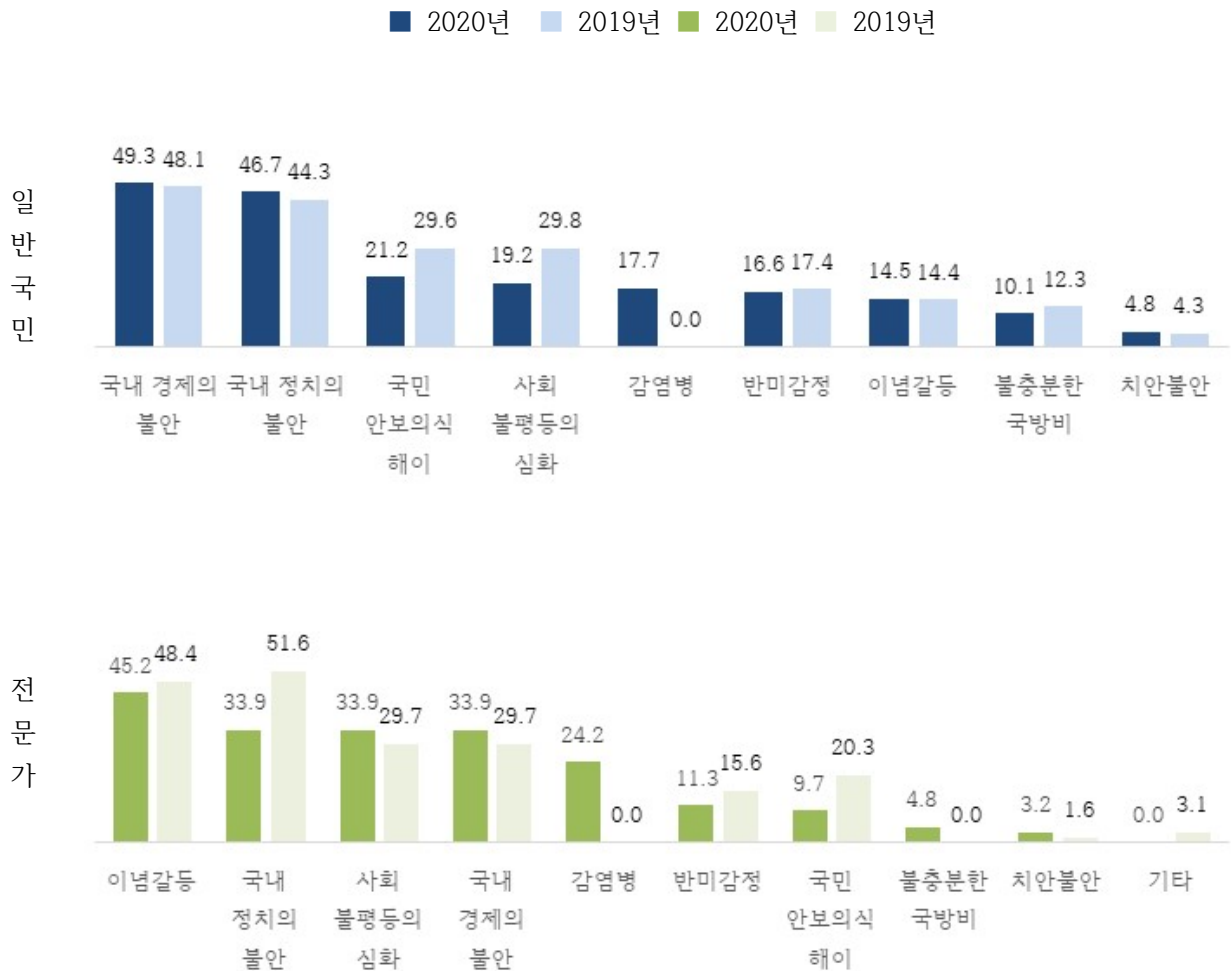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에 대해 ‘국내 경제의 불안’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명)	국내 경제의 불안	국내 정치의 불안	국민 안보 의식 해이	사회 불평등 심화	감염병	반미 감정	아첨 갈등	불 충분한 국방비	차안 불안
전체		(1262)	48.6	46.0	20.6	19.9	18.0	16.3	16.0	9.8	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9.3	46.7	21.2	19.2	17.7	16.6	14.5	10.1	4.8
	전문가	(62)	33.9	33.9	9.7	33.9	24.2	11.3	45.2	4.8	3.2
소속별	대학	(30)	30.0	40.0	10.0	26.7	16.7	13.3	56.7	3.3	3.3
	연구소	(32)	37.5	28.1	9.4	40.6	31.3	9.4	34.4	6.3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0.1	47.8	23.5	20.3	13.8	17.3	15.9	7.9	3.5
	중	(497)	47.7	47.7	17.5	18.3	23.1	15.1	12.7	12.7	5.2
	하	(136)	52.2	38.2	25.0	17.6	14.0	19.1	15.4	9.6	8.8
성별	남성	(720)	48.2	47.1	22.2	20.3	16.0	16.8	14.3	10.4	4.7
	여성	(480)	51.0	46.0	19.6	17.5	20.2	16.3	14.8	9.6	5.0
연령별	18-29세	(303)	52.1	48.2	21.8	18.2	16.8	14.2	13.5	11.6	3.6
	30대	(256)	48.4	47.7	20.3	16.0	18.4	19.5	14.1	10.5	5.1
	40대	(314)	49.4	44.3	19.7	21.3	18.8	15.6	12.7	11.1	7.0
	50대	(327)	47.4	46.8	22.6	20.5	16.8	17.4	17.4	7.3	3.7
지역별	서울	(238)	63.0	38.2	17.2	13.0	23.5	13.9	11.3	12.6	7.1
	경기/인천	(393)	51.4	50.6	16.0	18.8	14.2	19.3	18.3	6.4	4.8
	대전/세종/충청	(128)	46.9	49.2	27.3	28.9	4.7	16.4	9.4	15.6	1.6
	광주/전라	(110)	47.3	31.8	30.0	24.5	20.9	18.2	15.5	9.1	2.7
	대구/경북	(109)	40.4	64.2	28.4	14.7	20.2	8.3	12.8	7.3	3.7
	부산/울산/경남	(175)	37.7	42.9	22.9	19.4	24.0	18.9	12.6	15.4	6.3
	강원/제주	(47)	38.3	57.4	23.4	23.4	14.9	14.9	21.3	2.1	4.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52.3	43.5	21.1	18.4	20.9	14.0	12.2	11.7	5.8
	중소도시	(608)	47.9	50.5	20.3	18.9	15.2	18.7	17.0	8.5	3.0
	군지역	(41)	31.7	31.7	34.1	34.1	9.8	19.5	7.3	12.2	19.5
직업별	자영업자	(182)	51.6	41.8	20.3	22.0	19.8	14.3	18.1	10.4	1.6
	블루칼라	(351)	48.7	50.1	21.4	19.4	17.1	16.5	11.7	9.4	5.7
	화이트칼라	(409)	48.7	46.2	21.3	19.1	20.0	16.9	13.9	10.5	3.4
	전업주부	(163)	53.4	45.4	18.4	13.5	16.0	18.4	17.2	9.8	8.0
	학생	(69)	44.9	49.3	20.3	17.4	11.6	18.8	18.8	14.5	4.3
	무직/기타	(26)	38.5	42.3	42.3	38.5	0.0	11.5	7.7	0.0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9.4	43.5	18.9	21.2	17.5	19.5	14.7	9.0	6.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50.5	50.2	19.0	17.7	18.3	13.5	16.7	10.0	4.2
	4년제 이상	(535)	48.6	46.7	23.9	18.7	17.4	16.4	13.1	10.8	4.3
생활 수준별	상	(137)	47.4	37.2	20.4	32.1	17.5	21.2	13.9	8.8	1.5
	중	(700)	48.3	46.4	20.9	18.6	19.6	15.9	14.0	11.4	5.0
	하	(363)	52.1	50.7	22.0	15.4	14.0	16.3	15.7	8.0	5.8

6)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Q.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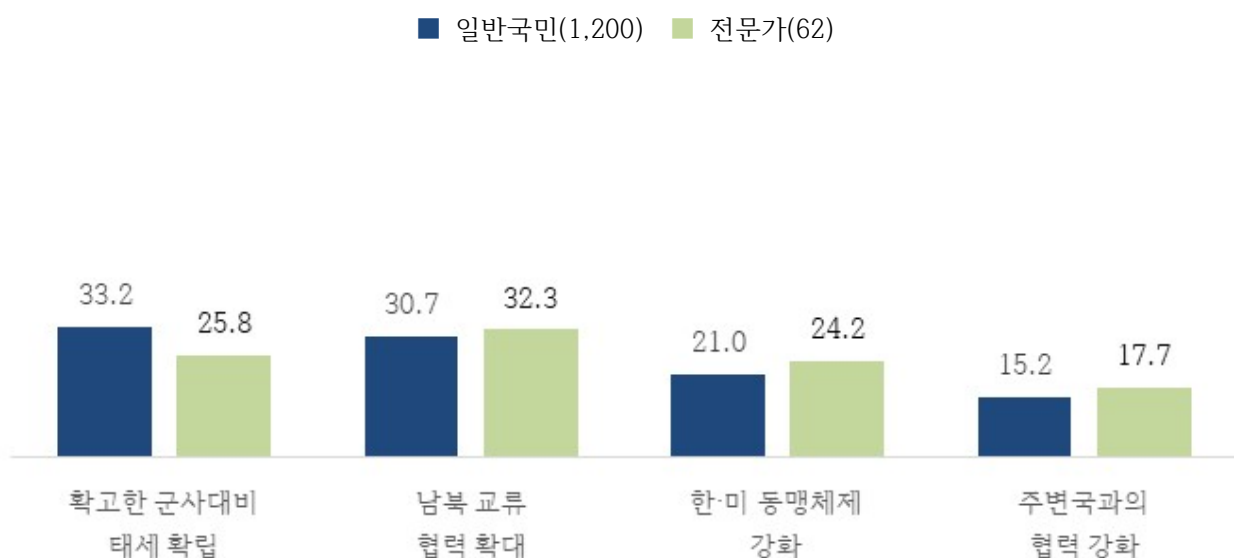
일반국민 -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 33.2%

전문가 - ‘남북 교류 협력 확대’: 32.3%

- [일반국민]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33.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북 교류 협력 확대’(3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6.9%p(2019년 40.1%) 감소한 반면, ‘남북 교류 협력 확대’라는 응답은 9.9%(2019년 20.8%) 증가함
- [전문가] ‘남북 교류 확대’(32.3%)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남북 교류 확대’라는 응답은 13.5%p(2019년 18.8%) 증가했으며,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 또한 2.4%p(2019년 23.4%)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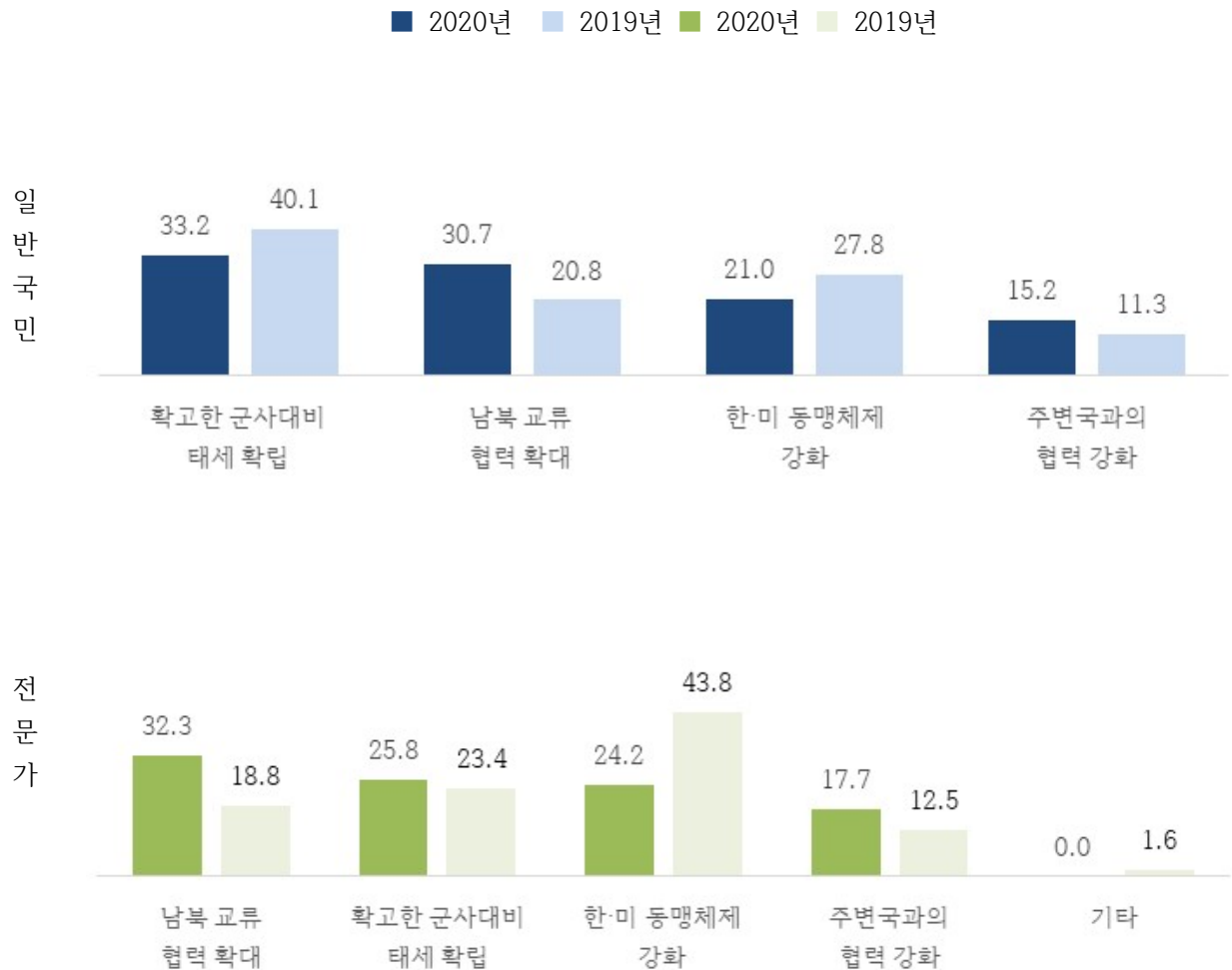
[그림 3-11.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2.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학생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6.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단위: 명, %)

		사례수 (명)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남북 교류협력 확대	한미 동맹체제 강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전체		(1262)	32.8	30.7	21.2	15.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2	30.7	21.0	15.2
	전문가	(62)	25.8	32.3	24.2	17.7
소속별	대학	(30)	36.7	20.0	23.3	20.0
	연구소	(32)	15.6	43.8	25.0	15.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8.3	29.8	20.3	11.6
	중	(497)	28.8	31.0	21.9	18.3
	하	(136)	27.9	33.1	20.6	18.4
성별	남성	(720)	35.1	30.4	19.4	15.0
	여성	(480)	30.2	31.0	23.3	15.4
연령별	18-29세	(303)	35.3	31.4	18.5	14.9
	30대	(256)	32.0	31.6	18.8	17.6
	40대	(314)	31.5	32.8	21.3	14.3
	50대	(327)	33.6	27.2	24.8	14.4
지역별	서울	(238)	34.9	23.5	21.8	19.7
	경기/인천	(393)	31.0	37.9	18.6	12.5
	대전/세종/충청	(128)	35.9	30.5	15.6	18.0
	광주/전라	(110)	41.8	27.3	16.4	14.5
	대구/경북	(109)	25.7	15.6	37.6	21.1
	부산/울산/경남	(175)	33.7	32.0	23.4	10.9
	강원/제주	(47)	29.8	44.7	14.9	10.6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31.9	30.5	20.9	16.7
	중소도시	(608)	34.2	30.9	21.4	13.5
	군지역	(41)	34.1	29.3	17.1	19.5
직업별	자영업자	(182)	36.8	26.4	24.2	12.6
	블루칼라	(351)	31.3	27.1	23.6	17.9
	화이트칼라	(409)	32.5	35.5	17.6	14.4
	전업주부	(163)	31.9	32.5	20.9	14.7
	학생	(69)	44.9	27.5	15.9	11.6
	무직/기타	(26)	19.2	30.8	30.8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9.7	29.7	26.0	14.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3.8	28.0	22.5	15.8
	4년제 이상	(535)	35.1	32.9	16.8	15.1
생활 수준별	상	(137)	37.2	32.8	16.8	13.1
	중	(700)	32.6	31.3	20.6	15.6
	하	(363)	32.8	28.7	23.4	15.2

7)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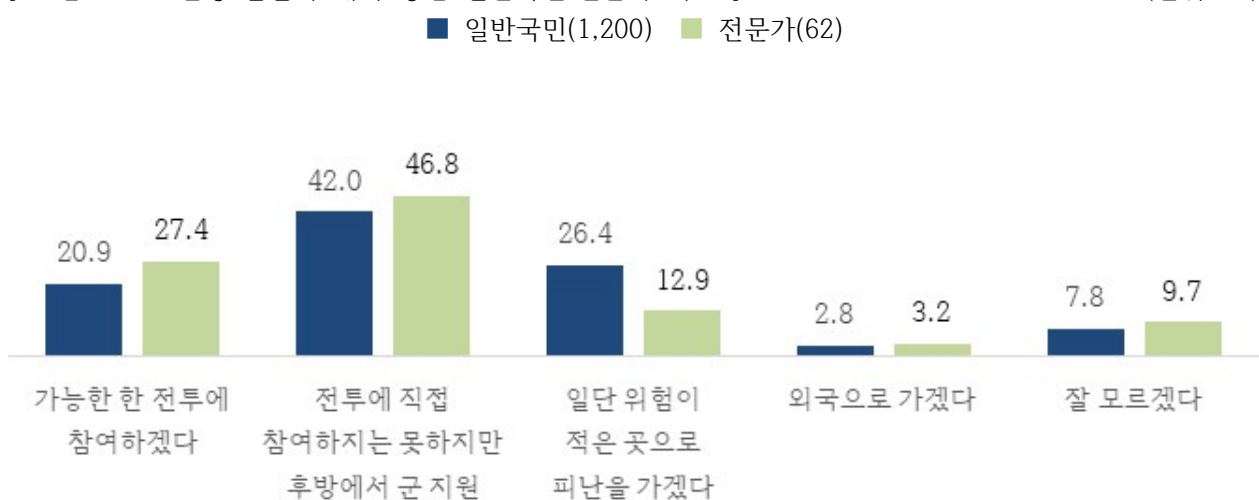
Q.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 지원’:
일반국민 42.0%, 전문가 46.8%**

- **[일반국민]**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동일(42.0%)하게 나타났으며,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응답은 4.9%p(2019년 31.3%)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15.7%p(2019년 62.5%) 감소한 반면,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0%p(2019년 23.4%)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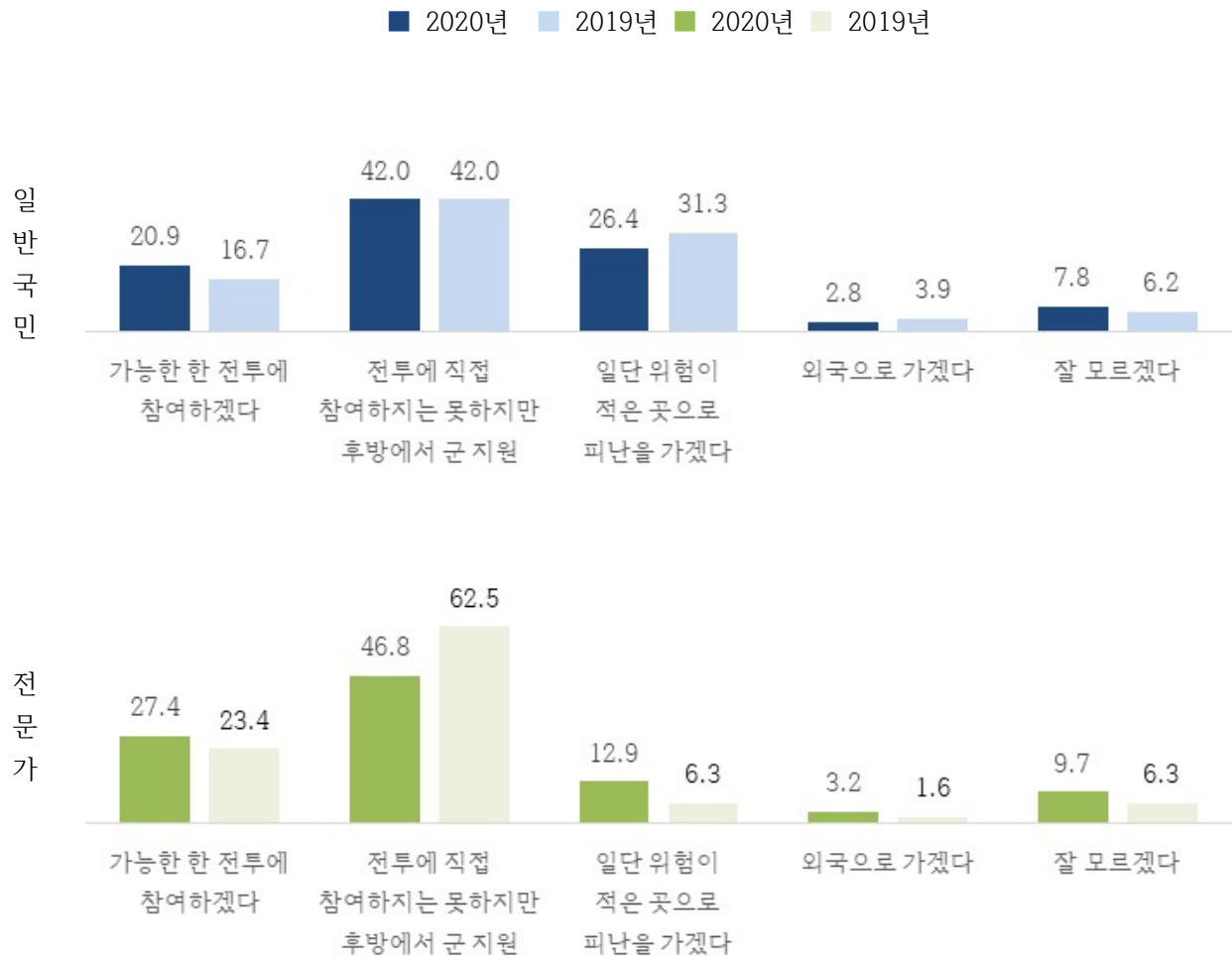
[그림 3-13.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4.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에 대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남성,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 자영업자, 화이트칼라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7.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단위: 명, %)

		사례수 (명)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파란을 가겠다	외국으로 가겠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2)	21.2	42.2	25.8	2.9	7.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9	42.0	26.4	2.8	7.8
	전문가	(62)	27.4	46.8	12.9	3.2	9.7
소속별	대학	(30)	36.7	40.0	10.0	0.0	13.3
	연구소	(32)	18.8	53.1	15.6	6.3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5.9	42.7	25.2	1.4	4.8
	중	(497)	17.5	41.9	27.4	3.2	10.1
	하	(136)	12.5	39.7	27.9	7.4	12.5
성별	남성	(720)	31.7	47.4	14.4	1.4	5.1
	여성	(480)	4.8	34.0	44.4	5.0	11.9
연령별	18-29세	(303)	25.1	38.9	24.4	4.6	6.9
	30대	(256)	25.0	36.3	27.3	2.7	8.6
	40대	(314)	22.0	43.6	23.9	2.5	8.0
	50대	(327)	12.8	47.7	30.0	1.5	8.0
지역별	서울	(238)	19.7	39.5	26.9	7.1	6.7
	경기/인천	(393)	23.9	38.7	29.5	1.5	6.4
	대전/세종/충청	(128)	13.3	54.7	25.0	0.0	7.0
	광주/전라	(110)	20.9	43.6	28.2	1.8	5.5
	대구/경북	(109)	13.8	44.0	22.0	3.7	16.5
	부산/울산/경남	(175)	23.4	46.3	22.9	0.6	6.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9.8	23.4	21.3	8.5	17.0
	대도시	(551)	19.5	41.3	26.8	5.1	7.3
	중소도시	(608)	22.8	43.0	25.4	0.8	8.0
	군지역	(41)	12.2	36.6	36.6	2.4	12.2
직업별	자영업자	(182)	18.1	50.5	22.0	1.6	7.7
	블루칼라	(351)	26.5	39.0	25.4	3.7	5.4
	화이트칼라	(409)	22.2	46.9	22.2	2.2	6.4
	전업주부	(163)	4.9	32.5	42.9	4.3	15.3
	학생	(69)	34.8	26.1	30.4	2.9	5.8
	무직/기타	(26)	7.7	46.2	23.1	0.0	23.1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3	42.4	31.6	2.8	11.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3.2	41.8	24.4	3.5	7.1
	4년제 이상	(535)	26.0	41.9	24.1	2.4	5.6
생활 수준별	상	(137)	30.7	40.9	23.4	0.7	4.4
	중	(700)	18.6	44.0	26.0	2.3	9.1
	하	(363)	21.8	38.6	28.4	4.7	6.6

8) 국가정체성 평가

(1)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Q.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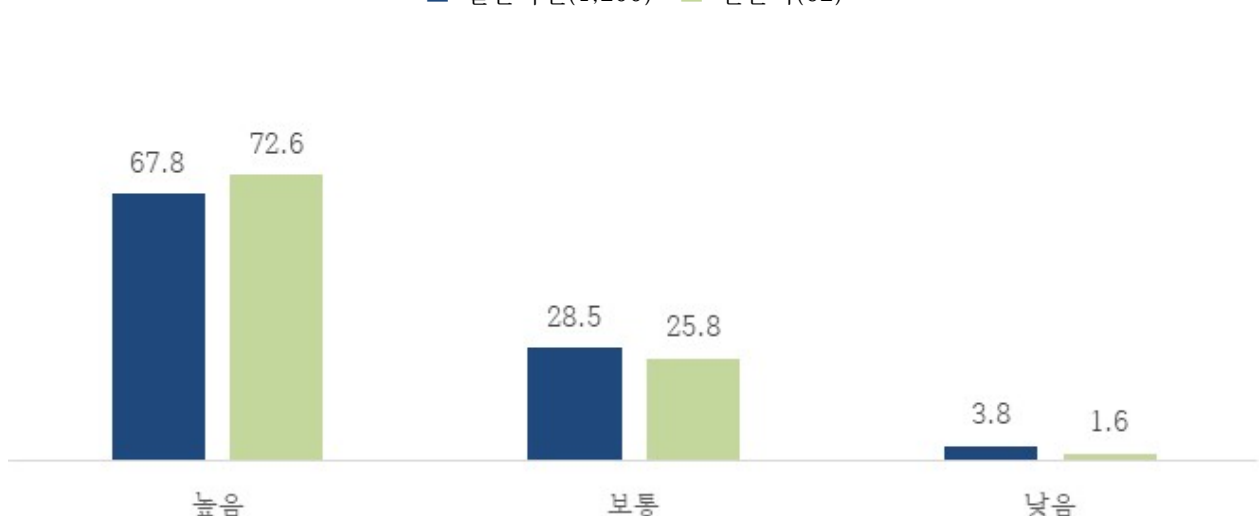
‘높음’: 일반국민 67.8%, 전문가 72.6%

- [일반국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67.8%로, ‘낮다’(3.8%)는 응답보다 64.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0.3%p(2019년 67.4%) 증가, ‘낮다’는 응답은 1.8%p(2019년 5.5%)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높다’는 응답이 72.6%로, ‘낮다’(1.6%)는 응답보다 71.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1%p(2019년 79.7%) 감소하였으며, ‘낮다’는 응답 또한 1.5%p(2019년 3.1%)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5.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6. 국가정체성 평가(역사와 전통)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8.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2)	8.5	59.5	28.4	3.4	0.2	68.0	28.4	3.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7	60.1	28.5	3.5	0.3	67.8	28.5	3.8
	전문가	(62)	24.2	48.4	25.8	1.6	0.0	72.6	25.8	1.6
소속별	대학	(30)	20.0	56.7	23.3	0.0	0.0	76.7	23.3	0.0
	연구소	(32)	28.1	40.6	28.1	3.1	0.0	68.8	28.1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0.6	68.6	19.6	1.1	0.2	79.2	19.6	1.2
	중	(497)	4.4	54.9	36.4	4.0	0.2	59.4	36.4	4.2
	하	(136)	7.4	43.4	36.8	11.8	0.7	50.7	36.8	12.5
성별	남성	(720)	7.5	60.8	27.6	3.6	0.4	68.3	27.6	4.0
	여성	(480)	7.9	59.0	29.8	3.3	0.0	66.9	29.8	3.3
연령별	18-29세	(303)	4.3	62.0	28.1	5.3	0.3	66.3	28.1	5.6
	30대	(256)	5.1	59.0	32.4	2.7	0.8	64.1	32.4	3.5
	40대	(314)	8.9	61.5	26.8	2.9	0.0	70.4	26.8	2.9
	50대	(327)	11.6	57.8	27.5	3.1	0.0	69.4	27.5	3.1
지역별	서울	(238)	7.6	58.4	28.2	5.9	0.0	66.0	28.2	5.9
	경기/인천	(393)	9.7	65.9	23.7	0.8	0.0	75.6	23.7	0.8
	대전/세종/충청	(128)	3.9	72.7	23.4	0.0	0.0	76.6	23.4	0.0
	광주/전라	(110)	7.3	65.5	25.5	1.8	0.0	72.7	25.5	1.8
	대구/경북	(109)	3.7	40.4	47.7	6.4	1.8	44.0	47.7	8.3
	부산/울산/경남	(175)	6.9	53.1	34.3	5.7	0.0	60.0	34.3	5.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4.9	44.7	25.5	12.8	2.1	59.6	25.5	14.9
	대도시	(551)	7.8	56.4	29.0	6.4	0.4	64.2	29.0	6.7
	중소도시	(608)	8.1	64.1	26.8	0.8	0.2	72.2	26.8	1.0
	군지역	(41)	0.0	48.8	46.3	4.9	0.0	48.8	46.3	4.9
직업별	자영업자	(182)	8.2	62.1	26.9	2.7	0.0	70.3	26.9	2.7
	블루칼라	(351)	8.3	59.5	28.8	3.1	0.3	67.8	28.8	3.4
	화이트칼라	(409)	6.4	59.4	31.1	2.9	0.2	65.8	31.1	3.2
	전업주부	(163)	11.0	60.7	25.2	3.1	0.0	71.8	25.2	3.1
	학생	(69)	4.3	62.3	24.6	8.7	0.0	66.7	24.6	8.7
	무직/기타	(26)	3.8	53.8	26.9	11.5	3.8	57.7	26.9	15.4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9.6	56.2	28.8	5.4	0.0	65.8	28.8	5.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8.0	56.9	32.2	2.3	0.6	65.0	32.2	2.9
	4년제 이상	(535)	6.2	64.5	26.2	3.0	0.2	70.7	26.2	3.2
생활 수준별	상	(137)	10.2	60.6	25.5	2.9	0.7	70.8	25.5	3.6
	중	(700)	7.4	61.7	27.3	3.6	0.0	69.1	27.3	3.6
	하	(363)	7.2	56.7	32.0	3.6	0.6	63.9	32.0	4.1

(2)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Q.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점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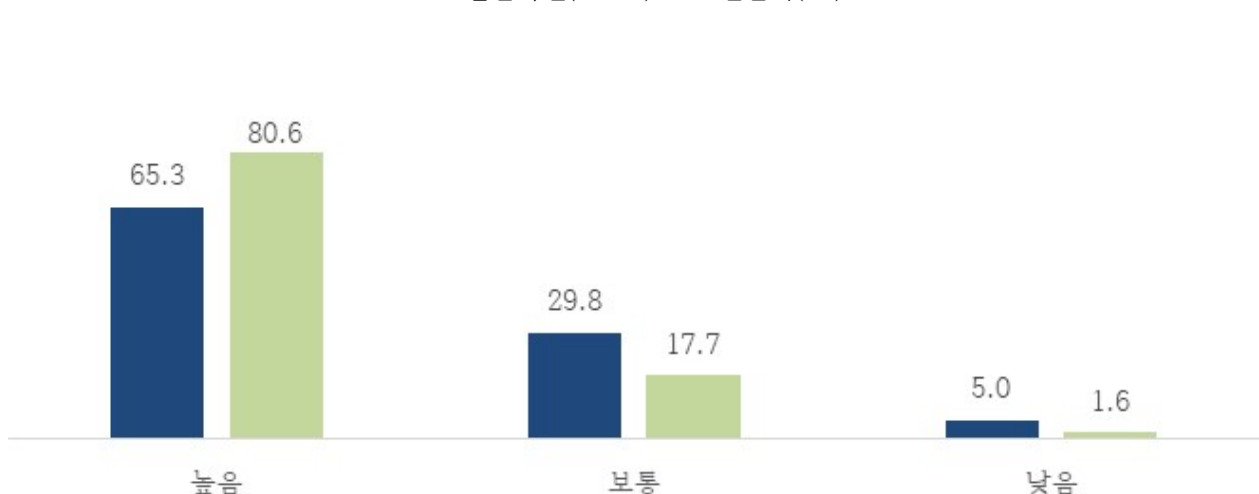
‘높음’: 일반국민 65.3%, 전문가 80.6%

- [일반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65.3%로, ‘낮다’(5.0%)는 응답보다 60.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1%p(2019년 58.2%)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p(2019년 5.7%p)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높다’는 응답이 80.6%로, ‘낮다’(1.6%)는 응답보다 79.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7.2%p(2019년 73.4%p)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5%p(2019년 3.1%p)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7. 국가정체성 평가(대한민국 국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8. 국가정체성 평가(대한민국 국민)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경기/인천,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최종 학력별로 고졸이하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2)	16.2	49.8	29.2	4.5	0.3	66.0	29.2	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6	49.7	29.8	4.7	0.3	65.3	29.8	5.0
	전문가	(62)	29.0	51.6	17.7	1.6	0.0	80.6	17.7	1.6
소속별	대학	(30)	26.7	53.3	20.0	0.0	0.0	80.0	20.0	0.0
	연구소	(32)	31.3	50.0	15.6	3.1	0.0	81.3	15.6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1.7	52.6	22.2	3.2	0.4	74.3	22.2	3.5
	중	(497)	10.7	50.5	34.8	3.8	0.2	61.2	34.8	4.0
	하	(136)	8.1	34.6	42.6	14.0	0.7	42.6	42.6	14.7
성별	남성	(720)	17.1	47.8	29.0	5.7	0.4	64.9	29.0	6.1
	여성	(480)	13.3	52.5	30.8	3.1	0.2	65.8	30.8	3.3
연령별	18-29세	(303)	15.2	40.9	37.0	6.6	0.3	56.1	37.0	6.9
	30대	(256)	12.5	50.4	30.1	6.3	0.8	62.9	30.1	7.0
	40대	(314)	17.2	53.2	25.8	3.8	0.0	70.4	25.8	3.8
	50대	(327)	16.8	53.8	26.6	2.4	0.3	70.6	26.6	2.8
지역별	서울	(238)	9.7	51.7	32.8	5.9	0.0	61.3	32.8	5.9
	경기/인천	(393)	21.6	53.9	21.1	3.3	0.0	75.6	21.1	3.3
	대전/세종/충청	(128)	7.8	46.1	43.8	2.3	0.0	53.9	43.8	2.3
	광주/전라	(110)	20.0	44.5	30.9	3.6	0.9	64.5	30.9	4.5
	대구/경북	(109)	11.9	44.0	36.7	5.5	1.8	56.0	36.7	7.3
	부산/울산/경남	(175)	13.1	48.0	31.4	7.4	0.0	61.1	31.4	7.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3.4	44.7	23.4	6.4	2.1	68.1	23.4	8.5
	대도시	(551)	12.2	49.5	32.3	5.8	0.2	61.7	32.3	6.0
	중소도시	(608)	19.2	50.3	27.0	3.1	0.3	69.6	27.0	3.5
	군지역	(41)	7.3	41.5	36.6	12.2	2.4	48.8	36.6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15.9	55.5	25.3	3.3	0.0	71.4	25.3	3.3
	블루칼라	(351)	15.7	50.1	31.1	3.1	0.0	65.8	31.1	3.1
	화이트칼라	(409)	15.4	45.5	33.0	5.9	0.2	60.9	33.0	6.1
	전업주부	(163)	17.2	56.4	22.7	3.7	0.0	73.6	22.7	3.7
	학생	(69)	11.6	52.2	24.6	10.1	1.4	63.8	24.6	11.6
	무직/기타	(26)	15.4	19.2	50.0	7.7	7.7	34.6	50.0	15.4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6.4	54.2	24.6	4.5	0.3	70.6	24.6	4.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7	41.5	35.4	6.1	0.3	58.2	35.4	6.4
	4년제 이상	(535)	14.4	51.4	29.9	3.9	0.4	65.8	29.9	4.3
생활 수준별	상	(137)	16.8	48.2	24.1	9.5	1.5	65.0	24.1	10.9
	중	(700)	15.3	50.3	29.4	5.0	0.0	65.6	29.4	5.0
	하	(363)	15.7	49.0	32.5	2.2	0.6	64.7	32.5	2.8

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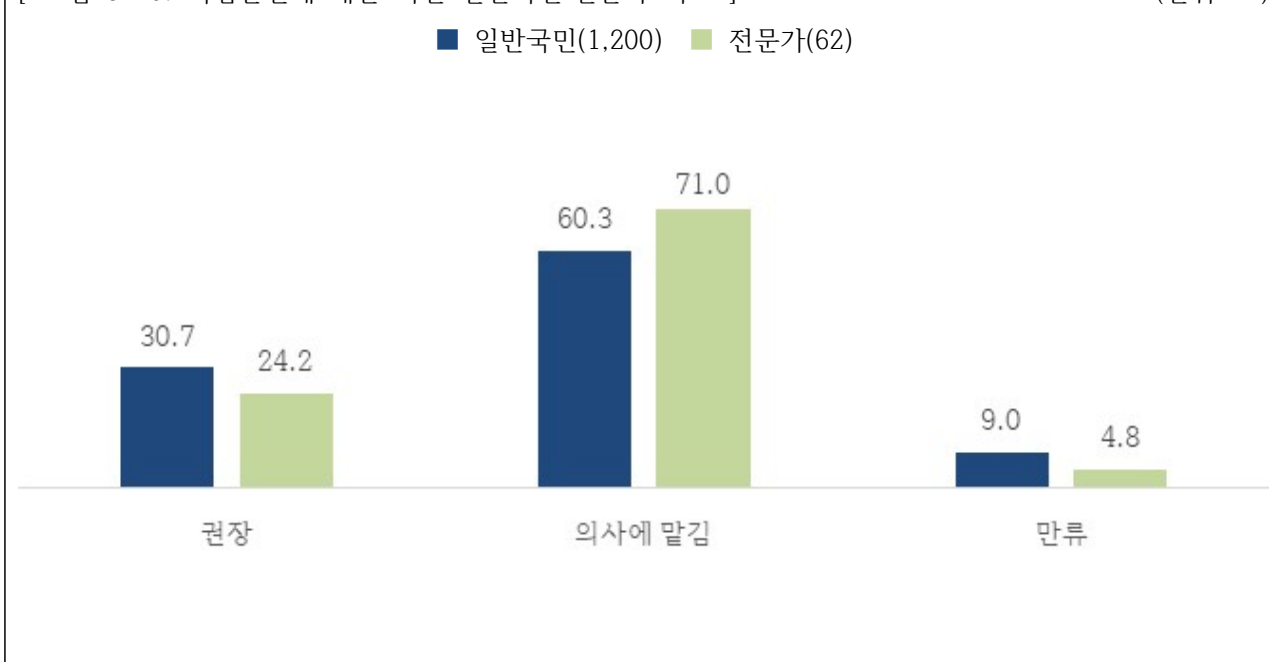
Q. 귀하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가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장한다’: 일반국민 30.7%, 전문가 24.2%

- **[일반국민]**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30.7%로, ‘만류한다’(9.0%)는 응답보다 21.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권장한다’는 의견은 6.6%p(2019년 37.3%) 감소한 반면, ‘만류한다’는 의견은 1.2%p(2019년 7.8%)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권장한다’는 응답은 24.2%로, ‘만류한다’(4.8%)는 응답보다 19.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권장한다’는 의견은 18.0%p 감소한 반면, ‘만류한다’는 의견은 큰 차이가 없었음(2019년 4.7%)

[그림 3-19.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20.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남성,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0.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적극 관장 하겠다	관장 하겠다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만류 하겠다	적극 만류 하겠다	종합		
								관장	의사에 맡김	만류
전체		(1262)	7.4	23.0	60.9	8.2	0.6	30.3	60.9	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4	23.3	60.3	8.3	0.7	30.7	60.3	9.0
	전문가	(62)	6.5	17.7	71.0	4.8	0.0	24.2	71.0	4.8
소속별	대학	(30)	6.7	16.7	76.7	0.0	0.0	23.3	76.7	0.0
	연구소	(32)	6.3	18.8	65.6	9.4	0.0	25.0	65.6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0.1	23.6	59.1	6.9	0.4	33.7	59.1	7.2
	중	(497)	5.0	21.9	65.2	7.0	0.8	27.0	65.2	7.8
	하	(136)	5.1	26.5	47.8	19.1	1.5	31.6	47.8	20.6
성별	남성	(720)	9.0	26.9	57.8	6.0	0.3	36.0	57.8	6.3
	여성	(480)	5.0	17.7	64.2	11.9	1.3	22.7	64.2	13.1
연령별	18-29세	(303)	6.9	23.4	60.1	8.6	1.0	30.4	60.1	9.6
	30대	(256)	5.5	21.9	62.9	8.6	1.2	27.3	62.9	9.8
	40대	(314)	10.2	20.1	58.9	10.5	0.3	30.3	58.9	10.8
	50대	(327)	6.7	27.2	59.9	5.8	0.3	33.9	59.9	6.1
지역별	서울	(238)	6.3	22.3	59.7	10.9	0.8	28.6	59.7	11.8
	경기/인천	(393)	7.1	22.4	62.6	7.6	0.3	29.5	62.6	7.9
	대전/세종/충청	(128)	1.6	31.3	57.8	9.4	0.0	32.8	57.8	9.4
	광주/전라	(110)	1.8	29.1	60.0	8.2	0.9	30.9	60.0	9.1
	대구/경북	(109)	11.0	19.3	60.6	7.3	1.8	30.3	60.6	9.2
	부산/울산/경남	(175)	13.7	21.1	57.1	6.9	1.1	34.9	57.1	8.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17.0	63.8	6.4	0.0	29.8	63.8	6.4
	대도시	(551)	5.8	24.1	59.7	9.6	0.7	29.9	59.7	10.3
	중소도시	(608)	9.0	22.7	61.3	6.4	0.5	31.7	61.3	6.9
	군지역	(41)	4.9	19.5	53.7	19.5	2.4	24.4	53.7	22.0
직업별	자영업자	(182)	8.8	22.5	61.5	6.6	0.5	31.3	61.5	7.1
	블루칼라	(351)	9.7	21.7	59.5	8.5	0.6	31.3	59.5	9.1
	화이트칼라	(409)	6.4	24.9	60.4	7.3	1.0	31.3	60.4	8.3
	전업주부	(163)	5.5	20.9	61.3	12.3	0.0	26.4	61.3	12.3
	학생	(69)	4.3	24.6	60.9	8.7	1.4	29.0	60.9	10.1
	무직/기타	(26)	3.8	34.6	53.8	7.7	0.0	38.5	53.8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6.8	22.6	60.5	9.6	0.6	29.4	60.5	10.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1.3	19.3	60.8	8.0	0.6	30.5	60.8	8.7
	4년제 이상	(535)	5.6	26.0	60.0	7.7	0.7	31.6	60.0	8.4
생활 수준별	상	(137)	9.5	29.2	53.3	8.0	0.0	38.7	53.3	8.0
	중	(700)	7.4	22.9	61.1	7.7	0.9	30.3	61.1	8.6
	하	(363)	6.6	21.8	61.4	9.6	0.6	28.4	61.4	10.2

10)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1) 안보적 측면

Q.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나라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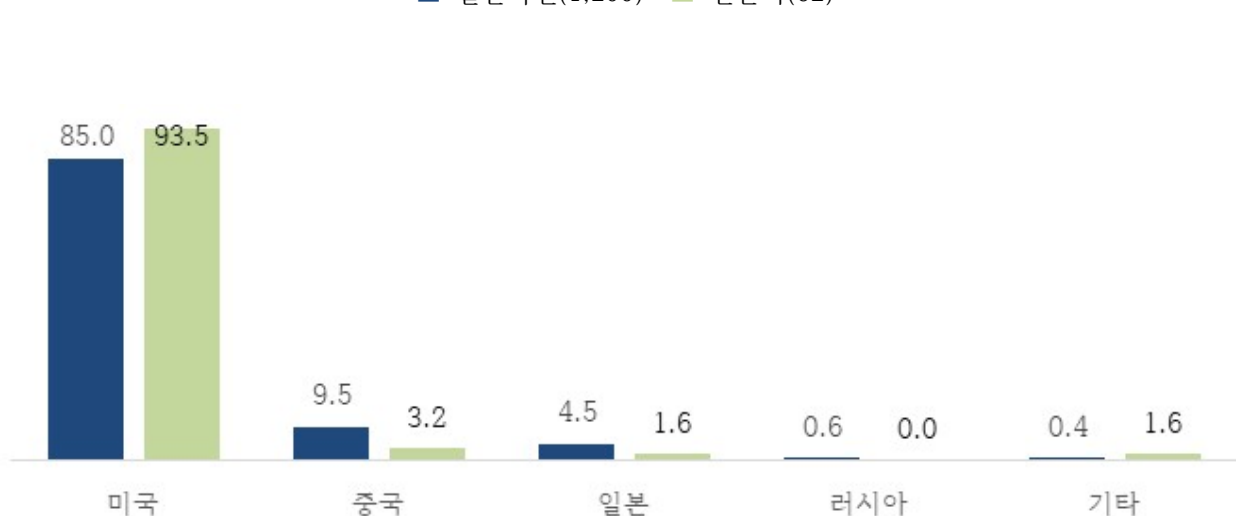
‘미국’: 일반국민 85.0%, 전문가 93.5%

- [일반국민]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9.5%), ‘일본’(4.5%), ‘러시아’(0.6%)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8.2%p(2019년 76.8%) 증가한 반면, ‘중국’이라는 응답은 2.5%(2019년 12.0%)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미국’이라는 응답이 9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3%p(2019년 92.2%)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2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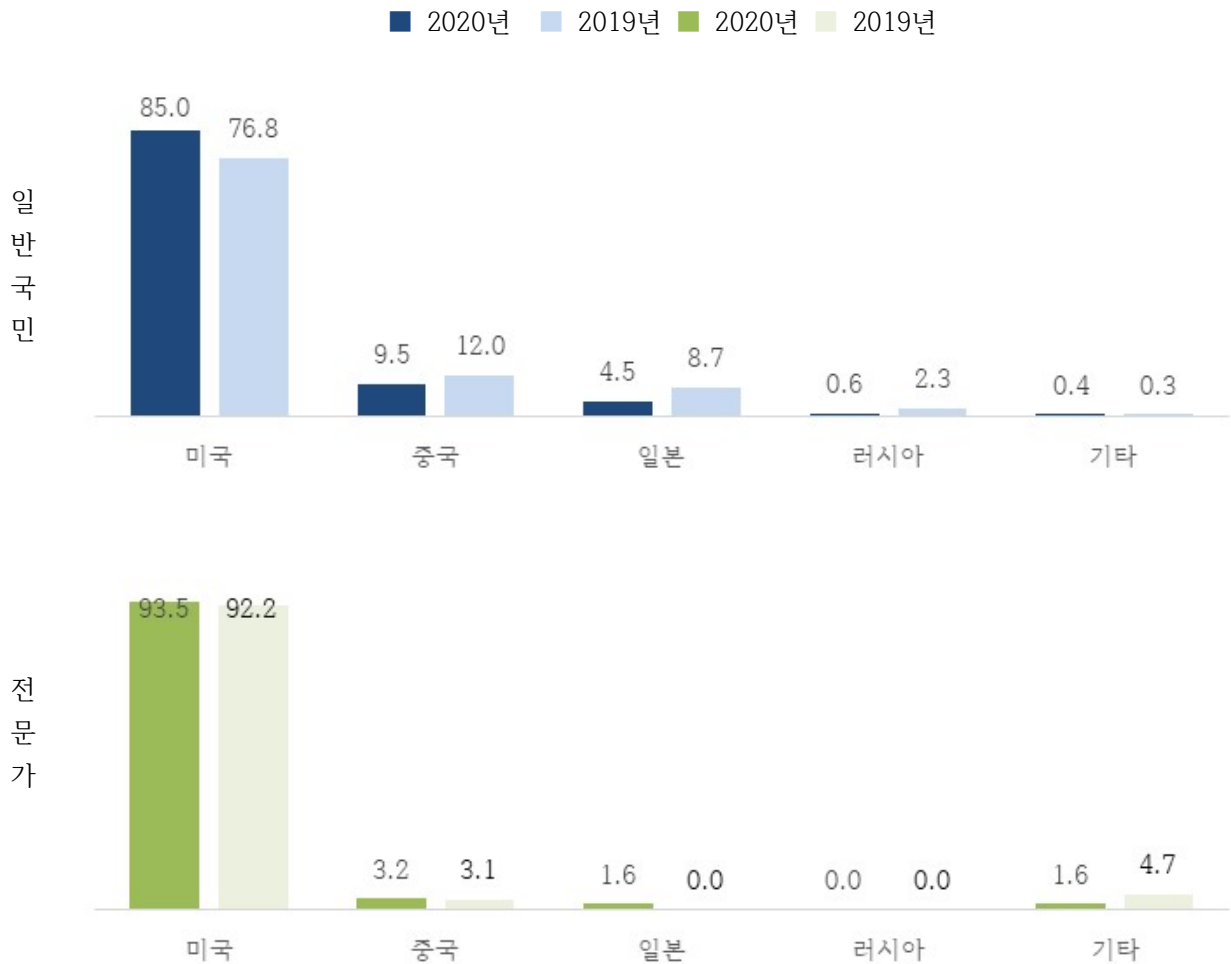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22.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미국’이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가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1.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명, %)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전체		(1262)	85.4	9.2	4.4	0.6	0.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5.0	9.5	4.5	0.6	0.4
	전문가	(62)	93.5	3.2	1.6	0.0	1.6
소속별	대학	(30)	93.3	3.3	3.3	0.0	0.0
	연구소	(32)	93.8	3.1	0.0	0.0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84.7	9.0	5.3	0.7	0.4
	중	(497)	86.9	8.0	4.0	0.4	0.6
	하	(136)	79.4	16.9	2.9	0.7	0.0
성별	남성	(720)	84.2	10.1	4.7	0.6	0.4
	여성	(480)	86.3	8.5	4.2	0.6	0.4
연령별	18-29세	(303)	87.1	7.6	4.3	0.7	0.3
	30대	(256)	82.0	11.7	5.5	0.8	0.0
	40대	(314)	84.1	11.8	3.5	0.3	0.3
	50대	(327)	86.2	7.3	4.9	0.6	0.9
지역별	서울	(238)	78.6	11.8	8.0	1.7	0.0
	경기/인천	(393)	91.3	5.9	2.5	0.3	0.0
	대전/세종/충청	(128)	87.5	5.5	5.5	0.0	1.6
	광주/전라	(110)	78.2	14.5	6.4	0.9	0.0
	대구/경북	(109)	83.5	15.6	0.0	0.0	0.9
	부산/울산/경남	(175)	81.7	12.0	5.7	0.6	0.0
	강원/제주	(47)	89.4	4.3	2.1	0.0	4.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79.5	13.2	6.0	0.9	0.4
	중소도시	(608)	90.3	5.8	3.1	0.3	0.5
	군지역	(41)	80.5	14.6	4.9	0.0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86.3	10.4	3.3	0.0	0.0
	블루칼라	(351)	87.7	8.8	3.1	0.0	0.3
	화이트칼라	(409)	80.9	9.5	7.3	1.5	0.7
	전업주부	(163)	88.3	8.0	3.1	0.6	0.0
	학생	(69)	87.0	11.6	0.0	0.0	1.4
	무직/기타	(26)	76.9	15.4	7.7	0.0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88.4	8.2	2.8	0.3	0.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85.2	8.4	5.1	1.0	0.3
	4년제 이상	(535)	82.6	11.0	5.2	0.6	0.6
생활 수준별	상	(137)	75.2	13.1	8.8	2.2	0.7
	중	(700)	85.9	8.7	5.0	0.1	0.3
	하	(363)	87.1	9.6	1.9	0.8	0.6

(2) 경제적 측면

Q.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나라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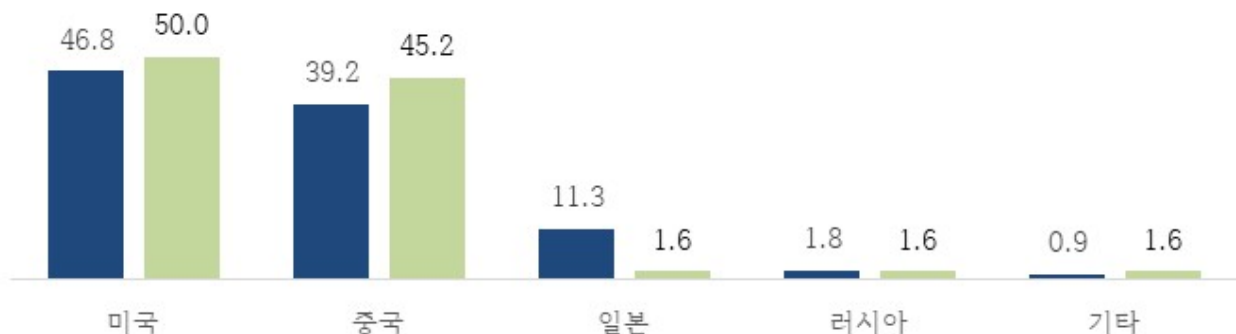
‘미국’: 일반국민 46.8%, 전문가 50.0%

- [일반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45.2%), ‘일본’(1.6%), ‘러시아’(1.6%)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2.8%p(2019년 49.6%)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중국’이라는 응답은 10.2%p(2019년 29.0%) 증가함
- [전문가] ‘미국’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4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3.1%p(2019년 46.9%)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중국’이라는 응답은 6.4%(2019년 51.6%) 감소함

[그림 3-23.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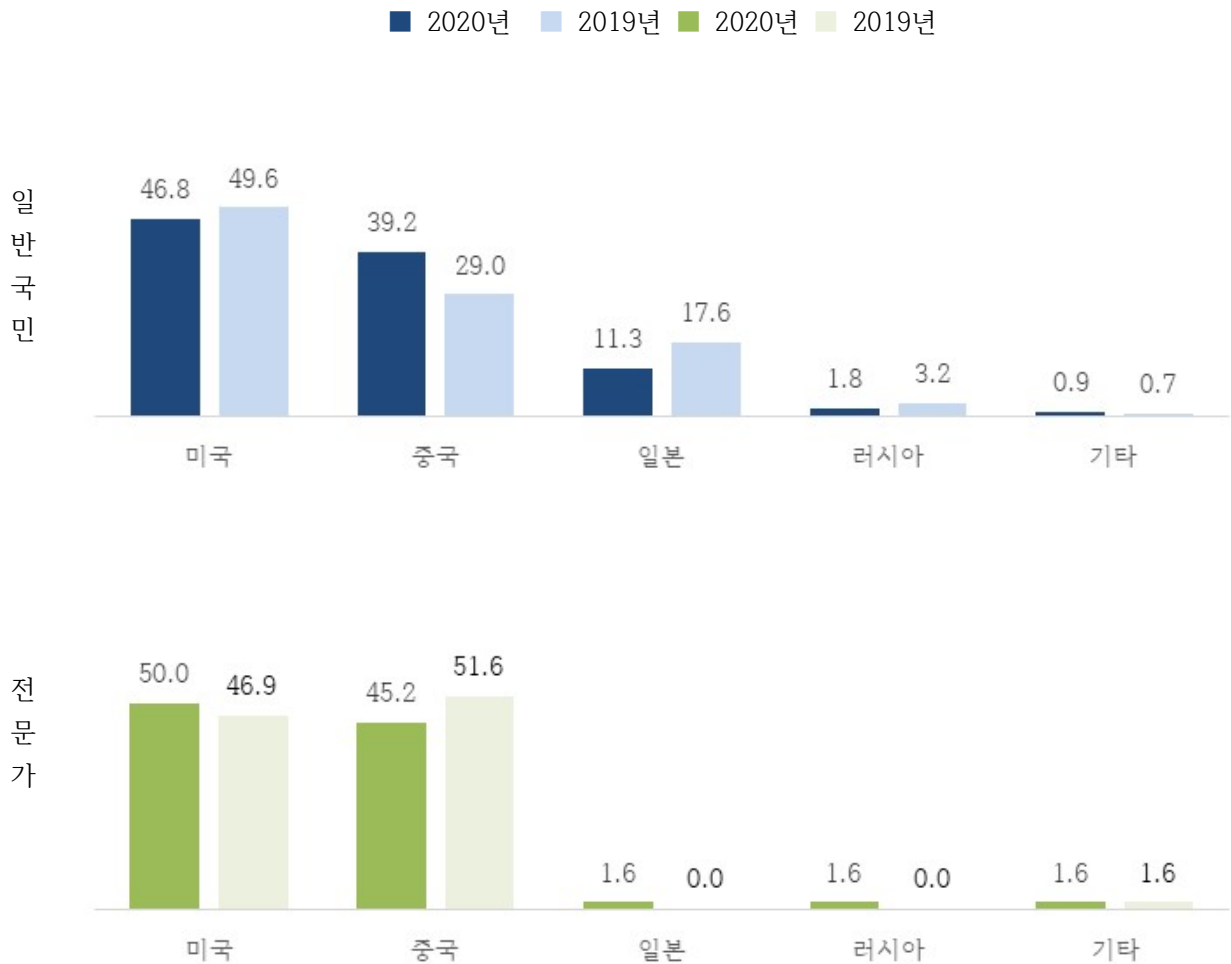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24.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미국'이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2.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명, %)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전체		(1262)	47.0	39.5	10.8	1.8	1.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6.8	39.2	11.3	1.8	0.9
	전문가	(62)	50.0	45.2	1.6	1.6	1.6
소속별	대학	(30)	40.0	56.7	0.0	0.0	3.3
	연구소	(32)	59.4	34.4	3.1	3.1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9.4	37.0	10.8	2.1	0.7
	중	(497)	46.3	39.8	11.7	1.2	1.0
	하	(136)	38.2	45.6	11.8	2.9	1.5
성별	남성	(720)	45.6	40.6	11.0	1.9	1.0
	여성	(480)	48.8	37.1	11.7	1.7	0.8
연령별	18-29세	(303)	43.9	41.3	12.5	1.7	0.7
	30대	(256)	46.9	39.8	10.5	2.3	0.4
	40대	(314)	47.5	39.5	9.6	2.2	1.3
	50대	(327)	48.9	36.4	12.2	1.2	1.2
지역별	서울	(238)	41.6	47.1	8.8	2.1	0.4
	경기/인천	(393)	63.6	26.5	8.7	1.0	0.3
	대전/세종/충청	(128)	28.1	54.7	9.4	4.7	3.1
	광주/전라	(110)	35.5	41.8	19.1	2.7	0.9
	대구/경북	(109)	63.3	24.8	9.2	1.8	0.9
	부산/울산/경남	(175)	19.4	57.1	20.6	1.1	1.7
	강원/제주	(47)	74.5	23.4	2.1	0.0	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39.9	43.9	13.1	2.4	0.7
	중소도시	(608)	54.1	34.5	9.0	1.5	0.8
	군지역	(41)	31.7	43.9	19.5	0.0	4.9
직업별	자영업자	(182)	49.5	37.4	11.5	1.1	0.5
	블루칼라	(351)	46.2	40.5	10.5	1.4	1.4
	화이트칼라	(409)	45.7	40.8	10.8	2.0	0.7
	전업주부	(163)	50.3	34.4	11.0	3.1	1.2
	학생	(69)	43.5	39.1	14.5	2.9	0.0
	무직/기타	(26)	42.3	38.5	19.2	0.0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0.6	34.2	11.9	2.8	0.6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3.4	39.5	13.8	1.9	1.3
	4년제 이상	(535)	46.4	42.2	9.3	1.1	0.9
생활 수준별	상	(137)	41.6	36.5	16.8	2.2	2.9
	중	(700)	45.0	40.4	12.1	1.7	0.7
	하	(363)	52.3	37.7	7.4	1.9	0.6

11)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1) 미국

Q. 만약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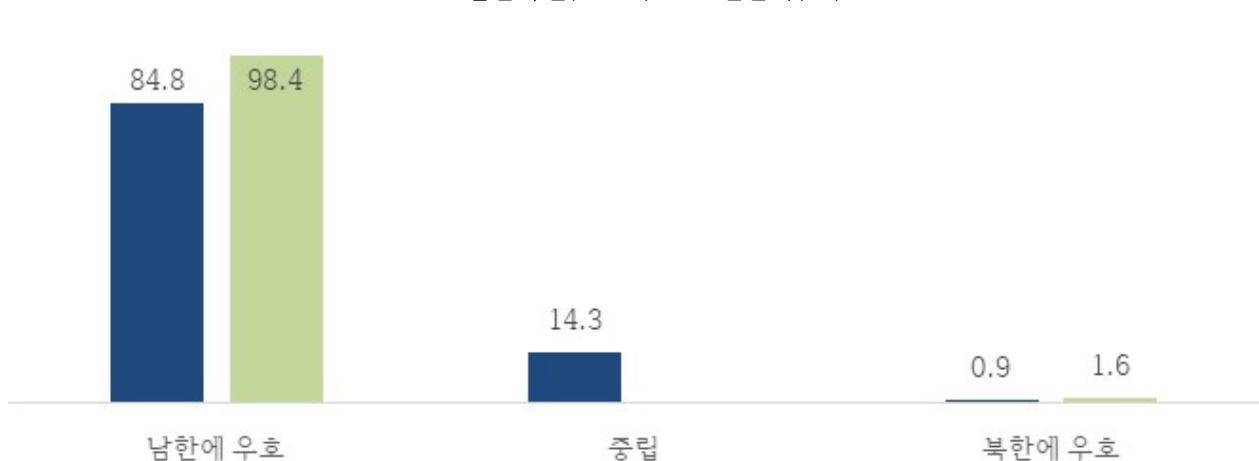
‘남한에 우호적일 것’: 일반국민 84.8%, 전문가 98.4%

- [일반국민] 한반도에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4.8%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0.9%)이라는 응답보다 83.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2%p(2019년 78.6%) 증가한 반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2%p(2019년 3.1%)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98.4%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1.6%)이라는 응답보다 96.8%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6%p(2019년 100.0%) 감소하였으며,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6%p(2019년 0.0%)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25.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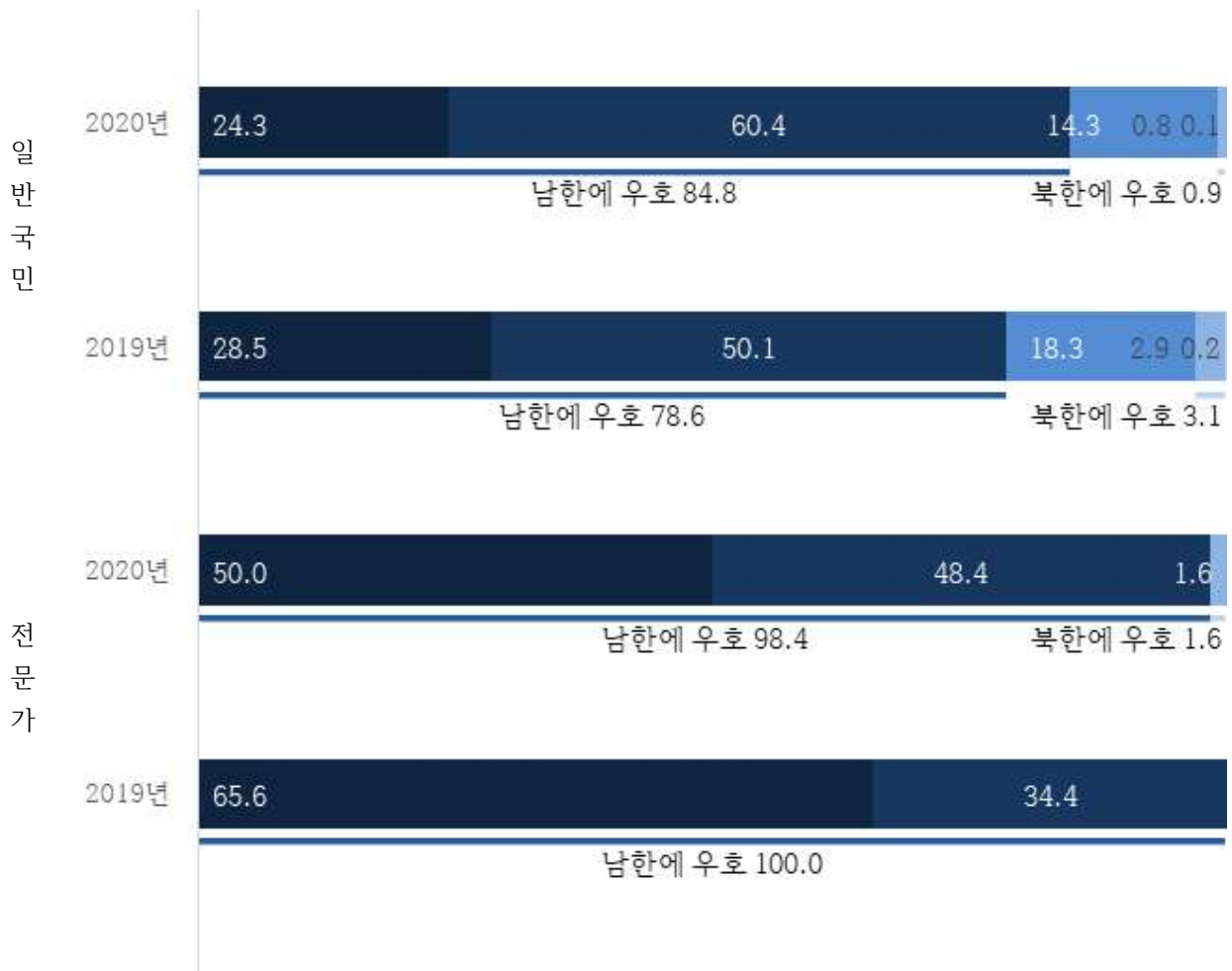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26.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태도 전년도 비교]

(단위: %)

■ 남한 적극 지원 ■ 남한에 우호적 입장 ■ 중립 ■ 북한에 우호적 입장 ■ 북한 적극 지원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에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3.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2)	25.6	59.8	13.6	0.9	0.1	85.4	13.6	1.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3	60.4	14.3	0.8	0.1	84.8	14.3	0.9
	전문가	(62)	50.0	48.4	0.0	1.6	0.0	98.4	0.0	1.6
소속별	대학	(30)	50.0	50.0	0.0	0.0	0.0	100.0	0.0	0.0
	연구소	(32)	50.0	46.9	0.0	3.1	0.0	96.9	0.0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8.4	58.6	11.8	1.2	0.0	86.9	11.8	1.2
	중	(497)	19.3	64.4	15.7	0.4	0.2	83.7	15.7	0.6
	하	(136)	25.7	53.7	19.9	0.7	0.0	79.4	19.9	0.7
성별	남성	(720)	25.0	59.2	14.6	1.1	0.1	84.2	14.6	1.3
	여성	(480)	23.3	62.3	14.0	0.4	0.0	85.6	14.0	0.4
연령별	18-29세	(303)	20.5	61.4	17.2	1.0	0.0	81.8	17.2	1.0
	30대	(256)	23.0	63.7	12.1	1.2	0.0	86.7	12.1	1.2
	40대	(314)	28.0	55.4	15.0	1.3	0.3	83.4	15.0	1.6
	50대	(327)	25.4	61.8	12.8	0.0	0.0	87.2	12.8	0.0
지역별	서울	(238)	10.1	72.3	16.4	1.3	0.0	82.4	16.4	1.3
	경기/인천	(393)	34.9	55.2	9.9	0.0	0.0	90.1	9.9	0.0
	대전/세종/충청	(128)	11.7	68.8	19.5	0.0	0.0	80.5	19.5	0.0
	광주/전라	(110)	12.7	63.6	18.2	4.5	0.9	76.4	18.2	5.5
	대구/경북	(109)	33.0	45.9	21.1	0.0	0.0	78.9	21.1	0.0
	부산/울산/경남	(175)	29.7	60.6	8.6	1.1	0.0	90.3	8.6	1.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9.8	46.8	23.4	0.0	0.0	76.6	23.4	0.0
	대도시	(551)	16.7	63.9	18.3	1.1	0.0	80.6	18.3	1.1
	중소도시	(608)	31.6	57.2	10.7	0.5	0.0	88.8	10.7	0.5
	군지역	(41)	19.5	61.0	14.6	2.4	2.4	80.5	14.6	4.9
직업별	자영업자	(182)	26.4	61.0	12.1	0.5	0.0	87.4	12.1	0.5
	블루칼라	(351)	27.6	58.7	12.5	1.1	0.0	86.3	12.5	1.1
	화이트칼라	(409)	18.3	64.8	15.9	0.7	0.2	83.1	15.9	1.0
	전업주부	(163)	28.2	58.3	12.9	0.6	0.0	86.5	12.9	0.6
	학생	(69)	26.1	52.2	20.3	1.4	0.0	78.3	20.3	1.4
	무직/기타	(26)	30.8	46.2	23.1	0.0	0.0	76.9	23.1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0.8	55.1	13.8	0.3	0.0	85.9	13.8	0.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0.9	63.0	15.4	0.6	0.0	83.9	15.4	0.6
	4년제 이상	(535)	22.1	62.4	14.0	1.3	0.2	84.5	14.0	1.5
생활 수준별	상	(137)	17.5	62.8	17.5	2.2	0.0	80.3	17.5	2.2
	중	(700)	22.6	61.0	15.4	0.9	0.1	83.6	15.4	1.0
	하	(363)	30.3	58.4	11.0	0.3	0.0	88.7	11.0	0.3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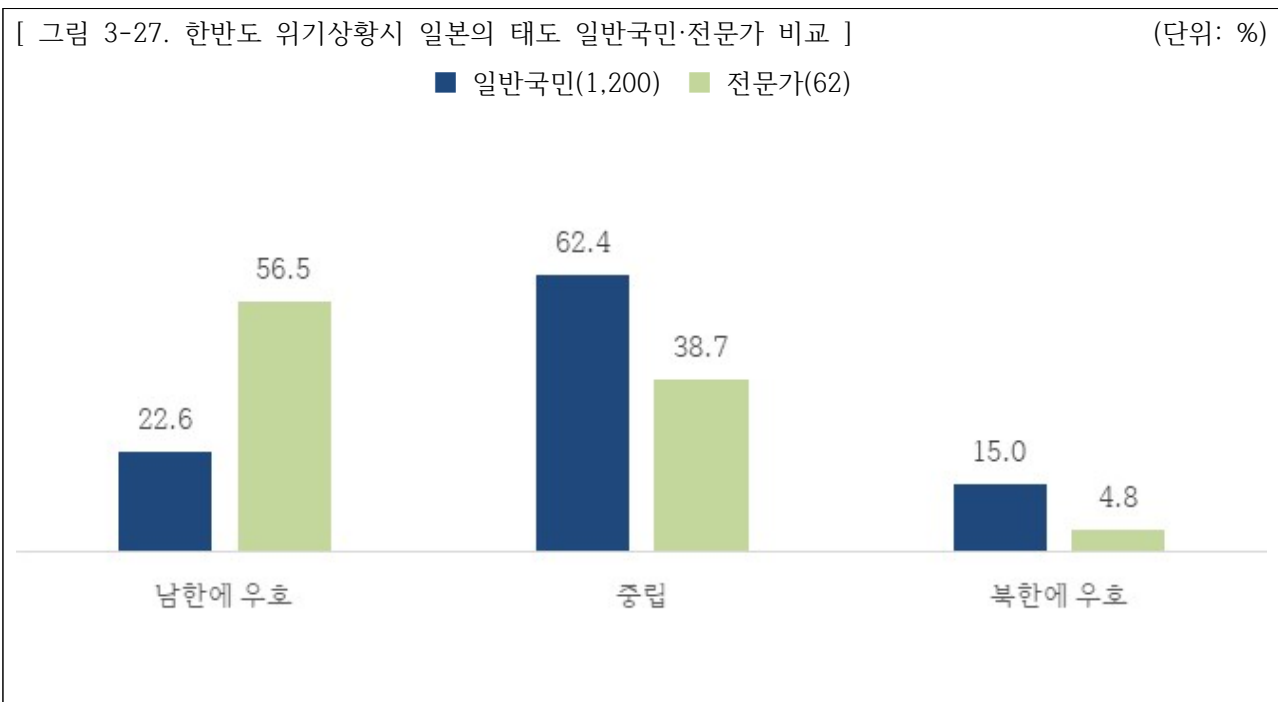
Q. 만약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일본

‘남한에 우호적일 것’: 일반국민 22.6%, 전문가 56.5%

- [일반국민] 한반도에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2.6%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15.0%)이라는 응답보다 7.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7.1%p(2019년 29.7%) 감소하였으며,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 또한 5.4%p(2019년 20.4%)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6.5%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4.8%)이라는 응답보다 51.6%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6.9%p(2019년 73.4%) 감소한 반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4.8%p(2019년 0.0%)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27.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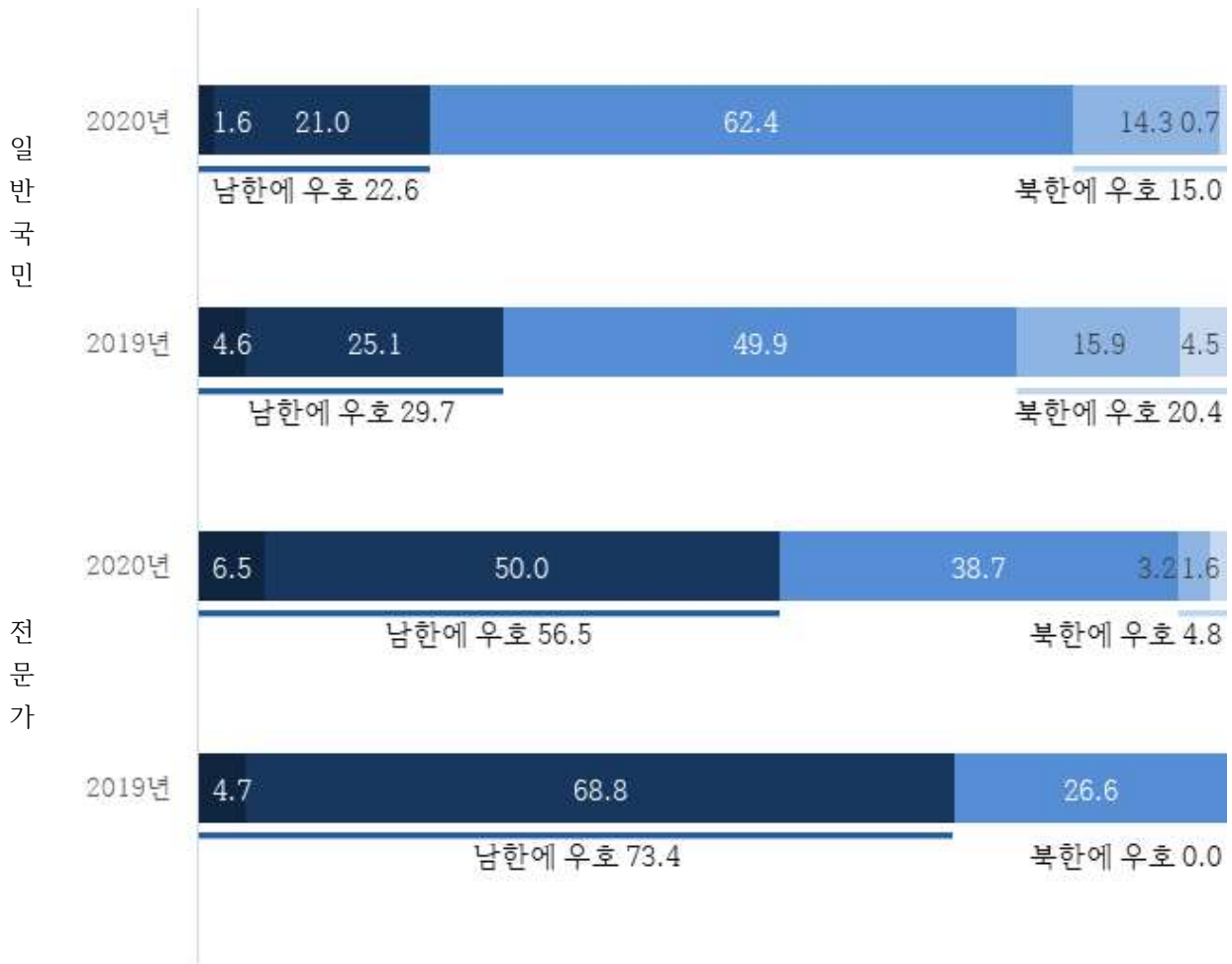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28. 한반도 위기상황시 일본의 태도 전년도 비교]

(단위: %)

■ 남한 적극 지원 ■ 남한에 우호적 입장 ■ 중립 ■ 북한에 우호적 입장 ■ 북한 적극 지원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에 태도에 대해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14.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단위: 명, %)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2)	1.8	22.4	61.3	13.8	0.7	24.2	61.3	1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	21.0	62.4	14.3	0.7	22.6	62.4	15.0
	전문가	(62)	6.5	50.0	38.7	3.2	1.6	56.5	38.7	4.8
소속별	대학	(30)	3.3	50.0	46.7	0.0	0.0	53.3	46.7	0.0
	연구소	(32)	9.4	50.0	31.3	6.3	3.1	59.4	31.3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6	24.0	59.4	13.2	0.7	26.6	59.4	13.9
	중	(497)	0.6	17.9	66.2	14.9	0.4	18.5	66.2	15.3
	하	(136)	0.7	19.9	61.0	16.9	1.5	20.6	61.0	18.4
성별	남성	(720)	1.8	21.7	61.5	14.3	0.7	23.5	61.5	15.0
	여성	(480)	1.3	20.0	63.8	14.4	0.6	21.3	63.8	15.0
연령별	18-29세	(303)	1.0	18.2	63.0	16.8	1.0	19.1	63.0	17.8
	30대	(256)	1.6	20.3	65.2	12.5	0.4	21.9	65.2	12.9
	40대	(314)	2.2	24.2	60.5	12.1	1.0	26.4	60.5	13.1
	50대	(327)	1.5	21.1	61.5	15.6	0.3	22.6	61.5	15.9
지역별	서울	(238)	0.8	15.1	70.2	13.0	0.8	16.0	70.2	13.9
	경기/인천	(393)	1.8	27.7	60.6	9.7	0.3	29.5	60.6	9.9
	대전/세종/충청	(128)	0.8	4.7	60.9	32.8	0.8	5.5	60.9	33.6
	광주/전라	(110)	2.7	16.4	53.6	25.5	1.8	19.1	53.6	27.3
	대구/경북	(109)	0.9	34.9	55.0	8.3	0.9	35.8	55.0	9.2
	부산/울산/경남	(175)	0.6	19.4	69.7	9.7	0.6	20.0	69.7	10.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23.4	53.2	14.9	0.0	31.9	53.2	14.9
	대도시	(551)	1.5	19.2	64.4	14.0	0.9	20.7	64.4	14.9
	중소도시	(608)	1.8	23.5	60.9	13.3	0.5	25.3	60.9	13.8
	군지역	(41)	0.0	7.3	58.5	34.1	0.0	7.3	58.5	34.1
직업별	자영업자	(182)	3.3	22.5	62.6	11.5	0.0	25.8	62.6	11.5
	블루칼라	(351)	1.1	21.1	59.3	17.9	0.6	22.2	59.3	18.5
	화이트칼라	(409)	1.0	18.1	66.5	13.7	0.7	19.1	66.5	14.4
	전업주부	(163)	2.5	25.8	58.9	11.7	1.2	28.2	58.9	12.9
	학생	(69)	1.4	21.7	60.9	14.5	1.4	23.2	60.9	15.9
	무직/기타	(26)	0.0	23.1	65.4	11.5	0.0	23.1	65.4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3	23.4	59.3	14.1	0.8	25.7	59.3	15.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	20.3	60.8	16.7	0.6	21.9	60.8	17.4
	4년제 이상	(535)	1.1	19.8	65.4	13.1	0.6	20.9	65.4	13.6
생활 수준별	상	(137)	3.6	16.8	56.9	22.6	0.0	20.4	56.9	22.6
	중	(700)	1.3	20.1	63.9	13.9	0.9	21.4	63.9	14.7
	하	(363)	1.4	24.2	61.7	12.1	0.6	25.6	61.7	12.7

(3) 중국

Q. 만약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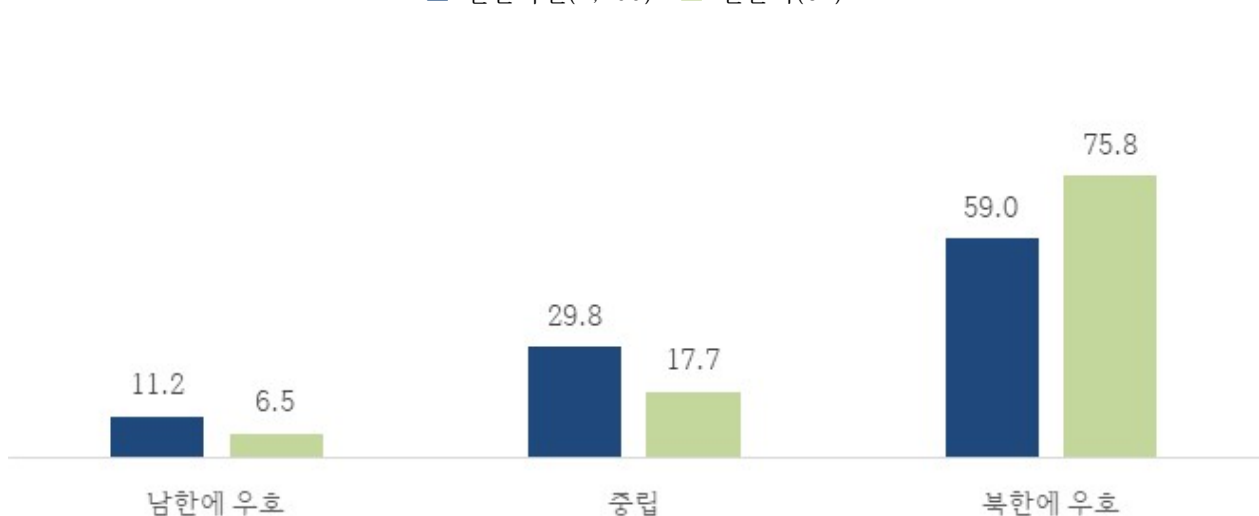
‘북한에 우호적일 것’: 일반국민 59.0%, 전문가 75.8%

- **[일반국민]** 한반도에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9.0%로, ‘남한에 우호적일 것’(11.2%)이라는 응답보다 47.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7%p(2019년 57.3%) 증가,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0.2%p(2019년 11.4%)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75.8%로, ‘남한에 우호적일 것’(6.5%)이라는 응답보다 69.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3.9%p(2019년 79.7%) 감소,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8%p(2019년 4.7%)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29.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30. 한반도 위기상황시 중국의 태도 전년도 비교]

(단위: %)

■ 남한 적극 지원 ■ 남한에 우호적 입장 ■ 중립 ■ 북한에 우호적 입장 ■ 북한 적극 지원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에 태도에 대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5.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2)	1.3	9.6	29.2	43.7	16.2	10.9	29.2	5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	9.8	29.8	43.2	15.8	11.2	29.8	59.0
	전문가	(62)	0.0	6.5	17.7	53.2	22.6	6.5	17.7	75.8
소속별	대학	(30)	0.0	10.0	10.0	63.3	16.7	10.0	10.0	80.0
	연구소	(32)	0.0	3.1	25.0	43.8	28.1	3.1	25.0	71.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10.4	27.7	43.2	17.1	12.0	27.7	60.3
	중	(497)	0.8	8.5	32.6	44.5	13.7	9.3	32.6	58.1
	하	(136)	2.9	11.8	28.7	38.2	18.4	14.7	28.7	56.6
성별	남성	(720)	1.3	9.6	30.1	42.9	16.1	10.8	30.1	59.0
	여성	(480)	1.7	10.0	29.4	43.5	15.4	11.7	29.4	59.0
연령별	18-29세	(303)	1.0	11.2	26.7	44.9	16.2	12.2	26.7	61.1
	30대	(256)	2.0	7.8	30.9	43.8	15.6	9.8	30.9	59.4
	40대	(314)	1.9	10.8	29.3	42.7	15.3	12.7	29.3	58.0
	50대	(327)	0.9	8.9	32.4	41.6	16.2	9.8	32.4	57.8
지역별	서울	(238)	3.8	20.6	33.6	24.4	17.6	24.4	33.6	42.0
	경기/인천	(393)	0.0	7.6	24.9	48.3	19.1	7.6	24.9	67.4
	대전/세종/충청	(128)	1.6	2.3	38.3	48.4	9.4	3.9	38.3	57.8
	광주/전라	(110)	0.9	11.8	27.3	49.1	10.9	12.7	27.3	60.0
	대구/경북	(109)	0.0	0.0	19.3	52.3	28.4	0.0	19.3	80.7
	부산/울산/경남	(175)	0.6	10.3	36.0	43.4	9.7	10.9	36.0	53.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8.5	36.2	44.7	2.1	17.0	36.2	46.8
	대도시	(551)	2.5	12.5	35.9	37.6	11.4	15.1	35.9	49.0
	중소도시	(608)	0.3	7.6	24.5	46.9	20.7	7.9	24.5	67.6
	군지역	(41)	2.4	4.9	26.8	63.4	2.4	7.3	26.8	65.9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12.6	35.2	37.4	14.3	13.2	35.2	51.6
	블루칼라	(351)	0.9	4.8	27.4	48.1	18.8	5.7	27.4	67.0
	화이트칼라	(409)	2.2	13.0	28.9	43.8	12.2	15.2	28.9	56.0
	전업주부	(163)	1.8	11.7	33.1	37.4	16.0	13.5	33.1	53.4
	학생	(69)	0.0	5.8	31.9	37.7	24.6	5.8	31.9	62.3
	무직/기타	(26)	3.8	3.8	15.4	57.7	19.2	7.7	15.4	76.9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	10.2	29.4	42.4	16.9	11.3	29.4	59.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3	10.6	30.9	43.1	13.2	12.9	30.9	56.3
	4년제 이상	(535)	1.1	9.0	29.5	43.7	16.6	10.1	29.5	60.4
생활 수준별	상	(137)	2.9	15.3	32.8	39.4	9.5	18.2	32.8	48.9
	중	(700)	1.6	10.6	34.1	40.6	13.1	12.1	34.1	53.7
	하	(363)	0.6	6.1	20.4	49.6	23.4	6.6	20.4	73.0

(4) 러시아

Q. 만약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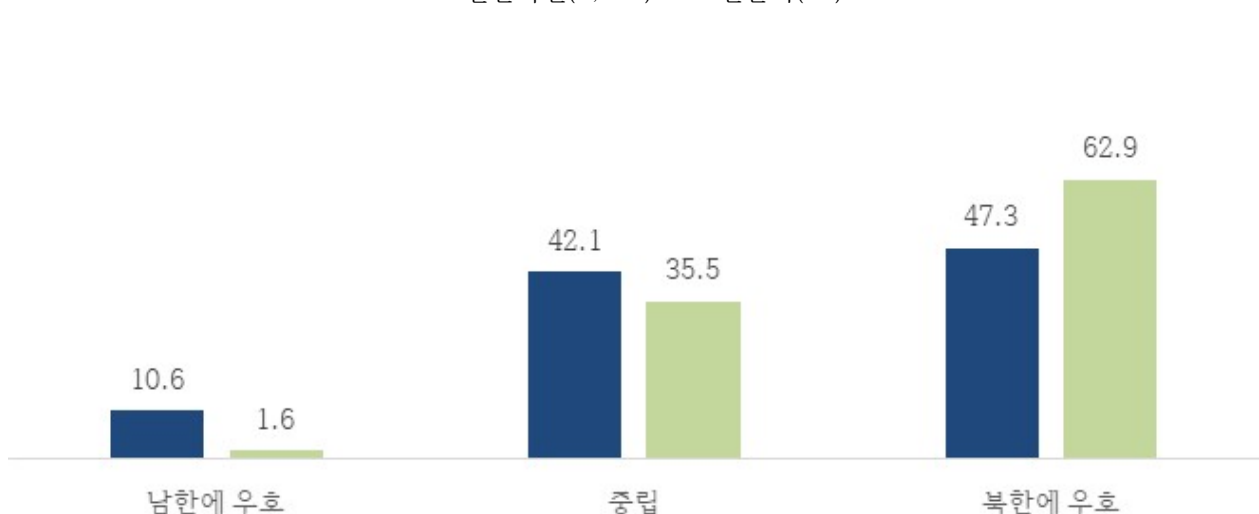
‘북한에 우호적일 것’: 일반국민 47.3%, 전문가 62.9%

- [일반국민] 한반도에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47.3%로, ‘남한에 우호적일 것’(10.6%)이라는 응답보다 36.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9%p(2019년 50.2%),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2%p(2019년 11.8%)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2.9%로, ‘남한에 우호적일 것’(1.6%)이라는 응답보다 61.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2%p(2019년 64.1%), ‘남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3.1%p(2019년 4.7%)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31. 한반도 위기상황시 러시아의 태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32. 한반도 위기상황시 러시아의 태도 전년도 비교]

(단위: %)

■ 남한 적극 지원 ■ 남한에 우호적 입장 ■ 중립 ■ 북한에 우호적 입장 ■ 북한 적극 지원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단위: 명, %)

		사례수 (명)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남한에 우호	중립	북한에 우호
전체		(1262)	1.2	9.0	41.8	39.7	8.4	10.1	41.8	48.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9.3	42.1	38.9	8.4	10.6	42.1	47.3
	전문가	(62)	0.0	1.6	35.5	54.8	8.1	1.6	35.5	62.9
소속별	대학	(30)	0.0	3.3	43.3	43.3	10.0	3.3	43.3	53.3
	연구소	(32)	0.0	0.0	28.1	65.6	6.3	0.0	28.1	71.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8.8	41.4	37.0	11.1	10.4	41.4	48.1
	중	(497)	1.0	8.0	42.7	43.1	5.2	9.1	42.7	48.3
	하	(136)	0.7	16.2	42.6	31.6	8.8	16.9	42.6	40.4
성별	남성	(720)	1.4	8.6	44.0	37.4	8.6	10.0	44.0	46.0
	여성	(480)	1.0	10.4	39.2	41.3	8.1	11.5	39.2	49.4
연령별	18-29세	(303)	1.0	9.2	45.9	36.6	7.3	10.2	45.9	43.9
	30대	(256)	2.0	9.8	40.6	40.2	7.4	11.7	40.6	47.7
	40대	(314)	1.3	8.9	42.4	38.2	9.2	10.2	42.4	47.5
	50대	(327)	0.9	9.5	39.4	40.7	9.5	10.4	39.4	50.2
지역별	서울	(238)	3.8	20.2	41.2	29.0	5.9	23.9	41.2	34.9
	경기/인천	(393)	0.0	5.3	38.4	45.8	10.4	5.3	38.4	56.2
	대전/세종/충청	(128)	0.0	9.4	53.9	35.2	1.6	9.4	53.9	36.7
	광주/전라	(110)	1.8	10.0	42.7	43.6	1.8	11.8	42.7	45.5
	대구/경북	(109)	0.0	0.9	28.4	57.8	12.8	0.9	28.4	70.6
	부산/울산/경남	(175)	0.0	8.0	49.7	26.3	16.0	8.0	49.7	42.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10.6	46.8	34.0	0.0	19.1	46.8	34.0
	대도시	(551)	2.4	13.6	45.2	32.8	6.0	16.0	45.2	38.8
	중소도시	(608)	0.3	5.8	39.1	43.6	11.2	6.1	39.1	54.8
	군지역	(41)	0.0	4.9	43.9	51.2	0.0	4.9	43.9	51.2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9.3	45.6	37.4	6.6	10.4	45.6	44.0
	블루칼라	(351)	0.0	7.7	40.2	38.7	13.4	7.7	40.2	52.1
	화이트칼라	(409)	2.4	10.3	43.3	37.4	6.6	12.7	43.3	44.0
	전업주부	(163)	1.8	11.0	35.6	43.6	8.0	12.9	35.6	51.5
	학생	(69)	0.0	10.1	52.2	36.2	1.4	10.1	52.2	37.7
	무직/기타	(26)	0.0	3.8	38.5	53.8	3.8	3.8	38.5	5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9.9	40.1	40.4	9.3	10.2	40.1	49.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9	10.6	43.7	35.0	8.7	12.5	43.7	43.7
	4년제 이상	(535)	1.5	8.2	42.4	40.2	7.7	9.7	42.4	47.9
생활 수준별	상	(137)	3.6	9.5	56.2	24.1	6.6	13.1	56.2	30.7
	중	(700)	1.4	9.6	45.3	38.3	5.4	11.0	45.3	43.7
	하	(363)	0.0	8.8	30.6	45.7	14.9	8.8	30.6	60.6

1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Q.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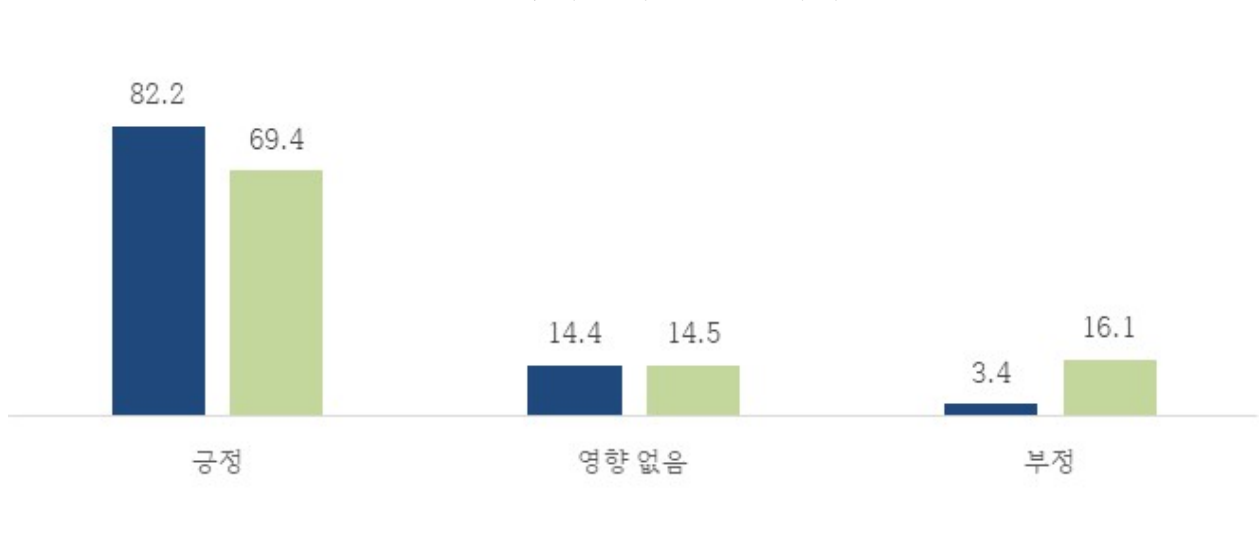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일반국민 82.2%, 전문가 69.4%

- **[일반국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2.2%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3.4%)이라는 응답보다 7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6%p(2019년 76.6%) 증가한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0%p(2019년 6.4%)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9.4%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16.1%)이라는 응답보다 53.2%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6%p(2019년 75.0%),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2%p(2019년 20.3%)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33.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34.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7.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다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다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2)	15.0	66.6	14.4	4.0	0.1	81.5	14.4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1	67.1	14.4	3.4	0.0	82.2	14.4	3.4
	전문가	(62)	12.9	56.5	14.5	14.5	1.6	69.4	14.5	16.1
소속별	대학	(30)	10.0	63.3	10.0	13.3	3.3	73.3	10.0	16.7
	연구소	(32)	15.6	50.0	18.8	15.6	0.0	65.6	18.8	15.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7.8	67.0	11.5	3.7	-	84.8	11.5	3.7
	중	(497)	10.9	69.2	17.5	2.4	-	80.1	17.5	2.4
	하	(136)	19.1	59.6	15.4	5.9	-	78.7	15.4	5.9
성별	남성	(720)	15.3	66.7	15.1	2.9	-	81.9	15.1	2.9
	여성	(480)	14.8	67.7	13.3	4.2	-	82.5	13.3	4.2
연령별	18-29세	(303)	13.9	69.6	12.9	3.6	-	83.5	12.9	3.6
	30대	(256)	13.7	66.4	16.0	3.9	-	80.1	16.0	3.9
	40대	(314)	13.4	66.2	16.6	3.8	-	79.6	16.6	3.8
	50대	(327)	19.0	66.1	12.5	2.4	-	85.0	12.5	2.4
지역별	서울	(238)	10.1	71.8	16.0	2.1	-	81.9	16.0	2.1
	경기/인천	(393)	19.1	67.2	12.0	1.8	-	86.3	12.0	1.8
	대전/세종/충청	(128)	7.0	69.5	21.9	1.6	-	76.6	21.9	1.6
	광주/전라	(110)	7.3	70.0	14.5	8.2	-	77.3	14.5	8.2
	대구/경북	(109)	16.5	63.3	14.7	5.5	-	79.8	14.7	5.5
	부산/울산/경남	(175)	20.6	65.1	10.3	4.0	-	85.7	10.3	4.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3.4	44.7	21.3	10.6	-	68.1	21.3	10.6
	대도시	(551)	11.4	66.2	17.1	5.3	-	77.7	17.1	5.3
	중소도시	(608)	18.6	67.4	12.5	1.5	-	86.0	12.5	1.5
	군지역	(41)	12.2	73.2	7.3	7.3	-	85.4	7.3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17.0	62.1	18.7	2.2	-	79.1	18.7	2.2
	블루칼라	(351)	15.1	69.8	12.8	2.3	-	84.9	12.8	2.3
	화이트칼라	(409)	10.3	69.9	15.4	4.4	-	80.2	15.4	4.4
	전업주부	(163)	22.1	63.8	10.4	3.7	-	85.9	10.4	3.7
	학생	(69)	20.3	59.4	14.5	5.8	-	79.7	14.5	5.8
	무직/기타	(26)	19.2	61.5	15.4	3.8	-	80.8	15.4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8.6	65.5	13.8	2.0	-	84.2	13.8	2.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5	70.1	13.2	3.2	-	83.6	13.2	3.2
	4년제 이상	(535)	13.6	66.4	15.5	4.5	-	80.0	15.5	4.5
생활 수준별	상	(137)	14.6	67.2	13.1	5.1	-	81.8	13.1	5.1
	중	(700)	12.7	69.3	14.6	3.4	-	82.0	14.6	3.4
	하	(363)	19.8	62.8	14.6	2.8	-	82.6	14.6	2.8

(2) 일본

Q.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일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일반국민 39.1%, 전문가 69.4%

- **[일반국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15.4%)이라는 응답보다 23.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8%p(2019년 45.9%) 감소하였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또한 7.5%p(2019년 22.9%) 감소함
- **[전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9.4%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12.9%)이라는 응답보다 56.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0.9%p(2019년 70.3%),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7%p(2019년 15.6%)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35.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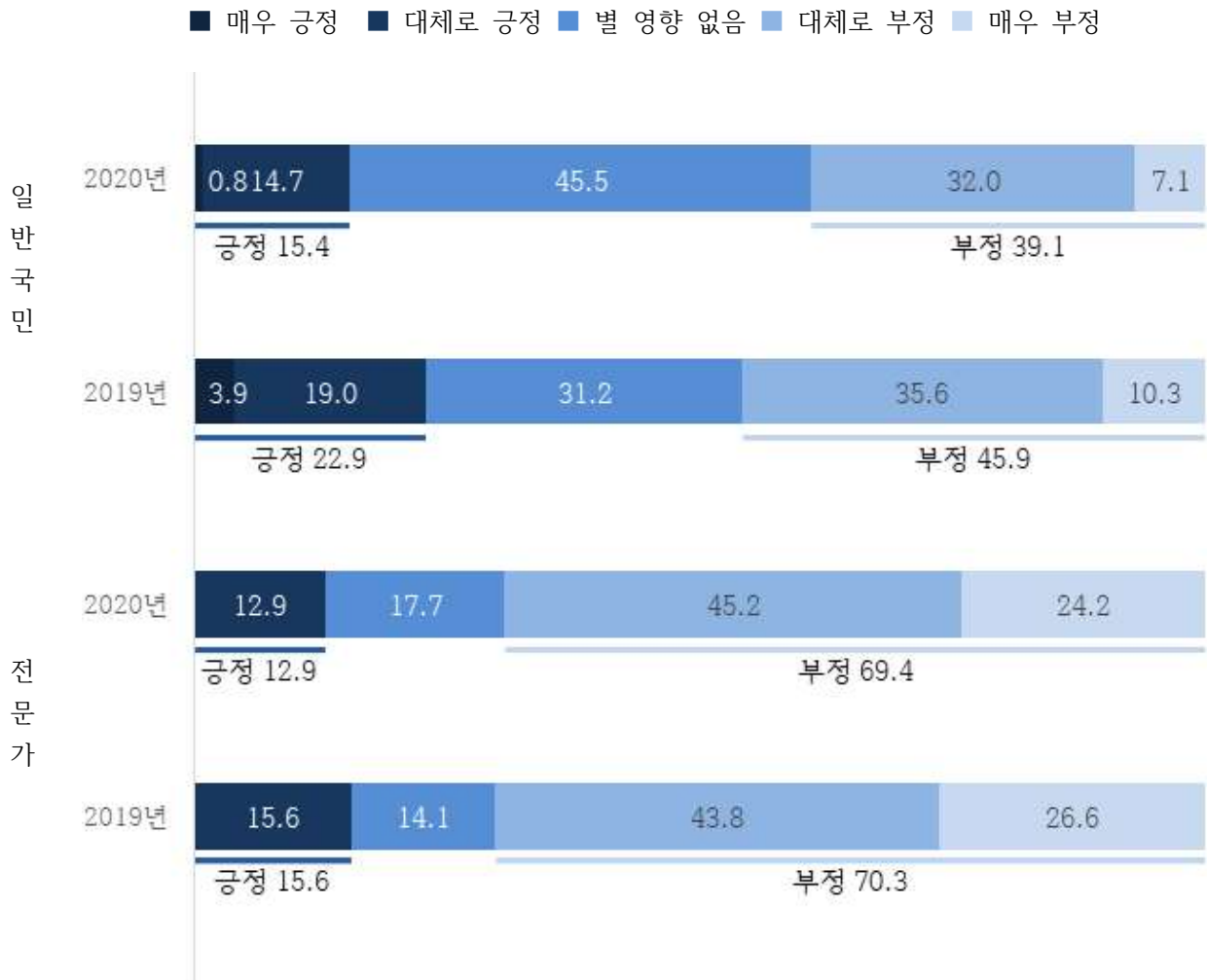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36.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8.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다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다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2)	0.7	14.6	44.1	32.6	7.9	15.3	44.1	40.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4.7	45.5	32.0	7.1	15.4	45.5	39.1
	전문가	(62)	0.0	12.9	17.7	45.2	24.2	12.9	17.7	69.4
소속별	대학	(30)	0.0	6.7	23.3	46.7	23.3	6.7	23.3	70.0
	연구소	(32)	0.0	18.8	12.5	43.8	25.0	18.8	12.5	6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9	15.9	41.3	34.0	7.9	16.8	41.3	42.0
	중	(497)	0.6	13.1	49.3	30.6	6.4	13.7	49.3	37.0
	하	(136)	0.7	15.4	49.3	28.7	5.9	16.2	49.3	34.6
성별	남성	(720)	0.8	15.7	44.3	32.1	7.1	16.5	44.3	39.2
	여성	(480)	0.6	13.1	47.3	31.9	7.1	13.8	47.3	39.0
연령별	18-29세	(303)	0.0	14.9	45.2	32.7	7.3	14.9	45.2	39.9
	30대	(256)	2.3	12.1	46.1	30.9	8.6	14.5	46.1	39.5
	40대	(314)	0.3	14.6	44.9	32.8	7.3	15.0	44.9	40.1
	50대	(327)	0.6	16.5	45.9	31.5	5.5	17.1	45.9	37.0
지역별	서울	(238)	0.4	11.8	56.7	24.4	6.7	12.2	56.7	31.1
	경기/인천	(393)	0.8	18.3	35.6	35.4	9.9	19.1	35.6	45.3
	대전/세종/충청	(128)	0.0	6.3	35.9	50.8	7.0	6.3	35.9	57.8
	광주/전라	(110)	0.9	20.0	49.1	26.4	3.6	20.9	49.1	30.0
	대구/경북	(109)	0.0	10.1	48.6	33.9	7.3	10.1	48.6	41.3
	부산/울산/경남	(175)	0.0	15.4	56.6	24.6	3.4	15.4	56.6	28.0
	강원/제주	(47)	8.5	17.0	40.4	27.7	6.4	25.5	40.4	34.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7	14.3	52.3	27.6	5.1	15.1	52.3	32.7
	중소도시	(608)	0.8	15.1	39.5	35.4	9.2	16.0	39.5	44.6
	군지역	(41)	0.0	12.2	43.9	41.5	2.4	12.2	43.9	43.9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19.2	44.5	29.1	6.0	20.3	44.5	35.2
	블루칼라	(351)	0.6	12.0	47.3	33.9	6.3	12.5	47.3	40.2
	화이트칼라	(409)	0.7	15.2	44.0	32.5	7.6	15.9	44.0	40.1
	전업주부	(163)	1.2	12.9	46.0	31.9	8.0	14.1	46.0	39.9
	학생	(69)	0.0	15.9	43.5	30.4	10.1	15.9	43.5	40.6
	무직/기타	(26)	0.0	19.2	53.8	23.1	3.8	19.2	53.8	26.9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6	15.8	46.3	31.4	5.9	16.4	46.3	37.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	12.9	48.9	29.6	7.1	14.5	48.9	36.7
	4년제 이상	(535)	0.4	15.0	43.0	33.8	7.9	15.3	43.0	41.7
생활 수준별	상	(137)	2.2	19.7	41.6	32.1	4.4	21.9	41.6	36.5
	중	(700)	0.6	15.0	47.9	30.3	6.3	15.6	47.9	36.6
	하	(363)	0.6	12.1	42.4	35.3	9.6	12.7	42.4	44.9

(3) 중국

Q.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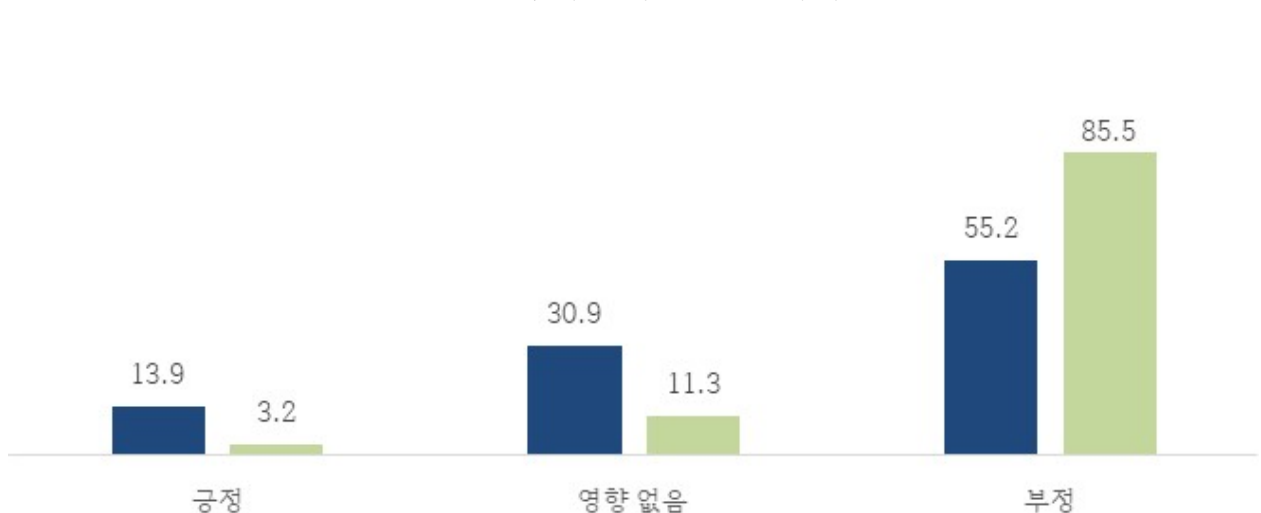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일반국민 55.2%, 전문가 85.5%

- **[일반국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5.2%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13.9%)이라는 응답보다 41.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0.1%p(2019년 55.1%),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3%p(2019년 12.6%)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5.5%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3.2%)이라는 응답보다 82.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7%p(2019년 92.2%) 감소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6%p(2019년 1.6%)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37.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38.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다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다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2)	0.8	12.6	30.0	41.5	15.1	13.4	30.0	56.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3.1	30.9	41.1	14.1	13.9	30.9	55.2
	전문가	(62)	0.0	3.2	11.3	50.0	35.5	3.2	11.3	85.5
소속별	대학	(30)	0.0	3.3	13.3	60.0	23.3	3.3	13.3	83.3
	연구소	(32)	0.0	3.1	9.4	40.6	46.9	3.1	9.4	87.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9	14.3	28.7	39.3	16.8	15.2	28.7	56.1
	중	(497)	0.6	12.1	33.0	42.9	11.5	12.7	33.0	54.3
	하	(136)	1.5	11.8	32.4	41.9	12.5	13.2	32.4	54.4
성별	남성	(720)	0.6	12.5	32.4	40.4	14.2	13.1	32.4	54.6
	여성	(480)	1.3	14.0	28.8	42.1	14.0	15.2	28.8	56.0
연령별	18-29세	(303)	0.3	12.5	31.4	42.2	13.5	12.9	31.4	55.8
	30대	(256)	1.2	12.9	30.5	43.0	12.5	14.1	30.5	55.5
	40대	(314)	0.3	14.0	30.6	40.8	14.3	14.3	30.6	55.1
	50대	(327)	1.5	12.8	31.2	38.8	15.6	14.4	31.2	54.4
지역별	서울	(238)	2.1	25.2	29.4	31.5	11.8	27.3	29.4	43.3
	경기/인천	(393)	0.0	9.9	27.0	41.5	21.6	9.9	27.0	63.1
	대전/세종/충청	(128)	0.0	9.4	37.5	45.3	7.8	9.4	37.5	53.1
	광주/전라	(110)	1.8	15.5	32.7	49.1	0.9	17.3	32.7	50.0
	대구/경북	(109)	0.0	3.7	22.9	56.0	17.4	3.7	22.9	73.4
	부산/울산/경남	(175)	0.0	10.9	40.0	37.7	11.4	10.9	40.0	49.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12.8	34.0	34.0	12.8	19.1	34.0	46.8
	대도시	(551)	1.5	16.5	34.3	40.5	7.3	18.0	34.3	47.7
	중소도시	(608)	0.2	10.5	27.6	41.1	20.6	10.7	27.6	61.7
	군지역	(41)	2.4	4.9	34.1	48.8	9.8	7.3	34.1	58.5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17.6	34.6	34.6	13.2	17.6	34.6	47.8
	블루칼라	(351)	0.3	9.4	28.5	46.4	15.4	9.7	28.5	61.8
	화이트칼라	(409)	1.2	14.4	31.8	40.6	12.0	15.6	31.8	52.6
	전업주부	(163)	1.8	13.5	29.4	38.7	16.6	15.3	29.4	55.2
	학생	(69)	0.0	10.1	31.9	37.7	20.3	10.1	31.9	58.0
	무직/기타	(26)	3.8	15.4	30.8	46.2	3.8	19.2	30.8	5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8	12.4	29.9	40.7	16.1	13.3	29.9	56.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	16.7	32.2	39.5	10.3	18.0	32.2	49.8
	4년제 이상	(535)	0.6	11.4	30.8	42.2	15.0	12.0	30.8	57.2
생활 수준별	상	(137)	1.5	20.4	31.4	38.7	8.0	21.9	31.4	46.7
	중	(700)	1.1	14.1	33.1	40.9	10.7	15.3	33.1	51.6
	하	(363)	0.0	8.3	26.4	42.4	22.9	8.3	26.4	65.3

(4) 러시아

Q.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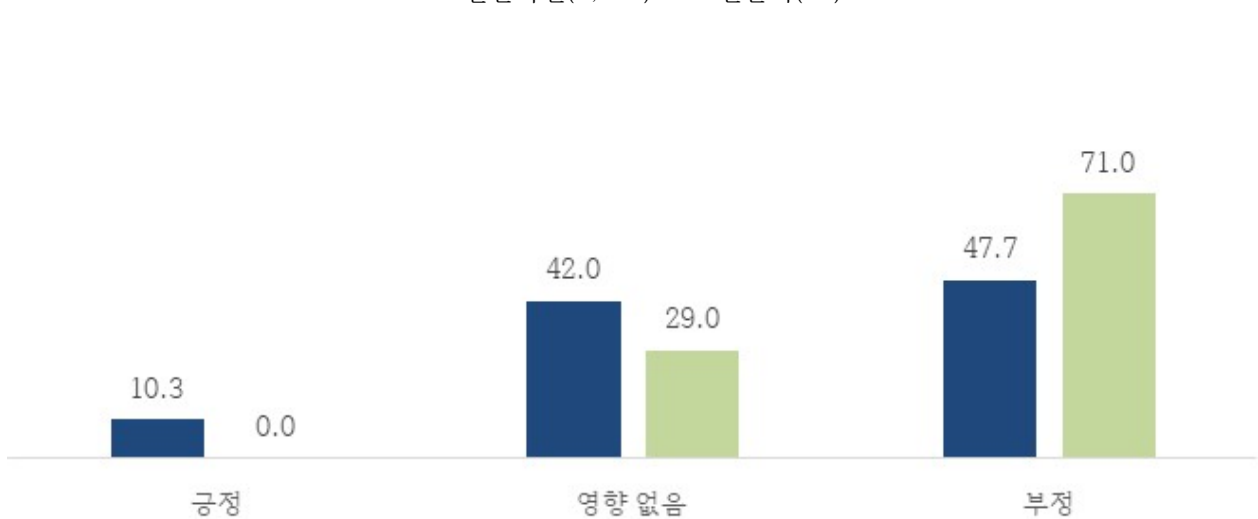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일반국민 47.7%, 전문가 71.0%

- [일반국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7.7%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10.3%)이라는 응답보다 37.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9%p(2019년 45.8%) 증가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5%p(2019년 13.8%)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1.0%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13.4%p(2019년 84.4%) 감소함

[그림 3-39.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40.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0.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다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다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2)	1.4	8.4	41.4	40.7	8.1	9.8	41.4	4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	8.8	42.0	40.0	7.7	10.3	42.0	47.7
	전문가	(62)	0.0	0.0	29.0	54.8	16.1	0.0	29.0	71.0
소속별	대학	(30)	0.0	0.0	33.3	53.3	13.3	0.0	33.3	66.7
	연구소	(32)	0.0	0.0	25.0	56.3	18.8	0.0	25.0	7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9.0	41.3	37.6	10.6	10.6	41.3	48.1
	중	(497)	1.2	7.6	43.1	43.3	4.8	8.9	43.1	48.1
	하	(136)	2.2	12.5	41.2	38.2	5.9	14.7	41.2	44.1
성별	남성	(720)	1.4	8.1	43.5	39.7	7.4	9.4	43.5	47.1
	여성	(480)	1.7	10.0	39.8	40.4	8.1	11.7	39.8	48.5
연령별	18-29세	(303)	1.0	8.3	39.9	43.9	6.9	9.2	39.9	50.8
	30대	(256)	2.7	7.4	44.1	40.6	5.1	10.2	44.1	45.7
	40대	(314)	1.0	9.2	42.0	39.5	8.3	10.2	42.0	47.8
	50대	(327)	1.5	10.1	42.2	36.4	9.8	11.6	42.2	46.2
지역별	서울	(238)	5.5	16.0	40.8	34.5	3.4	21.4	40.8	37.8
	경기/인천	(393)	0.0	5.6	36.4	48.3	9.7	5.6	36.4	58.0
	대전/세종/충청	(128)	0.0	10.2	54.7	34.4	0.8	10.2	54.7	35.2
	광주/전라	(110)	1.8	14.5	49.1	34.5	0.0	16.4	49.1	34.5
	대구/경북	(109)	0.0	2.8	26.6	57.8	12.8	2.8	26.6	70.6
	부산/울산/경남	(175)	0.0	4.0	50.9	28.0	17.1	4.0	50.9	45.1
	강원/제주	(47)	6.4	14.9	46.8	29.8	2.1	21.3	46.8	31.9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2.9	10.3	45.7	36.3	4.7	13.2	45.7	41.0
	중소도시	(608)	0.2	7.1	38.7	43.8	10.4	7.2	38.7	54.1
	군지역	(41)	2.4	14.6	41.5	34.1	7.3	17.1	41.5	41.5
직업별	자영업자	(182)	2.7	7.7	48.4	33.5	7.7	10.4	48.4	41.2
	블루칼라	(351)	0.3	6.0	39.3	43.6	10.8	6.3	39.3	54.4
	화이트칼라	(409)	2.0	11.0	41.8	40.1	5.1	13.0	41.8	45.2
	전업주부	(163)	2.5	9.8	38.0	41.1	8.6	12.3	38.0	49.7
	학생	(69)	0.0	7.2	47.8	39.1	5.8	7.2	47.8	44.9
	무직/기타	(26)	0.0	19.2	46.2	30.8	3.8	19.2	46.2	34.6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8	9.3	42.4	37.6	9.9	10.2	42.4	47.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9	10.0	44.4	37.6	5.1	12.9	44.4	42.8
	4년제 이상	(535)	1.1	7.9	40.4	43.0	7.7	9.0	40.4	50.7
생활 수준별	상	(137)	2.2	16.1	45.3	30.7	5.8	18.2	45.3	36.5
	중	(700)	1.6	9.1	46.1	39.1	4.0	10.7	46.1	43.1
	하	(363)	1.1	5.5	32.8	45.2	15.4	6.6	32.8	60.6

1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1) 미국

Q. 귀하는 미래(5년 이후)의 한국과 다음의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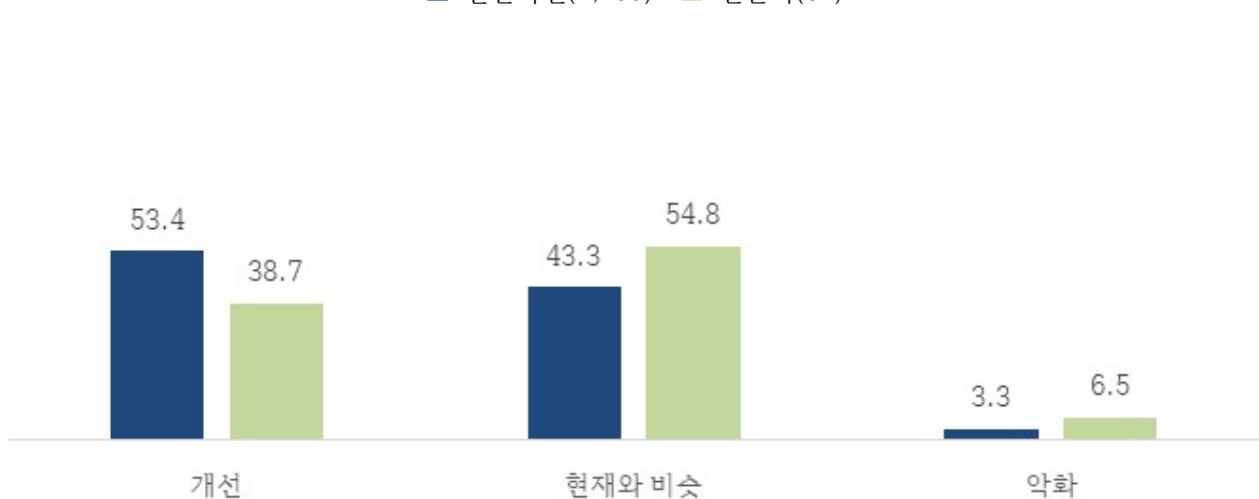
‘개선될 것’: 일반국민 53.4%, 전문가 38.7%

- **[일반국민]**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53.4%로 ‘악화될 것’(3.3%)이라는 응답보다 50.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2%p(2019년 52.0%) 증가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9%p(2019년 5.2%)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8.7%로 ‘악화될 것’(6.5%)이라는 응답보다 32.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0%p(2019년 29.7%) 증가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p(2019년 18.8%) 감소함

[그림 3-41.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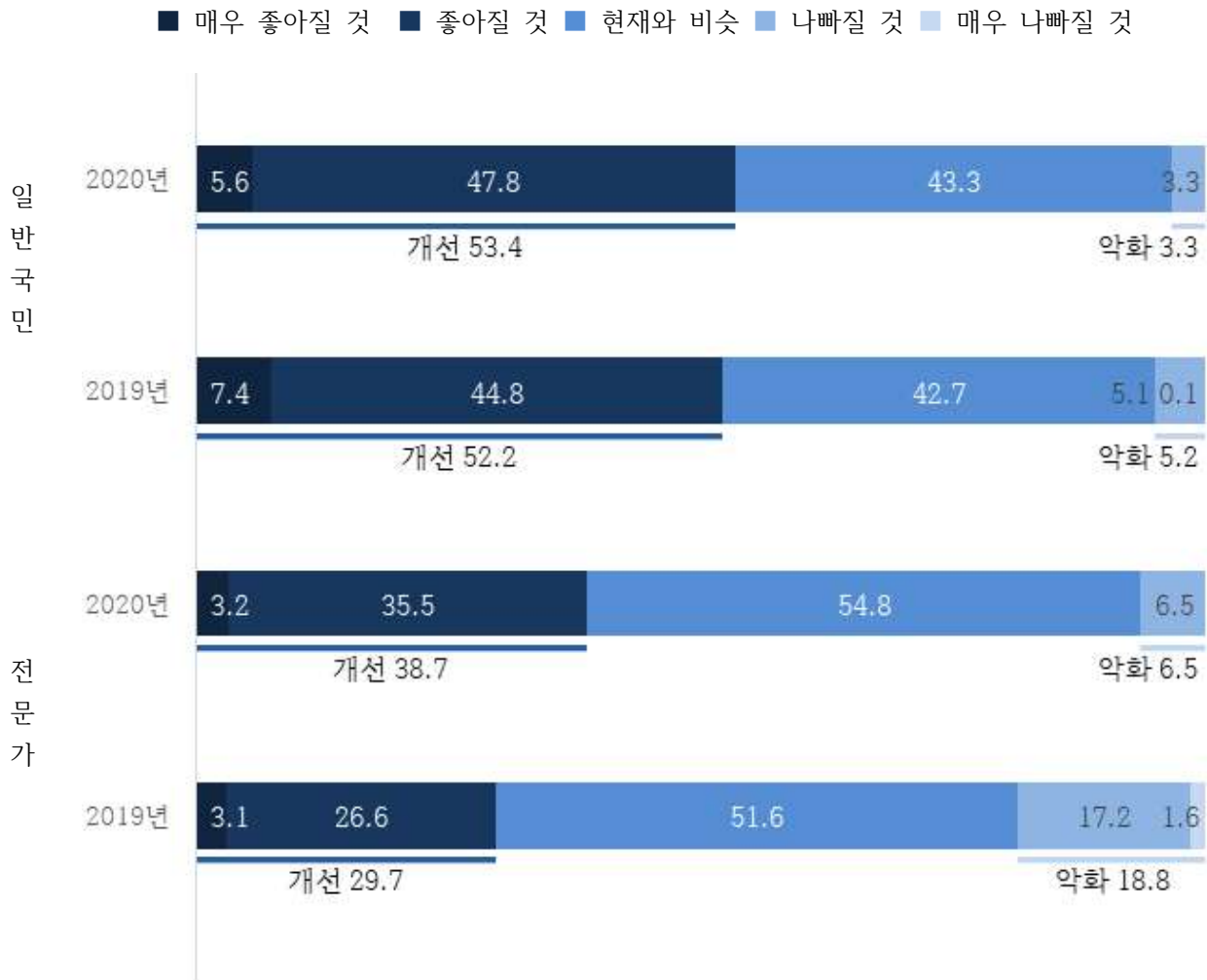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42. 미래(5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미래 미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21.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미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개선	현재와 비슷	악화
전체		(1262)	5.5	47.2	43.8	3.5	-	52.7	43.8	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6	47.8	43.3	3.3	-	53.4	43.3	3.3
	전문가	(62)	3.2	35.5	54.8	6.5	-	38.7	54.8	6.5
소속별	대학	(30)	6.7	40.0	46.7	6.7	-	46.7	46.7	6.7
	연구소	(32)	0.0	31.3	62.5	6.3	-	31.3	62.5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7.1	51.5	38.8	2.6	-	58.6	38.8	2.6
	중	(497)	3.2	46.7	46.5	3.6	-	49.9	46.5	3.6
	하	(136)	8.1	36.8	50.0	5.1	-	44.9	50.0	5.1
성별	남성	(720)	6.1	46.8	42.9	4.2	-	52.9	42.9	4.2
	여성	(480)	4.8	49.4	43.8	2.1	-	54.2	43.8	2.1
연령별	18-29세	(303)	3.0	46.5	45.9	4.6	-	49.5	45.9	4.6
	30대	(256)	6.3	49.6	39.1	5.1	-	55.9	39.1	5.1
	40대	(314)	5.7	47.5	44.9	1.9	-	53.2	44.9	1.9
	50대	(327)	7.3	48.0	42.5	2.1	-	55.4	42.5	2.1
지역별	서울	(238)	3.8	46.2	47.5	2.5	-	50.0	47.5	2.5
	경기/인천	(393)	6.1	49.6	40.5	3.8	-	55.7	40.5	3.8
	대전/세종/충청	(128)	4.7	51.6	43.8	0.0	-	56.3	43.8	0.0
	광주/전라	(110)	4.5	52.7	39.1	3.6	-	57.3	39.1	3.6
	대구/경북	(109)	0.9	45.0	50.5	3.7	-	45.9	50.5	3.7
	부산/울산/경남	(175)	9.7	49.1	37.1	4.0	-	58.9	37.1	4.0
	강원/제주	(47)	10.6	21.3	59.6	8.5	-	31.9	59.6	8.5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4.9	47.5	43.7	3.8	-	52.5	43.7	3.8
	중소도시	(608)	6.4	48.4	42.3	3.0	-	54.8	42.3	3.0
	군지역	(41)	2.4	43.9	51.2	2.4	-	46.3	51.2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7.7	50.5	39.6	2.2	-	58.2	39.6	2.2
	블루칼라	(351)	6.3	44.4	45.9	3.4	-	50.7	45.9	3.4
	화이트칼라	(409)	3.9	46.0	46.5	3.7	-	49.9	46.5	3.7
	전업주부	(163)	6.7	55.8	35.0	2.5	-	62.6	35.0	2.5
	학생	(69)	4.3	46.4	42.0	7.2	-	50.7	42.0	7.2
	무직/기타	(26)	3.8	57.7	38.5	0.0	-	61.5	38.5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7.9	48.3	41.5	2.3	-	56.2	41.5	2.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6.8	50.5	39.9	2.9	-	57.2	39.9	2.9
	4년제 이상	(535)	3.4	46.0	46.4	4.3	-	49.3	46.4	4.3
생활 수준별	상	(137)	4.4	49.6	40.9	5.1	-	54.0	40.9	5.1
	중	(700)	5.7	50.6	41.0	2.7	-	56.3	41.0	2.7
	하	(363)	5.8	41.9	48.5	3.9	-	47.7	48.5	3.9

(2) 일본

Q. 귀하는 미래(5년 이후)의 한국과 다음의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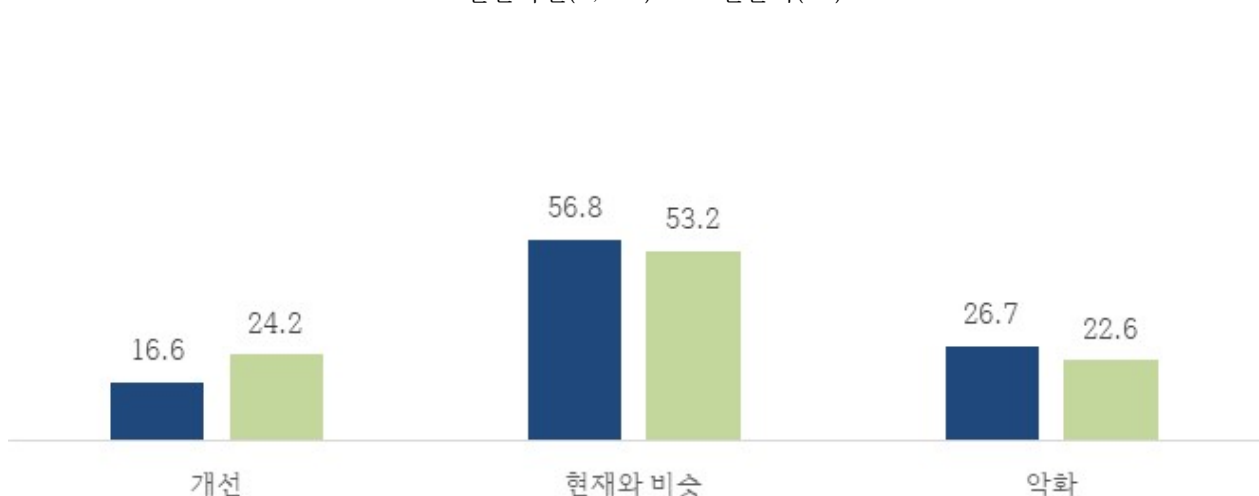
‘악화될 것’: 일반국민 26.7%
‘개선될 것’: 전문가 24.2%

- **[일반국민]**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6.7%로 ‘개선될 것’(16.6%)이라는 응답보다 10.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3.6%p(2019년 40.3%) 감소하였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3.6%p(2019년 20.2%)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4.2%로 ‘악화될 것’(22.6%)이라는 응답과 1.6%p 차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0.8%p(2019년 23.4%) 증가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2.3%p(2019년 20.3%)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43.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III. 세부 조사 결과

[그림 3-44. 미래(5년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 직업별로 학생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22.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일본]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개선	현재와 비슷	악화
전체		(1262)	0.9	16.1	56.6	22.8	3.6	17.0	56.6	26.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15.7	56.8	23.0	3.7	16.6	56.8	26.7
	전문가	(62)	0.0	24.2	53.2	19.4	3.2	24.2	53.2	22.6
소속별	대학	(30)	0.0	16.7	66.7	13.3	3.3	16.7	66.7	16.7
	연구소	(32)	0.0	31.3	40.6	25.0	3.1	31.3	40.6	28.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1	16.8	54.5	23.1	4.6	17.8	54.5	27.7
	중	(497)	0.6	14.3	59.8	22.7	2.6	14.9	59.8	25.4
	하	(136)	1.5	16.2	55.1	23.5	3.7	17.6	55.1	27.2
성별	남성	(720)	1.0	16.4	55.4	23.3	3.9	17.4	55.4	27.2
	여성	(480)	0.8	14.6	58.8	22.5	3.3	15.4	58.8	25.8
연령별	18-29세	(303)	1.0	14.9	54.5	23.4	6.3	15.8	54.5	29.7
	30대	(256)	1.6	14.5	57.8	23.0	3.1	16.0	57.8	26.2
	40대	(314)	0.6	15.9	55.4	26.1	1.9	16.6	55.4	28.0
	50대	(327)	0.6	17.1	59.3	19.6	3.4	17.7	59.3	22.9
지역별	서울	(238)	0.4	16.0	64.3	17.2	2.1	16.4	64.3	19.3
	경기/인천	(393)	0.3	18.6	56.2	22.6	2.3	18.8	56.2	24.9
	대전/세종/충청	(128)	2.3	3.1	42.2	42.2	10.2	5.5	42.2	52.3
	광주/전라	(110)	1.8	19.1	50.9	23.6	4.5	20.9	50.9	28.2
	대구/경북	(109)	0.9	19.3	58.7	19.3	1.8	20.2	58.7	21.1
	부산/울산/경남	(175)	0.0	13.1	64.6	18.9	3.4	13.1	64.6	22.3
	강원/제주	(47)	6.4	17.0	42.6	25.5	8.5	23.4	42.6	34.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5	16.7	58.4	21.4	2.9	17.2	58.4	24.3
	중소도시	(608)	0.8	14.8	56.6	23.4	4.4	15.6	56.6	27.8
	군지역	(41)	7.3	14.6	36.6	39.0	2.4	22.0	36.6	41.5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20.3	58.8	19.8	1.1	20.3	58.8	20.9
	블루칼라	(351)	0.6	15.4	53.3	27.6	3.1	16.0	53.3	30.8
	화이트칼라	(409)	1.7	12.7	60.6	21.8	3.2	14.4	60.6	24.9
	전업주부	(163)	0.0	15.3	60.1	20.2	4.3	15.3	60.1	24.5
	학생	(69)	0.0	18.8	42.0	23.2	15.9	18.8	42.0	39.1
	무직/기타	(26)	7.7	26.9	46.2	19.2	0.0	34.6	46.2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6	17.5	56.2	22.9	2.8	18.1	56.2	25.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0	17.0	55.6	23.5	2.9	18.0	55.6	26.4
	4년제 이상	(535)	1.1	13.6	57.8	22.8	4.7	14.8	57.8	27.5
생활 수준별	상	(137)	2.2	21.2	46.0	25.5	5.1	23.4	46.0	30.7
	중	(700)	0.9	16.3	57.1	22.0	3.7	17.1	57.1	25.7
	하	(363)	0.6	12.4	60.1	24.0	3.0	12.9	60.1	27.0

(3) 중국

Q. 귀하는 미래(5년 이후)의 한국과 다음의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중국

‘개선될 것’: 일반국민 29.9%
‘악화될 것’: 전문가 30.6%

- **[일반국민]** 미래 일본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9.9%로 ‘악화될 것’(17.8%)이라는 응답보다 12.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4.7%p(2019년 25.2%) 증가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7.6%p(2019년 25.3%) 감소함
- **[전문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0.6%로 ‘개선될 것’(27.4%)이라는 응답과 3.2%p 차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8.1%p(2019년 12.5%) 증가 했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11.8%p(2019년 15.6%), 증가함

[그림 3-45.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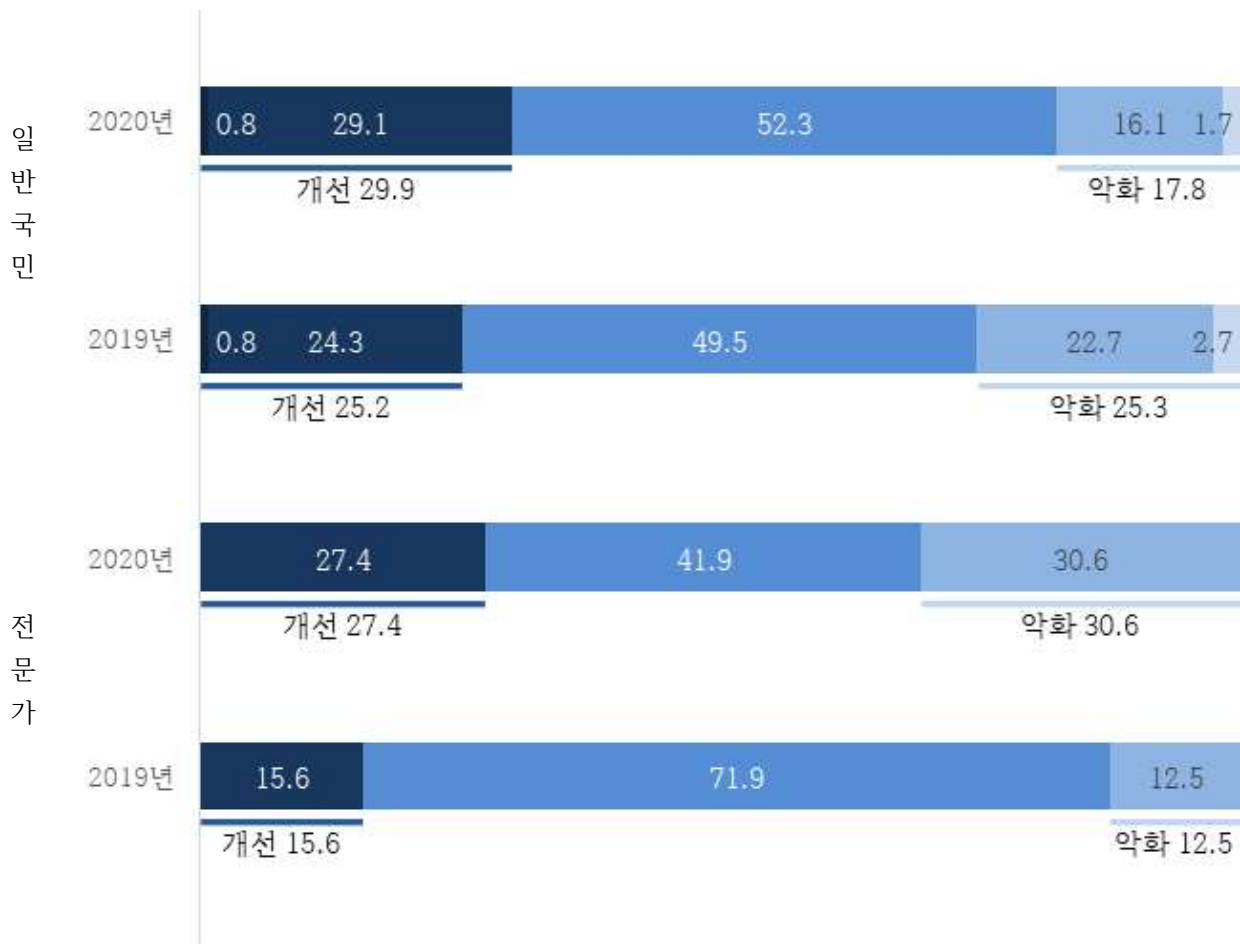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46. 미래(5년 이후) 중국과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좋아질 것 ■ 좋아질 것 ■ 현재와 비슷 ■ 나빠질 것 ■ 매우 나빠질 것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미래 중국과의 관계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23.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중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개선	현재와 비슷	악화
전체		(1262)	0.8	29.0	51.8	16.8	1.6	29.8	51.8	18.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29.1	52.3	16.1	1.7	29.9	52.3	17.8
	전문가	(62)	0.0	27.4	41.9	30.6	0.0	27.4	41.9	30.6
소속별	대학	(30)	0.0	33.3	40.0	26.7	0.0	33.3	40.0	26.7
	연구소	(32)	0.0	21.9	43.8	34.4	0.0	21.9	43.8	34.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1	28.4	52.0	16.9	1.6	29.5	52.0	18.5
	중	(497)	0.8	27.4	54.7	15.3	1.8	28.2	54.7	17.1
	하	(136)	0.0	38.2	44.9	15.4	1.5	38.2	44.9	16.9
성별	남성	(720)	1.0	28.6	52.4	16.5	1.5	29.6	52.4	18.1
	여성	(480)	0.6	29.8	52.3	15.4	1.9	30.4	52.3	17.3
연령별	18-29세	(303)	1.0	29.7	48.8	18.5	2.0	30.7	48.8	20.5
	30대	(256)	0.8	28.9	51.6	17.6	1.2	29.7	51.6	18.8
	40대	(314)	1.0	28.7	53.8	15.3	1.3	29.6	53.8	16.6
	50대	(327)	0.6	29.1	54.7	13.5	2.1	29.7	54.7	15.6
지역별	서울	(238)	1.3	40.8	45.0	9.2	3.8	42.0	45.0	13.0
	경기/인천	(393)	0.0	30.8	54.2	14.2	0.8	30.8	54.2	15.0
	대전/세종/충청	(128)	0.0	15.6	51.6	28.1	4.7	15.6	51.6	32.8
	광주/전라	(110)	0.9	30.0	53.6	15.5	0.0	30.9	53.6	15.5
	대구/경북	(109)	0.9	24.8	61.5	11.9	0.9	25.7	61.5	12.8
	부산/울산/경남	(175)	0.6	24.6	53.1	21.7	0.0	25.1	53.1	21.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17.0	48.9	23.4	2.1	25.5	48.9	25.5
	대도시	(551)	1.1	31.6	50.3	14.7	2.4	32.7	50.3	17.1
	중소도시	(608)	0.7	26.3	54.9	16.9	1.2	27.0	54.9	18.1
	군지역	(41)	0.0	36.6	41.5	22.0	0.0	36.6	41.5	22.0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31.3	54.9	10.4	2.2	32.4	54.9	12.6
	블루칼라	(351)	0.6	28.5	50.4	19.1	1.4	29.1	50.4	20.5
	화이트칼라	(409)	0.7	31.1	49.9	16.9	1.5	31.8	49.9	18.3
	전업주부	(163)	0.6	25.8	60.1	11.7	1.8	26.4	60.1	13.5
	학생	(69)	1.4	24.6	50.7	20.3	2.9	26.1	50.7	23.2
	무직/기타	(26)	3.8	23.1	53.8	19.2	0.0	26.9	53.8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	31.9	53.7	12.1	1.1	33.1	53.7	13.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	29.3	50.2	17.4	1.6	30.9	50.2	19.0
	4년제 이상	(535)	0.2	27.1	52.7	17.9	2.1	27.3	52.7	20.0
생활 수준별	상	(137)	2.2	27.0	50.4	20.4	0.0	29.2	50.4	20.4
	중	(700)	1.0	32.7	49.4	14.9	2.0	33.7	49.4	16.9
	하	(363)	0.0	22.9	58.7	16.8	1.7	22.9	58.7	18.5

(4)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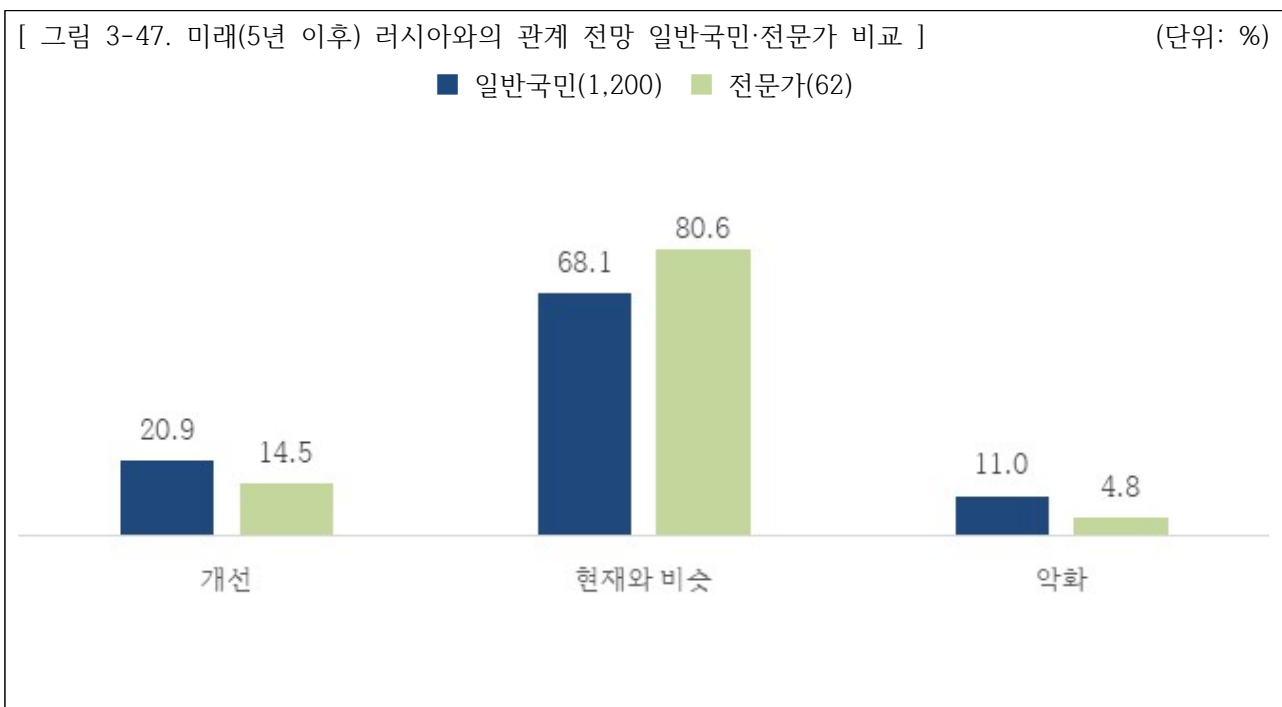
Q. 귀하는 미래(5년 이후)의 한국과 다음의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러시아

‘개선될 것’: 일반국민 20.9%, 전문가 14.5%

- [일반국민]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0.9%로 ‘악화될 것’(11.0%)이라는 응답보다 9.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0.6%p(2019년 20.3%)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8.0%p(2019년 19.0%) 감소함
- [전문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5%로 ‘악화될 것’(4.8%)이라는 응답보다 9.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7%p(2019년 17.2%) 감소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7%p(2019년 3.1%)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47.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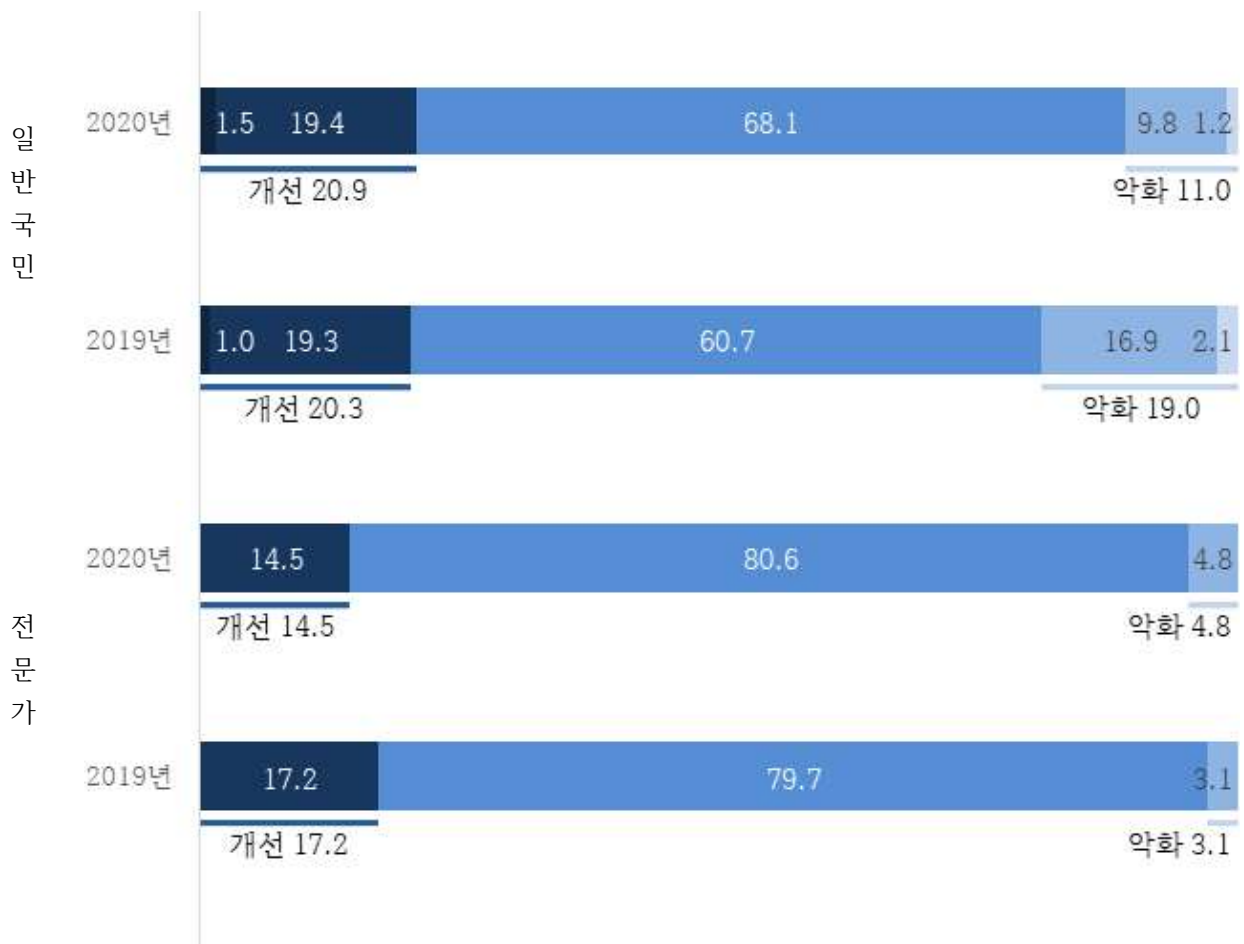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48. 미래(5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전망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좋아질 것 ■ 좋아질 것 ■ 현재와 비슷 ■ 나빠질 것 ■ 매우 나빠질 것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미래 러시아와의 관계전망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하’인 경우, 지역별로 서울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24. 미래(5년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 러시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종합		
								개선	현재와 비슷	악화
전체		(1262)	1.4	19.2	68.7	9.6	1.1	20.6	68.7	10.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	19.4	68.1	9.8	1.2	20.9	68.1	11.0
	전문가	(62)	0.0	14.5	80.6	4.8	0.0	14.5	80.6	4.8
소속별	대학	(30)	0.0	26.7	70.0	3.3	0.0	26.7	70.0	3.3
	연구소	(32)	0.0	3.1	90.6	6.3	0.0	3.1	90.6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8	18.3	68.1	10.4	1.4	20.1	68.1	11.8
	중	(497)	1.2	18.5	70.4	9.1	0.8	19.7	70.4	9.9
	하	(136)	1.5	27.2	59.6	10.3	1.5	28.7	59.6	11.8
성별	남성	(720)	1.3	19.9	68.3	9.6	1.0	21.1	68.3	10.6
	여성	(480)	1.9	18.8	67.7	10.2	1.5	20.6	67.7	11.7
연령별	18-29세	(303)	1.7	20.5	65.7	9.9	2.3	22.1	65.7	12.2
	30대	(256)	2.3	18.8	67.6	10.9	0.4	21.1	67.6	11.3
	40대	(314)	1.3	20.1	65.6	12.1	1.0	21.3	65.6	13.1
	50대	(327)	0.9	18.3	73.1	6.7	0.9	19.3	73.1	7.6
지역별	서울	(238)	5.0	34.0	50.0	9.7	1.3	39.1	50.0	10.9
	경기/인천	(393)	0.0	11.7	79.6	8.7	0.0	11.7	79.6	8.7
	대전/세종/충청	(128)	0.8	18.8	71.1	9.4	0.0	19.5	71.1	9.4
	광주/전라	(110)	0.9	30.9	57.3	10.9	0.0	31.8	57.3	10.9
	대구/경북	(109)	0.0	18.3	72.5	8.3	0.9	18.3	72.5	9.2
	부산/울산/경남	(175)	0.0	11.4	68.0	14.9	5.7	11.4	68.0	20.6
	강원/제주	(47)	8.5	17.0	70.2	4.3	0.0	25.5	70.2	4.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2.7	24.7	59.0	11.3	2.4	27.4	59.0	13.6
	중소도시	(608)	0.3	14.1	77.3	8.1	0.2	14.5	77.3	8.2
	군지역	(41)	2.4	26.8	53.7	17.1	0.0	29.3	53.7	17.1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20.3	69.2	7.7	1.1	22.0	69.2	8.8
	블루칼라	(351)	0.3	17.9	65.8	13.7	2.3	18.2	65.8	16.0
	화이트칼라	(409)	2.2	21.8	68.0	7.1	1.0	24.0	68.0	8.1
	전업주부	(163)	2.5	13.5	73.0	11.0	0.0	16.0	73.0	11.0
	학생	(69)	0.0	21.7	66.7	11.6	0.0	21.7	66.7	11.6
	무직/기타	(26)	3.8	26.9	65.4	3.8	0.0	30.8	65.4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7	18.1	70.9	8.5	0.8	19.8	70.9	9.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9	18.3	67.5	10.9	1.3	20.3	67.5	12.2
	4년제 이상	(535)	1.1	20.9	66.5	10.1	1.3	22.1	66.5	11.4
생활 수준별	상	(137)	2.2	23.4	63.5	10.2	0.7	25.5	63.5	10.9
	중	(700)	2.0	21.1	66.6	9.9	0.4	23.1	66.6	10.3
	하	(363)	0.3	14.6	72.7	9.6	2.8	14.9	72.7	12.4

14)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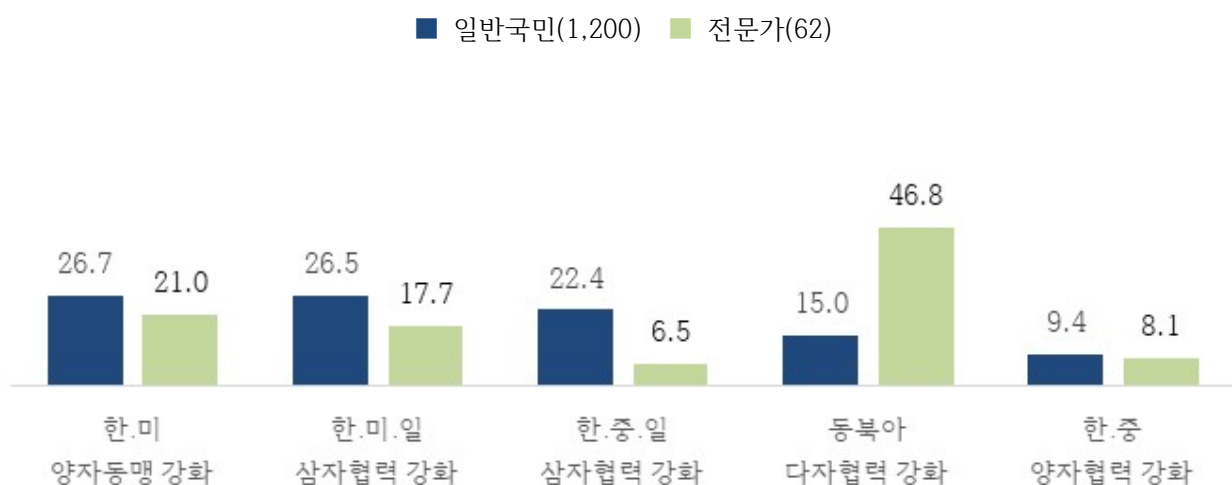
(1) 중국

Q. 귀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양자동맹 강화’: 일반국민 26.7%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전문가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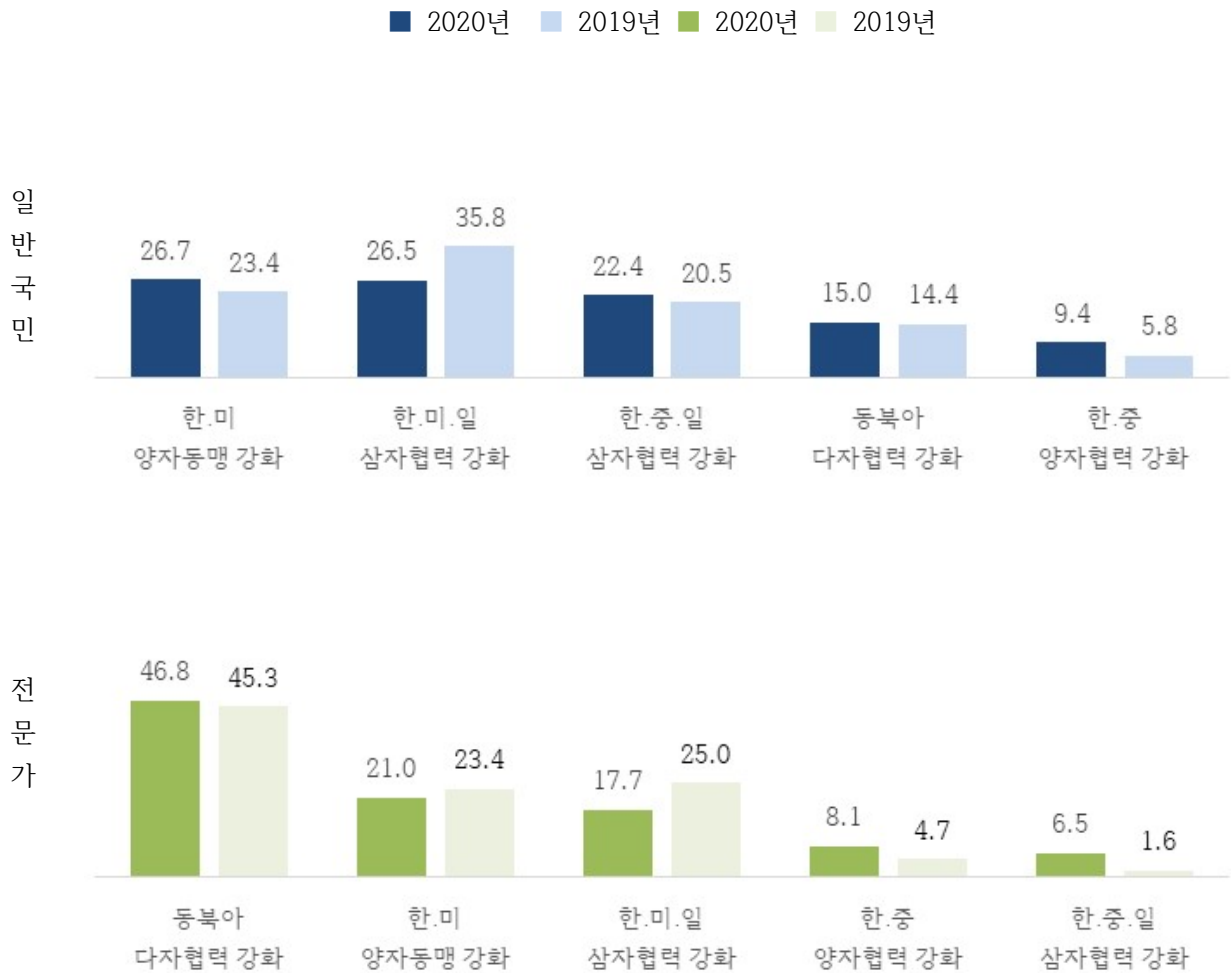
- **[일반국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2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는 26.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한·미 양자동맹 강화’는 3.3%p(2019년 23.4%)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는 9.3%p(2019년 35.8%) 감소함
- **[전문가]**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가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는 1.5%p(2019년 45.3%) 증가, ‘한·미 양자동맹 강화’는 2.4%p(2019년 23.4%)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49.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50.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25.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 중국]

(단위: 명, %)

		사례수 (명)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중 양자협력 강화
전체		(1262)	26.4	26.1	21.6	16.6	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6.7	26.5	22.4	15.0	9.4
	전문가	(62)	21.0	17.7	6.5	46.8	8.1
소속별	대학	(30)	23.3	16.7	6.7	46.7	6.7
	연구소	(32)	18.8	18.8	6.3	46.9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8.6	27.9	21.9	13.2	8.5
	중	(497)	24.9	26.2	22.3	17.1	9.5
	하	(136)	25.0	22.1	25.0	14.7	13.2
성별	남성	(720)	27.4	27.1	21.4	13.6	10.6
	여성	(480)	25.6	25.6	24.0	17.1	7.7
연령별	18-29세	(303)	27.1	21.8	24.4	18.8	7.9
	30대	(256)	30.9	25.8	21.9	10.5	10.9
	40대	(314)	24.2	29.0	19.1	17.5	10.2
	50대	(327)	25.4	29.1	24.2	12.5	8.9
지역별	서울	(238)	18.1	26.1	34.9	17.2	3.8
	경기/인천	(393)	34.6	27.5	19.1	9.9	8.9
	대전/세종/충청	(128)	30.5	29.7	16.4	23.4	0.0
	광주/전라	(110)	21.8	25.5	27.3	17.3	8.2
	대구/경북	(109)	21.1	21.1	21.1	13.8	22.9
	부산/울산/경남	(175)	28.0	30.3	16.6	13.7	11.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12.8	17.0	25.5	31.9
	대도시	(551)	18.9	24.5	31.2	15.4	10.0
	중소도시	(608)	33.2	27.8	14.6	15.0	9.4
	군지역	(41)	34.1	34.1	19.5	9.8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18.1	34.1	21.4	18.7	7.7
	블루칼라	(351)	27.4	25.4	20.8	15.7	10.8
	화이트칼라	(409)	29.1	24.4	24.7	13.7	8.1
	전업주부	(163)	28.2	25.8	23.3	10.4	12.3
	학생	(69)	21.7	24.6	20.3	26.1	7.2
	무직/기타	(26)	42.3	30.8	15.4	0.0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3.4	32.2	20.3	13.6	10.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8.9	21.9	20.9	15.4	12.9
	4년제 이상	(535)	27.5	25.4	24.7	15.7	6.7
생활 수준별	상	(137)	21.9	32.1	30.7	10.9	4.4
	중	(700)	26.6	26.1	21.9	16.7	8.7
	하	(363)	28.7	25.1	20.4	13.2	12.7

(2)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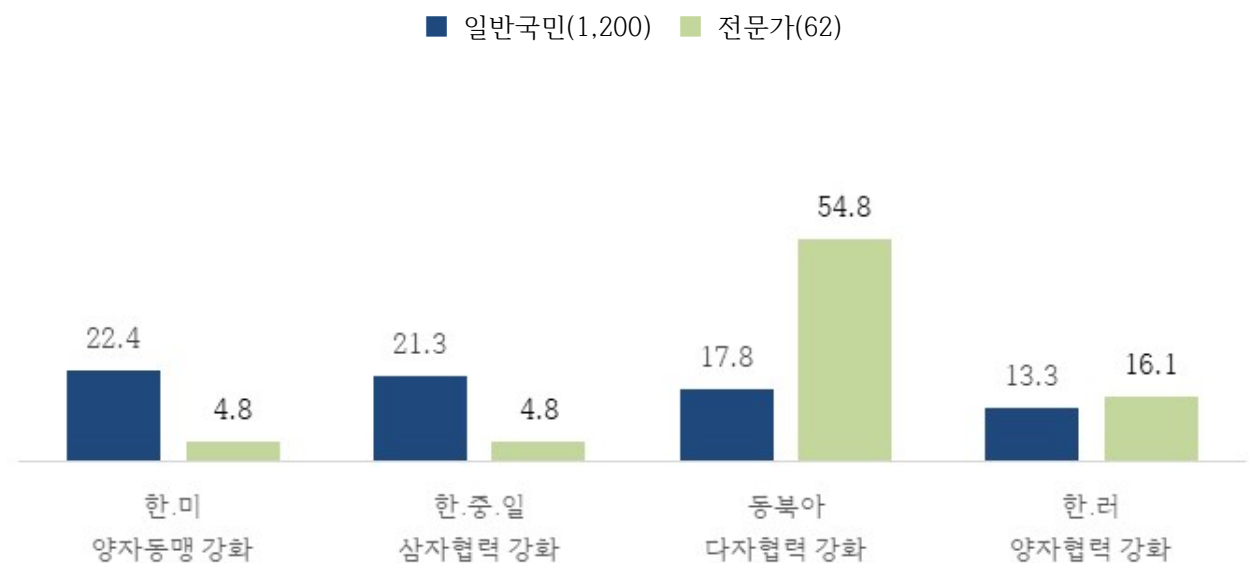
Q. 귀하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양자동맹 강화’: 일반국민 22.4%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전문가 54.8%

- [일반국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 양자동맹 강화’가 2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21.3%),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17.8%), ‘한·러 양자협력 강화’(13.3%)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가 5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러 양자협력 강화’(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1.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외교적 선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한·미 양자동맹 강화’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가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26.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 - 러시아

(단위: 명, %)

		사례수 (명)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러 양자협력 강화
전체		(1262)	21.6	25.0	20.4	19.7	1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4	25.3	21.3	17.8	13.3
	전문가	(62)	4.8	19.4	4.8	54.8	16.1
소속별	대학	(30)	6.7	23.3	3.3	53.3	13.3
	연구소	(32)	3.1	15.6	6.3	56.3	1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4.7	29.3	18.2	14.6	13.2
	중	(497)	21.3	20.9	24.7	20.9	12.1
	하	(136)	16.9	24.3	21.3	19.9	17.6
성별	남성	(720)	21.7	25.8	20.8	18.3	13.3
	여성	(480)	23.5	24.4	21.9	17.1	13.1
연령별	18-29세	(303)	24.8	21.1	23.8	20.5	9.9
	30대	(256)	25.8	25.0	19.9	16.0	13.3
	40대	(314)	20.7	25.5	22.0	17.2	14.6
	50대	(327)	19.3	29.1	19.3	17.4	15.0
지역별	서울	(238)	13.4	26.5	32.8	21.8	5.5
	경기/인천	(393)	30.8	24.4	19.3	12.7	12.7
	대전/세종/충청	(128)	25.8	26.6	19.5	24.2	3.9
	광주/전라	(110)	22.7	23.6	23.6	21.8	8.2
	대구/경북	(109)	9.2	22.0	7.3	19.3	42.2
	부산/울산/경남	(175)	25.7	29.7	20.0	14.9	9.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17.0	14.9	21.3	40.4
	대도시	(551)	17.8	24.3	24.5	18.5	14.9
	중소도시	(608)	27.1	25.2	18.4	17.4	11.8
	군지역	(41)	14.6	39.0	19.5	14.6	12.2
직업별	자영업자	(182)	18.7	29.1	20.9	19.2	12.1
	블루칼라	(351)	21.9	21.7	20.8	18.5	17.1
	화이트칼라	(409)	24.9	26.9	22.0	16.4	9.8
	전업주부	(163)	23.9	23.3	22.1	15.3	15.3
	학생	(69)	20.3	20.3	21.7	27.5	10.1
	무직/기타	(26)	11.5	46.2	11.5	11.5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8.4	29.1	18.6	16.4	17.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3.5	20.3	21.5	18.6	16.1
	4년제 이상	(535)	24.5	25.6	22.8	18.3	8.8
생활 수준별	상	(137)	16.1	31.4	22.6	17.5	12.4
	중	(700)	22.7	25.0	21.9	17.9	12.6
	하	(363)	24.2	23.4	19.6	17.9	14.9

15)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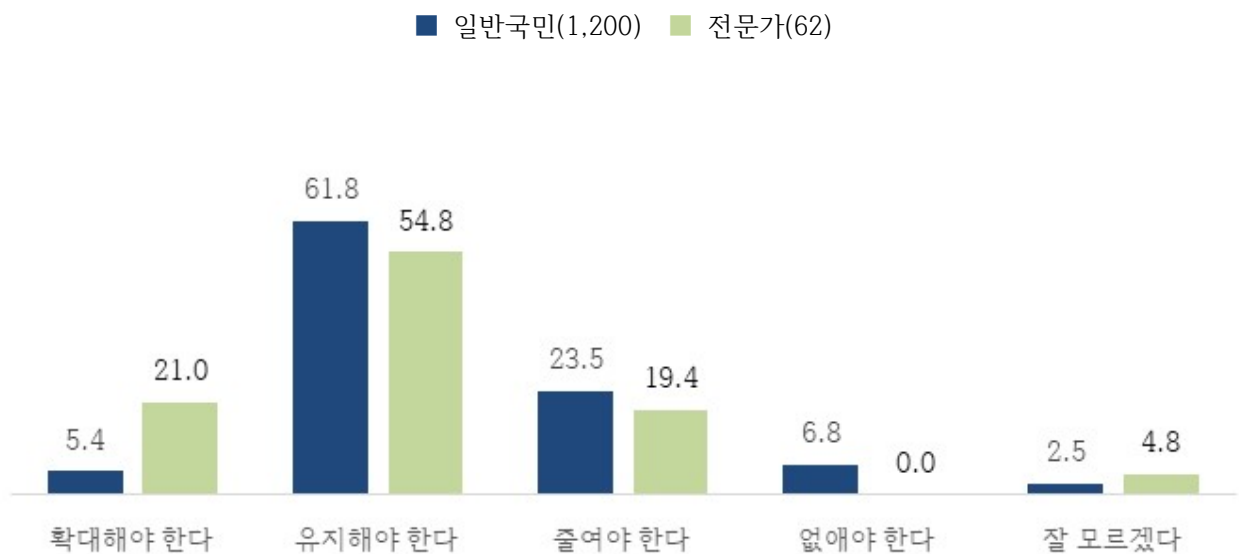
Q. 귀하는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해야 한다’: 일반국민 61.8%, 전문가 54.8%

- [일반국민]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줄여야 한다’(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유지해야 한다’는 5.3%p(2019년 56.5%) 증가, ‘줄여야 한다’는 1.9%p(2019년 25.4%) 감소했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줄여야 한다’(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유지해야 한다’는 4.8%p(2019년 50.0%)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줄여야 한다’는 11.6%p(2019년 7.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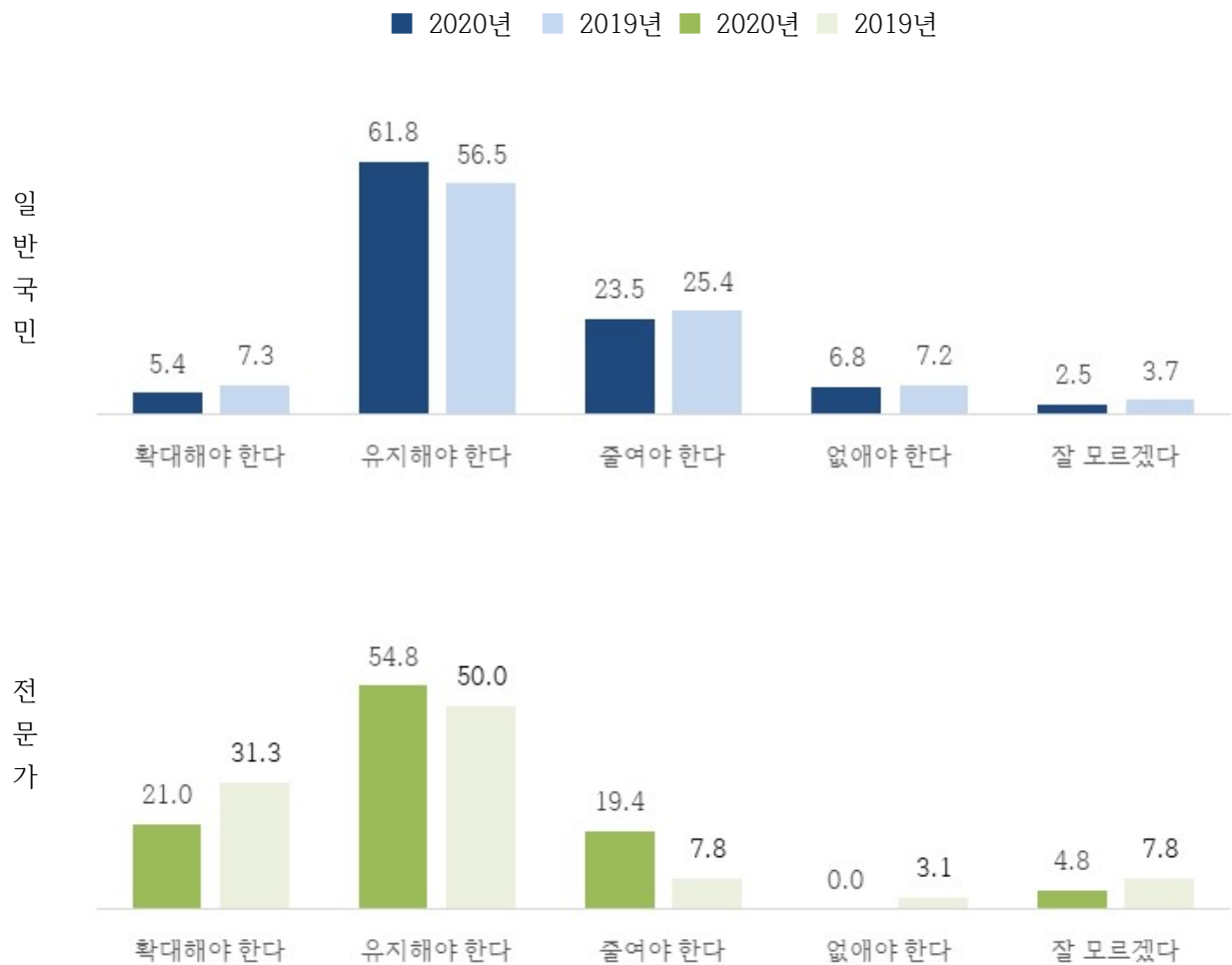
[그림 3-52.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53.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27.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확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2)	6.2	61.5	23.3	6.4	2.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4	61.8	23.5	6.8	2.5
	전문가	(62)	21.0	54.8	19.4	0.0	4.8
소속별	대학	(30)	23.3	56.7	20.0	0.0	0.0
	연구소	(32)	18.8	53.1	18.8	0.0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3	66.1	21.0	6.2	1.4
	중	(497)	5.8	58.1	25.4	7.0	3.6
	하	(136)	4.4	57.4	27.2	8.1	2.9
성별	남성	(720)	4.4	61.7	24.2	7.6	2.1
	여성	(480)	6.9	62.1	22.5	5.4	3.1
연령별	18-29세	(303)	5.6	61.1	22.1	7.9	3.3
	30대	(256)	5.1	62.1	25.4	5.1	2.3
	40대	(314)	5.4	61.8	22.0	8.3	2.5
	50대	(327)	5.5	62.4	24.8	5.5	1.8
지역별	서울	(238)	6.7	63.9	22.7	3.8	2.9
	경기/인천	(393)	6.9	61.3	25.7	4.1	2.0
	대전/세종/충청	(128)	2.3	66.4	22.7	6.3	2.3
	광주/전라	(110)	0.9	71.8	22.7	4.5	0.0
	대구/경북	(109)	11.9	55.0	11.9	13.8	7.3
	부산/울산/경남	(175)	1.7	56.6	28.6	12.6	0.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55.3	21.3	12.8	6.4
	대도시	(551)	6.0	58.8	24.1	9.1	2.0
	중소도시	(608)	4.9	65.6	22.2	4.3	3.0
	군지역	(41)	4.9	46.3	34.1	12.2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6.0	63.2	23.1	4.9	2.7
	블루칼라	(351)	5.7	58.4	26.8	6.8	2.3
	화이트칼라	(409)	3.9	65.8	22.2	6.1	2.0
	전업주부	(163)	6.7	63.2	21.5	5.5	3.1
	학생	(69)	8.7	50.7	18.8	15.9	5.8
	무직/기타	(26)	3.8	57.7	26.9	11.5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6.8	59.6	24.3	6.2	3.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6.8	61.1	24.1	5.8	2.3
	4년제 이상	(535)	3.7	63.7	22.6	7.7	2.2
생활 수준별	상	(137)	7.3	59.9	24.8	6.6	1.5
	중	(700)	5.1	63.7	22.4	6.7	2.0
	하	(363)	5.2	59.0	25.1	6.9	3.9

16)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Q. 귀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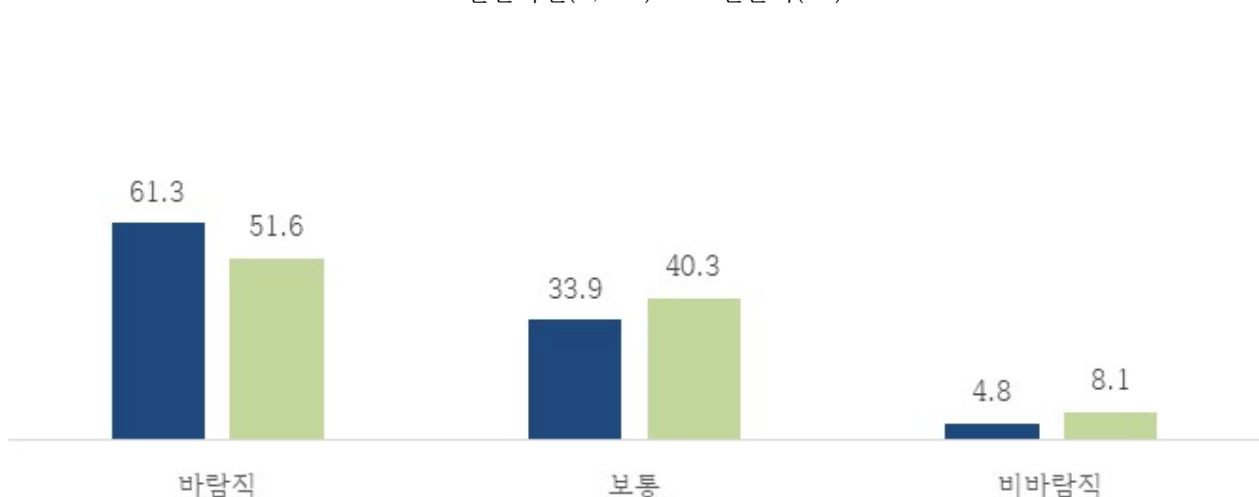
‘바람직하다’: 일반국민 61.3%, 전문가 51.6%

- **[일반국민]** 한·미·일간 안보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3%로 ‘바람직하지 않다’(4.8%)는 응답보다 56.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9.4%p(2019년 51.9%) 증가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5.6%p(2019년 10.3%)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6%로, ‘바람직하지 않다’(8.1%)는 응답보다 43.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7%p(2019년 56.3%)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0%p(2019년 14.1%) 감소함

[그림 3-54.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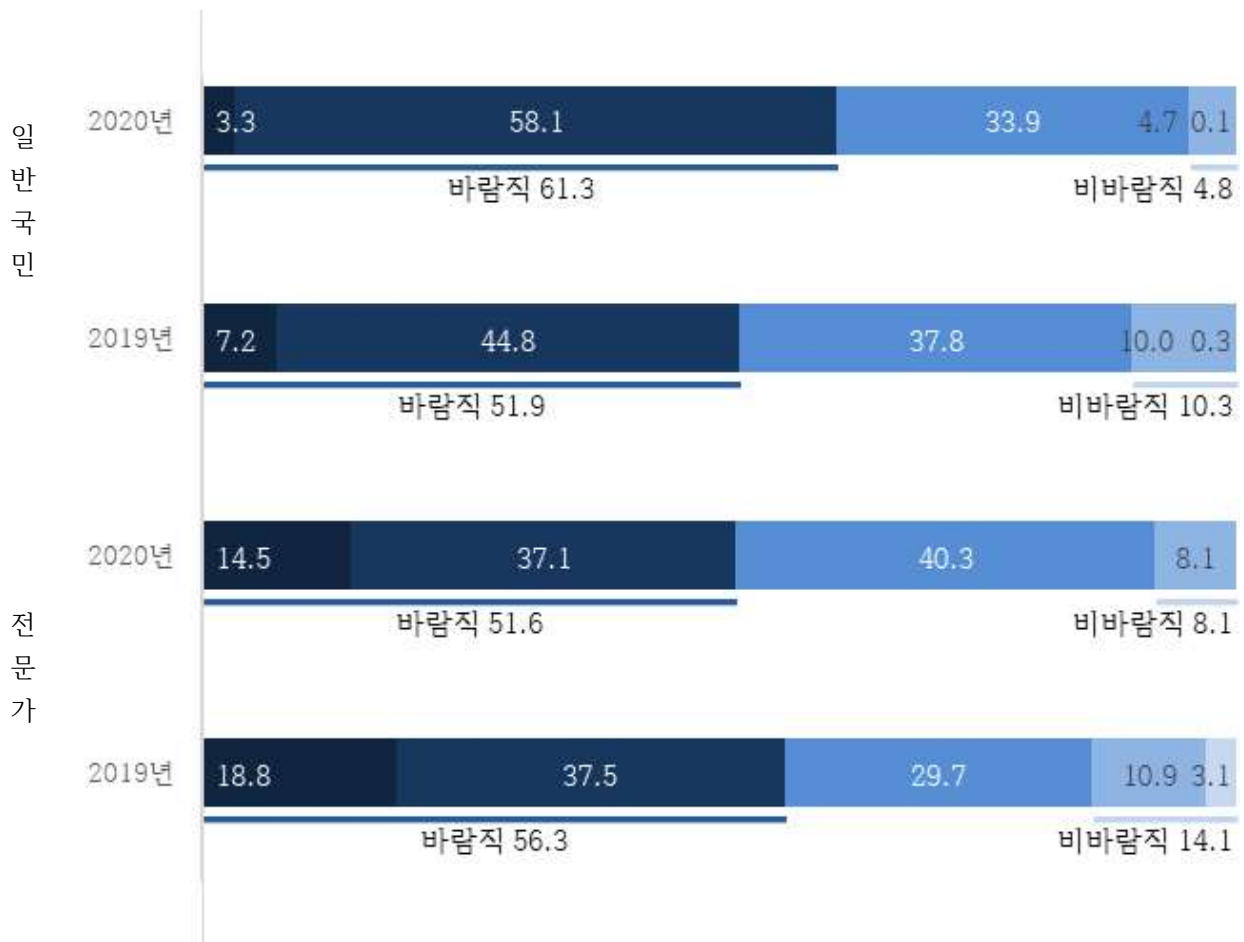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55.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바람직하다 ■ 바람직하다 ■ 보통이다 ■ 바람직하지 않다 ■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미·일간 안보협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28.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직 하다	보통이다	바람직 하지 않다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종합		
								바람직	보통	비 바람직
전체		(1262)	3.8	57.1	34.2	4.8	0.1	60.9	34.2	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58.1	33.9	4.7	0.1	61.3	33.9	4.8
	전문가	(62)	14.5	37.1	40.3	8.1	0.0	51.6	40.3	8.1
소속별	대학	(30)	13.3	33.3	43.3	10.0	0.0	46.7	43.3	10.0
	연구소	(32)	15.6	40.6	37.5	6.3	0.0	56.3	37.5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2	62.6	29.5	3.5	0.2	66.8	29.5	3.7
	중	(497)	1.6	55.5	38.8	4.0	0.0	57.1	38.8	4.0
	하	(136)	5.1	48.5	34.6	11.8	0.0	53.7	34.6	11.8
성별	남성	(720)	4.2	56.3	34.4	5.0	0.1	60.4	34.4	5.1
	여성	(480)	1.9	60.8	33.1	4.2	0.0	62.7	33.1	4.2
연령별	18-29세	(303)	3.6	59.7	31.4	5.3	0.0	63.4	31.4	5.3
	30대	(256)	4.3	55.9	35.2	4.7	0.0	60.2	35.2	4.7
	40대	(314)	2.5	59.2	33.4	4.5	0.3	61.8	33.4	4.8
	50대	(327)	2.8	57.2	35.8	4.3	0.0	59.9	35.8	4.3
지역별	서울	(238)	0.8	62.2	32.4	4.6	0.0	63.0	32.4	4.6
	경기/인천	(393)	4.8	62.1	28.0	5.1	0.0	66.9	28.0	5.1
	대전/세종/충청	(128)	0.0	52.3	46.1	1.6	0.0	52.3	46.1	1.6
	광주/전라	(110)	0.0	67.3	30.9	1.8	0.0	67.3	30.9	1.8
	대구/경북	(109)	10.1	56.0	31.2	1.8	0.9	66.1	31.2	2.8
	부산/울산/경남	(175)	2.9	48.6	41.1	7.4	0.0	51.4	41.1	7.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38.3	44.7	12.8	0.0	42.6	44.7	12.8
	대도시	(551)	1.8	58.3	35.0	4.7	0.2	60.1	35.0	4.9
	중소도시	(608)	4.4	58.9	32.2	4.4	0.0	63.3	32.2	4.4
	군지역	(41)	4.9	43.9	43.9	7.3	0.0	48.8	43.9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3.3	64.8	28.0	3.8	0.0	68.1	28.0	3.8
	블루칼라	(351)	2.6	55.0	37.6	4.8	0.0	57.5	37.6	4.8
	화이트칼라	(409)	3.4	57.2	35.0	4.2	0.2	60.6	35.0	4.4
	전업주부	(163)	1.8	63.8	30.7	3.7	0.0	65.6	30.7	3.7
	학생	(69)	8.7	50.7	31.9	8.7	0.0	59.4	31.9	8.7
	무직/기타	(26)	3.8	50.0	34.6	11.5	0.0	53.8	34.6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1	57.3	34.7	4.8	0.0	60.5	34.7	4.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2	60.8	31.5	3.5	0.0	65.0	31.5	3.5
	4년제 이상	(535)	2.8	57.0	34.8	5.2	0.2	59.8	34.8	5.4
생활 수준별	상	(137)	4.4	56.9	30.7	8.0	0.0	61.3	30.7	8.0
	중	(700)	2.6	59.6	34.0	3.9	0.0	62.1	34.0	3.9
	하	(363)	4.1	55.6	35.0	5.0	0.3	59.8	35.0	5.2

2.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1) 한·미 동맹관계

Q. 귀하는 현재의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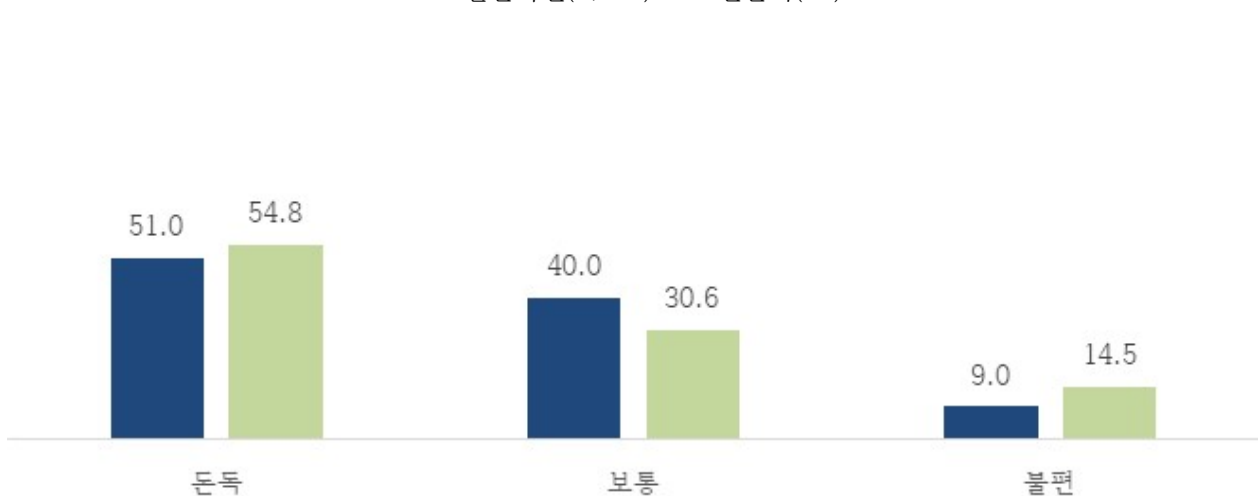
‘돈독하다’: 일반국민 51.0%, 전문가 54.8%

- [일반국민] 한·미 동맹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51.0%로 ‘불편하다’(9.0%)보다 42.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돈독하다’는 응답은 5.3%p(2019년 45.7%) 증가한 반면, ‘불편하다’는 응답은 4.4%p(2019년 13.4%) 감소하였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54.8%로 ‘불편하다’(14.5%)보다 40.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돈독하다’는 응답은 4.8%p(2019년 50.0%)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불편하다’는 응답은 10.5%p(2019년 25.0%) 감소함

[그림 3-56. 한·미 동맹관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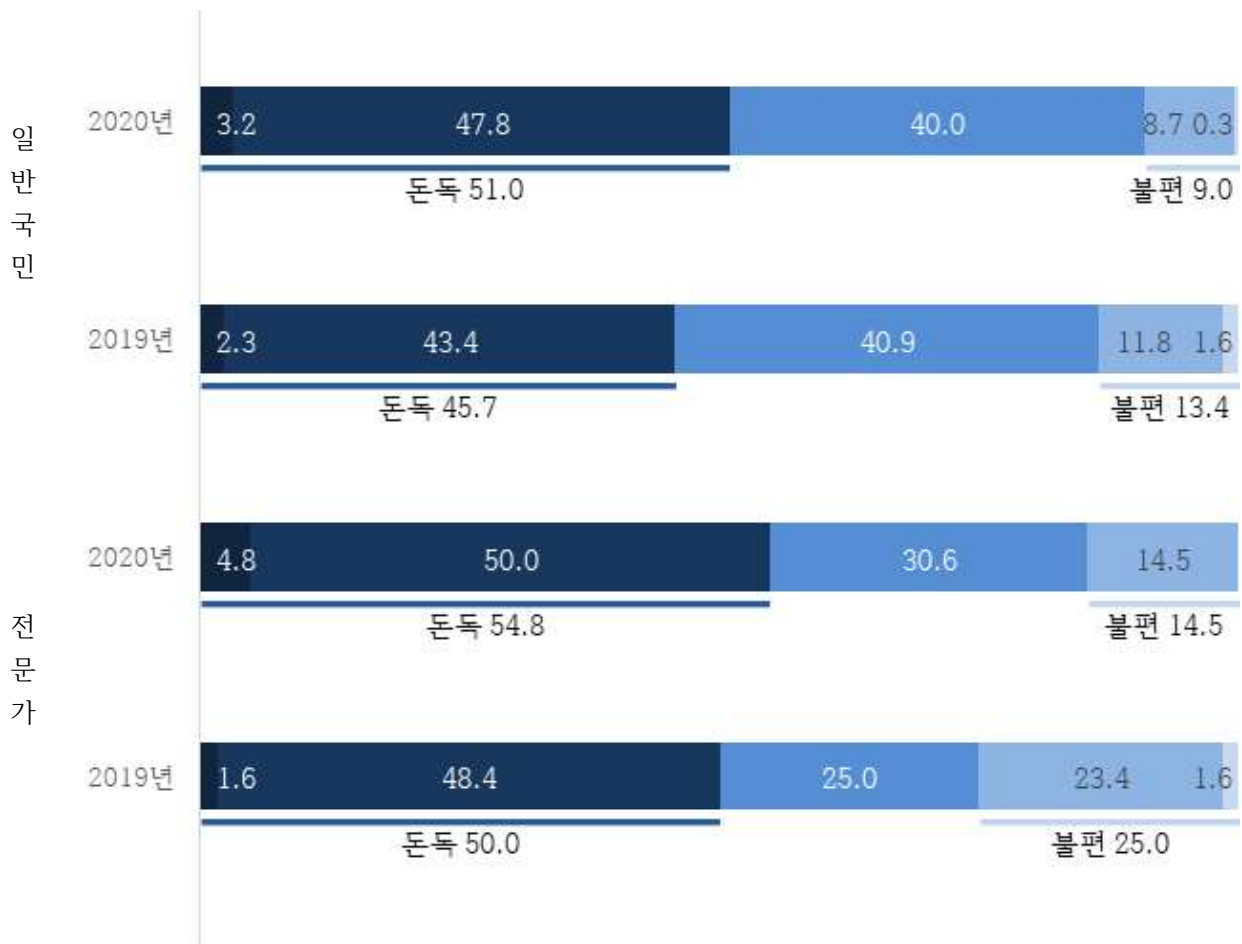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57. 한·미 동맹관계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돈독하다 ■ 돈독한 편이다 ■ 보통이다 ■ 불편하다 ■ 매우 불편하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돈독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29. 한·미 동맹관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돈독 하다	돈독한 편이다	보통이다	불편 하다	매우 불편하다	종합		
								돈독	보통	불편
전체		(1262)	3.2	47.9	39.5	9.0	0.3	51.2	39.5	9.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	47.8	40.0	8.7	0.3	51.0	40.0	9.0
	전문가	(62)	4.8	50.0	30.6	14.5	0.0	54.8	30.6	14.5
소속별	대학	(30)	3.3	53.3	23.3	20.0	0.0	56.7	23.3	20.0
	연구소	(32)	6.3	46.9	37.5	9.4	0.0	53.1	37.5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1	57.5	31.2	6.0	0.2	62.6	31.2	6.2
	중	(497)	1.0	40.0	48.7	10.1	0.2	41.0	48.7	10.3
	하	(136)	2.9	36.0	44.9	14.7	1.5	39.0	44.9	16.2
성별	남성	(720)	3.2	48.1	41.0	7.5	0.3	51.3	41.0	7.8
	여성	(480)	3.1	47.5	38.5	10.4	0.4	50.6	38.5	10.8
연령별	18-29세	(303)	3.3	44.9	40.9	10.2	0.7	48.2	40.9	10.9
	30대	(256)	3.1	43.4	42.6	10.5	0.4	46.5	42.6	10.9
	40대	(314)	2.9	51.6	38.2	7.3	0.0	54.5	38.2	7.3
	50대	(327)	3.4	50.5	38.8	7.0	0.3	53.8	38.8	7.3
지역별	서울	(238)	5.5	37.0	45.8	11.8	0.0	42.4	45.8	11.8
	경기/인천	(393)	2.8	49.6	38.9	8.7	0.0	52.4	38.9	8.7
	대전/세종/충청	(128)	0.0	51.6	44.5	3.9	0.0	51.6	44.5	3.9
	광주/전라	(110)	0.9	66.4	27.3	5.5	0.0	67.3	27.3	5.5
	대구/경북	(109)	0.0	36.7	48.6	12.8	1.8	36.7	48.6	14.7
	부산/울산/경남	(175)	5.7	57.7	30.3	5.7	0.6	63.4	30.3	6.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23.4	53.2	14.9	2.1	29.8	53.2	17.0
	대도시	(551)	3.6	39.9	42.6	13.2	0.5	43.6	42.6	13.8
	중소도시	(608)	3.0	53.9	38.0	5.1	0.0	56.9	38.0	5.1
	군지역	(41)	0.0	63.4	34.1	0.0	2.4	63.4	34.1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3.3	51.1	37.9	7.1	0.5	54.4	37.9	7.7
	블루칼라	(351)	4.6	44.7	41.3	8.8	0.6	49.3	41.3	9.4
	화이트칼라	(409)	2.7	49.1	38.6	9.5	0.0	51.8	38.6	9.5
	전업주부	(163)	2.5	50.9	39.9	6.7	0.0	53.4	39.9	6.7
	학생	(69)	1.4	40.6	46.4	11.6	0.0	42.0	46.4	11.6
	무직/기타	(26)	0.0	46.2	42.3	7.7	3.8	46.2	42.3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4	48.9	39.5	7.9	0.3	52.3	39.5	8.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2	49.5	38.3	7.4	0.6	53.7	38.3	8.0
	4년제 이상	(535)	2.4	46.2	41.3	9.9	0.2	48.6	41.3	10.1
생활 수준별	상	(137)	2.2	53.3	35.8	6.6	2.2	55.5	35.8	8.8
	중	(700)	3.1	49.6	39.3	7.9	0.1	52.7	39.3	8.0
	하	(363)	3.6	42.4	43.0	11.0	0.0	46.0	43.0	11.0

2)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Q.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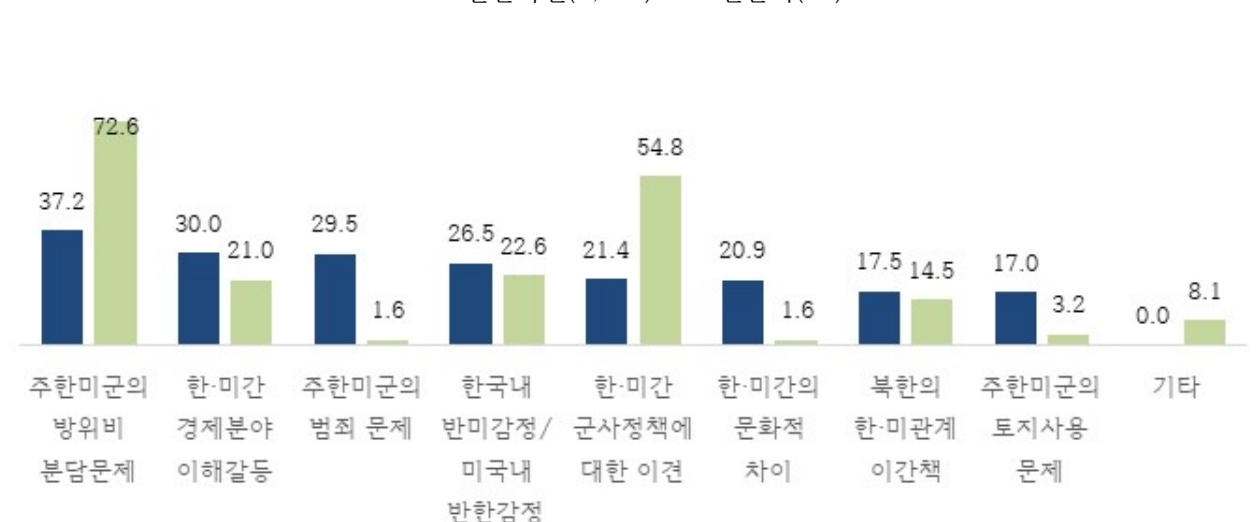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일반국민 37.2%, 전문가 72.6%

- [일반국민]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3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은 7.0%p(2019년 30.2%) 증가한 반면,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라는 응답은 12.2%p(2019년 42.2%) 감소함
- [전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가 7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5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은 13.2%p(2019년 59.4%),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이라는 응답은 14.2%p(2019년 40.6%) 증가함

[그림 3-58.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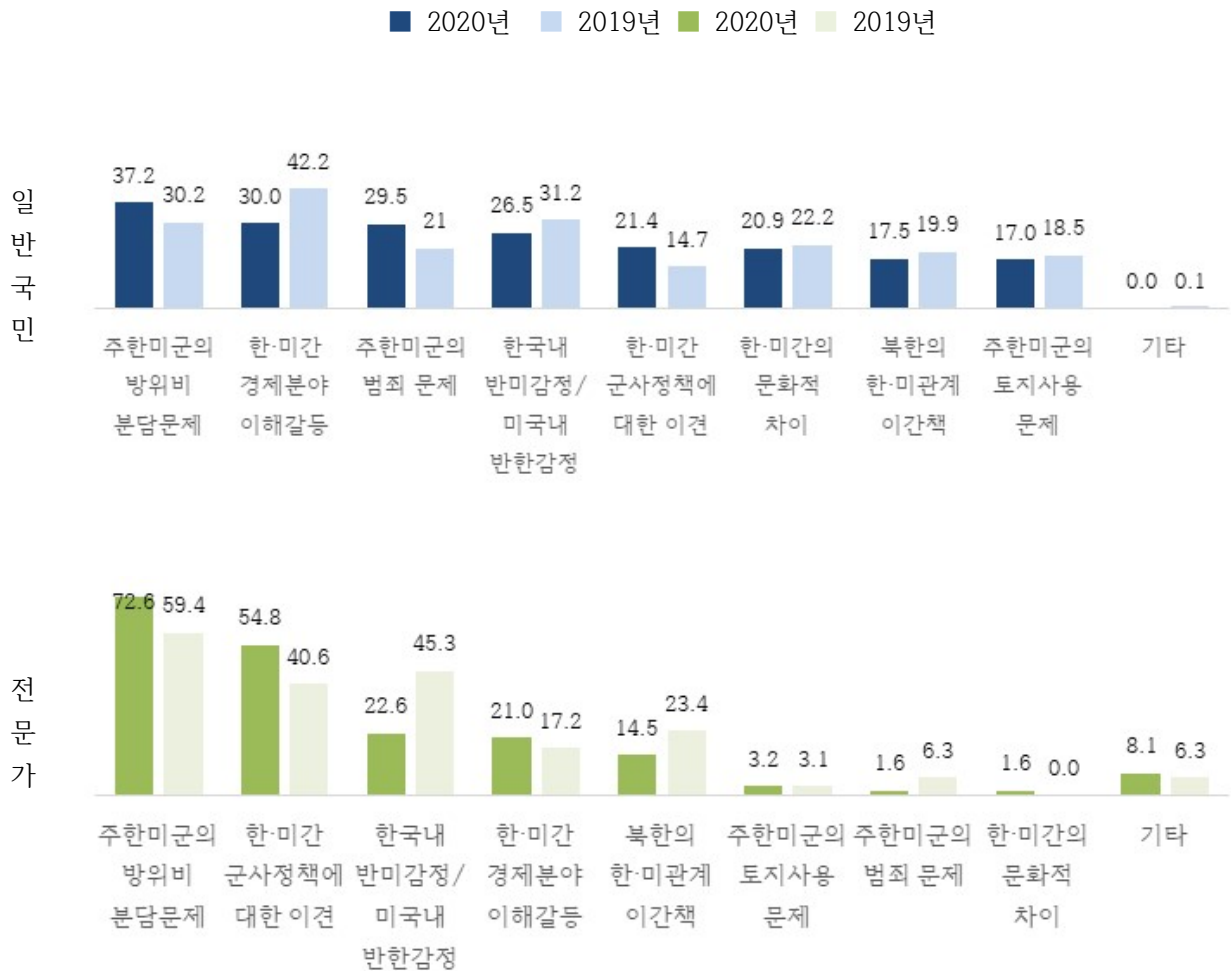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59.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 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30.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단위: 명, %)

		사례수 (명)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경제 분야 이해 갈등	주한 미군의 범죄 문제	한국내 반미 감정/ 미국내 반한 감정	한미 군사 정책에 대한 이견	한미 문화적 차이	북한의 한미 관계 이간책	주한 미군의 토지 사용 문제	기타
전체		(1262)	38.9	29.6	28.1	26.3	23.1	20.0	17.4	16.3	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7.2	30.0	29.5	26.5	21.4	20.9	17.5	17.0	0.0
	전문가	(62)	72.6	21.0	1.6	22.6	54.8	1.6	14.5	3.2	8.1
소속별	대학	(30)	73.3	16.7	0.0	23.3	53.3	3.3	13.3	3.3	13.3
	연구소	(32)	71.9	25.0	3.1	21.9	56.3	0.0	15.6	3.1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4.0	31.6	32.8	28.4	20.3	19.4	16.0	17.5	0.0
	중	(497)	40.0	26.4	26.4	23.1	24.3	22.7	18.3	18.7	0.0
	하	(136)	39.7	36.8	27.2	30.9	15.4	20.6	20.6	8.8	0.0
성별	남성	(720)	35.8	30.3	28.5	27.4	22.4	21.5	16.4	17.8	0.0
	여성	(480)	39.2	29.6	31.0	25.2	20.0	20.0	19.2	15.8	0.0
연령별	18-29세	(303)	36.3	29.0	33.3	25.7	22.1	20.5	15.8	17.2	0.0
	30대	(256)	39.5	26.2	28.9	26.6	21.9	18.0	20.7	18.4	0.0
	40대	(314)	36.3	34.4	29.0	25.2	22.3	21.3	15.0	16.6	0.0
	50대	(327)	37.0	29.7	26.9	28.4	19.6	23.2	19.0	16.2	0.0
지역별	서울	(238)	41.2	31.5	30.3	20.6	18.5	16.8	21.8	19.3	0.0
	경기/인천	(393)	43.8	33.8	25.4	26.2	27.0	18.1	10.7	15.0	0.0
	대전/세종/충청	(128)	28.9	28.1	32.8	31.3	17.2	27.3	22.7	11.7	0.0
	광주/전라	(110)	28.2	20.0	46.4	24.5	11.8	27.3	18.2	23.6	0.0
	대구/경북	(109)	46.8	31.2	19.3	24.8	43.1	11.0	3.7	20.2	0.0
	부산/울산/경남	(175)	20.0	26.9	32.6	32.6	6.9	32.0	29.1	20.0	0.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6.8	27.7	23.4	31.9	27.7	14.9	25.5	2.1	0.0
	대도시	(551)	29.8	33.4	33.2	24.1	17.8	23.2	20.1	18.3	0.0
	중소도시	(608)	45.2	27.5	25.2	28.1	25.0	18.3	15.0	15.8	0.0
	군지역	(41)	17.1	22.0	43.9	34.1	17.1	29.3	19.5	17.1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32.4	30.8	26.9	25.3	22.0	24.7	22.0	15.9	0.0
	블루칼라	(351)	41.9	29.9	28.2	26.8	23.1	18.2	14.0	17.9	0.0
	화이트칼라	(409)	34.2	32.0	31.1	26.4	22.2	20.0	16.6	17.4	0.0
	전업주부	(163)	42.9	26.4	29.4	27.6	17.2	21.5	22.7	12.3	0.0
	학생	(69)	37.7	26.1	30.4	27.5	15.9	23.2	18.8	20.3	0.0
	무직/기타	(26)	15.4	26.9	38.5	23.1	23.1	34.6	11.5	26.9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8.4	29.1	28.8	27.4	18.9	24.3	18.4	14.7	0.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6.3	29.9	30.9	26.0	21.9	18.6	18.6	17.7	0.0
	4년제 이상	(535)	36.8	30.7	29.2	26.2	22.8	20.0	16.3	18.1	0.0
생활 수준별	상	(137)	27.0	22.6	32.8	28.5	12.4	33.6	19.7	23.4	0.0
	중	(700)	35.1	30.4	32.1	26.4	23.0	19.7	18.1	15.0	0.0
	하	(363)	44.9	32.0	23.1	25.9	21.8	18.5	15.4	18.5	0.0

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1) 군사동맹 강화

- Q.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동맹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찬성한다’: 일반국민 72.3%, 전문가 69.4%

- [일반국민] 향후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2.3%로 ‘반대한다’(3.2%)는 응답보다 69.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0%p(2019년 71.3%) 증가, ‘반대한다’는 응답은 3.2%p(2019년 6.4%)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69.4%로 ‘반대한다’(4.8%)는 응답보다 64.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75.0%), ‘반대한다’는 응답은 1.5%p(2019년 6.3%)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60.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군사동맹)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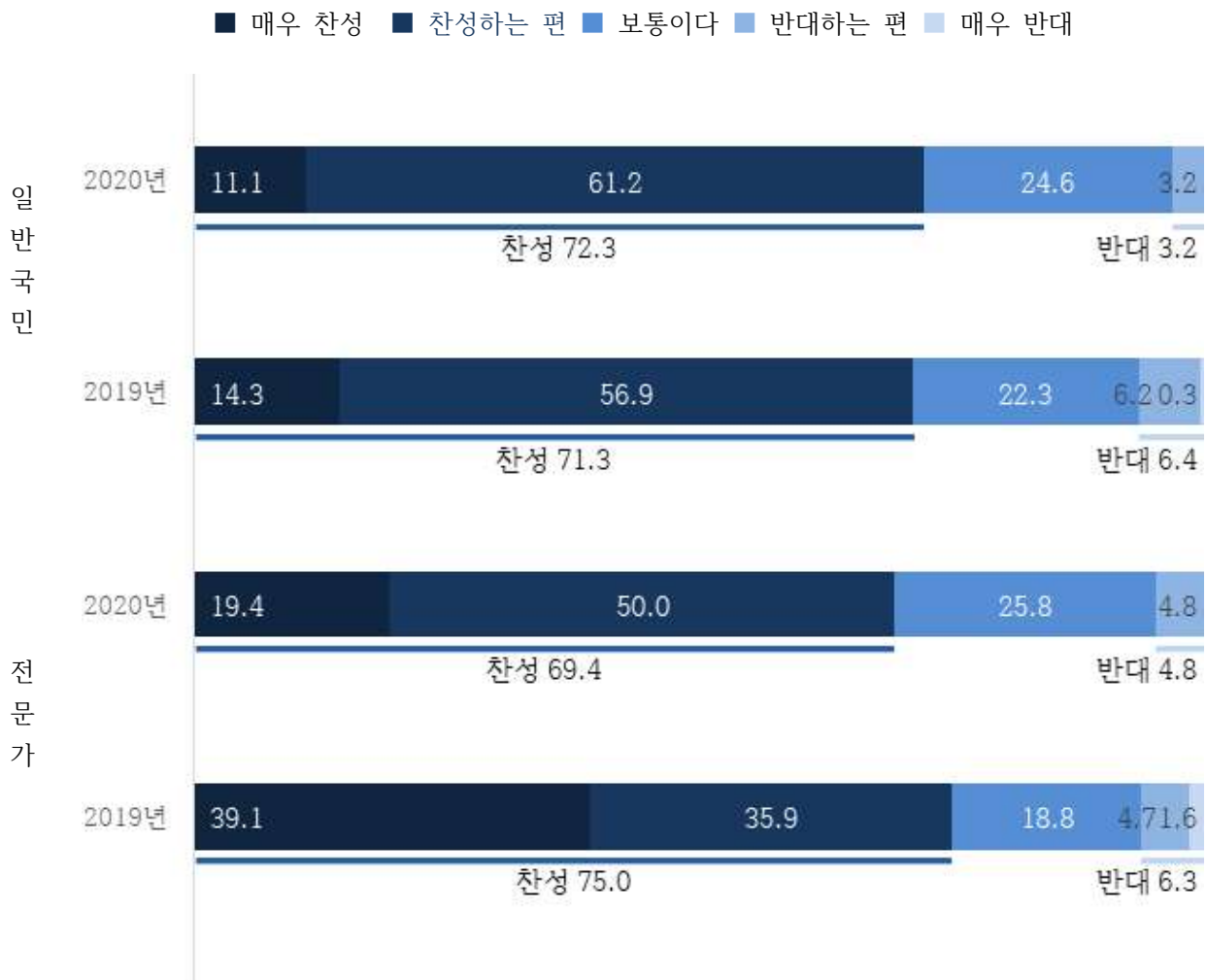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61.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군사동맹)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31.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군사동맹 강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1.5	60.6	24.6	3.2	-	72.1	24.6	3.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1	61.2	24.6	3.2	-	72.3	24.6	3.2
	전문가	(62)	19.4	50.0	25.8	4.8	-	69.4	25.8	4.8
소속별	대학	(30)	13.3	63.3	20.0	3.3	-	76.7	20.0	3.3
	연구소	(32)	25.0	37.5	31.3	6.3	-	62.5	31.3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5.9	63.7	17.8	2.6	-	79.5	17.8	2.6
	중	(497)	5.8	61.0	30.4	2.8	-	66.8	30.4	2.8
	하	(136)	10.3	51.5	31.6	6.6	-	61.8	31.6	6.6
성별	남성	(720)	11.5	61.5	24.2	2.8	-	73.1	24.2	2.8
	여성	(480)	10.4	60.6	25.2	3.8	-	71.0	25.2	3.8
연령별	18-29세	(303)	9.9	63.7	23.1	3.3	-	73.6	23.1	3.3
	30대	(256)	11.3	60.5	24.2	3.9	-	71.9	24.2	3.9
	40대	(314)	10.8	58.6	28.0	2.5	-	69.4	28.0	2.5
	50대	(327)	12.2	61.8	22.9	3.1	-	74.0	22.9	3.1
지역별	서울	(238)	6.7	71.4	20.2	1.7	-	78.2	20.2	1.7
	경기/인천	(393)	17.3	63.9	15.3	3.6	-	81.2	15.3	3.6
	대전/세종/충청	(128)	1.6	59.4	38.3	0.8	-	60.9	38.3	0.8
	광주/전라	(110)	6.4	67.3	24.5	1.8	-	73.6	24.5	1.8
	대구/경북	(109)	10.1	54.1	33.0	2.8	-	64.2	33.0	2.8
	부산/울산/경남	(175)	13.7	47.4	32.6	6.3	-	61.1	32.6	6.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0.6	44.7	38.3	6.4	-	55.3	38.3	6.4
	대도시	(551)	8.2	57.9	29.4	4.5	-	66.1	29.4	4.5
	중소도시	(608)	14.3	64.1	19.9	1.6	-	78.5	19.9	1.6
	군지역	(41)	2.4	61.0	29.3	7.3	-	63.4	29.3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13.2	58.8	24.7	3.3	-	72.0	24.7	3.3
	블루칼라	(351)	13.1	60.1	24.2	2.6	-	73.2	24.2	2.6
	화이트칼라	(409)	9.0	61.9	25.9	3.2	-	70.9	25.9	3.2
	전업주부	(163)	11.7	64.4	22.7	1.2	-	76.1	22.7	1.2
	학생	(69)	7.2	63.8	20.3	8.7	-	71.0	20.3	8.7
	무직/기타	(26)	7.7	53.8	30.8	7.7	-	61.5	30.8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3.0	58.8	26.0	2.3	-	71.8	26.0	2.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8.7	62.1	26.0	3.2	-	70.7	26.0	3.2
	4년제 이상	(535)	11.2	62.2	22.8	3.7	-	73.5	22.8	3.7
생활 수준별	상	(137)	10.9	57.7	26.3	5.1	-	68.6	26.3	5.1
	중	(700)	8.1	62.7	26.0	3.1	-	70.9	26.0	3.1
	하	(363)	16.8	59.5	21.2	2.5	-	76.3	21.2	2.5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 Q.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분야 갈등 해소, 과학 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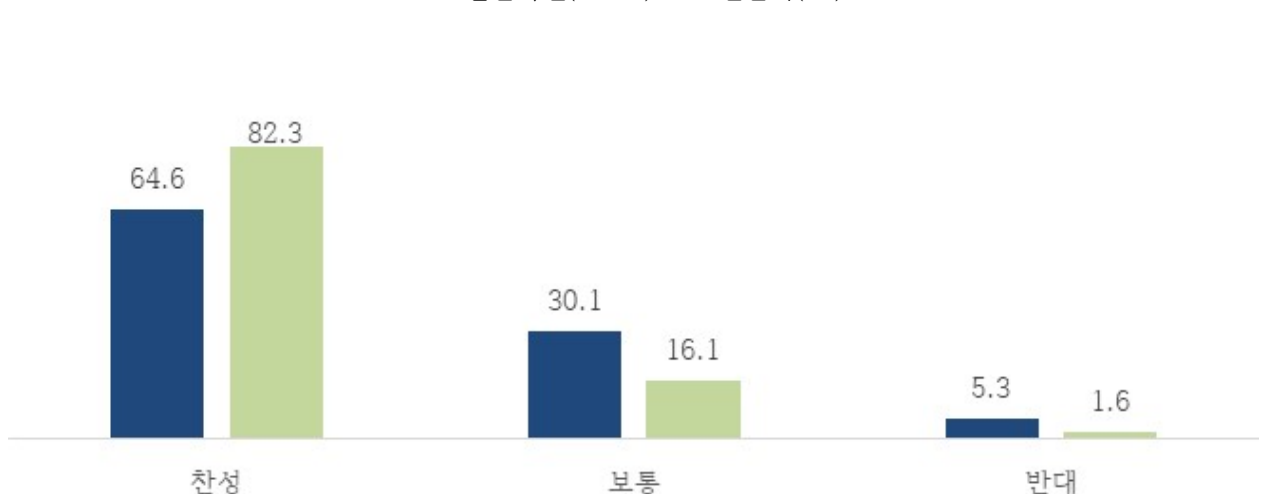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64.6%, 전문가 82.3%

- [일반국민]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4.6%로, ‘반대한다’(5.3%)는 응답보다 59.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3.8%p(2019년 60.8%) 증가, ‘반대한다’는 응답은 2.3%p(2019년 7.6%) 감소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반대한다’(1.6%)는 응답보다 8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1.5%p(2019년 93.8%)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6%p(2019년 0.0%)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62.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경제 분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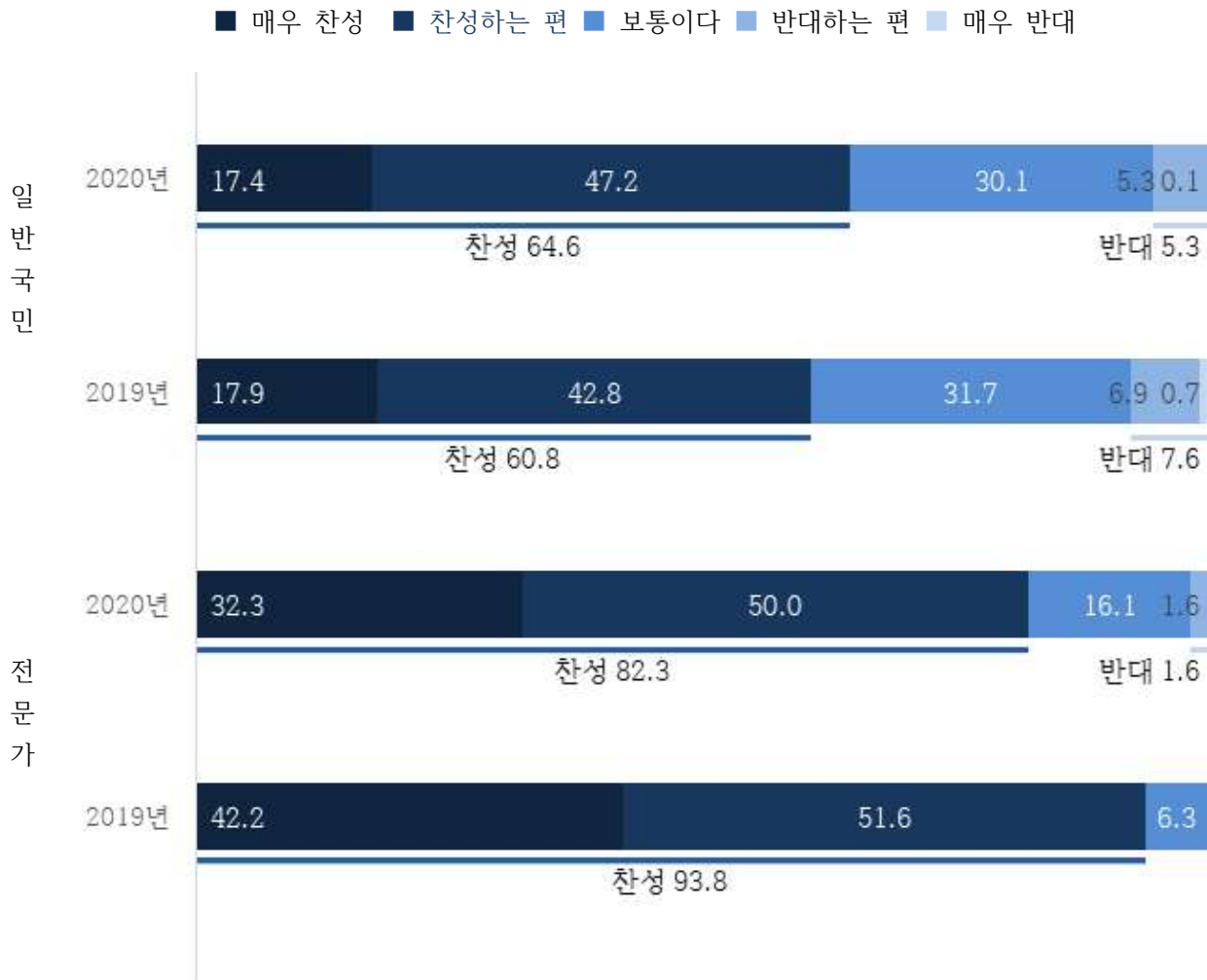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63.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경제 분야)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32.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8.1	47.3	29.4	5.1	0.1	65.5	29.4	5.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4	47.2	30.1	5.3	0.1	64.6	30.1	5.3
	전문가	(62)	32.3	50.0	16.1	1.6	0.0	82.3	16.1	1.6
소속별	대학	(30)	26.7	53.3	20.0	0.0	0.0	80.0	20.0	0.0
	연구소	(32)	37.5	46.9	12.5	3.1	0.0	84.4	12.5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9.2	47.1	29.5	4.1	0.2	66.3	29.5	4.2
	중	(497)	15.1	50.5	28.6	5.8	0.0	65.6	28.6	5.8
	하	(136)	18.4	35.3	38.2	8.1	0.0	53.7	38.2	8.1
성별	남성	(720)	19.2	46.4	28.6	5.7	0.1	65.6	28.6	5.8
	여성	(480)	14.8	48.3	32.3	4.6	0.0	63.1	32.3	4.6
연령별	18-29세	(303)	16.5	43.9	33.3	5.9	0.3	60.4	33.3	6.3
	30대	(256)	14.8	47.7	31.6	5.9	0.0	62.5	31.6	5.9
	40대	(314)	17.8	50.0	26.1	6.1	0.0	67.8	26.1	6.1
	50대	(327)	19.9	47.1	29.7	3.4	0.0	67.0	29.7	3.4
지역별	서울	(238)	16.4	50.8	29.8	2.9	0.0	67.2	29.8	2.9
	경기/인천	(393)	23.9	45.5	25.4	5.1	0.0	69.5	25.4	5.1
	대전/세종/충청	(128)	8.6	43.0	46.1	2.3	0.0	51.6	46.1	2.3
	광주/전라	(110)	10.9	41.8	34.5	11.8	0.9	52.7	34.5	12.7
	대구/경북	(109)	17.4	43.1	33.0	6.4	0.0	60.6	33.0	6.4
	부산/울산/경남	(175)	15.4	52.0	26.3	6.3	0.0	67.4	26.3	6.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4.9	57.4	23.4	4.3	0.0	72.3	23.4	4.3
	대도시	(551)	12.9	47.5	32.7	6.7	0.2	60.4	32.7	6.9
	중소도시	(608)	22.2	47.0	26.6	4.1	0.0	69.2	26.6	4.1
	군지역	(41)	7.3	43.9	46.3	2.4	0.0	51.2	46.3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23.1	46.2	27.5	3.3	0.0	69.2	27.5	3.3
	블루칼라	(351)	14.8	52.1	26.8	6.3	0.0	67.0	26.8	6.3
	화이트칼라	(409)	18.1	44.7	31.3	5.9	0.0	62.8	31.3	5.9
	전업주부	(163)	16.0	46.6	33.7	3.7	0.0	62.6	33.7	3.7
	학생	(69)	17.4	44.9	30.4	5.8	1.4	62.3	30.4	7.2
	무직/기타	(26)	11.5	34.6	50.0	3.8	0.0	46.2	50.0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6.7	48.6	30.8	4.0	0.0	65.3	30.8	4.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9.6	44.4	28.9	7.1	0.0	64.0	28.9	7.1
	4년제 이상	(535)	16.6	47.9	30.3	5.0	0.2	64.5	30.3	5.2
생활 수준별	상	(137)	19.7	39.4	32.8	7.3	0.7	59.1	32.8	8.0
	중	(700)	17.0	45.6	31.7	5.7	0.0	62.6	31.7	5.7
	하	(363)	17.4	53.2	25.9	3.6	0.0	70.5	25.9	3.6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Q.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치관 차이 해소 등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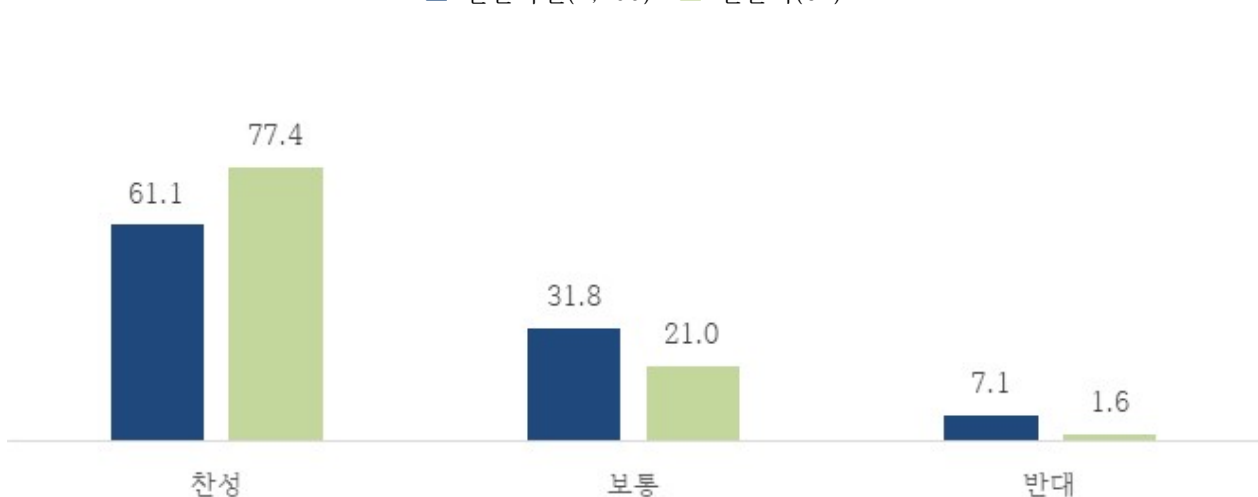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61.1%, 전문가 77.4%

- [일반국민]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1%로, ‘반대한다’(7.1%)는 응답보다 54.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5.0%p(2019년 56.1%) 증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0.9%p(2019년 8.0%)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77.4%로, ‘반대한다’(1.6%)는 응답보다 75.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5.4%p(2019년 82.8%)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6%p(2019년 0.0%)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64.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사회문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65.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사회문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3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2.7	49.2	31.3	6.8	-	61.9	31.3	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6	49.5	31.8	7.1	-	61.1	31.8	7.1
	전문가	(62)	33.9	43.5	21.0	1.6	-	77.4	21.0	1.6
소속별	대학	(30)	30.0	53.3	16.7	0.0	-	83.3	16.7	0.0
	연구소	(32)	37.5	34.4	25.0	3.1	-	71.9	25.0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3.4	50.1	31.0	5.5	-	63.5	31.0	5.5
	중	(497)	10.3	52.7	30.2	6.8	-	63.0	30.2	6.8
	하	(136)	8.8	35.3	41.2	14.7	-	44.1	41.2	14.7
성별	남성	(720)	12.5	48.9	31.9	6.7	-	61.4	31.9	6.7
	여성	(480)	10.2	50.4	31.7	7.7	-	60.6	31.7	7.7
연령별	18-29세	(303)	12.9	46.5	34.0	6.6	-	59.4	34.0	6.6
	30대	(256)	10.5	50.8	30.5	8.2	-	61.3	30.5	8.2
	40대	(314)	10.8	47.1	34.4	7.6	-	58.0	34.4	7.6
	50대	(327)	11.9	53.5	28.4	6.1	-	65.4	28.4	6.1
지역별	서울	(238)	10.1	59.7	26.9	3.4	-	69.7	26.9	3.4
	경기/인천	(393)	14.0	46.8	31.8	7.4	-	60.8	31.8	7.4
	대전/세종/충청	(128)	4.7	61.7	26.6	7.0	-	66.4	26.6	7.0
	광주/전라	(110)	14.5	40.9	34.5	10.0	-	55.5	34.5	10.0
	대구/경북	(109)	8.3	42.2	45.0	4.6	-	50.5	45.0	4.6
	부산/울산/경남	(175)	13.1	43.4	31.4	12.0	-	56.6	31.4	12.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46.8	36.2	4.3	-	59.6	36.2	4.3
	대도시	(551)	10.0	47.7	33.4	8.9	-	57.7	33.4	8.9
	중소도시	(608)	13.3	51.5	30.3	4.9	-	64.8	30.3	4.9
	군지역	(41)	7.3	43.9	34.1	14.6	-	51.2	34.1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13.2	48.4	32.4	6.0	-	61.5	32.4	6.0
	블루칼라	(351)	10.8	49.6	31.3	8.3	-	60.4	31.3	8.3
	화이트칼라	(409)	13.4	48.9	30.8	6.8	-	62.3	30.8	6.8
	전업주부	(163)	6.1	54.0	34.4	5.5	-	60.1	34.4	5.5
	학생	(69)	14.5	42.0	34.8	8.7	-	56.5	34.8	8.7
	무직/기타	(26)	7.7	57.7	26.9	7.7	-	65.4	26.9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9.6	49.4	32.8	8.2	-	59.0	32.8	8.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2.9	45.7	33.8	7.7	-	58.5	33.8	7.7
	4년제 이상	(535)	12.1	51.8	30.1	6.0	-	63.9	30.1	6.0
생활 수준별	상	(137)	11.7	43.8	36.5	8.0	-	55.5	36.5	8.0
	중	(700)	9.4	51.6	30.9	8.1	-	61.0	30.9	8.1
	하	(363)	15.7	47.7	32.0	4.7	-	63.4	32.0	4.7

(4)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 Q.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테러, 기후 변화 등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하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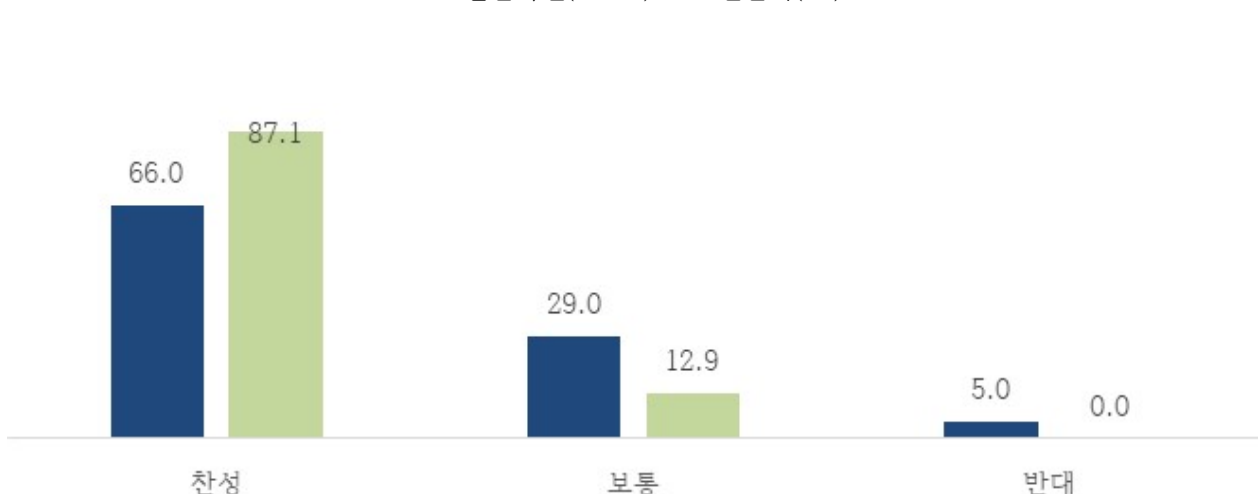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66.0%, 전문가 87.1%

- [일반국민]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6.0%로, ‘반대한다’(5.0%)는 응답보다 61.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7.8%(2019년 58.2%) 증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p(2019년 7.8%)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은 87.1%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2%p(2019년 85.9%)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3-66.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세계문제)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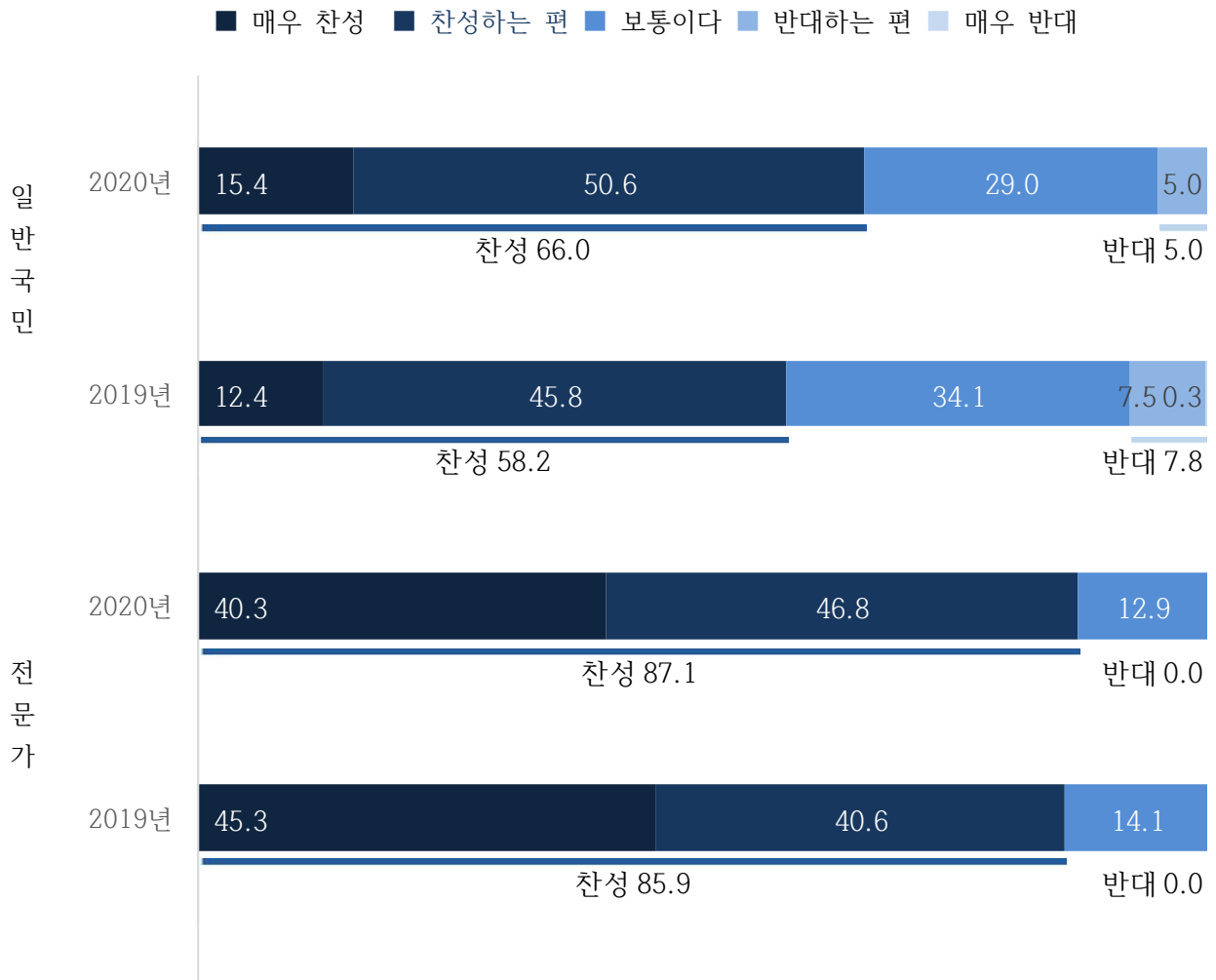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67.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찬반(세계문제)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직업별로 전업주부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34.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찬반 -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6.6	50.4	28.2	4.8	-	67.0	28.2	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4	50.6	29.0	5.0	-	66.0	29.0	5.0
	전문가	(62)	40.3	46.8	12.9	0.0	-	87.1	12.9	0.0
소속별	대학	(30)	26.7	60.0	13.3	0.0	-	86.7	13.3	0.0
	연구소	(32)	53.1	34.4	12.5	0.0	-	87.5	12.5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5.3	52.4	27.3	4.9	-	67.7	27.3	4.9
	중	(497)	15.7	50.1	30.6	3.6	-	65.8	30.6	3.6
	하	(136)	14.7	44.9	30.1	10.3	-	59.6	30.1	10.3
성별	남성	(720)	15.1	49.3	30.4	5.1	-	64.4	30.4	5.1
	여성	(480)	15.8	52.5	26.9	4.8	-	68.3	26.9	4.8
연령별	18-29세	(303)	16.5	46.9	29.0	7.6	-	63.4	29.0	7.6
	30대	(256)	14.8	50.8	30.5	3.9	-	65.6	30.5	3.9
	40대	(314)	16.2	48.7	30.9	4.1	-	65.0	30.9	4.1
	50대	(327)	14.1	55.7	26.0	4.3	-	69.7	26.0	4.3
지역별	서울	(238)	13.0	61.3	24.4	1.3	-	74.4	24.4	1.3
	경기/인천	(393)	18.3	45.8	26.5	9.4	-	64.1	26.5	9.4
	대전/세종/충청	(128)	7.0	54.7	35.2	3.1	-	61.7	35.2	3.1
	광주/전라	(110)	19.1	44.5	32.7	3.6	-	63.6	32.7	3.6
	대구/경북	(109)	21.1	50.5	27.5	0.9	-	71.6	27.5	0.9
	부산/울산/경남	(175)	9.7	48.0	36.0	6.3	-	57.7	36.0	6.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5.5	48.9	25.5	0.0	-	74.5	25.5	0.0
	대도시	(551)	11.3	51.2	33.0	4.5	-	62.4	33.0	4.5
	중소도시	(608)	18.9	50.3	25.3	5.4	-	69.2	25.3	5.4
	군지역	(41)	19.5	46.3	29.3	4.9	-	65.9	29.3	4.9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5	50.5	34.1	3.8	-	62.1	34.1	3.8
	블루칼라	(351)	12.8	53.0	28.5	5.7	-	65.8	28.5	5.7
	화이트칼라	(409)	17.4	48.7	29.3	4.6	-	66.0	29.3	4.6
	전업주부	(163)	15.3	57.1	22.7	4.9	-	72.4	22.7	4.9
	학생	(69)	26.1	40.6	26.1	7.2	-	66.7	26.1	7.2
	무직/기타	(26)	19.2	34.6	42.3	3.8	-	53.8	42.3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2.1	52.0	30.5	5.4	-	64.1	30.5	5.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5	48.9	31.5	6.1	-	62.4	31.5	6.1
	4년제 이상	(535)	18.7	50.7	26.5	4.1	-	69.3	26.5	4.1
생활 수준별	상	(137)	20.4	46.7	27.7	5.1	-	67.2	27.7	5.1
	중	(700)	12.7	50.4	32.4	4.4	-	63.1	32.4	4.4
	하	(363)	18.7	52.3	22.9	6.1	-	71.1	22.9	6.1

4)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Q. 귀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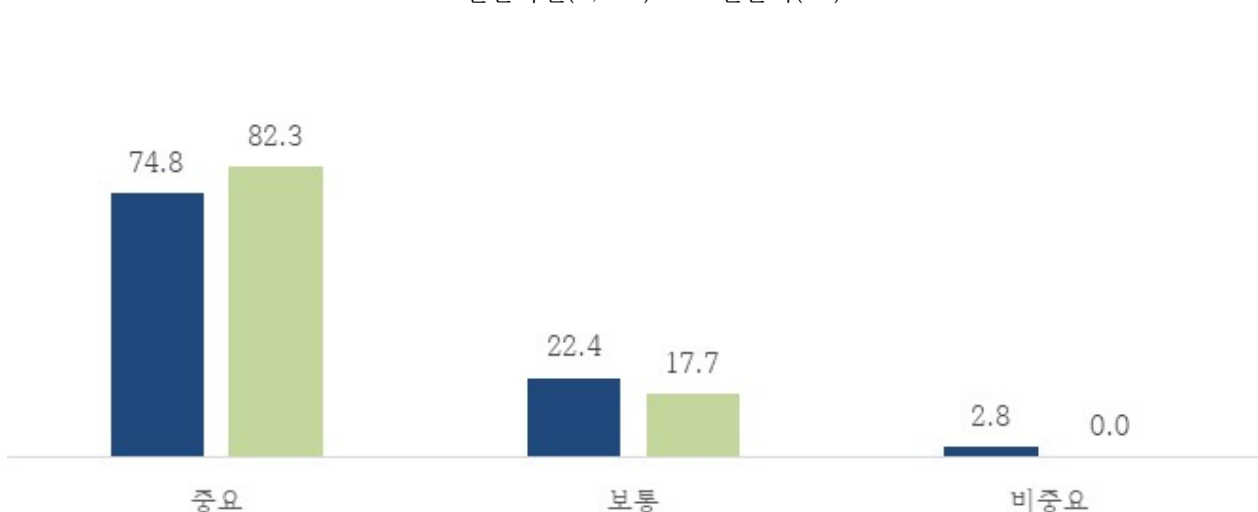
‘중요하다’: 일반국민 74.8%, 전문가 82.3%

- [일반국민]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4.8%로, ‘중요하지 않다’(2.8%)는 응답보다 72.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5.3%p(2019년 80.1%) 감소,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p(2019년 1.8%)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11.5%p(2019년 93.8%) 감소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또한 1.6%p(2019년 1.6%)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68.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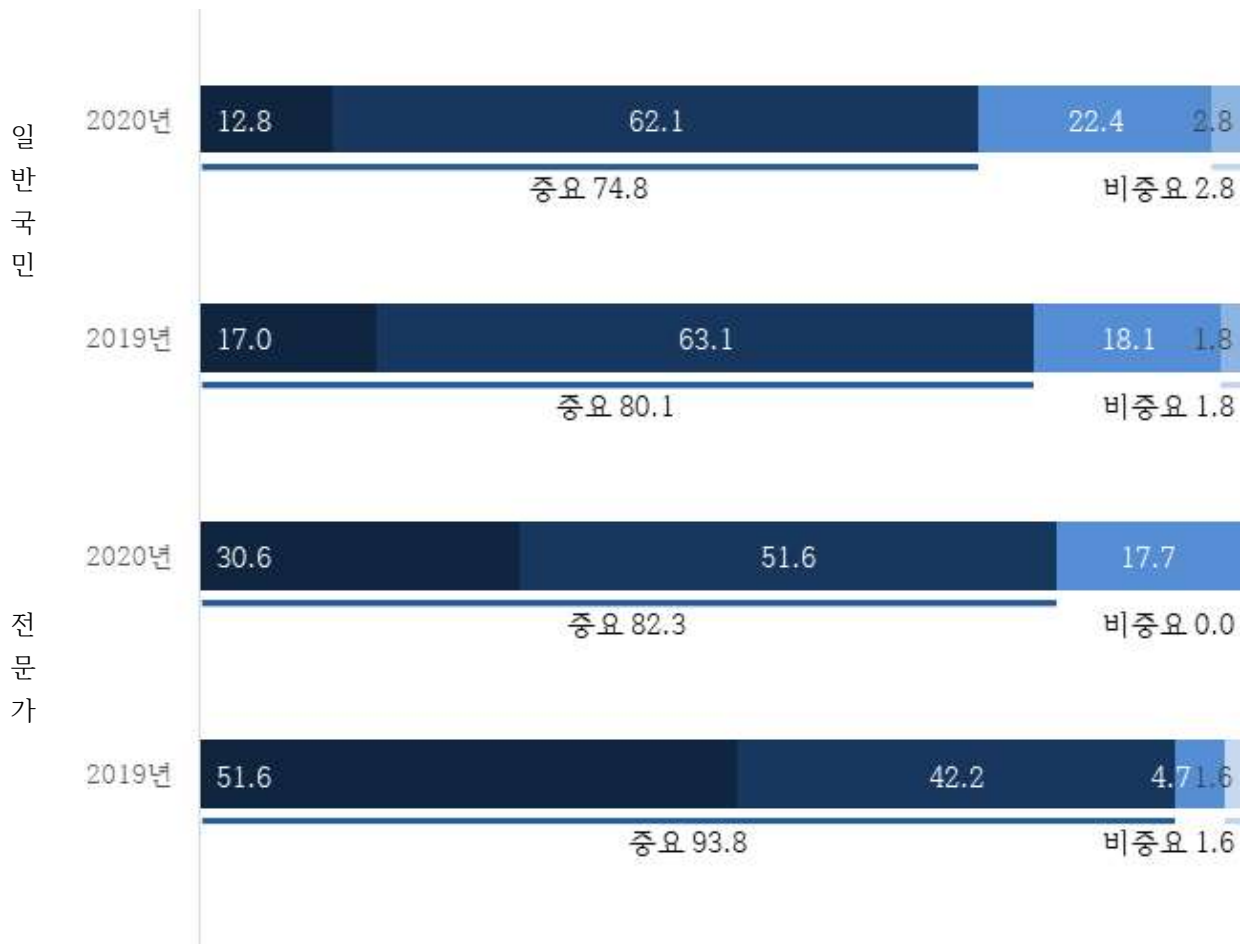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69.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중요 ■ 중요한 편이다 ■ 보통이다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매우 중요하지 않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지역별로 서울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35.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	보통	비중요
전체		(1262)	13.6	61.6	22.2	2.6	-	75.2	22.2	2.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8	62.1	22.4	2.8	-	74.8	22.4	2.8
	전문가	(62)	30.6	51.6	17.7	0.0	-	82.3	17.7	0.0
소속별	대학	(30)	23.3	60.0	16.7	0.0	-	83.3	16.7	0.0
	연구소	(32)	37.5	43.8	18.8	0.0	-	81.3	18.8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7.3	63.0	17.3	2.5	-	80.2	17.3	2.5
	중	(497)	7.4	62.0	28.2	2.4	-	69.4	28.2	2.4
	하	(136)	13.2	58.8	22.8	5.1	-	72.1	22.8	5.1
성별	남성	(720)	13.1	62.2	22.2	2.5	-	75.3	22.2	2.5
	여성	(480)	12.3	61.9	22.7	3.1	-	74.2	22.7	3.1
연령별	18-29세	(303)	8.6	65.3	23.8	2.3	-	73.9	23.8	2.3
	30대	(256)	11.3	60.5	25.4	2.7	-	71.9	25.4	2.7
	40대	(314)	14.0	59.2	22.3	4.5	-	73.2	22.3	4.5
	50대	(327)	16.5	63.0	19.0	1.5	-	79.5	19.0	1.5
지역별	서울	(238)	6.7	79.4	13.4	0.4	-	86.1	13.4	0.4
	경기/인천	(393)	17.8	62.3	18.1	1.8	-	80.2	18.1	1.8
	대전/세종/충청	(128)	1.6	57.8	40.6	0.0	-	59.4	40.6	0.0
	광주/전라	(110)	10.9	69.1	17.3	2.7	-	80.0	17.3	2.7
	대구/경북	(109)	13.8	50.5	28.4	7.3	-	64.2	28.4	7.3
	부산/울산/경남	(175)	16.6	49.1	27.4	6.9	-	65.7	27.4	6.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9.1	42.6	34.0	4.3	-	61.7	34.0	4.3
	대도시	(551)	8.3	65.9	23.2	2.5	-	74.2	23.2	2.5
	중소도시	(608)	17.6	58.9	21.1	2.5	-	76.5	21.1	2.5
직업별	군지역	(41)	0.0	58.5	31.7	9.8	-	58.5	31.7	9.8
	자영업자	(182)	17.0	62.6	17.0	3.3	-	79.7	17.0	3.3
	블루칼라	(351)	15.7	55.3	26.2	2.8	-	70.9	26.2	2.8
	화이트칼라	(409)	8.8	68.0	20.5	2.7	-	76.8	20.5	2.7
	전업주부	(163)	14.1	62.0	23.3	0.6	-	76.1	23.3	0.6
	학생	(69)	11.6	58.0	24.6	5.8	-	69.6	24.6	5.8
최종 학력별	무직/기타	(26)	0.0	69.2	26.9	3.8	-	69.2	26.9	3.8
	고졸이하	(354)	15.8	60.2	21.8	2.3	-	76.0	21.8	2.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2.5	58.2	24.8	4.5	-	70.7	24.8	4.5
생활 수준별	4년제 이상	(535)	10.8	65.6	21.5	2.1	-	76.4	21.5	2.1
	상	(137)	13.9	59.1	23.4	3.6	-	73.0	23.4	3.6
	중	(700)	9.9	63.3	24.0	2.9	-	73.1	24.0	2.9
	하	(363)	17.9	60.9	19.0	2.2	-	78.8	19.0	2.2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Q. 귀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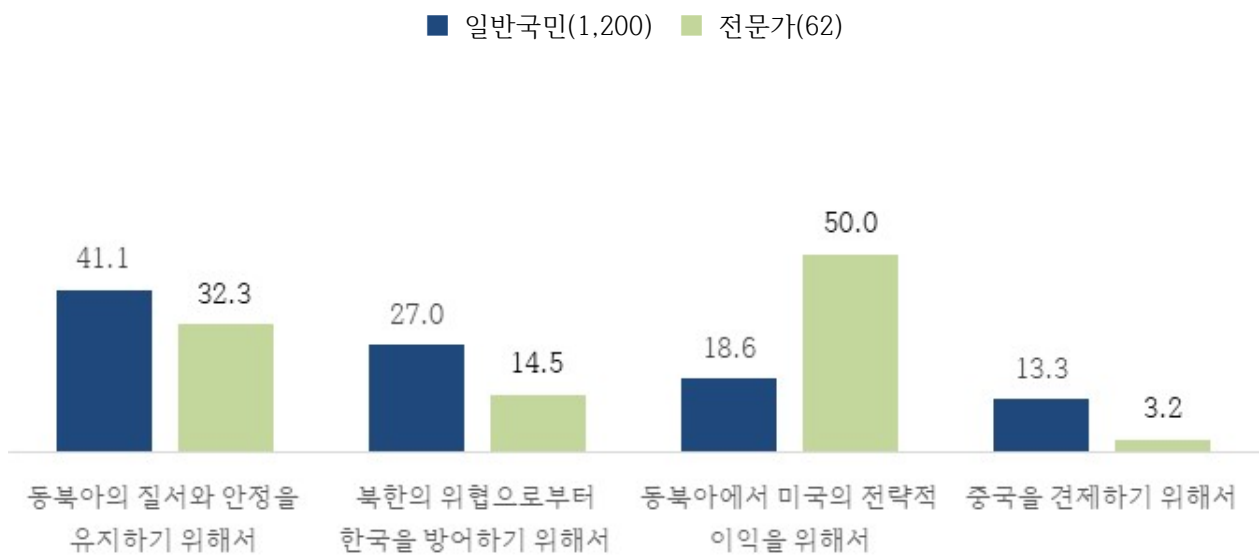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 유지를 위해’: 일반국민 41.1%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문가 50.0%

○ [일반국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3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0. 주한미군 주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36. 주한미군 주둔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명)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체		(1262)	40.6	26.4	20.1	1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1.1	27.0	18.6	13.3
	전문가	(62)	32.3	14.5	50.0	3.2
소속별	대학	(30)	30.0	13.3	53.3	3.3
	연구소	(32)	34.4	15.6	46.9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2.0	29.1	17.3	11.6
	중	(497)	41.6	25.8	19.1	13.5
	하	(136)	35.3	22.8	22.1	19.9
성별	남성	(720)	41.4	25.1	20.1	13.3
	여성	(480)	40.6	29.8	16.3	13.3
연령별	18-29세	(303)	38.0	27.4	18.5	16.2
	30대	(256)	41.8	25.4	21.1	11.7
	40대	(314)	40.4	25.8	19.1	14.6
	50대	(327)	44.0	29.1	16.2	10.7
지역별	서울	(238)	35.3	25.2	20.2	19.3
	경기/인천	(393)	36.9	30.5	24.7	7.9
	대전/세종/충청	(128)	53.9	20.3	13.3	12.5
	광주/전라	(110)	47.3	18.2	19.1	15.5
	대구/경북	(109)	43.1	33.9	12.8	10.1
	부산/울산/경남	(175)	49.7	29.7	4.6	16.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9.1	19.1	38.3	23.4
	대도시	(551)	44.8	23.8	15.4	16.0
	중소도시	(608)	37.0	30.1	21.7	11.2
	군지역	(41)	51.2	24.4	14.6	9.8
직업별	자영업자	(182)	44.5	29.1	16.5	9.9
	블루칼라	(351)	35.3	31.6	18.8	14.2
	화이트칼라	(409)	42.5	22.0	22.0	13.4
	전업주부	(163)	47.9	27.6	12.3	12.3
	학생	(69)	29.0	30.4	20.3	20.3
	무직/기타	(26)	61.5	15.4	11.5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0.4	32.2	17.5	9.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5.7	30.2	17.0	17.0
	4년제 이상	(535)	44.7	21.7	20.2	13.5
생활 수준별	상	(137)	45.3	21.2	19.0	14.6
	중	(700)	41.7	27.0	16.9	14.4
	하	(363)	38.3	29.2	21.8	10.7

6) 주한미군 주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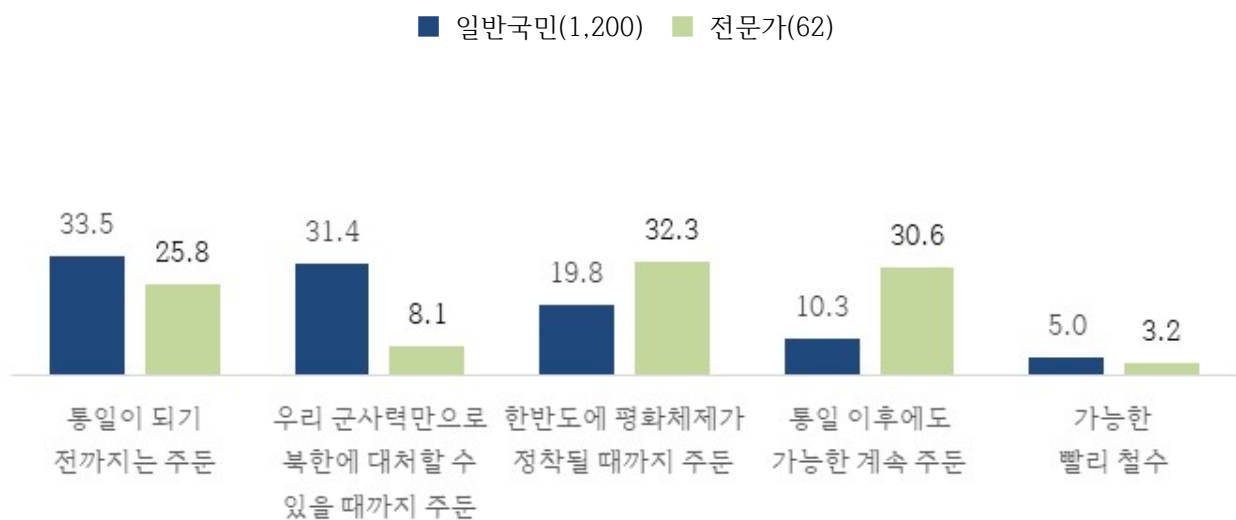
Q.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일반국민 33.5%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전문가 32.3%

- [일반국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3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4.3%p(2019년 37.8%),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3.2%p(2019년 34.6%)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3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6%p(2019년 29.7%)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8.5%p(2019년 39.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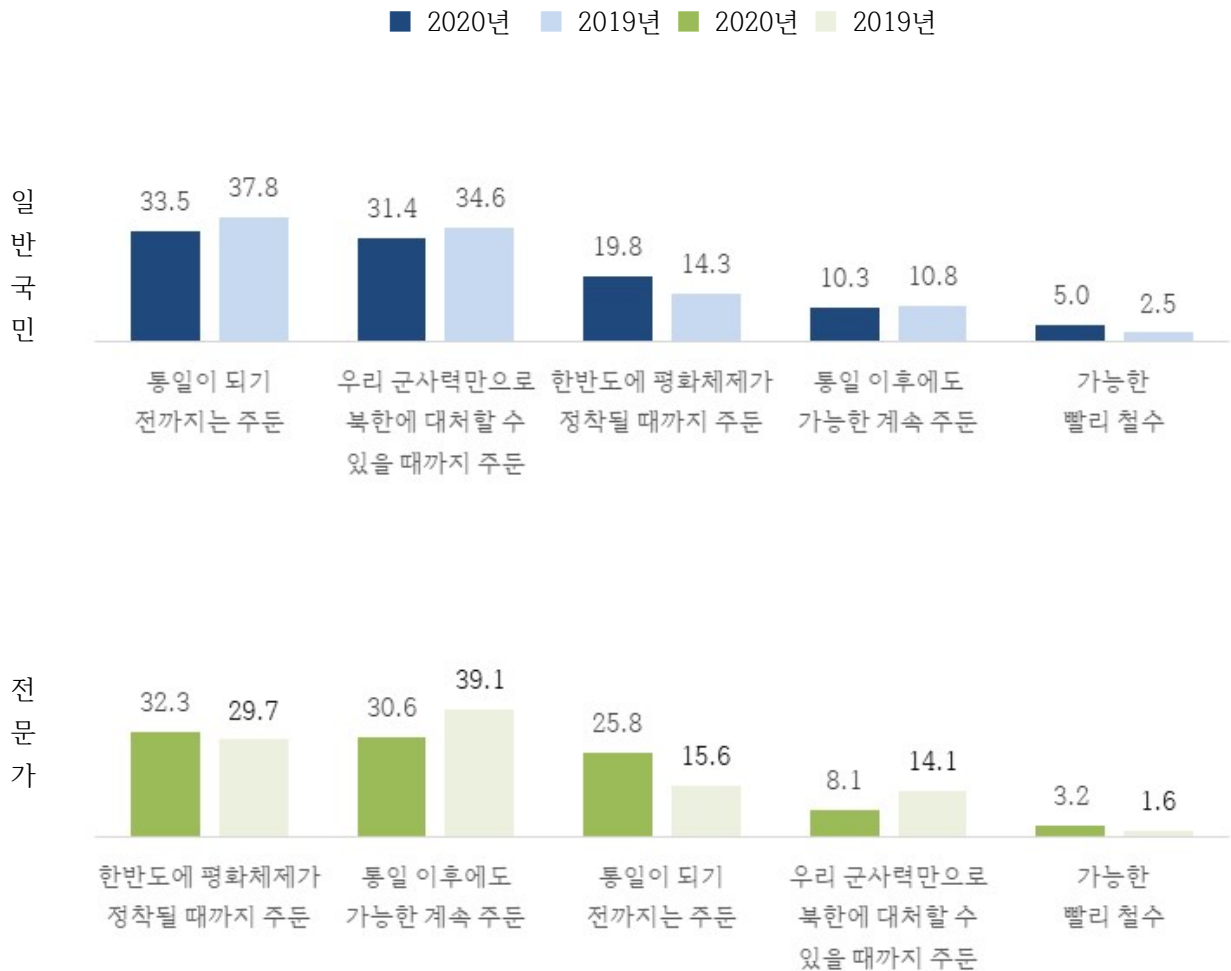
[그림 3-71. 주한미군 주둔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72. 주한미군 주둔 시기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37. 주한미군 주둔 시기]

(단위: 명, %)

		사례수 (명)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	우리 군사력 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	가능한 빨리 철수
전체		(1262)	33.1	30.3	20.4	11.3	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5	31.4	19.8	10.3	5.0
	전문가	(62)	25.8	8.1	32.3	30.6	3.2
소속별	대학	(30)	20.0	6.7	30.0	36.7	6.7
	연구소	(32)	31.3	9.4	34.4	25.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4.2	31.6	18.0	11.6	4.6
	중	(497)	33.8	31.6	20.3	9.1	5.2
	하	(136)	29.4	30.1	25.0	9.6	5.9
성별	남성	(720)	34.3	31.0	20.0	10.6	4.2
	여성	(480)	32.3	32.1	19.4	10.0	6.3
연령별	18-29세	(303)	32.3	34.7	18.2	9.2	5.6
	30대	(256)	34.8	29.7	21.1	9.4	5.1
	40대	(314)	30.9	33.1	20.7	10.2	5.1
	50대	(327)	36.1	28.1	19.3	12.2	4.3
지역별	서울	(238)	34.5	37.8	14.3	12.6	0.8
	경기/인천	(393)	28.5	29.8	26.2	8.4	7.1
	대전/세종/충청	(128)	35.2	37.5	13.3	10.2	3.9
	광주/전라	(110)	34.5	30.0	23.6	10.9	0.9
	대구/경북	(109)	37.6	21.1	25.7	2.8	12.8
	부산/울산/경남	(175)	43.4	30.9	7.4	14.9	3.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7.0	25.5	34.0	14.9	8.5
	대도시	(551)	35.8	34.7	16.9	9.1	3.6
	중소도시	(608)	31.4	28.0	22.9	11.5	6.3
	군지역	(41)	34.1	39.0	12.2	9.8	4.9
직업별	자영업자	(182)	35.2	31.9	18.1	12.6	2.2
	블루칼라	(351)	37.6	27.9	19.4	8.5	6.6
	화이트칼라	(409)	31.8	33.7	20.3	9.0	5.1
	전업주부	(163)	33.1	28.2	20.9	12.9	4.9
	학생	(69)	24.6	39.1	20.3	13.0	2.9
	무직/기타	(26)	19.2	38.5	19.2	15.4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3.1	30.8	20.3	10.5	5.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4.7	25.1	19.9	13.5	6.8
	4년제 이상	(535)	33.1	35.5	19.3	8.4	3.7
생활 수준별	상	(137)	35.8	27.7	21.2	12.4	2.9
	중	(700)	35.3	31.4	19.0	8.7	5.6
	하	(363)	29.2	32.8	20.7	12.7	4.7

7)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한 의견

Q. 귀하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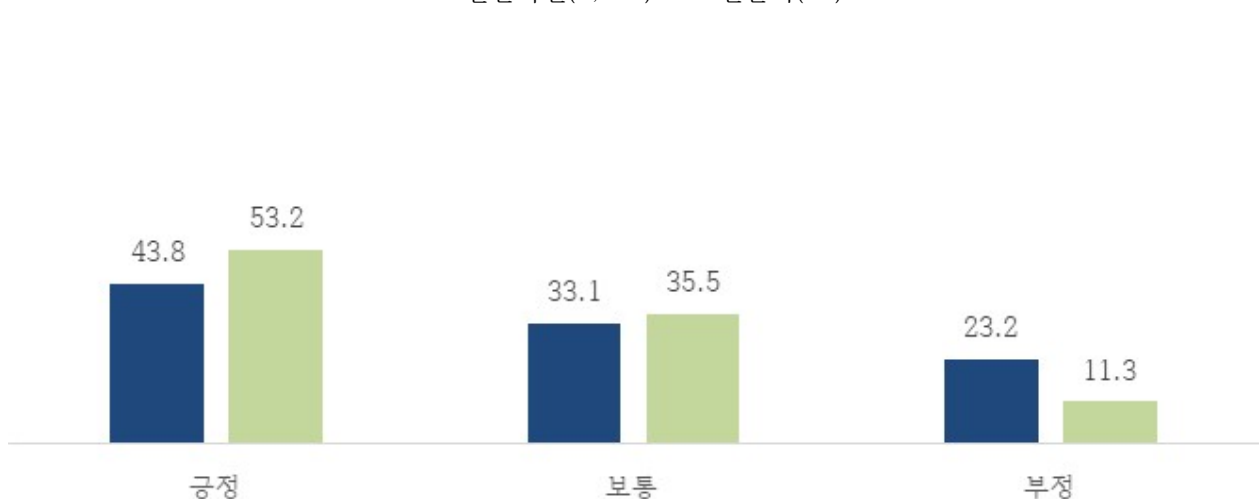
‘긍정평가’: 일반국민 43.8%, 전문가 53.2%

- [일반국민]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평가(매우 그렇다 + 그렇다)’가 43.8%로 ‘부정평가(전혀 아니다 + 아니다)’(23.2%)보다 20.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긍정평가’는 6.4%p(2019년 50.1%) 감소한 반면, ‘부정평가’는 11.5%p(2019년 11.7%) 증가함
- [전문가] ‘긍정평가’가 53.2%로 ‘부정평가’(11.3%)보다 41.9%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긍정평가’는 17.1%p(2019년 70.3%) 감소한 반면, ‘부정평가’는 0.4%p(2019년 10.9%) 증가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73.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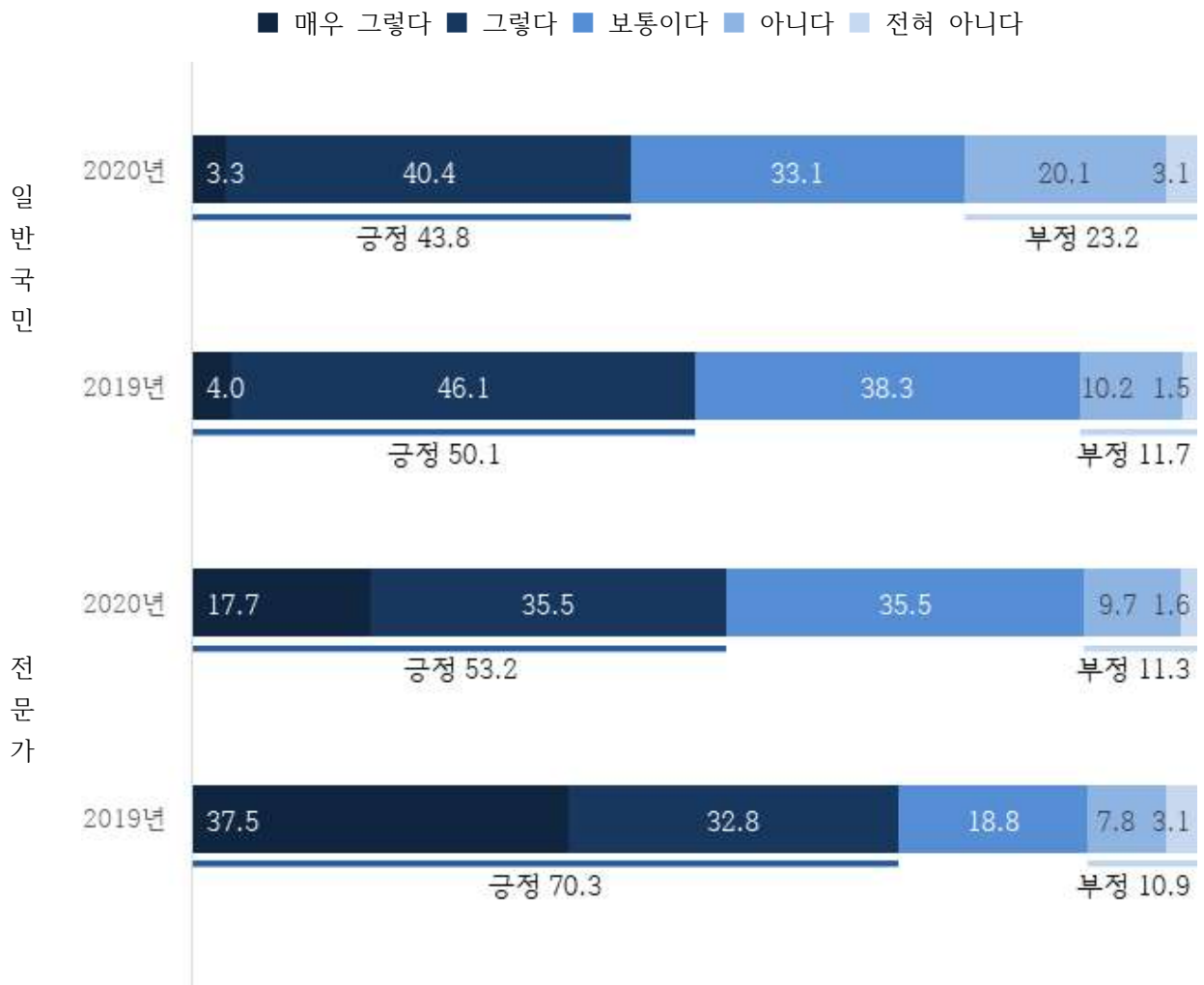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74.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으로 인해 안보비용이 절약된다는 의견에 대한 ‘긍정평가’는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직업별로 자영업자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38.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262)	4.0	40.2	33.2	19.6	3.0	44.2	33.2	22.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	40.4	33.1	20.1	3.1	43.8	33.1	23.2
	전문가	(62)	17.7	35.5	35.5	9.7	1.6	53.2	35.5	11.3
소속별	대학	(30)	20.0	36.7	33.3	10.0	0.0	56.7	33.3	10.0
	연구소	(32)	15.6	34.4	37.5	9.4	3.1	50.0	37.5	12.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1	47.8	27.9	17.5	2.8	51.9	27.9	20.3
	중	(497)	3.2	34.6	38.2	21.7	2.2	37.8	38.2	23.9
	하	(136)	0.7	30.9	36.0	25.0	7.4	31.6	36.0	32.4
성별	남성	(720)	3.3	41.5	32.4	20.0	2.8	44.9	32.4	22.8
	여성	(480)	3.3	38.8	34.2	20.2	3.5	42.1	34.2	23.8
연령별	18-29세	(303)	4.3	37.6	31.0	23.8	3.3	41.9	31.0	27.1
	30대	(256)	3.5	37.1	32.0	24.2	3.1	40.6	32.0	27.3
	40대	(314)	2.5	43.0	33.1	18.5	2.9	45.5	33.1	21.3
	50대	(327)	3.1	43.1	35.8	15.0	3.1	46.2	35.8	18.0
지역별	서울	(238)	0.0	39.9	26.9	29.4	3.8	39.9	26.9	33.2
	경기/인천	(393)	5.1	35.9	30.5	25.7	2.8	41.0	30.5	28.5
	대전/세종/충청	(128)	0.0	46.9	43.0	10.2	0.0	46.9	43.0	10.2
	광주/전라	(110)	0.0	62.7	27.3	9.1	0.9	62.7	27.3	10.0
	대구/경북	(109)	0.9	25.7	45.0	20.2	8.3	26.6	45.0	28.4
	부산/울산/경남	(175)	9.1	45.1	33.1	10.3	2.3	54.3	33.1	12.6
	강원/제주	(47)	6.4	27.7	44.7	14.9	6.4	34.0	44.7	21.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1.3	37.2	33.9	24.0	3.6	38.5	33.9	27.6
	중소도시	(608)	5.4	43.1	32.6	16.6	2.3	48.5	32.6	18.9
	군지역	(41)	0.0	43.9	29.3	19.5	7.3	43.9	29.3	26.8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49.5	28.6	18.1	2.2	51.1	28.6	20.3
	블루칼라	(351)	4.8	37.0	35.0	20.8	2.3	41.9	35.0	23.1
	화이트칼라	(409)	3.2	41.1	32.5	20.0	3.2	44.3	32.5	23.2
	전업주부	(163)	1.8	41.7	36.2	16.6	3.7	43.6	36.2	20.2
	학생	(69)	5.8	24.6	31.9	33.3	4.3	30.4	31.9	37.7
	무직/기타	(26)	0.0	46.2	30.8	11.5	11.5	46.2	30.8	23.1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7	39.5	35.9	19.8	3.1	41.2	35.9	22.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9	40.5	34.7	17.7	3.2	44.4	34.7	20.9
	4년제 이상	(535)	4.1	40.9	30.3	21.7	3.0	45.0	30.3	24.7
생활 수준별	상	(137)	3.6	43.1	30.7	18.2	4.4	46.7	30.7	22.6
	중	(700)	3.7	41.0	34.3	18.4	2.6	44.7	34.3	21.0
	하	(363)	2.5	38.3	31.7	24.0	3.6	40.8	31.7	27.5

8)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

Q.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방위비를 2019년 기준 1조 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 일반국민 52.6%, 전문가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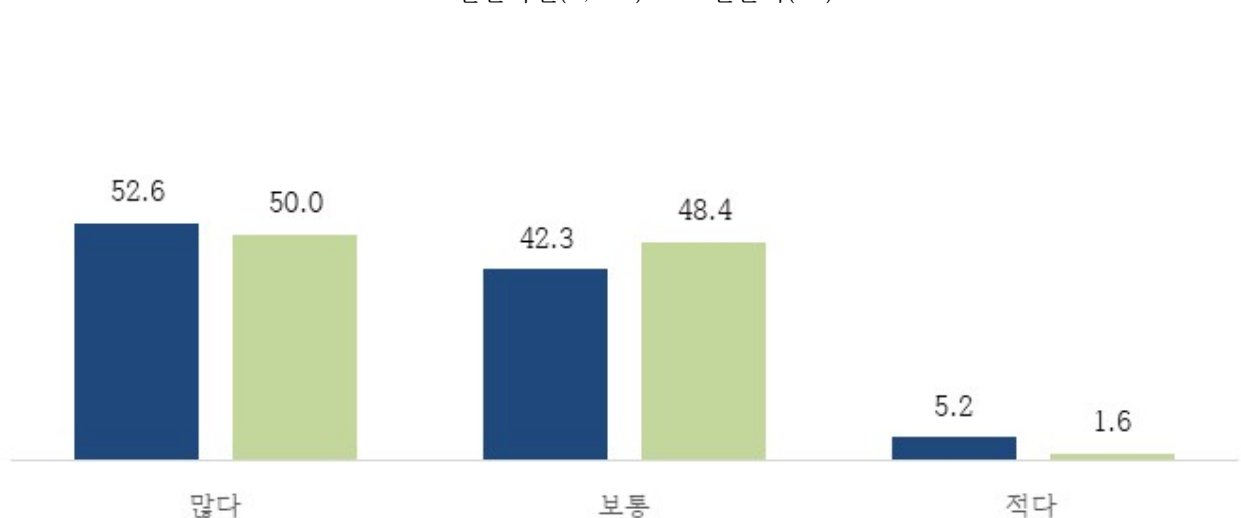
○ **[일반국민]**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으로 ‘많다’는 응답이 52.6%로 ‘적다’(5.2%)는 응답보다 47.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많다’는 응답이 50.0%로 ‘적다’(1.6%)는 응답보다 48.4%p 높게 나타남

[그림 3-75. 방위비 부담금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76.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단위: %)

■ 매우 많은 편이다 ■ 많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적은 편이다 ■ 매우 적은 편이다

일반 국민

2020년



전문가

2020년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으로 '많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 생활수준별로 '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39.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은 편이다	종합		
								많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5.8	46.7	42.6	4.9	0.1	52.5	42.6	5.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8	46.8	42.3	5.1	0.1	52.6	42.3	5.2
	전문가	(62)	6.5	43.5	48.4	1.6	0.0	50.0	48.4	1.6
소속별	대학	(30)	6.7	46.7	43.3	3.3	0.0	53.3	43.3	3.3
	연구소	(32)	6.3	40.6	53.1	0.0	0.0	46.9	53.1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6.9	48.7	39.5	4.8	0.2	55.6	39.5	4.9
	중	(497)	4.6	44.9	45.3	5.2	0.0	49.5	45.3	5.2
	하	(136)	5.1	46.3	42.6	5.9	0.0	51.5	42.6	5.9
성별	남성	(720)	5.1	46.5	42.4	6.0	0.0	51.7	42.4	6.0
	여성	(480)	6.7	47.3	42.1	3.8	0.2	54.0	42.1	4.0
연령별	18-29세	(303)	6.6	44.9	42.9	5.6	0.0	51.5	42.9	5.6
	30대	(256)	4.7	45.3	44.9	4.7	0.4	50.0	44.9	5.1
	40대	(314)	5.1	52.5	37.9	4.5	0.0	57.6	37.9	4.5
	50대	(327)	6.4	44.3	43.7	5.5	0.0	50.8	43.7	5.5
지역별	서울	(238)	6.3	49.6	42.4	1.7	0.0	55.9	42.4	1.7
	경기/인천	(393)	6.9	47.3	38.9	6.6	0.3	54.2	38.9	6.9
	대전/세종/충청	(128)	1.6	46.9	48.4	3.1	0.0	48.4	48.4	3.1
	광주/전라	(110)	3.6	61.8	30.0	4.5	0.0	65.5	30.0	4.5
	대구/경북	(109)	8.3	33.0	57.8	0.9	0.0	41.3	57.8	0.9
	부산/울산/경남	(175)	5.1	44.6	42.3	8.0	0.0	49.7	42.3	8.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34.0	44.7	14.9	0.0	40.4	44.7	14.9
	대도시	(551)	6.9	49.2	39.9	4.0	0.0	56.1	39.9	4.0
	중소도시	(608)	4.9	45.4	43.6	5.9	0.2	50.3	43.6	6.1
	군지역	(41)	2.4	36.6	53.7	7.3	0.0	39.0	53.7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3.8	50.5	41.2	4.4	0.0	54.4	41.2	4.4
	블루칼라	(351)	4.8	45.6	45.3	4.3	0.0	50.4	45.3	4.3
	화이트칼라	(409)	6.4	47.4	42.3	3.9	0.0	53.8	42.3	3.9
	전업주부	(163)	6.7	49.1	38.0	5.5	0.6	55.8	38.0	6.1
	학생	(69)	7.2	46.4	33.3	13.0	0.0	53.6	33.3	13.0
	무직/기타	(26)	11.5	15.4	57.7	15.4	0.0	26.9	57.7	15.4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6.5	44.9	43.5	5.1	0.0	51.4	43.5	5.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5.8	49.5	38.6	6.1	0.0	55.3	38.6	6.1
	4년제 이상	(535)	5.2	46.5	43.6	4.5	0.2	51.8	43.6	4.7
생활 수준별	상	(137)	6.6	52.6	34.3	6.6	0.0	59.1	34.3	6.6
	중	(700)	5.4	46.3	43.1	5.1	0.0	51.7	43.1	5.1
	하	(363)	6.1	45.7	43.5	4.4	0.3	51.8	43.5	4.7

9)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Q.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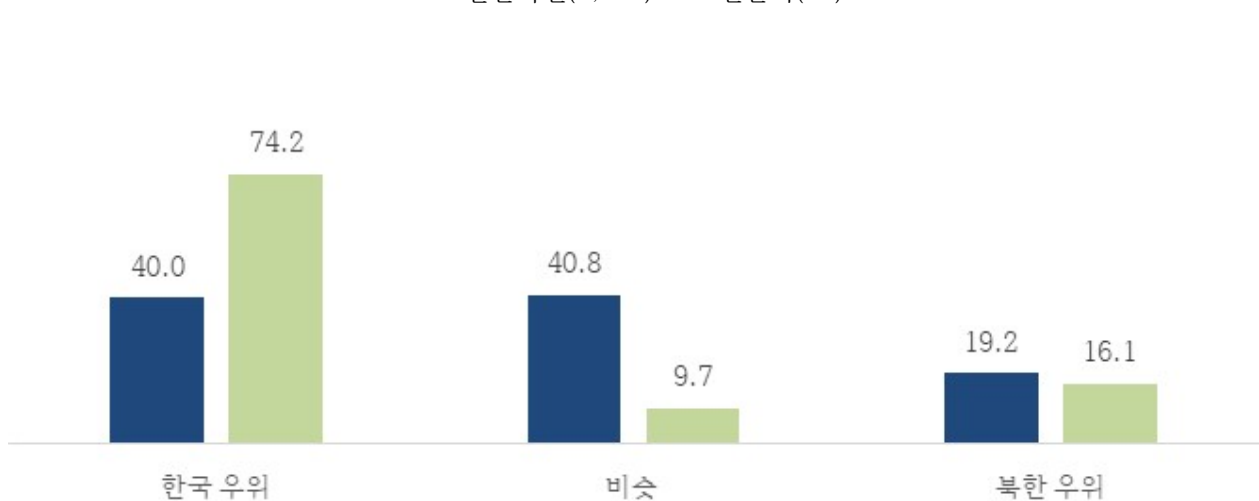
‘한국 우위’: 일반국민 40.0%, 전문가 74.2%

- [일반국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40.0%로 ‘북한 우위’(19.2%)라는 응답보다 20.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2.7%p(2019년 37.3%)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6.6%p(2019년 25.8%) 감소함
- [전문가]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74.2%로 ‘북한 우위’(16.1%)라는 응답보다 58.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10.1%p(2019년 64.1%) 증가한 반면,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4.2%p(2019년 20.3%)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77.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78.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전년도 비교]

(단위: %)

■ 한국이 훨씬 우위 ■ 한국이 다소 우위 ■ 비슷하다 ■ 북한이 다소 우위 ■ 북한이 훨씬 우위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0.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단위: 명, %)

		사례수 (명)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하다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종합		
								한국 우위	비슷	북한 우위
전체		(1262)	5.9	35.7	39.3	17.0	2.1	41.7	39.3	1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7	35.3	40.8	17.2	2.0	40.0	40.8	19.2
	전문가	(62)	30.6	43.5	9.7	12.9	3.2	74.2	9.7	16.1
소속별	대학	(30)	26.7	43.3	10.0	16.7	3.3	70.0	10.0	20.0
	연구소	(32)	34.4	43.8	9.4	9.4	3.1	78.1	9.4	12.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5	40.6	36.9	15.2	1.9	46.0	36.9	17.1
	중	(497)	4.2	29.0	45.7	19.5	1.6	33.2	45.7	21.1
	하	(136)	2.9	36.8	39.7	16.9	3.7	39.7	39.7	20.6
성별	남성	(720)	6.0	35.1	40.4	16.4	2.1	41.1	40.4	18.5
	여성	(480)	2.7	35.6	41.5	18.3	1.9	38.3	41.5	20.2
연령별	18-29세	(303)	6.3	33.3	44.6	14.2	1.7	39.6	44.6	15.8
	30대	(256)	3.9	33.6	44.1	16.4	2.0	37.5	44.1	18.4
	40대	(314)	4.1	37.6	36.9	20.4	1.0	41.7	36.9	21.3
	50대	(327)	4.3	36.4	38.5	17.4	3.4	40.7	38.5	20.8
지역별	서울	(238)	0.4	31.5	47.1	21.0	0.0	31.9	47.1	21.0
	경기/인천	(393)	4.3	29.8	42.5	20.1	3.3	34.1	42.5	23.4
	대전/세종/충청	(128)	4.7	39.8	49.2	6.3	0.0	44.5	49.2	6.3
	광주/전라	(110)	3.6	46.4	27.3	20.0	2.7	50.0	27.3	22.7
	대구/경북	(109)	5.5	34.9	42.2	12.8	4.6	40.4	42.2	17.4
	부산/울산/경남	(175)	7.4	41.1	37.1	12.6	1.7	48.6	37.1	14.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9.1	42.6	14.9	23.4	0.0	61.7	14.9	23.4
	대도시	(551)	2.0	33.4	41.2	21.1	2.4	35.4	41.2	23.4
	중소도시	(608)	7.4	36.0	41.0	13.8	1.8	43.4	41.0	15.6
	군지역	(41)	0.0	51.2	34.1	14.6	0.0	51.2	34.1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29.7	49.5	18.1	1.6	30.8	49.5	19.8
	블루칼라	(351)	5.4	33.3	40.2	18.2	2.8	38.7	40.2	21.1
	화이트칼라	(409)	4.4	37.2	41.6	14.9	2.0	41.6	41.6	16.9
	전업주부	(163)	4.3	42.9	33.1	18.4	1.2	47.2	33.1	19.6
	학생	(69)	14.5	29.0	37.7	17.4	1.4	43.5	37.7	18.8
	무직/기타	(26)	0.0	42.3	34.6	23.1	0.0	42.3	34.6	23.1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0	33.9	38.1	21.2	2.8	37.9	38.1	24.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8	38.6	40.2	15.1	1.3	43.4	40.2	16.4
	4년제 이상	(535)	5.0	34.4	43.0	15.7	1.9	39.4	43.0	17.6
생활 수준별	상	(137)	4.4	43.8	40.1	11.7	0.0	48.2	40.1	11.7
	중	(700)	5.1	35.9	39.7	16.9	2.4	41.0	39.7	19.3
	하	(363)	3.9	31.1	43.3	19.8	1.9	35.0	43.3	21.8

10)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Q. 귀하는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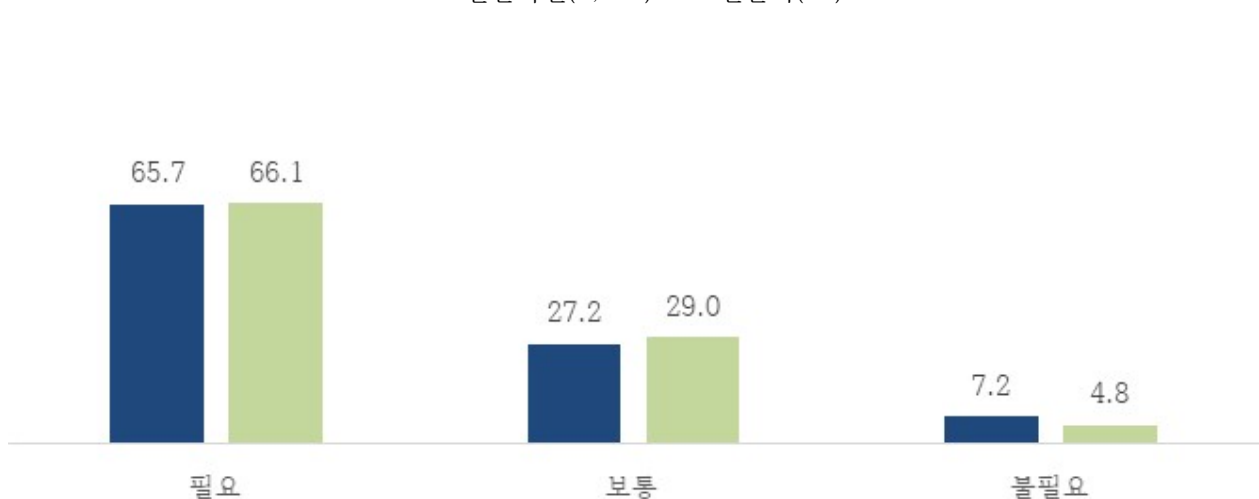
‘필요하다’: 일반국민 65.7%, 전문가 66.1%

- [일반국민]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7%로, ‘필요없다’(7.2%)는 응답보다 5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4.1%p(2019년 69.8%) 감소, ‘필요없다’는 응답은 3.2%p(2019년 4.0%p)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6.1%로, ‘필요없다’(4.8%)는 응답보다 61.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10.5%p(2019년 76.6%) 감소했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3.0%p(2019년 7.8%)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79.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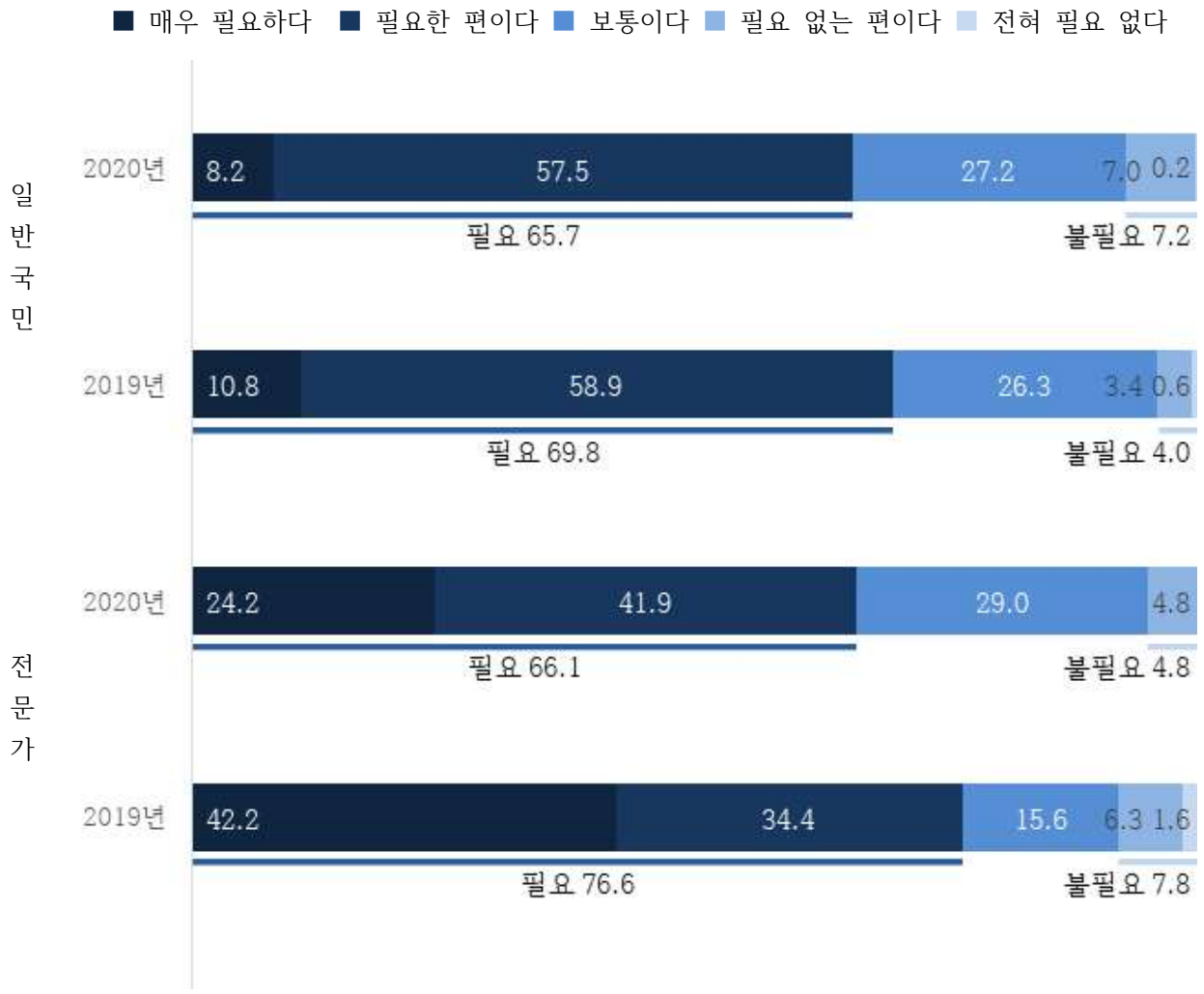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80.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 지역 크기 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41.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62)	9.0	56.7	27.3	6.9	0.2	65.7	27.3	7.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2	57.5	27.2	7.0	0.2	65.7	27.2	7.2
	전문가	(62)	24.2	41.9	29.0	4.8	0.0	66.1	29.0	4.8
소속별	대학	(30)	20.0	50.0	23.3	6.7	0.0	70.0	23.3	6.7
	연구소	(32)	28.1	34.4	34.4	3.1	0.0	62.5	34.4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9.7	62.1	23.6	4.4	0.2	71.8	23.6	4.6
	중	(497)	6.0	54.1	32.0	7.8	0.0	60.2	32.0	7.8
	하	(136)	9.6	50.7	24.3	14.7	0.7	60.3	24.3	15.4
성별	남성	(720)	7.8	58.5	27.1	6.4	0.3	66.3	27.1	6.7
	여성	(480)	8.8	56.0	27.3	7.9	0.0	64.8	27.3	7.9
연령별	18-29세	(303)	5.6	59.7	29.0	5.6	0.0	65.3	29.0	5.6
	30대	(256)	7.8	54.7	28.5	9.0	0.0	62.5	28.5	9.0
	40대	(314)	7.6	59.2	24.2	8.3	0.6	66.9	24.2	8.9
	50대	(327)	11.3	56.0	27.2	5.5	0.0	67.3	27.2	5.5
지역별	서울	(238)	4.2	69.3	22.7	3.8	0.0	73.5	22.7	3.8
	경기/인천	(393)	10.2	52.4	27.7	9.7	0.0	62.6	27.7	9.7
	대전/세종/충청	(128)	0.8	60.2	33.6	5.5	0.0	60.9	33.6	5.5
	광주/전라	(110)	4.5	72.7	20.9	1.8	0.0	77.3	20.9	1.8
	대구/경북	(109)	20.2	50.5	22.9	6.4	0.0	70.6	22.9	6.4
	부산/울산/경남	(175)	8.0	47.4	34.9	9.7	0.0	55.4	34.9	9.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51.1	23.4	8.5	4.3	63.8	23.4	12.8
	대도시	(551)	5.3	57.2	30.7	6.5	0.4	62.4	30.7	6.9
	중소도시	(608)	11.2	58.1	24.0	6.7	0.0	69.2	24.0	6.7
	군지역	(41)	2.4	53.7	26.8	17.1	0.0	56.1	26.8	17.1
직업별	자영업자	(182)	7.7	59.9	26.9	5.5	0.0	67.6	26.9	5.5
	블루칼라	(351)	8.8	61.0	23.9	6.3	0.0	69.8	23.9	6.3
	화이트칼라	(409)	6.6	55.7	29.6	7.8	0.2	62.3	29.6	8.1
	전업주부	(163)	11.0	55.2	25.8	7.4	0.6	66.3	25.8	8.0
	학생	(69)	8.7	49.3	33.3	8.7	0.0	58.0	33.3	8.7
	무직/기타	(26)	7.7	57.7	26.9	7.7	0.0	65.4	26.9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0.5	55.6	26.0	7.9	0.0	66.1	26.0	7.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7.1	62.4	24.4	5.8	0.3	69.5	24.4	6.1
	4년제 이상	(535)	7.3	55.9	29.5	7.1	0.2	63.2	29.5	7.3
생활 수준별	상	(137)	8.0	56.9	24.8	9.5	0.7	65.0	24.8	10.2
	중	(700)	6.0	57.9	28.9	7.1	0.1	63.9	28.9	7.3
	하	(363)	12.4	57.0	24.8	5.8	0.0	69.4	24.8	5.8

1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Q. 귀하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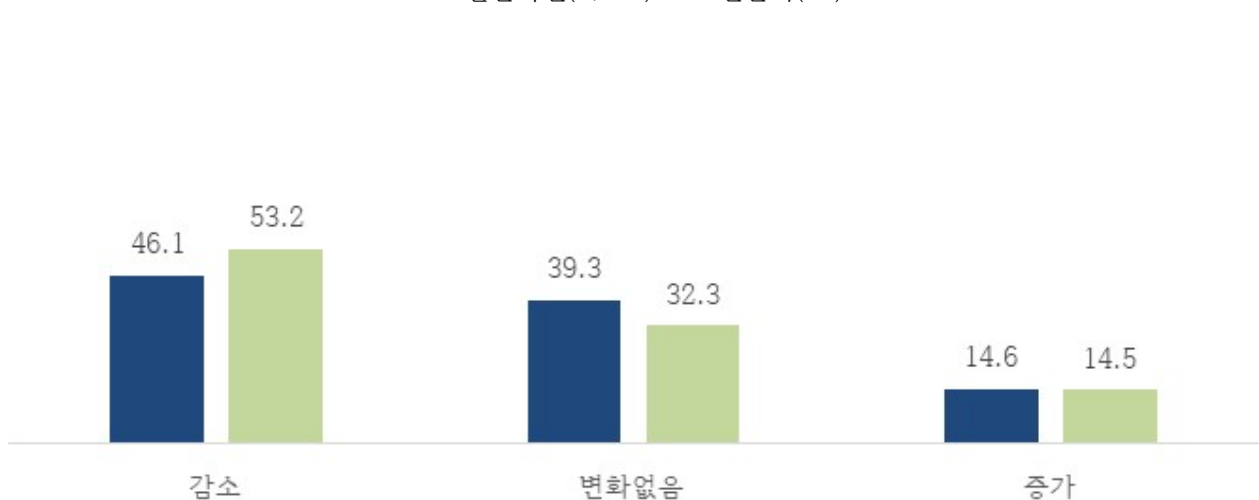
‘감소할 것’: 일반국민 46.1%, 전문가 53.2%

- [일반국민]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6.1%로, ‘증가할 것’(14.6%)이라는 응답보다 31.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2.3%p(2019년 48.4%) 감소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1%p(2019년 13.5%)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3.2%로, ‘증가할 것’(14.5%)이라는 응답보다 38.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14.0%p(2019년 67.2%) 감소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9.8%p(2019년 4.7%) 증가함

[그림 3-81.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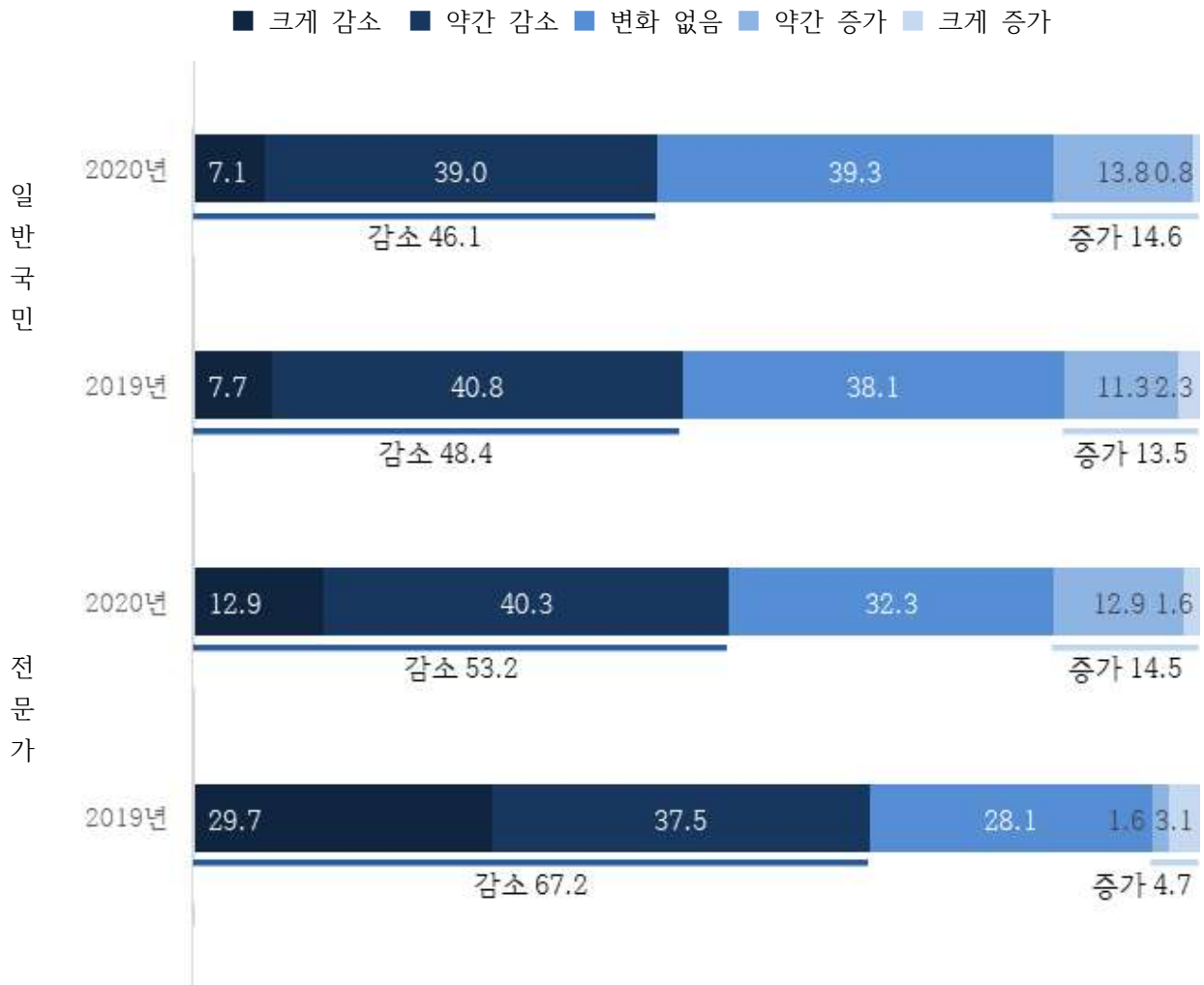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82.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에 대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별로 ‘상’,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42.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단위: 명, %)

		사례수 (명)	크게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종합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전체		(1262)	7.4	39.1	39.0	13.8	0.8	46.4	39.0	1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1	39.0	39.3	13.8	0.8	46.1	39.3	14.6
	전문가	(62)	12.9	40.3	32.3	12.9	1.6	53.2	32.3	14.5
소속별	대학	(30)	10.0	46.7	33.3	10.0	0.0	56.7	33.3	10.0
	연구소	(32)	15.6	34.4	31.3	15.6	3.1	50.0	31.3	1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9.7	41.3	36.2	12.3	0.5	51.0	36.2	12.9
	중	(497)	4.0	35.8	44.7	14.7	0.8	39.8	44.7	15.5
	하	(136)	7.4	41.2	33.1	16.9	1.5	48.5	33.1	18.4
성별	남성	(720)	6.9	39.4	37.9	14.6	1.1	46.4	37.9	15.7
	여성	(480)	7.3	38.3	41.5	12.7	0.2	45.6	41.5	12.9
연령별	18-29세	(303)	7.3	39.9	39.3	13.5	0.0	47.2	39.3	13.5
	30대	(256)	7.0	39.5	40.6	12.5	0.4	46.5	40.6	12.9
	40대	(314)	6.1	38.5	37.9	15.6	1.9	44.6	37.9	17.5
	50대	(327)	8.0	38.2	39.8	13.5	0.6	46.2	39.8	14.1
지역별	서울	(238)	2.9	41.6	38.2	17.2	0.0	44.5	38.2	17.2
	경기/인천	(393)	13.7	33.1	39.2	13.5	0.5	46.8	39.2	14.0
	대전/세종/충청	(128)	0.8	39.1	49.2	10.2	0.8	39.8	49.2	10.9
	광주/전라	(110)	0.9	47.3	36.4	15.5	0.0	48.2	36.4	15.5
	대구/경북	(109)	8.3	45.9	29.4	12.8	3.7	54.1	29.4	16.5
	부산/울산/경남	(175)	4.0	38.3	43.4	13.7	0.6	42.3	43.4	14.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42.6	34.0	8.5	2.1	55.3	34.0	10.6
	대도시	(551)	2.7	40.1	39.0	17.6	0.5	42.8	39.0	18.1
	중소도시	(608)	11.5	38.0	39.5	10.0	1.0	49.5	39.5	11.0
직업별	군지역	(41)	0.0	39.0	41.5	19.5	0.0	39.0	41.5	19.5
	자영업자	(182)	4.9	33.5	45.6	15.9	0.0	38.5	45.6	15.9
	블루칼라	(351)	6.8	42.7	33.6	15.1	1.7	49.6	33.6	16.8
	화이트칼라	(409)	6.6	37.4	41.6	13.7	0.7	44.0	41.6	14.4
	전업주부	(163)	11.0	39.3	39.9	9.8	0.0	50.3	39.9	9.8
	학생	(69)	8.7	40.6	37.7	13.0	0.0	49.3	37.7	13.0
최종 학력별	무직/기타	(26)	3.8	46.2	38.5	11.5	0.0	50.0	38.5	11.5
	고졸이하	(354)	9.3	38.7	38.1	13.0	0.8	48.0	38.1	13.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6.1	41.8	37.0	13.8	1.3	47.9	37.0	15.1
생활 수준별	4년제 이상	(535)	6.2	37.6	41.5	14.4	0.4	43.7	41.5	14.8
	상	(137)	7.3	37.2	43.1	11.7	0.7	44.5	43.1	12.4
	중	(700)	5.9	40.7	40.7	12.1	0.6	46.6	40.7	12.7
생각 수준별	하	(363)	9.4	36.4	35.3	17.9	1.1	45.7	35.3	19.0

12)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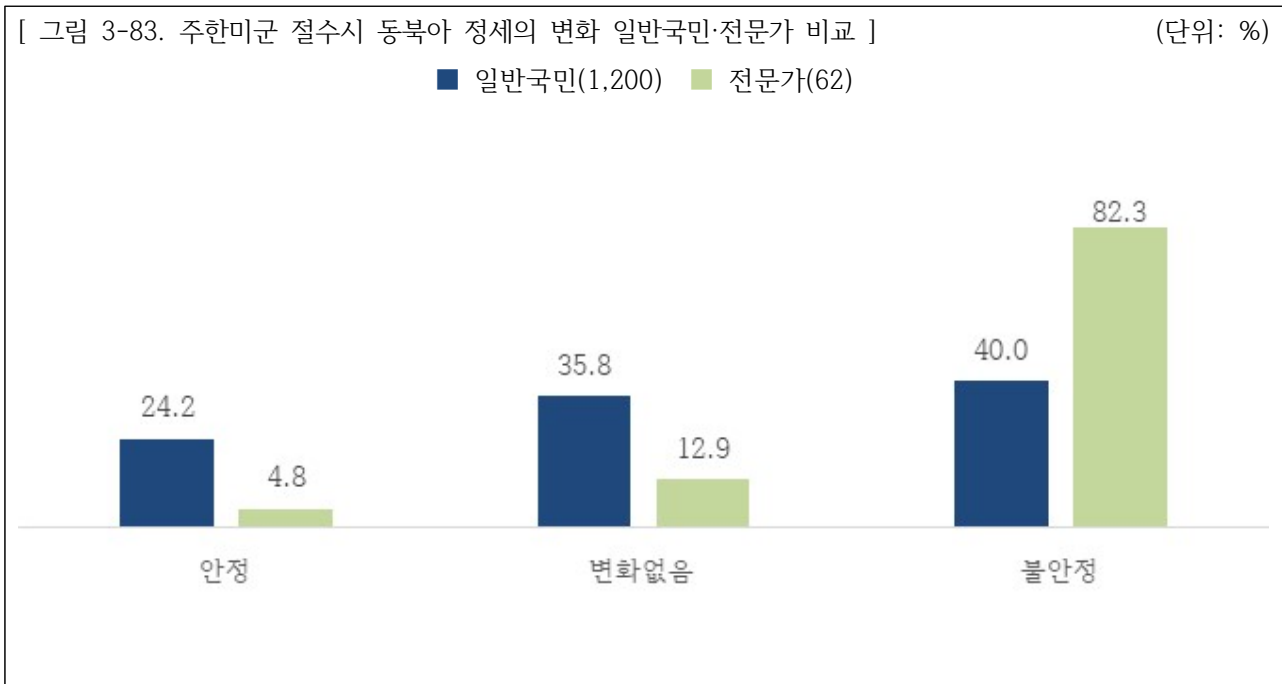
Q.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불안정해질 것’: 일반국민 40.0%, 전문가 82.3%

- [일반국민]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0.0%로 ‘안정될 것’(24.2%)이라는 응답보다 15.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0.6%p(2019년 39.4%),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9%p(2019년 21.3%)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82.3%로 ‘안정될 것’(4.8%)이라는 응답보다 77.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p(2019년 78.1%),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7%p(2019년 3.1%)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나타남

[그림 3-83.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84.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매우 안정될 것 ■ 다소 안정될 것 ■ 변화없음 ■ 다소 불안정해질 것 ■ 매우 불안정해질 것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최종 학력별로 고졸이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43. 주한미군 철수시 동북아 정세의 변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안정될 것이다	다소 안정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소 불안정 해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 해질 것이다	종합		
								안정	변화 없음	불안정
전체		(1262)	0.3	22.9	34.7	34.5	7.6	23.2	34.7	4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23.8	35.8	33.5	6.5	24.2	35.8	40.0
	전문가	(62)	0.0	4.8	12.9	53.2	29.0	4.8	12.9	82.3
소속별	대학	(30)	0.0	6.7	16.7	56.7	20.0	6.7	16.7	76.7
	연구소	(32)	0.0	3.1	9.4	50.0	37.5	3.1	9.4	87.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5	27.2	33.9	30.0	8.5	27.7	33.9	38.4
	중	(497)	0.2	22.5	37.8	35.6	3.8	22.7	37.8	39.4
	하	(136)	0.0	14.7	36.8	40.4	8.1	14.7	36.8	48.5
성별	남성	(720)	0.3	22.1	37.5	33.3	6.8	22.4	37.5	40.1
	여성	(480)	0.4	26.5	33.3	33.8	6.0	26.9	33.3	39.8
연령별	18-29세	(303)	0.0	22.8	38.3	31.4	7.6	22.8	38.3	38.9
	30대	(256)	0.0	22.7	39.1	30.5	7.8	22.7	39.1	38.3
	40대	(314)	0.6	23.9	34.4	36.6	4.5	24.5	34.4	41.1
	50대	(327)	0.6	25.7	32.4	34.9	6.4	26.3	32.4	41.3
지역별	서울	(238)	0.0	20.2	33.6	45.0	1.3	20.2	33.6	46.2
	경기/인천	(393)	0.3	21.1	37.4	27.7	13.5	21.4	37.4	41.2
	대전/세종/충청	(128)	0.8	45.3	38.3	14.1	1.6	46.1	38.3	15.6
	광주/전라	(110)	0.0	42.7	30.0	27.3	0.0	42.7	30.0	27.3
	대구/경북	(109)	0.0	9.2	27.5	56.0	7.3	9.2	27.5	63.3
	부산/울산/경남	(175)	1.1	18.3	42.3	33.1	5.1	19.4	42.3	38.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0.0	17.0	36.2	40.4	6.4	17.0	36.2	46.8
	대도시	(551)	0.0	22.0	35.4	41.2	1.5	22.0	35.4	42.6
	중소도시	(608)	0.5	25.5	35.0	27.5	11.5	26.0	35.0	39.0
	군지역	(41)	2.4	24.4	53.7	19.5	0.0	26.8	53.7	19.5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25.3	33.0	36.8	4.4	25.8	33.0	41.2
	블루칼라	(351)	0.3	20.5	33.0	39.9	6.3	20.8	33.0	46.2
	화이트칼라	(409)	0.2	25.7	38.1	30.3	5.6	25.9	38.1	35.9
	전업주부	(163)	0.0	27.0	35.0	28.8	9.2	27.0	35.0	38.0
	학생	(69)	0.0	18.8	42.0	24.6	14.5	18.8	42.0	39.1
	무직/기타	(26)	3.8	23.1	46.2	26.9	0.0	26.9	46.2	26.9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6	22.0	33.9	36.7	6.8	22.6	33.9	43.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3	26.7	36.3	30.5	6.1	27.0	36.3	36.7
	4년제 이상	(535)	0.2	23.4	36.8	33.1	6.5	23.6	36.8	39.6
생활 수준별	상	(137)	0.0	31.4	42.3	23.4	2.9	31.4	42.3	26.3
	중	(700)	0.4	27.9	35.6	30.7	5.4	28.3	35.6	36.1
	하	(363)	0.3	13.2	33.9	42.7	9.9	13.5	33.9	52.6

1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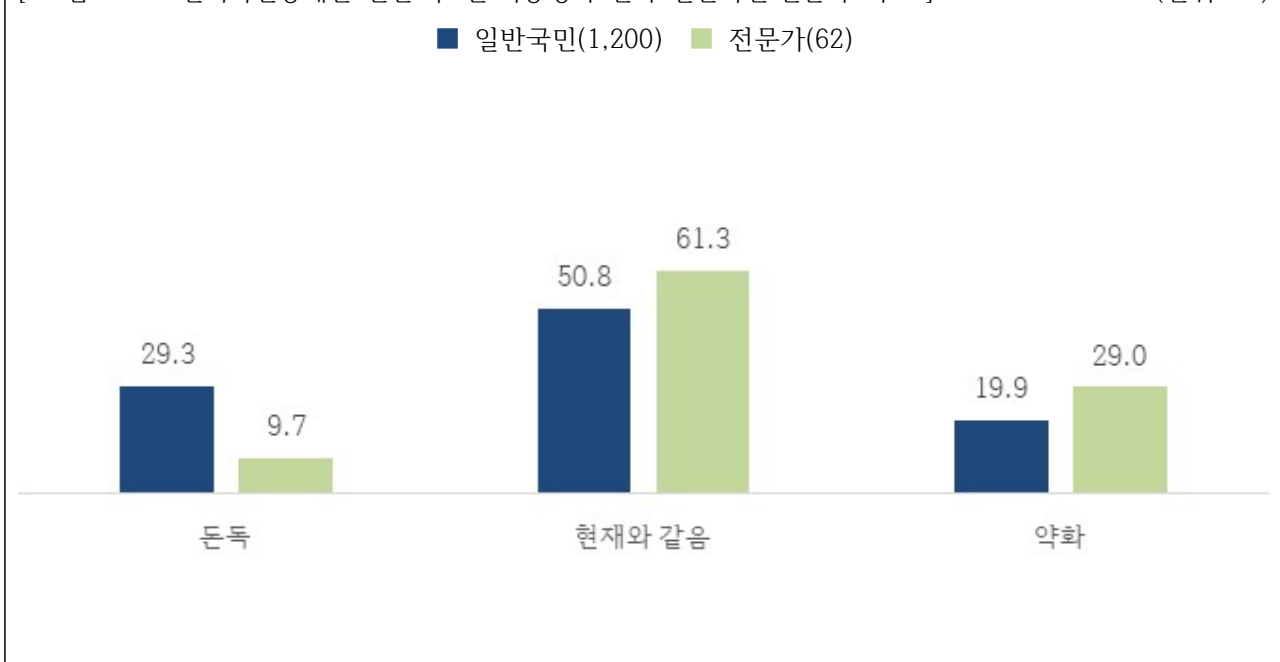
Q. 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독해질 것’: 일반국민 29.3%
‘약화될 것’: 29.0%

- **[일반국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29.3%로, ‘약화될 것’(29.0%)이라는 응답보다 9.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0.8%p(2019년 30.0%) 감소,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0.1%p(2019년 19.8%)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9.0%로, ‘돈독해질 것’(9.7%)이라는 응답보다 19.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6.9%p(2019년 35.9%) 감소했으며,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 또한 4.4%p(2019년 14.1%)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8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8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단위: 명, %)

		사례수 (명)	더욱 돈독해 질 것이다	돈독해 질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종합		
								돈독	현재와 같음	악화
전체		(1262)	0.7	27.6	51.3	20.1	0.2	28.3	51.3	2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28.5	50.8	19.7	0.3	29.3	50.8	19.9
	전문가	(62)	0.0	9.7	61.3	29.0	0.0	9.7	61.3	29.0
소속별	대학	(30)	0.0	0.0	80.0	20.0	0.0	0.0	80.0	20.0
	연구소	(32)	0.0	18.8	43.8	37.5	0.0	18.8	43.8	37.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1	34.4	44.1	20.3	0.2	35.4	44.1	20.5
	중	(497)	0.4	22.5	60.8	16.1	0.2	22.9	60.8	16.3
	하	(136)	0.7	25.7	42.6	30.1	0.7	26.5	42.6	30.9
성별	남성	(720)	0.7	29.7	50.6	18.8	0.3	30.4	50.6	19.0
	여성	(480)	0.8	26.7	51.3	21.0	0.2	27.5	51.3	21.3
연령별	18-29세	(303)	1.7	29.4	49.2	19.5	0.3	31.0	49.2	19.8
	30대	(256)	0.8	27.0	49.2	23.0	0.0	27.7	49.2	23.0
	40대	(314)	0.6	27.1	53.2	19.1	0.0	27.7	53.2	19.1
	50대	(327)	0.0	30.3	51.4	17.7	0.6	30.3	51.4	18.3
지역별	서울	(238)	0.8	32.8	55.0	11.3	0.0	33.6	55.0	11.3
	경기/인천	(393)	0.3	20.4	50.6	28.5	0.3	20.6	50.6	28.8
	대전/세종/충청	(128)	0.8	43.0	50.8	5.5	0.0	43.8	50.8	5.5
	광주/전라	(110)	0.0	40.0	49.1	10.9	0.0	40.0	49.1	10.9
	대구/경북	(109)	0.0	8.3	61.5	29.4	0.9	8.3	61.5	30.3
	부산/울산/경남	(175)	2.3	38.9	37.1	21.1	0.6	41.1	37.1	21.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17.0	61.7	19.1	0.0	19.1	61.7	19.1
	대도시	(551)	1.1	32.8	49.9	16.2	0.0	33.9	49.9	16.2
	중소도시	(608)	0.5	24.2	52.3	22.5	0.5	24.7	52.3	23.0
	군지역	(41)	0.0	34.1	41.5	24.4	0.0	34.1	41.5	24.4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31.3	55.5	13.2	0.0	31.3	55.5	13.2
	블루칼라	(351)	1.1	26.5	47.9	24.2	0.3	27.6	47.9	24.5
	화이트칼라	(409)	1.0	30.6	52.1	16.4	0.0	31.5	52.1	16.4
	전업주부	(163)	0.0	22.7	52.1	24.5	0.6	22.7	52.1	25.2
	학생	(69)	0.0	29.0	47.8	21.7	1.4	29.0	47.8	23.2
	무직/기타	(26)	3.8	38.5	38.5	19.2	0.0	42.3	38.5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25.1	49.7	24.9	0.0	25.4	49.7	24.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0	28.0	54.7	16.1	0.3	28.9	54.7	16.4
	4년제 이상	(535)	0.9	31.0	49.3	18.3	0.4	32.0	49.3	18.7
생활 수준별	상	(137)	0.7	38.0	45.3	16.1	0.0	38.7	45.3	16.1
	중	(700)	1.0	31.1	50.9	16.7	0.3	32.1	50.9	17.0
	하	(363)	0.3	19.8	52.9	26.7	0.3	20.1	52.9	27.0

3. 북한 관련 사항

1)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Q. 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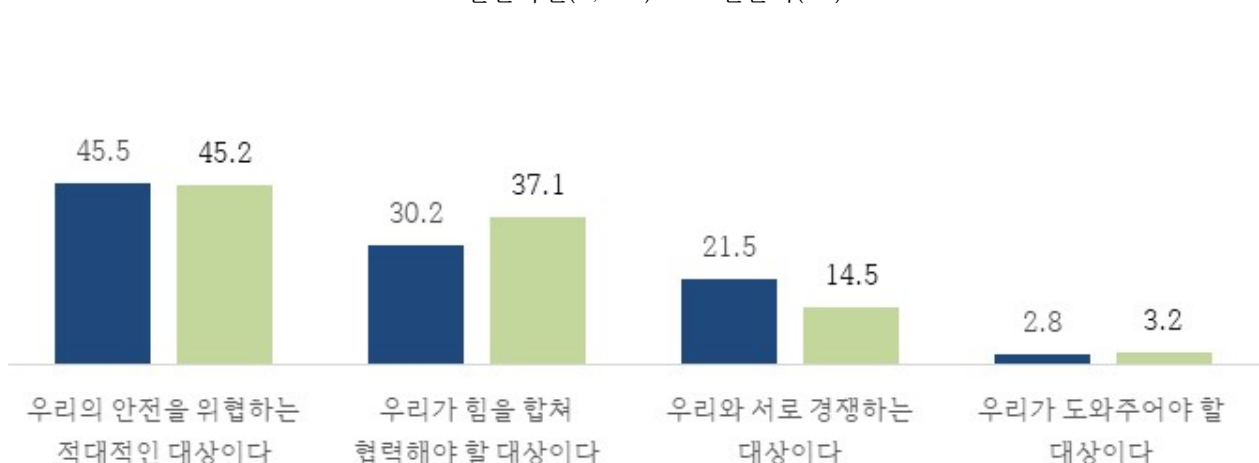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일반국민 45.5%, 전문가 45.2%

- [일반국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3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9.1%p(2019년 36.4%) 증가한 반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1.1%p(2019년 31.3%)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3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6.4%p(2019년 51.6%) 감소한 반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1.2%p(2019년 35.9%)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87.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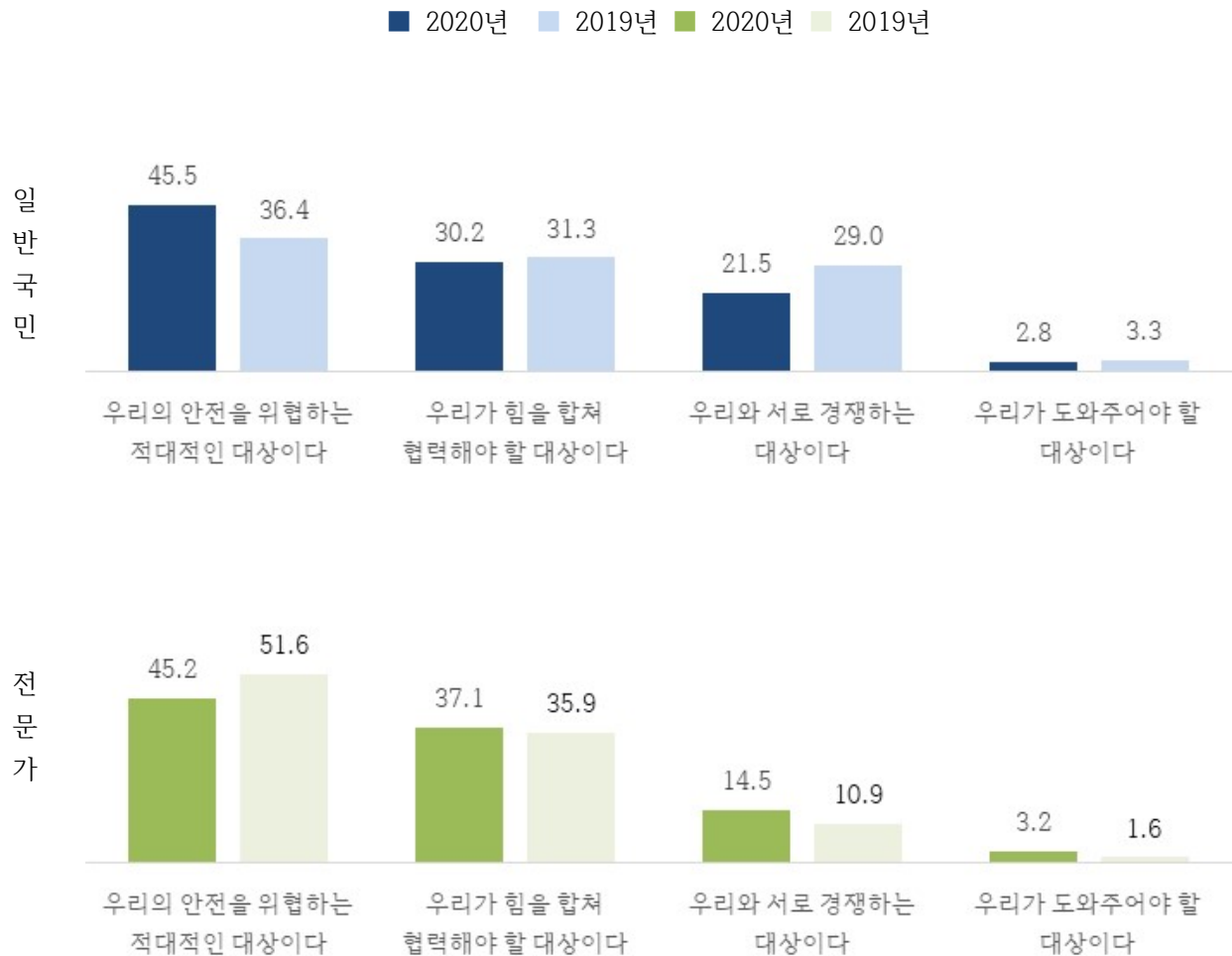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88.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 최종 학력별로 고졸이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45.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례수 (명)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전체		(1262)	45.5	30.5	21.2	2.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5.5	30.2	21.5	2.8
	전문가	(62)	45.2	37.1	14.5	3.2
소속별	대학	(30)	50.0	30.0	16.7	3.3
	연구소	(32)	40.6	43.8	12.5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8.3	26.3	22.4	3.0
	중	(497)	41.9	35.4	19.5	3.2
	하	(136)	47.1	27.2	25.0	0.7
성별	남성	(720)	46.1	29.2	22.1	2.6
	여성	(480)	44.6	31.7	20.6	3.1
연령별	18-29세	(303)	45.9	29.4	22.4	2.3
	30대	(256)	40.6	30.5	27.0	2.0
	40대	(314)	43.0	31.8	20.4	4.8
	50대	(327)	51.4	29.1	17.4	2.1
지역별	서울	(238)	36.1	36.1	26.5	1.3
	경기/인천	(393)	46.3	33.1	15.8	4.8
	대전/세종/충청	(128)	44.5	35.9	18.8	0.8
	광주/전라	(110)	31.8	29.1	34.5	4.5
	대구/경북	(109)	76.1	11.9	11.0	0.9
	부산/울산/경남	(175)	49.7	20.6	27.4	2.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34.0	40.4	23.4	2.1
	대도시	(551)	42.1	29.6	27.0	1.3
	중소도시	(608)	47.7	31.9	16.3	4.1
	군지역	(41)	58.5	12.2	24.4	4.9
직업별	자영업자	(182)	47.3	29.1	22.0	1.6
	블루칼라	(351)	51.3	27.6	18.5	2.6
	화이트칼라	(409)	39.9	34.0	23.2	2.9
	전업주부	(163)	41.7	28.2	25.2	4.9
	학생	(69)	50.7	27.5	18.8	2.9
	무직/기타	(26)	53.8	30.8	15.4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3.4	28.5	16.4	1.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2.8	30.9	23.5	2.9
	4년제 이상	(535)	41.9	30.8	23.7	3.6
생활 수준별	상	(137)	40.9	22.6	35.0	1.5
	중	(700)	43.7	29.9	23.3	3.1
	하	(363)	50.7	33.6	12.9	2.8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Q. 귀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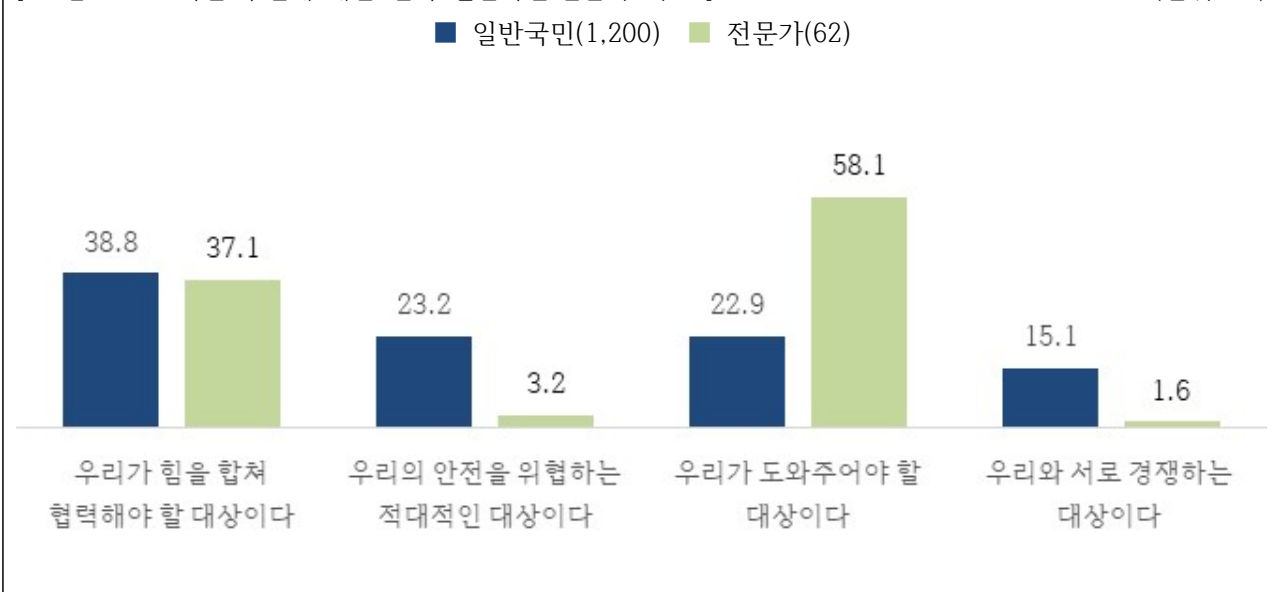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일반국민 38.8%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전문가 58.1%

- [일반국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2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3.2%p(2019년 42.0%)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은 7.5%p(2019년 15.7%) 증가함
- [전문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3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15.9%p(2019년 42.2%) 증가한 반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11.3%p(2019년 48.4%)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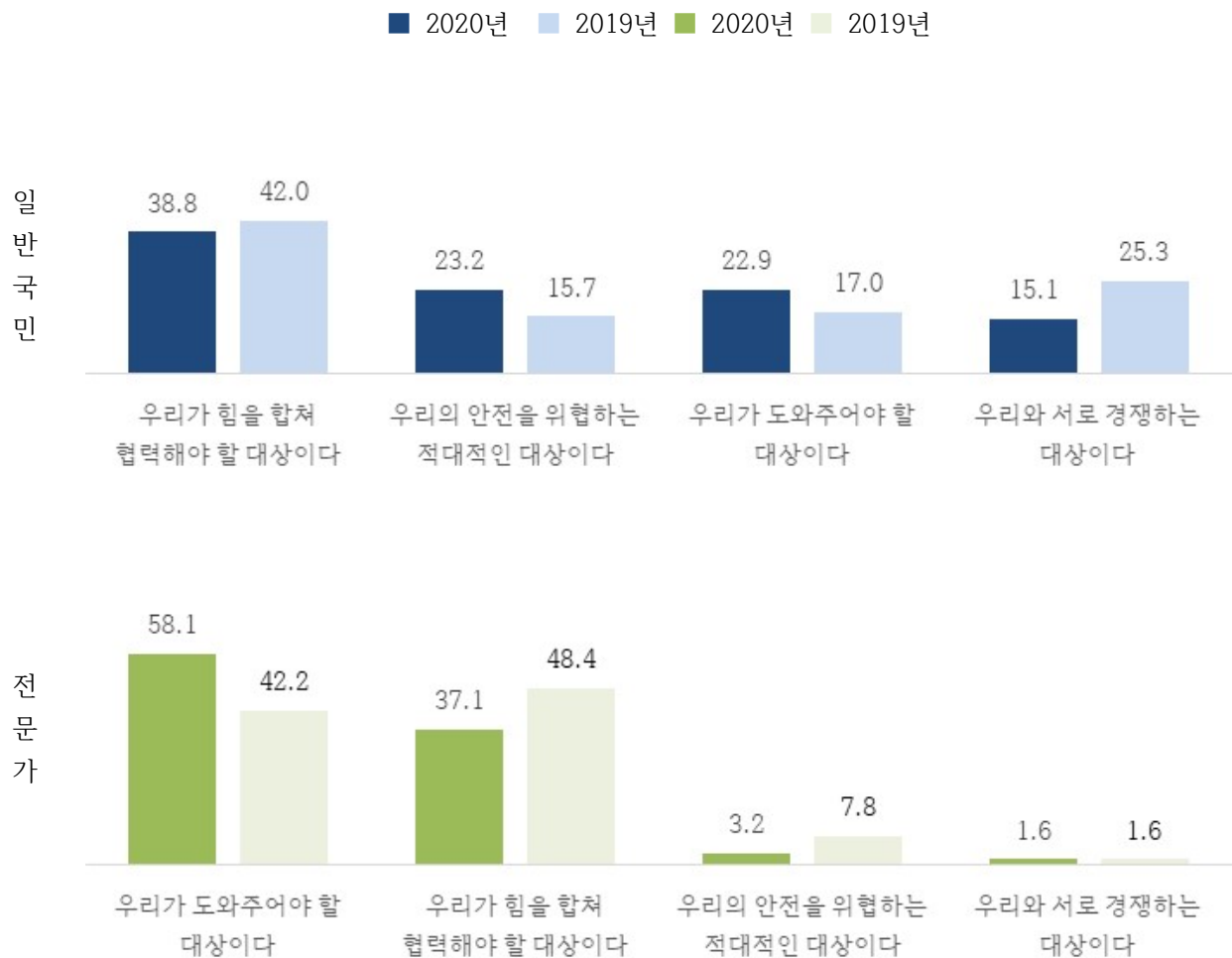
[그림 3-89.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90.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46.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례수 (명)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전체		(1262)	38.7	24.6	22.2	14.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8	22.9	23.2	15.1
	전문가	(62)	37.1	58.1	3.2	1.6
소속별	대학	(30)	30.0	66.7	0.0	3.3
	연구소	(32)	43.8	50.0	6.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7.9	22.4	23.5	16.2
	중	(497)	39.4	25.4	21.1	14.1
	하	(136)	40.4	16.2	29.4	14.0
성별	남성	(720)	39.7	21.9	23.2	15.1
	여성	(480)	37.5	24.4	23.1	15.0
연령별	18-29세	(303)	38.0	21.8	22.8	17.5
	30대	(256)	35.5	22.3	26.2	16.0
	40대	(314)	41.7	23.2	20.7	14.3
	50대	(327)	39.4	24.2	23.5	12.8
지역별	서울	(238)	44.5	16.0	21.0	18.5
	경기/인천	(393)	38.9	37.2	15.3	8.7
	대전/세종/충청	(128)	33.6	20.3	27.3	18.8
	광주/전라	(110)	44.5	10.0	16.4	29.1
	대구/경북	(109)	37.6	23.9	28.4	10.1
	부산/울산/경남	(175)	30.9	10.3	43.4	15.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2.6	21.3	17.0	19.1
	대도시	(551)	40.1	17.2	25.6	17.1
	중소도시	(608)	37.5	28.9	20.2	13.3
	군지역	(41)	41.5	9.8	34.1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43.4	19.2	22.0	15.4
	블루칼라	(351)	36.2	24.5	27.1	12.3
	화이트칼라	(409)	40.3	21.5	21.0	17.1
	전업주부	(163)	36.2	25.8	21.5	16.6
	학생	(69)	37.7	29.0	18.8	14.5
	무직/기타	(26)	38.5	15.4	34.6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8.4	26.3	22.9	12.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7.3	22.8	24.4	15.4
	4년제 이상	(535)	40.0	20.7	22.6	16.6
생활 수준별	상	(137)	32.1	16.1	25.5	26.3
	중	(700)	39.6	23.6	21.6	15.3
	하	(363)	39.9	24.2	25.3	10.5

3)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Q. 귀하는 향후 5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불안정적일 것’: 일반국민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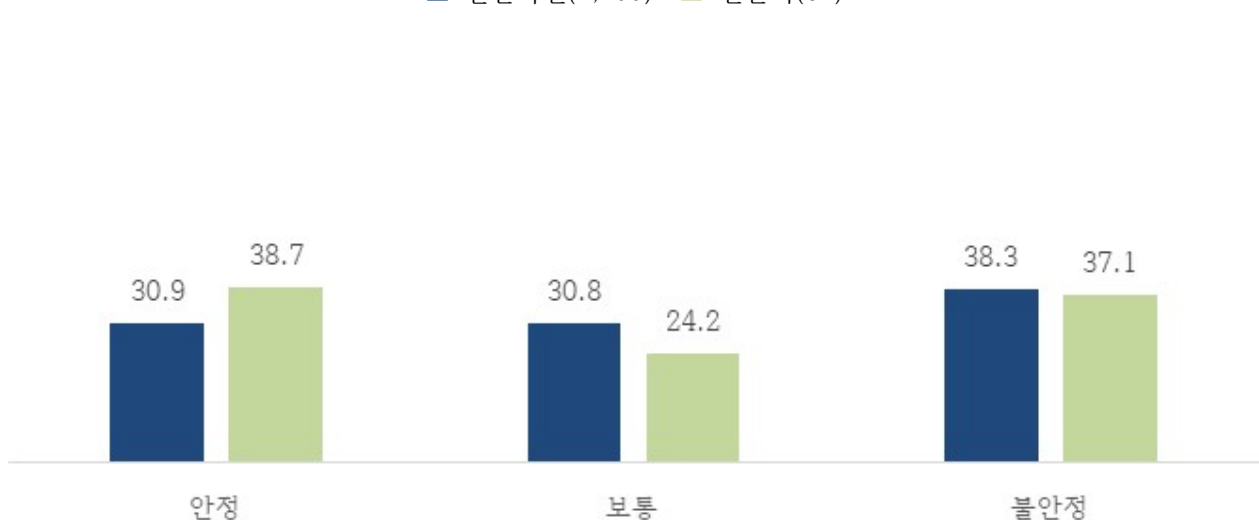
‘안정적일 것’: 전문가 38.7%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불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8.3%로, ‘안정적일 것’(30.9%)이라는 응답보다 7.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불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8%p(2019년 36.5%),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5%p(2019년 29.4%)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 38.7%와 ‘불안정적일 것’(37.1%)이라는 응답은 1.6%p 차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4.4%p(2019년 53.1%) 감소한 반면, ‘불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6.8%p(2019년 20.3%) 증가함

[그림 3-91.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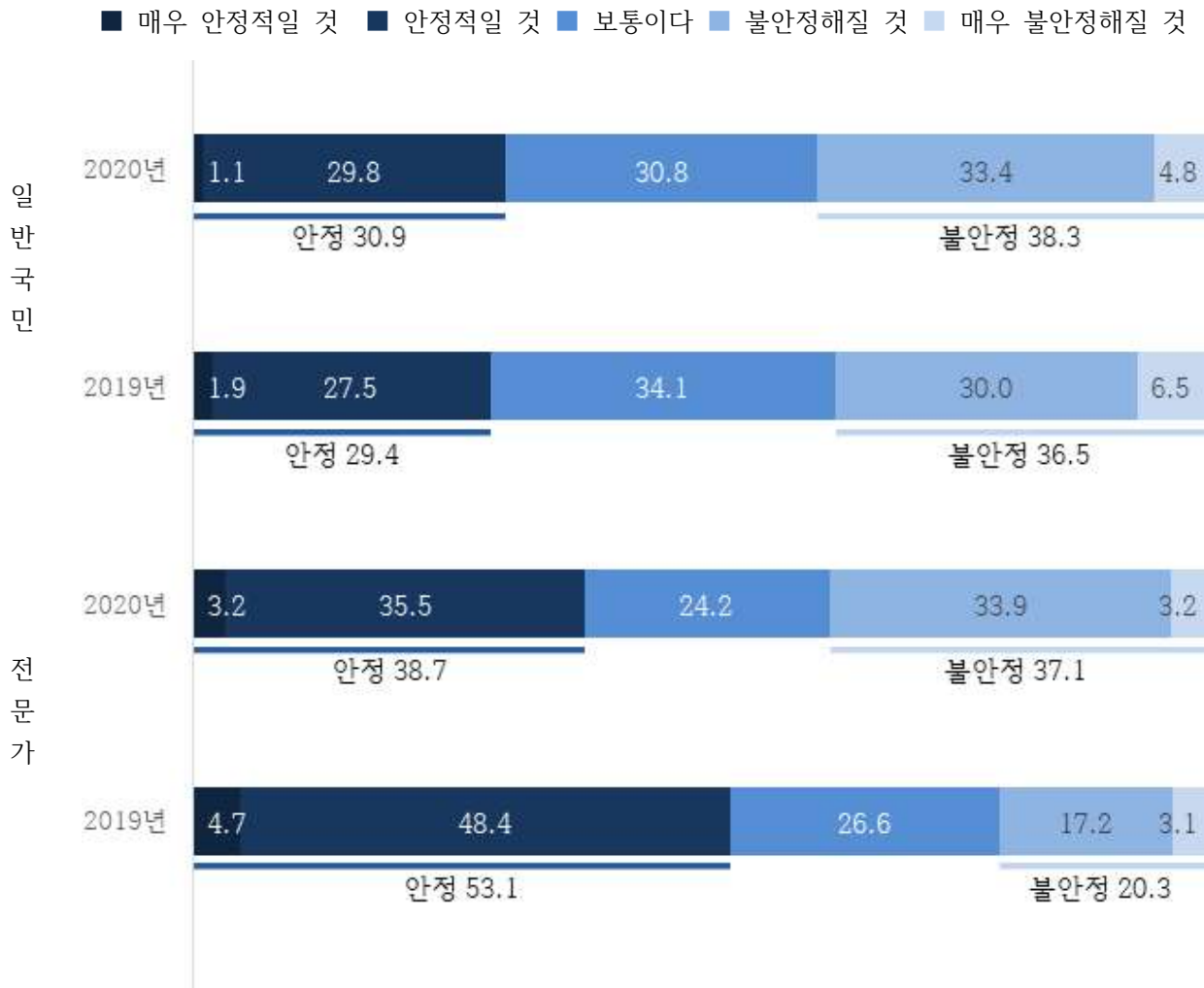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92.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김정은 체제에 대해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불안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47.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안정적 일 것	안정적 일 것	보통이다	불 안정해 질 것	매우 불안정 해질 것	종합		
								안정	보통	불안정
전체		(1262)	1.2	30.1	30.5	33.4	4.8	31.3	30.5	3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	29.8	30.8	33.4	4.8	30.9	30.8	38.3
	전문가	(62)	3.2	35.5	24.2	33.9	3.2	38.7	24.2	37.1
소속별	대학	(30)	0.0	43.3	30.0	23.3	3.3	43.3	30.0	26.7
	연구소	(32)	6.3	28.1	18.8	43.8	3.1	34.4	18.8	46.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33.7	29.1	29.8	5.8	35.3	29.1	35.6
	중	(497)	0.6	27.4	33.6	34.4	4.0	28.0	33.6	38.4
	하	(136)	0.7	22.8	27.9	44.9	3.7	23.5	27.9	48.5
성별	남성	(720)	0.8	29.9	29.9	33.8	5.7	30.7	29.9	39.4
	여성	(480)	1.5	29.8	32.3	32.9	3.5	31.3	32.3	36.5
연령별	18-29세	(303)	0.7	31.4	26.4	36.6	5.0	32.0	26.4	41.6
	30대	(256)	1.6	30.9	32.8	30.9	3.9	32.4	32.8	34.8
	40대	(314)	0.6	29.0	35.7	31.5	3.2	29.6	35.7	34.7
	50대	(327)	1.5	28.4	28.7	34.3	7.0	30.0	28.7	41.3
지역별	서울	(238)	0.0	23.5	34.0	39.9	2.5	23.5	34.0	42.4
	경기/인천	(393)	2.3	35.9	30.8	29.3	1.8	38.2	30.8	31.0
	대전/세종/충청	(128)	1.6	32.8	35.2	27.3	3.1	34.4	35.2	30.5
	광주/전라	(110)	0.0	54.5	22.7	20.0	2.7	54.5	22.7	22.7
	대구/경북	(109)	0.9	21.1	22.9	39.4	15.6	22.0	22.9	55.0
	부산/울산/경남	(175)	0.6	18.9	35.4	37.7	7.4	19.4	35.4	45.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0.0	6.4	23.4	53.2	17.0	6.4	23.4	70.2
	대도시	(551)	0.2	26.5	29.9	39.2	4.2	26.7	29.9	43.4
	중소도시	(608)	2.0	32.6	32.2	27.8	5.4	34.5	32.2	33.2
	군지역	(41)	0.0	34.1	22.0	39.0	4.9	34.1	22.0	43.9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27.5	34.1	32.4	4.4	29.1	34.1	36.8
	블루칼라	(351)	1.1	24.2	33.0	35.9	5.7	25.4	33.0	41.6
	화이트칼라	(409)	1.0	34.2	28.4	32.3	4.2	35.2	28.4	36.4
	전업주부	(163)	0.6	31.9	34.4	28.8	4.3	32.5	34.4	33.1
	학생	(69)	1.4	31.9	20.3	40.6	5.8	33.3	20.3	46.4
	무직/기타	(26)	0.0	34.6	23.1	34.6	7.7	34.6	23.1	42.3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4	24.6	33.6	34.7	5.6	26.0	33.6	40.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6	30.5	30.5	32.5	5.8	31.2	30.5	38.3
	4년제 이상	(535)	1.1	32.9	29.2	33.1	3.7	34.0	29.2	36.8
생활 수준별	상	(137)	0.7	46.7	19.7	29.2	3.6	47.4	19.7	32.8
	중	(700)	1.6	30.0	34.0	30.9	3.6	31.6	34.0	34.4
	하	(363)	0.3	23.1	28.9	39.9	7.7	23.4	28.9	47.7

4)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Q.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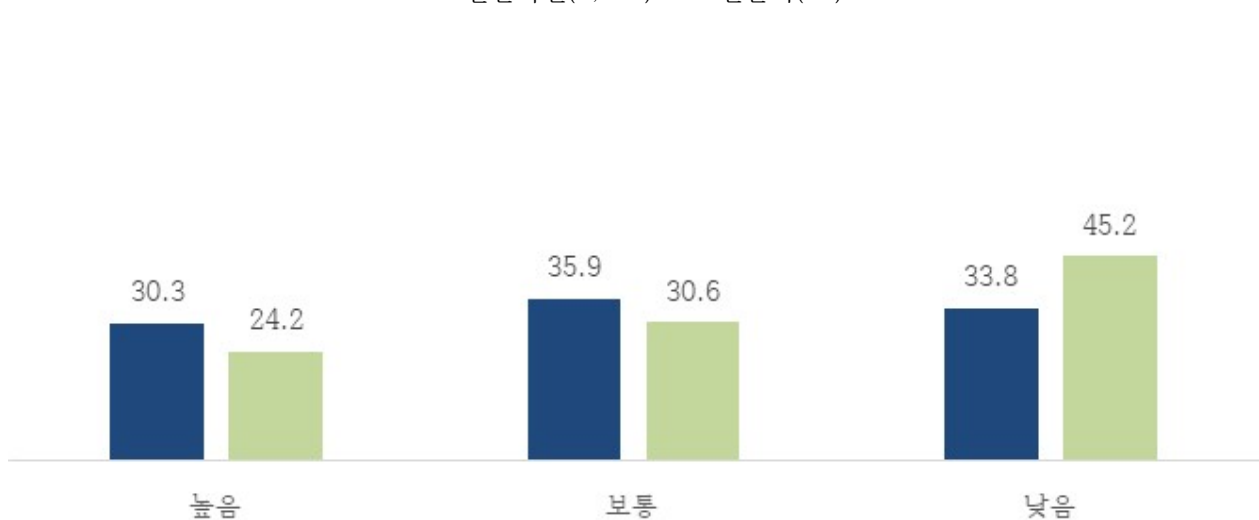
‘가능성이 낮다’: 일반국민 33.8%, 전문가 45.2%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이 ‘낮다’는 33.8%와, ‘높다’(30.3%)는 3.4%p 차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낮다’는 응답은 4.7%p(2019년 29.1%) 증가, ‘높다’는 응답은 5.3%p(2019년 35.6%)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낮다’는 응답이 45.2%로, ‘높다’(24.2%)는 응답보다 21.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낮다’는 응답은 11.1%p(2019년 56.3%) 감소했으며, ‘높다’는 응답 또한 5.5%p(2019년 29.7%)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93.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94.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이 '낮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8. 향후 2~3년 내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262)	2.3	27.7	35.7	30.5	3.8	30.0	35.7	34.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	28.0	35.9	30.3	3.4	30.3	35.9	33.8
	전문가	(62)	1.6	22.6	30.6	33.9	11.3	24.2	30.6	45.2
소속별	대학	(30)	0.0	20.0	33.3	36.7	10.0	20.0	33.3	46.7
	연구소	(32)	3.1	25.0	28.1	31.3	12.5	28.1	28.1	43.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5	32.6	30.2	28.9	4.8	36.2	30.2	33.7
	중	(497)	1.4	21.5	44.5	30.2	2.4	22.9	44.5	32.6
	하	(136)	0.7	32.4	28.7	36.8	1.5	33.1	28.7	38.2
성별	남성	(720)	2.5	28.2	35.1	30.4	3.8	30.7	35.1	34.2
	여성	(480)	2.1	27.7	37.1	30.2	2.9	29.8	37.1	33.1
연령별	18-29세	(303)	3.3	31.0	36.6	24.8	4.3	34.3	36.6	29.0
	30대	(256)	2.3	29.3	32.8	30.9	4.7	31.6	32.8	35.5
	40대	(314)	1.3	26.1	38.5	31.8	2.2	27.4	38.5	34.1
	50대	(327)	2.4	26.0	35.2	33.6	2.8	28.4	35.2	36.4
지역별	서울	(238)	0.0	22.7	42.0	33.6	1.7	22.7	42.0	35.3
	경기/인천	(393)	2.3	20.4	33.3	37.9	6.1	22.6	33.3	44.0
	대전/세종/충청	(128)	1.6	47.7	39.8	10.2	0.8	49.2	39.8	10.9
	광주/전라	(110)	0.0	47.3	34.5	16.4	1.8	47.3	34.5	18.2
	대구/경북	(109)	6.4	11.0	32.1	44.0	6.4	17.4	32.1	50.5
	부산/울산/경남	(175)	5.1	33.1	38.3	22.9	0.6	38.3	38.3	23.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40.4	19.1	34.0	4.3	42.6	19.1	38.3
	대도시	(551)	2.2	25.2	36.8	33.4	2.4	27.4	36.8	35.8
	중소도시	(608)	2.6	29.6	36.2	27.5	4.1	32.2	36.2	31.6
	군지역	(41)	0.0	41.5	19.5	31.7	7.3	41.5	19.5	39.0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26.4	35.7	34.1	2.2	28.0	35.7	36.3
	블루칼라	(351)	2.8	28.8	31.6	33.0	3.7	31.6	31.6	36.8
	화이트칼라	(409)	2.4	27.6	39.1	27.9	2.9	30.1	39.1	30.8
	전업주부	(163)	0.6	31.9	38.0	25.8	3.7	32.5	38.0	29.4
	학생	(69)	5.8	21.7	34.8	31.9	5.8	27.5	34.8	37.7
	무직/기타	(26)	0.0	26.9	34.6	30.8	7.7	26.9	34.6	38.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5	26.6	35.9	32.8	2.3	29.1	35.9	35.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	33.1	34.1	27.3	3.9	34.7	34.1	31.2
	4년제 이상	(535)	2.6	26.0	37.0	30.5	3.9	28.6	37.0	34.4
생활 수준별	상	(137)	2.2	41.6	28.5	24.8	2.9	43.8	28.5	27.7
	중	(700)	1.3	29.3	37.0	29.6	2.9	30.6	37.0	32.4
	하	(363)	4.4	20.4	36.6	33.9	4.7	24.8	36.6	38.6

5)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Q.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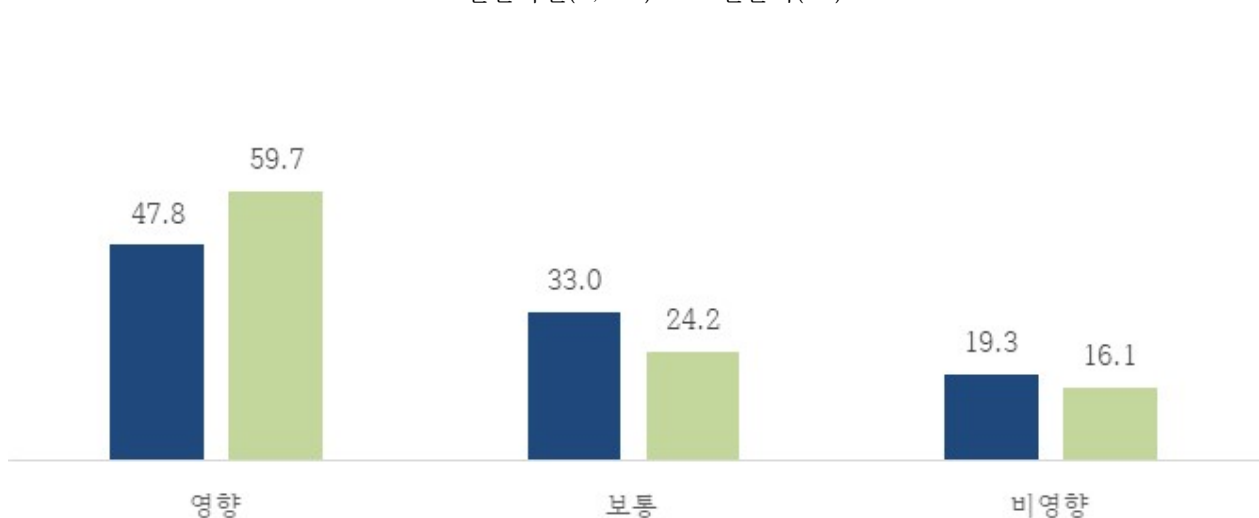
‘영향을 준다’: 일반국민 47.8%, 전문가 59.7%

- [일반국민]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7.8%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19.3%)는 응답보다 2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0.5%p(2019년 47.3%) 증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3%p(2019년 20.5%)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59.7%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16.1%)는 응답보다 43.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2%p(2019년 60.9%)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5.2%p(2019년 31.3%) 감소함

[그림 3-95.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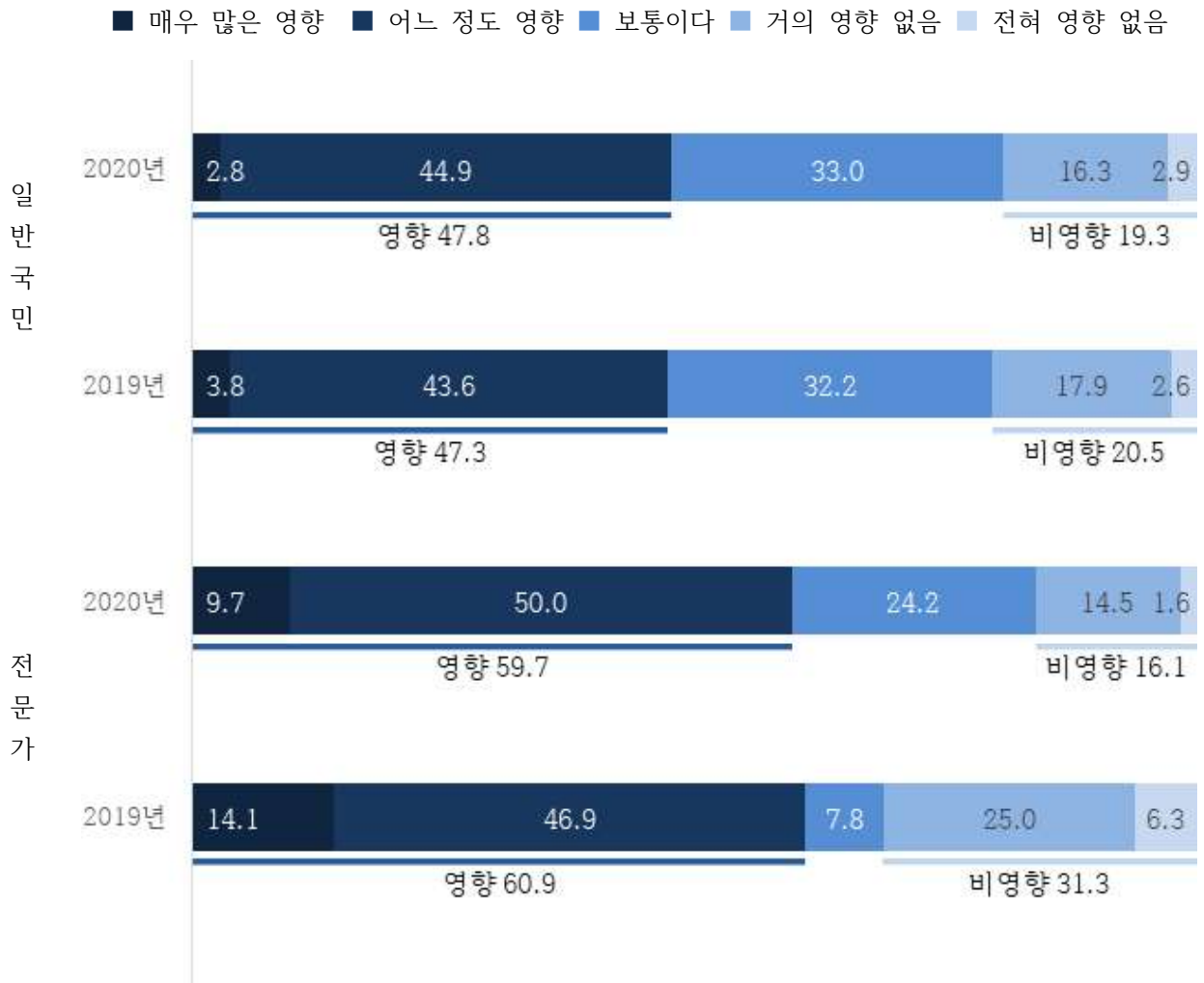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96.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49.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종합		
								영향	보통	비영향
전체		(1262)	3.2	45.2	32.6	16.2	2.9	48.3	32.6	19.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	44.9	33.0	16.3	2.9	47.8	33.0	19.3
	전문가	(62)	9.7	50.0	24.2	14.5	1.6	59.7	24.2	16.1
소속별	대학	(30)	3.3	53.3	26.7	16.7	0.0	56.7	26.7	16.7
	연구소	(32)	15.6	46.9	21.9	12.5	3.1	62.5	21.9	15.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2	47.6	31.9	13.6	3.7	50.8	31.9	17.3
	중	(497)	2.2	42.1	35.8	17.9	2.0	44.3	35.8	19.9
	하	(136)	3.7	44.1	27.2	22.1	2.9	47.8	27.2	25.0
성별	남성	(720)	2.9	45.1	32.4	16.5	3.1	48.1	32.4	19.6
	여성	(480)	2.7	44.6	34.0	16.0	2.7	47.3	34.0	18.8
연령별	18-29세	(303)	2.0	43.9	33.7	16.2	4.3	45.9	33.7	20.5
	30대	(256)	1.6	46.5	34.0	14.5	3.5	48.0	34.0	18.0
	40대	(314)	4.1	46.8	29.9	17.2	1.9	51.0	29.9	19.1
	50대	(327)	3.4	42.8	34.6	17.1	2.1	46.2	34.6	19.3
지역별	서울	(238)	2.9	50.4	36.1	10.1	0.4	53.4	36.1	10.5
	경기/인천	(393)	4.3	49.1	30.8	14.5	1.3	53.4	30.8	15.8
	대전/세종/충청	(128)	0.0	50.0	44.5	5.5	0.0	50.0	44.5	5.5
	광주/전라	(110)	0.9	48.2	34.5	16.4	0.0	49.1	34.5	16.4
	대구/경북	(109)	2.8	27.5	22.0	35.8	11.9	30.3	22.0	47.7
	부산/울산/경남	(175)	2.3	33.1	34.9	22.9	6.9	35.4	34.9	29.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44.7	19.1	23.4	8.5	48.9	19.1	31.9
	대도시	(551)	1.8	42.3	33.2	20.7	2.0	44.1	33.2	22.7
	중소도시	(608)	3.8	47.2	32.6	12.7	3.8	51.0	32.6	16.4
	군지역	(41)	2.4	46.3	36.6	12.2	2.4	48.8	36.6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2.7	47.3	34.1	15.4	0.5	50.0	34.1	15.9
	블루칼라	(351)	2.0	40.2	31.3	21.9	4.6	42.2	31.3	26.5
	화이트칼라	(409)	3.9	47.7	34.5	12.0	2.0	51.6	34.5	13.9
	전업주부	(163)	3.1	47.2	34.4	14.1	1.2	50.3	34.4	15.3
	학생	(69)	1.4	42.0	26.1	21.7	8.7	43.5	26.1	30.4
	무직/기타	(26)	0.0	42.3	34.6	15.4	7.7	42.3	34.6	23.1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4	43.5	33.9	17.2	2.0	46.9	33.9	19.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	46.0	31.5	18.0	2.9	47.6	31.5	20.9
	4년제 이상	(535)	3.2	45.2	33.3	14.8	3.6	48.4	33.3	18.3
생활 수준별	상	(137)	0.7	51.1	30.7	16.1	1.5	51.8	30.7	17.5
	중	(700)	3.0	47.7	33.4	12.9	3.0	50.7	33.4	15.9
	하	(363)	3.3	37.2	33.1	23.1	3.3	40.5	33.1	26.4

6)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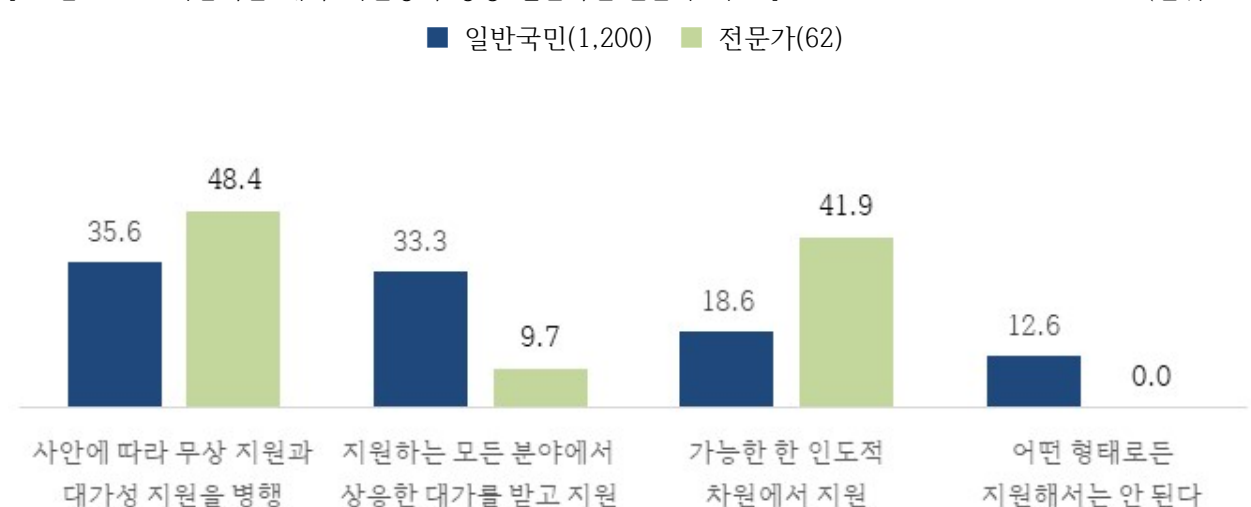
Q. 다음 사항 중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안에 따라 무상/대가성 지원을 병행’: 일반국민 35.6%, 전문가 48.4%

- **[일반국민]**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사안에 따라 무한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5%p(2019년 40.1%),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38.8%)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4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7%p(2019년 53.1%)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p(2019년 28.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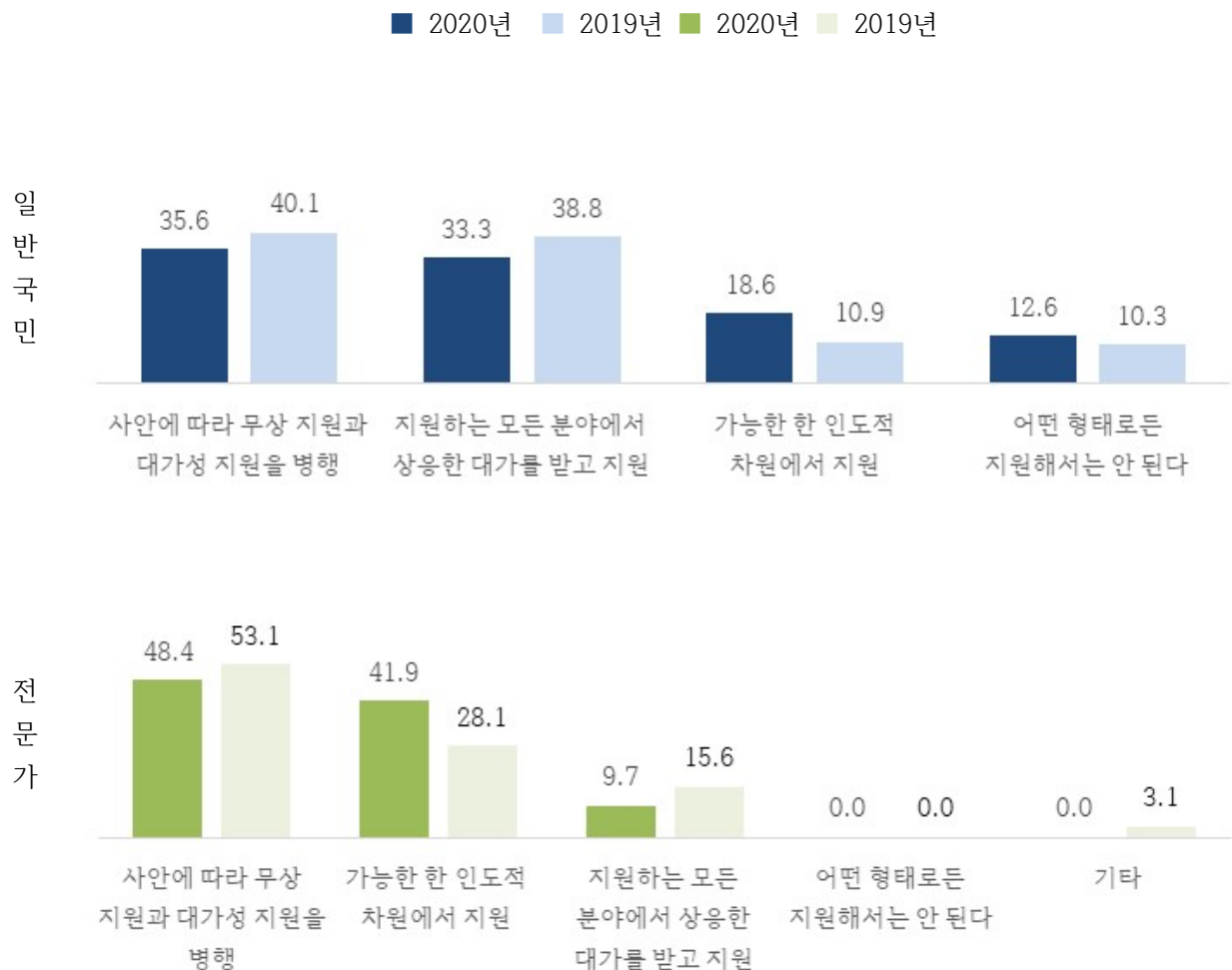
[그림 3-97.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98.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사안에 따라 무한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0. 바람직한 대북 지원정책 방향]

(단위: 명, %)

		사례수 (명)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전체		(1262)	36.2	32.1	19.7	12.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5.6	33.3	18.6	12.6
	전문가	(62)	48.4	9.7	41.9	0.0
소속별	대학	(30)	43.3	10.0	46.7	0.0
	연구소	(32)	53.1	9.4	37.5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8.6	30.7	19.6	11.1
	중	(497)	34.2	33.6	18.5	13.7
	하	(136)	27.9	42.6	14.7	14.7
성별	남성	(720)	36.8	30.1	18.2	14.9
	여성	(480)	33.8	37.9	19.2	9.2
연령별	18-29세	(303)	36.3	32.0	16.2	15.5
	30대	(256)	34.0	31.3	20.3	14.5
	40대	(314)	32.5	36.6	21.3	9.6
	50대	(327)	39.1	32.7	16.8	11.3
지역별	서울	(238)	29.4	36.1	20.2	14.3
	경기/인천	(393)	33.6	30.3	24.2	12.0
	대전/세종/충청	(128)	52.3	35.2	10.2	2.3
	광주/전라	(110)	48.2	30.0	18.2	3.6
	대구/경북	(109)	33.0	25.7	8.3	33.0
	부산/울산/경남	(175)	34.9	38.3	15.4	11.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7.0	44.7	23.4	14.9
	대도시	(551)	33.4	35.4	16.9	14.3
	중소도시	(608)	37.5	30.9	20.4	11.2
	군지역	(41)	36.6	39.0	14.6	9.8
직업별	자영업자	(182)	35.2	36.3	18.7	9.9
	블루칼라	(351)	30.5	33.6	19.4	16.5
	화이트칼라	(409)	41.1	28.4	18.8	11.7
	전업주부	(163)	35.0	39.9	19.0	6.1
	학생	(69)	33.3	34.8	13.0	18.8
	무직/기타	(26)	30.8	38.5	15.4	15.4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0.2	36.7	19.2	13.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4.4	30.5	20.3	14.8
	4년제 이상	(535)	39.8	32.5	17.2	10.5
생활 수준별	상	(137)	46.7	27.7	18.2	7.3
	중	(700)	36.1	32.3	20.3	11.3
	하	(363)	30.3	37.2	15.4	17.1

7)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Q. 귀하는 한국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같은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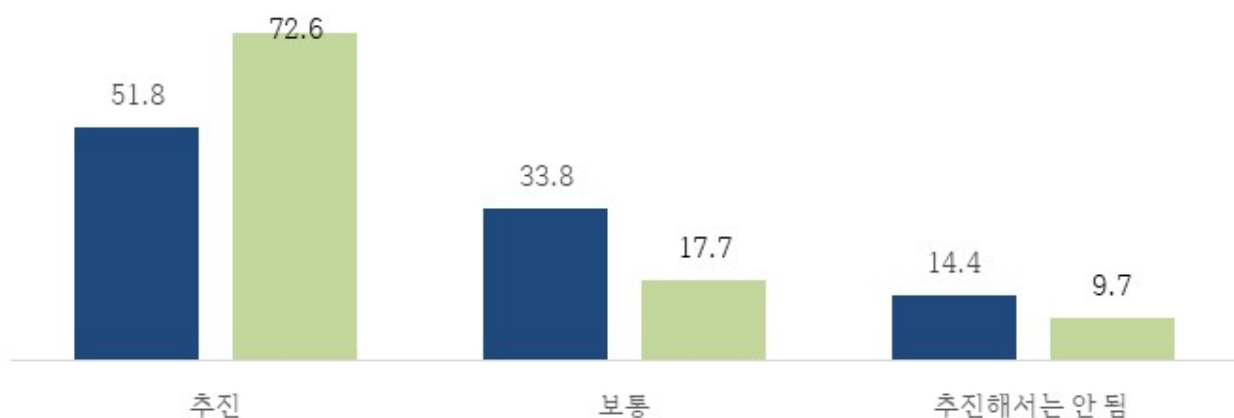
‘추진해야 한다’: 일반국민 51.8%, 전문가 72.6%

- [일반국민]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8%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14.4%)는 응답보다 37.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46.2%) 증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5.1%p(2019년 19.5%)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2.6%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9.7%)는 응답보다 62.9%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4.8%p(2019년 57.8%) 증가한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2.2%p(2019년 21.9%) 감소함

[그림 3-99.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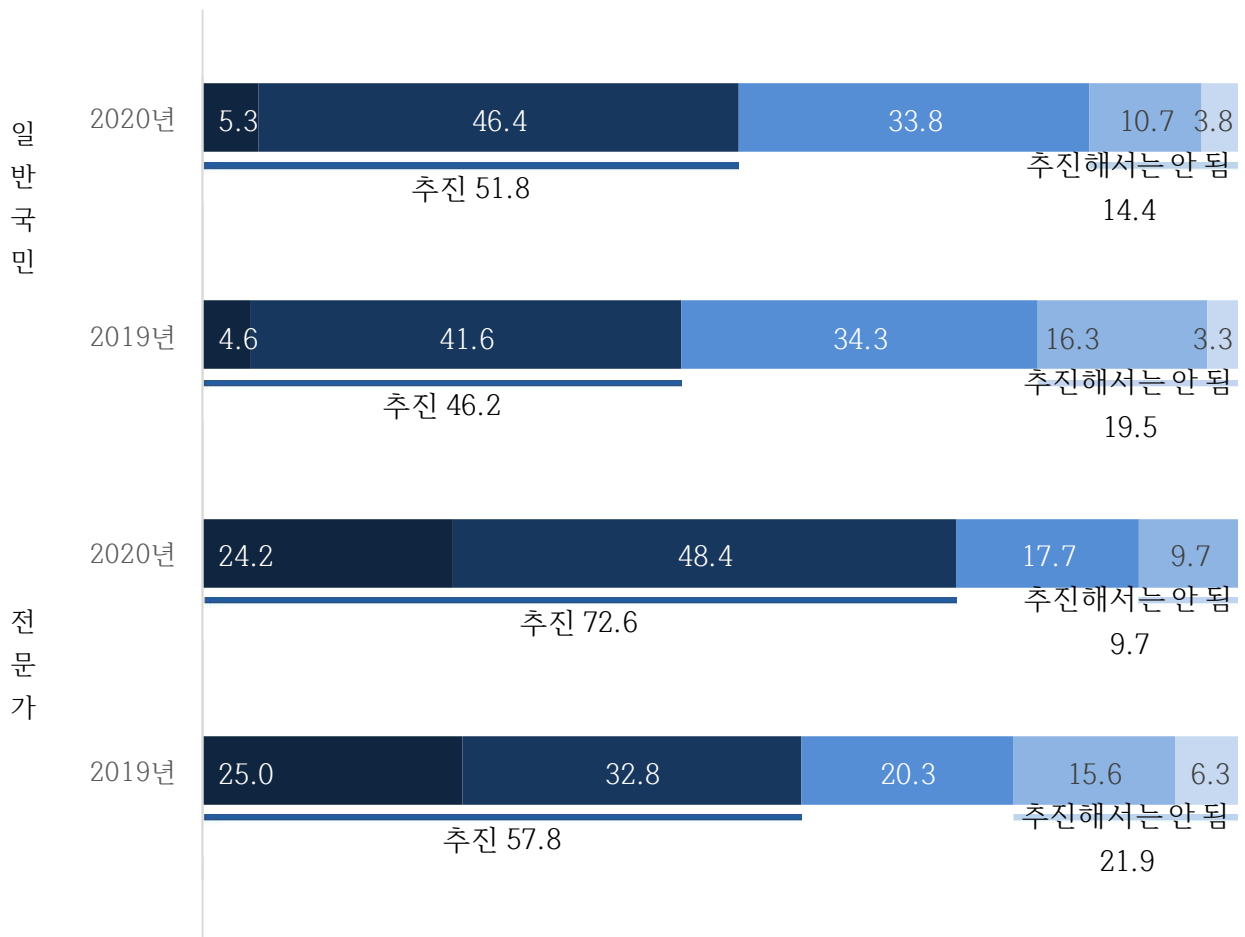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00.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 적극 추진 ■ 가능한 한 추진 ■ 보통이다 ■ 가능한 한 추진해선 안 된다 ■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51.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적극 추진 해야 한다	가능하 한 추진 해야 한다	그저 그렇다	가능하 한 추진해 선 안 된다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종합		
								추진	보통	추진 해서는 안 됨
전체		(1262)	6.3	46.5	33.0	10.6	3.6	52.8	33.0	1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3	46.4	33.8	10.7	3.8	51.8	33.8	14.4
	전문가	(62)	24.2	48.4	17.7	9.7	0.0	72.6	17.7	9.7
소속별	대학	(30)	13.3	56.7	23.3	6.7	0.0	70.0	23.3	6.7
	연구소	(32)	34.4	40.6	12.5	12.5	0.0	75.0	12.5	12.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6.3	50.8	30.5	8.5	3.9	57.1	30.5	12.3
	중	(497)	3.4	43.5	37.6	11.7	3.8	46.9	37.6	15.5
	하	(136)	8.1	39.0	33.8	16.2	2.9	47.1	33.8	19.1
성별	남성	(720)	5.4	46.5	33.1	11.5	3.5	51.9	33.1	15.0
	여성	(480)	5.2	46.3	35.0	9.4	4.2	51.5	35.0	13.5
연령별	18-29세	(303)	5.0	46.5	33.3	12.9	2.3	51.5	33.3	15.2
	30대	(256)	5.5	44.1	37.5	9.0	3.9	49.6	37.5	12.9
	40대	(314)	6.1	46.5	33.4	10.8	3.2	52.5	33.4	14.0
	50대	(327)	4.9	48.0	31.8	9.8	5.5	52.9	31.8	15.3
지역별	서울	(238)	1.7	54.6	32.8	6.3	4.6	56.3	32.8	10.9
	경기/인천	(393)	11.7	47.8	28.5	7.9	4.1	59.5	28.5	12.0
	대전/세종/충청	(128)	2.3	51.6	43.0	1.6	1.6	53.9	43.0	3.1
	광주/전라	(110)	1.8	59.1	32.7	6.4	0.0	60.9	32.7	6.4
	대구/경북	(109)	0.0	26.6	44.0	22.0	7.3	26.6	44.0	29.4
	부산/울산/경남	(175)	4.6	31.4	39.4	21.1	3.4	36.0	39.4	24.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51.1	17.0	25.5	4.3	53.2	17.0	29.8
	대도시	(551)	3.8	46.3	33.9	12.9	3.1	50.1	33.9	16.0
	중소도시	(608)	6.9	46.5	33.7	8.2	4.6	53.5	33.7	12.8
직업별	군지역	(41)	2.4	46.3	34.1	17.1	0.0	48.8	34.1	17.1
	자영업자	(182)	4.9	48.9	33.5	7.7	4.9	53.8	33.5	12.6
	블루칼라	(351)	7.1	39.6	34.5	14.5	4.3	46.7	34.5	18.8
	화이트칼라	(409)	4.9	50.1	33.0	9.0	2.9	55.0	33.0	12.0
	전업주부	(163)	4.9	51.5	33.7	8.0	1.8	56.4	33.7	9.8
	학생	(69)	2.9	42.0	33.3	13.0	8.7	44.9	33.3	21.7
최종 학력별	무직/기타	(26)	0.0	42.3	42.3	15.4	0.0	42.3	42.3	15.4
	고졸이하	(354)	5.6	41.8	36.4	11.0	5.1	47.5	36.4	16.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6.8	46.6	31.8	11.6	3.2	53.4	31.8	14.8
생활 수준별	4년제 이상	(535)	4.3	49.3	33.3	9.9	3.2	53.6	33.3	13.1
	상	(137)	2.9	58.4	27.0	10.9	0.7	61.3	27.0	11.7
	중	(700)	6.1	47.9	34.4	9.3	2.3	54.0	34.4	11.6
	하	(363)	4.7	39.1	35.3	13.2	7.7	43.8	35.3	20.9

8)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Q.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은 한국과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귀하는 이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했다’: 일반국민 58.6%, 전문가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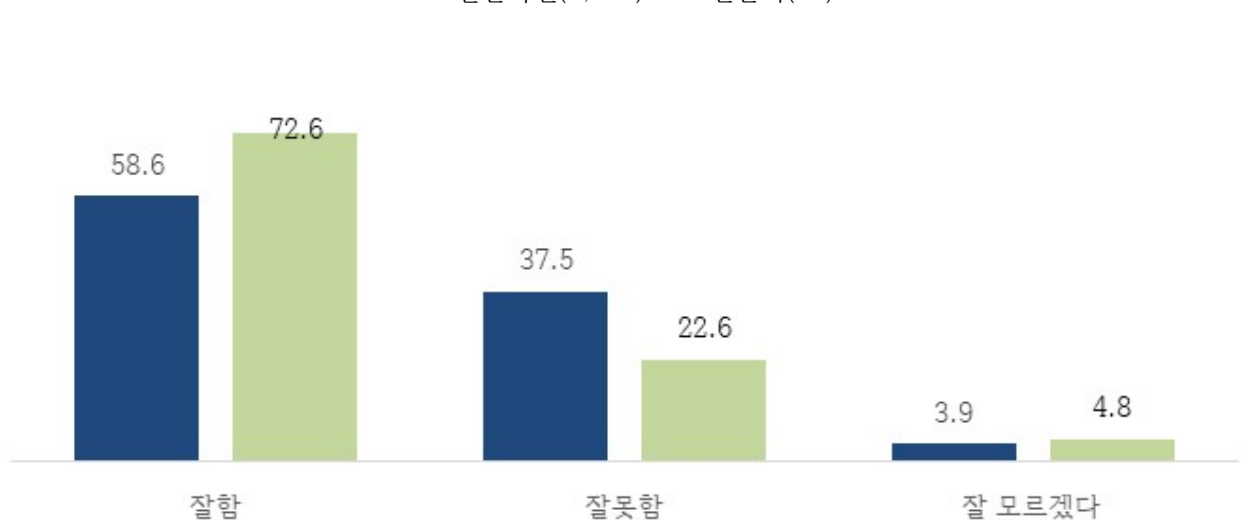
○ [일반국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 했다’는 응답이 58.6%, ‘잘못했다’(37.5%)는 응답보다 21.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잘 했다’는 응답이 72.6%, ‘잘못했다’(22.6%)는 응답보다 50.0%p 높게 나타남

[그림 3-101.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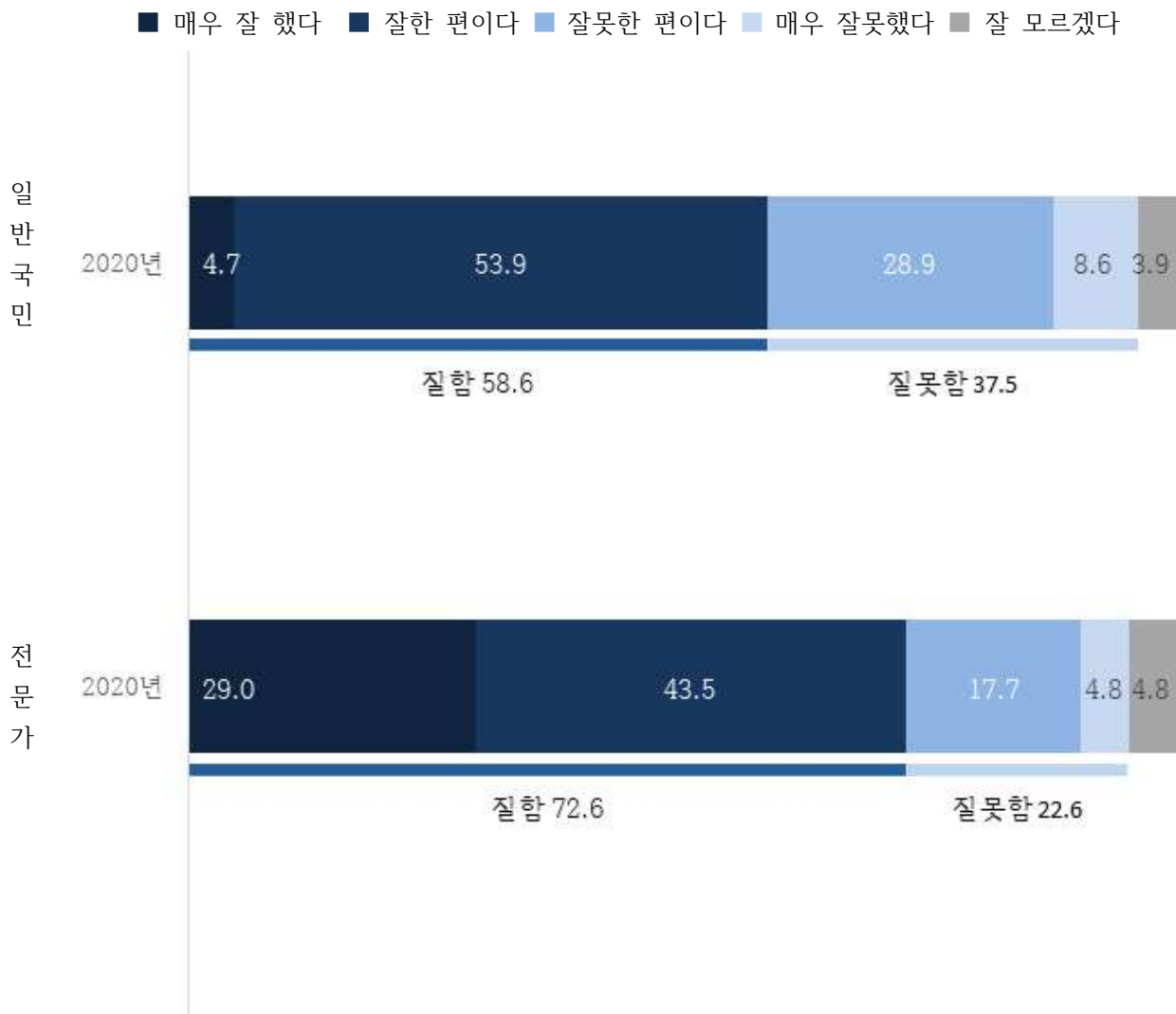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02.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 했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52.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잘 했다	잘한 편이다	잘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 했다	잘 모르겠다	종합		
								잘함	잘못함	잘 모르 겠다
전체		(1262)	5.9	53.4	28.4	8.4	4.0	59.3	36.8	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7	53.9	28.9	8.6	3.9	58.6	37.5	3.9
	전문가	(62)	29.0	43.5	17.7	4.8	4.8	72.6	22.6	4.8
소속별	대학	(30)	23.3	46.7	16.7	10.0	3.3	70.0	26.7	3.3
	연구소	(32)	34.4	40.6	18.8	0.0	6.3	75.0	18.8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6.5	57.8	25.2	7.2	3.2	64.4	32.5	3.2
	중	(497)	2.4	51.1	32.8	8.7	5.0	53.5	41.4	5.0
	하	(136)	5.1	47.8	30.1	14.0	2.9	52.9	44.1	2.9
성별	남성	(720)	5.4	52.9	29.4	9.2	3.1	58.3	38.6	3.1
	여성	(480)	3.5	55.4	28.1	7.7	5.2	59.0	35.8	5.2
연령별	18-29세	(303)	3.6	55.4	27.7	8.9	4.3	59.1	36.6	4.3
	30대	(256)	5.9	50.0	30.9	9.0	4.3	55.9	39.8	4.3
	40대	(314)	4.8	57.0	28.0	7.0	3.2	61.8	35.0	3.2
	50대	(327)	4.6	52.6	29.4	9.5	4.0	57.2	38.8	4.0
지역별	서울	(238)	4.2	58.8	23.9	6.3	6.7	63.0	30.3	6.7
	경기/인천	(393)	7.4	59.5	23.7	7.4	2.0	66.9	31.0	2.0
	대전/세종/충청	(128)	2.3	60.9	32.8	3.1	0.8	63.3	35.9	0.8
	광주/전라	(110)	0.9	68.2	26.4	2.7	1.8	69.1	29.1	1.8
	대구/경북	(109)	4.6	34.9	29.4	21.1	10.1	39.4	50.5	10.1
	부산/울산/경남	(175)	4.0	33.7	50.3	10.9	1.1	37.7	61.1	1.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48.9	12.8	21.3	14.9	51.1	34.0	14.9
	대도시	(551)	3.8	50.3	31.5	10.2	4.2	54.1	41.7	4.2
	중소도시	(608)	5.6	57.7	26.1	7.2	3.4	63.3	33.3	3.4
	군지역	(41)	2.4	46.3	36.6	7.3	7.3	48.8	43.9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4.4	54.4	32.4	5.5	3.3	58.8	37.9	3.3
	블루칼라	(351)	5.4	53.0	27.1	10.3	4.3	58.4	37.3	4.3
	화이트칼라	(409)	4.6	55.0	28.4	9.0	2.9	59.7	37.4	2.9
	전업주부	(163)	4.3	57.7	26.4	5.5	6.1	62.0	31.9	6.1
	학생	(69)	2.9	47.8	31.9	14.5	2.9	50.7	46.4	2.9
	무직/기타	(26)	3.8	38.5	46.2	3.8	7.7	42.3	50.0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1	52.8	27.1	9.9	5.1	57.9	37.0	5.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9	54.0	30.5	7.7	3.9	57.9	38.3	3.9
	4년제 이상	(535)	4.9	54.6	29.2	8.2	3.2	59.4	37.4	3.2
생활 수준별	상	(137)	5.1	56.9	26.3	10.9	0.7	62.0	37.2	0.7
	중	(700)	4.4	55.6	28.7	7.4	3.9	60.0	36.1	3.9
	하	(363)	5.0	49.6	30.3	9.9	5.2	54.5	40.2	5.2

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Q.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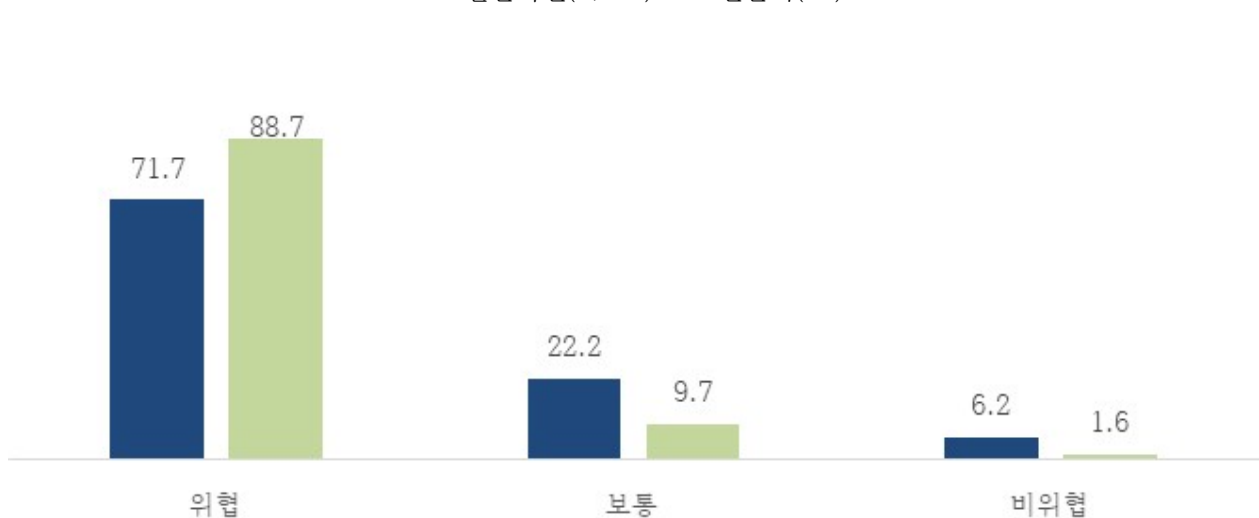
‘위협이 된다’: 일반국민 71.7%, 전문가 88.7%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71.7%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6.2%)는 응답보다 65.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4.9%p(2019년 66.8%) 증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p(2019년 8.6%)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88.7%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1.6%)는 응답보다 87.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5.1%p(2019년 93.8%)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3-10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04.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큰 위협 ■ 어느 정도 위협 ■ 보통이다 ■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5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종합		
								위협	보통	비위협
전체		(1262)	20.2	52.3	21.6	5.9	-	72.5	21.6	5.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5	53.2	22.2	6.2	-	71.7	22.2	6.2
	전문가	(62)	53.2	35.5	9.7	1.6	-	88.7	9.7	1.6
소속별	대학	(30)	43.3	43.3	13.3	0.0	-	86.7	13.3	0.0
	연구소	(32)	62.5	28.1	6.3	3.1	-	90.6	6.3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1.3	54.3	18.5	5.8	-	75.7	18.5	5.8
	중	(497)	16.1	54.3	23.9	5.6	-	70.4	23.9	5.6
	하	(136)	15.4	44.1	30.9	9.6	-	59.6	30.9	9.6
성별	남성	(720)	18.1	54.2	21.5	6.3	-	72.2	21.5	6.3
	여성	(480)	19.2	51.7	23.1	6.0	-	70.8	23.1	6.0
연령별	18-29세	(303)	18.8	52.1	23.1	5.9	-	71.0	23.1	5.9
	30대	(256)	18.8	52.0	23.0	6.3	-	70.7	23.0	6.3
	40대	(314)	15.3	54.8	23.9	6.1	-	70.1	23.9	6.1
	50대	(327)	21.1	53.5	19.0	6.4	-	74.6	19.0	6.4
지역별	서울	(238)	11.8	64.7	21.8	1.7	-	76.5	21.8	1.7
	경기/인천	(393)	26.7	48.3	17.6	7.4	-	75.1	17.6	7.4
	대전/세종/충청	(128)	3.9	59.4	35.2	1.6	-	63.3	35.2	1.6
	광주/전라	(110)	11.8	57.3	24.5	6.4	-	69.1	24.5	6.4
	대구/경북	(109)	27.5	54.1	16.5	1.8	-	81.7	16.5	1.8
	부산/울산/경남	(175)	19.4	41.7	26.3	12.6	-	61.1	26.3	12.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4.9	48.9	19.1	17.0	-	63.8	19.1	17.0
	대도시	(551)	12.7	58.1	22.3	6.9	-	70.8	22.3	6.9
	중소도시	(608)	24.8	48.5	21.2	5.4	-	73.4	21.2	5.4
	군지역	(41)	2.4	56.1	34.1	7.3	-	58.5	34.1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15.9	57.7	22.0	4.4	-	73.6	22.0	4.4
	블루칼라	(351)	22.8	49.6	21.7	6.0	-	72.4	21.7	6.0
	화이트칼라	(409)	15.2	57.0	21.5	6.4	-	72.1	21.5	6.4
	전업주부	(163)	21.5	49.7	23.3	5.5	-	71.2	23.3	5.5
	학생	(69)	20.3	44.9	23.2	11.6	-	65.2	23.2	11.6
	무직/기타	(26)	7.7	53.8	30.8	7.7	-	61.5	30.8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2.9	49.4	23.2	4.5	-	72.3	23.2	4.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1	51.8	24.4	7.7	-	67.8	24.4	7.7
	4년제 이상	(535)	17.0	56.4	20.2	6.4	-	73.5	20.2	6.4
생활 수준별	상	(137)	13.1	62.0	16.1	8.8	-	75.2	16.1	8.8
	중	(700)	15.7	53.3	24.9	6.1	-	69.0	24.9	6.1
	하	(363)	25.9	49.6	19.3	5.2	-	75.5	19.3	5.2

10)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Q.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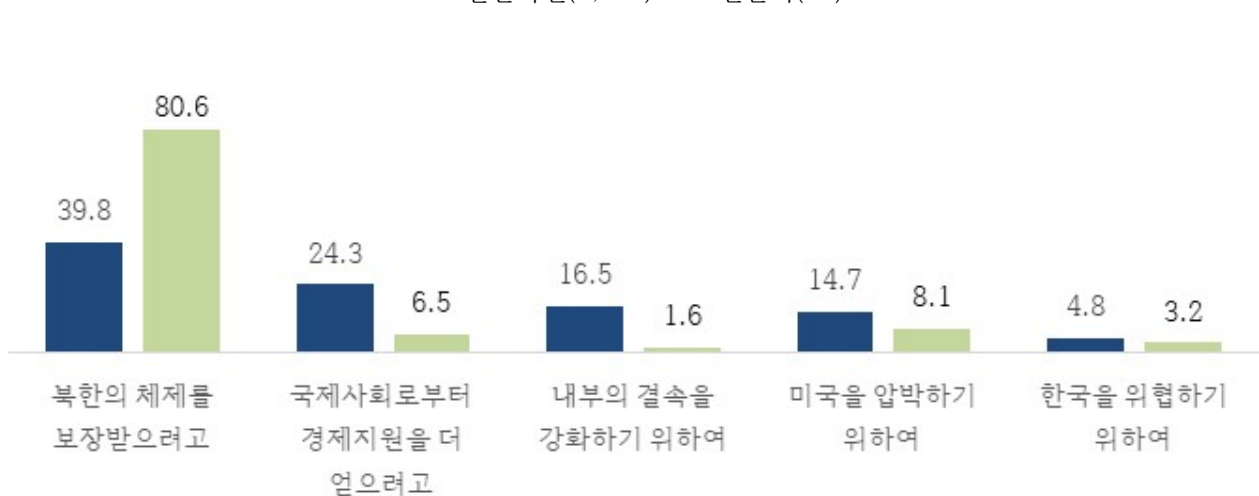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일반국민 39.8%, 전문가 80.6%

- [일반국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2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은 0.5%p(2019년 40.2%)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라는 응답은 7.1%p(2019년 17.2%) 증가함
- [전문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은 4.0%p(2019년 76.6%),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5.0%p(2019년 3.1%)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05.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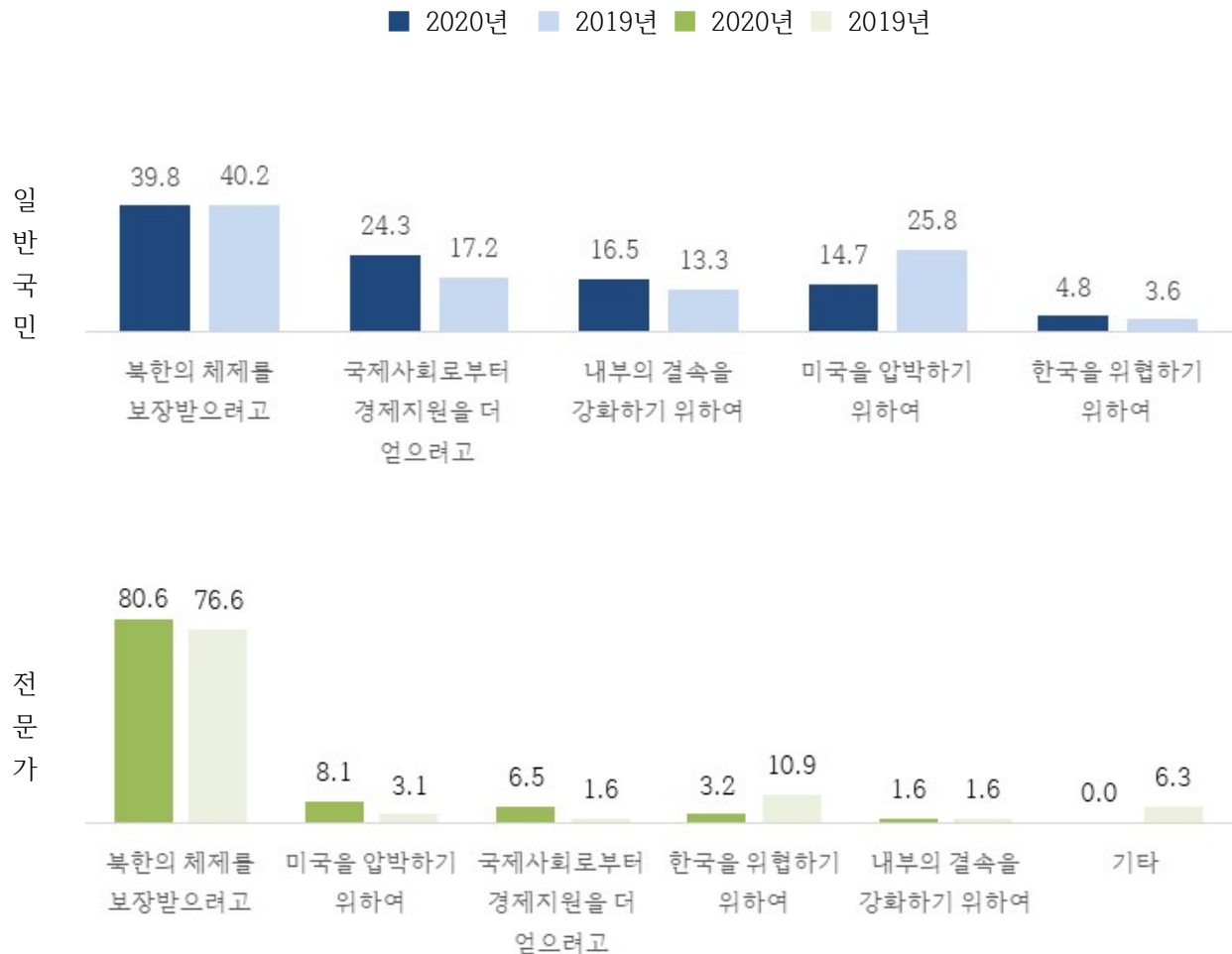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06.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4. 북한 핵무기 보유 의도]

(단위: 명, %)

		사례수 (명)	북한의 체제를 보장 받으려고	국제사회로 부터 경제 지원을 더 얻으려고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한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전체		(1262)	41.8	23.5	15.8	14.3	4.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8	24.3	16.5	14.7	4.8
	전문가	(62)	80.6	6.5	1.6	8.1	3.2
소속별	대학	(30)	76.7	6.7	3.3	10.0	3.3
	연구소	(32)	84.4	6.3	0.0	6.3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2.3	24.2	16.0	12.0	5.5
	중	(497)	39.4	24.3	16.7	16.5	3.0
	하	(136)	30.1	25.0	17.6	19.1	8.1
성별	남성	(720)	41.0	23.2	16.4	14.7	4.7
	여성	(480)	37.9	26.0	16.7	14.6	4.8
연령별	18-29세	(303)	38.3	22.4	17.8	17.5	4.0
	30대	(256)	38.7	25.8	16.8	13.7	5.1
	40대	(314)	43.3	21.3	15.9	13.4	6.1
	50대	(327)	38.5	27.8	15.6	14.1	4.0
지역별	서울	(238)	34.0	26.9	14.7	18.1	6.3
	경기/인천	(393)	40.2	23.4	22.4	11.5	2.5
	대전/세종/충청	(128)	35.9	27.3	12.5	13.3	10.9
	광주/전라	(110)	39.1	26.4	20.0	14.5	0.0
	대구/경북	(109)	62.4	11.9	4.6	15.6	5.5
	부산/울산/경남	(175)	35.4	28.0	14.9	17.1	4.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0.4	21.3	12.8	17.0	8.5
	대도시	(551)	36.1	25.0	16.2	16.7	6.0
	중소도시	(608)	44.6	23.0	16.9	12.2	3.3
	군지역	(41)	17.1	34.1	14.6	24.4	9.8
직업별	자영업자	(182)	39.6	26.4	18.7	12.1	3.3
	블루칼라	(351)	39.0	22.2	16.2	17.7	4.8
	화이트칼라	(409)	41.1	25.2	15.6	13.7	4.4
	전업주부	(163)	39.3	25.2	16.6	12.9	6.1
	학생	(69)	40.6	18.8	20.3	14.5	5.8
	무직/기타	(26)	30.8	34.6	7.7	19.2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9.3	26.0	15.3	13.8	5.6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5.7	21.5	19.9	17.4	5.5
	4년제 이상	(535)	42.4	24.9	15.3	13.6	3.7
생활 수준별	상	(137)	34.3	26.3	11.7	21.9	5.8
	중	(700)	37.3	24.9	19.1	14.9	3.9
	하	(363)	46.6	22.6	13.2	11.6	6.1

11)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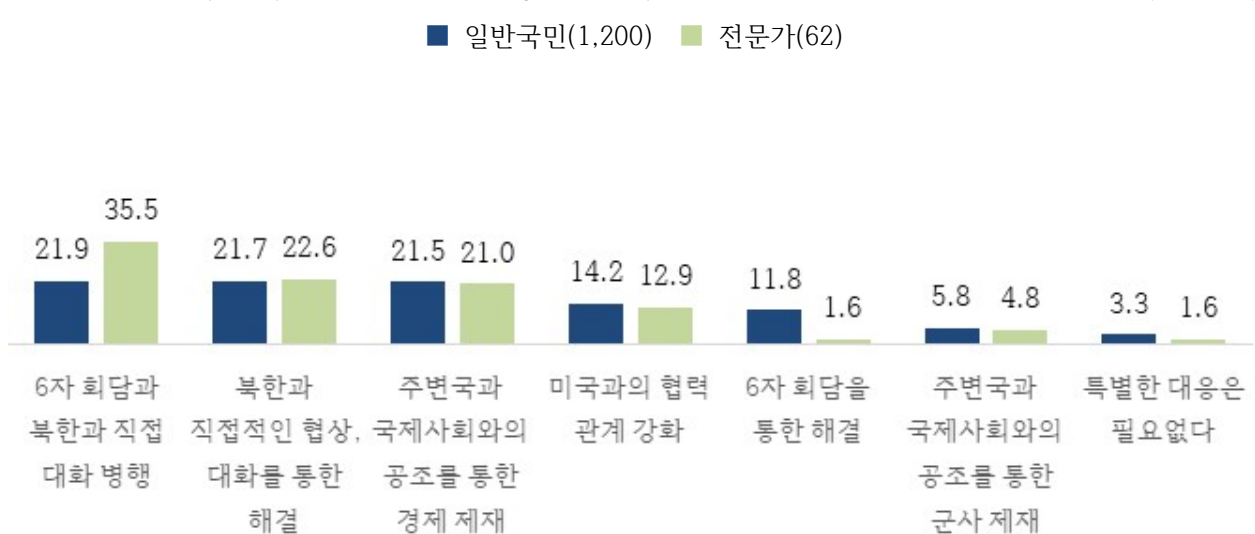
Q.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일반국민 21.9%, 전문가 35.5%

- [일반국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은 2.2%p(2019년 24.1%) 감소하였고,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응답은 5.9%p(2019년 15.8%)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은 5.8%p(2019년 29.7%) 증가했으며,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응답 또한 3.8%p(2019년 18.8%)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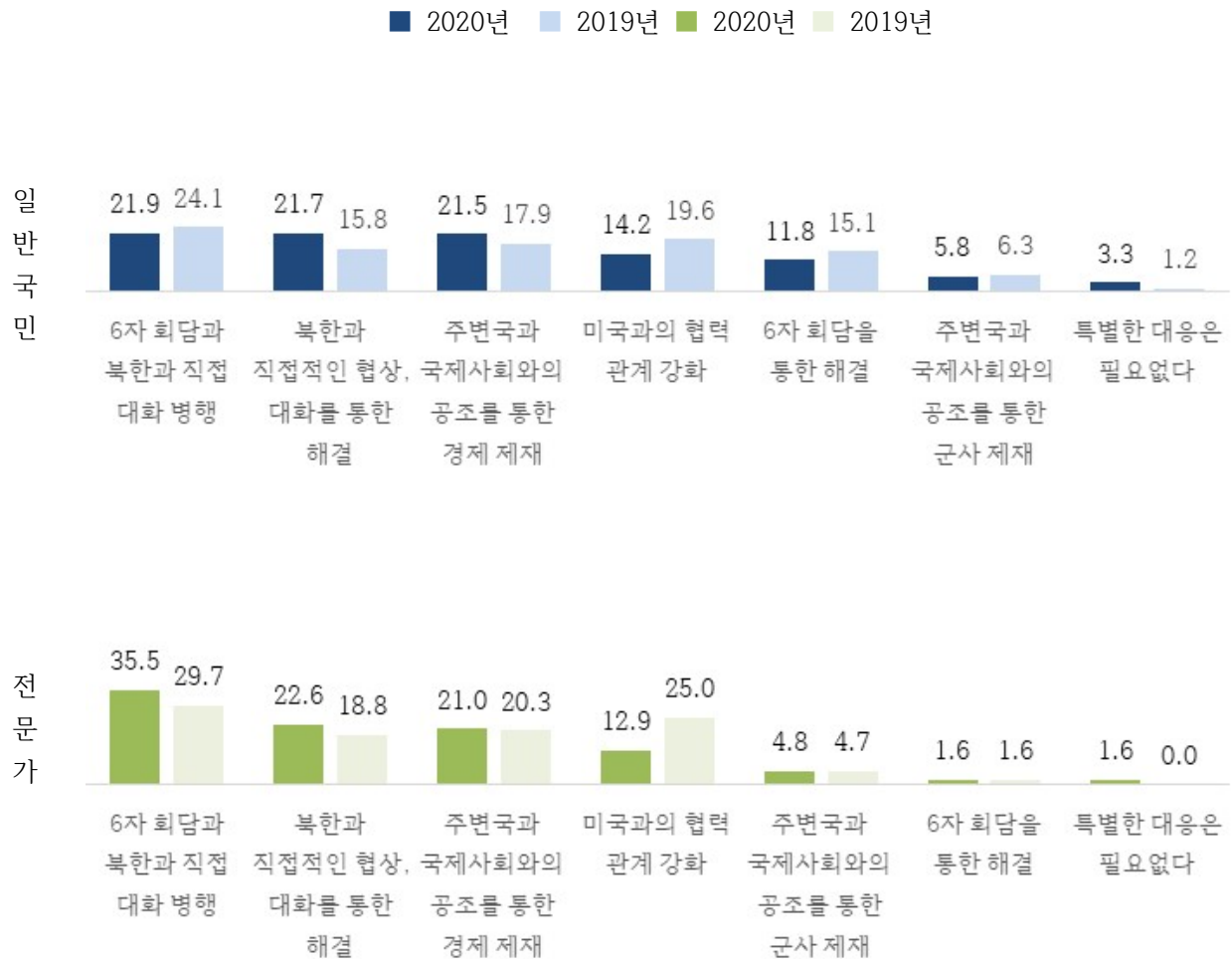
[그림 3-107.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08.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55.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단위: 명, %)

		사례수 (명)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주변국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주변국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전체		(1262)	22.6	21.7	21.5	14.1	11.3	5.7	3.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1.9	21.7	21.5	14.2	11.8	5.8	3.3
	전문가	(62)	35.5	22.6	21.0	12.9	1.6	4.8	1.6
소속별	대학	(30)	50.0	20.0	13.3	6.7	0.0	6.7	3.3
	연구소	(32)	21.9	25.0	28.1	18.8	3.1	3.1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4.2	21.2	20.1	13.9	12.2	5.1	3.4
	중	(497)	20.7	23.5	21.1	13.7	12.9	5.2	2.8
	하	(136)	16.9	16.9	28.7	16.9	5.9	10.3	4.4
성별	남성	(720)	20.8	22.2	21.1	14.2	12.4	5.8	3.5
	여성	(480)	23.5	20.8	22.1	14.2	10.8	5.6	2.9
연령별	18-29세	(303)	20.1	25.7	22.1	13.9	9.9	6.3	2.0
	30대	(256)	16.4	21.1	21.5	16.4	14.1	6.3	4.3
	40대	(314)	25.8	22.0	20.4	13.4	10.8	4.8	2.9
	50대	(327)	24.2	18.0	22.0	13.5	12.5	5.8	4.0
지역별	서울	(238)	21.0	27.7	23.9	14.7	5.9	3.4	3.4
	경기/인천	(393)	23.4	21.9	18.3	16.5	10.9	4.6	4.3
	대전/세종/충청	(128)	15.6	25.0	26.6	16.4	12.5	3.1	0.8
	광주/전라	(110)	21.8	24.5	15.5	11.8	15.5	5.5	5.5
	대구/경북	(109)	27.5	4.6	26.6	9.2	12.8	18.3	0.9
	부산/울산/경남	(175)	23.4	19.4	20.0	10.9	19.4	5.1	1.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21.3	29.8	14.9	6.4	8.5	6.4
	대도시	(551)	22.1	25.4	21.1	14.5	7.1	7.1	2.7
	중소도시	(608)	21.2	19.1	21.5	14.6	15.8	4.3	3.5
	군지역	(41)	29.3	9.8	26.8	2.4	14.6	9.8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26.4	14.8	22.5	13.2	12.6	3.8	6.6
	블루칼라	(351)	20.5	22.5	21.4	15.1	9.7	7.7	3.1
	화이트칼라	(409)	18.8	24.2	21.3	13.9	14.2	5.4	2.2
	전업주부	(163)	29.4	21.5	19.6	17.2	6.7	2.5	3.1
	학생	(69)	17.4	23.2	24.6	7.2	14.5	10.1	2.9
	무직/기타	(26)	23.1	15.4	23.1	11.5	19.2	7.7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2.9	20.3	22.9	14.7	9.0	5.9	4.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2.5	20.3	22.2	15.1	10.0	5.8	4.2
	4년제 이상	(535)	20.9	23.4	20.2	13.3	14.6	5.6	2.1
생활 수준별	상	(137)	21.2	21.2	18.2	10.9	17.5	8.0	2.9
	중	(700)	22.9	21.9	20.0	16.0	11.0	5.0	3.3
	하	(363)	20.4	21.5	25.6	11.8	11.0	6.3	3.3

12)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Q.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을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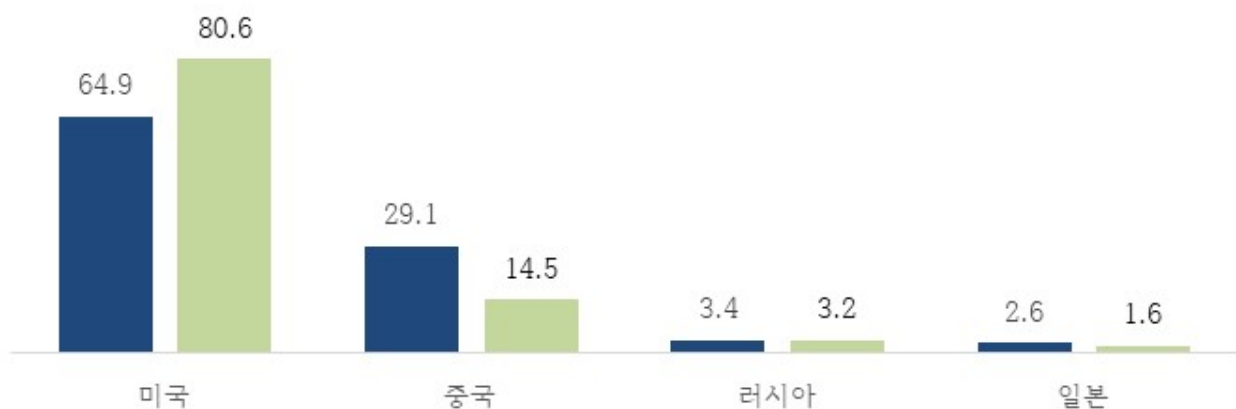
‘미국’: 일반국민 64.9%, 전문가 80.6%

- [일반국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9.1%), ‘러시아’(3.4%), ‘일본’(2.6%)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3.9%p(2019년 68.8%) 감소, ‘중국’이라는 응답은 5.6%p(2019년 23.5%)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미국’이라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14.5%), ‘러시아’(3.2%), ‘일본’(1.6%)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8.5%p(2019년 89.1%) 감소한 반면, ‘중국’이라는 응답은 3.6%p(2019년 10.9%)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09.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시 주요 국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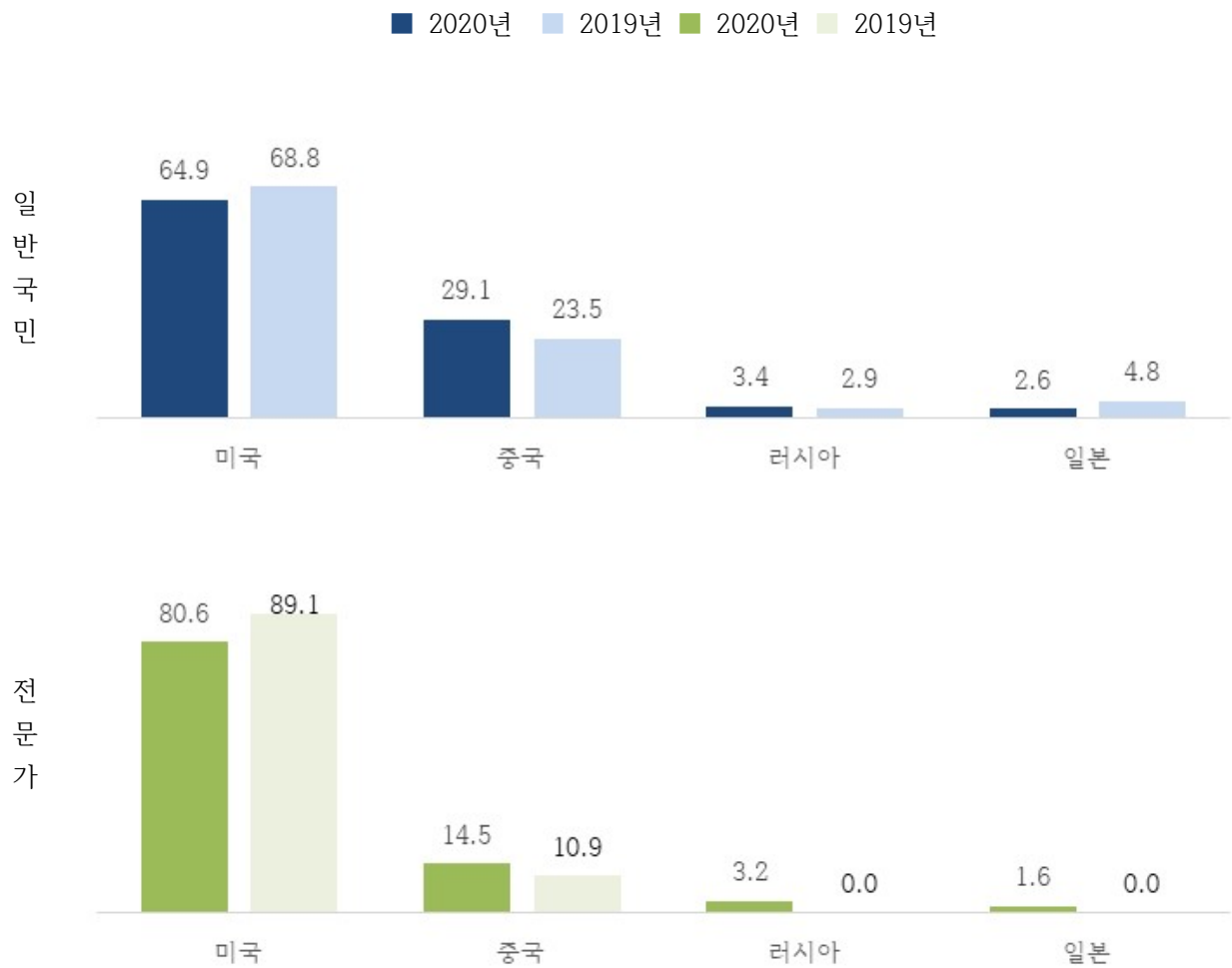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시 주요 국가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직업별로 자영업자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56.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

(단위: 명, %)

		사례수 (명)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전체		(1262)	65.7	28.4	3.4	2.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4.9	29.1	3.4	2.6
	전문가	(62)	80.6	14.5	3.2	1.6
소속별	대학	(30)	76.7	16.7	3.3	3.3
	연구소	(32)	84.4	12.5	3.1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66.3	28.7	2.6	2.3
	중	(497)	66.0	28.6	2.2	3.2
	하	(136)	55.1	32.4	11.0	1.5
성별	남성	(720)	65.0	29.7	2.5	2.8
	여성	(480)	64.8	28.1	4.8	2.3
연령별	18-29세	(303)	63.7	30.4	5.0	1.0
	30대	(256)	67.6	26.6	3.1	2.7
	40대	(314)	62.1	31.8	3.5	2.5
	50대	(327)	66.7	27.2	2.1	4.0
지역별	서울	(238)	63.0	29.4	6.3	1.3
	경기/인천	(393)	70.0	24.2	2.3	3.6
	대전/세종/충청	(128)	85.9	10.2	0.0	3.9
	광주/전라	(110)	50.0	46.4	2.7	0.9
	대구/경북	(109)	55.0	42.2	1.8	0.9
	부산/울산/경남	(175)	56.6	34.9	5.7	2.9
	강원/제주	(47)	63.8	27.7	4.3	4.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59.7	30.1	6.0	4.2
	중소도시	(608)	70.7	27.0	1.0	1.3
	군지역	(41)	48.8	46.3	4.9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73.6	22.0	2.2	2.2
	블루칼라	(351)	61.3	33.0	2.3	3.4
	화이트칼라	(409)	64.3	29.6	3.9	2.2
	전업주부	(163)	66.9	25.2	5.5	2.5
	학생	(69)	62.3	29.0	5.8	2.9
	무직/기타	(26)	57.7	42.3	0.0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65.8	28.0	2.8	3.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64.3	29.6	4.8	1.3
	4년제 이상	(535)	64.7	29.5	3.0	2.8
생활 수준별	상	(137)	72.3	22.6	2.9	2.2
	중	(700)	68.1	27.3	2.3	2.3
	하	(363)	55.9	35.0	5.8	3.3

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Q. 귀하는 북한이 외교적 협상과정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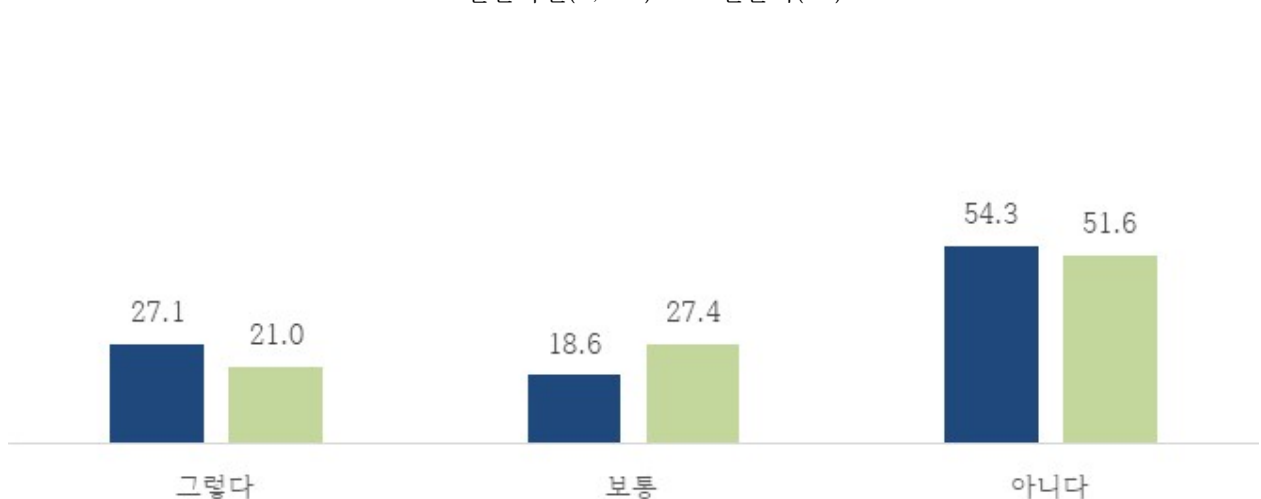
‘의사가 없다’: 일반국민 54.3%, 전문가 51.6%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4.3%로, ‘의사가 있다’(27.1%)는 응답보다 27.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2019년 57.9%),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8.0%p(2019년 35.1%) 감소함
- **[전문가]**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1.6%로, ‘의사가 있다’(21.0%)는 응답보다 30.6%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2019년 56.3%),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16.5%p(2019년 37.5%) 감소함

[그림 3-111.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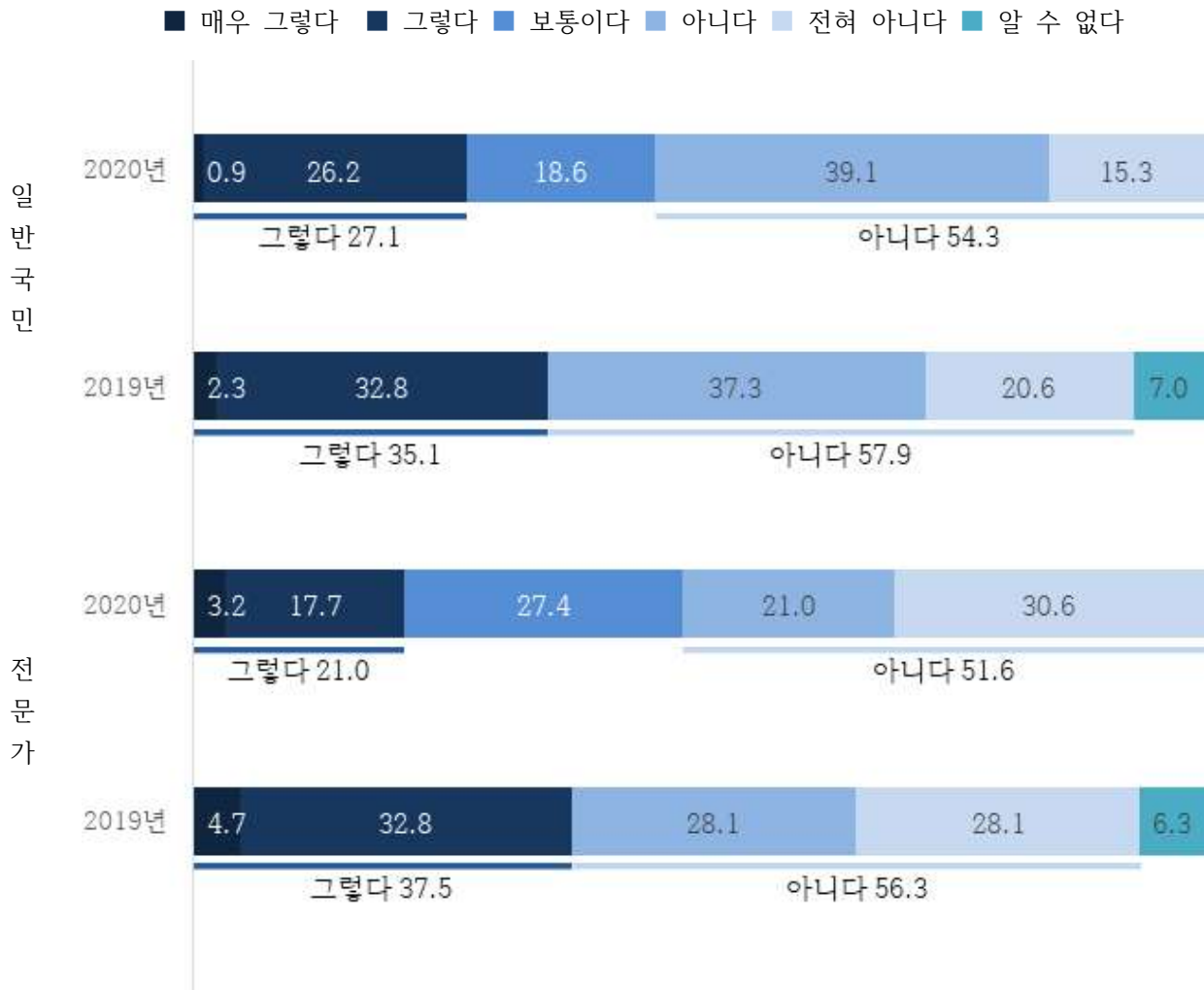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57.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체		(1262)	1.0	25.8	19.0	38.2	16.0	26.8	19.0	5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26.2	18.6	39.1	15.3	27.1	18.6	54.3
	전문가	(62)	3.2	17.7	27.4	21.0	30.6	21.0	27.4	51.6
소속별	대학	(30)	0.0	16.7	26.7	26.7	30.0	16.7	26.7	56.7
	연구소	(32)	6.3	18.8	28.1	15.6	31.3	25.0	28.1	46.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2	30.0	14.5	38.1	16.2	31.2	14.5	54.3
	중	(497)	0.8	21.7	21.9	40.4	15.1	22.5	21.9	55.5
	하	(136)	0.0	26.5	23.5	38.2	11.8	26.5	23.5	50.0
성별	남성	(720)	1.1	26.3	18.5	38.5	15.7	27.4	18.5	54.2
	여성	(480)	0.6	26.0	18.8	40.0	14.6	26.7	18.8	54.6
연령별	18-29세	(303)	0.3	27.4	18.5	37.0	16.8	27.7	18.5	53.8
	30대	(256)	0.8	27.0	21.1	39.1	12.1	27.7	21.1	51.2
	40대	(314)	1.9	23.2	19.4	40.4	15.0	25.2	19.4	55.4
	50대	(327)	0.6	27.2	15.9	39.8	16.5	27.8	15.9	56.3
지역별	서울	(238)	0.4	26.9	22.7	41.6	8.4	27.3	22.7	50.0
	경기/인천	(393)	0.5	24.7	10.7	42.2	21.9	25.2	10.7	64.1
	대전/세종/충청	(128)	1.6	35.9	24.2	35.2	3.1	37.5	24.2	38.3
	광주/전라	(110)	0.9	53.6	11.8	30.0	3.6	54.5	11.8	33.6
	대구/경북	(109)	0.0	4.6	19.3	45.9	30.3	4.6	19.3	76.1
	부산/울산/경남	(175)	1.1	22.9	28.0	33.1	14.9	24.0	28.0	48.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6.4	27.7	38.3	21.3	12.8	27.7	59.6
	대도시	(551)	1.1	25.6	22.9	40.7	9.8	26.7	22.9	50.5
	중소도시	(608)	0.8	26.6	14.8	37.3	20.4	27.5	14.8	57.7
	군지역	(41)	0.0	26.8	17.1	43.9	12.2	26.8	17.1	56.1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30.2	16.5	36.3	16.5	30.8	16.5	52.7
	블루칼라	(351)	0.9	19.7	20.5	41.0	17.9	20.5	20.5	59.0
	화이트칼라	(409)	1.5	28.6	17.4	39.1	13.4	30.1	17.4	52.6
	전업주부	(163)	0.0	29.4	17.8	39.9	12.9	29.4	17.8	52.8
	학생	(69)	1.4	26.1	23.2	30.4	18.8	27.5	23.2	49.3
	무직/기타	(26)	0.0	26.9	19.2	50.0	3.8	26.9	19.2	5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6	24.0	17.5	40.4	17.5	24.6	17.5	57.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9	26.4	19.6	37.0	15.1	28.3	19.6	52.1
	4년제 이상	(535)	0.6	27.5	18.7	39.4	13.8	28.0	18.7	53.3
생활 수준별	상	(137)	1.5	40.1	12.4	33.6	12.4	41.6	12.4	46.0
	중	(700)	1.1	28.9	20.4	35.3	14.3	30.0	20.4	49.6
	하	(363)	0.3	15.7	17.4	48.5	18.2	16.0	17.4	66.7

14)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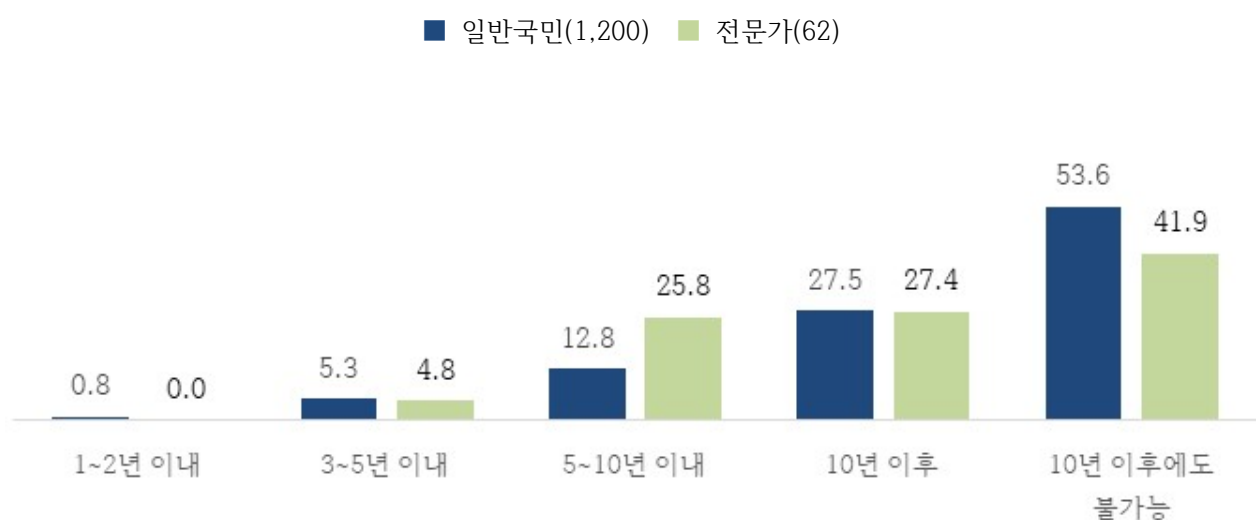
Q. 귀하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일반국민 53.6%, 전문가 41.9%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27.5%), ‘5~10년 이내’(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17.4%p(2019년 36.2%) 증가한 반면, ‘10년 이후’라는 응답은 2.1%p(2019년 29.6%) 감소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27.4%), ‘5~10년 이내’(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0.3%p(2019년 42.2%) 감소, ‘10년 이후’라는 응답은 0.8%p(2019년 26.6%)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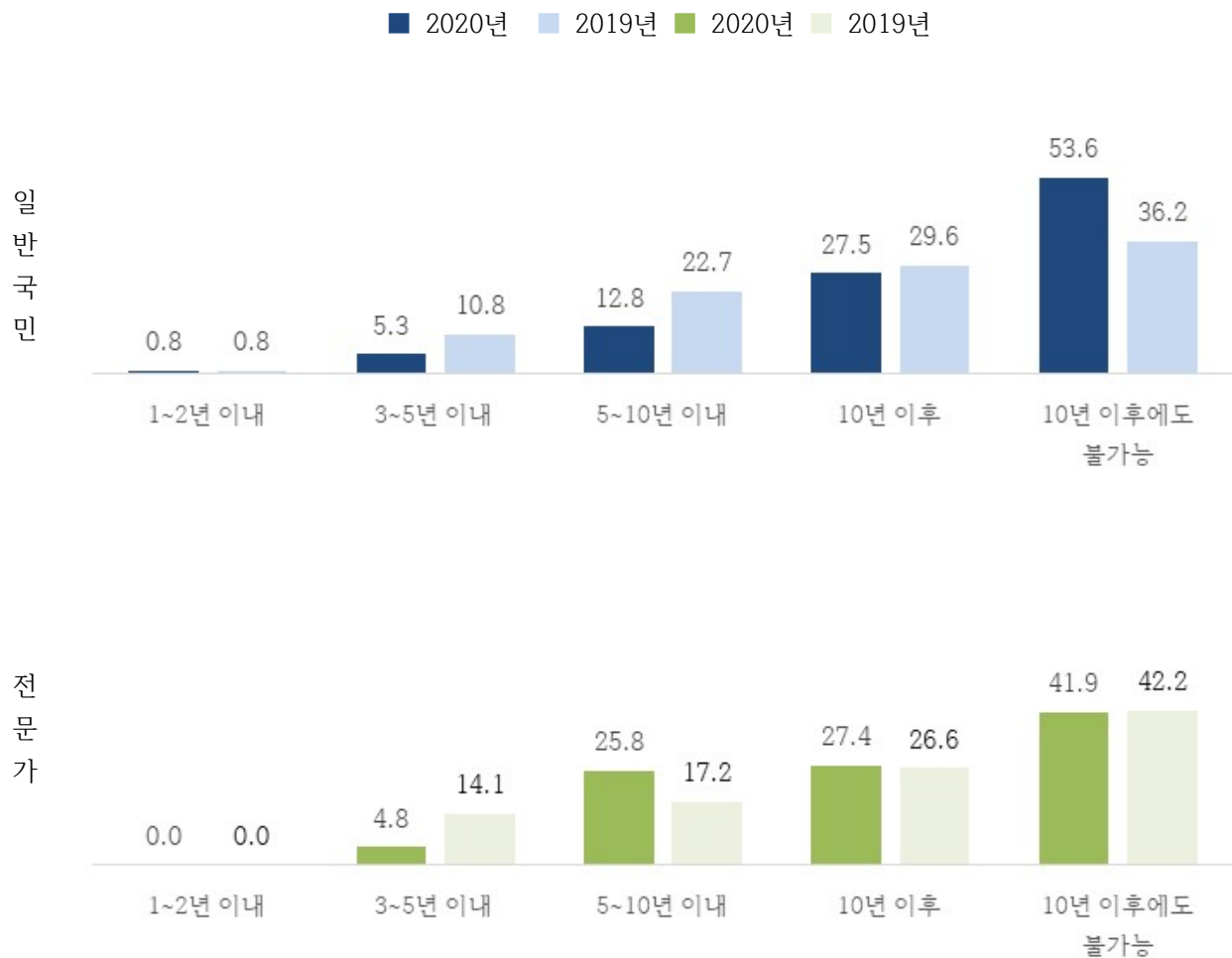
[그림 3-113.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14.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8.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시기]

(단위: 명, %)

		사례수 (명)	1~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전체		(1262)	0.7	5.3	13.5	27.5	53.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5.3	12.8	27.5	53.6
	전문가	(62)	0.0	4.8	25.8	27.4	41.9
소속별	대학	(30)	0.0	6.7	16.7	33.3	43.3
	연구소	(32)	0.0	3.1	34.4	21.9	40.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1	6.7	12.3	26.5	53.4
	중	(497)	0.4	4.2	13.1	26.8	55.5
	하	(136)	0.7	3.7	14.0	34.6	47.1
성별	남성	(720)	1.1	5.8	12.9	25.8	54.3
	여성	(480)	0.2	4.6	12.7	30.0	52.5
연령별	18-29세	(303)	0.3	5.3	15.5	24.4	54.5
	30대	(256)	1.2	3.9	12.9	33.6	48.4
	40대	(314)	0.6	5.7	11.1	25.5	57.0
	50대	(327)	0.9	6.1	11.9	27.5	53.5
지역별	서울	(238)	0.4	2.5	13.0	37.4	46.6
	경기/인천	(393)	0.3	2.3	11.2	29.8	56.5
	대전/세종/충청	(128)	0.8	19.5	25.8	17.2	36.7
	광주/전라	(110)	4.5	13.6	11.8	26.4	43.6
	대구/경북	(109)	0.9	0.0	3.7	25.7	69.7
	부산/울산/경남	(175)	0.0	2.9	12.6	20.0	64.6
	강원/제주	(47)	0.0	8.5	14.9	21.3	55.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4	4.2	14.2	32.1	49.2
	중소도시	(608)	0.8	6.3	11.8	23.7	57.4
	군지역	(41)	4.9	7.3	9.8	22.0	56.1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3.3	9.3	30.8	56.0
	블루칼라	(351)	0.3	2.0	12.8	28.8	56.1
	화이트칼라	(409)	1.7	9.0	13.7	23.0	52.6
	전업주부	(163)	0.0	3.1	12.3	35.6	49.1
	학생	(69)	0.0	8.7	18.8	24.6	47.8
	무직/기타	(26)	0.0	11.5	11.5	15.4	6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4.0	11.9	30.8	53.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0	3.9	11.9	26.7	57.6
	4년제 이상	(535)	1.5	7.1	14.0	25.8	51.6
생활 수준별	상	(137)	3.6	12.4	16.8	24.8	42.3
	중	(700)	0.3	5.3	15.4	27.4	51.6
	하	(363)	0.6	2.8	6.3	28.7	61.7

15)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Q. 귀하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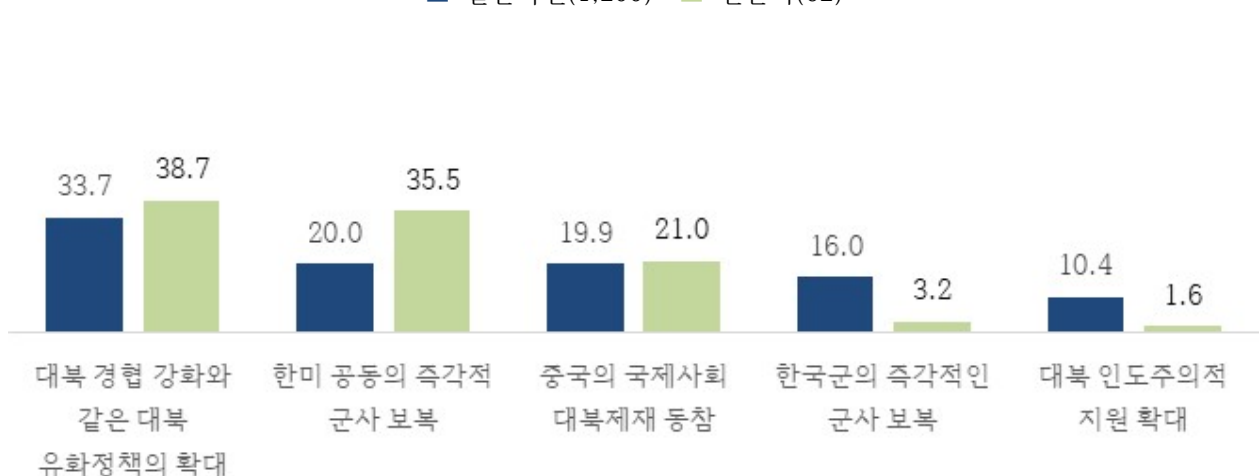
‘대북 유화 정책 확대’: 일반국민 33.7%, 전문가 38.7%

- [일반국민]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가 3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20.0%)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라는 응답은 5.5%p(2019년 28.2%)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이라는 응답은 9.5%p(2019년 29.5%) 감소함
- [전문가]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가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35.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라는 응답은 2.8%p(2019년 35.9%) 증가,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이라는 응답은 5.5%p(2019년 40.6%)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15.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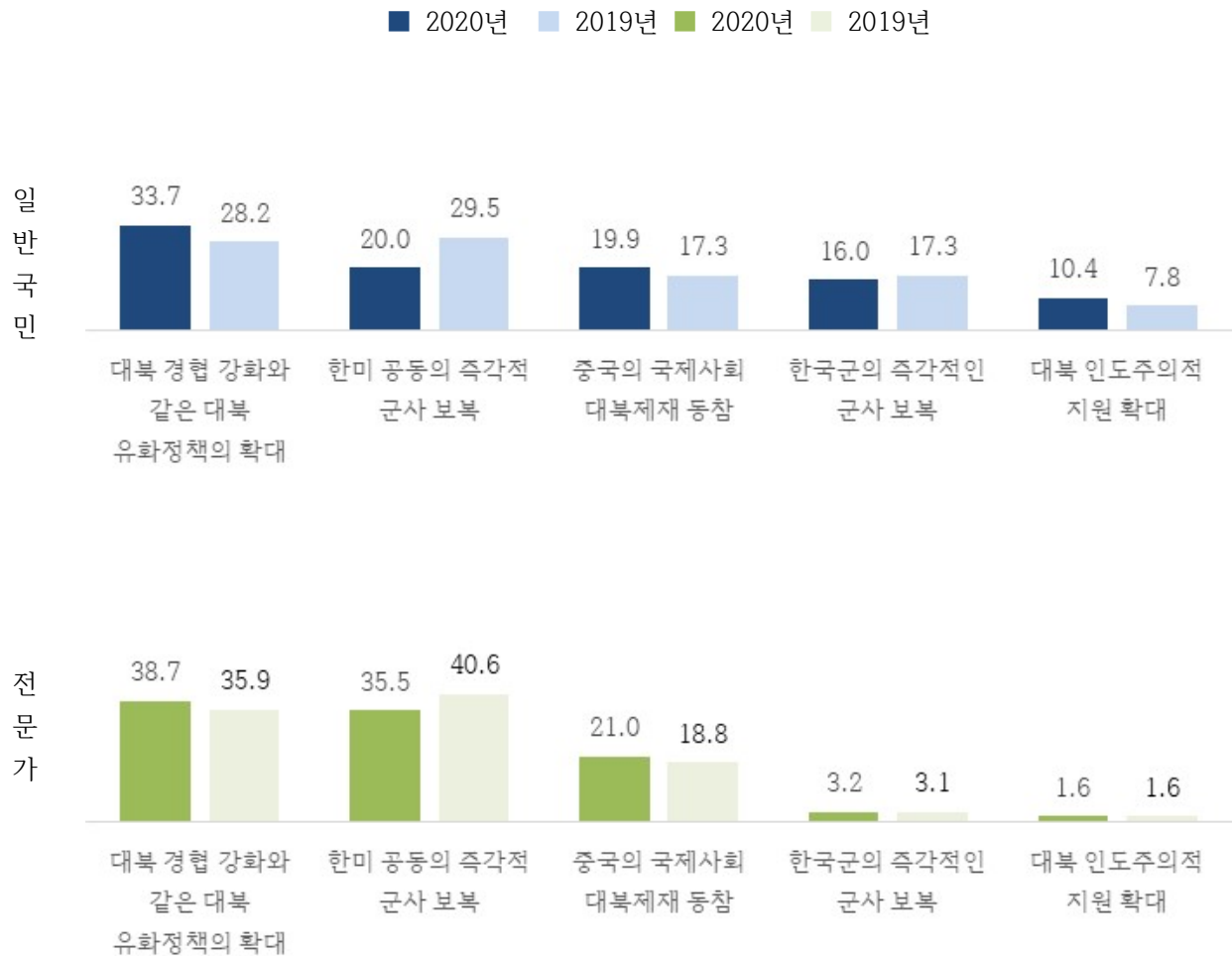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16.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 정책의 확대’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 대전/세종/충청,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59.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단위: 명, %)

		사례수 (명)	대북 경험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의 확대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한국군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전체		(1262)	33.9	20.8	20.0	15.4	1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3.7	20.0	19.9	16.0	10.4
	전문가	(62)	38.7	35.5	21.0	3.2	1.6
소속별	대학	(30)	33.3	40.0	16.7	6.7	3.3
	연구소	(32)	43.8	31.3	25.0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3.5	19.4	21.0	17.1	9.0
	중	(497)	33.0	19.9	20.1	14.5	12.5
	하	(136)	36.8	22.8	14.7	16.9	8.8
성별	남성	(720)	31.5	19.4	20.8	17.2	11.0
	여성	(480)	36.9	20.8	18.5	14.2	9.6
연령별	18-29세	(303)	33.3	20.8	18.8	19.8	7.3
	30대	(256)	33.2	18.0	20.7	15.6	12.5
	40대	(314)	36.0	17.8	16.2	15.0	15.0
	50대	(327)	32.1	22.9	23.9	13.8	7.3
지역별	서울	(238)	42.9	22.7	17.2	10.1	7.1
	경기/인천	(393)	34.4	14.5	21.6	12.2	17.3
	대전/세종/충청	(128)	40.6	27.3	3.9	25.8	2.3
	광주/전라	(110)	22.7	25.5	21.8	22.7	7.3
	대구/경북	(109)	27.5	19.3	40.4	8.3	4.6
	부산/울산/경남	(175)	26.9	21.7	16.0	26.3	9.1
	강원/제주	(47)	27.7	14.9	25.5	14.9	17.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34.5	24.0	16.3	16.9	8.3
	중소도시	(608)	31.7	16.6	23.5	15.1	13.0
	군지역	(41)	51.2	17.1	14.6	17.1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33.5	22.5	19.8	11.5	12.6
	블루칼라	(351)	34.2	18.8	19.7	17.7	9.7
	화이트칼라	(409)	33.7	18.8	19.1	17.8	10.5
	전업주부	(163)	35.0	24.5	20.9	8.0	11.7
	학생	(69)	29.0	15.9	23.2	24.6	7.2
	무직/기타	(26)	30.8	19.2	23.1	23.1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2.8	20.1	23.7	12.4	11.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3.4	24.4	15.4	15.1	11.6
	4년제 이상	(535)	34.4	17.4	20.0	18.9	9.3
생활 수준별	상	(137)	32.1	20.4	17.5	22.6	7.3
	중	(700)	33.0	20.7	18.4	16.4	11.4
	하	(363)	35.5	18.5	23.7	12.7	9.6

16)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Q. 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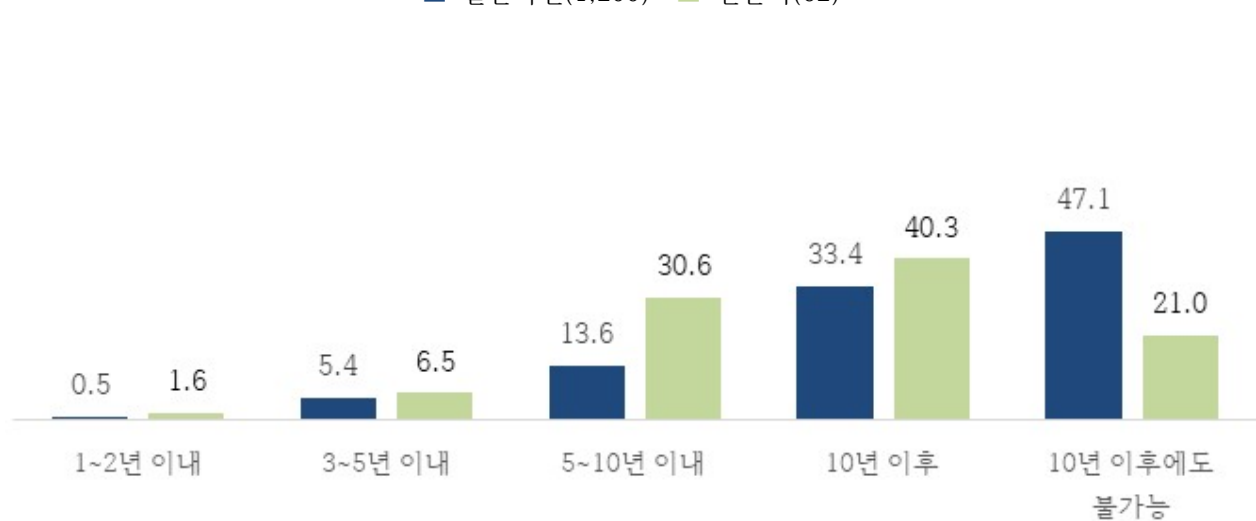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일반국민 47.1%
‘10년 이후’: 전문가 40.3%

- **[일반국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년 이후’(3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13.8%p(2019년 33.3%) 증가했으며, ‘10년 이후’라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2019년 33.3%)
- **[전문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0년 이내’(3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10년 이후’라는 응답은 4.4%p(2019년 35.9%), ‘5~10년 이내’라는 응답은 2.5%p(2019년 28.1%)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17.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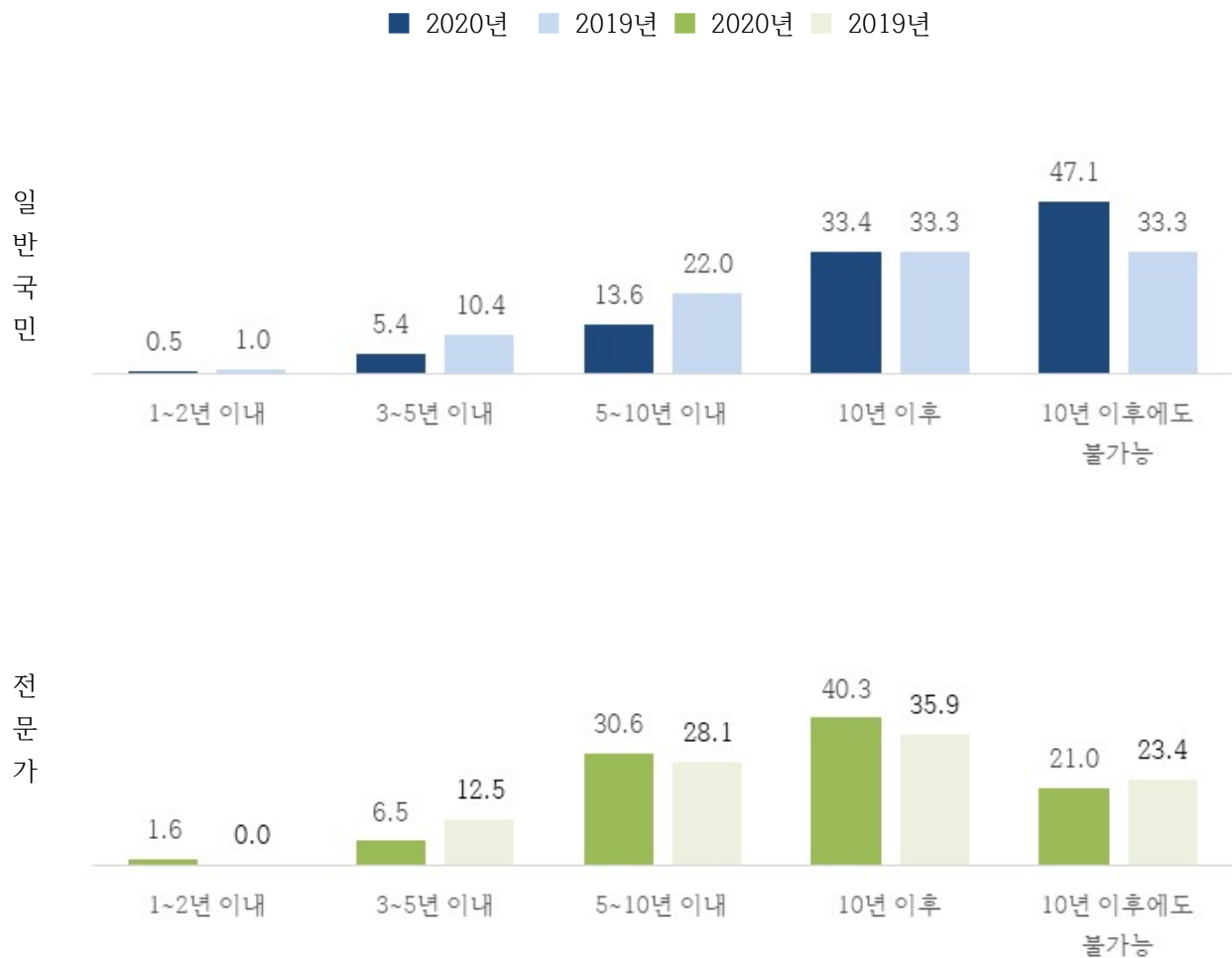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18.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시기에 대해 ‘10년 이후에도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0.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

(단위: 명, %)

		사례수 (명)	1~2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년 이후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전체		(1262)	0.6	5.5	14.4	33.8	45.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5.4	13.6	33.4	47.1
	전문가	(62)	1.6	6.5	30.6	40.3	21.0
소속별	대학	(30)	3.3	3.3	26.7	46.7	20.0
	연구소	(32)	0.0	9.4	34.4	34.4	21.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9	6.3	13.4	32.6	46.7
	중	(497)	0.0	4.6	13.5	34.2	47.7
	하	(136)	0.7	4.4	14.7	33.8	46.3
성별	남성	(720)	0.7	5.4	16.1	29.9	47.9
	여성	(480)	0.2	5.4	9.8	38.8	45.8
연령별	18-29세	(303)	0.0	5.6	15.8	34.7	43.9
	30대	(256)	0.8	7.0	9.8	35.9	46.5
	40대	(314)	0.6	4.1	13.1	32.2	50.0
	50대	(327)	0.6	5.2	15.0	31.5	47.7
지역별	서울	(238)	0.4	2.9	14.7	45.4	36.6
	경기/인천	(393)	0.0	1.8	10.9	38.4	48.9
	대전/세종/충청	(128)	0.8	23.4	23.4	24.2	28.1
	광주/전라	(110)	2.7	8.2	13.6	31.8	43.6
	대구/경북	(109)	0.0	0.0	6.4	28.4	65.1
	부산/울산/경남	(175)	0.0	3.4	12.6	22.3	61.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12.8	23.4	12.8	48.9
	대도시	(551)	0.4	3.8	14.2	36.8	44.8
	중소도시	(608)	0.7	6.6	13.3	30.8	48.7
	군지역	(41)	0.0	9.8	9.8	26.8	53.7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3.3	9.3	36.3	50.5
	블루칼라	(351)	0.3	4.8	12.8	29.1	53.0
	화이트칼라	(409)	1.0	7.8	16.6	32.3	42.3
	전업주부	(163)	0.0	3.1	11.0	43.6	42.3
	학생	(69)	0.0	4.3	15.9	34.8	44.9
	무직/기타	(26)	0.0	7.7	15.4	23.1	5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4.0	11.6	35.3	48.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0	4.5	13.8	34.7	46.9
	4년제 이상	(535)	0.9	6.9	14.8	31.4	46.0
생활 수준별	상	(137)	2.9	8.0	20.4	28.5	40.1
	중	(700)	0.1	5.9	15.4	33.9	44.7
	하	(363)	0.3	3.6	7.4	34.4	54.3

17) 한반도 통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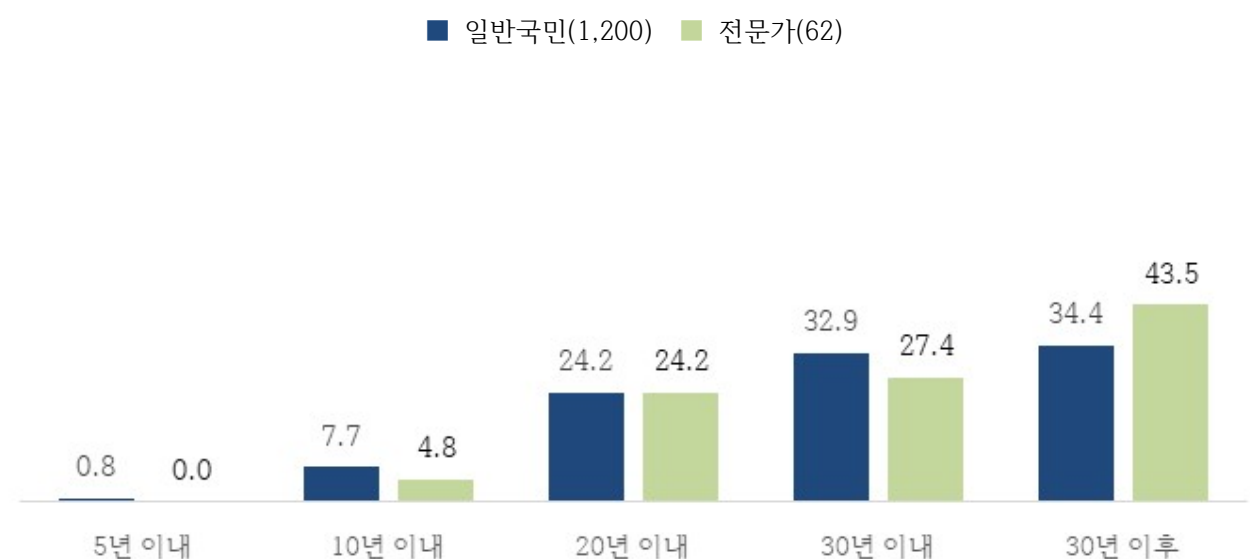
Q.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0년 이후’: 일반국민 34.4%, 전문가 43.5%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년 이내’(32.9%), ‘20년 이내’(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30년 이후’라는 응답은 4.6%p(2019년 29.8%) 증가, ‘30년 이내’라는 응답 또한 4.5%p(2019년 28.7%)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30년 이후’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년 이내’(27.4%), ‘20년 이내’(2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30년 이후’라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43.8%), ‘30년 이내’라는 응답은 7.1%p(2019년 20.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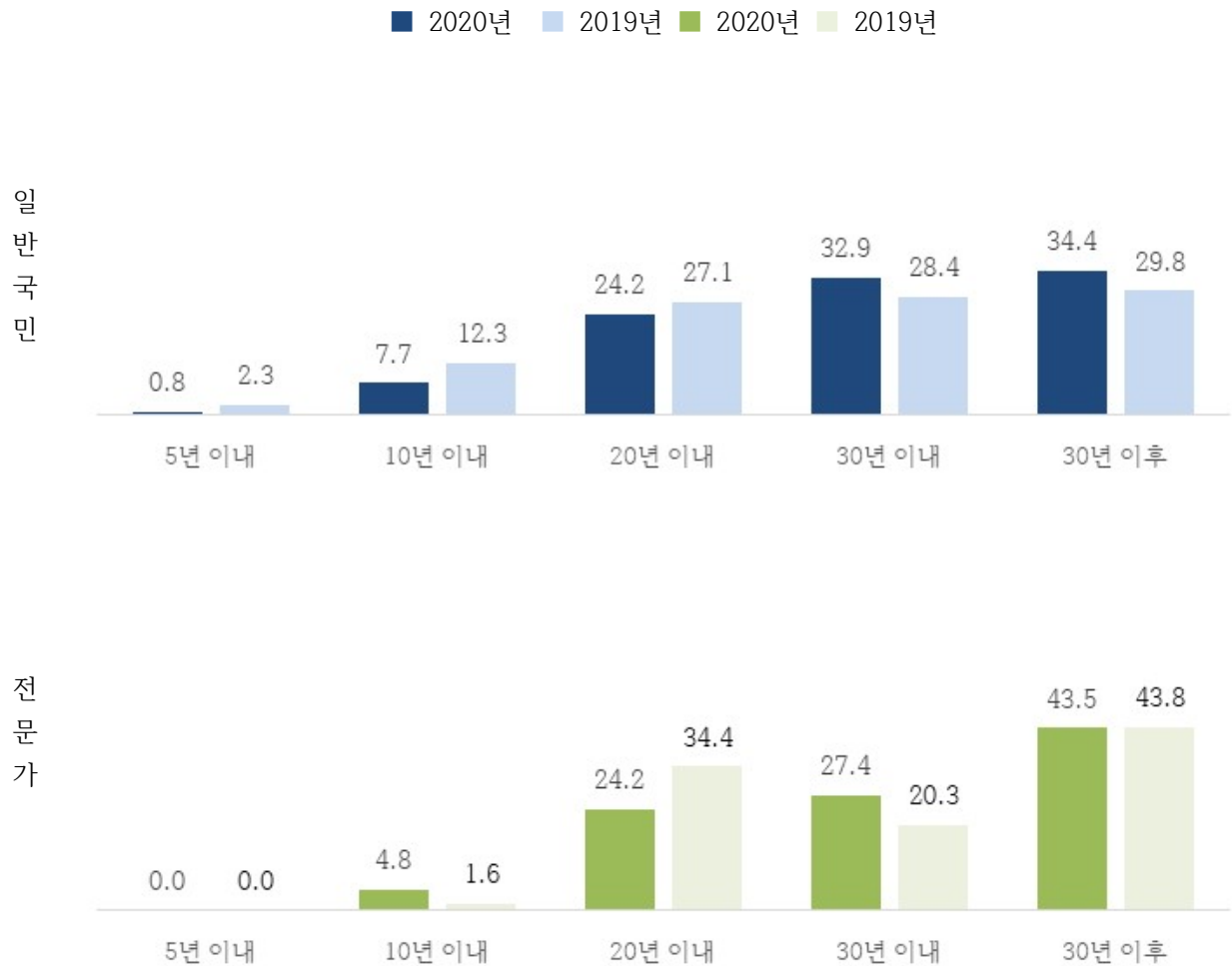
[그림 3-119. 한반도 통일 시기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20. 한반도 통일 시기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61. 한반도 통일 시기

(단위: 명, %)

		사례수 (명)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전체		(1262)	0.8	7.5	24.2	32.6	3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7.7	24.2	32.9	34.4
	전문가	(62)	0.0	4.8	24.2	27.4	43.5
소속별	대학	(30)	0.0	0.0	23.3	36.7	40.0
	연구소	(32)	0.0	9.4	25.0	18.8	46.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9	7.9	24.5	35.4	31.2
	중	(497)	0.6	8.2	22.5	30.8	37.8
	하	(136)	1.5	4.4	28.7	30.1	35.3
성별	남성	(720)	1.0	8.2	24.9	31.7	34.3
	여성	(480)	0.6	6.9	23.1	34.8	34.6
연령별	18-29세	(303)	0.3	10.6	23.4	33.3	32.3
	30대	(256)	2.3	3.1	25.0	30.1	39.5
	40대	(314)	0.6	7.6	22.9	36.6	32.2
	50대	(327)	0.3	8.6	25.4	31.2	34.6
지역별	서울	(238)	2.1	5.5	26.5	36.1	29.8
	경기/인천	(393)	0.3	5.1	28.0	42.0	24.7
	대전/세종/충청	(128)	1.6	21.9	32.0	19.5	25.0
	광주/전라	(110)	0.9	14.5	13.6	33.6	37.3
	대구/경북	(109)	0.0	4.6	20.2	19.3	56.0
	부산/울산/경남	(175)	0.0	1.7	17.7	29.7	50.9
	강원/제주	(47)	2.1	14.9	17.0	19.1	46.8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1.1	8.0	25.0	33.4	32.5
	중소도시	(608)	0.7	7.1	24.3	32.6	35.4
	군지역	(41)	0.0	12.2	9.8	31.7	46.3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5.5	22.0	36.3	35.7
	블루칼라	(351)	0.9	6.8	21.1	31.9	39.3
	화이트칼라	(409)	1.2	10.8	25.9	31.1	31.1
	전업주부	(163)	0.6	3.1	27.6	37.4	31.3
	학생	(69)	0.0	8.7	27.5	30.4	33.3
	무직/기타	(26)	0.0	11.5	23.1	30.8	34.6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6.5	22.6	35.6	35.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0	8.0	20.9	36.0	34.1
	4년제 이상	(535)	1.1	8.2	27.1	29.3	34.2
생활 수준별	상	(137)	0.7	13.9	19.0	27.0	39.4
	중	(700)	0.4	8.4	24.7	34.1	32.3
	하	(363)	1.7	3.9	25.1	32.8	36.6

18) 한반도 통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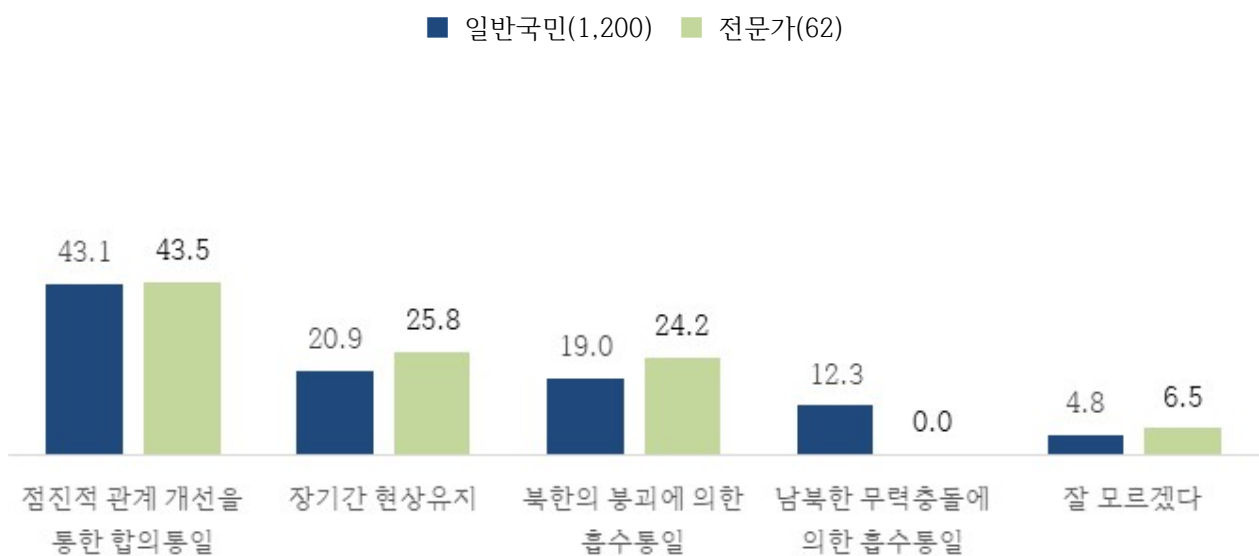
Q.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일반국민 43.1%, 전문가 43.5%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간 현상유지’(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은 3.2%p(2019년 46.3%)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간 현상유지’(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은 20.6%p(2019년 64.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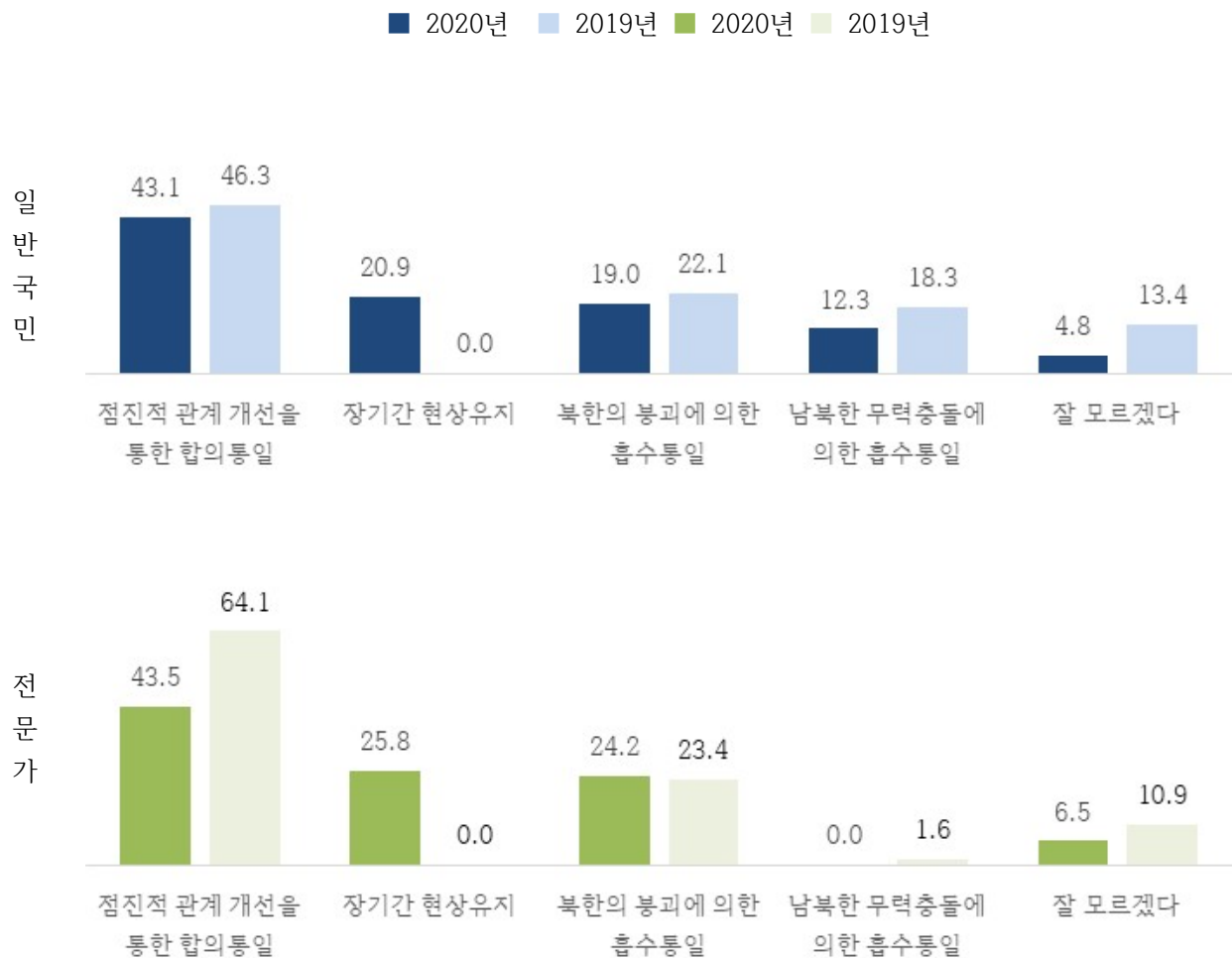
[그림 3-121. 한반도 통일 방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22. 한반도 통일 방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62. 한반도 통일 방식]

(단위: 명, %)

		사례수 (명)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장기간 현상유지	잘 모르겠다
전체		(1262)	19.3	11.6	43.1	21.2	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0	12.3	43.1	20.9	4.8
	전문가	(62)	24.2	0.0	43.5	25.8	6.5
소속별	대학	(30)	16.7	0.0	43.3	33.3	6.7
	연구소	(32)	31.3	0.0	43.8	18.8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1.2	12.0	44.6	19.8	2.5
	중	(497)	17.7	13.1	39.6	22.7	6.8
	하	(136)	14.7	10.3	49.3	19.1	6.6
성별	남성	(720)	22.4	12.6	42.4	19.6	3.1
	여성	(480)	14.0	11.7	44.2	22.9	7.3
연령별	18-29세	(303)	21.5	12.9	42.2	18.8	4.6
	30대	(256)	18.8	13.7	41.0	21.1	5.5
	40대	(314)	17.2	13.1	44.3	22.3	3.2
	50대	(327)	18.7	9.8	44.3	21.4	5.8
지역별	서울	(238)	21.8	11.3	47.5	15.1	4.2
	경기/인천	(393)	16.5	7.4	48.6	25.7	1.8
	대전/세종/충청	(128)	12.5	24.2	45.3	16.4	1.6
	광주/전라	(110)	17.3	15.5	35.5	30.9	0.9
	대구/경북	(109)	22.9	1.8	32.1	28.4	14.7
	부산/울산/경남	(175)	25.7	22.3	32.6	13.1	6.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4.3	51.1	10.6	21.3
	대도시	(551)	19.1	14.7	44.6	18.0	3.6
	중소도시	(608)	19.4	9.9	42.4	23.5	4.8
	군지역	(41)	12.2	14.6	31.7	22.0	19.5
직업별	자영업자	(182)	18.7	9.3	45.1	23.1	3.8
	블루칼라	(351)	19.9	9.7	41.3	24.5	4.6
	화이트칼라	(409)	17.8	14.9	43.0	20.8	3.4
	전업주부	(163)	12.9	14.7	49.1	15.3	8.0
	학생	(69)	31.9	11.6	34.8	14.5	7.2
	무직/기타	(26)	30.8	11.5	38.5	11.5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9.8	9.0	42.9	20.9	7.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5.8	10.9	45.0	24.4	3.9
	4년제 이상	(535)	20.4	15.1	42.1	18.9	3.6
생활 수준별	상	(137)	22.6	19.7	27.7	28.5	1.5
	중	(700)	17.9	13.1	44.3	20.0	4.7
	하	(363)	19.8	7.7	46.6	19.8	6.1

19) 통일비용 지불 의지

Q. 귀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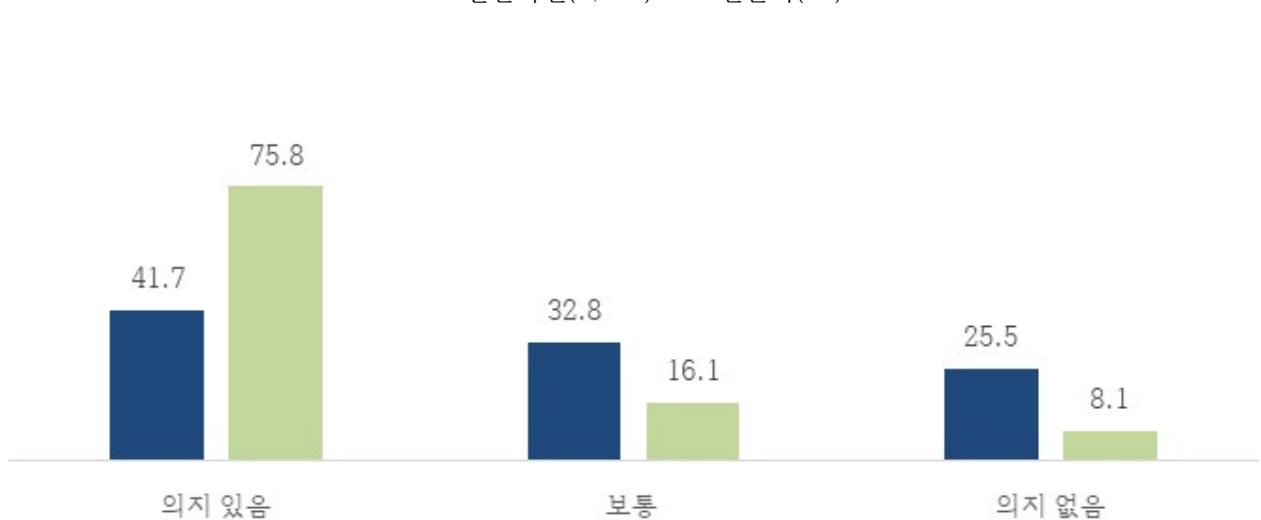
‘의지가 있다’: 일반국민 41.7%, 전문가 75.8%

- **[일반국민]**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41.7%로, ‘의지가 없다’(25.5%)는 응답보다 16.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9.4%p(2019년 32.3%) 증가한 반면, ‘의지가 없다’는 응답 또한 3.7%p(2019년 21.8%)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75.8%로, ‘의지가 없다’(8.1%)는 응답보다 67.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8.6%p(2019년 84.8%) 감소한 반면, ‘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6.5%p(2019년 1.6%) 증가함

[그림 3-123. 통일비용 지불 의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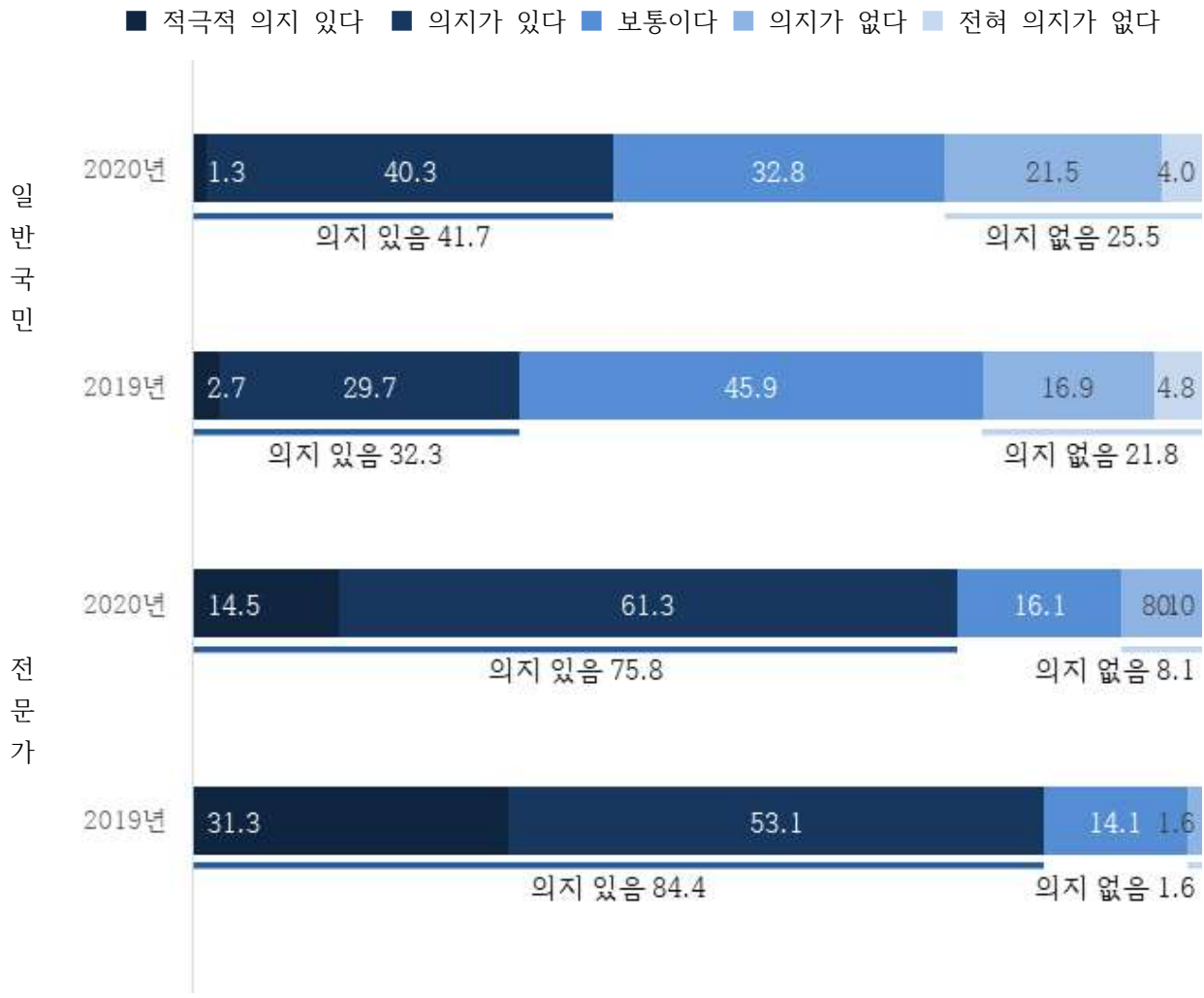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24. 통일비용 지불 의지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63. 통일비용 지불 의지]

(단위: 명, %)

		사례수 (명)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저 그렇다	의지가 없다	전혀 의지가 없다	종합		
								의지 있음	보통	의지 없음
전체		(1262)	2.0	41.4	32.0	20.8	3.8	43.3	32.0	2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40.3	32.8	21.5	4.0	41.7	32.8	25.5
	전문가	(62)	14.5	61.3	16.1	8.1	0.0	75.8	16.1	8.1
소속별	대학	(30)	10.0	63.3	16.7	10.0	0.0	73.3	16.7	10.0
	연구소	(32)	18.8	59.4	15.6	6.3	0.0	78.1	15.6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9	48.1	28.7	18.0	3.2	50.1	28.7	21.2
	중	(497)	1.0	32.8	37.8	24.5	3.8	33.8	37.8	28.4
	하	(136)	0.0	35.3	31.6	25.0	8.1	35.3	31.6	33.1
성별	남성	(720)	1.1	41.9	33.1	20.4	3.5	43.1	33.1	23.9
	여성	(480)	1.7	37.9	32.5	23.1	4.8	39.6	32.5	27.9
연령별	18-29세	(303)	0.3	40.6	32.0	22.4	4.6	40.9	32.0	27.1
	30대	(256)	1.2	39.1	34.4	21.1	4.3	40.2	34.4	25.4
	40대	(314)	1.9	41.7	30.3	23.6	2.5	43.6	30.3	26.1
	50대	(327)	1.8	39.8	34.9	19.0	4.6	41.6	34.9	23.5
지역별	서울	(238)	0.8	38.7	34.9	24.4	1.3	39.5	34.9	25.6
	경기/인천	(393)	2.0	47.3	28.5	19.6	2.5	49.4	28.5	22.1
	대전/세종/충청	(128)	0.8	36.7	46.9	15.6	0.0	37.5	46.9	15.6
	광주/전라	(110)	0.9	57.3	20.0	14.5	7.3	58.2	20.0	21.8
	대구/경북	(109)	1.8	29.4	23.9	29.4	15.6	31.2	23.9	45.0
	부산/울산/경남	(175)	0.0	28.0	43.4	26.9	1.7	28.0	43.4	28.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31.9	31.9	17.0	14.9	36.2	31.9	31.9
	대도시	(551)	1.3	36.8	32.1	25.6	4.2	38.1	32.1	29.8
	중소도시	(608)	1.5	45.1	33.4	16.6	3.5	46.5	33.4	20.1
	군지역	(41)	0.0	17.1	34.1	39.0	9.8	17.1	34.1	48.8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45.6	30.2	20.9	1.6	47.3	30.2	22.5
	블루칼라	(351)	1.1	35.9	34.5	23.1	5.4	37.0	34.5	28.5
	화이트칼라	(409)	1.5	40.8	33.3	20.8	3.7	42.3	33.3	24.4
	전업주부	(163)	1.8	47.2	28.2	19.6	3.1	49.1	28.2	22.7
	학생	(69)	0.0	34.8	36.2	23.2	5.8	34.8	36.2	29.0
	무직/기타	(26)	0.0	26.9	42.3	23.1	7.7	26.9	42.3	30.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	35.9	36.2	22.9	4.0	37.0	36.2	26.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	41.2	32.2	19.6	5.5	42.8	32.2	25.1
	4년제 이상	(535)	1.3	42.8	31.0	21.7	3.2	44.1	31.0	24.9
생활 수준별	상	(137)	2.2	46.0	25.5	19.7	6.6	48.2	25.5	26.3
	중	(700)	1.6	41.1	33.4	20.7	3.1	42.7	33.4	23.9
	하	(363)	0.6	36.6	34.4	23.7	4.7	37.2	34.4	28.4

4.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1)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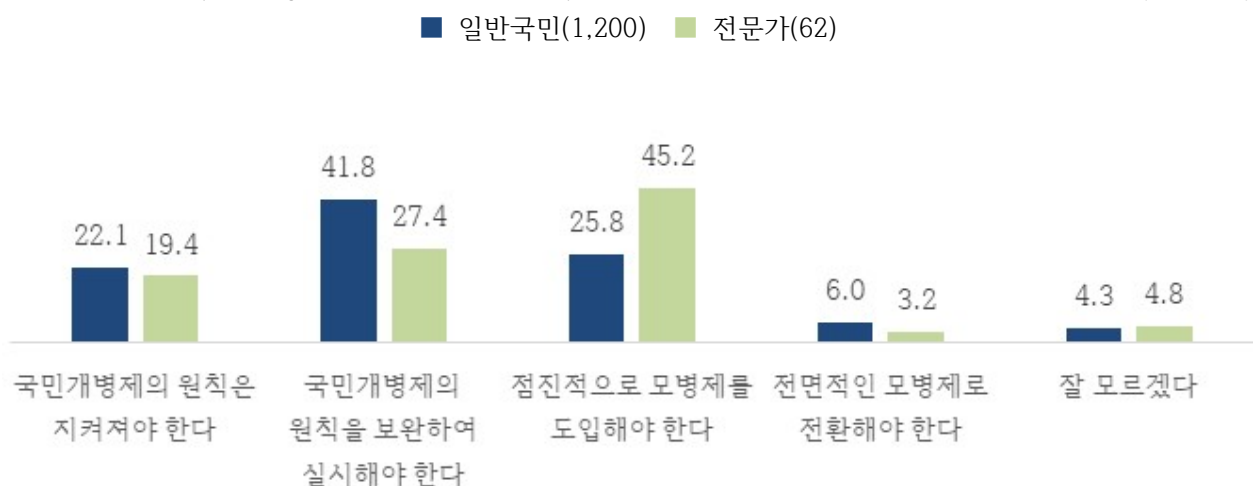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인 국민 개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일반국민 41.8%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문가 45.2%

- [일반국민]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6.9%p(2019년 48.6%) 감소한 반면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0%p(2019년 18.8%) 증가함
- [전문가]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4%p(2019년 43.8%),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p(2019년 23.4%)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25.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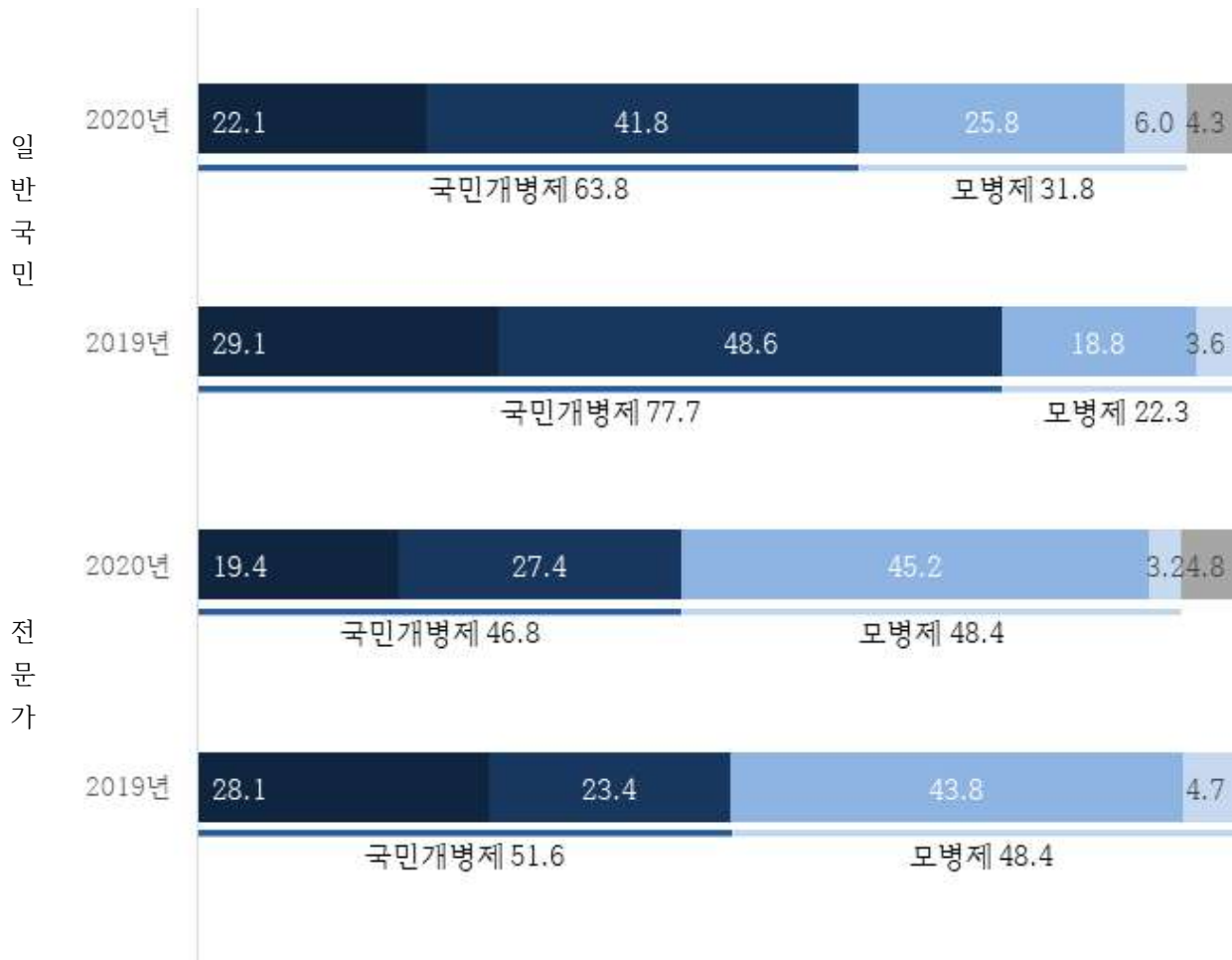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26. 국민 개병제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 국민개병제 원칙은 지켜져야 함 ■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
 ■ 점진적으로 모병제 도입 ■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 ■ 잘 모르겠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으로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업 별로 화이트칼라,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64. 국민개병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국민 개병제 원칙은 자켜져 야 함	국민 개병제 원칙을 보완 하여 실시	점진적 으로 모병제 도입	전면 적인 모병제 전환	잘 모르겠다	종합		
								국민 개병제	모병제	잘 모르 겠다
전체		(1262)	21.9	41.0	26.8	5.9	4.4	63.0	32.6	4.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1	41.8	25.8	6.0	4.3	63.8	31.8	4.3
	전문가	(62)	19.4	27.4	45.2	3.2	4.8	46.8	48.4	4.8
소속별	대학	(30)	20.0	30.0	43.3	3.3	3.3	50.0	46.7	3.3
	연구소	(32)	18.8	25.0	46.9	3.1	6.3	43.8	50.0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5.9	43.9	23.6	3.0	3.5	69.8	26.6	3.5
	중	(497)	19.5	41.0	26.0	8.5	5.0	60.6	34.4	5.0
	하	(136)	15.4	35.3	34.6	9.6	5.1	50.7	44.1	5.1
성별	남성	(720)	22.8	41.9	26.1	6.4	2.8	64.7	32.5	2.8
	여성	(480)	21.0	41.5	25.4	5.4	6.7	62.5	30.8	6.7
연령별	18-29세	(303)	19.8	41.9	27.1	7.3	4.0	61.7	34.3	4.0
	30대	(256)	19.5	44.9	29.7	2.7	3.1	64.5	32.4	3.1
	40대	(314)	19.7	43.0	25.5	7.0	4.8	62.7	32.5	4.8
	50대	(327)	28.4	37.9	22.0	6.4	5.2	66.4	28.4	5.2
지역별	서울	(238)	16.4	39.5	33.6	6.7	3.8	55.9	40.3	3.8
	경기/인천	(393)	26.0	42.7	23.9	3.6	3.8	68.7	27.5	3.8
	대전/세종/충청	(128)	21.9	50.0	21.1	5.5	1.6	71.9	26.6	1.6
	광주/전라	(110)	26.4	41.8	22.7	8.2	0.9	68.2	30.9	0.9
	대구/경북	(109)	15.6	32.1	31.2	8.3	12.8	47.7	39.4	12.8
	부산/울산/경남	(175)	25.1	46.9	20.0	6.3	1.7	72.0	26.3	1.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25.5	31.9	12.8	17.0	38.3	44.7	17.0
	대도시	(551)	16.4	42.8	32.2	5.1	3.5	59.2	37.3	3.5
	중소도시	(608)	26.2	41.5	21.1	5.9	5.2	67.7	27.0	5.2
	군지역	(41)	36.6	31.7	9.8	19.5	2.4	68.3	29.3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29.7	38.5	24.7	3.8	3.3	68.1	28.6	3.3
	블루칼라	(351)	21.7	40.2	25.1	8.5	4.6	61.8	33.6	4.6
	화이트칼라	(409)	21.0	46.5	26.7	3.2	2.7	67.5	29.8	2.7
	전업주부	(163)	20.2	39.9	26.4	4.9	8.6	60.1	31.3	8.6
	학생	(69)	17.4	37.7	27.5	13.0	4.3	55.1	40.6	4.3
	무직/기타	(26)	15.4	34.6	23.1	19.2	7.7	50.0	42.3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4.9	35.6	24.3	6.5	8.8	60.5	30.8	8.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2.2	39.2	28.0	6.8	3.9	61.4	34.7	3.9
	4년제 이상	(535)	20.2	47.3	25.6	5.2	1.7	67.5	30.8	1.7
생활 수준별	상	(137)	24.8	46.7	19.7	5.8	2.9	71.5	25.5	2.9
	중	(700)	22.4	39.7	27.3	7.0	3.6	62.1	34.3	3.6
	하	(363)	20.4	43.8	25.3	4.1	6.3	64.2	29.5	6.3

2)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Q. 귀하는 현재 병무 부조리가 이전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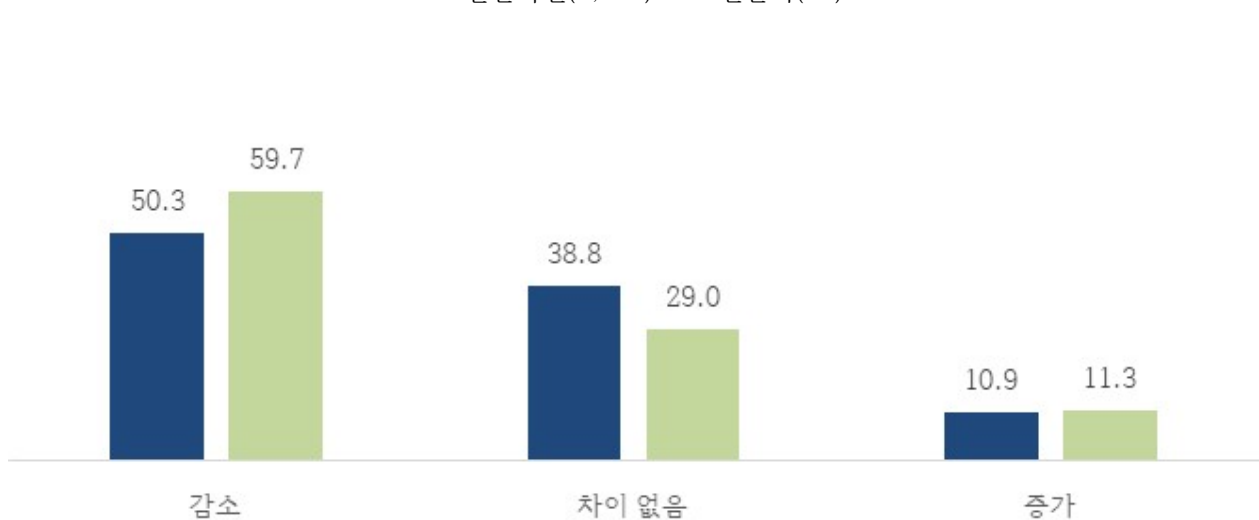
‘줄어든 것 같다’: 일반국민 50.3%, 전문가 59.7%

- [일반국민]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이 50.3%로, ‘많아진 것 같다’(10.9%)는 응답보다 39.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은 2.5%p(2019년 47.8%),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은 0.5%p(2019년 10.9%)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이 59.7%로, ‘많아진 것 같다’(11.3%)는 응답보다 48.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은 16.9%p(2019년 76.6%) 감소한 반면, ‘많아진 것 같다’는 응답은 9.7%p(2019년 1.6%) 증가함

[그림 3-127.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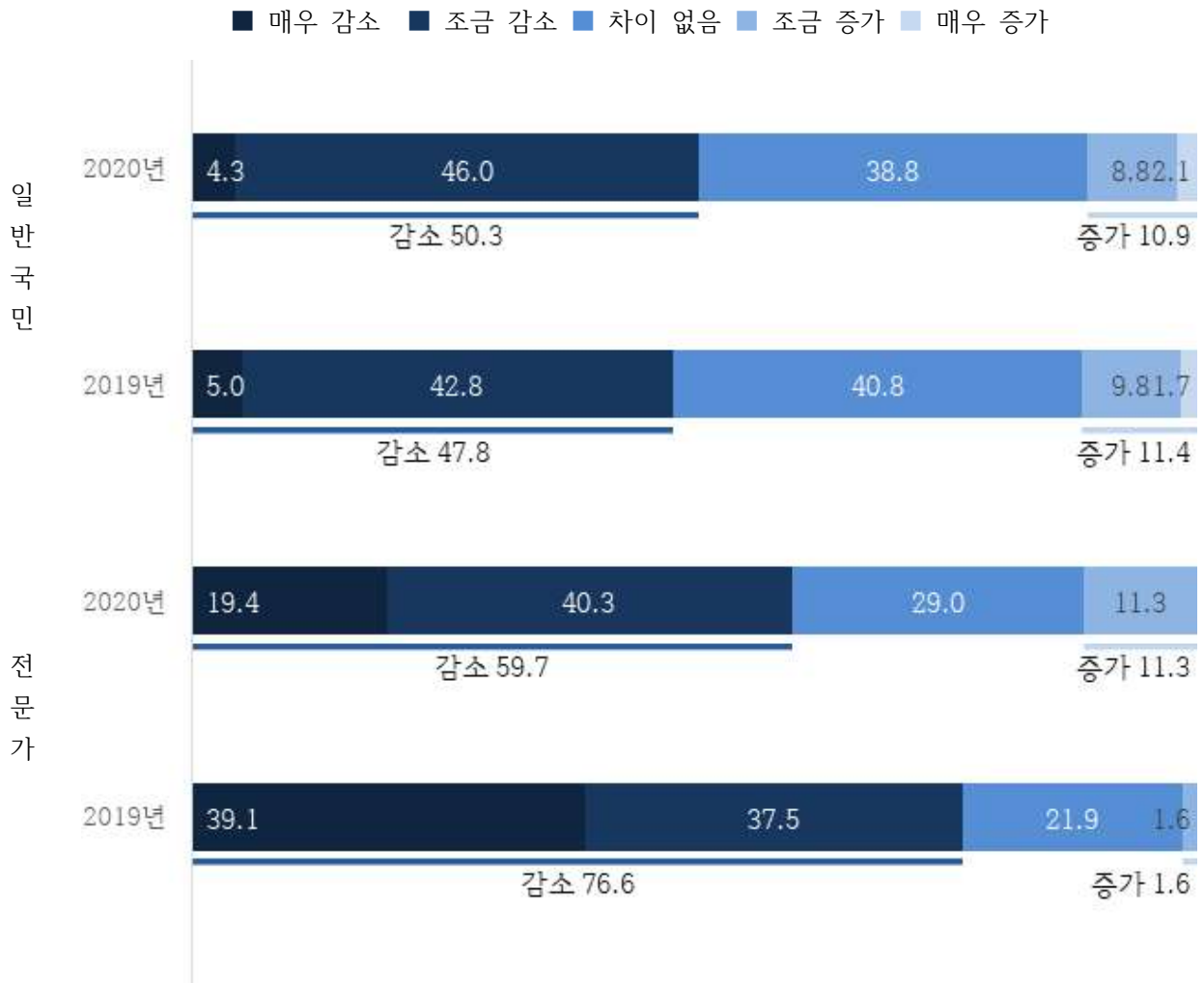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28.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에 대해 ‘줄어든 것 같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65.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단위: 명, %)

		사례수 (명)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별 차이가 없다	조금 많아진 것 같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	종합		
								감소	차이 없음	증가
전체		(1262)	5.1	45.7	38.3	9.0	2.0	50.8	38.3	10.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	46.0	38.8	8.8	2.1	50.3	38.8	10.9
	전문가	(62)	19.4	40.3	29.0	11.3	0.0	59.7	29.0	11.3
소속별	대학	(30)	20.0	40.0	33.3	6.7	0.0	60.0	33.3	6.7
	연구소	(32)	18.8	40.6	25.0	15.6	0.0	59.4	25.0	15.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5	47.8	35.8	8.1	2.8	53.3	35.8	10.9
	중	(497)	3.4	44.7	41.6	8.9	1.4	48.1	41.6	10.3
	하	(136)	2.9	43.4	40.4	11.8	1.5	46.3	40.4	13.2
성별	남성	(720)	4.9	47.5	37.9	7.8	1.9	52.4	37.9	9.7
	여성	(480)	3.5	43.8	40.0	10.4	2.3	47.3	40.0	12.7
연령별	18-29세	(303)	3.3	46.5	38.0	8.9	3.3	49.8	38.0	12.2
	30대	(256)	2.0	46.1	41.8	8.2	2.0	48.0	41.8	10.2
	40대	(314)	4.8	45.2	39.5	9.2	1.3	50.0	39.5	10.5
	50대	(327)	6.7	46.2	36.4	8.9	1.8	52.9	36.4	10.7
지역별	서울	(238)	2.9	50.0	44.5	2.5	0.0	52.9	44.5	2.5
	경기/인천	(393)	4.6	45.8	34.1	12.2	3.3	50.4	34.1	15.5
	대전/세종/충청	(128)	1.6	43.0	50.0	4.7	0.8	44.5	50.0	5.5
	광주/전라	(110)	0.9	53.6	35.5	8.2	1.8	54.5	35.5	10.0
	대구/경북	(109)	15.6	33.0	32.1	13.8	5.5	48.6	32.1	19.3
	부산/울산/경남	(175)	1.7	51.4	38.3	8.0	0.6	53.1	38.3	8.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27.7	42.6	17.0	4.3	36.2	42.6	21.3
	대도시	(551)	4.7	48.1	38.8	7.4	0.9	52.8	38.8	8.3
	중소도시	(608)	4.1	44.7	38.5	9.5	3.1	48.8	38.5	12.7
	군지역	(41)	2.4	36.6	41.5	17.1	2.4	39.0	41.5	19.5
직업별	자영업자	(182)	7.7	46.2	36.3	9.9	0.0	53.8	36.3	9.9
	블루칼라	(351)	6.0	44.4	39.6	8.3	1.7	50.4	39.6	10.0
	화이트칼라	(409)	2.7	48.2	37.9	8.6	2.7	50.9	37.9	11.2
	전업주부	(163)	1.8	45.4	38.7	11.7	2.5	47.2	38.7	14.1
	학생	(69)	2.9	44.9	42.0	4.3	5.8	47.8	42.0	10.1
	무직/기타	(26)	3.8	38.5	50.0	7.7	0.0	42.3	50.0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6.5	43.5	37.6	11.3	1.1	50.0	37.6	12.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2	45.3	39.9	8.0	2.6	49.5	39.9	10.6
	4년제 이상	(535)	3.0	48.0	38.9	7.7	2.4	51.0	38.9	10.1
생활 수준별	상	(137)	4.4	48.2	33.6	10.9	2.9	52.6	33.6	13.9
	중	(700)	4.4	47.4	36.7	9.4	2.0	51.9	36.7	11.4
	하	(363)	4.1	42.4	44.6	6.9	1.9	46.6	44.6	8.8

3)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Q. 귀하는 현재 군 내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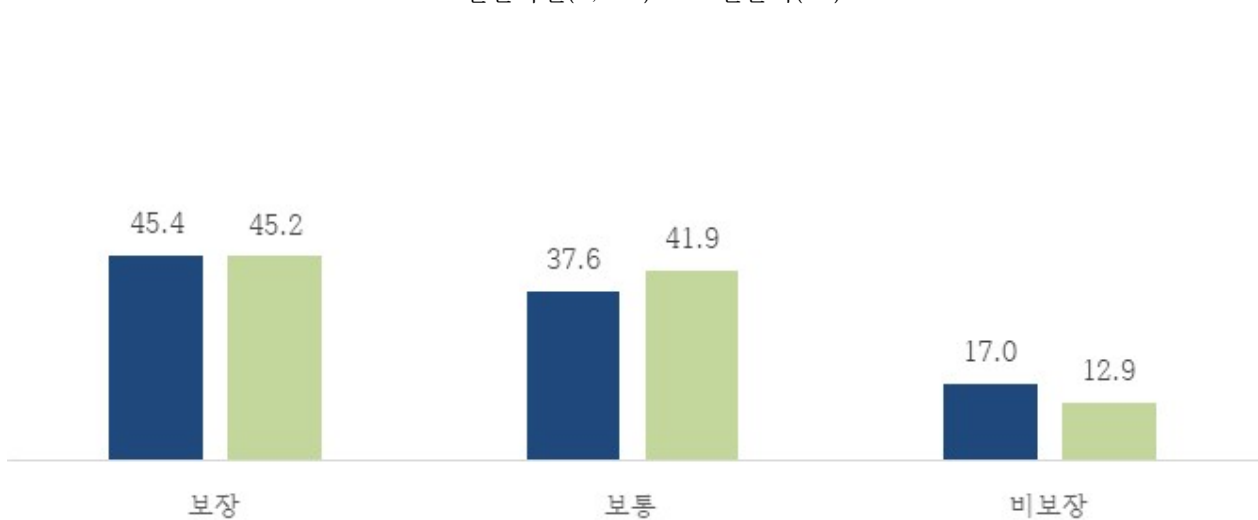
‘보장된다’: 일반국민 45.4%, 전문가 45.2%

- [일반국민]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이 45.4%로, ‘보장되지 않는다’(17.0%)는 응답보다 28.4%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보장된다’는 응답은 2.2%p(2019년 43.2%) 증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p(2019년 17.8%)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보장된다’는 응답이 45.2%로, ‘보장되지 않는다’(12.9%)는 응답보다 32.3%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보장된다’는 응답은 1.4%p(2019년 43.8%) 증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p(2019년 17.2%)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29.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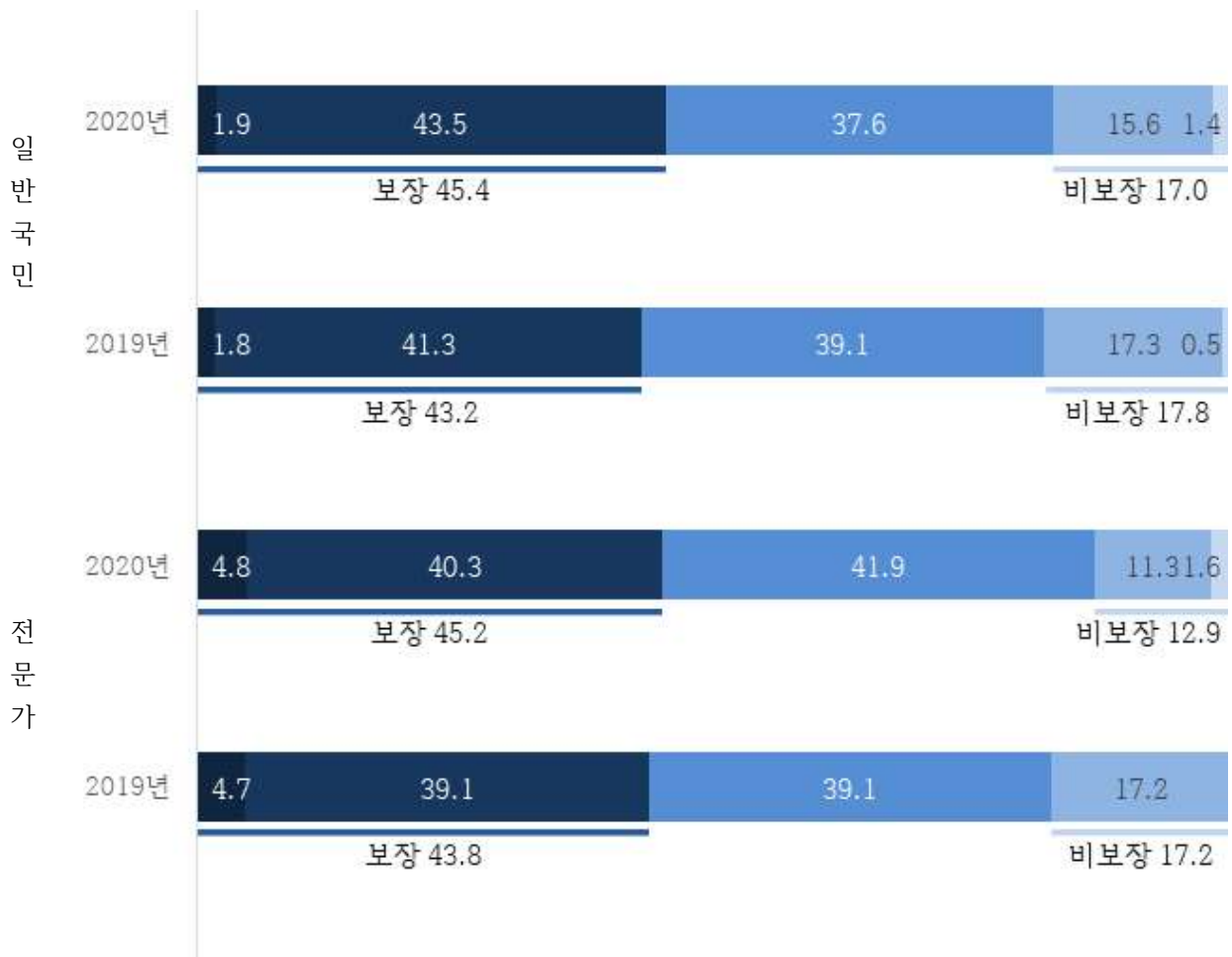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30.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잘 보장 ■ 잘 보장되는 편 ■ 보통이다 ■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 ■ 전혀 보장되지 않음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6. 군 내의 인권 보장 정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잘 보장 되고 있다	잘 보장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보장 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종합		
								보장	보통	비보장
전체		(1262)	2.1	43.3	37.8	15.4	1.4	45.4	37.8	16.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	43.5	37.6	15.6	1.4	45.4	37.6	17.0
	전문가	(62)	4.8	40.3	41.9	11.3	1.6	45.2	41.9	12.9
소속별	대학	(30)	0.0	46.7	40.0	13.3	0.0	46.7	40.0	13.3
	연구소	(32)	9.4	34.4	43.8	9.4	3.1	43.8	43.8	12.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3	49.6	31.2	15.3	1.6	51.9	31.2	16.9
	중	(497)	1.4	37.4	45.7	14.3	1.2	38.8	45.7	15.5
	하	(136)	2.2	40.4	34.6	21.3	1.5	42.6	34.6	22.8
성별	남성	(720)	2.1	41.7	39.4	15.3	1.5	43.8	39.4	16.8
	여성	(480)	1.7	46.3	34.8	16.0	1.3	47.9	34.8	17.3
연령별	18-29세	(303)	0.7	44.9	32.3	19.5	2.6	45.5	32.3	22.1
	30대	(256)	2.0	43.4	37.9	14.8	2.0	45.3	37.9	16.8
	40대	(314)	1.6	39.2	43.0	15.6	0.6	40.8	43.0	16.2
	50대	(327)	3.4	46.5	37.0	12.5	0.6	49.8	37.0	13.1
지역별	서울	(238)	2.5	48.7	35.3	13.4	0.0	51.3	35.3	13.4
	경기/인천	(393)	2.8	43.3	32.1	20.9	1.0	46.1	32.1	21.9
	대전/세종/충청	(128)	0.0	47.7	44.5	7.8	0.0	47.7	44.5	7.8
	광주/전라	(110)	1.8	61.8	31.8	2.7	1.8	63.6	31.8	4.5
	대구/경북	(109)	0.9	22.9	48.6	22.0	5.5	23.9	48.6	27.5
	부산/울산/경남	(175)	0.6	41.1	41.7	16.0	0.6	41.7	41.7	16.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21.3	48.9	17.0	8.5	25.5	48.9	25.5
	대도시	(551)	1.8	42.6	38.8	15.2	1.5	44.5	38.8	16.7
	중소도시	(608)	2.0	44.4	36.2	16.1	1.3	46.4	36.2	17.4
	군지역	(41)	2.4	41.5	41.5	12.2	2.4	43.9	41.5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49.5	35.2	13.7	0.5	50.5	35.2	14.3
	블루칼라	(351)	2.3	42.2	39.6	15.1	0.9	44.4	39.6	16.0
	화이트칼라	(409)	1.5	42.3	40.3	14.4	1.5	43.8	40.3	15.9
	전업주부	(163)	3.1	46.6	31.9	17.2	1.2	49.7	31.9	18.4
	학생	(69)	2.9	34.8	33.3	21.7	7.2	37.7	33.3	29.0
	무직/기타	(26)	0.0	42.3	30.8	26.9	0.0	42.3	30.8	26.9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8	45.8	35.0	15.8	0.6	48.6	35.0	16.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9	40.5	41.5	14.1	1.9	42.4	41.5	16.1
	4년제 이상	(535)	1.3	43.7	37.0	16.3	1.7	45.0	37.0	17.9
생활 수준별	상	(137)	3.6	48.2	35.8	8.0	4.4	51.8	35.8	12.4
	중	(700)	1.1	44.6	38.3	15.4	0.6	45.7	38.3	16.0
	하	(363)	2.8	39.7	36.9	18.7	1.9	42.4	36.9	20.7

4)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Q. 귀하는 현재 군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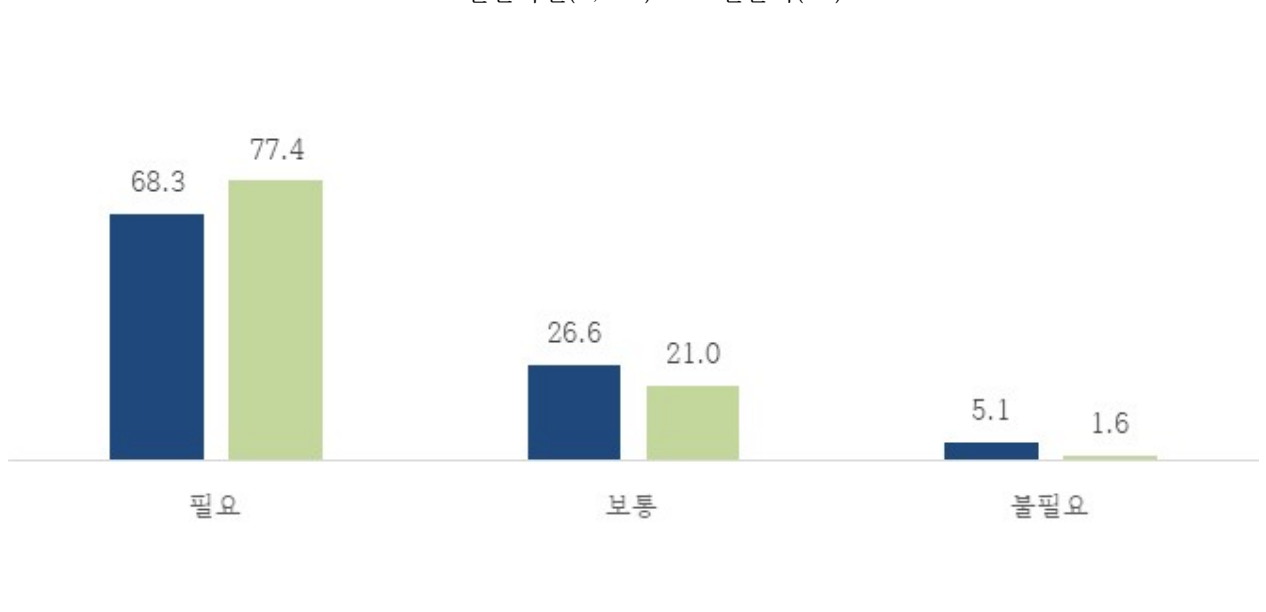
‘필요하다’: 일반국민 68.3%, 전문가 77.4%

- [일반국민] 군 내 인권 보호 정책 강화에 대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필요하지 않다’(5.1%)는 응답보다 63.2%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4%로, ‘필요하지 않다’(1.6%)는 응답보다 75.8%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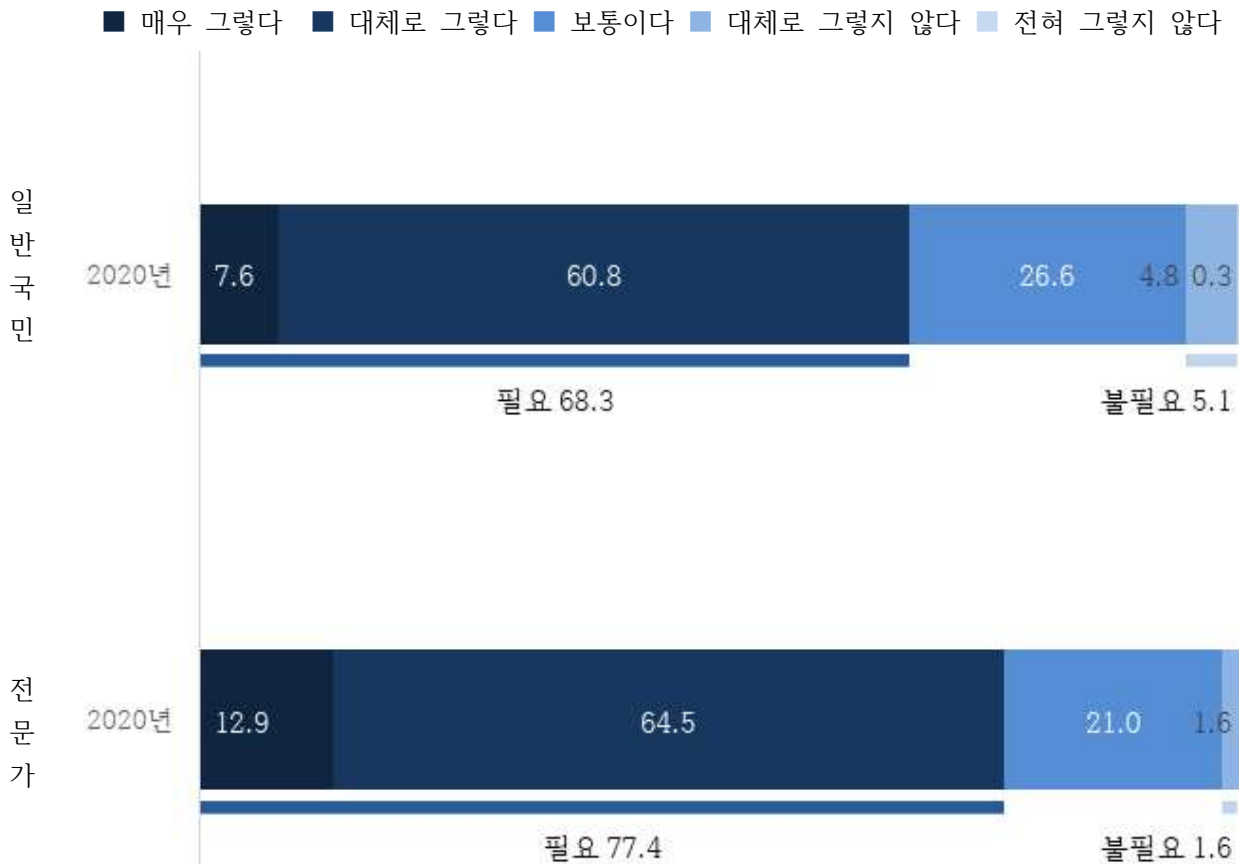
[그림 3-131.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32.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군 내 인권 보호 정책 강화에 대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 수록,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67. 군내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전체		(1262)	7.8	60.9	26.3	4.7	0.2	68.8	26.3	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6	60.8	26.6	4.8	0.3	68.3	26.6	5.1
	전문가	(62)	12.9	64.5	21.0	1.6	0.0	77.4	21.0	1.6
소속별	대학	(30)	13.3	63.3	20.0	3.3	0.0	76.7	20.0	3.3
	연구소	(32)	12.5	65.6	21.9	0.0	0.0	78.1	21.9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8.8	63.8	23.3	3.7	0.4	72.7	23.3	4.1
	중	(497)	5.6	59.8	30.6	4.0	0.0	65.4	30.6	4.0
	하	(136)	9.6	51.5	25.7	12.5	0.7	61.0	25.7	13.2
성별	남성	(720)	7.8	59.7	26.8	5.6	0.1	67.5	26.8	5.7
	여성	(480)	7.3	62.3	26.3	3.8	0.4	69.6	26.3	4.2
연령별	18-29세	(303)	10.9	60.1	23.8	5.3	0.0	71.0	23.8	5.3
	30대	(256)	7.8	57.8	29.3	4.7	0.4	65.6	29.3	5.1
	40대	(314)	5.4	61.5	27.1	5.7	0.3	66.9	27.1	6.1
	50대	(327)	6.4	63.0	26.6	3.7	0.3	69.4	26.6	4.0
지역별	서울	(238)	4.6	62.6	29.8	2.9	0.0	67.2	29.8	2.9
	경기/인천	(393)	11.7	62.8	20.9	4.6	0.0	74.6	20.9	4.6
	대전/세종/충청	(128)	0.0	61.7	35.2	3.1	0.0	61.7	35.2	3.1
	광주/전라	(110)	4.5	73.6	20.0	1.8	0.0	78.2	20.0	1.8
	대구/경북	(109)	20.2	57.8	17.4	4.6	0.0	78.0	17.4	4.6
	부산/울산/경남	(175)	2.3	49.1	39.4	9.1	0.0	51.4	39.4	9.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51.1	23.4	12.8	6.4	57.4	23.4	19.1
	대도시	(551)	6.7	58.3	28.7	5.8	0.5	65.0	28.7	6.4
	중소도시	(608)	8.4	63.7	24.2	3.8	0.0	72.0	24.2	3.8
	군지역	(41)	7.3	51.2	34.1	7.3	0.0	58.5	34.1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6.6	63.2	26.4	3.8	0.0	69.8	26.4	3.8
	블루칼라	(351)	6.8	60.4	27.9	4.8	0.0	67.2	27.9	4.8
	화이트칼라	(409)	6.6	63.1	25.2	4.9	0.2	69.7	25.2	5.1
	전업주부	(163)	8.6	62.0	23.9	4.3	1.2	70.6	23.9	5.5
	학생	(69)	14.5	46.4	30.4	8.7	0.0	60.9	30.4	8.7
	무직/기타	(26)	15.4	42.3	38.5	3.8	0.0	57.7	38.5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6.2	64.1	24.3	5.4	0.0	70.3	24.3	5.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6.8	55.3	31.8	5.1	1.0	62.1	31.8	6.1
	4년제 이상	(535)	9.0	61.7	25.0	4.3	0.0	70.7	25.0	4.3
생활 수준별	상	(137)	10.2	59.1	22.6	7.3	0.7	69.3	22.6	8.0
	중	(700)	5.6	63.9	25.4	5.0	0.1	69.4	25.4	5.1
	하	(363)	10.5	55.4	30.3	3.6	0.3	65.8	30.3	3.9

5.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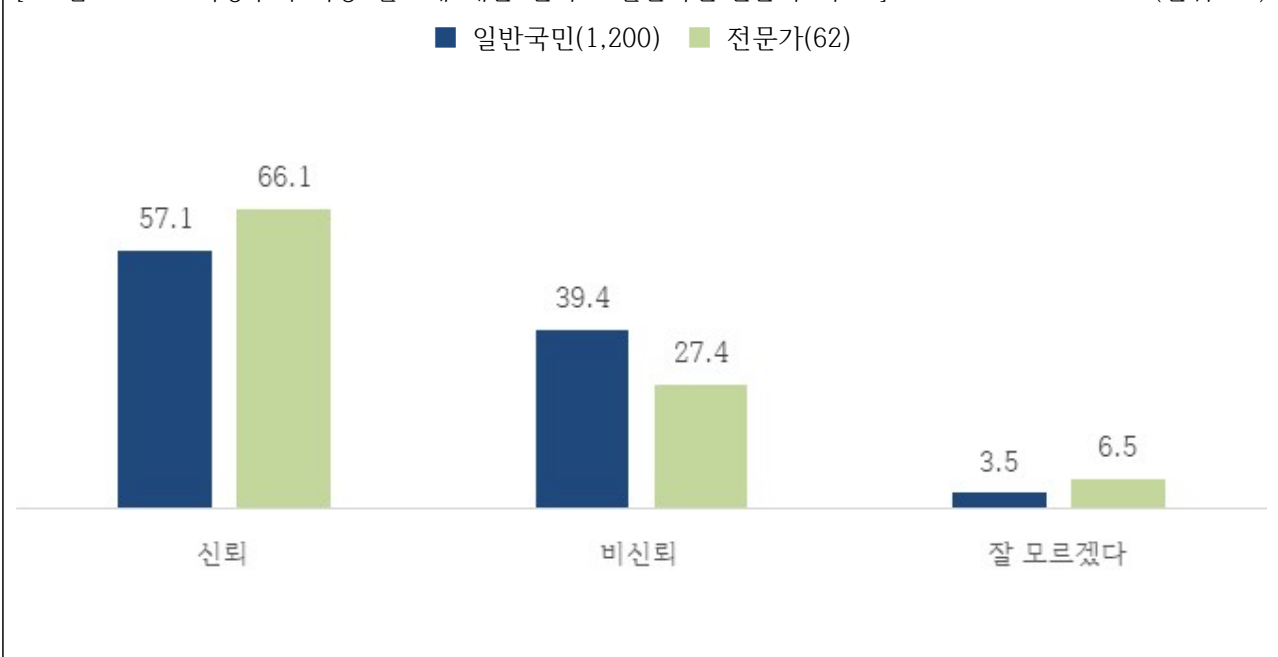
Q.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신뢰한다’: 일반국민 57.1%, 전문가 66.1%

- [일반국민]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7.1%로, ‘신뢰하지 않는다’(39.4%)는 응답보다 17.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9%p(2019년 47.2%)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p(2019년 48.4%) 감소함
- [전문가] ‘신뢰한다’는 응답이 66.1%로, ‘신뢰하지 않는다’(27.4%)는 응답보다 38.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8%p(2019년 45.3%)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4%p(2019년 43.8%) 감소함

[그림 3-133.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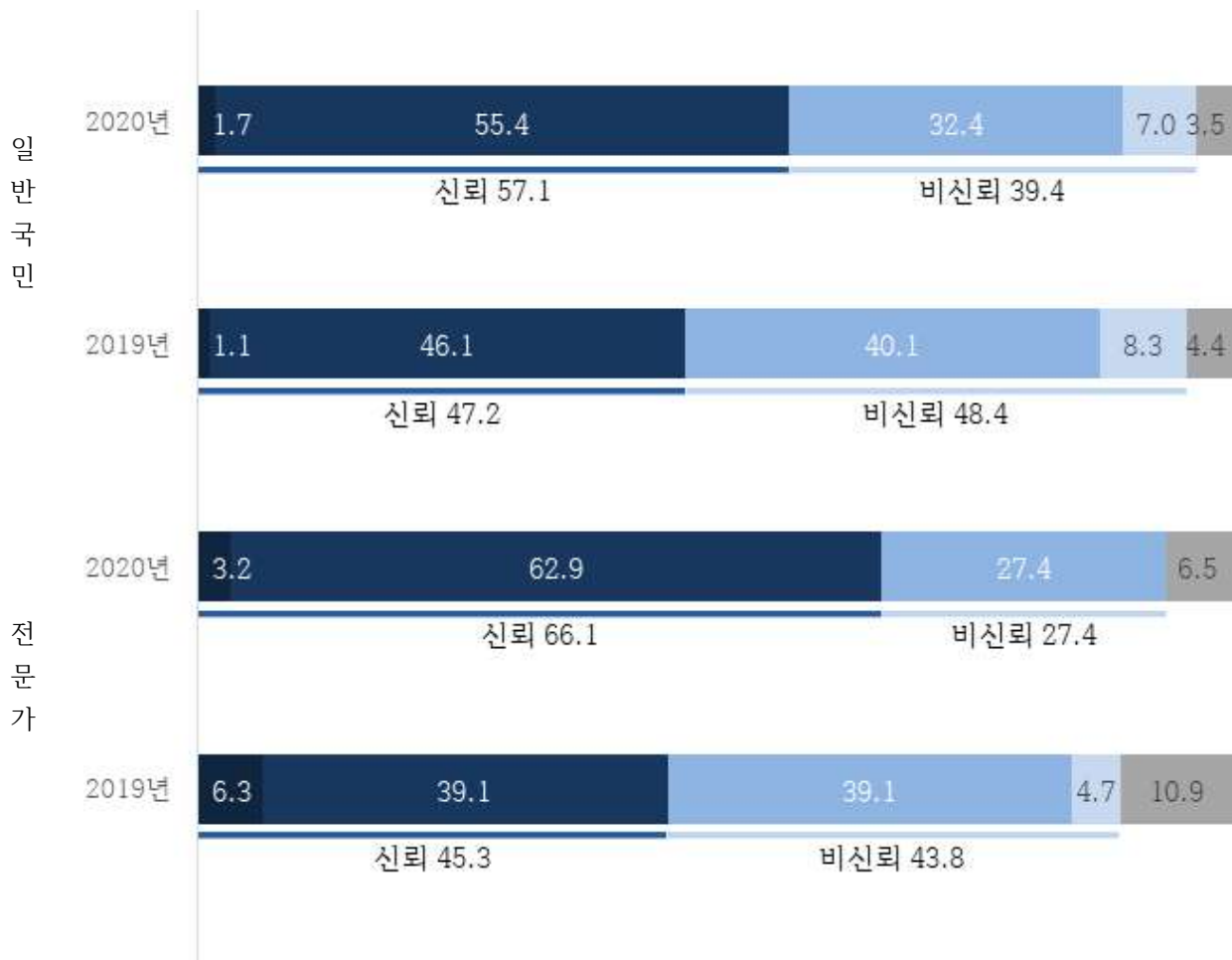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34.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신뢰 ■ 신뢰하는 편이다 ■ 신뢰하지 않는 편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잘 모르겠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전업주부, 생활수준별로 '중'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68.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신뢰 한다	신뢰 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종합		
								신뢰	비신뢰	잘 모르 겠다
전체		(1262)	1.7	55.8	32.2	6.7	3.6	57.5	38.8	3.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55.4	32.4	7.0	3.5	57.1	39.4	3.5
	전문가	(62)	3.2	62.9	27.4	0.0	6.5	66.1	27.4	6.5
소속별	대학	(30)	3.3	63.3	26.7	0.0	6.7	66.7	26.7	6.7
	연구소	(32)	3.1	62.5	28.1	0.0	6.3	65.6	28.1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9	63.1	25.9	5.3	3.7	65.1	31.2	3.7
	중	(497)	1.8	49.7	37.4	7.8	3.2	51.5	45.3	3.2
	하	(136)	0.0	44.1	41.2	11.0	3.7	44.1	52.2	3.7
성별	남성	(720)	1.7	55.3	32.8	8.1	2.2	56.9	40.8	2.2
	여성	(480)	1.7	55.6	31.9	5.4	5.4	57.3	37.3	5.4
연령별	18-29세	(303)	2.0	51.5	33.7	8.6	4.3	53.5	42.2	4.3
	30대	(256)	1.2	53.1	34.4	7.0	4.3	54.3	41.4	4.3
	40대	(314)	1.9	56.1	33.8	5.4	2.9	58.0	39.2	2.9
	50대	(327)	1.5	60.2	28.4	7.0	2.8	61.8	35.5	2.8
지역별	서울	(238)	0.8	55.5	37.0	3.8	2.9	56.3	40.8	2.9
	경기/인천	(393)	3.6	62.8	26.0	3.3	4.3	66.4	29.3	4.3
	대전/세종/충청	(128)	0.8	59.4	37.5	2.3	0.0	60.2	39.8	0.0
	광주/전라	(110)	2.7	70.9	18.2	8.2	0.0	73.6	26.4	0.0
	대구/경북	(109)	0.0	28.4	44.0	20.2	7.3	28.4	64.2	7.3
	부산/울산/경남	(175)	0.0	49.1	37.7	11.4	1.7	49.1	49.1	1.7
	강원/제주	(47)	0.0	31.9	36.2	17.0	14.9	31.9	53.2	14.9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7	53.2	35.9	7.8	2.4	53.9	43.7	2.4
	중소도시	(608)	2.5	57.7	29.5	5.7	4.6	60.2	35.2	4.6
	군지역	(41)	2.4	51.2	29.3	14.6	2.4	53.7	43.9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53.8	37.9	6.0	1.6	54.4	44.0	1.6
	블루칼라	(351)	2.3	46.4	36.8	9.7	4.8	48.7	46.4	4.8
	화이트칼라	(409)	2.2	60.4	29.1	5.9	2.4	62.6	35.0	2.4
	전업주부	(163)	1.2	66.3	24.5	3.1	4.9	67.5	27.6	4.9
	학생	(69)	0.0	55.1	30.4	10.1	4.3	55.1	40.6	4.3
	무직/기타	(26)	0.0	42.3	42.3	11.5	3.8	42.3	53.8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	55.9	32.8	6.5	3.7	57.1	39.3	3.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3	52.1	34.1	8.4	3.2	54.3	42.4	3.2
	4년제 이상	(535)	1.7	57.0	31.2	6.5	3.6	58.7	37.8	3.6
생활 수준별	상	(137)	0.7	56.2	28.5	11.7	2.9	56.9	40.1	2.9
	중	(700)	2.4	60.0	29.9	5.7	2.0	62.4	35.6	2.0
	하	(363)	0.6	46.3	38.8	7.7	6.6	46.8	46.6	6.6

2)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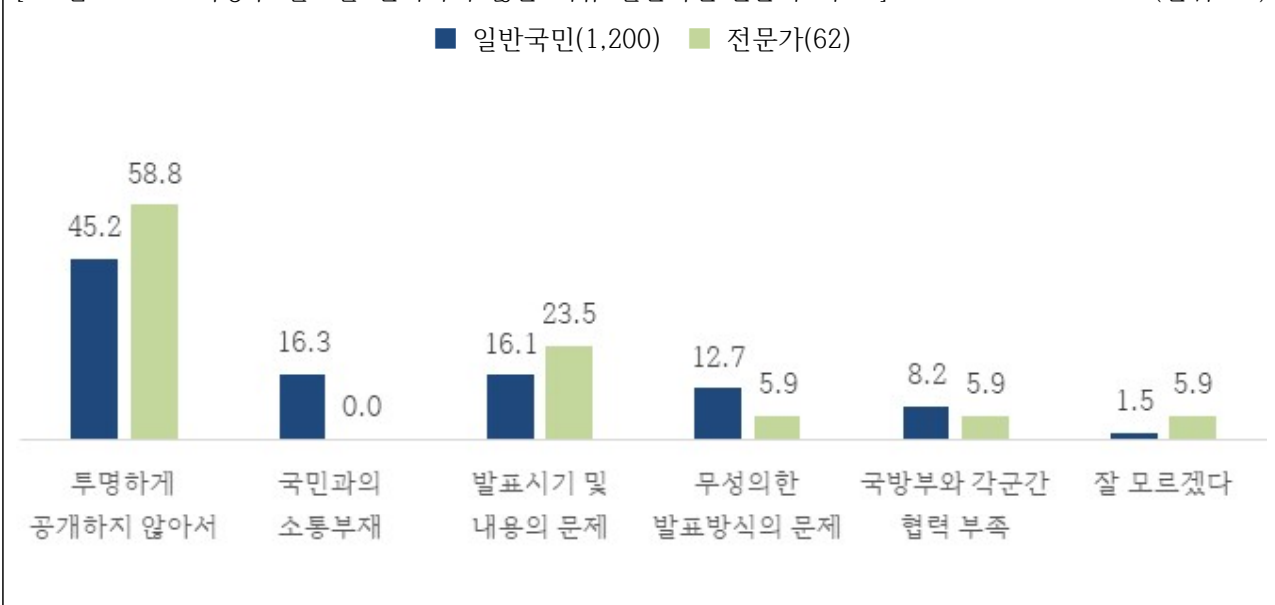
Q. 귀하가 국방부의 각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일반국민 45.2%. 전문가 58.8%

- [일반국민]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부재’(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8.2%p(2019년 27.0%) 증가한 반면, ‘국민과의 소통부재’라는 응답은 4.9%p(2019년 21.2%)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6.2%p(2019년 75.0%) 감소한 반면,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라는 응답은 9.2%p(2019년 14.3%)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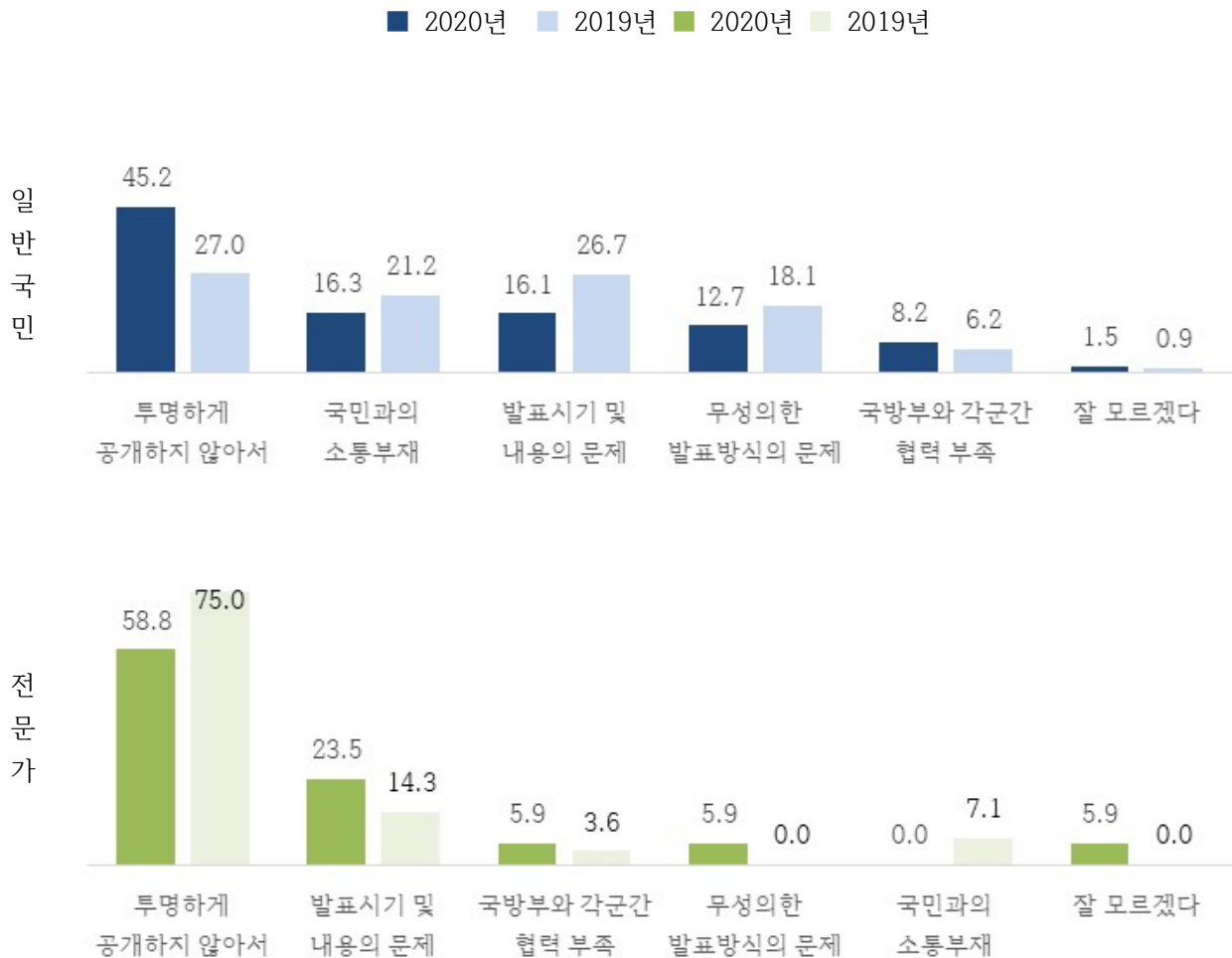
[그림 3-135.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36.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와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최종 학력별로 고졸 이하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69. 국방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명)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국민과의 소통부재	무성익한 발표방식 의 문제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잘 모르겠다
전체		(490)	45.7	16.3	15.7	12.4	8.2	1.6
대상별	일반국민	(473)	45.2	16.1	16.3	12.7	8.2	1.5
	전문가	(17)	58.8	23.5	0.0	5.9	5.9	5.9
소속별	대학	(8)	50.0	37.5	0.0	12.5	0.0	0.0
	연구소	(9)	66.7	11.1	0.0	0.0	11.1	11.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177)	45.2	16.9	16.4	10.7	8.5	2.3
	중	(225)	48.0	14.7	16.0	12.0	8.0	1.3
	하	(71)	36.6	18.3	16.9	19.7	8.5	0.0
성별	남성	(294)	44.9	16.7	19.0	9.5	8.5	1.4
	여성	(179)	45.8	15.1	11.7	17.9	7.8	1.7
연령별	18-29세	(128)	41.4	12.5	18.8	17.2	10.2	0.0
	30대	(106)	40.6	18.9	19.8	11.3	8.5	0.9
	40대	(123)	49.6	13.0	13.0	11.4	9.8	3.3
	50대	(116)	49.1	20.7	13.8	10.3	4.3	1.7
지역별	서울	(97)	41.2	24.7	11.3	12.4	10.3	0.0
	경기/인천	(115)	51.3	10.4	16.5	11.3	7.8	2.6
	대전/세종/충청	(51)	23.5	29.4	19.6	15.7	9.8	2.0
	광주/전라	(29)	37.9	24.1	20.7	6.9	6.9	3.4
	대구/경북	(70)	68.6	2.9	14.3	8.6	5.7	0.0
	부산/울산/경남	(86)	33.7	15.1	20.9	17.4	10.5	2.3
	강원/제주	(25)	60.0	12.0	12.0	16.0	0.0	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240)	38.8	19.6	16.3	12.9	12.1	0.4
	중소도시	(215)	52.6	11.6	16.7	12.1	4.7	2.3
	군지역	(18)	44.4	22.2	11.1	16.7	0.0	5.6
직업별	자영업자	(80)	48.8	15.0	16.3	11.3	7.5	1.3
	블루칼라	(163)	47.9	13.5	16.0	12.3	8.6	1.8
	화이트칼라	(143)	39.9	21.0	18.2	11.9	7.7	1.4
	전업주부	(45)	46.7	13.3	11.1	20.0	6.7	2.2
	학생	(28)	42.9	14.3	17.9	14.3	10.7	0.0
	무직/기타	(14)	50.0	14.3	14.3	7.1	14.3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139)	54.0	15.8	11.5	8.6	7.9	2.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132)	39.4	15.2	19.7	18.2	6.8	0.8
	4년제 이상	(202)	43.1	16.8	17.3	11.9	9.4	1.5
생활 수준별	상	(55)	41.8	21.8	20.0	9.1	7.3	0.0
	중	(249)	44.2	16.1	14.9	14.5	8.4	2.0
	하	(169)	47.9	14.2	17.2	11.2	8.3	1.2

3) 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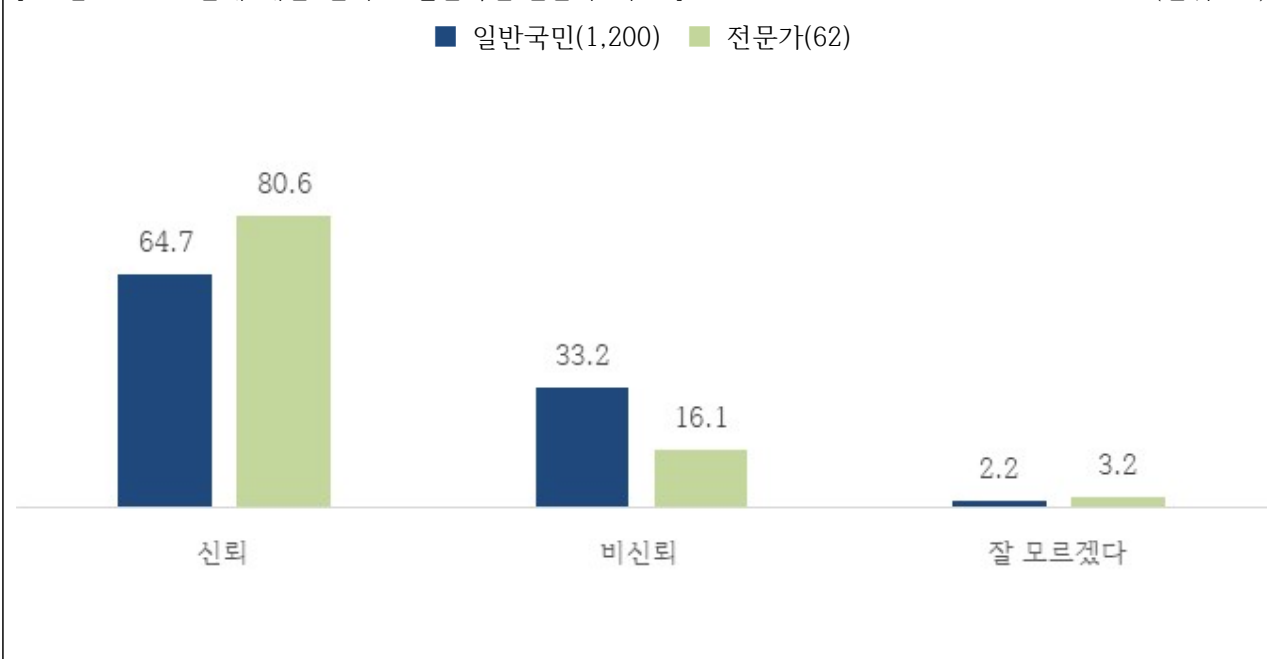
Q.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신뢰한다’: 일반국민 64.7%, 전문가 80.6%

- [일반국민]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4.7%로, ‘신뢰하지 않는다’(33.2%)는 응답보다 31.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7.7%p(2019년 57.0%) 증가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p(2019년 38.9%) 감소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신뢰한다’는 응답이 80.6%로, ‘신뢰하지 않는다’(16.1%)는 응답보다 64.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75.0%) 증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p(2019년 20.3%) 감소하였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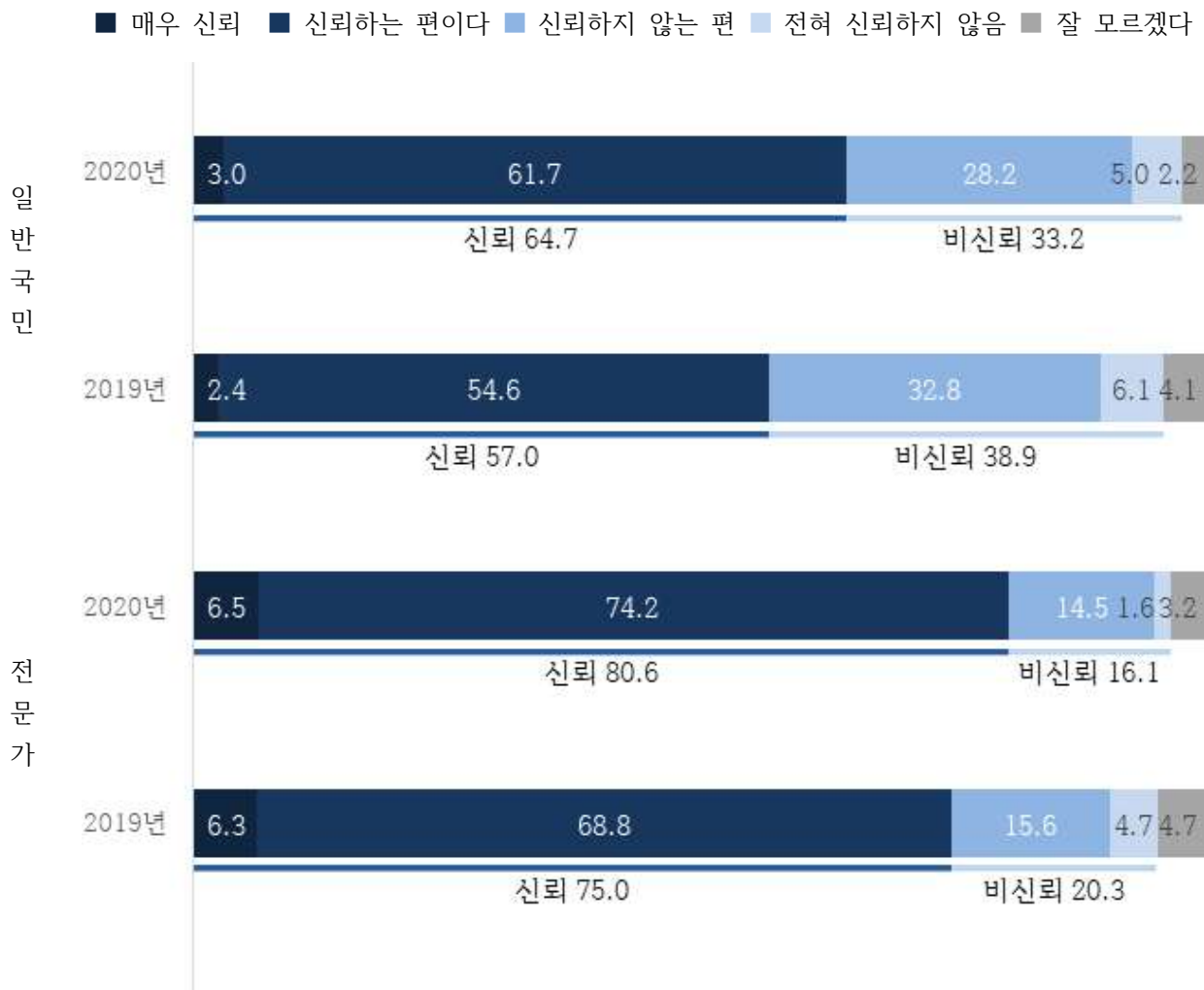
[그림 3-137. 군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38. 군에 대한 신뢰도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70.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신뢰 한다	신뢰 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종합		
								신뢰	비신뢰	잘 모르 겠다
전체		(1262)	3.2	62.3	27.5	4.8	2.2	65.5	32.3	2.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0	61.7	28.2	5.0	2.2	64.7	33.2	2.2
	전문가	(62)	6.5	74.2	14.5	1.6	3.2	80.6	16.1	3.2
소속별	대학	(30)	10.0	70.0	13.3	3.3	3.3	80.0	16.7	3.3
	연구소	(32)	3.1	78.1	15.6	0.0	3.1	81.3	15.6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5	67.7	23.1	3.7	1.9	71.3	26.8	1.9
	중	(497)	2.8	57.7	32.0	4.8	2.6	60.6	36.8	2.6
	하	(136)	1.5	50.7	35.3	11.0	1.5	52.2	46.3	1.5
성별	남성	(720)	3.1	61.5	29.7	5.0	0.7	64.6	34.7	0.7
	여성	(480)	2.9	61.9	25.8	5.0	4.4	64.8	30.8	4.4
연령별	18-29세	(303)	3.3	60.7	28.7	5.3	2.0	64.0	34.0	2.0
	30대	(256)	2.3	59.4	31.6	4.3	2.3	61.7	35.9	2.3
	40대	(314)	1.9	63.7	28.3	4.5	1.6	65.6	32.8	1.6
	50대	(327)	4.3	62.4	24.8	5.8	2.8	66.7	30.6	2.8
지역별	서울	(238)	0.8	62.6	32.4	1.7	2.5	63.4	34.0	2.5
	경기/인천	(393)	6.9	66.9	22.9	1.3	2.0	73.8	24.2	2.0
	대전/세종/충청	(128)	0.8	69.5	28.9	0.0	0.8	70.3	28.9	0.8
	광주/전라	(110)	1.8	79.1	8.2	10.9	0.0	80.9	19.1	0.0
	대구/경북	(109)	2.8	29.4	47.7	15.6	4.6	32.1	63.3	4.6
	부산/울산/경남	(175)	0.6	57.1	34.3	8.0	0.0	57.7	42.3	0.0
	강원/제주	(47)	0.0	42.6	27.7	17.0	12.8	42.6	44.7	12.8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1.1	59.0	30.8	6.9	2.2	60.1	37.7	2.2
	중소도시	(608)	4.8	64.8	26.4	1.8	2.3	69.5	28.2	2.3
	군지역	(41)	2.4	51.2	19.5	26.8	0.0	53.7	46.3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3.8	59.9	29.7	4.4	2.2	63.7	34.1	2.2
	블루칼라	(351)	4.0	56.4	33.0	4.8	1.7	60.4	37.9	1.7
	화이트칼라	(409)	2.0	64.3	27.4	4.4	2.0	66.3	31.8	2.0
	전업주부	(163)	3.7	67.5	20.9	3.7	4.3	71.2	24.5	4.3
	학생	(69)	1.4	69.6	20.3	7.2	1.4	71.0	27.5	1.4
	무직/기타	(26)	0.0	46.2	30.8	23.1	0.0	46.2	53.8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5	55.4	31.4	5.6	3.1	59.9	37.0	3.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6	58.5	30.2	6.8	1.9	61.1	37.0	1.9
	4년제 이상	(535)	2.2	67.7	24.9	3.6	1.7	69.9	28.4	1.7
생활 수준별	상	(137)	2.2	63.5	21.2	13.1	0.0	65.7	34.3	0.0
	중	(700)	3.3	64.6	27.0	3.1	2.0	67.9	30.1	2.0
	하	(363)	2.8	55.4	33.1	5.5	3.3	58.1	38.6	3.3

4)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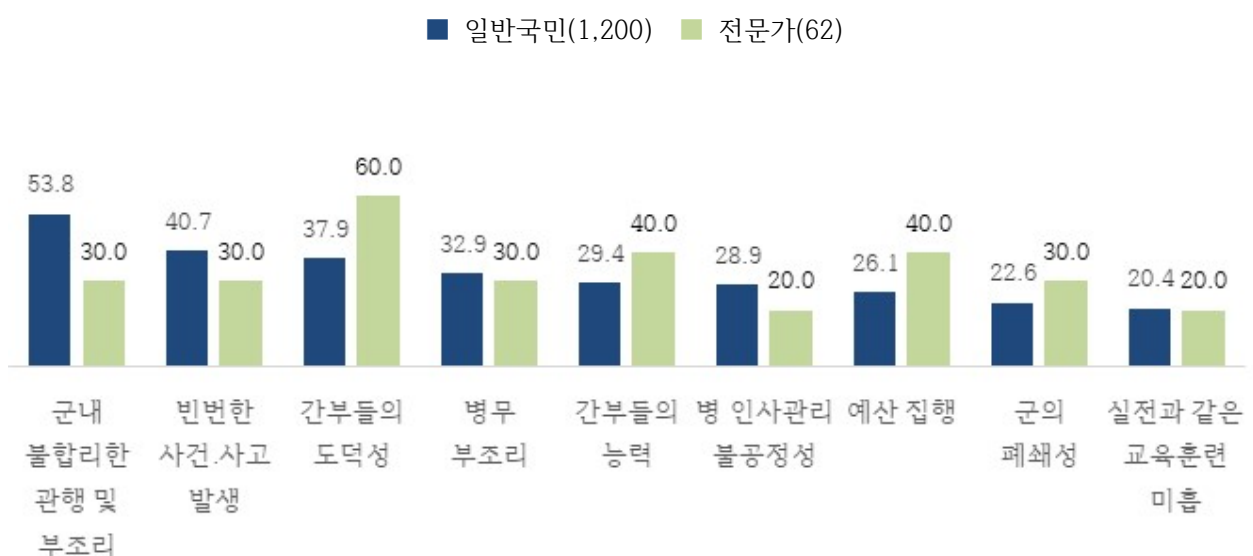
Q.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일반국민 53.8%
‘간부들의 도덕성’: 전문가 60.0%

- **[일반국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 5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4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은 6.3%p(2019년 47.5%) 증가,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응답은 3.6%p(2019년 44.3%)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간부들의 도덕성’이 6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산 집행’(4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간부들의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6.2%p(2019년 53.8%)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예산 집행’이라는 응답은 36.9%p(2019년 76.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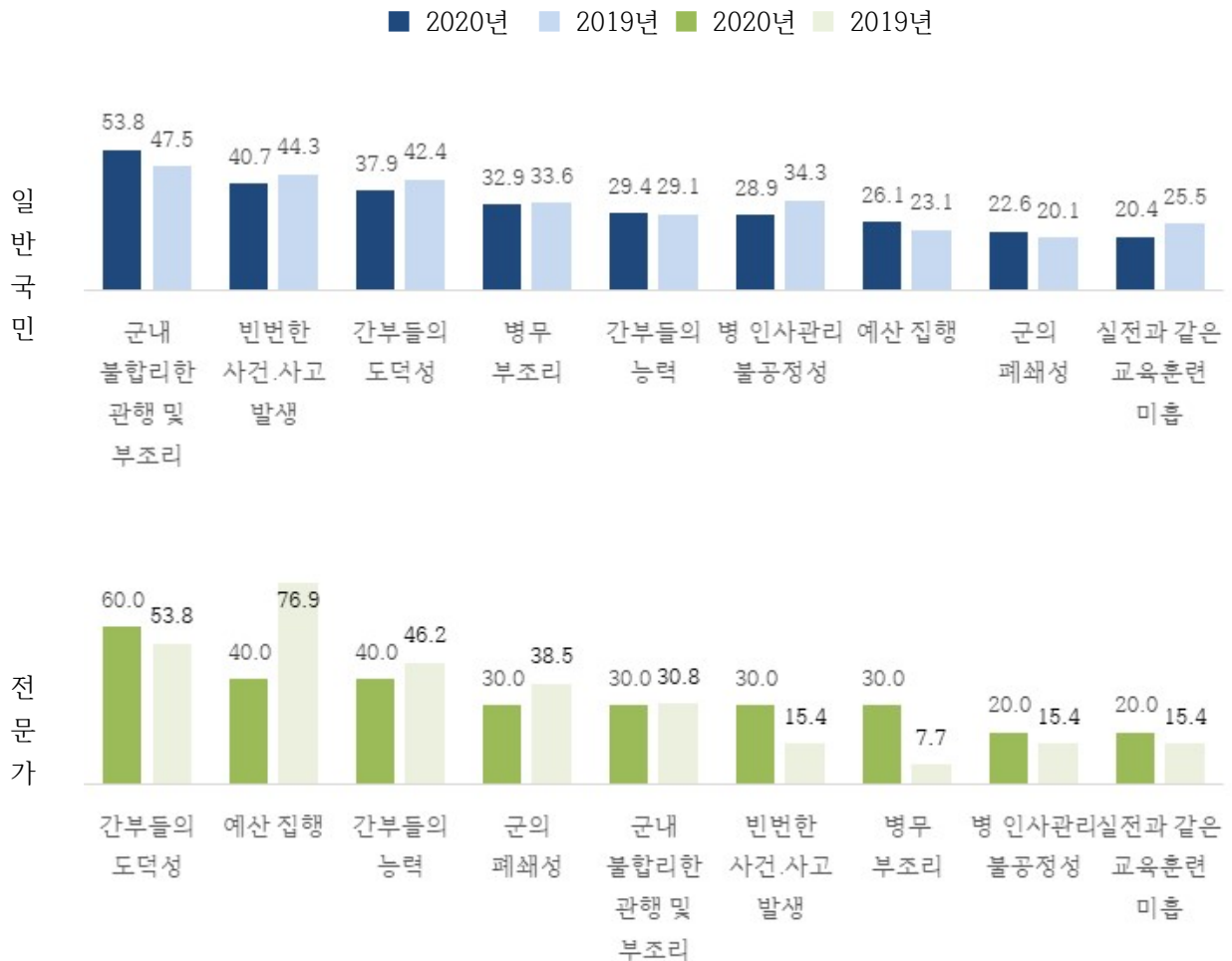
[그림 3-139.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40.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71.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명)	군내 불합리 관행 및 부조리	반변한 사건 사고 발생	간부 들의 도덕성	병무 부조리	간부들 의 능력	병 인사 관리 불공정 성	예산 집행	군의 폐쇄성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 마흡
전체		(408)	53.2	40.4	38.5	32.8	29.7	28.7	26.5	22.8	20.3
대상별	일반국민	(398)	53.8	40.7	37.9	32.9	29.4	28.9	26.1	22.6	20.4
	전문가	(10)	30.0	30.0	60.0	30.0	40.0	20.0	40.0	30.0	20.0
소속별	대학	(5)	20.0	0.0	60.0	0.0	60.0	40.0	60.0	40.0	20.0
	연구소	(5)	40.0	60.0	60.0	60.0	20.0	0.0	20.0	20.0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152)	55.9	34.9	38.8	31.6	30.9	31.6	32.2	18.4	19.7
	중	(183)	50.3	39.9	38.3	34.4	30.1	29.5	23.0	26.2	20.8
	하	(63)	58.7	57.1	34.9	31.7	23.8	20.6	20.6	22.2	20.6
성별	남성	(250)	55.6	38.4	37.6	32.8	32.0	28.0	26.0	20.4	22.4
	여성	(148)	50.7	44.6	38.5	33.1	25.0	30.4	26.4	26.4	16.9
연령별	18-29세	(103)	53.4	42.7	40.8	31.1	35.0	25.2	28.2	18.4	16.5
	30대	(92)	55.4	43.5	34.8	37.0	26.1	29.3	22.8	23.9	20.7
	40대	(103)	56.3	39.8	36.9	29.1	31.1	27.2	25.2	26.2	22.3
	50대	(100)	50.0	37.0	39.0	35.0	25.0	34.0	28.0	22.0	22.0
지역별	서울	(81)	48.1	37.0	39.5	35.8	32.1	27.2	22.2	25.9	27.2
	경기/인천	(95)	46.3	50.5	37.9	43.2	15.8	27.4	38.9	14.7	18.9
	대전/세종/충청	(37)	35.1	32.4	48.6	29.7	56.8	24.3	27.0	13.5	24.3
	광주/전라	(21)	52.4	23.8	61.9	23.8	52.4	28.6	14.3	9.5	28.6
	대구/경북	(69)	68.1	44.9	31.9	26.1	18.8	26.1	29.0	50.7	2.9
	부산/울산/경남	(74)	63.5	39.2	33.8	27.0	33.8	33.8	17.6	13.5	24.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21)	61.9	33.3	23.8	33.3	28.6	42.9	14.3	14.3	28.6
	대도시	(209)	59.8	40.2	36.8	29.7	30.1	29.7	21.5	23.4	21.5
	중소도시	(170)	44.7	41.2	41.2	35.3	29.4	28.2	34.1	20.6	18.8
	군지역	(19)	68.4	42.1	21.1	47.4	21.1	26.3	5.3	31.6	21.1
직업별	자영업자	(62)	43.5	37.1	41.9	35.5	25.8	25.8	27.4	22.6	37.1
	블루칼라	(133)	60.9	46.6	30.8	37.6	26.3	25.6	26.3	20.3	18.8
	화이트칼라	(130)	49.2	36.2	39.2	33.8	35.4	34.6	23.8	23.8	16.9
	전업주부	(40)	55.0	45.0	42.5	25.0	15.0	27.5	32.5	27.5	17.5
	학생	(19)	57.9	31.6	57.9	15.8	47.4	26.3	31.6	10.5	10.5
	무직/기타	(14)	64.3	42.9	35.7	14.3	35.7	28.6	14.3	35.7	14.3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131)	55.7	45.8	35.9	35.1	19.8	29.0	26.0	28.2	19.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115)	57.4	39.1	36.5	28.7	36.5	22.6	27.0	14.8	27.8
	4년제 이상	(152)	49.3	37.5	40.8	34.2	32.2	33.6	25.7	23.7	15.1
생활 수준별	상	(47)	61.7	31.9	34.0	40.4	40.4	25.5	19.1	21.3	17.0
	중	(211)	50.2	39.8	38.9	31.3	31.8	29.4	26.5	19.9	25.6
	하	(140)	56.4	45.0	37.9	32.9	22.1	29.3	27.9	27.1	13.6

5)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Q. 귀하는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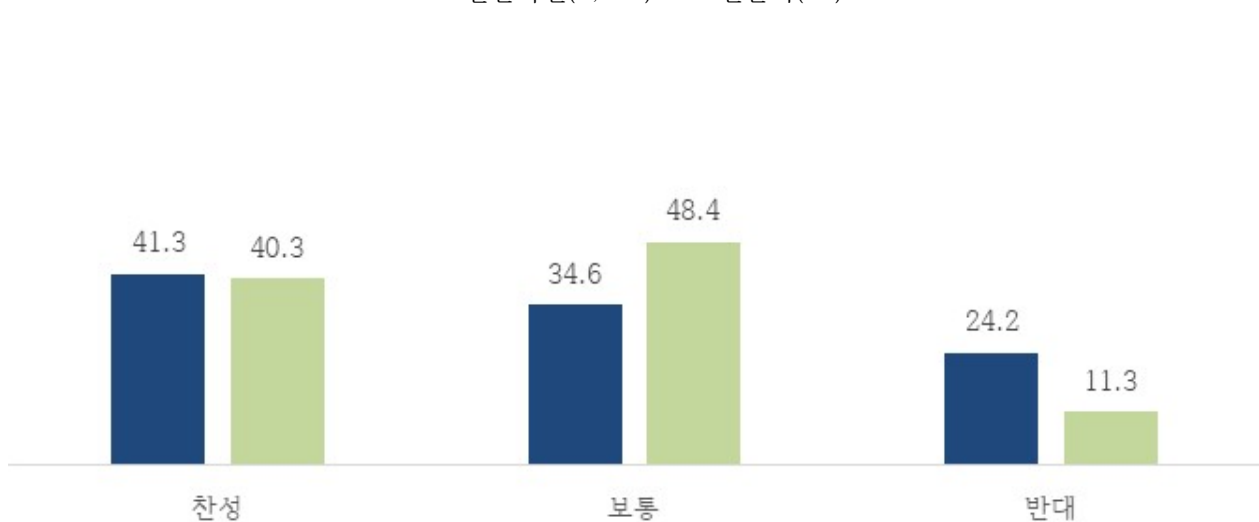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41.3%, 전문가 40.3%

- [일반국민]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1.3%로, ‘반대한다’(24.2%)는 의견보다 17.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3%p(2019년 40.0%)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4%p(2019년 17.8%) 증가함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40.3%로, ‘반대한다’(11.3%)는 의견보다 29.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9.1%p(2019년 59.4%)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p(2019년 6.3%) 증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41.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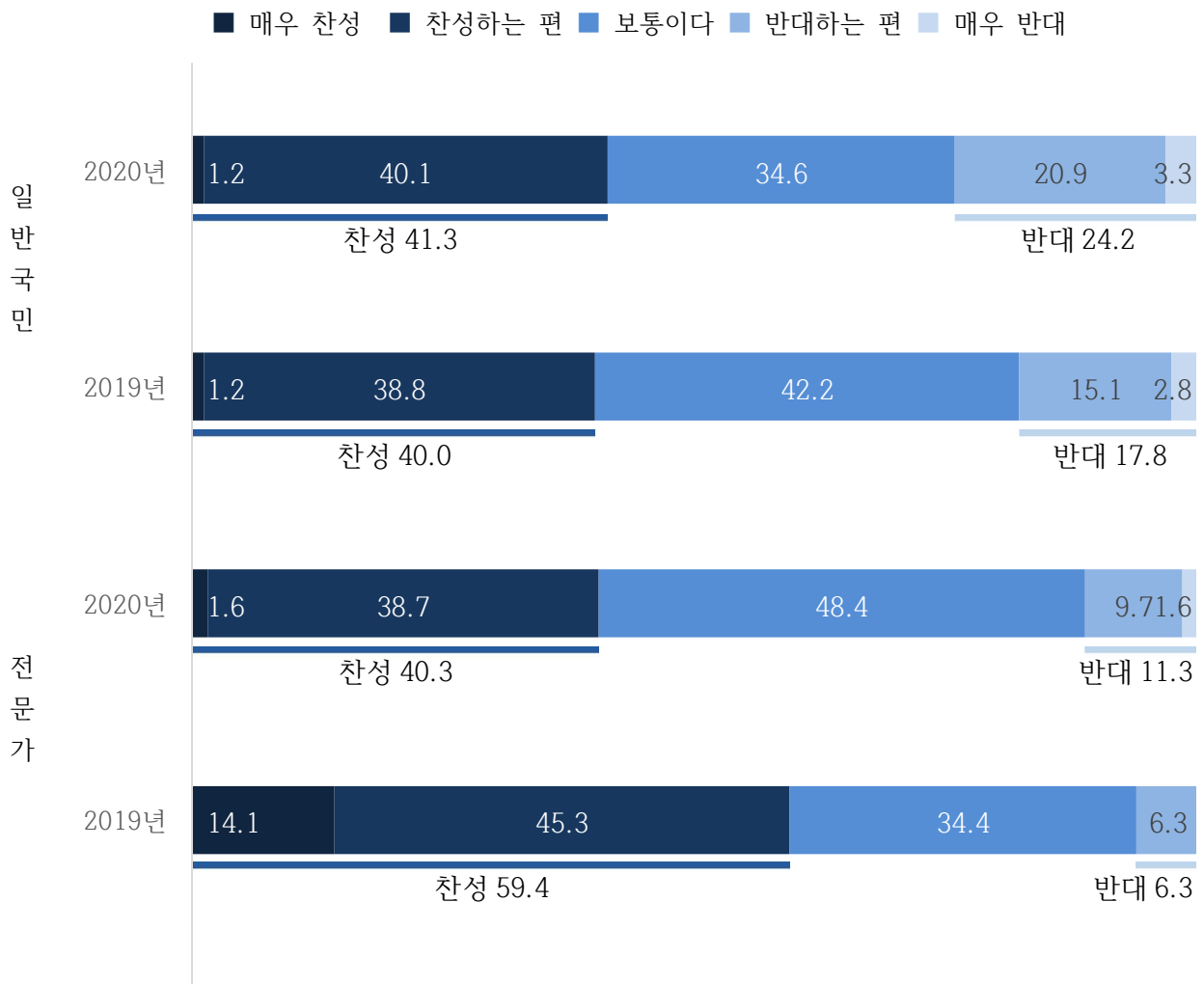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42.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72.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증세 찬반]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2	40.0	35.3	20.4	3.2	41.2	35.3	2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	40.1	34.6	20.9	3.3	41.3	34.6	24.2
	전문가	(62)	1.6	38.7	48.4	9.7	1.6	40.3	48.4	11.3
소속별	대학	(30)	0.0	43.3	50.0	6.7	0.0	43.3	50.0	6.7
	연구소	(32)	3.1	34.4	46.9	12.5	3.1	37.5	46.9	15.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50.4	28.2	16.6	3.2	52.0	28.2	19.8
	중	(497)	0.8	32.0	39.4	24.9	2.8	32.8	39.4	27.8
	하	(136)	0.7	26.5	43.4	24.3	5.1	27.2	43.4	29.4
성별	남성	(720)	0.8	41.5	33.5	21.0	3.2	42.4	33.5	24.2
	여성	(480)	1.7	37.9	36.3	20.8	3.3	39.6	36.3	24.2
연령별	18-29세	(303)	1.7	38.9	36.3	20.1	3.0	40.6	36.3	23.1
	30대	(256)	0.8	36.3	37.1	23.0	2.7	37.1	37.1	25.8
	40대	(314)	1.3	40.4	34.4	21.3	2.5	41.7	34.4	23.9
	50대	(327)	0.9	43.7	31.2	19.6	4.6	44.6	31.2	24.2
지역별	서울	(238)	0.4	45.4	26.9	26.1	1.3	45.8	26.9	27.3
	경기/인천	(393)	3.1	39.2	36.1	21.1	0.5	42.2	36.1	21.6
	대전/세종/충청	(128)	0.0	46.1	40.6	11.7	1.6	46.1	40.6	13.3
	광주/전라	(110)	0.0	59.1	23.6	11.8	5.5	59.1	23.6	17.3
	대구/경북	(109)	0.0	22.0	40.4	25.7	11.9	22.0	40.4	37.6
	부산/울산/경남	(175)	0.0	34.3	40.6	22.3	2.9	34.3	40.6	25.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23.4	34.0	23.4	17.0	25.5	34.0	40.4
	대도시	(551)	0.2	39.0	31.8	25.0	4.0	39.2	31.8	29.0
	중소도시	(608)	2.1	42.4	36.3	16.9	2.1	44.6	36.3	19.1
	군지역	(41)	0.0	19.5	46.3	24.4	9.8	19.5	46.3	34.1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41.2	34.6	21.4	1.6	42.3	34.6	23.1
	블루칼라	(351)	1.1	36.2	36.8	21.7	4.3	37.3	36.8	25.9
	화이트칼라	(409)	1.0	42.8	31.5	22.2	2.4	43.8	31.5	24.7
	전업주부	(163)	1.8	43.6	33.7	18.4	2.5	45.4	33.7	20.9
	학생	(69)	1.4	40.6	39.1	14.5	4.3	42.0	39.1	18.8
	무직/기타	(26)	0.0	19.2	46.2	19.2	15.4	19.2	46.2	34.6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	35.9	35.6	23.7	3.7	37.0	35.6	27.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	37.0	40.8	16.7	4.2	38.3	40.8	20.9
	4년제 이상	(535)	1.1	44.7	30.3	21.5	2.4	45.8	30.3	23.9
생활 수준별	상	(137)	0.0	43.8	25.5	21.9	8.8	43.8	25.5	30.7
	중	(700)	1.7	42.0	35.4	18.3	2.6	43.7	35.4	20.9
	하	(363)	0.6	35.0	36.4	25.6	2.5	35.5	36.4	28.1

6)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Q. 귀하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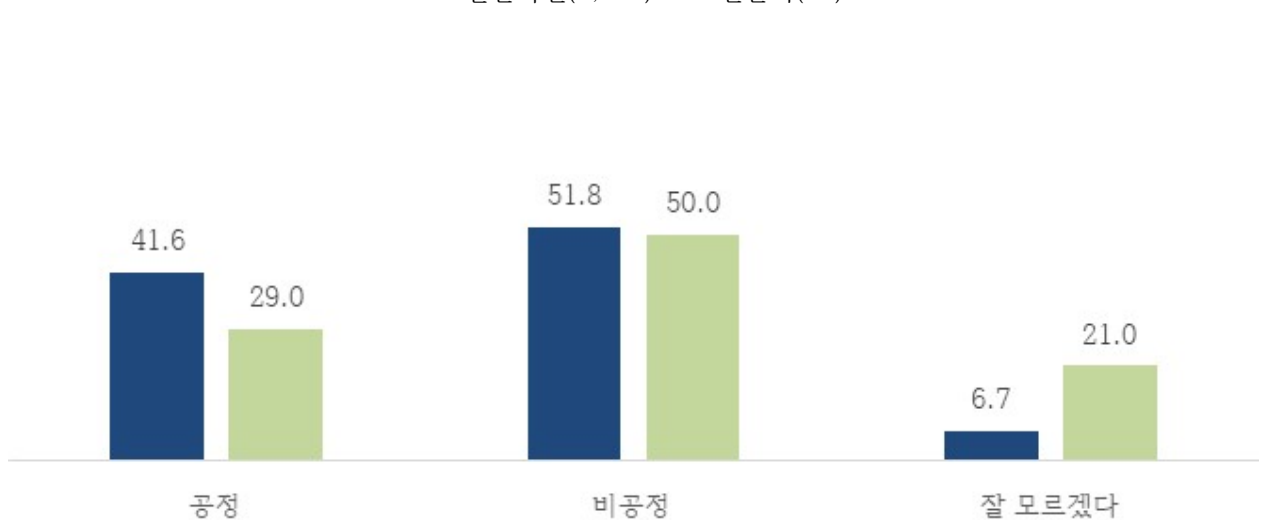
‘공정하지 않다’: 일반국민 51.8%, 전문가 50.0%

- **[일반국민]**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공정하다’(41.6%)는 응답보다 10.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1%p(2019년 53.8%) 감소, ‘공정하다’는 응답은 5.7%p(2019년 41.6%)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0.0%로, ‘공정하다’(29.0%)는 응답보다 21.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2.5%p(2019년 62.5%) 감소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7.1%p(2019년 21.9%) 증가함

[그림 3-143.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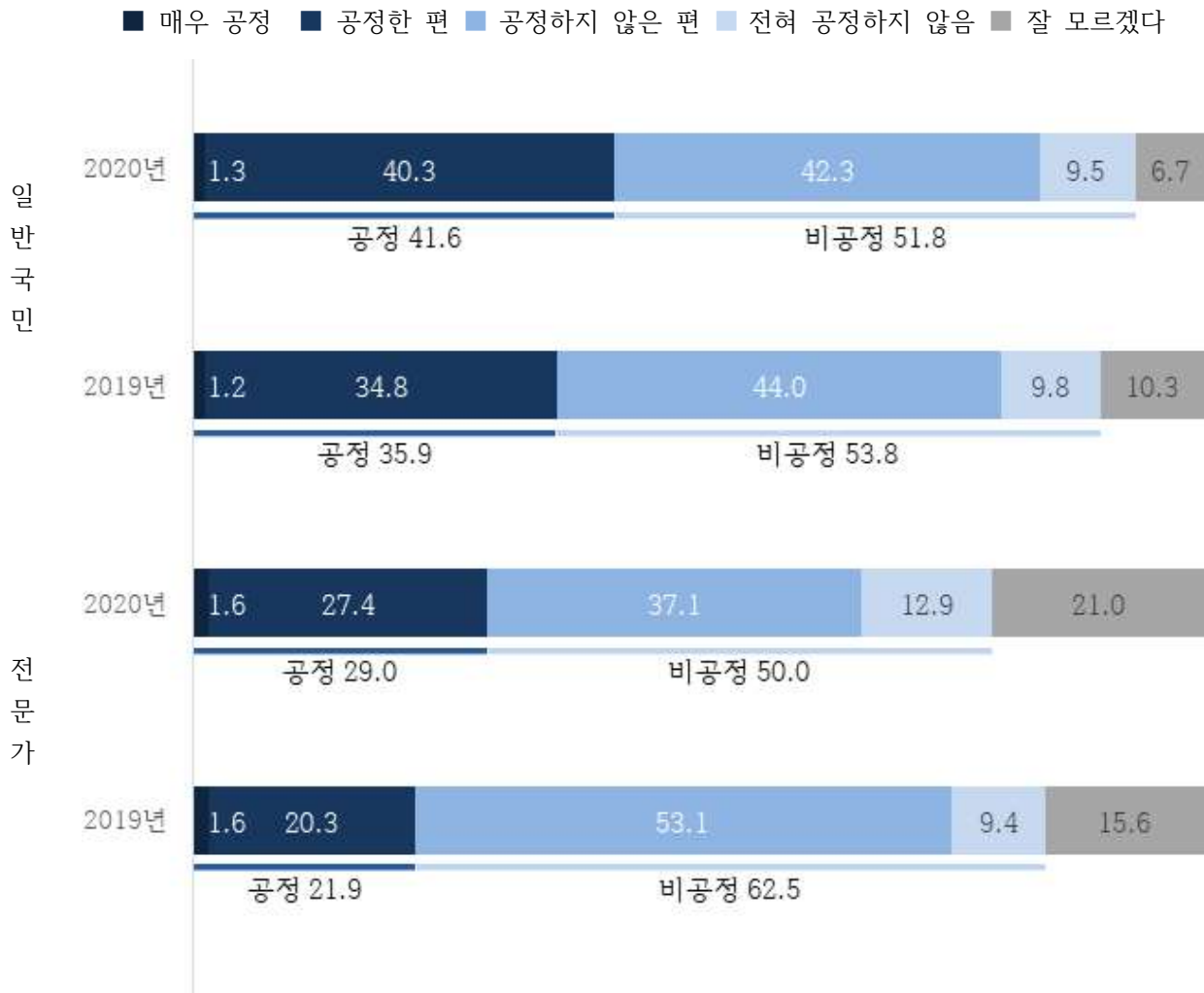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44.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직업별로 자영업자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73.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공정	공정한 편	공정하지 않은 편	전혀 공정 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종합		
								공정	비공정	잘 모르 겠다
전체		(1262)	1.3	39.7	42.0	9.7	7.4	41.0	51.7	7.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40.3	42.3	9.5	6.7	41.6	51.8	6.7
	전문가	(62)	1.6	27.4	37.1	12.9	21.0	29.0	50.0	21.0
소속별	대학	(30)	0.0	23.3	40.0	13.3	23.3	23.3	53.3	23.3
	연구소	(32)	3.1	31.3	34.4	12.5	18.8	34.4	46.9	1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45.1	39.3	8.3	5.6	46.7	47.6	5.6
	중	(497)	1.2	37.0	46.1	8.7	7.0	38.2	54.7	7.0
	하	(136)	0.0	32.4	40.4	17.6	9.6	32.4	58.1	9.6
성별	남성	(720)	1.3	39.0	45.4	8.6	5.7	40.3	54.0	5.7
	여성	(480)	1.3	42.3	37.5	10.8	8.1	43.5	48.3	8.1
연령별	18-29세	(303)	1.0	42.6	38.9	10.9	6.6	43.6	49.8	6.6
	30대	(256)	0.8	35.5	44.9	11.3	7.4	36.3	56.3	7.4
	40대	(314)	1.9	41.7	44.3	5.7	6.4	43.6	50.0	6.4
	50대	(327)	1.2	40.7	41.3	10.4	6.4	41.9	51.7	6.4
지역별	서울	(238)	2.9	37.0	47.5	6.7	5.9	39.9	54.2	5.9
	경기/인천	(393)	1.5	42.2	44.5	5.3	6.4	43.8	49.9	6.4
	대전/세종/충청	(128)	0.8	56.3	35.9	4.7	2.3	57.0	40.6	2.3
	광주/전라	(110)	0.0	56.4	30.9	10.0	2.7	56.4	40.9	2.7
	대구/경북	(109)	0.0	13.8	45.9	22.0	18.3	13.8	67.9	18.3
	부산/울산/경남	(175)	0.0	42.3	41.7	13.7	2.3	42.3	55.4	2.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14.9	34.0	25.5	23.4	17.0	59.6	23.4
	대도시	(551)	1.3	37.7	45.5	11.1	4.4	39.0	56.6	4.4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608)	1.3	42.8	39.7	7.5	8.7	44.1	47.2	8.7
	군지역	(41)	0.0	39.0	36.6	17.1	7.3	39.0	53.7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35.7	50.0	9.3	3.8	36.8	59.3	3.8
	블루칼라	(351)	1.4	37.3	41.6	10.8	8.8	38.7	52.4	8.8
	화이트칼라	(409)	1.5	42.5	44.3	7.1	4.6	44.0	51.3	4.6
	전업주부	(163)	1.2	46.0	33.7	9.2	9.8	47.2	42.9	9.8
	학생	(69)	0.0	42.0	36.2	14.5	7.2	42.0	50.7	7.2
	무직/기타	(26)	0.0	38.5	34.6	19.2	7.7	38.5	53.8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7	35.9	41.5	10.5	10.5	37.6	52.0	10.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6	43.1	40.5	10.6	5.1	43.7	51.1	5.1
	4년제 이상	(535)	1.3	41.7	43.7	8.2	5.0	43.0	52.0	5.0
생활 수준별	상	(137)	2.9	40.9	35.0	14.6	6.6	43.8	49.6	6.6
	중	(700)	1.1	44.3	42.9	7.4	4.3	45.4	50.3	4.3
	하	(363)	0.8	32.5	43.8	11.6	11.3	33.3	55.4	11.3

7)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Q. 귀하는 국방부가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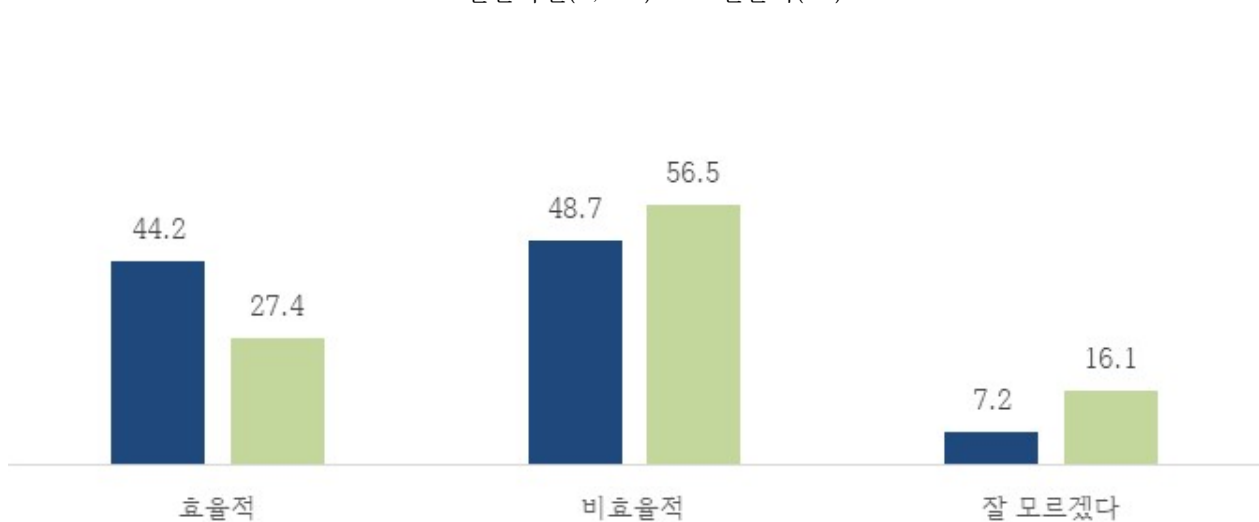
‘비효율적이다’: 일반국민 48.7%, 전문가 56.5%

- [일반국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 48.7%와 ‘효율적이다’ 44.2%는 4.5%p 차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7.1%p(2019년 55.8%) 감소한 반면,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9.1%p(2019년 35.1%) 증가함
- [전문가]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56.5%로, ‘효율적이다’(27.4%)는 응답보다 29.0%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6.0%p(2019년 62.5%) 감소한 반면,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0.8%p(2019년 26.6%) 증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4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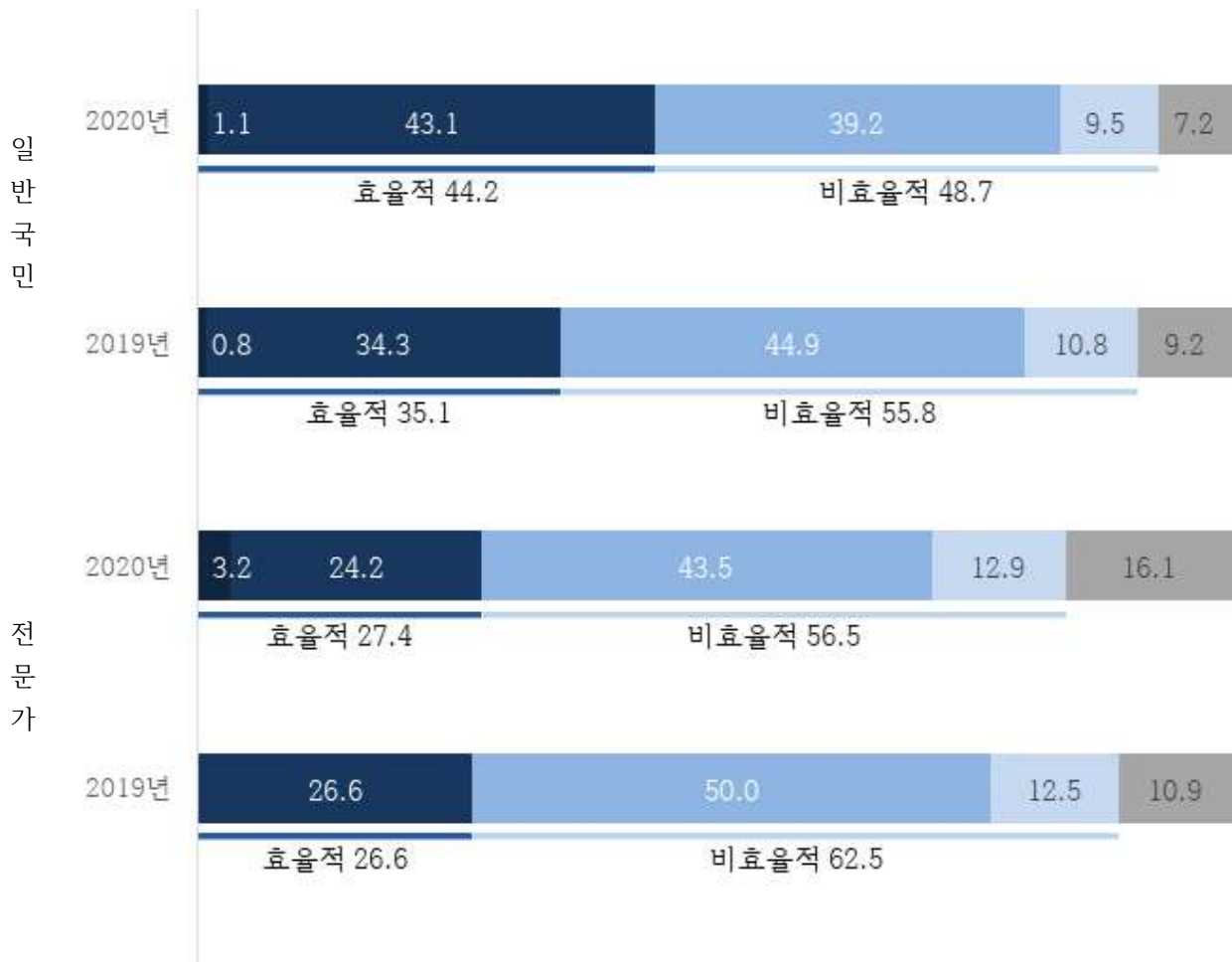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46.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전년도 비교]

(단위: %)

■ 매우 효율적 ■ 효율적인 편 ■ 효율적이지 않은 편 ■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잘 모르겠다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4.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효율적 이다	효율적 인 편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전혀 효율적 이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효율적	비 효율적	잘 모르 겠다
전체		(1262)	1.2	42.2	39.4	9.7	7.6	43.3	49.0	7.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	43.1	39.2	9.5	7.2	44.2	48.7	7.2
	전문가	(62)	3.2	24.2	43.5	12.9	16.1	27.4	56.5	16.1
소속별	대학	(30)	3.3	23.3	53.3	6.7	13.3	26.7	60.0	13.3
	연구소	(32)	3.1	25.0	34.4	18.8	18.8	28.1	53.1	1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4	51.1	33.2	7.8	6.5	52.6	40.9	6.5
	중	(497)	1.0	36.0	46.5	9.7	6.8	37.0	56.1	6.8
	하	(136)	0.0	35.3	37.5	16.2	11.0	35.3	53.7	11.0
성별	남성	(720)	1.1	41.5	41.4	9.4	6.5	42.6	50.8	6.5
	여성	(480)	1.0	45.4	35.8	9.6	8.1	46.5	45.4	8.1
연령별	18-29세	(303)	1.3	46.2	33.3	10.9	8.3	47.5	44.2	8.3
	30대	(256)	0.8	42.2	40.6	9.4	7.0	43.0	50.0	7.0
	40대	(314)	1.3	40.1	44.3	8.6	5.7	41.4	52.9	5.7
	50대	(327)	0.9	43.7	38.5	9.2	7.6	44.6	47.7	7.6
지역별	서울	(238)	1.3	48.7	34.5	7.6	8.0	50.0	42.0	8.0
	경기/인천	(393)	2.0	40.5	43.0	6.9	7.6	42.5	49.9	7.6
	대전/세종/충청	(128)	0.0	55.5	35.9	6.3	2.3	55.5	42.2	2.3
	광주/전라	(110)	0.0	66.4	26.4	6.4	0.9	66.4	32.7	0.9
	대구/경북	(109)	0.0	11.0	54.1	14.7	20.2	11.0	68.8	20.2
	부산/울산/경남	(175)	0.0	44.6	40.0	13.1	2.3	44.6	53.1	2.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17.0	31.9	31.9	14.9	21.3	63.8	14.9
	대도시	(551)	0.5	42.4	40.4	10.9	5.6	43.0	51.4	5.6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608)	1.6	43.8	38.0	8.0	8.5	45.4	46.1	8.5
	군지역	(41)	0.0	41.5	39.0	12.2	7.3	41.5	51.2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46.2	42.3	7.1	3.3	47.3	49.5	3.3
	블루칼라	(351)	2.0	39.3	37.3	11.4	10.0	41.3	48.7	10.0
	화이트칼라	(409)	0.7	44.0	42.3	7.8	5.1	44.7	50.1	5.1
	전업주부	(163)	0.6	47.2	34.4	8.0	9.8	47.9	42.3	9.8
	학생	(69)	0.0	43.5	29.0	15.9	11.6	43.5	44.9	11.6
	무직/기타	(26)	0.0	30.8	50.0	19.2	0.0	30.8	69.2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7	38.4	39.5	11.0	9.3	40.1	50.6	9.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	44.4	36.0	12.9	5.5	45.7	48.9	5.5
	4년제 이상	(535)	0.6	45.4	40.7	6.5	6.7	46.0	47.3	6.7
생활 수준별	상	(137)	0.0	49.6	32.8	13.1	4.4	49.6	46.0	4.4
	중	(700)	1.3	47.1	37.6	9.0	5.0	48.4	46.6	5.0
	하	(363)	1.1	32.8	44.6	9.1	12.4	33.9	53.7	12.4

8)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Q. 귀하는 한국의 국방비 수준(2020년 기준 GDP 대비 2.6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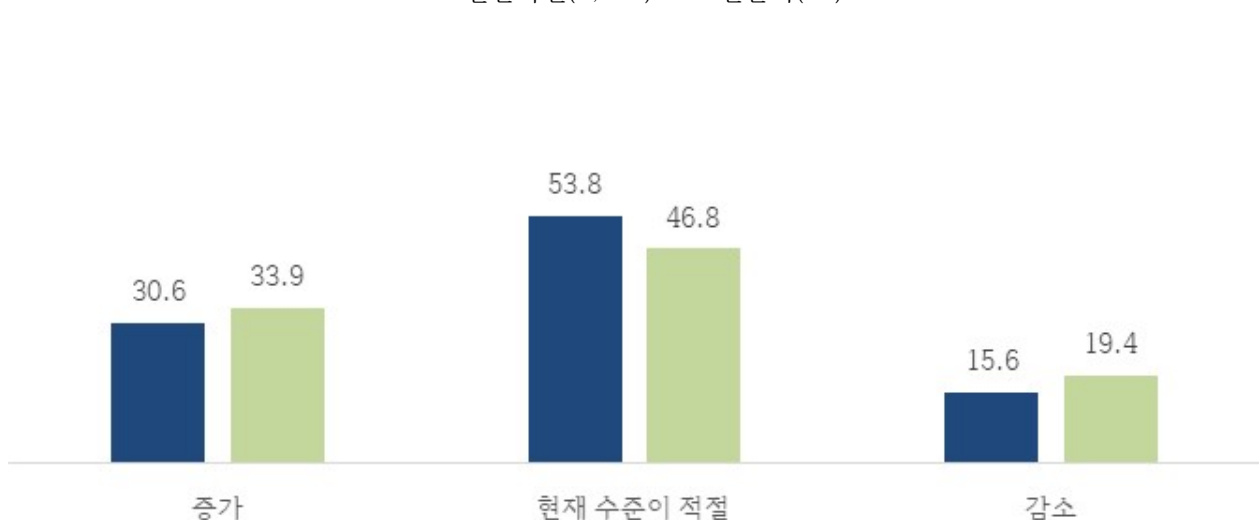
‘늘려야 한다’: 일반국민 30.6%, 전문가 33.9%

- **[일반국민]**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줄여야 한다’(15.6%)는 응답보다 15.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1%p(2019년 34.7%) 감소,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2%p(2019년 10.4%) 증가했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3.9%로, ‘줄여야 한다’(19.4%)는 응답보다 14.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2%p(2019년 39.1%) 감소,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2%p(2019년 17.2%) 증가했지만 두 응답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47.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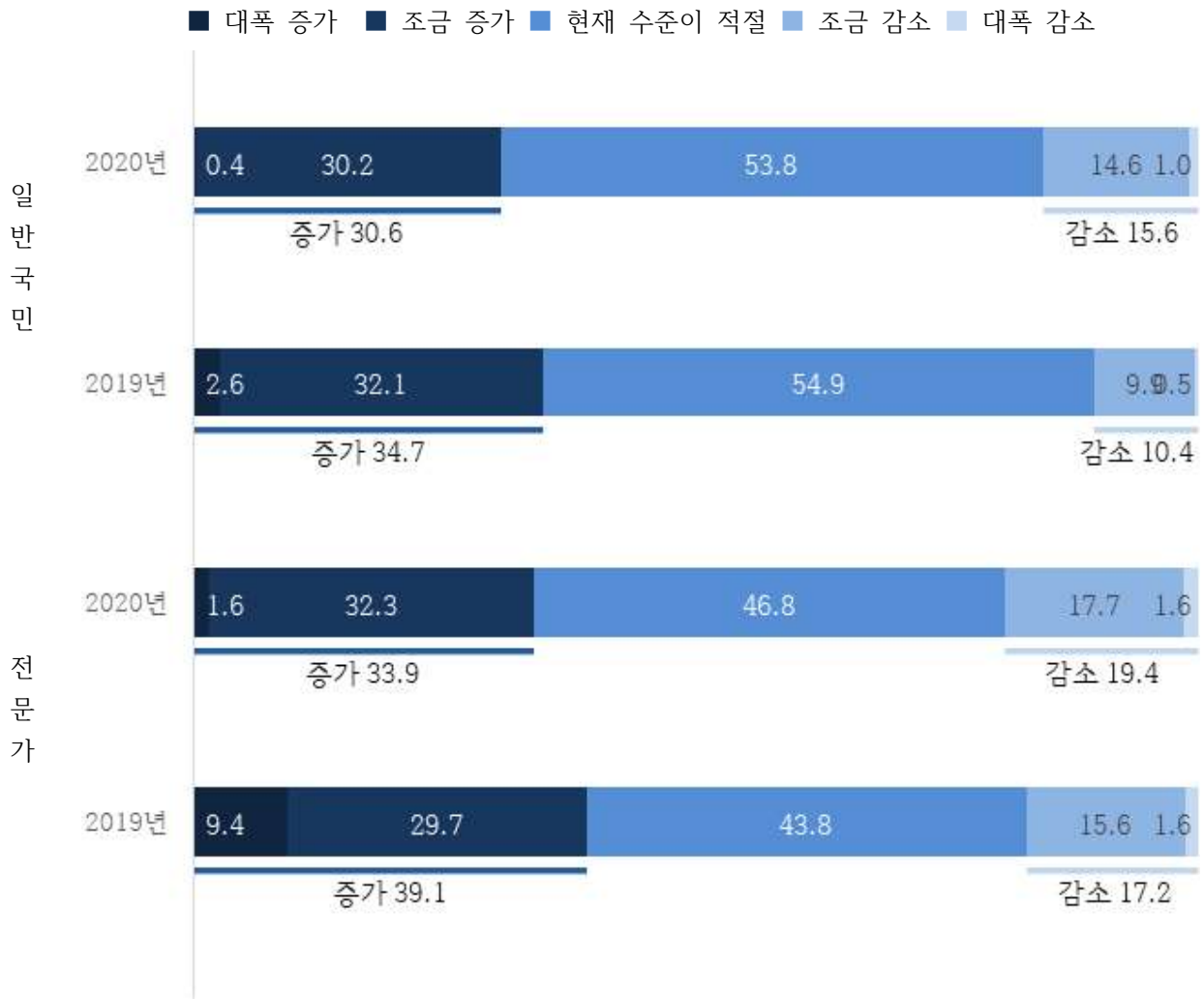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48.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75. 한국의 국방비 증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종합		
								증가	현재 수준이 적절	감소
전체		(1262)	0.5	30.3	53.5	14.7	1.0	30.7	53.5	15.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30.2	53.8	14.6	1.0	30.6	53.8	15.6
	전문가	(62)	1.6	32.3	46.8	17.7	1.6	33.9	46.8	19.4
소속별	대학	(30)	0.0	36.7	56.7	6.7	0.0	36.7	56.7	6.7
	연구소	(32)	3.1	28.1	37.5	28.1	3.1	31.3	37.5	31.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7	35.1	51.5	12.2	0.5	35.8	51.5	12.7
	중	(497)	0.0	27.2	56.5	15.3	1.0	27.2	56.5	16.3
	하	(136)	0.7	20.6	53.7	22.1	2.9	21.3	53.7	25.0
성별	남성	(720)	0.6	31.7	53.2	13.9	0.7	32.2	53.2	14.6
	여성	(480)	0.2	27.9	54.8	15.6	1.5	28.1	54.8	17.1
연령별	18-29세	(303)	0.7	31.0	54.1	13.5	0.7	31.7	54.1	14.2
	30대	(256)	0.4	27.7	55.1	16.0	0.8	28.1	55.1	16.8
	40대	(314)	0.3	29.0	55.4	13.4	1.9	29.3	55.4	15.3
	50대	(327)	0.3	32.4	51.1	15.6	0.6	32.7	51.1	16.2
지역별	서울	(238)	0.8	27.3	65.1	6.7	0.0	28.2	65.1	6.7
	경기/인천	(393)	0.3	27.0	55.7	16.8	0.3	27.2	55.7	17.0
	대전/세종/충청	(128)	0.0	38.3	49.2	10.9	1.6	38.3	49.2	12.5
	광주/전라	(110)	0.9	46.4	38.2	14.5	0.0	47.3	38.2	14.5
	대구/경북	(109)	0.9	33.9	41.3	17.4	6.4	34.9	41.3	23.9
	부산/울산/경남	(175)	0.0	23.4	58.3	18.3	0.0	23.4	58.3	18.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0.0	27.7	42.6	25.5	4.3	27.7	42.6	29.8
	대도시	(551)	0.5	26.7	54.8	16.9	1.1	27.2	54.8	18.0
	중소도시	(608)	0.3	34.9	52.6	11.3	0.8	35.2	52.6	12.2
	군지역	(41)	0.0	7.3	58.5	31.7	2.4	7.3	58.5	34.1
직업별	자영업자	(182)	0.5	31.3	53.3	14.3	0.5	31.9	53.3	14.8
	블루칼라	(351)	0.3	24.8	57.3	16.5	1.1	25.1	57.3	17.7
	화이트칼라	(409)	0.2	32.5	53.3	13.0	1.0	32.8	53.3	13.9
	전업주부	(163)	0.6	35.6	49.1	13.5	1.2	36.2	49.1	14.7
	학생	(69)	1.4	30.4	55.1	13.0	0.0	31.9	55.1	13.0
	무직/기타	(26)	0.0	23.1	46.2	26.9	3.8	23.1	46.2	30.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26.0	55.6	17.5	0.6	26.3	55.6	18.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3	27.7	55.3	14.8	1.9	28.0	55.3	16.7
	4년제 이상	(535)	0.6	34.4	51.8	12.5	0.7	35.0	51.8	13.3
생활 수준별	상	(137)	1.5	35.0	42.3	20.4	0.7	36.5	42.3	21.2
	중	(700)	0.1	30.3	55.3	13.4	0.9	30.4	55.3	14.3
	하	(363)	0.6	28.1	55.4	14.6	1.4	28.7	55.4	16.0

9)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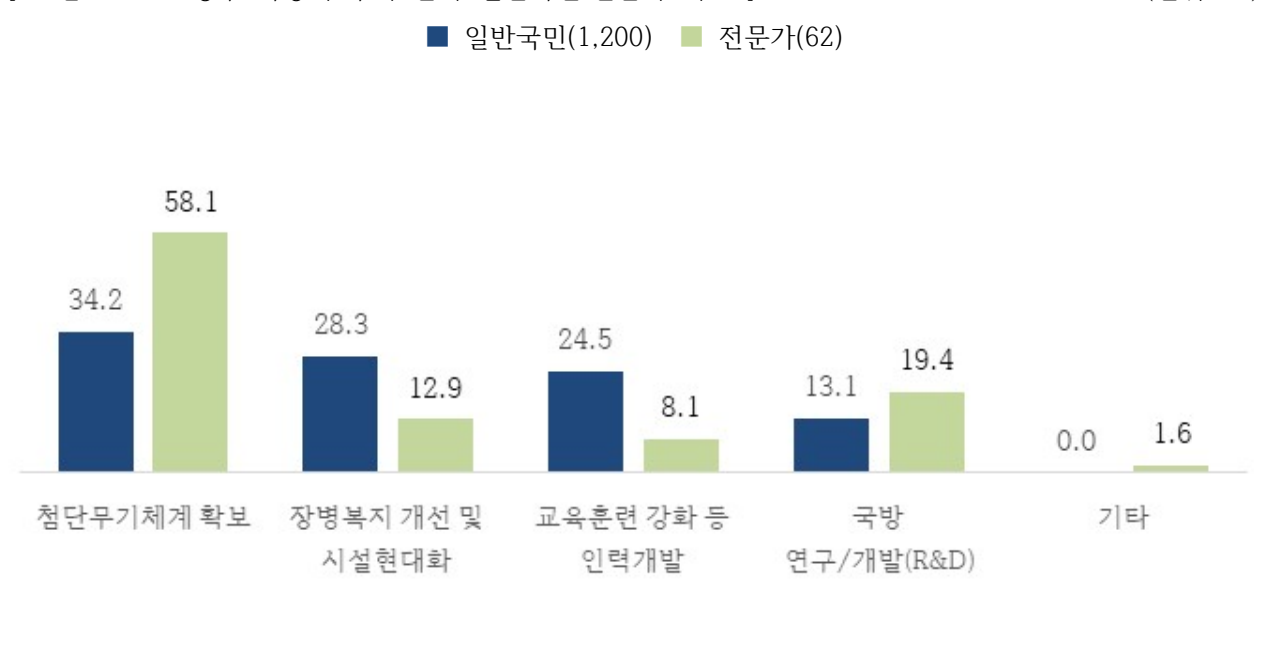
Q.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무기체계 확보’: 일반국민 34.2%, 전문가 58.1%

- [일반국민]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10.4%p(2019년 23.8%) 증가한 반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라는 응답은 8.1%p(2019년 36.3%) 감소함
- [전문가]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방 연구/개발(R&D)’(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1.8%p(2019년 56.3%) 증가, ‘국방 연구/개발(R&D)’라는 응답은 4.0%p(2019년 23.4%)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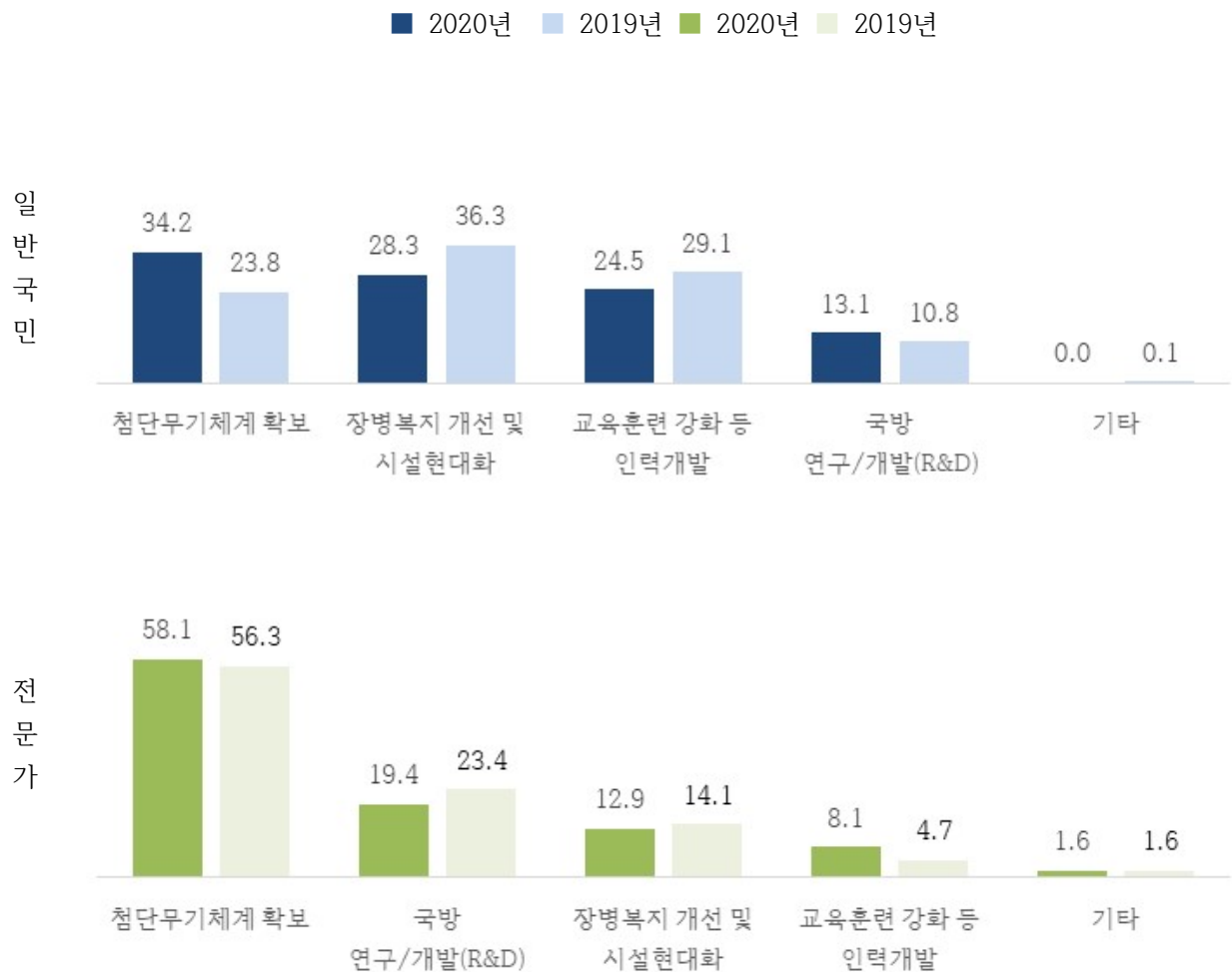
[그림 3-149.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50.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 경기/인천,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7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단위: 명, %)

		사례수 (명)	첨단무기 체계 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 연구/개발 (R&D)	기타
전체		(1262)	35.3	27.5	23.7	13.4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2	28.3	24.5	13.1	0.0
	전문가	(62)	58.1	12.9	8.1	19.4	1.6
소속별	대학	(30)	50.0	10.0	13.3	23.3	3.3
	연구소	(32)	65.6	15.6	3.1	15.6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6.0	25.7	26.3	12.0	0.0
	중	(497)	33.6	30.0	22.9	13.5	0.0
	하	(136)	28.7	32.4	22.8	16.2	0.0
성별	남성	(720)	35.4	27.4	25.1	12.1	0.0
	여성	(480)	32.3	29.6	23.5	14.6	0.0
연령별	18-29세	(303)	32.0	33.3	23.8	10.9	0.0
	30대	(256)	34.0	27.3	25.0	13.7	0.0
	40대	(314)	35.0	25.8	25.2	14.0	0.0
	50대	(327)	35.5	26.6	24.2	13.8	0.0
지역별	서울	(238)	38.2	33.2	18.1	10.5	0.0
	경기/인천	(393)	41.0	23.9	22.6	12.5	0.0
	대전/세종/충청	(128)	31.3	34.4	32.0	2.3	0.0
	광주/전라	(110)	20.0	22.7	41.8	15.5	0.0
	대구/경북	(109)	30.3	26.6	14.7	28.4	0.0
	부산/울산/경남	(175)	29.1	32.6	27.4	10.9	0.0
	강원/제주	(47)	25.5	23.4	23.4	27.7	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9)	28.2	33.3	27.3	11.1	0.0
	중소도시	(610)	40.2	24.3	20.8	14.8	0.0
	군지역	(41)	24.4	19.5	41.5	14.6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36.3	26.9	24.2	12.6	0.0
	블루칼라	(351)	32.8	30.2	24.8	12.3	0.0
	화이트칼라	(409)	38.4	22.5	26.2	13.0	0.0
	전업주부	(163)	33.7	33.7	17.2	15.3	0.0
	학생	(69)	18.8	44.9	23.2	13.0	0.0
	무직/기타	(26)	15.4	23.1	46.2	15.4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4.2	28.2	23.2	14.4	0.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8.9	31.2	27.3	12.5	0.0
	4년제 이상	(535)	37.2	26.5	23.7	12.5	0.0
생활 수준별	상	(137)	26.3	29.2	35.8	8.8	0.0
	중	(700)	32.7	29.6	24.9	12.9	0.0
	하	(363)	39.9	25.3	19.6	15.2	0.0

1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Q. 귀하는 한국의 향후 한국군의 병력 수(22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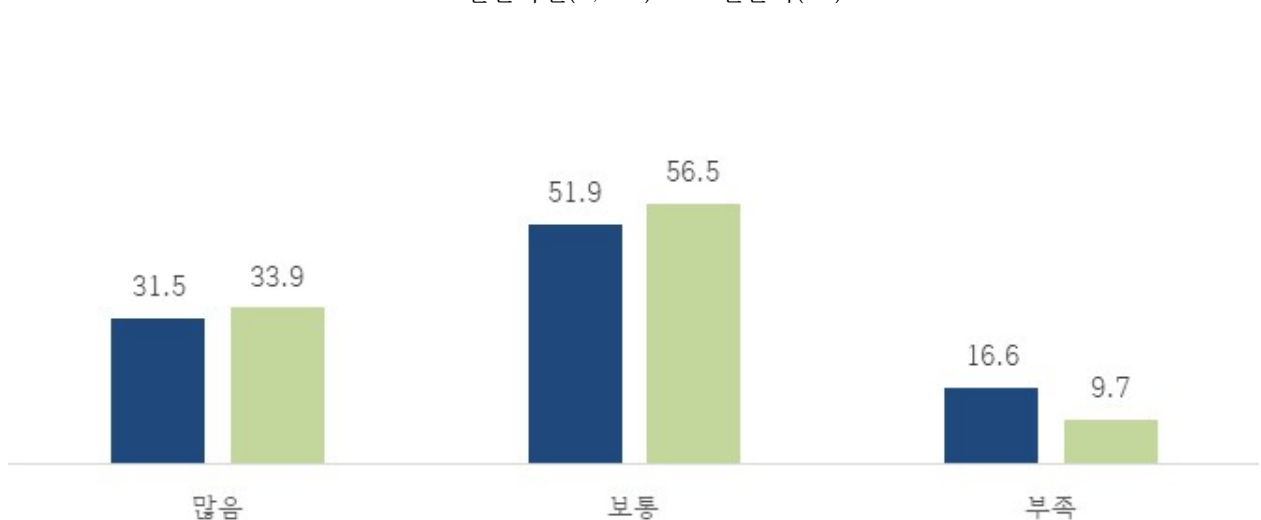
‘많다’: 일반국민 31.5%, 전문가 33.9%

- **[일반국민]**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31.5%로, ‘부족하다’(16.6%)는 응답보다 14.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많다’는 응답은 6.8%p(2019년 24.7%) 증가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5.2%p(2019년 21.8%)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많다’는 응답이 33.9%로, ‘부족하다’(9.7%)는 응답보다 24.2%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많다’는 응답은 22.4%p(2019년 56.3%) 감소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6.6%p(2019년 3.1%) 증가함

[그림 3-151.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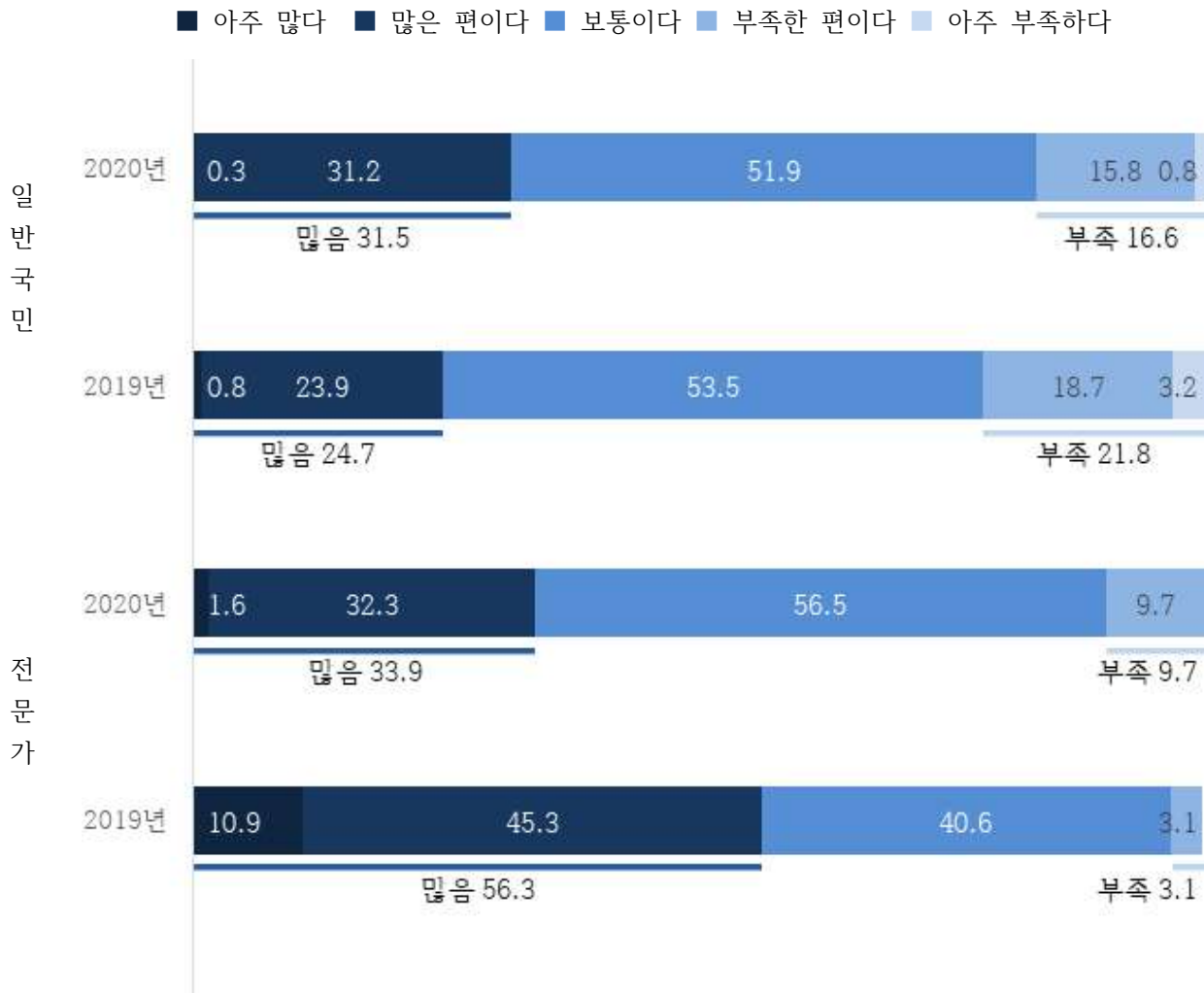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52.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77.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사례수 (명)	아주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아주 부족하다	종합		
								많음	보통	부족
전체		(1262)	0.4	31.2	52.1	15.5	0.8	31.6	52.1	16.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31.2	51.9	15.8	0.8	31.5	51.9	16.6
	전문가	(62)	1.6	32.3	56.5	9.7	0.0	33.9	56.5	9.7
소속별	대학	(30)	3.3	26.7	60.0	10.0	0.0	30.0	60.0	10.0
	연구소	(32)	0.0	37.5	53.1	9.4	0.0	37.5	53.1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2	34.7	47.1	16.8	1.2	34.9	47.1	18.0
	중	(497)	0.6	27.6	57.7	13.7	0.4	28.2	57.7	14.1
	하	(136)	0.0	29.4	50.7	19.1	0.7	29.4	50.7	19.9
성별	남성	(720)	0.3	30.7	51.1	16.8	1.1	31.0	51.1	17.9
	여성	(480)	0.4	31.9	53.1	14.2	0.4	32.3	53.1	14.6
연령별	18-29세	(303)	0.3	36.3	50.5	12.9	0.0	36.6	50.5	12.9
	30대	(256)	0.8	30.5	50.8	17.6	0.4	31.3	50.8	18.0
	40대	(314)	0.3	29.9	51.0	17.5	1.3	30.3	51.0	18.8
	50대	(327)	0.0	28.1	55.0	15.3	1.5	28.1	55.0	16.8
지역별	서울	(238)	0.0	27.7	58.4	13.9	0.0	27.7	58.4	13.9
	경기/인천	(393)	0.5	34.4	48.9	15.3	1.0	34.9	48.9	16.3
	대전/세종/충청	(128)	0.0	33.6	55.5	9.4	1.6	33.6	55.5	10.9
	광주/전라	(110)	1.8	51.8	30.9	14.5	0.9	53.6	30.9	15.5
	대구/경북	(109)	0.0	23.9	55.0	20.2	0.9	23.9	55.0	21.1
	부산/울산/경남	(175)	0.0	22.3	57.7	20.0	0.0	22.3	57.7	20.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0.0	17.0	55.3	23.4	4.3	17.0	55.3	27.7
	대도시	(551)	0.4	30.5	53.0	16.0	0.2	30.9	53.0	16.2
	중소도시	(608)	0.3	32.1	51.0	15.1	1.5	32.4	51.0	16.6
	군지역	(41)	0.0	26.8	51.2	22.0	0.0	26.8	51.2	22.0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27.5	56.0	14.8	1.6	27.5	56.0	16.5
	블루칼라	(351)	0.3	25.1	55.0	18.5	1.1	25.4	55.0	19.7
	화이트칼라	(409)	0.7	34.2	48.7	15.9	0.5	35.0	48.7	16.4
	전업주부	(163)	0.0	39.9	46.0	14.1	0.0	39.9	46.0	14.1
	학생	(69)	0.0	34.8	58.0	7.2	0.0	34.8	58.0	7.2
	무직/기타	(26)	0.0	26.9	53.8	15.4	3.8	26.9	53.8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0	25.7	55.4	16.7	2.3	25.7	55.4	18.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0	28.9	53.4	16.7	0.0	29.9	53.4	16.7
	4년제 이상	(535)	0.2	36.1	48.8	14.6	0.4	36.3	48.8	15.0
생활 수준별	상	(137)	0.7	35.0	48.2	14.6	1.5	35.8	48.2	16.1
	중	(700)	0.1	34.0	52.6	13.1	0.1	34.1	52.6	13.3
	하	(363)	0.6	24.2	52.1	21.2	1.9	24.8	52.1	23.1

11)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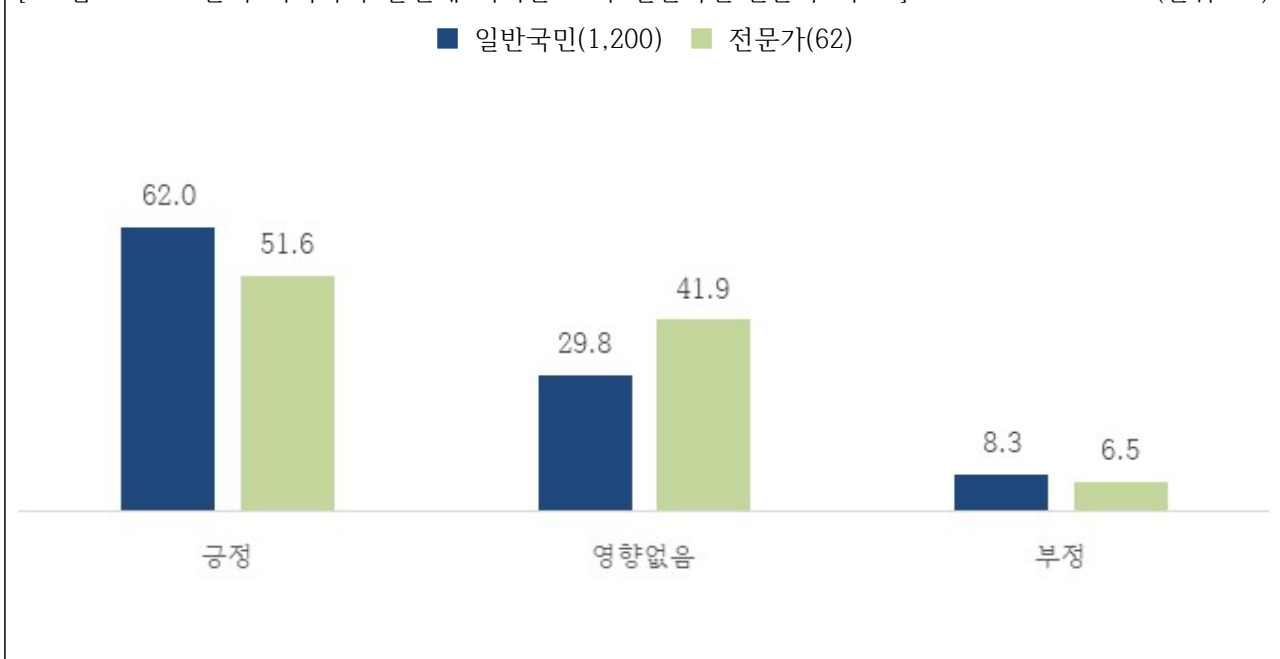
Q.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다’: 일반국민 62.0%, 전문가 51.6%

- [일반국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2.0%로, ‘부정적이다’(8.3%)라는 응답보다 53.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6.7%p(2019년 55.3%) 증가했으며, ‘부정적이다’라는 응답 또한 2.5%p(2019년 5.8%)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1.6%로, ‘부정적이다’(6.5%)라는 응답보다 45.2%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1.5%p(2019년 53.1%),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2.9%p(2019년 9.4%) 감소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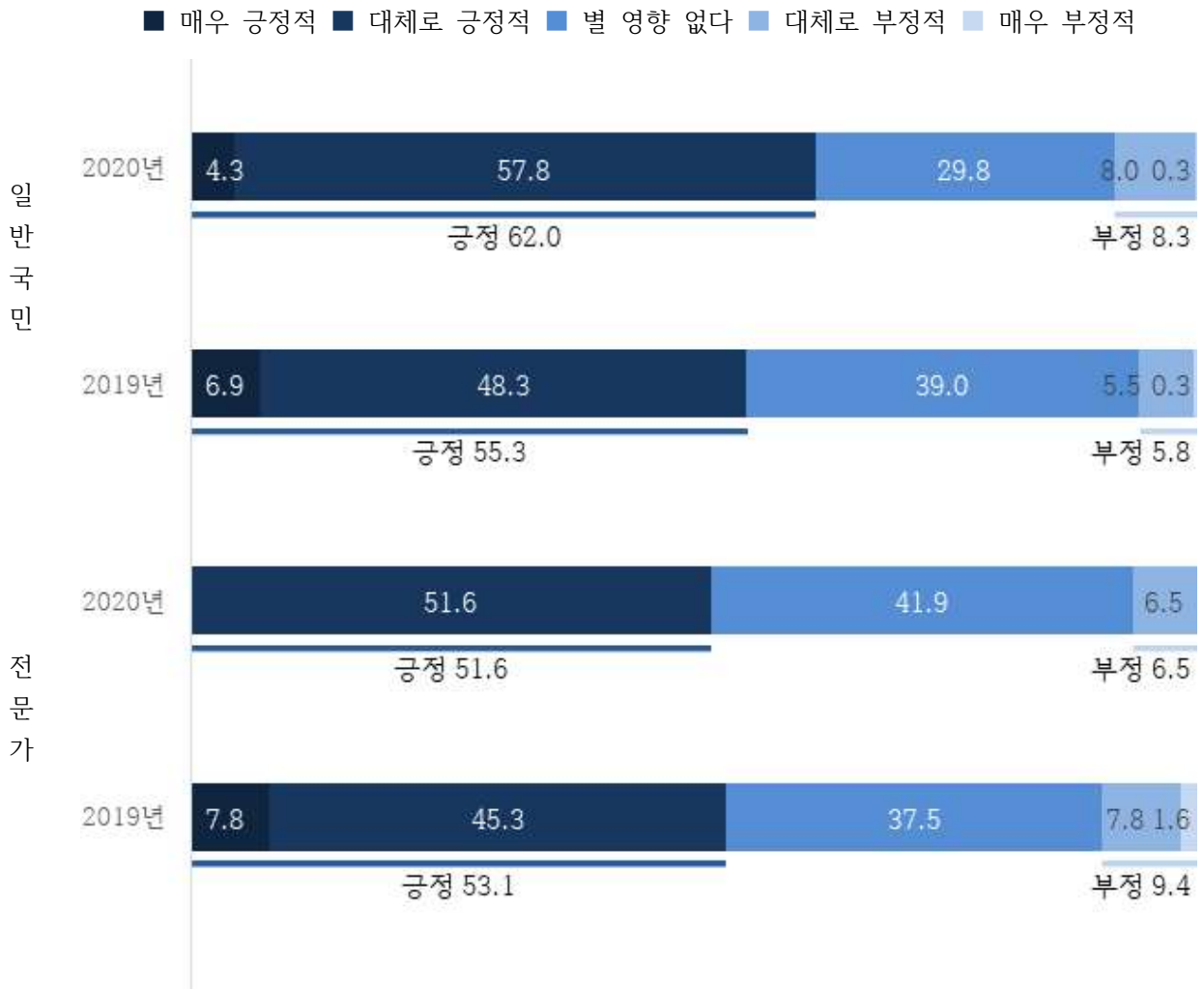
[그림 3-153.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54.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78.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다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종합		
								긍정	영향 없음	부정
전체		(1262)	4.0	57.4	30.3	7.9	0.2	61.5	30.3	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	57.8	29.8	8.0	0.3	62.0	29.8	8.3
	전문가	(62)	0.0	51.6	41.9	6.5	0.0	51.6	41.9	6.5
소속별	대학	(30)	0.0	63.3	30.0	6.7	0.0	63.3	30.0	6.7
	연구소	(32)	0.0	40.6	53.1	6.3	0.0	40.6	53.1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3	62.6	25.0	6.5	0.5	67.9	25.0	7.1
	중	(497)	3.4	54.1	36.0	6.4	0.0	57.5	36.0	6.4
	하	(136)	2.9	50.7	26.5	19.9	0.0	53.7	26.5	19.9
성별	남성	(720)	4.3	58.1	28.9	8.5	0.3	62.4	28.9	8.8
	여성	(480)	4.2	57.3	31.0	7.3	0.2	61.5	31.0	7.5
연령별	18-29세	(303)	5.0	55.1	29.7	9.9	0.3	60.1	29.7	10.2
	30대	(256)	4.3	57.8	29.7	7.8	0.4	62.1	29.7	8.2
	40대	(314)	2.9	57.3	31.5	8.0	0.3	60.2	31.5	8.3
	50대	(327)	4.9	60.6	28.1	6.4	0.0	65.4	28.1	6.4
지역별	서울	(238)	0.0	66.4	27.7	5.9	0.0	66.4	27.7	5.9
	경기/인천	(393)	10.2	57.3	22.6	9.7	0.3	67.4	22.6	9.9
	대전/세종/충청	(128)	0.0	63.3	33.6	3.1	0.0	63.3	33.6	3.1
	광주/전라	(110)	0.9	60.9	30.9	7.3	0.0	61.8	30.9	7.3
	대구/경북	(109)	1.8	52.3	39.4	6.4	0.0	54.1	39.4	6.4
	부산/울산/경남	(175)	4.0	48.6	37.1	10.3	0.0	52.6	37.1	10.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42.6	36.2	14.9	4.3	44.7	36.2	19.1
	대도시	(551)	1.5	58.1	31.4	8.7	0.4	59.5	31.4	9.1
	중소도시	(608)	6.9	58.2	27.3	7.4	0.2	65.1	27.3	7.6
	군지역	(41)	2.4	46.3	43.9	7.3	0.0	48.8	43.9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3.3	60.4	28.6	7.7	0.0	63.7	28.6	7.7
	블루칼라	(351)	5.7	54.7	29.3	10.0	0.3	60.4	29.3	10.3
	화이트칼라	(409)	3.4	60.6	29.3	6.4	0.2	64.1	29.3	6.6
	전업주부	(163)	5.5	57.1	30.7	6.1	0.6	62.6	30.7	6.7
	학생	(69)	2.9	50.7	33.3	13.0	0.0	53.6	33.3	13.0
	무직/기타	(26)	0.0	57.7	34.6	7.7	0.0	57.7	34.6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4	55.4	28.8	10.2	0.3	60.7	28.8	10.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6	55.6	32.8	8.4	0.6	58.2	32.8	9.0
	4년제 이상	(535)	4.5	60.6	28.6	6.4	0.0	65.0	28.6	6.4
생활 수준별	상	(137)	5.1	60.6	24.1	9.5	0.7	65.7	24.1	10.2
	중	(700)	3.6	57.9	31.3	7.1	0.1	61.4	31.3	7.3
	하	(363)	5.2	56.5	28.9	9.1	0.3	61.7	28.9	9.4

12)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Q. 귀하는 한국군이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계,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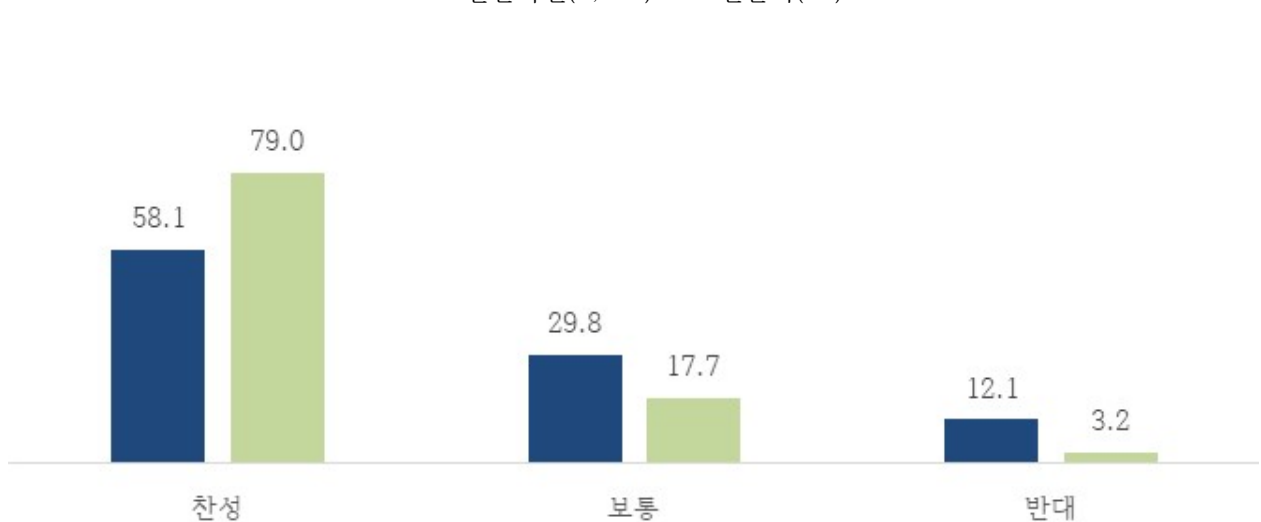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58.1%, 전문가 79.0%

- **[일반국민]**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1%로, ‘반대한다’(12.1%)는 응답보다 46.0%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0.8%p(2019년 57.3%), ‘반대한다’는 응답은 5.6%p(2019년 6.5%)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79.0%로, ‘반대한다’(3.2%)는 응답보다 75.8%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4.8%p(2019년 93.8%) 감소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 또한 1.5%p(2019년 4.7%)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55.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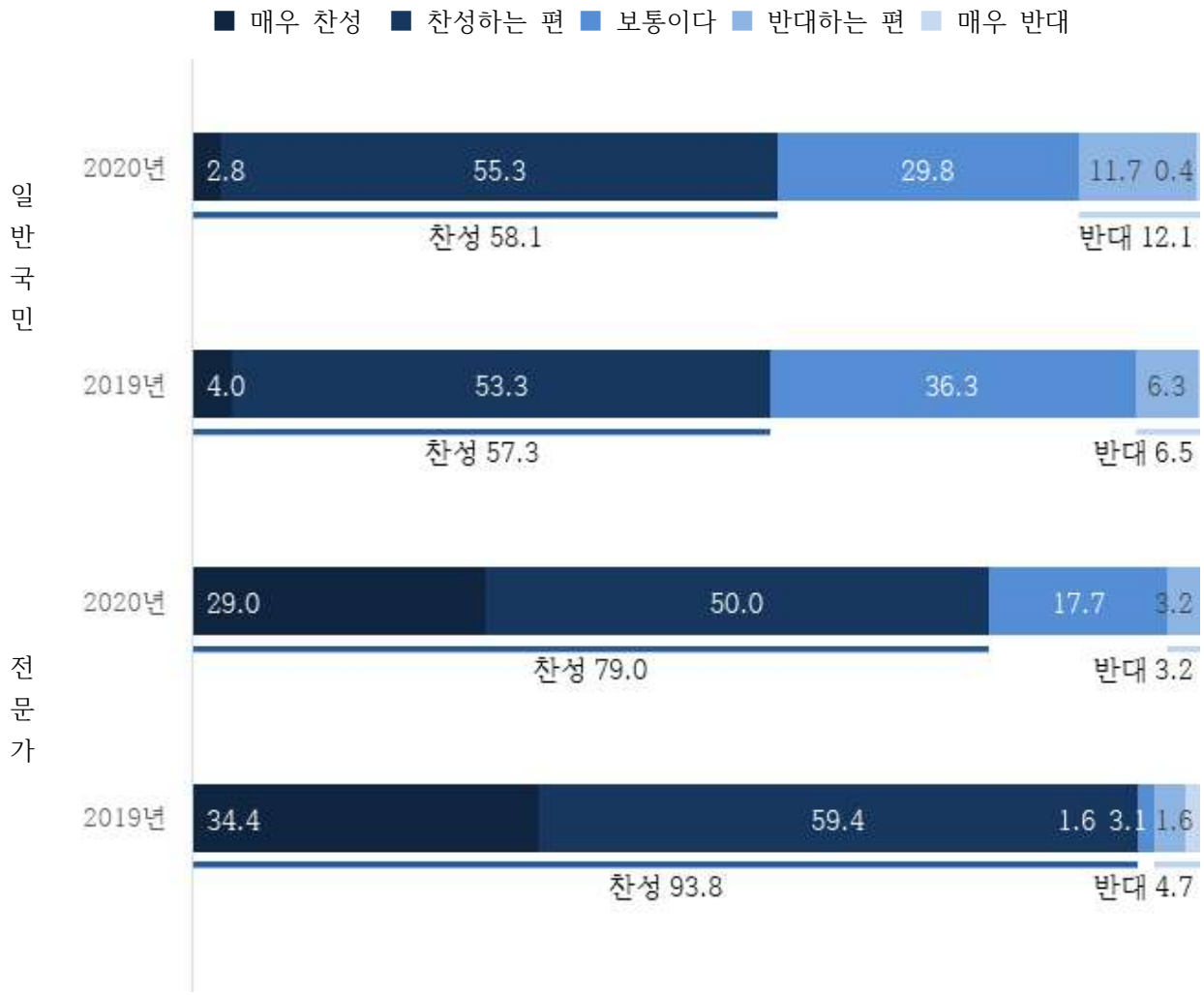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56.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 지역별로 서울, 광주/전라,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79.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찬반]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4.1	55.0	29.2	11.3	0.4	59.1	29.2	11.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	55.3	29.8	11.7	0.4	58.1	29.8	12.1
	전문가	(62)	29.0	50.0	17.7	3.2	0.0	79.0	17.7	3.2
소속별	대학	(30)	26.7	50.0	20.0	3.3	0.0	76.7	20.0	3.3
	연구소	(32)	31.3	50.0	15.6	3.1	0.0	81.3	15.6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4	59.4	25.0	12.0	0.2	62.8	25.0	12.2
	중	(497)	2.6	50.9	35.6	10.5	0.4	53.5	35.6	10.9
	하	(136)	1.5	53.7	28.7	14.7	1.5	55.1	28.7	16.2
성별	남성	(720)	3.1	54.4	31.3	11.0	0.3	57.5	31.3	11.3
	여성	(480)	2.5	56.5	27.7	12.7	0.6	59.0	27.7	13.3
연령별	18-29세	(303)	2.3	57.1	29.0	11.6	0.0	59.4	29.0	11.6
	30대	(256)	2.7	54.3	28.5	14.1	0.4	57.0	28.5	14.5
	40대	(314)	2.5	54.1	32.2	10.8	0.3	56.7	32.2	11.1
	50대	(327)	3.7	55.4	29.4	10.7	0.9	59.0	29.4	11.6
지역별	서울	(238)	2.1	66.4	24.4	7.1	0.0	68.5	24.4	7.1
	경기/인천	(393)	3.8	52.4	24.7	18.8	0.3	56.2	24.7	19.1
	대전/세종/충청	(128)	0.8	57.0	35.2	7.0	0.0	57.8	35.2	7.0
	광주/전라	(110)	0.9	62.7	23.6	11.8	0.9	63.6	23.6	12.7
	대구/경북	(109)	8.3	48.6	37.6	5.5	0.0	56.9	37.6	5.5
	부산/울산/경남	(175)	1.1	45.7	44.6	8.6	0.0	46.9	44.6	8.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	51.1	27.7	12.8	6.4	53.2	27.7	19.1
	대도시	(551)	1.6	55.9	31.4	10.3	0.7	57.5	31.4	11.1
	중소도시	(608)	4.1	56.1	28.1	11.5	0.2	60.2	28.1	11.7
	군지역	(41)	0.0	34.1	34.1	31.7	0.0	34.1	34.1	31.7
직업별	자영업자	(182)	4.9	57.1	27.5	9.9	0.5	62.1	27.5	10.4
	블루칼라	(351)	3.1	50.4	36.5	10.0	0.0	53.6	36.5	10.0
	화이트칼라	(409)	1.7	58.9	26.4	12.5	0.5	60.6	26.4	13.0
	전업주부	(163)	3.1	55.8	25.8	14.1	1.2	58.9	25.8	15.3
	학생	(69)	1.4	55.1	30.4	13.0	0.0	56.5	30.4	13.0
	무직/기타	(26)	3.8	46.2	34.6	15.4	0.0	50.0	34.6	15.4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7	50.3	28.8	16.7	0.6	54.0	28.8	17.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2	52.7	34.1	9.3	0.6	55.9	34.1	10.0
	4년제 이상	(535)	2.1	60.0	28.0	9.7	0.2	62.1	28.0	9.9
생활 수준별	상	(137)	2.9	54.7	22.6	19.0	0.7	57.7	22.6	19.7
	중	(700)	2.7	55.3	31.4	10.0	0.6	58.0	31.4	10.6
	하	(363)	3.0	55.4	29.5	12.1	0.0	58.4	29.5	12.1

13) 한국군의 해외파병 찬반

(1) 국가 위상 증진을 위해 필요

Q. 다음은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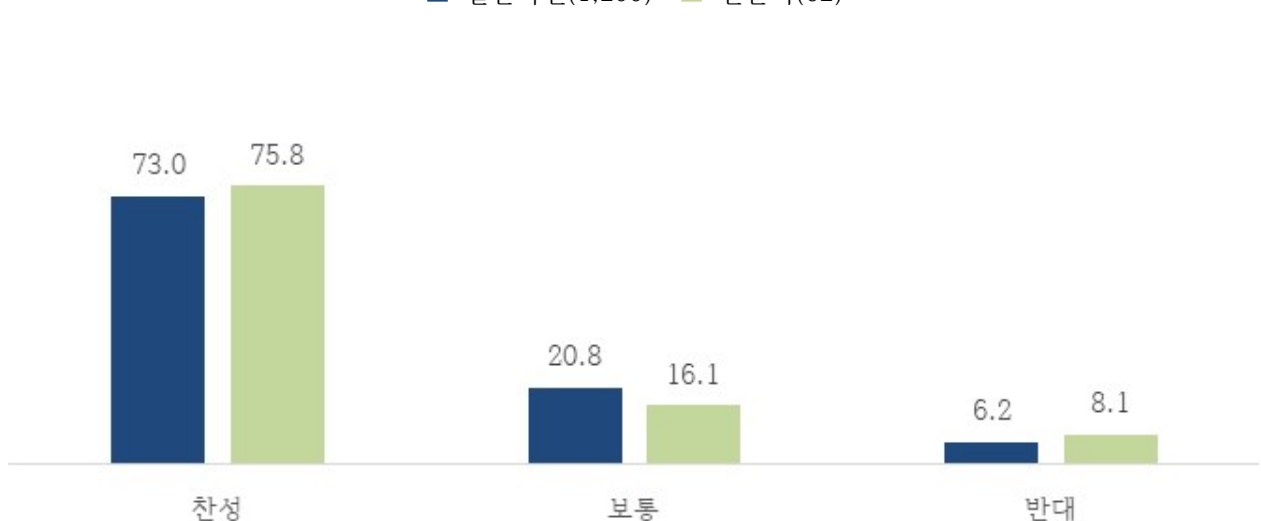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73.0%, 전문가 75.8%

- [일반국민]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 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0%로, ‘반대한다’(6.2%)는 응답보다 66.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6.3%p(2019년 66.7%) 증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음(2019년 7.5%)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75.8%로, ‘반대한다’(8.1%)는 응답보다 67.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8.6%p(2019년 84.4%)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음(2019년 6.3%)

[그림 3-157. 국가 위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58. 국가 위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한 국가 위상 증진을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80. 국가 위상 증진을 위해 필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3.7	59.4	20.6	6.0	0.2	73.1	20.6	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8	60.3	20.8	5.9	0.3	73.0	20.8	6.2
	전문가	(62)	32.3	43.5	16.1	8.1	0.0	75.8	16.1	8.1
소속별	대학	(30)	30.0	40.0	20.0	10.0	0.0	70.0	20.0	10.0
	연구소	(32)	34.4	46.9	12.5	6.3	0.0	81.3	12.5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4.8	62.4	17.1	5.3	0.4	77.2	17.1	5.6
	중	(497)	9.7	60.8	23.3	6.0	0.2	70.4	23.3	6.2
	하	(136)	15.4	49.3	27.2	8.1	0.0	64.7	27.2	8.1
성별	남성	(720)	12.4	60.4	21.4	5.6	0.3	72.8	21.4	5.8
	여성	(480)	13.3	60.0	20.0	6.5	0.2	73.3	20.0	6.7
연령별	18-29세	(303)	12.9	63.0	17.5	6.6	0.0	75.9	17.5	6.6
	30대	(256)	12.5	59.0	23.8	4.7	0.0	71.5	23.8	4.7
	40대	(314)	12.7	61.1	19.7	5.7	0.6	73.9	19.7	6.4
	50대	(327)	12.8	57.8	22.6	6.4	0.3	70.6	22.6	6.7
지역별	서울	(238)	14.3	69.3	15.1	1.3	0.0	83.6	15.1	1.3
	경기/인천	(393)	13.0	56.2	19.1	11.5	0.3	69.2	19.1	11.7
	대전/세종/충청	(128)	5.5	68.0	25.8	0.8	0.0	73.4	25.8	0.8
	광주/전라	(110)	9.1	73.6	12.7	3.6	0.9	82.7	12.7	4.5
	대구/경북	(109)	19.3	58.7	18.3	3.7	0.0	78.0	18.3	3.7
	부산/울산/경남	(175)	13.7	45.1	34.3	6.9	0.0	58.9	34.3	6.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55.3	25.5	4.3	2.1	68.1	25.5	6.4
	대도시	(551)	13.1	59.0	21.1	6.7	0.2	72.1	21.1	6.9
	중소도시	(608)	13.0	61.8	19.7	5.1	0.3	74.8	19.7	5.4
	군지역	(41)	4.9	53.7	34.1	7.3	0.0	58.5	34.1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0	64.3	18.7	5.5	0.5	75.3	18.7	6.0
	블루칼라	(351)	14.8	55.6	23.6	6.0	0.0	70.4	23.6	6.0
	화이트칼라	(409)	12.7	62.8	18.6	5.6	0.2	75.6	18.6	5.9
	전업주부	(163)	12.3	58.3	23.3	5.5	0.6	70.6	23.3	6.1
	학생	(69)	8.7	59.4	20.3	11.6	0.0	68.1	20.3	11.6
	무직/기타	(26)	11.5	69.2	19.2	0.0	0.0	80.8	19.2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1.3	57.6	22.6	8.2	0.3	68.9	22.6	8.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2.2	60.1	22.2	5.1	0.3	72.3	22.2	5.5
	4년제 이상	(535)	14.0	62.1	18.9	4.9	0.2	76.1	18.9	5.0
생활 수준별	상	(137)	11.7	62.8	17.5	7.3	0.7	74.5	17.5	8.0
	중	(700)	11.3	61.7	20.7	6.1	0.1	73.0	20.7	6.3
	하	(363)	16.0	56.5	22.3	5.0	0.3	72.5	22.3	5.2

(2) 국가이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

Q. 다음은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확보 등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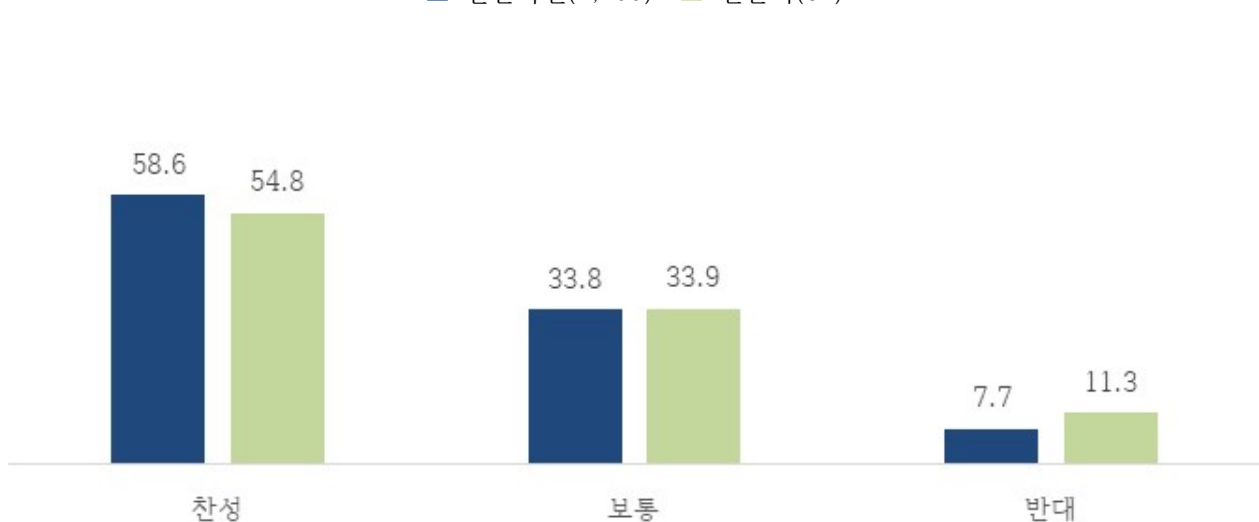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58.6%, 전문가 54.8%

- [일반국민]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6%로, ‘반대한다’(7.7%)는 응답보다 50.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6.8%p(2019년 51.8%) 증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음(2019년 8.8%)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54.8%로, ‘반대한다’(11.3%)는 응답보다 43.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2.4%p(2019년 67.2%)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p(2019년 4.7%) 증가함

[그림 3-159. 국가이익 창출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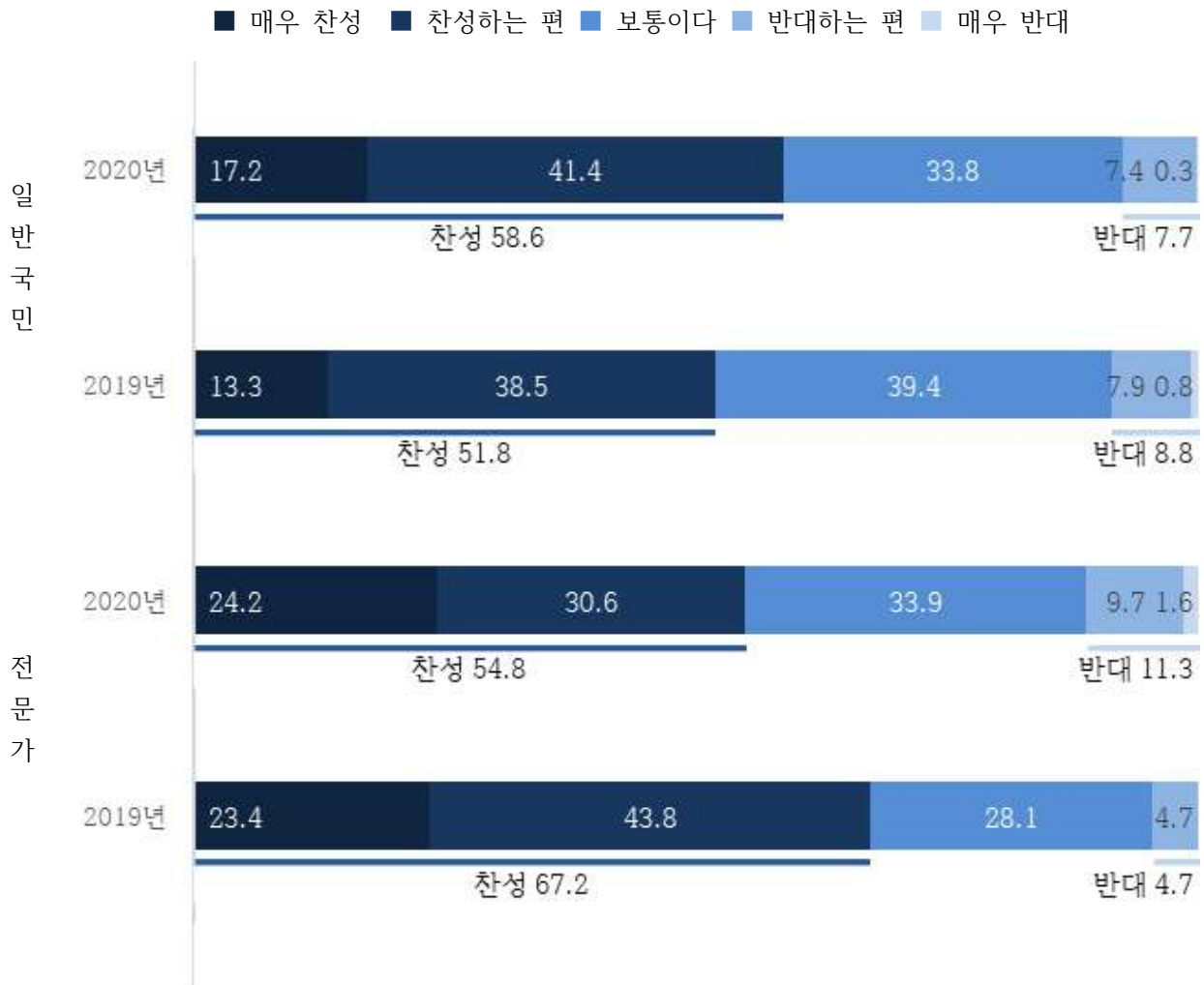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60. 국가이익 창출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가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직업별로 전업주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81. 국가이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7.5	40.9	33.8	7.5	0.3	58.4	33.8	7.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2	41.4	33.8	7.4	0.3	58.6	33.8	7.7
	전문가	(62)	24.2	30.6	33.9	9.7	1.6	54.8	33.9	11.3
소속별	대학	(30)	23.3	23.3	40.0	10.0	3.3	46.7	40.0	13.3
	연구소	(32)	25.0	37.5	28.1	9.4	0.0	62.5	28.1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9.9	41.1	33.2	5.6	0.2	61.0	33.2	5.8
	중	(497)	16.1	41.0	34.6	7.8	0.4	57.1	34.6	8.2
	하	(136)	9.6	44.1	33.1	13.2	0.0	53.7	33.1	13.2
성별	남성	(720)	18.6	40.1	33.9	7.1	0.3	58.8	33.9	7.4
	여성	(480)	15.0	43.3	33.5	7.9	0.2	58.3	33.5	8.1
연령별	18-29세	(303)	16.5	39.6	35.3	8.6	0.0	56.1	35.3	8.6
	30대	(256)	16.8	42.2	33.2	7.8	0.0	59.0	33.2	7.8
	40대	(314)	18.2	39.8	34.4	7.0	0.6	58.0	34.4	7.6
	50대	(327)	17.1	44.0	32.1	6.4	0.3	61.2	32.1	6.7
지역별	서울	(238)	14.7	44.1	38.2	2.9	0.0	58.8	38.2	2.9
	경기/인천	(393)	23.4	37.7	28.5	9.9	0.5	61.1	28.5	10.4
	대전/세종/충청	(128)	9.4	38.3	50.8	1.6	0.0	47.7	50.8	1.6
	광주/전라	(110)	13.6	47.3	32.7	6.4	0.0	60.9	32.7	6.4
	대구/경북	(109)	16.5	51.4	22.9	8.3	0.9	67.9	22.9	9.2
	부산/울산/경남	(175)	16.6	39.4	32.6	11.4	0.0	56.0	32.6	11.4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0.6	38.3	40.4	10.6	0.0	48.9	40.4	10.6
	대도시	(551)	13.4	40.7	36.7	9.3	0.0	54.1	36.7	9.3
	중소도시	(608)	21.2	43.3	29.6	5.6	0.3	64.5	29.6	5.9
	군지역	(41)	7.3	24.4	56.1	9.8	2.4	31.7	56.1	12.2
직업별	자영업자	(182)	19.8	40.1	30.2	9.9	0.0	59.9	30.2	9.9
	블루칼라	(351)	14.5	44.4	31.6	9.1	0.3	59.0	31.6	9.4
	화이트칼라	(409)	18.8	37.7	38.1	4.9	0.5	56.5	38.1	5.4
	전업주부	(163)	18.4	47.2	27.6	6.7	0.0	65.6	27.6	6.7
	학생	(69)	13.0	40.6	36.2	10.1	0.0	53.6	36.2	10.1
	무직/기타	(26)	11.5	34.6	50.0	3.8	0.0	46.2	50.0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5.8	42.9	31.4	9.9	0.0	58.8	31.4	9.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6.4	38.3	36.0	8.7	0.6	54.7	36.0	9.3
	4년제 이상	(535)	18.5	42.2	34.0	5.0	0.2	60.7	34.0	5.2
생활 수준별	상	(137)	16.1	36.5	36.5	10.2	0.7	52.6	36.5	10.9
	중	(700)	16.0	40.7	35.6	7.6	0.1	56.7	35.6	7.7
	하	(363)	19.8	44.6	29.2	6.1	0.3	64.5	29.2	6.3

(3)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

Q. 다음은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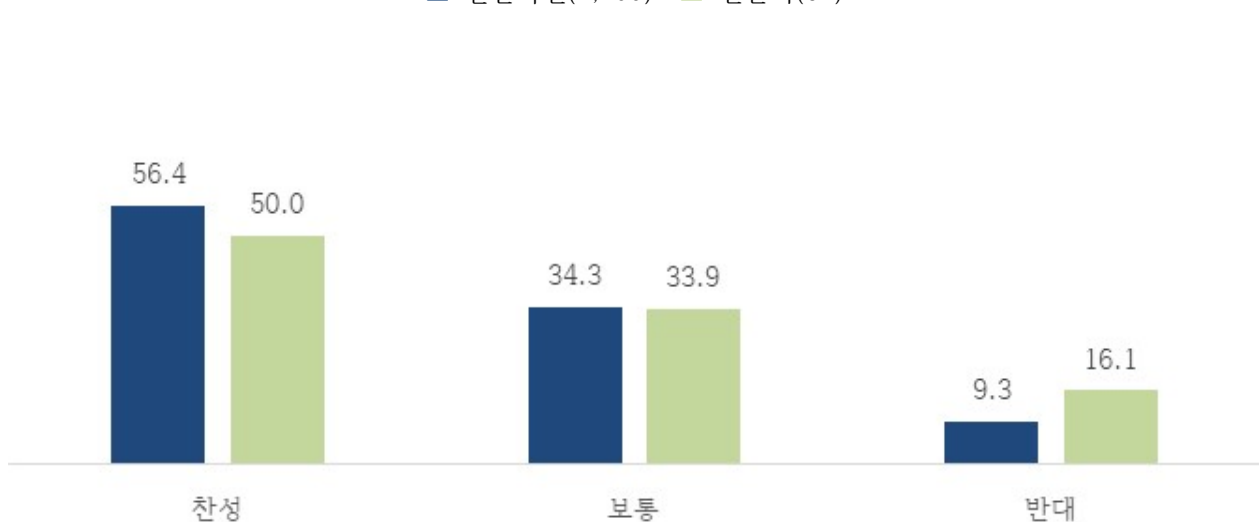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56.4%, 전문가 50.0%

- [일반국민]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4%로, ‘반대한다’(9.3%)는 응답보다 47.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4.8%p(2019년 51.6%) 증가, ‘반대한다’는 응답은 3.5%p(2019년 12.8%)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50.0%로, ‘반대한다’(16.1%)는 응답보다 33.9%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7.8%p(2019년 57.8%)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7%p(2019년 9.4%) 증가함

[그림 3-161.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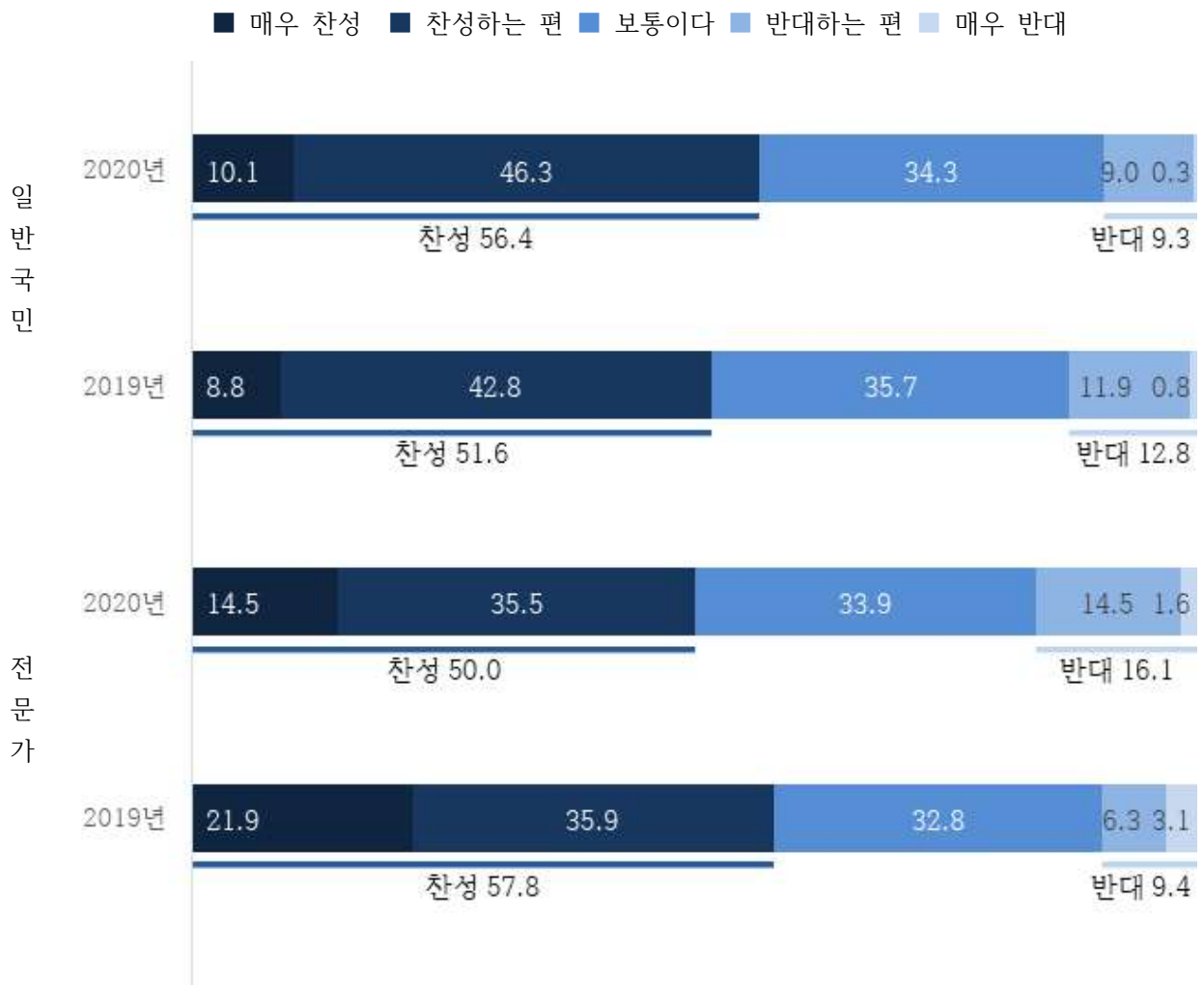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62.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82. 한미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필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0.3	45.8	34.2	9.3	0.4	56.1	34.2	9.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1	46.3	34.3	9.0	0.3	56.4	34.3	9.3
	전문가	(62)	14.5	35.5	33.9	14.5	1.6	50.0	33.9	16.1
소속별	대학	(30)	16.7	23.3	36.7	20.0	3.3	40.0	36.7	23.3
	연구소	(32)	12.5	46.9	31.3	9.4	0.0	59.4	31.3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2.2	50.4	29.5	7.8	0.2	62.6	29.5	7.9
	중	(497)	7.6	46.3	37.6	8.2	0.2	53.9	37.6	8.5
	하	(136)	10.3	29.4	41.9	16.9	1.5	39.7	41.9	18.4
성별	남성	(720)	10.7	48.2	31.5	9.0	0.6	58.9	31.5	9.6
	여성	(480)	9.2	43.5	38.3	9.0	0.0	52.7	38.3	9.0
연령별	18-29세	(303)	10.2	48.2	33.7	7.6	0.3	58.4	33.7	7.9
	30대	(256)	10.5	46.5	35.2	7.8	0.0	57.0	35.2	7.8
	40대	(314)	10.5	43.6	34.7	10.5	0.6	54.1	34.7	11.1
	50대	(327)	9.2	47.1	33.6	9.8	0.3	56.3	33.6	10.1
지역별	서울	(238)	8.0	55.5	30.7	5.9	0.0	63.4	30.7	5.9
	경기/인천	(393)	13.0	42.0	30.3	14.2	0.5	55.0	30.3	14.8
	대전/세종/충청	(128)	7.0	63.3	25.0	3.9	0.8	70.3	25.0	4.7
	광주/전라	(110)	9.1	44.5	42.7	3.6	0.0	53.6	42.7	3.6
	대구/경북	(109)	4.6	32.1	56.9	6.4	0.0	36.7	56.9	6.4
	부산/울산/경남	(175)	12.0	42.3	34.9	10.3	0.6	54.3	34.9	10.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2.8	42.6	36.2	8.5	0.0	55.3	36.2	8.5
	대도시	(551)	8.5	46.6	34.3	10.2	0.4	55.2	34.3	10.5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608)	12.0	46.5	33.1	8.1	0.3	58.6	33.1	8.4
	군지역	(41)	2.4	39.0	51.2	7.3	0.0	41.5	51.2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6.0	52.2	33.5	8.2	0.0	58.2	33.5	8.2
	블루칼라	(351)	11.4	42.5	37.3	8.5	0.3	53.8	37.3	8.8
	화이트칼라	(409)	11.2	49.9	28.1	10.0	0.7	61.1	28.1	10.8
	전업주부	(163)	10.4	41.7	38.7	9.2	0.0	52.1	38.7	9.2
	학생	(69)	8.7	43.5	39.1	8.7	0.0	52.2	39.1	8.7
	무직/기타	(26)	3.8	38.5	53.8	3.8	0.0	42.3	53.8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7.6	42.7	37.9	11.9	0.0	50.3	37.9	11.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9.0	46.6	35.4	8.7	0.3	55.6	35.4	9.0
	4년제 이상	(535)	12.3	48.6	31.2	7.3	0.6	60.9	31.2	7.9
생활 수준별	상	(137)	9.5	49.6	31.4	8.8	0.7	59.1	31.4	9.5
	중	(700)	9.1	47.6	33.7	9.3	0.3	56.7	33.7	9.6
	하	(363)	12.1	42.7	36.4	8.5	0.3	54.8	36.4	8.8

(4)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

Q. 다음은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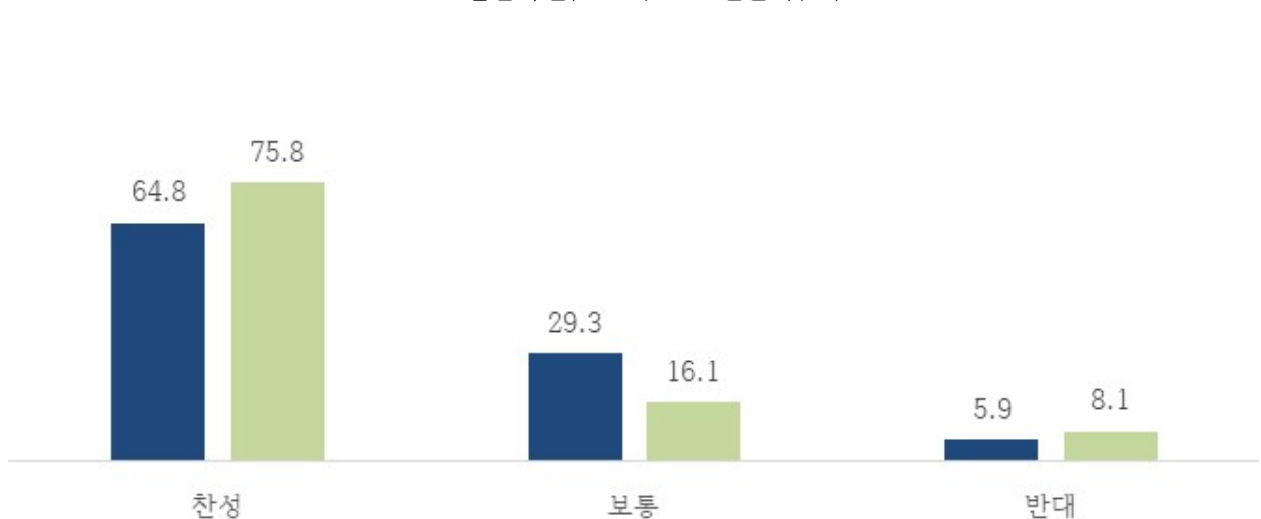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64.8%, 전문가 75.8%

- [일반국민]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8%로, ‘반대한다’(5.9%)는 응답보다 5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11.2%p(2019년 53.6%) 증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p(2019년 8.3%)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75.8%로, ‘반대한다’(8.1%)는 응답보다 67.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7.0%p(2019년 82.8%)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p(2019년 4.7%)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63.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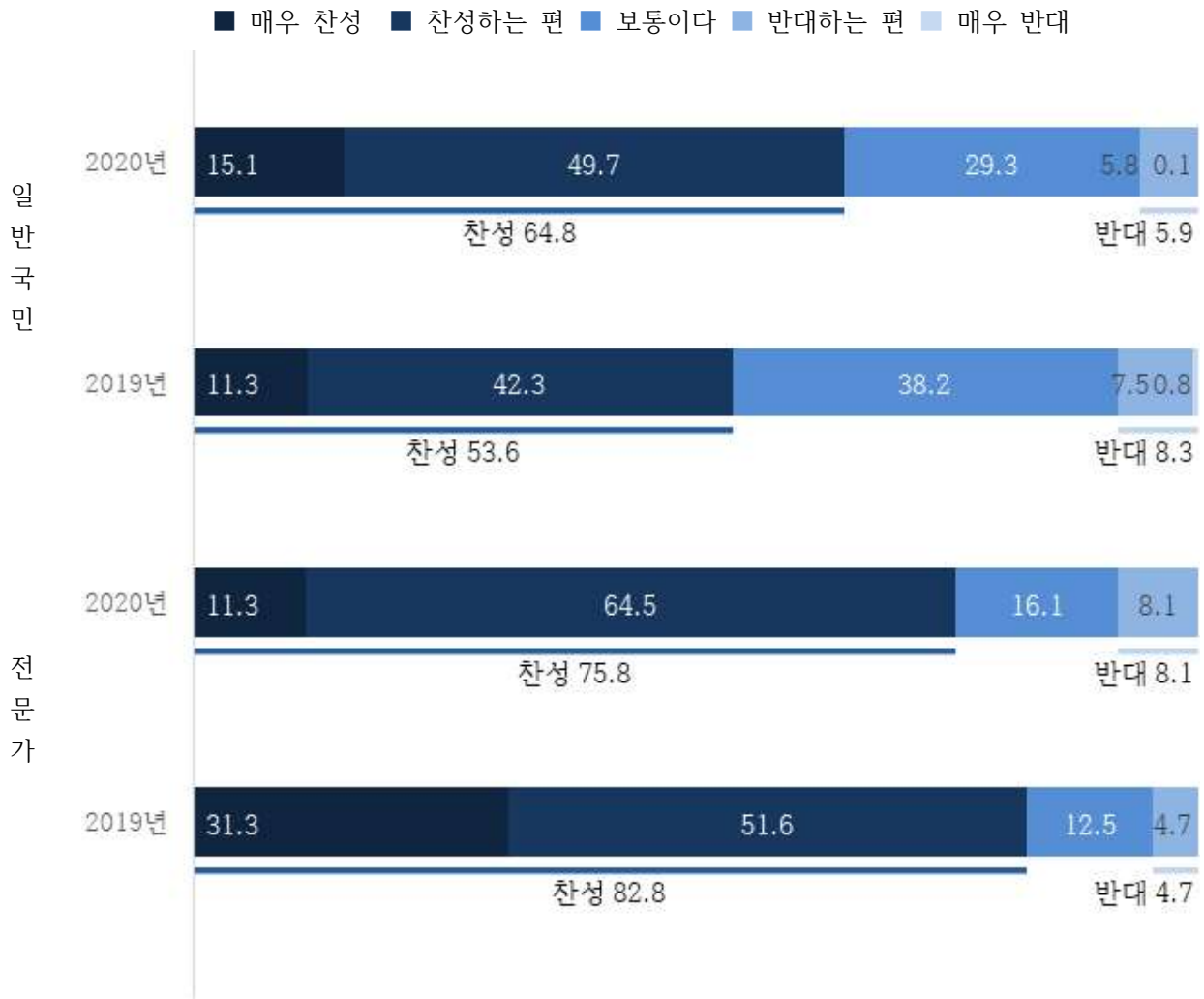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64.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 광주/전라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83.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14.9	50.4	28.7	5.9	0.1	65.3	28.7	6.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1	49.7	29.3	5.8	0.1	64.8	29.3	5.9
	전문가	(62)	11.3	64.5	16.1	8.1	0.0	75.8	16.1	8.1
소속별	대학	(30)	13.3	60.0	20.0	6.7	0.0	73.3	20.0	6.7
	연구소	(32)	9.4	68.8	12.5	9.4	0.0	78.1	12.5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9	50.4	27.3	5.1	0.2	67.4	27.3	5.3
	중	(497)	13.9	49.5	30.8	5.8	0.0	63.4	30.8	5.8
	하	(136)	11.8	47.1	32.4	8.8	0.0	58.8	32.4	8.8
성별	남성	(720)	13.8	50.1	30.1	5.8	0.1	63.9	30.1	6.0
	여성	(480)	17.1	49.0	28.1	5.8	0.0	66.0	28.1	5.8
연령별	18-29세	(303)	13.5	48.8	30.0	7.3	0.3	62.4	30.0	7.6
	30대	(256)	15.6	50.8	27.0	6.6	0.0	66.4	27.0	6.6
	40대	(314)	17.5	46.8	30.3	5.4	0.0	64.3	30.3	5.4
	50대	(327)	13.8	52.3	29.7	4.3	0.0	66.1	29.7	4.3
지역별	서울	(238)	21.4	53.4	22.7	2.5	0.0	74.8	22.7	2.5
	경기/인천	(393)	18.3	45.0	28.2	8.4	0.0	63.4	28.2	8.4
	대전/세종/충청	(128)	4.7	58.6	32.0	4.7	0.0	63.3	32.0	4.7
	광주/전라	(110)	9.1	61.8	23.6	5.5	0.0	70.9	23.6	5.5
	대구/경북	(109)	11.9	49.5	34.9	3.7	0.0	61.5	34.9	3.7
	부산/울산/경남	(175)	10.9	43.4	38.9	6.3	0.6	54.3	38.9	6.9
	강원/제주	(47)	21.3	40.4	29.8	8.5	0.0	61.7	29.8	8.5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14.0	48.5	30.9	6.5	0.2	62.4	30.9	6.7
	중소도시	(608)	16.9	50.5	27.1	5.4	0.0	67.4	27.1	5.4
	군지역	(41)	2.4	53.7	41.5	2.4	0.0	56.1	41.5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15.4	51.1	30.2	3.3	0.0	66.5	30.2	3.3
	블루칼라	(351)	17.4	45.3	31.9	5.4	0.0	62.7	31.9	5.4
	화이트칼라	(409)	14.2	50.9	27.4	7.6	0.0	65.0	27.4	7.6
	전업주부	(163)	16.0	52.8	27.0	4.3	0.0	68.7	27.0	4.3
	학생	(69)	8.7	52.2	29.0	8.7	1.4	60.9	29.0	10.1
	무직/기타	(26)	7.7	53.8	34.6	3.8	0.0	61.5	34.6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5.5	46.6	33.1	4.8	0.0	62.1	33.1	4.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5.4	46.9	31.2	6.4	0.0	62.4	31.2	6.4
	4년제 이상	(535)	14.6	53.3	25.8	6.2	0.2	67.9	25.8	6.4
생활 수준별	상	(137)	14.6	44.5	33.6	7.3	0.0	59.1	33.6	7.3
	중	(700)	13.4	50.7	30.1	5.6	0.1	64.1	30.1	5.7
	하	(363)	18.5	49.6	26.2	5.8	0.0	68.0	26.2	5.8

14)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Q. 귀하는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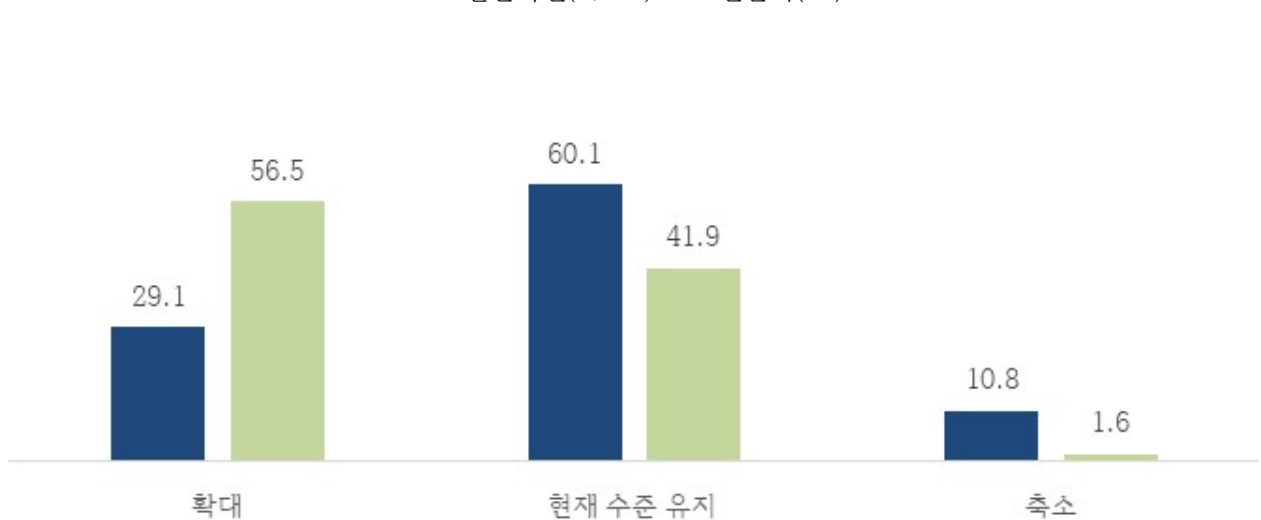
‘확대해야 한다’: 일반국민 29.1%, 전문가 56.5%

- [일반국민] 향후 해외 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1%로, ‘축소해야 한다’(10.8%)는 응답보다 18.3%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5.3%p(2019년 34.4%) 감소,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8%p(2019년 6.0%) 증가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6.5%로, ‘축소해야 한다’(1.6%)는 응답보다 54.8%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p(2019년 68.8%) 감소했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1%p(2019년 4.7%)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65.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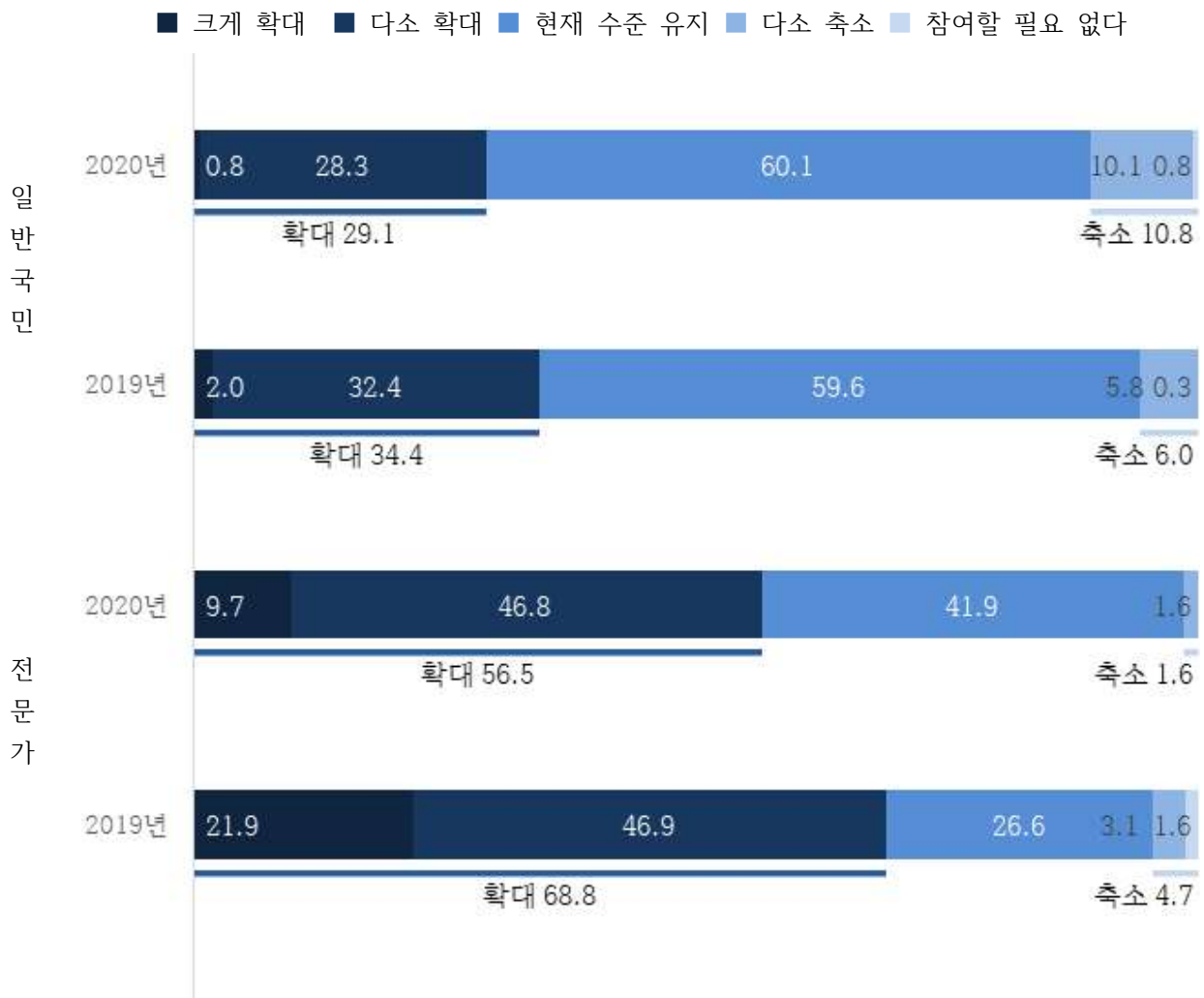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66.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향후 해외 평화유지활동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84.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방향]

(단위: 명, %)

		사례수 (명)	크게 확대 하여야 한다	다소 확대 하여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다소 축소 해야 한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종합		
								확대	현재 수준 유지	축소
전체		(1262)	1.2	29.2	59.2	9.7	0.7	30.4	59.2	1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28.3	60.1	10.1	0.8	29.1	60.1	10.8
	전문가	(62)	9.7	46.8	41.9	1.6	0.0	56.5	41.9	1.6
소속별	대학	(30)	3.3	50.0	43.3	3.3	0.0	53.3	43.3	3.3
	연구소	(32)	15.6	43.8	40.6	0.0	0.0	59.4	40.6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9	31.4	56.3	10.4	1.1	32.3	56.3	11.5
	중	(497)	0.4	25.4	66.0	7.6	0.6	25.8	66.0	8.2
	하	(136)	1.5	26.5	54.4	17.6	0.0	27.9	54.4	17.6
성별	남성	(720)	0.8	28.1	59.7	10.4	1.0	28.9	59.7	11.4
	여성	(480)	0.6	28.8	60.6	9.6	0.4	29.4	60.6	10.0
연령별	18-29세	(303)	1.0	27.4	61.7	8.9	1.0	28.4	61.7	9.9
	30대	(256)	1.2	28.5	59.8	9.4	1.2	29.7	59.8	10.5
	40대	(314)	0.6	28.0	58.9	12.4	0.0	28.7	58.9	12.4
	50대	(327)	0.3	29.4	59.9	9.5	0.9	29.7	59.9	10.4
지역별	서울	(238)	0.8	30.3	67.2	1.7	0.0	31.1	67.2	1.7
	경기/인천	(393)	1.3	27.5	55.5	14.0	1.8	28.8	55.5	15.8
	대전/세종/충청	(128)	0.0	30.5	64.1	5.5	0.0	30.5	64.1	5.5
	광주/전라	(110)	0.0	30.0	58.2	11.8	0.0	30.0	58.2	11.8
	대구/경북	(109)	0.0	30.3	60.6	9.2	0.0	30.3	60.6	9.2
	부산/울산/경남	(175)	0.0	25.1	61.1	13.1	0.6	25.1	61.1	13.7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4.3	23.4	51.1	19.1	2.1	27.7	51.1	21.3
	대도시	(551)	0.5	29.9	57.0	12.2	0.4	30.5	57.0	12.5
	중소도시	(608)	1.0	27.1	63.0	7.7	1.2	28.1	63.0	8.9
	군지역	(41)	0.0	24.4	58.5	17.1	0.0	24.4	58.5	17.1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	25.8	63.7	8.8	0.5	26.9	63.7	9.3
	블루칼라	(351)	0.6	23.6	64.4	10.5	0.9	24.2	64.4	11.4
	화이트칼라	(409)	0.7	32.0	56.7	10.0	0.5	32.8	56.7	10.5
	전업주부	(163)	0.6	35.0	55.2	8.0	1.2	35.6	55.2	9.2
	학생	(69)	0.0	20.3	66.7	13.0	0.0	20.3	66.7	13.0
	무직/기타	(26)	3.8	30.8	42.3	19.2	3.8	34.6	42.3	23.1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6	22.6	63.6	11.9	1.4	23.2	63.6	13.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3	27.0	61.1	9.6	1.0	28.3	61.1	10.6
	4년제 이상	(535)	0.6	32.9	57.2	9.2	0.2	33.5	57.2	9.3
생활 수준별	상	(137)	0.7	31.4	51.8	15.3	0.7	32.1	51.8	16.1
	중	(700)	1.0	27.6	62.0	9.1	0.3	28.6	62.0	9.4
	하	(363)	0.3	28.7	59.5	9.9	1.7	28.9	59.5	11.6

15)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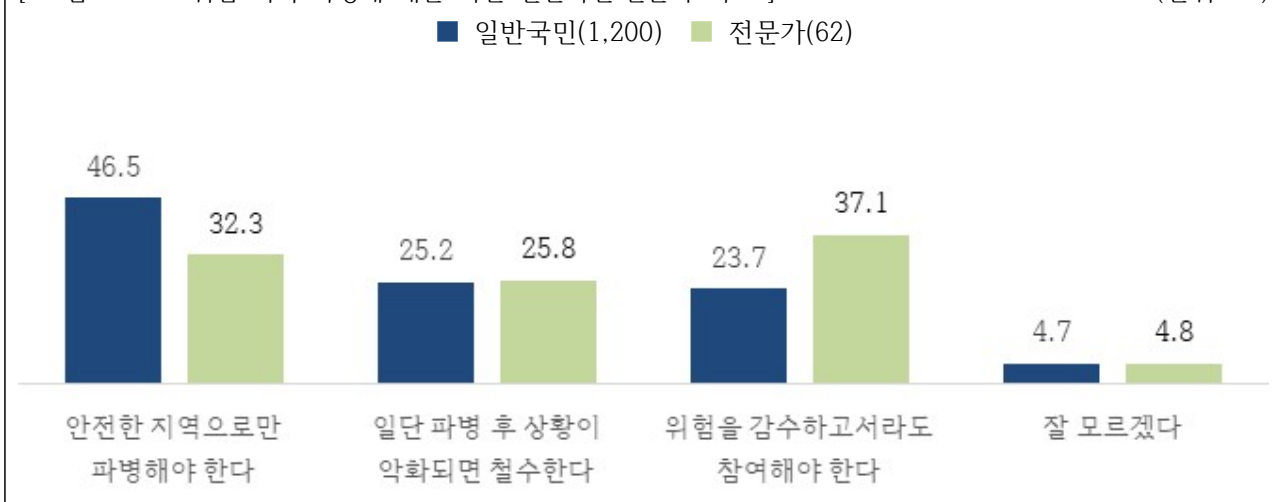
Q. 해외 파병은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그 특성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바, 이 같은 위험이 있는 지역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일반국민 46.5%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 37.1%

- **[일반국민]** 위험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2.8%p(2019년 59.3%) 감소한 반면,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2019년 24.8%)
- **[전문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3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12.9%p(2019년 50.0%) 감소한 반면,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8.9%p(2019년 23.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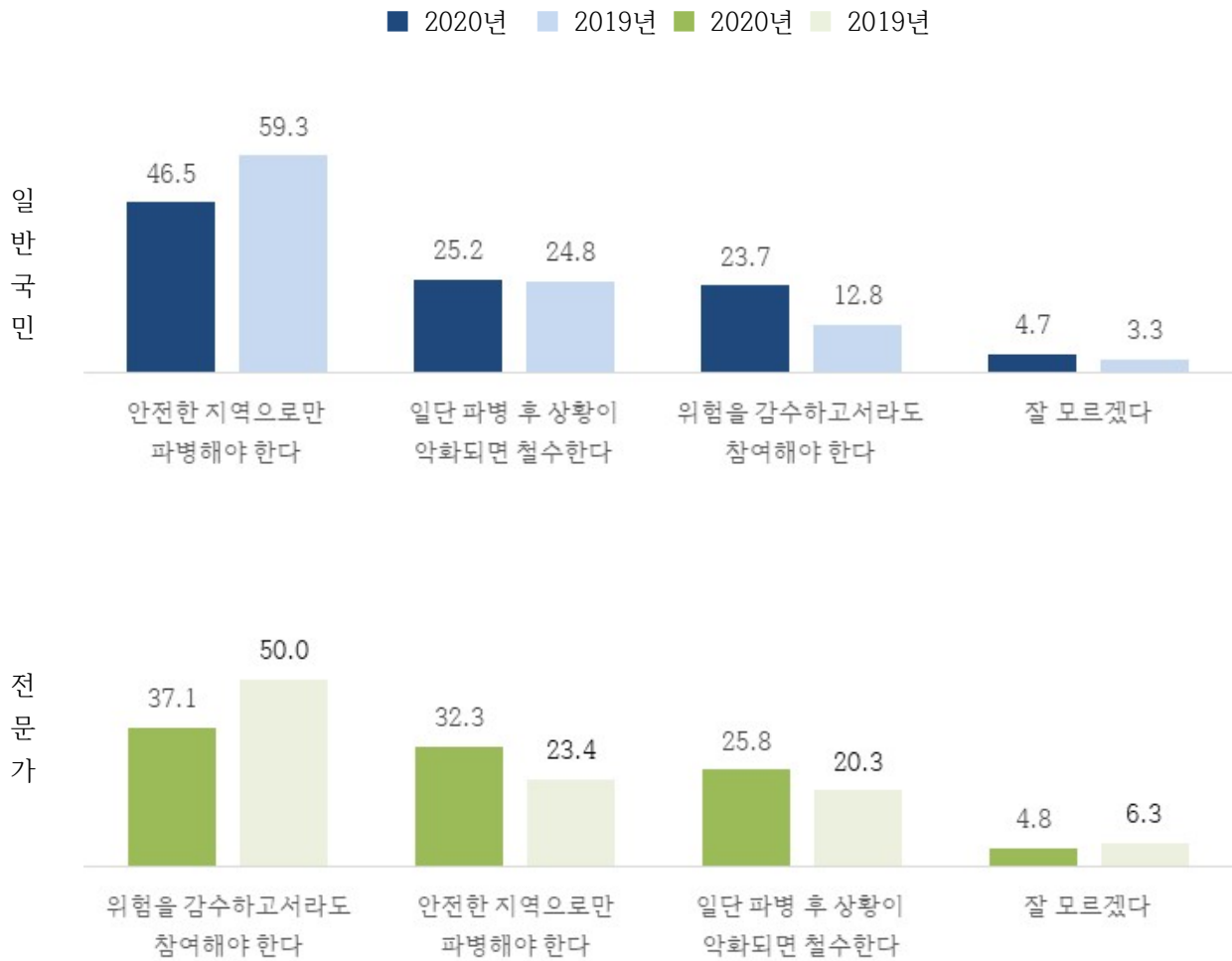
[그림 3-167.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68.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위험 지역에 파병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업 별로 학생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85. 위험 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사례수 (명)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2)	45.8	25.2	24.3	4.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6.5	25.2	23.7	4.7
	전문가	(62)	32.3	25.8	37.1	4.8
소속별	대학	(30)	33.3	30.0	30.0	6.7
	연구소	(32)	31.3	21.9	43.8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6.2	24.2	25.4	4.2
	중	(497)	47.1	25.2	22.1	5.6
	하	(136)	45.6	29.4	22.1	2.9
성별	남성	(720)	48.1	23.8	24.4	3.8
	여성	(480)	44.2	27.3	22.5	6.0
연령별	18-29세	(303)	45.9	26.1	24.1	4.0
	30대	(256)	44.9	24.2	24.2	6.6
	40대	(314)	47.8	25.8	23.6	2.9
	50대	(327)	47.1	24.5	22.9	5.5
지역별	서울	(238)	37.4	32.4	26.1	4.2
	경기/인천	(393)	51.1	28.0	16.5	4.3
	대전/세종/충청	(128)	45.3	19.5	32.8	2.3
	광주/전라	(110)	53.6	22.7	18.2	5.5
	대구/경북	(109)	48.6	15.6	33.0	2.8
	부산/울산/경남	(175)	45.7	18.9	29.1	6.3
	강원/제주	(47)	38.3	31.9	17.0	12.8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45.0	27.0	25.0	2.9
	중소도시	(608)	48.2	24.2	22.2	5.4
	군지역	(41)	41.5	14.6	26.8	17.1
직업별	자영업자	(182)	48.9	22.0	24.7	4.4
	블루칼라	(351)	47.3	23.1	25.1	4.6
	화이트칼라	(409)	45.5	28.1	22.7	3.7
	전업주부	(163)	41.7	29.4	22.1	6.7
	학생	(69)	56.5	23.2	15.9	4.3
	무직/기타	(26)	38.5	7.7	42.3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4.4	24.3	24.6	6.8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8.6	20.9	26.7	3.9
	4년제 이상	(535)	46.7	28.2	21.3	3.7
생활 수준별	상	(137)	48.2	22.6	25.5	3.6
	중	(700)	46.6	24.4	24.7	4.3
	하	(363)	45.7	27.5	20.9	5.8

16)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응소 여부

Q. 귀하는 예비군으로서 전시 국가 동원령 선포 시 또는 평시 지역 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응소하시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국민 23.8%
‘반드시 응소하겠다’: 전문가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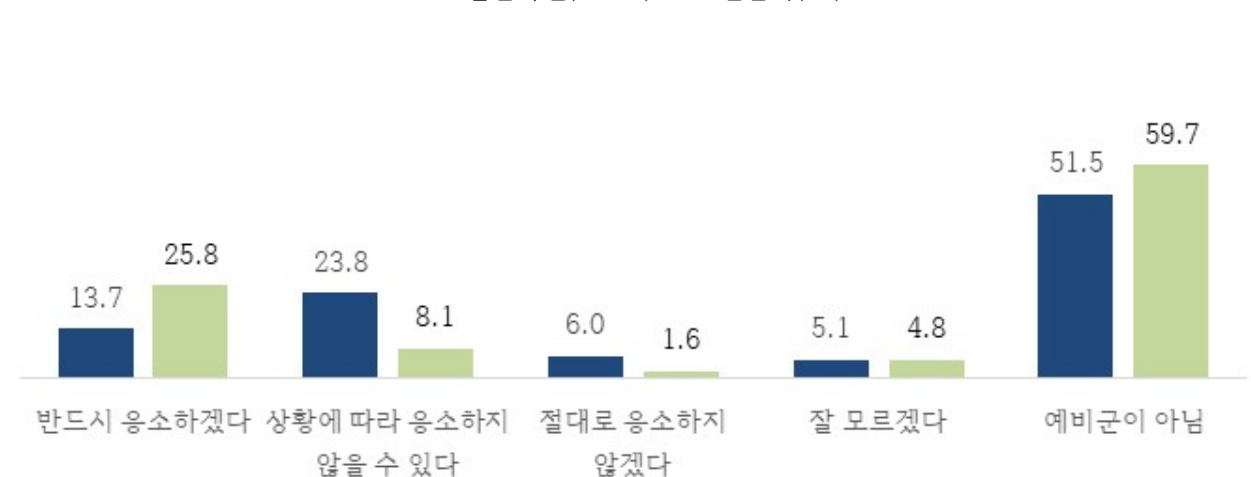
○ [일반국민]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응소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2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반드시 응소하겠다’(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반드시 응소하겠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9.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응소 여부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응소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은 남성, 연령이 어릴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중’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86. 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응소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명)	반드시 응소하겠다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로 응소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예비군이 아님
전체		(1262)	14.3	23.0	5.8	5.1	51.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7	23.8	6.0	5.1	51.5
	전문가	(62)	25.8	8.1	1.6	4.8	59.7
소속별	대학	(30)	26.7	6.7	0.0	10.0	56.7
	연구소	(32)	25.0	9.4	3.1	0.0	62.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8	25.0	4.2	4.8	49.2
	중	(497)	11.5	23.5	7.4	5.4	52.1
	하	(136)	8.8	19.1	8.1	5.1	58.8
성별	남성	(720)	21.0	30.6	6.0	6.3	36.3
	여성	(480)	2.7	13.5	6.0	3.3	74.4
연령별	18-29세	(303)	21.8	28.7	6.3	4.0	39.3
	30대	(256)	16.0	28.5	6.6	7.8	41.0
	40대	(314)	8.0	23.6	3.5	4.1	60.8
	50대	(327)	9.8	15.6	7.6	4.9	62.1
지역별	서울	(238)	7.1	19.7	9.7	7.1	56.3
	경기/인천	(393)	14.2	20.4	3.8	2.5	59.0
	대전/세종/충청	(128)	11.7	31.3	6.3	9.4	41.4
	광주/전라	(110)	16.4	40.9	7.3	5.5	30.0
	대구/경북	(109)	16.5	19.3	1.8	1.8	60.6
	부산/울산/경남	(175)	16.0	28.6	7.4	5.1	42.9
	강원/제주	(47)	25.5	4.3	6.4	10.6	53.2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11.1	21.1	8.2	5.4	54.3
	중소도시	(608)	16.6	25.7	4.3	4.1	49.3
	군지역	(41)	4.9	31.7	2.4	14.6	46.3
직업별	자영업자	(182)	9.3	24.7	8.8	3.8	53.3
	블루칼라	(351)	17.7	22.8	5.7	6.0	47.9
	화이트칼라	(409)	13.7	29.1	6.1	5.9	45.2
	전업주부	(163)	2.5	15.3	3.1	3.7	75.5
	학생	(69)	30.4	17.4	7.2	1.4	43.5
	무직/기타	(26)	15.4	15.4	3.8	7.7	5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7.6	14.4	5.1	4.8	68.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5.8	25.4	8.0	3.5	47.3
	4년제 이상	(535)	16.4	29.0	5.4	6.2	43.0
생활 수준별	상	(137)	17.5	29.9	10.2	2.9	39.4
	중	(700)	13.3	23.1	5.9	6.0	51.7
	하	(363)	12.9	22.6	4.7	4.1	55.6

17)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Q. 예비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 승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예비전력입니다. 귀하는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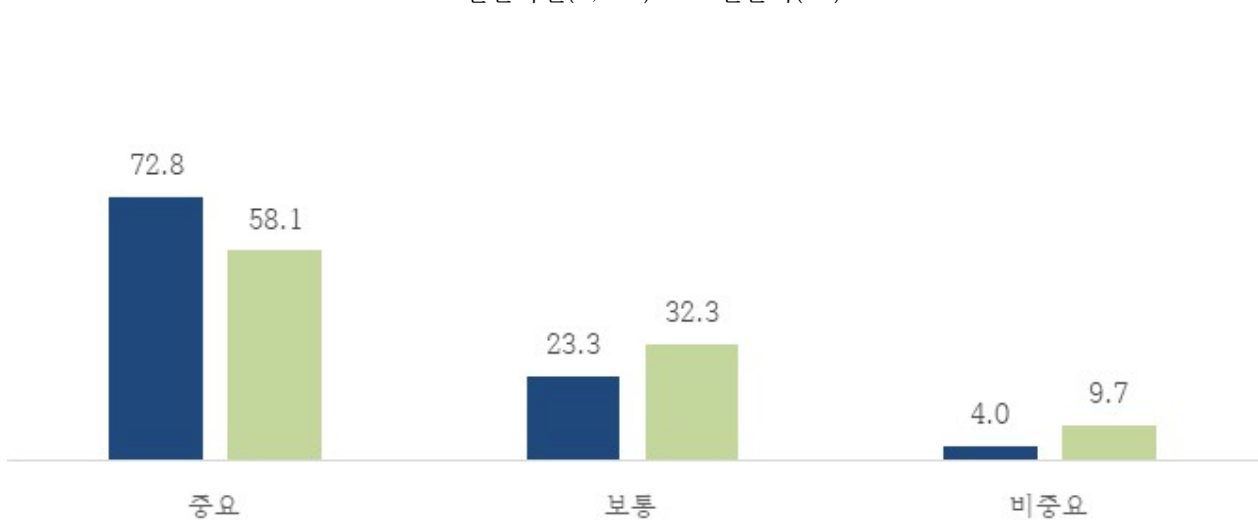
‘중요하다’: 일반국민 72.8%, 전문가 58.1%

- **[일반국민]**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중요하지 않다’(4.0%)는 응답보다 68.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9.9%p(2019년 62.9%) 증가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4%p(2019년 7.4%)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58.1%로, ‘중요하지 않다’(9.7%)는 응답보다 48.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6.5%p(2019년 51.6%) 증가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1%p(2019년 18.8%) 감소함

[그림 3-170.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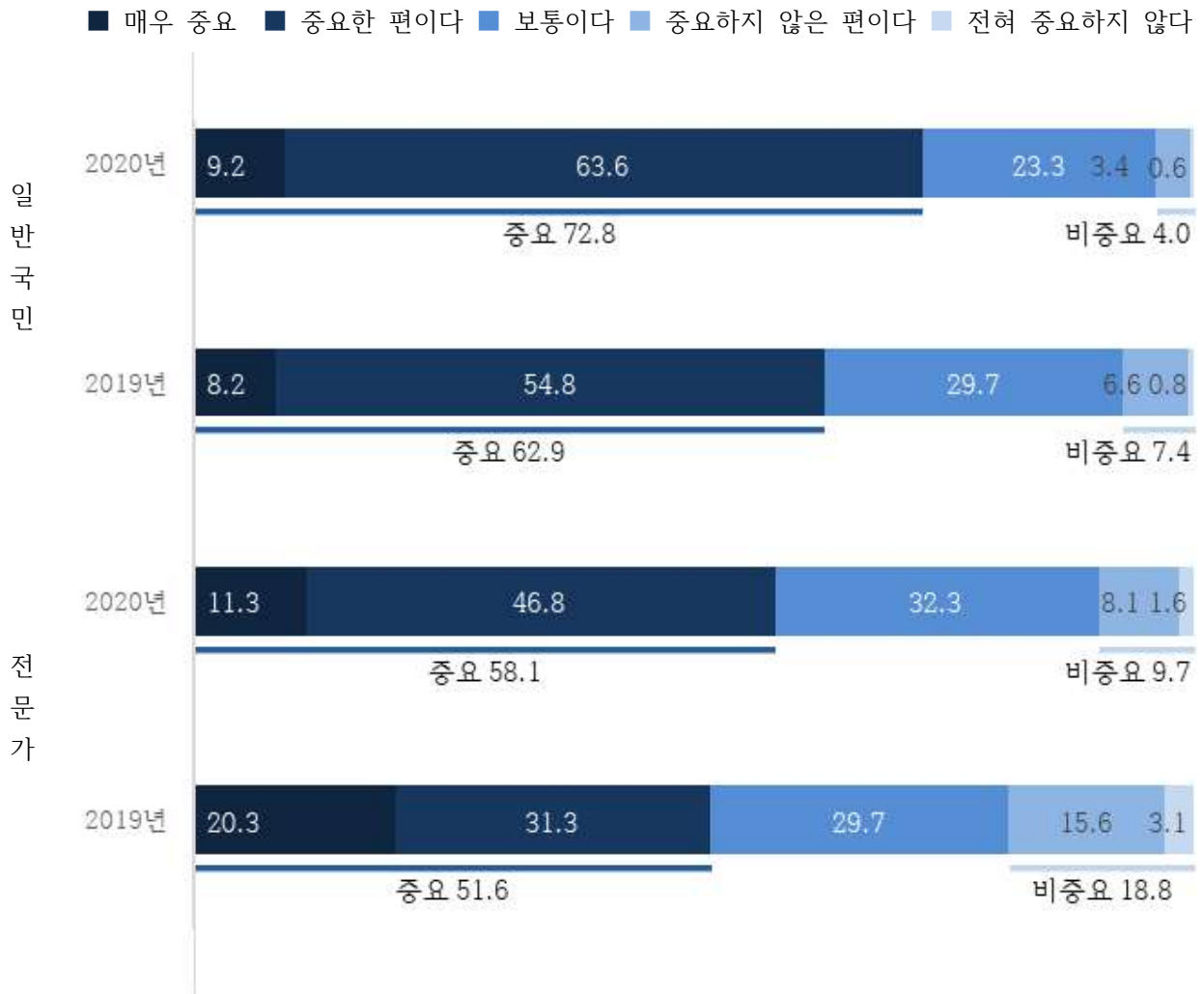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71.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서울, 광주/전라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87.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	보통	비중요
전체		(1262)	9.3	62.8	23.7	3.6	0.6	72.0	23.7	4.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2	63.6	23.3	3.4	0.6	72.8	23.3	4.0
	전문가	(62)	11.3	46.8	32.3	8.1	1.6	58.1	32.3	9.7
소속별	대학	(30)	16.7	43.3	26.7	10.0	3.3	60.0	26.7	13.3
	연구소	(32)	6.3	50.0	37.5	6.3	0.0	56.3	37.5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1.8	66.5	19.2	1.9	0.5	78.3	19.2	2.5
	중	(497)	6.4	61.8	28.6	2.8	0.4	68.2	28.6	3.2
	하	(136)	8.1	58.1	20.6	11.8	1.5	66.2	20.6	13.2
성별	남성	(720)	10.1	62.9	23.6	2.6	0.7	73.1	23.6	3.3
	여성	(480)	7.7	64.6	22.7	4.6	0.4	72.3	22.7	5.0
연령별	18-29세	(303)	8.9	62.4	24.1	4.0	0.7	71.3	24.1	4.6
	30대	(256)	8.6	62.1	25.4	3.5	0.4	70.7	25.4	3.9
	40대	(314)	8.3	66.2	21.3	3.8	0.3	74.5	21.3	4.1
	50대	(327)	10.7	63.3	22.6	2.4	0.9	74.0	22.6	3.4
지역별	서울	(238)	4.2	80.3	14.3	1.3	0.0	84.5	14.3	1.3
	경기/인천	(393)	15.3	62.8	18.6	3.3	0.0	78.1	18.6	3.3
	대전/세종/충청	(128)	1.6	58.6	39.8	0.0	0.0	60.2	39.8	0.0
	광주/전라	(110)	2.7	82.7	12.7	1.8	0.0	85.5	12.7	1.8
	대구/경북	(109)	10.1	46.8	32.1	6.4	4.6	56.9	32.1	11.0
	부산/울산/경남	(175)	8.0	53.7	33.1	5.1	0.0	61.7	33.1	5.1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3	29.8	29.8	14.9	4.3	51.1	29.8	19.1
	대도시	(551)	4.7	66.2	23.6	4.4	1.1	71.0	23.6	5.4
	중소도시	(608)	13.5	62.0	22.4	2.0	0.2	75.5	22.4	2.1
	군지역	(41)	4.9	51.2	31.7	12.2	0.0	56.1	31.7	12.2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0	66.5	18.7	2.7	1.1	77.5	18.7	3.8
	블루칼라	(351)	11.4	56.4	27.1	4.3	0.9	67.8	27.1	5.1
	화이트칼라	(409)	7.1	68.2	22.5	1.7	0.5	75.3	22.5	2.2
	전업주부	(163)	8.6	67.5	20.2	3.7	0.0	76.1	20.2	3.7
	학생	(69)	5.8	56.5	26.1	11.6	0.0	62.3	26.1	11.6
	무직/기타	(26)	11.5	61.5	26.9	0.0	0.0	73.1	26.9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2.1	57.1	24.9	5.1	0.8	69.2	24.9	5.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8.4	61.7	25.4	3.5	1.0	70.1	25.4	4.5
	4년제 이상	(535)	7.7	69.0	20.9	2.2	0.2	76.6	20.9	2.4
생활 수준별	상	(137)	8.0	69.3	19.7	2.9	0.0	77.4	19.7	2.9
	중	(700)	8.4	62.0	25.6	3.4	0.6	70.4	25.6	4.0
	하	(363)	11.0	64.5	20.1	3.6	0.8	75.5	20.1	4.4

18)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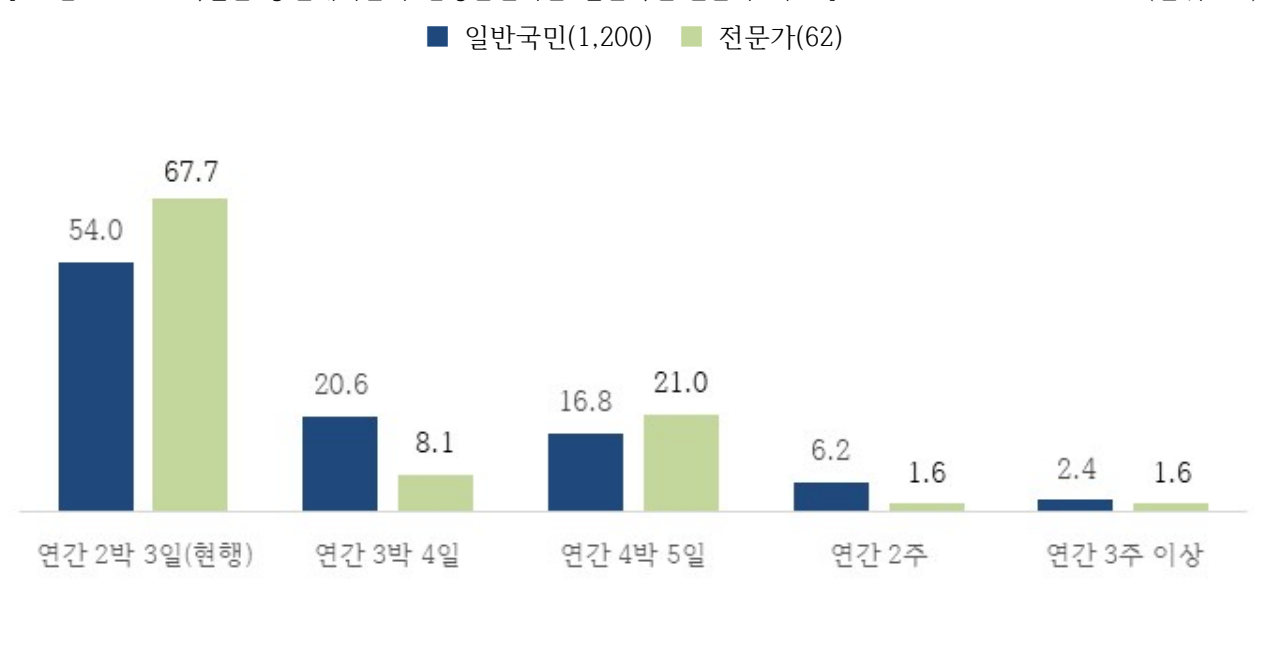
Q. 국방개혁 2.0추진에 따른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써 예비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향후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2박 3일(현행): 일반국민 54.0%, 전문가 67.7%

- **[일반국민]**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에 대해 ‘연간 2박 3일(현행)’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간 3박 4일’(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연간 2박 3일(현행)’이라는 응답은 2.5%p(2019년 51.5%) 증가, ‘연간 3박 4일’이라는 응답은 5.6%p(2019년 26.2%) 감소하였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연간 2박 3일(현행)’이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간 4박 5일’(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연간 2박 3일(현행)’이라는 응답은 8.3%p(2019년 59.4%) 증가한 반면, ‘연간 4박 5일’이라는 응답은 5.4%p(2019년 15.6%)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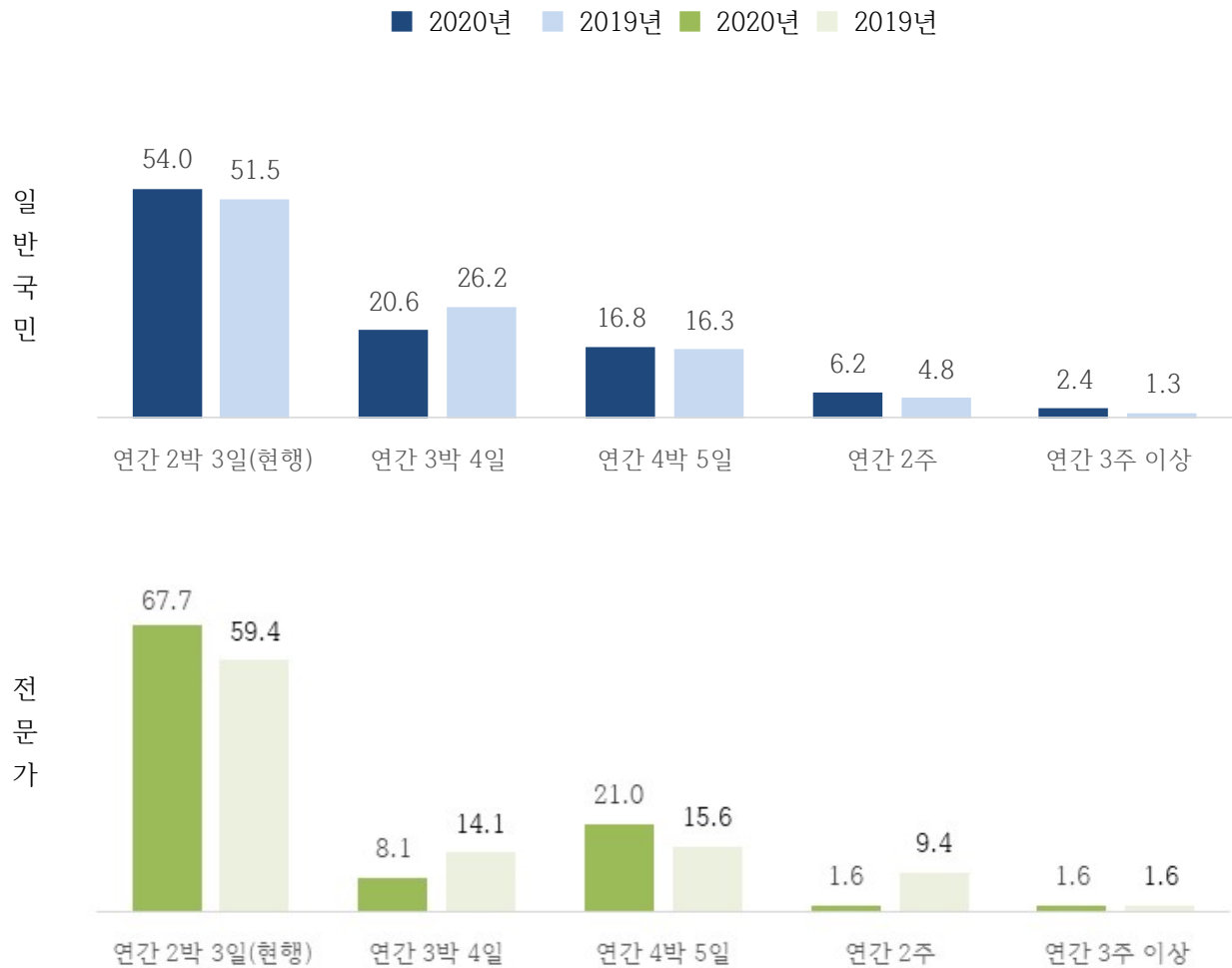
[그림 3-172.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73.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에 대해 ‘연간 2박 3일(현행)’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88. 적절한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

(단위: 명, %)

		사례수 (명)	연간 2박 3일(현재)	연간 3박 4일	연간 4박 5일	연간 2주	연간 3주 이상
전체		(1262)	54.7	20.0	17.0	5.9	2.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4.0	20.6	16.8	6.2	2.4
	전문가	(62)	67.7	8.1	21.0	1.6	1.6
소속별	대학	(30)	63.3	13.3	16.7	3.3	3.3
	연구소	(32)	71.9	3.1	25.0	0.0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2.7	22.2	16.2	6.0	2.8
	중	(497)	53.9	20.3	16.9	6.4	2.4
	하	(136)	59.6	14.7	19.1	5.9	0.7
성별	남성	(720)	53.5	21.4	16.7	6.1	2.4
	여성	(480)	54.8	19.4	17.1	6.3	2.5
연령별	18-29세	(303)	54.8	20.8	16.2	5.3	3.0
	30대	(256)	55.1	18.4	16.4	6.6	3.5
	40대	(314)	53.8	21.7	16.9	7.0	0.6
	50대	(327)	52.6	21.1	17.7	5.8	2.8
지역별	서울	(238)	50.4	18.9	20.2	8.8	1.7
	경기/인천	(393)	52.4	21.1	17.0	6.1	3.3
	대전/세종/충청	(128)	66.4	20.3	7.0	6.3	0.0
	광주/전라	(110)	53.6	26.4	15.5	4.5	0.0
	대구/경북	(109)	51.4	20.2	22.0	0.9	5.5
	부산/울산/경남	(175)	48.0	20.6	20.6	8.6	2.3
	강원/제주	(47)	80.9	12.8	2.1	0.0	4.3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44.8	23.8	22.0	7.4	2.0
	중소도시	(608)	61.3	18.1	12.5	5.1	3.0
	군지역	(41)	68.3	14.6	12.2	4.9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47.3	23.1	19.2	8.2	2.2
	블루칼라	(351)	55.6	21.9	16.0	4.8	1.7
	화이트칼라	(409)	53.3	20.3	14.9	8.6	2.9
	전업주부	(163)	54.6	17.8	20.2	3.7	3.7
	학생	(69)	65.2	15.9	15.9	1.4	1.4
	무직/기타	(26)	57.7	19.2	23.1	0.0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4.0	22.3	17.2	4.0	2.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54.7	17.4	18.3	8.0	1.6
	4년제 이상	(535)	53.6	21.3	15.7	6.5	2.8
생활 수준별	상	(137)	64.2	19.7	10.2	3.6	2.2
	중	(700)	51.0	22.3	19.0	6.3	1.4
	하	(363)	55.9	17.6	15.2	6.9	4.4

19)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1) 테러

Q.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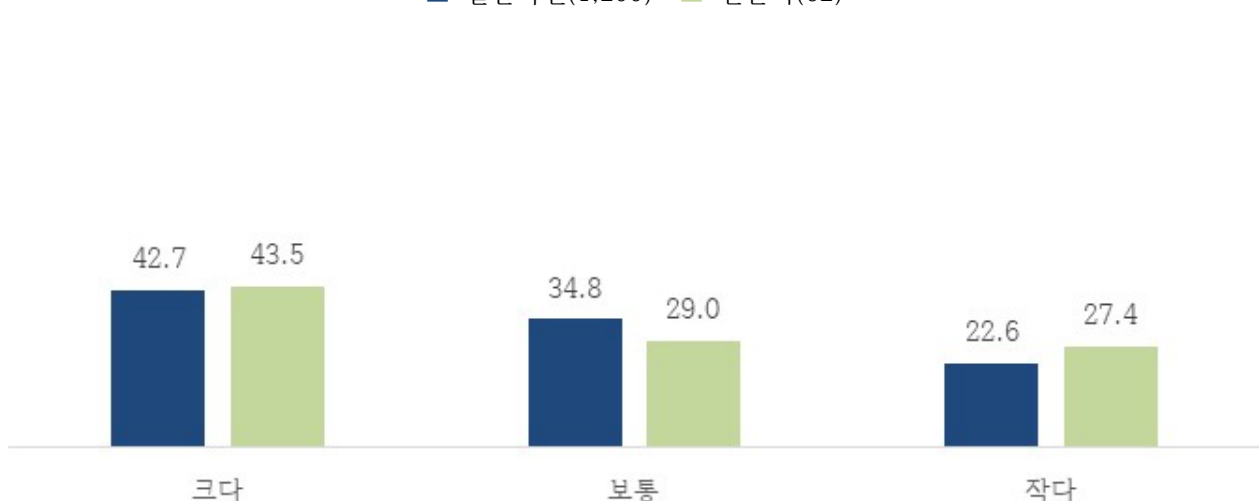
‘크다’: 일반국민 42.7%, 전문가 43.5%

- **[일반국민]**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2.7%로, ‘작다’(22.6%)는 응답보다 20.1%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2.2%p(2019년 44.9%), ‘작다’는 응답은 4.3%p(2019년 26.9%) 감소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크다’는 응답이 43.5%로, ‘작다’(27.4%)는 응답보다 16.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6.5%p(2019년 50.0%) 감소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14.9%p(2019년 12.5%) 증가함

[그림 3-174.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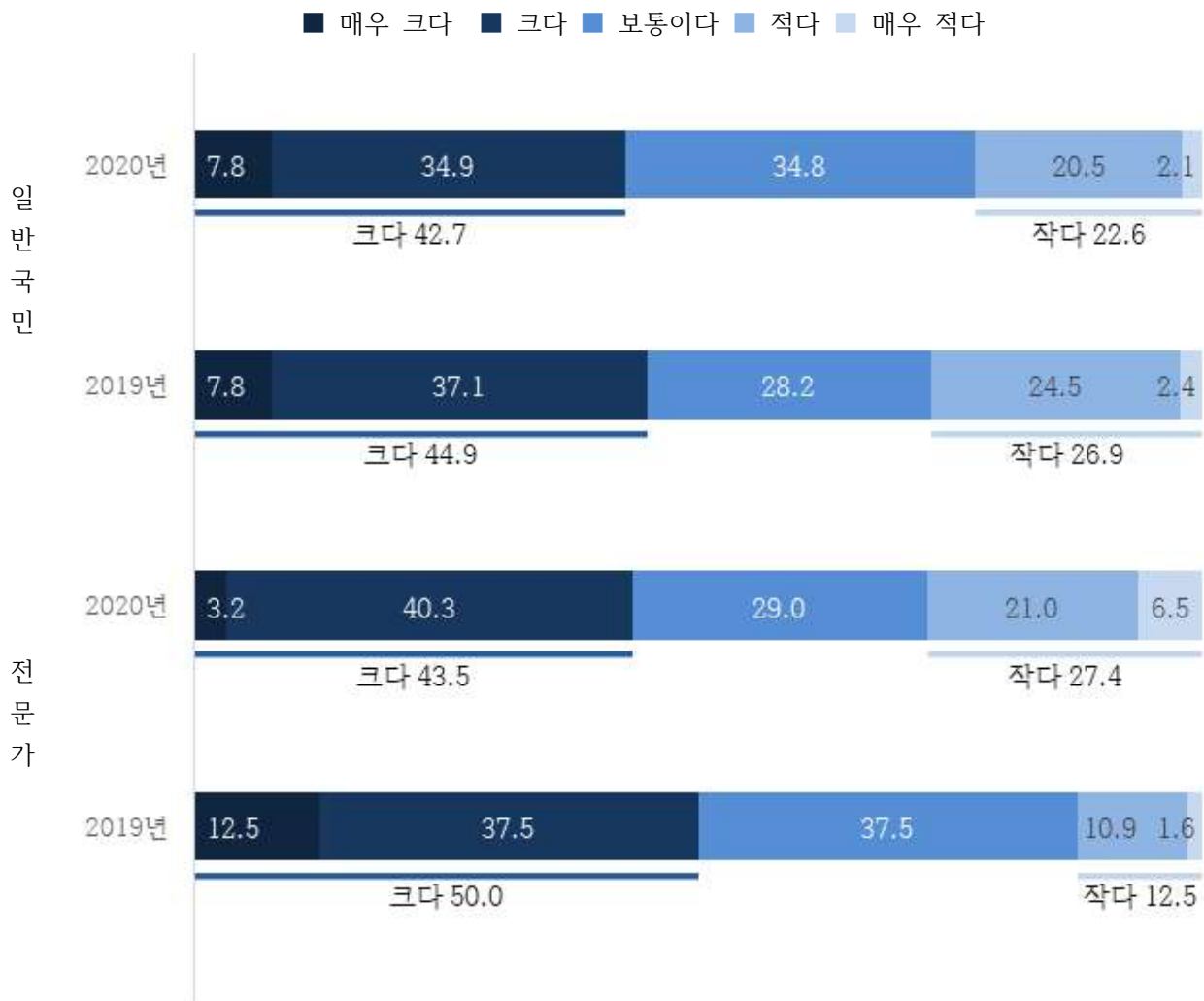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75.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가 클수록,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89.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테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7.5	35.2	34.5	20.5	2.3	42.7	34.5	2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8	34.9	34.8	20.5	2.1	42.7	34.8	22.6
	전문가	(62)	3.2	40.3	29.0	21.0	6.5	43.5	29.0	27.4
소속별	대학	(30)	0.0	43.3	26.7	23.3	6.7	43.3	26.7	30.0
	연구소	(32)	6.3	37.5	31.3	18.8	6.3	43.8	31.3	2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8.6	35.8	31.6	21.7	2.3	44.4	31.6	24.0
	중	(497)	6.6	34.0	39.8	17.9	1.6	40.6	39.8	19.5
	하	(136)	8.1	34.6	29.4	25.0	2.9	42.6	29.4	27.9
성별	남성	(720)	8.2	34.3	35.0	20.7	1.8	42.5	35.0	22.5
	여성	(480)	7.1	35.8	34.4	20.2	2.5	42.9	34.4	22.7
연령별	18-29세	(303)	9.9	35.6	30.4	22.1	2.0	45.5	30.4	24.1
	30대	(256)	8.6	33.2	37.5	18.4	2.3	41.8	37.5	20.7
	40대	(314)	7.6	36.9	30.9	22.0	2.5	44.6	30.9	24.5
	50대	(327)	5.2	33.6	40.4	19.3	1.5	38.8	40.4	20.8
지역별	서울	(238)	6.7	41.6	37.0	12.2	2.5	48.3	37.0	14.7
	경기/인천	(393)	3.1	38.4	24.4	32.3	1.8	41.5	24.4	34.1
	대전/세종/충청	(128)	3.9	22.7	60.2	10.9	2.3	26.6	60.2	13.3
	광주/전라	(110)	11.8	52.7	21.8	11.8	1.8	64.5	21.8	13.6
	대구/경북	(109)	5.5	17.4	52.3	23.9	0.9	22.9	52.3	24.8
	부산/울산/경남	(175)	20.6	33.1	27.4	16.0	2.9	53.7	27.4	18.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0.6	10.6	57.4	19.1	2.1	21.3	57.4	21.3
	대도시	(551)	10.3	36.8	35.6	15.8	1.5	47.2	35.6	17.2
	중소도시	(608)	5.8	33.2	33.1	25.5	2.5	39.0	33.1	28.0
	군지역	(41)	2.4	34.1	48.8	9.8	4.9	36.6	48.8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7.1	35.7	34.1	22.0	1.1	42.9	34.1	23.1
	블루칼라	(351)	9.4	26.5	38.2	23.4	2.6	35.9	38.2	25.9
	화이트칼라	(409)	8.8	39.9	32.8	17.1	1.5	48.7	32.8	18.6
	전업주부	(163)	3.7	39.9	31.9	20.9	3.7	43.6	31.9	24.5
	학생	(69)	5.8	33.3	33.3	26.1	1.4	39.1	33.3	27.5
	무직/기타	(26)	3.8	38.5	46.2	7.7	3.8	42.3	46.2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4.5	33.1	37.0	23.7	1.7	37.6	37.0	25.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0.0	27.0	37.6	23.8	1.6	37.0	37.6	25.4
	4년제 이상	(535)	8.6	40.7	31.6	16.4	2.6	49.3	31.6	19.1
생활 수준별	상	(137)	7.3	34.3	37.2	18.2	2.9	41.6	37.2	21.2
	중	(700)	7.3	35.4	34.4	20.9	2.0	42.7	34.4	22.9
	하	(363)	8.8	34.2	34.4	20.7	1.9	43.0	34.4	22.6

(2) 해적, 마약, 조직범죄

Q.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적, 마약, 조직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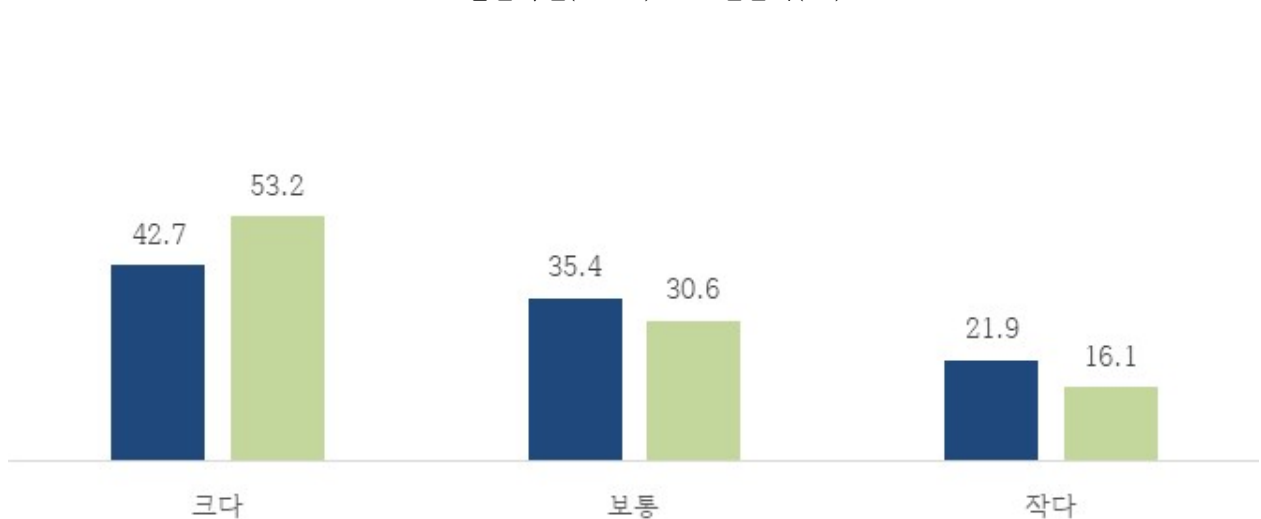
‘크다’: 일반국민 42.7%, 전문가 53.2%

- **[일반국민]**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2.7%로, ‘작다’(21.9%)는 응답보다 20.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6.4%p(2019년 36.3%) 증가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3.3%p(2019년 25.2%)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전문가]** ‘크다’는 응답이 53.2%로, ‘작다’(16.1%)는 응답보다 37.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3.1%p(2019년 56.3%) 감소, ‘작다’는 응답은 3.6%p(2019년 12.5%) 증가했으나 두 응답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3-176.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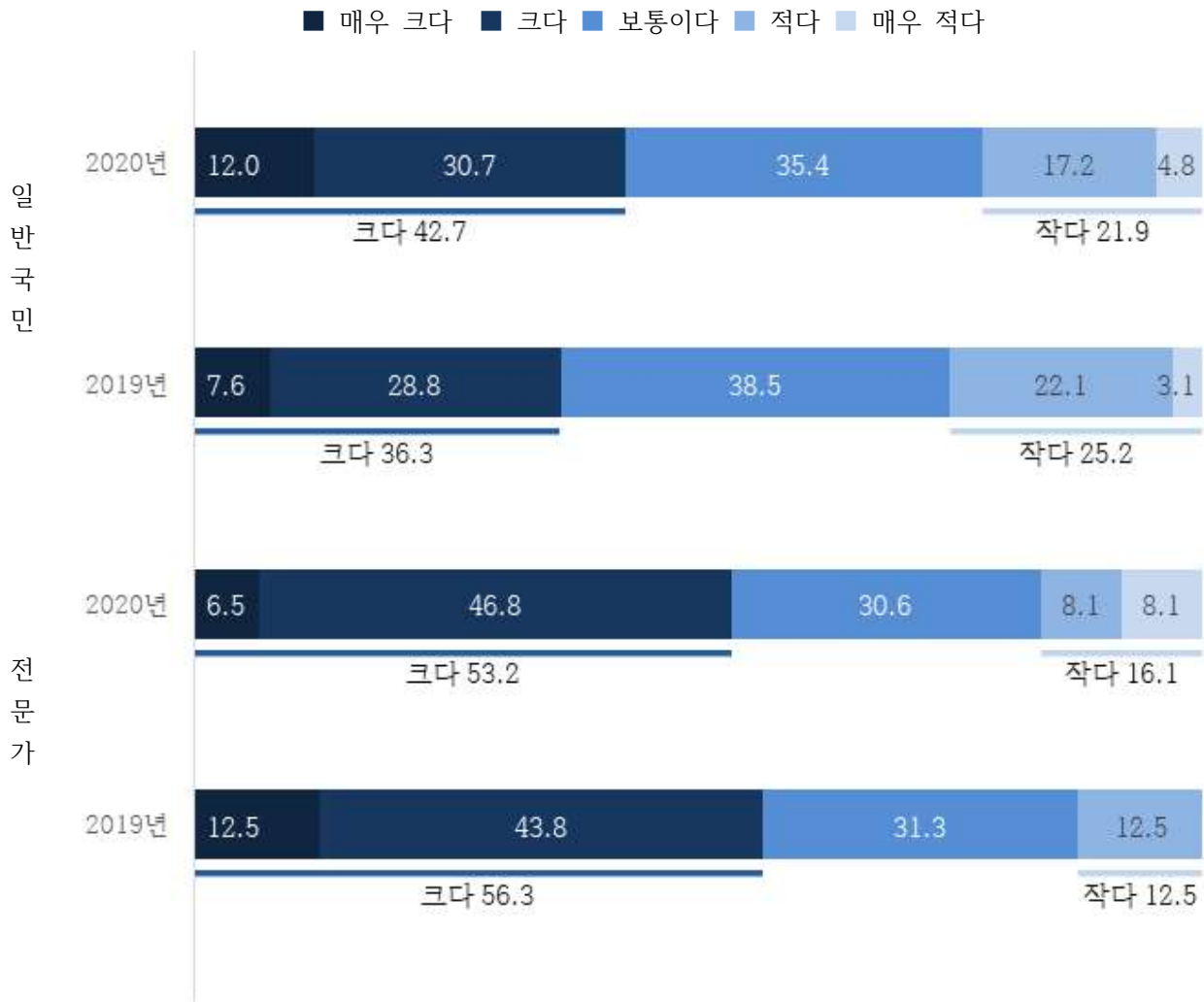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77.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해적, 마약,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 생활수준이 '하'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0.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해적, 마약, 조직범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11.7	31.5	35.2	16.7	4.9	43.2	35.2	21.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0	30.7	35.4	17.2	4.8	42.7	35.4	21.9
	전문가	(62)	6.5	46.8	30.6	8.1	8.1	53.2	30.6	16.1
소속별	대학	(30)	3.3	43.3	33.3	13.3	6.7	46.7	33.3	20.0
	연구소	(32)	9.4	50.0	28.1	3.1	9.4	59.4	28.1	12.5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0.2	30.0	35.8	17.5	6.5	40.2	35.8	24.0
	중	(497)	12.7	31.2	38.8	15.1	2.2	43.9	38.8	17.3
	하	(136)	16.9	31.6	21.3	23.5	6.6	48.5	21.3	30.1
성별	남성	(720)	11.5	29.0	36.8	17.6	5.0	40.6	36.8	22.6
	여성	(480)	12.7	33.1	33.3	16.5	4.4	45.8	33.3	20.8
연령별	18-29세	(303)	11.6	34.7	30.4	19.8	3.6	46.2	30.4	23.4
	30대	(256)	12.5	28.9	36.7	16.4	5.5	41.4	36.7	21.9
	40대	(314)	11.1	29.9	36.0	16.2	6.7	41.1	36.0	22.9
	50대	(327)	12.8	29.1	38.5	16.2	3.4	41.9	38.5	19.6
지역별	서울	(238)	9.7	36.6	39.1	13.0	1.7	46.2	39.1	14.7
	경기/인천	(393)	12.0	28.0	27.7	21.4	10.9	39.9	27.7	32.3
	대전/세종/충청	(128)	0.0	23.4	67.2	7.8	1.6	23.4	67.2	9.4
	광주/전라	(110)	10.9	48.2	32.7	8.2	0.0	59.1	32.7	8.2
	대구/경북	(109)	9.2	28.4	37.6	21.1	3.7	37.6	37.6	24.8
	부산/울산/경남	(175)	27.4	29.7	24.0	17.7	1.1	57.1	24.0	18.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10.6	38.3	38.3	4.3	19.1	38.3	42.6
	대도시	(551)	13.6	32.5	37.7	14.2	2.0	46.1	37.7	16.2
	중소도시	(608)	10.7	28.6	33.2	19.9	7.6	39.3	33.2	27.5
	군지역	(41)	9.8	36.6	36.6	17.1	0.0	46.3	36.6	17.1
직업별	자영업자	(182)	11.5	25.3	45.1	15.9	2.2	36.8	45.1	18.1
	블루칼라	(351)	10.5	28.8	35.9	18.8	6.0	39.3	35.9	24.8
	화이트칼라	(409)	14.4	34.0	32.3	14.7	4.6	48.4	32.3	19.3
	전업주부	(163)	10.4	29.4	33.7	20.2	6.1	39.9	33.7	26.4
	학생	(69)	8.7	31.9	30.4	24.6	4.3	40.6	30.4	29.0
	무직/기타	(26)	15.4	46.2	34.6	3.8	0.0	61.5	34.6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9.3	28.0	37.3	20.9	4.5	37.3	37.3	25.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2.2	27.0	35.4	20.6	4.8	39.2	35.4	25.4
	4년제 이상	(535)	13.6	34.6	34.2	12.7	4.9	48.2	34.2	17.6
생활 수준별	상	(137)	10.9	27.7	38.7	16.8	5.8	38.7	38.7	22.6
	중	(700)	8.6	30.0	39.3	17.4	4.7	38.6	39.3	22.1
	하	(363)	19.0	33.1	26.7	16.8	4.4	52.1	26.7	21.2

(3) 자연재해

Q.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연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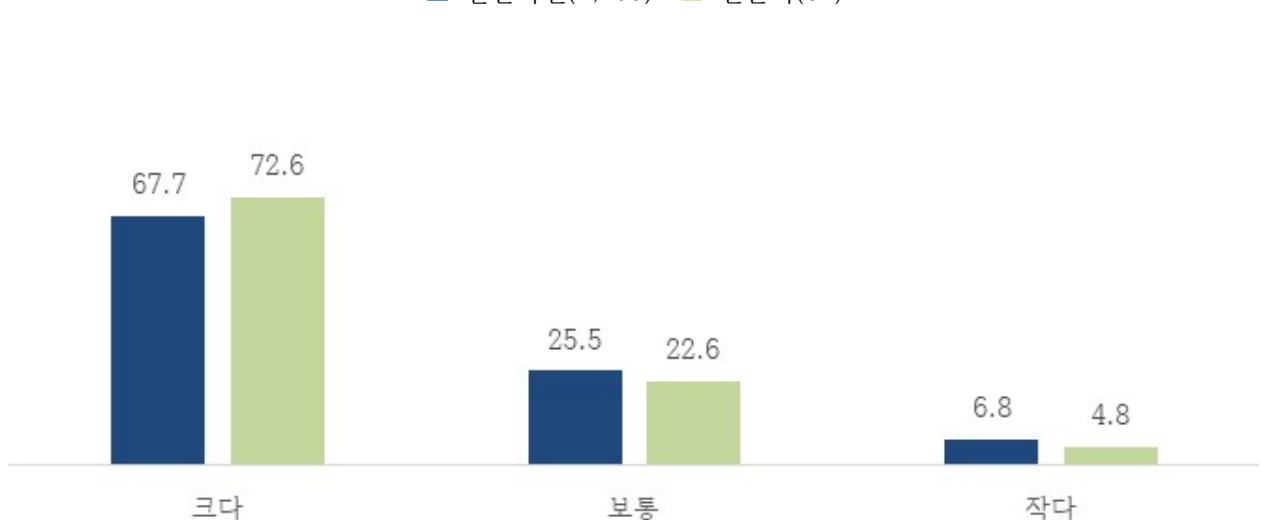
‘크다’: 일반국민 67.7%, 전문가 72.6%

- [일반국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67.7%로, ‘작다’(6.8%)는 응답보다 60.8%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25.4%p(2019년 42.3%) 증가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11.1%p(2019년 17.9%) 감소함
- [전문가] ‘크다’는 응답이 72.6%로, ‘작다’(4.8%)는 응답보다 67.7%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2019년 73.4%)는 응답과 ‘작다’(2019년 3.1%)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178.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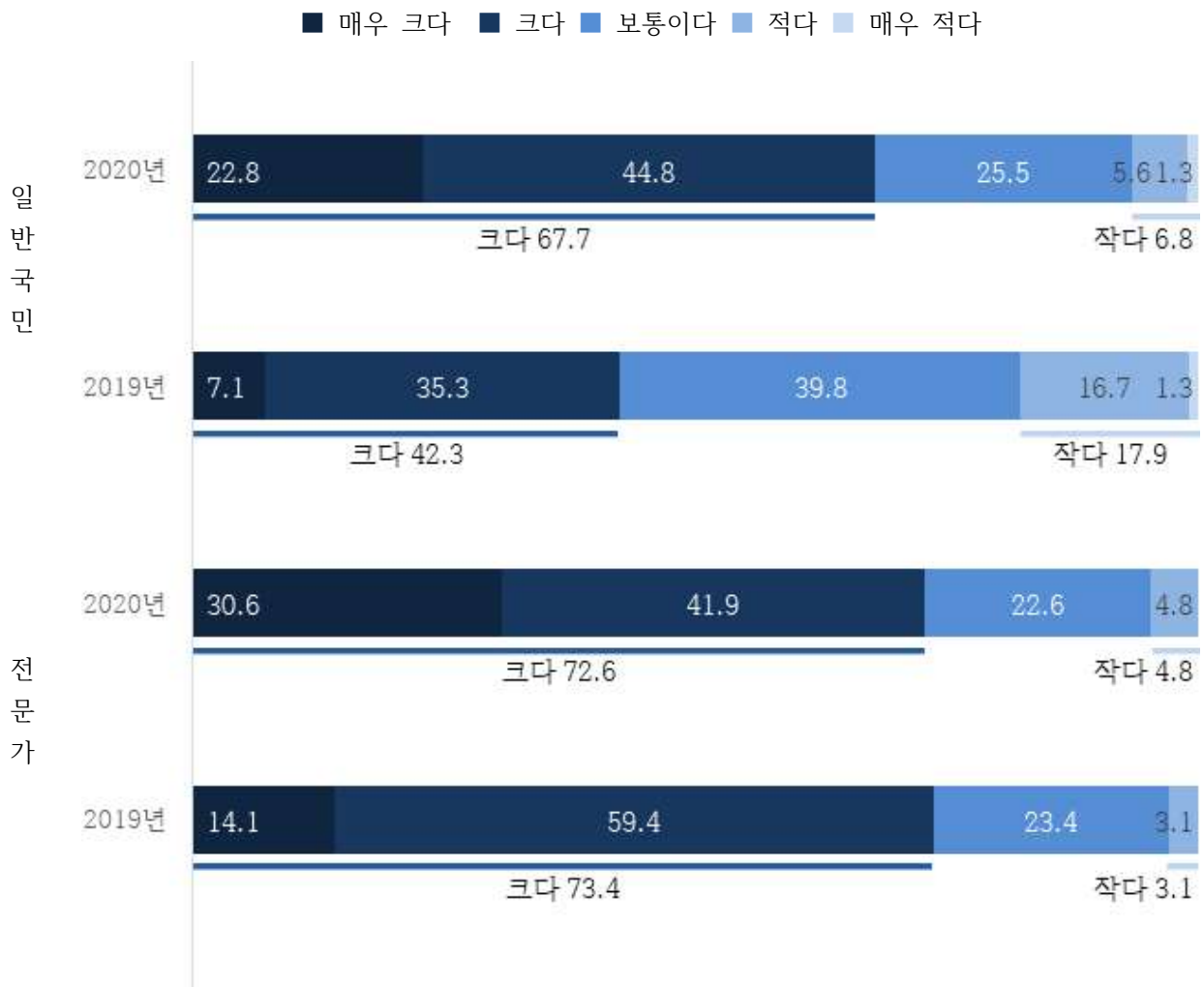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79.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1.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자연재해]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23.2	44.7	25.4	5.5	1.2	67.9	25.4	6.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2.8	44.8	25.5	5.6	1.3	67.7	25.5	6.8
	전문가	(62)	30.6	41.9	22.6	4.8	0.0	72.6	22.6	4.8
소속별	대학	(30)	26.7	43.3	26.7	3.3	0.0	70.0	26.7	3.3
	연구소	(32)	34.4	40.6	18.8	6.3	0.0	75.0	18.8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0.3	45.9	27.0	4.9	1.9	66.1	27.0	6.9
	중	(497)	22.3	45.5	26.4	5.6	0.2	67.8	26.4	5.8
	하	(136)	35.3	38.2	16.2	8.1	2.2	73.5	16.2	10.3
성별	남성	(720)	22.9	43.9	26.9	5.3	1.0	66.8	26.9	6.3
	여성	(480)	22.7	46.3	23.3	6.0	1.7	69.0	23.3	7.7
연령별	18-29세	(303)	24.4	43.9	25.4	5.3	1.0	68.3	25.4	6.3
	30대	(256)	24.2	44.9	25.0	5.1	0.8	69.1	25.0	5.9
	40대	(314)	22.3	47.1	24.2	4.8	1.6	69.4	24.2	6.4
	50대	(327)	20.8	43.4	27.2	7.0	1.5	64.2	27.2	8.6
지역별	서울	(238)	22.7	46.2	18.9	6.7	5.5	68.9	18.9	12.2
	경기/인천	(393)	23.9	46.6	26.0	3.6	0.0	70.5	26.0	3.6
	대전/세종/충청	(128)	8.6	53.1	35.9	2.3	0.0	61.7	35.9	2.3
	광주/전라	(110)	30.0	41.8	24.5	2.7	0.9	71.8	24.5	3.6
	대구/경북	(109)	28.4	33.0	27.5	11.0	0.0	61.5	27.5	11.0
	부산/울산/경남	(175)	23.4	44.6	23.4	8.0	0.6	68.0	23.4	8.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21.3	36.2	31.9	10.6	0.0	57.4	31.9	10.6
	대도시	(551)	23.8	45.4	23.0	5.4	2.4	69.1	23.0	7.8
	중소도시	(608)	22.7	44.6	26.5	5.9	0.3	67.3	26.5	6.3
	군지역	(41)	12.2	41.5	43.9	2.4	0.0	53.7	43.9	2.4
직업별	자영업자	(182)	17.0	43.4	29.1	8.2	2.2	60.4	29.1	10.4
	블루칼라	(351)	23.4	44.4	26.5	4.8	0.9	67.8	26.5	5.7
	화이트칼라	(409)	25.9	45.5	22.7	5.4	0.5	71.4	22.7	5.9
	전업주부	(163)	19.6	48.5	22.7	6.1	3.1	68.1	22.7	9.2
	학생	(69)	21.7	43.5	30.4	4.3	0.0	65.2	30.4	4.3
	무직/기타	(26)	30.8	30.8	34.6	0.0	3.8	61.5	34.6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0.6	44.6	26.3	7.1	1.4	65.3	26.3	8.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0.3	44.7	27.0	7.4	0.6	65.0	27.0	8.0
	4년제 이상	(535)	25.8	45.0	24.1	3.6	1.5	70.8	24.1	5.0
생활 수준별	상	(137)	20.4	43.8	25.5	6.6	3.6	64.2	25.5	10.2
	중	(700)	21.3	45.9	27.3	4.4	1.1	67.1	27.3	5.6
	하	(363)	26.7	43.3	22.0	7.4	0.6	70.0	22.0	8.0

(4) 원전 사고

Q.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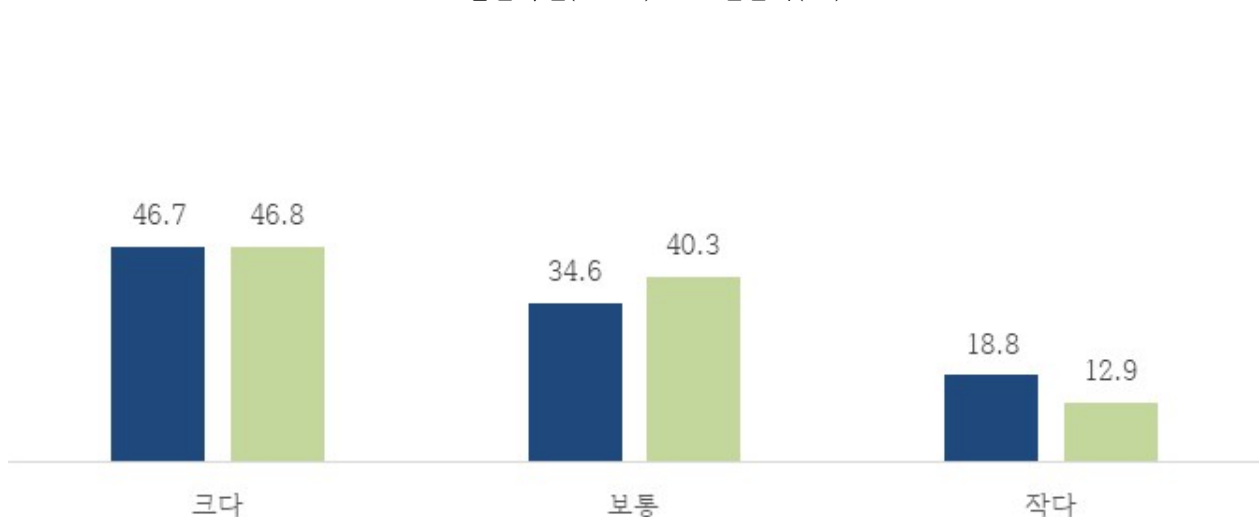
‘크다’: 일반국민 46.7%, 전문가 46.8%

- [일반국민]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46.7%로, ‘작다’(18.8%)는 응답보다 27.9%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2019년 43.4%)는 응답과, ‘작다’(2019년 18.8%)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 ‘크다’는 응답이 46.8%로, ‘작다’(12.9%)는 응답보다 33.9%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2019년 51.6%)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난 반면, ‘작다’는 응답은 12.1%p(2019년 25.0%) 감소함

[그림 3-180.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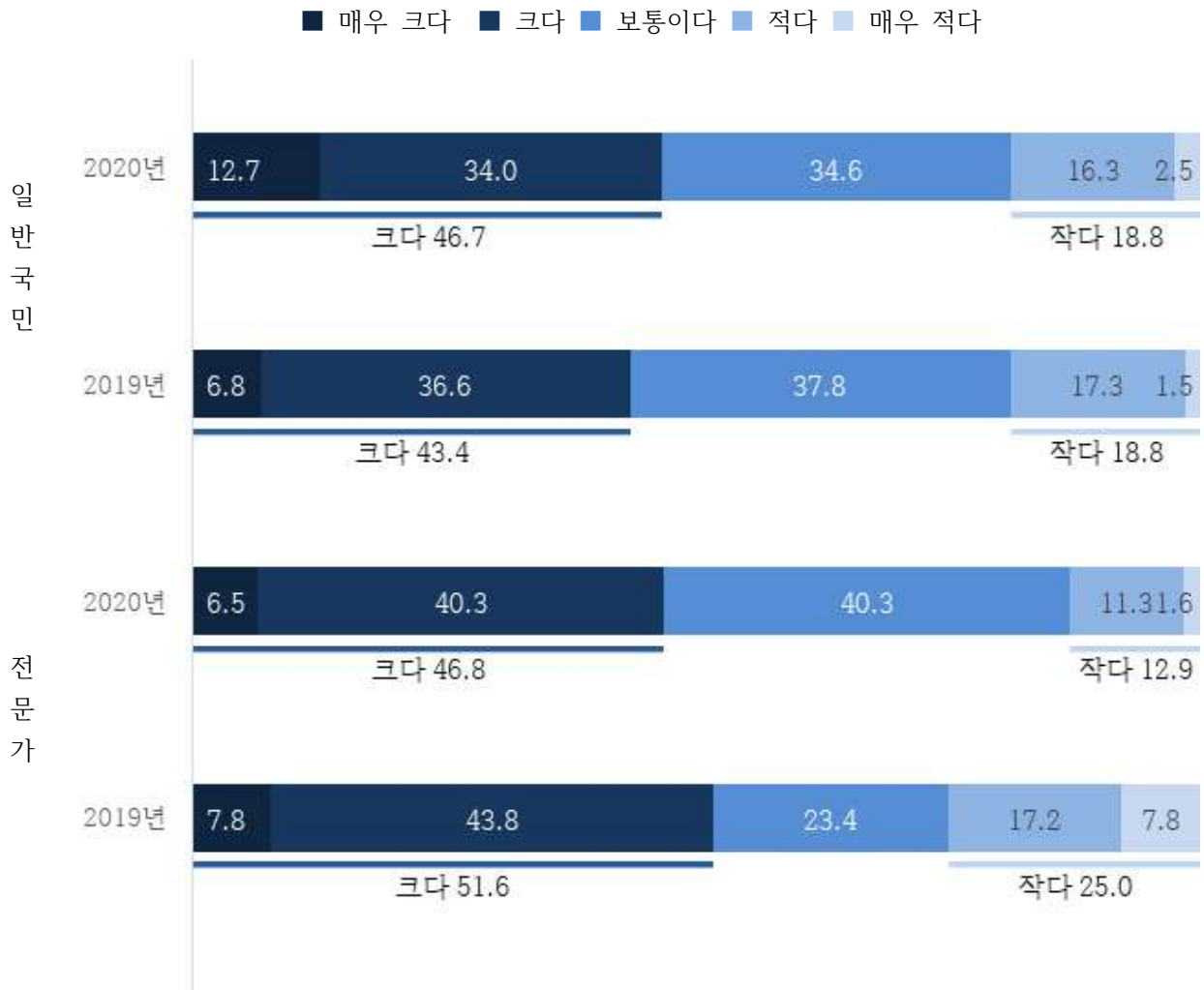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81.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가 클수록, 직업별로 화이트칼라,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2.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원전사고]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12.4	34.3	34.9	16.0	2.5	46.7	34.9	1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7	34.0	34.6	16.3	2.5	46.7	34.6	18.8
	전문가	(62)	6.5	40.3	40.3	11.3	1.6	46.8	40.3	12.9
소속별	대학	(30)	6.7	33.3	40.0	16.7	3.3	40.0	40.0	20.0
	연구소	(32)	6.3	46.9	40.6	6.3	0.0	53.1	40.6	6.3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4.6	32.8	30.9	18.5	3.2	47.4	30.9	21.7
	중	(497)	10.7	36.2	39.4	12.3	1.4	46.9	39.4	13.7
	하	(136)	11.8	30.9	32.4	21.3	3.7	42.6	32.4	25.0
성별	남성	(720)	12.4	33.9	35.1	16.7	1.9	46.3	35.1	18.6
	여성	(480)	13.1	34.2	33.8	15.6	3.3	47.3	33.8	19.0
연령별	18-29세	(303)	11.2	39.9	31.0	15.5	2.3	51.2	31.0	17.8
	30대	(256)	12.9	31.6	37.9	14.8	2.7	44.5	37.9	17.6
	40대	(314)	14.3	33.4	33.4	16.2	2.5	47.8	33.4	18.8
	50대	(327)	12.2	30.9	36.4	18.0	2.4	43.1	36.4	20.5
지역별	서울	(238)	16.0	39.1	29.0	11.3	4.6	55.0	29.0	16.0
	경기/인천	(393)	13.0	31.6	34.4	19.8	1.3	44.5	34.4	21.1
	대전/세종/충청	(128)	1.6	34.4	50.8	13.3	0.0	35.9	50.8	13.3
	광주/전라	(110)	19.1	44.5	28.2	8.2	0.0	63.6	28.2	8.2
	대구/경북	(109)	6.4	22.0	44.0	20.2	7.3	28.4	44.0	27.5
	부산/울산/경남	(175)	17.1	37.1	25.1	18.3	2.3	54.3	25.1	20.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6.4	19.1	48.9	21.3	4.3	25.5	48.9	25.5
	대도시	(551)	13.6	37.4	32.7	13.8	2.5	51.0	32.7	16.3
	중소도시	(608)	12.3	31.3	35.9	17.9	2.6	43.6	35.9	20.6
	군지역	(41)	4.9	29.3	41.5	24.4	0.0	34.1	41.5	24.4
직업별	자영업자	(182)	13.2	34.1	34.1	17.0	1.6	47.3	34.1	18.7
	블루칼라	(351)	10.5	27.9	40.5	18.8	2.3	38.5	40.5	21.1
	화이트칼라	(409)	16.6	37.7	31.3	12.7	1.7	54.3	31.3	14.4
	전업주부	(163)	8.6	36.2	32.5	17.2	5.5	44.8	32.5	22.7
	학생	(69)	11.6	36.2	29.0	18.8	4.3	47.8	29.0	23.2
	무직/기타	(26)	3.8	38.5	38.5	19.2	0.0	42.3	38.5	19.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9.9	28.2	39.8	19.8	2.3	38.1	39.8	22.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11.9	30.9	39.9	14.8	2.6	42.8	39.9	17.4
	4년제 이상	(535)	15.0	39.6	28.0	14.8	2.6	54.6	28.0	17.4
생활 수준별	상	(137)	9.5	36.5	39.4	12.4	2.2	46.0	39.4	14.6
	중	(700)	11.7	33.6	36.3	16.0	2.4	45.3	36.3	18.4
	하	(363)	15.7	33.9	29.5	18.2	2.8	49.6	29.5	20.9

(5) 사이버 테러

Q.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이버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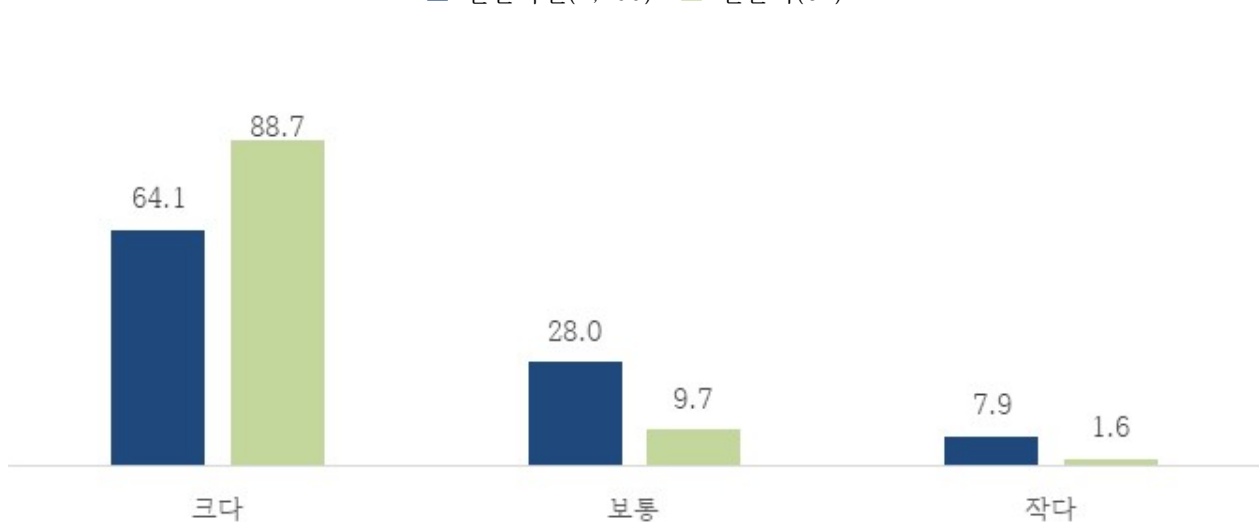
‘크다’: 일반국민 64.1%, 전문가 88.7%

- [일반국민]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64.1%로, ‘작다’(7.9%)는 응답보다 56.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는 응답은 15.4%p(2019년 48.7%) 증가한 반면, ‘작다’는 응답은 7.8%p(2019년 15.7%) 감소함
- [전문가] ‘크다’는 응답이 88.7%로, ‘작다’(1.6%)는 응답보다 87.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크다’(2019년 90.6%)는 응답과 ‘작다’(2019년 1.6%)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182.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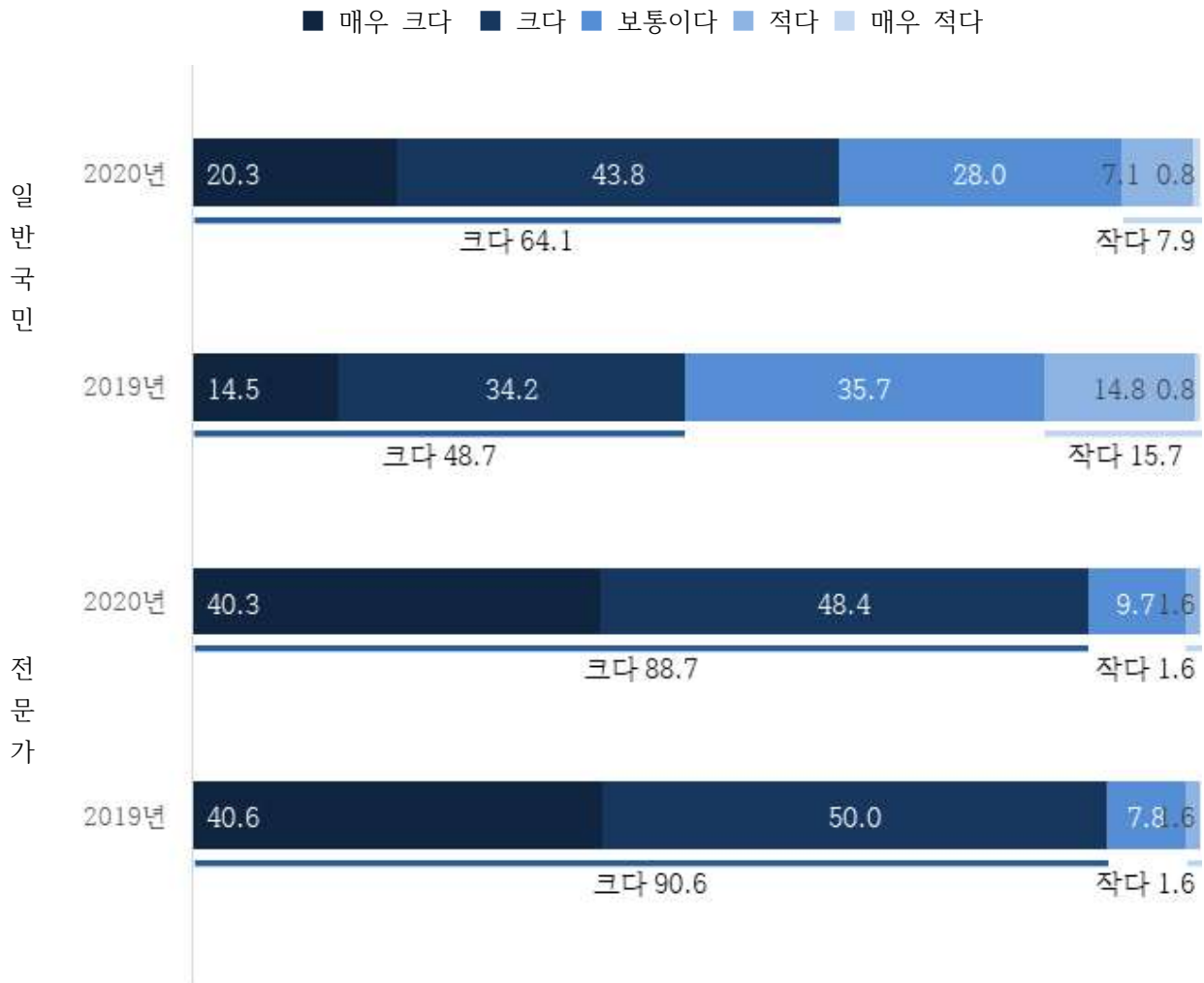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83. 사이버 테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직업별로 학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3.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사이버 테러]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21.2	44.1	27.1	6.8	0.8	65.3	27.1	7.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3	43.8	28.0	7.1	0.8	64.1	28.0	7.9
	전문가	(62)	40.3	48.4	9.7	1.6	0.0	88.7	9.7	1.6
소속별	대학	(30)	23.3	60.0	13.3	3.3	0.0	83.3	13.3	3.3
	연구소	(32)	56.3	37.5	6.3	0.0	0.0	93.8	6.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8.9	45.3	28.7	6.7	0.4	64.2	28.7	7.1
	중	(497)	22.1	43.7	28.2	5.6	0.4	65.8	28.2	6.0
	하	(136)	19.1	38.2	24.3	14.0	4.4	57.4	24.3	18.4
성별	남성	(720)	19.7	42.5	29.4	7.4	1.0	62.2	29.4	8.3
	여성	(480)	21.0	45.8	25.8	6.7	0.6	66.9	25.8	7.3
연령별	18-29세	(303)	25.1	41.6	26.1	6.9	0.3	66.7	26.1	7.3
	30대	(256)	20.3	44.9	25.8	8.2	0.8	65.2	25.8	9.0
	40대	(314)	17.8	45.2	29.0	7.3	0.6	63.1	29.0	8.0
	50대	(327)	18.0	43.7	30.6	6.1	1.5	61.8	30.6	7.6
지역별	서울	(238)	18.1	47.9	28.2	4.6	1.3	66.0	28.2	5.9
	경기/인천	(393)	27.5	35.9	27.5	8.9	0.3	63.4	27.5	9.2
	대전/세종/충청	(128)	3.1	56.3	39.1	1.6	0.0	59.4	39.1	1.6
	광주/전라	(110)	23.6	51.8	18.2	6.4	0.0	75.5	18.2	6.4
	대구/경북	(109)	27.5	41.3	28.4	2.8	0.0	68.8	28.4	2.8
	부산/울산/경남	(175)	16.0	42.3	27.4	12.0	2.3	58.3	27.4	14.3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8.5	48.9	25.5	12.8	4.3	57.4	25.5	17.0
	대도시	(551)	18.5	42.6	30.7	7.3	0.9	61.2	30.7	8.2
	중소도시	(608)	22.4	45.4	25.7	6.3	0.3	67.8	25.7	6.6
	군지역	(41)	12.2	36.6	26.8	17.1	7.3	48.8	26.8	24.4
직업별	자영업자	(182)	18.1	42.3	32.4	6.6	0.5	60.4	32.4	7.1
	블루칼라	(351)	20.8	41.0	29.9	7.1	1.1	61.8	29.9	8.3
	화이트칼라	(409)	24.2	41.8	26.9	6.4	0.7	66.0	26.9	7.1
	전업주부	(163)	11.0	54.0	25.2	9.2	0.6	65.0	25.2	9.8
	학생	(69)	23.2	49.3	20.3	7.2	0.0	72.5	20.3	7.2
	무직/기타	(26)	15.4	46.2	26.9	7.7	3.8	61.5	26.9	11.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14.7	42.7	34.2	7.1	1.4	57.3	34.2	8.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1.2	44.1	26.0	7.7	1.0	65.3	26.0	8.7
	4년제 이상	(535)	23.4	44.5	25.0	6.7	0.4	67.9	25.0	7.1
생활 수준별	상	(137)	16.1	39.4	31.4	13.1	0.0	55.5	31.4	13.1
	중	(700)	18.4	43.7	29.7	7.3	0.9	62.1	29.7	8.1
	하	(363)	25.3	45.7	23.4	4.4	1.1	71.1	23.4	5.5

(6) 감염병

Q.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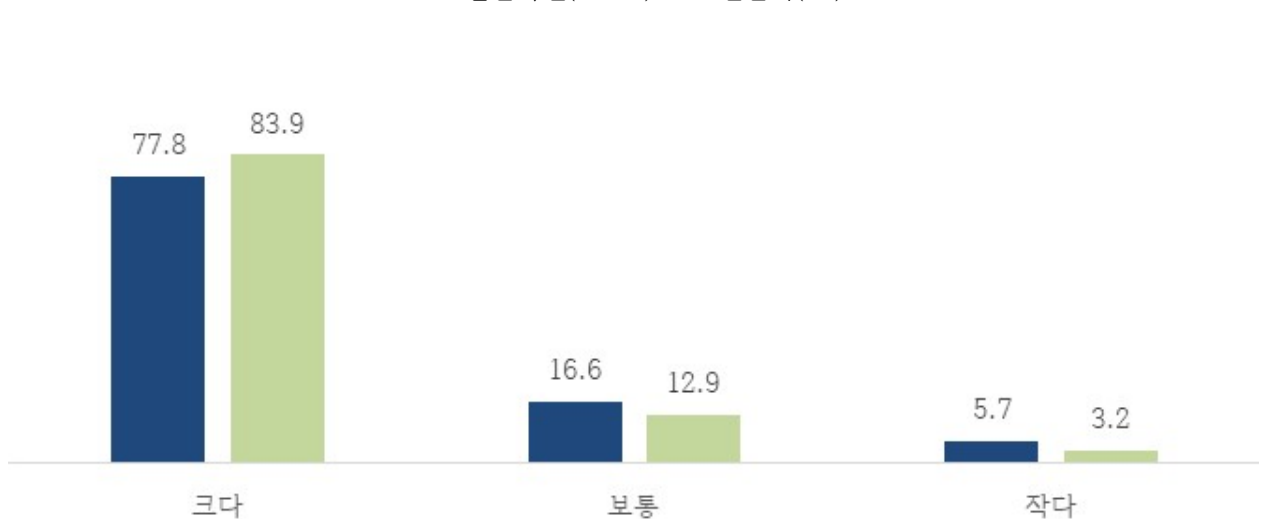
‘크다’: 일반국민 77.8%, 전문가 83.9%

- [일반국민]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이 77.8%로, ‘작다’(5.7%)는 응답보다 72.1%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크다’는 응답이 83.9%로, ‘작다’(3.2%)는 응답보다 80.7%p 높게 나타남

[그림 3-184.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85.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크다’는 응답은 최종 학력별로 4년제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4.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 - 감염병]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종합		
								크다	보통	적다
전체		(1262)	34.4	43.7	16.4	4.5	1.0	78.1	16.4	5.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3	43.5	16.6	4.6	1.1	77.8	16.6	5.7
	전문가	(62)	37.1	46.8	12.9	3.2	0.0	83.9	12.9	3.2
소속별	대학	(30)	33.3	56.7	6.7	3.3	0.0	90.0	6.7	3.3
	연구소	(32)	40.6	37.5	18.8	3.1	0.0	78.1	18.8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5.6	42.2	16.9	4.1	1.2	77.8	16.9	5.3
	중	(497)	34.4	45.3	15.1	4.8	0.4	79.7	15.1	5.2
	하	(136)	27.9	42.6	20.6	5.9	2.9	70.6	20.6	8.8
성별	남성	(720)	33.5	43.5	17.4	4.3	1.4	76.9	17.4	5.7
	여성	(480)	35.4	43.5	15.4	5.0	0.6	79.0	15.4	5.6
연령별	18-29세	(303)	33.0	43.6	17.8	5.0	0.7	76.6	17.8	5.6
	30대	(256)	35.9	45.3	16.0	1.6	1.2	81.3	16.0	2.7
	40대	(314)	36.3	42.4	15.6	5.1	0.6	78.7	15.6	5.7
	50대	(327)	32.1	43.1	16.8	6.1	1.8	75.2	16.8	8.0
지역별	서울	(238)	23.5	50.0	15.5	8.0	2.9	73.5	15.5	10.9
	경기/인천	(393)	43.0	40.5	14.0	2.5	0.0	83.5	14.0	2.5
	대전/세종/충청	(128)	16.4	69.5	12.5	1.6	0.0	85.9	12.5	1.6
	광주/전라	(110)	42.7	32.7	20.9	3.6	0.0	75.5	20.9	3.6
	대구/경북	(109)	24.8	35.8	34.9	4.6	0.0	60.6	34.9	4.6
	부산/울산/경남	(175)	48.6	34.3	12.6	4.6	0.0	82.9	12.6	4.6
	강원/제주	(47)	12.8	42.6	17.0	14.9	12.8	55.3	17.0	27.7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31.2	45.0	15.2	6.2	2.4	76.2	15.2	8.5
	중소도시	(608)	37.8	41.6	17.8	2.8	0.0	79.4	17.8	2.8
	군지역	(41)	22.0	51.2	17.1	9.8	0.0	73.2	17.1	9.8
직업별	자영업자	(182)	32.4	36.8	21.4	7.7	1.6	69.2	21.4	9.3
	블루칼라	(351)	33.9	44.7	17.7	3.7	0.0	78.6	17.7	3.7
	화이트칼라	(409)	37.9	43.8	13.4	3.2	1.7	81.7	13.4	4.9
	전업주부	(163)	33.1	43.6	15.3	6.7	1.2	76.7	15.3	8.0
	학생	(69)	26.1	52.2	15.9	5.8	0.0	78.3	15.9	5.8
	무직/기타	(26)	23.1	46.2	26.9	0.0	3.8	69.2	26.9	3.8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1.1	42.7	18.9	6.2	1.1	73.7	18.9	7.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33.1	41.8	19.6	4.2	1.3	74.9	19.6	5.5
	4년제 이상	(535)	37.0	45.0	13.3	3.7	0.9	82.1	13.3	4.7
생활 수준별	상	(137)	27.7	47.4	14.6	6.6	3.6	75.2	14.6	10.2
	중	(700)	34.9	43.9	16.4	3.9	1.0	78.7	16.4	4.9
	하	(363)	35.5	41.3	17.6	5.2	0.3	76.9	17.6	5.5

20)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Q. 귀하는 한국군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의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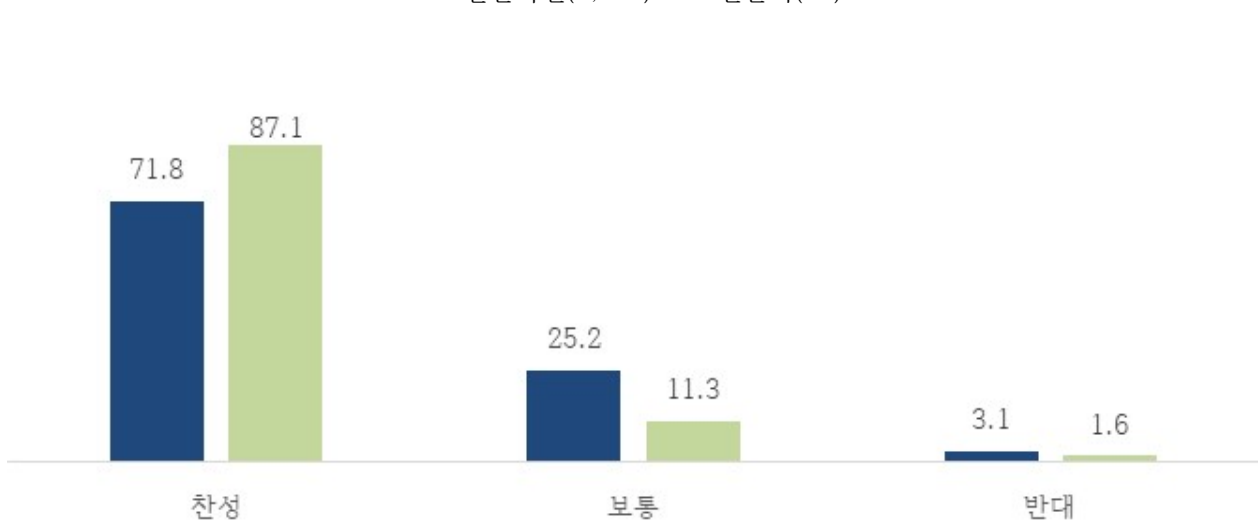
‘찬성한다’: 일반국민 71.8%, 전문가 87.1%

- [일반국민]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1.8%로, ‘반대한다’(3.1%)는 응답보다 68.7%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2019년 70.8%)는 응답과, ‘반대한다’(2.2%)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 ‘찬성한다’는 응답은 87.1%로, ‘반대한다’(1.6%)는 응답보다 85.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9.8%p(2019년 96.9%) 감소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임(2019년 0.0%)

[그림 3-186.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87.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5.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262)	9.4	63.1	24.5	2.9	0.1	72.5	24.5	3.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8	63.9	25.2	3.0	0.1	71.8	25.2	3.1
	전문가	(62)	40.3	46.8	11.3	1.6	0.0	87.1	11.3	1.6
소속별	대학	(30)	33.3	53.3	13.3	0.0	0.0	86.7	13.3	0.0
	연구소	(32)	46.9	40.6	9.4	3.1	0.0	87.5	9.4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9.9	64.9	21.7	3.4	0.2	74.8	21.7	3.5
	중	(497)	6.4	64.8	27.8	1.0	0.0	71.2	27.8	1.0
	하	(136)	4.4	56.6	30.1	8.8	0.0	61.0	30.1	8.8
성별	남성	(720)	8.5	63.5	25.0	3.1	0.0	71.9	25.0	3.1
	여성	(480)	6.9	64.6	25.4	2.9	0.2	71.5	25.4	3.1
연령별	18-29세	(303)	8.6	63.0	26.4	2.0	0.0	71.6	26.4	2.0
	30대	(256)	7.0	63.3	27.0	2.7	0.0	70.3	27.0	2.7
	40대	(314)	7.6	64.3	23.9	4.1	0.0	72.0	23.9	4.1
	50대	(327)	8.0	64.8	23.9	3.1	0.3	72.8	23.9	3.4
지역별	서울	(238)	1.7	79.0	18.1	1.3	0.0	80.7	18.1	1.3
	경기/인천	(393)	14.0	66.9	15.8	3.3	0.0	80.9	15.8	3.3
	대전/세종/충청	(128)	1.6	46.9	51.6	0.0	0.0	48.4	51.6	0.0
	광주/전라	(110)	4.5	70.9	18.2	5.5	0.9	75.5	18.2	6.4
	대구/경북	(109)	11.0	58.7	28.4	1.8	0.0	69.7	28.4	1.8
	부산/울산/경남	(175)	4.6	53.7	37.7	4.0	0.0	58.3	37.7	4.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7.0	42.6	29.8	10.6	0.0	59.6	29.8	10.6
	대도시	(551)	3.1	62.6	30.1	4.2	0.0	65.7	30.1	4.2
	중소도시	(608)	12.2	65.3	20.7	1.6	0.2	77.5	20.7	1.8
	군지역	(41)	7.3	61.0	24.4	7.3	0.0	68.3	24.4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7.7	65.9	22.5	3.3	0.5	73.6	22.5	3.8
	블루칼라	(351)	10.3	58.4	28.5	2.8	0.0	68.7	28.5	2.8
	화이트칼라	(409)	6.4	66.3	24.0	3.4	0.0	72.6	24.0	3.4
	전업주부	(163)	7.4	68.7	22.1	1.8	0.0	76.1	22.1	1.8
	학생	(69)	7.2	60.9	30.4	1.4	0.0	68.1	30.4	1.4
	무직/기타	(26)	3.8	65.4	23.1	7.7	0.0	69.2	23.1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9.3	62.1	25.4	2.8	0.3	71.5	25.4	3.1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7.1	60.1	28.3	4.5	0.0	67.2	28.3	4.5
	4년제 이상	(535)	7.3	67.3	23.2	2.2	0.0	74.6	23.2	2.2
생활 수준별	상	(137)	5.1	62.0	26.3	5.8	0.7	67.2	26.3	6.6
	중	(700)	7.3	60.3	29.1	3.3	0.0	67.6	29.1	3.3
	하	(363)	9.9	71.6	17.1	1.4	0.0	81.5	17.1	1.4

21)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Q. 귀하는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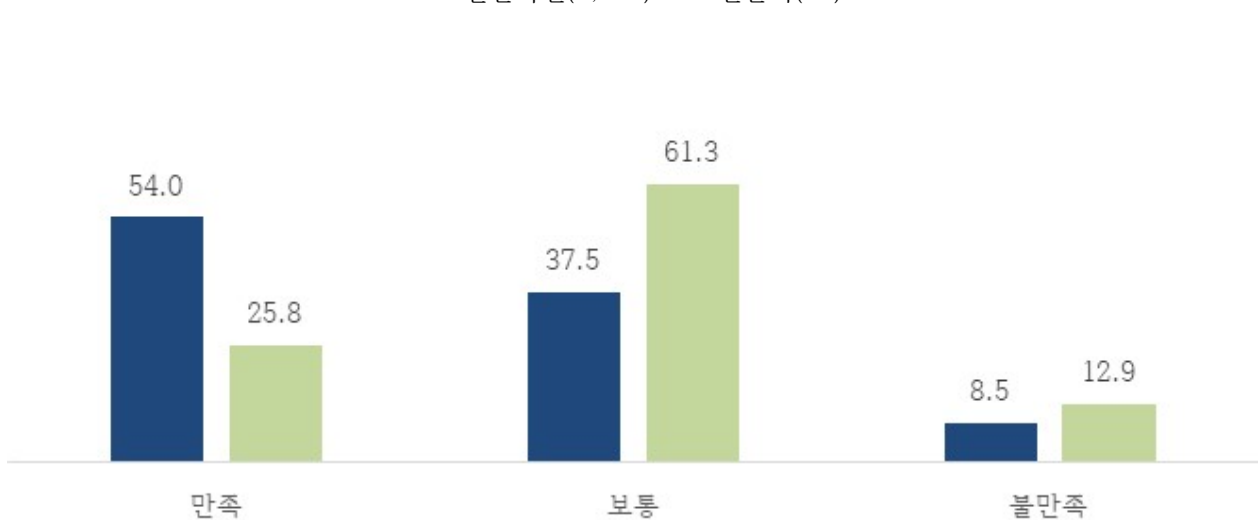
‘만족한다’: 일반국민 54.0%, 전문가 25.8%

- [일반국민]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4.0%로, ‘만족하지 않는다’(8.5%)는 응답보다 45.5%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만족한다’는 응답이 25.8%로, ‘만족하지 않는다’(12.9%)는 응답보다 12.9%p 높게 나타남

[그림 3-188.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만족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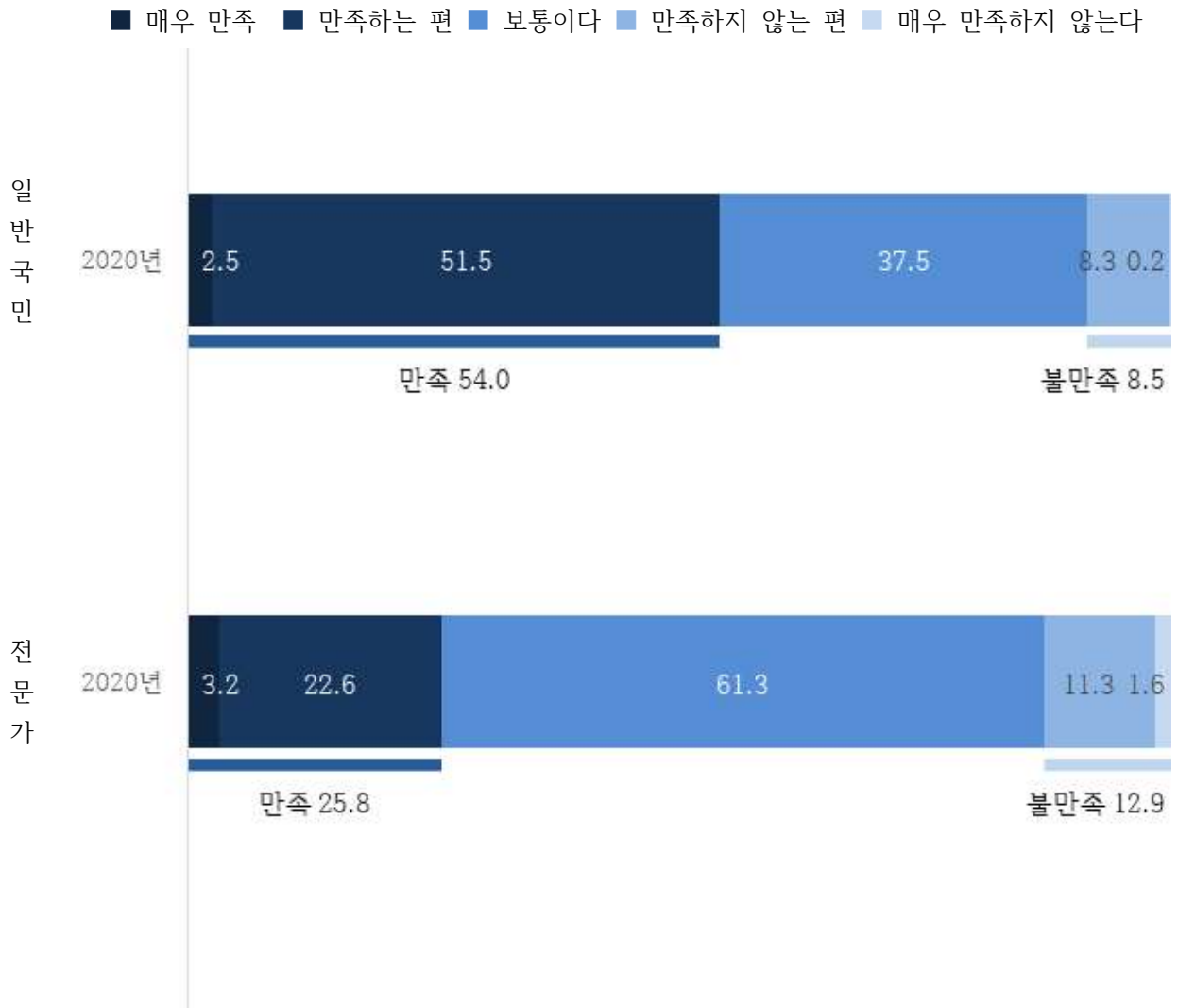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8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만족도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6.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 대응 만족도]

(단위: 명, %)

		사례수 (명)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종합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262)	2.5	50.1	38.7	8.5	0.2	52.6	38.7	8.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5	51.5	37.5	8.3	0.2	54.0	37.5	8.5
	전문가	(62)	3.2	22.6	61.3	11.3	1.6	25.8	61.3	12.9
소속별	대학	(30)	6.7	23.3	60.0	10.0	0.0	30.0	60.0	10.0
	연구소	(32)	0.0	21.9	62.5	12.5	3.1	21.9	62.5	15.6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3.2	55.7	33.7	7.2	0.2	58.9	33.7	7.4
	중	(497)	1.8	50.5	39.6	7.8	0.2	52.3	39.6	8.0
	하	(136)	2.2	37.5	45.6	14.7	0.0	39.7	45.6	14.7
성별	남성	(720)	2.5	52.1	37.8	7.4	0.3	54.6	37.8	7.6
	여성	(480)	2.5	50.6	37.1	9.8	0.0	53.1	37.1	9.8
연령별	18-29세	(303)	2.6	52.5	36.3	8.6	0.0	55.1	36.3	8.6
	30대	(256)	3.1	52.3	35.5	9.0	0.0	55.5	35.5	9.0
	40대	(314)	2.5	51.3	36.0	9.6	0.6	53.8	36.0	10.2
	50대	(327)	1.8	50.2	41.6	6.4	0.0	52.0	41.6	6.4
지역별	서울	(238)	1.3	58.8	32.4	7.1	0.4	60.1	32.4	7.6
	경기/인천	(393)	3.8	57.3	30.8	8.1	0.0	61.1	30.8	8.1
	대전/세종/충청	(128)	0.0	52.3	38.3	9.4	0.0	52.3	38.3	9.4
	광주/전라	(110)	2.7	58.2	33.6	5.5	0.0	60.9	33.6	5.5
	대구/경북	(109)	0.9	36.7	56.9	5.5	0.0	37.6	56.9	5.5
	부산/울산/경남	(175)	1.7	40.0	47.4	10.9	0.0	41.7	47.4	10.9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10.6	25.5	44.7	17.0	2.1	36.2	44.7	19.1
	대도시	(551)	1.5	51.9	38.1	8.2	0.4	53.4	38.1	8.5
	중소도시	(608)	3.3	51.8	36.8	8.1	0.0	55.1	36.8	8.1
	군지역	(41)	4.9	41.5	39.0	14.6	0.0	46.3	39.0	14.6
직업별	자영업자	(182)	1.6	48.4	41.8	8.2	0.0	50.0	41.8	8.2
	블루칼라	(351)	4.8	47.0	38.5	9.7	0.0	51.9	38.5	9.7
	화이트칼라	(409)	1.0	54.5	35.5	8.8	0.2	55.5	35.5	9.0
	전업주부	(163)	3.1	54.6	35.6	6.1	0.6	57.7	35.6	6.7
	학생	(69)	0.0	62.3	33.3	4.3	0.0	62.3	33.3	4.3
	무직/기타	(26)	3.8	38.5	50.0	7.7	0.0	42.3	50.0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3.4	46.0	41.5	9.0	0.0	49.4	41.5	9.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6	50.2	38.3	8.4	0.6	52.7	38.3	9.0
	4년제 이상	(535)	1.9	55.9	34.4	7.9	0.0	57.8	34.4	7.9
생활 수준별	상	(137)	2.9	58.4	30.7	8.0	0.0	61.3	30.7	8.0
	중	(700)	1.6	52.9	37.6	7.7	0.3	54.4	37.6	8.0
	하	(363)	4.1	46.3	39.9	9.6	0.0	50.4	39.9	9.6

22)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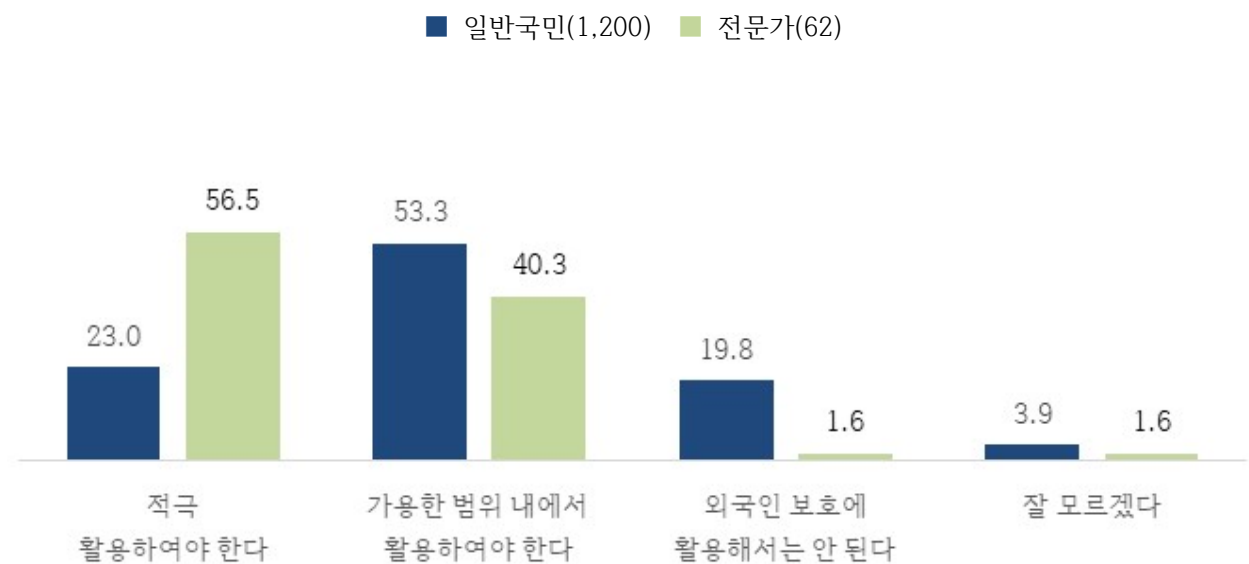
Q. 해외 재난,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의 철수·구호를 위해 군 자산(수송기, 함정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일반국민 53.3%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가 56.5%

- **[일반국민]**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4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0.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7. 재외국민 철수·구호를 위한 군 자산 활용 필요성]

(단위: 명, %)

		사례수 (명)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외국인 보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62)	24.6	52.7	18.9	3.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0	53.3	19.8	3.9
	전문가	(62)	56.5	40.3	1.6	1.6
소속별	대학	(30)	60.0	36.7	3.3	0.0
	연구소	(32)	53.1	43.8	0.0	3.1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25.9	49.9	20.8	3.4
	중	(497)	20.1	57.3	17.9	4.6
	하	(136)	21.3	52.9	22.1	3.7
성별	남성	(720)	23.2	54.6	19.3	2.9
	여성	(480)	22.7	51.5	20.4	5.4
연령별	18-29세	(303)	27.4	52.1	15.8	4.6
	30대	(256)	19.9	58.6	18.4	3.1
	40대	(314)	23.6	48.1	25.2	3.2
	50대	(327)	20.8	55.4	19.3	4.6
지역별	서울	(238)	16.0	58.4	21.4	4.2
	경기/인천	(393)	28.0	47.3	22.4	2.3
	대전/세종/충청	(128)	21.1	53.1	25.0	0.8
	광주/전라	(110)	25.5	56.4	12.7	5.5
	대구/경북	(109)	25.7	55.0	15.6	3.7
	부산/울산/경남	(175)	17.1	57.7	18.3	6.9
	강원/제주	(47)	31.9	51.1	6.4	10.6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17.8	57.9	21.6	2.7
	중소도시	(608)	28.3	49.7	17.6	4.4
	군지역	(41)	14.6	46.3	26.8	12.2
직업별	자영업자	(182)	23.6	52.7	20.3	3.3
	블루칼라	(351)	20.5	54.4	21.4	3.7
	화이트칼라	(409)	24.0	52.6	20.0	3.4
	전업주부	(163)	24.5	52.8	17.2	5.5
	학생	(69)	26.1	58.0	11.6	4.3
	무직/기타	(26)	19.2	46.2	26.9	7.7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23.7	50.8	19.5	5.9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3.5	54.7	19.0	2.9
	4년제 이상	(535)	22.2	54.2	20.4	3.2
생활 수준별	상	(137)	19.7	54.7	20.4	5.1
	중	(700)	23.9	51.1	21.4	3.6
	하	(363)	22.6	57.0	16.3	4.1

23)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1순위)

Q. 귀하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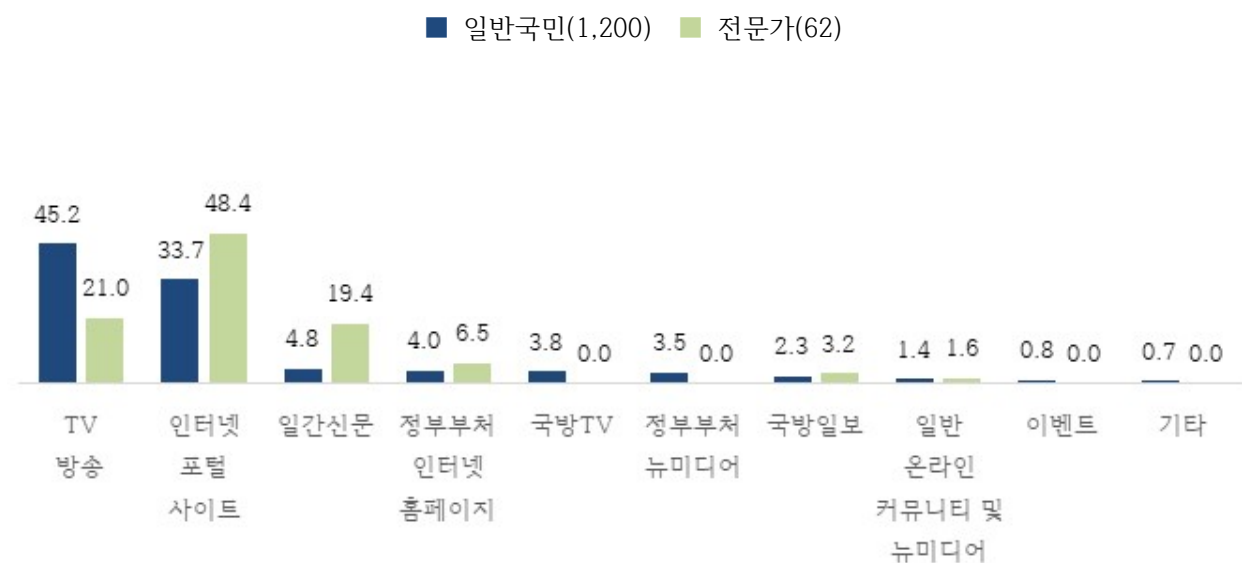
‘TV방송’: 일반국민 66.1%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전문가 66.1%

- [일반국민]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에 대해 ‘TV방송’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3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TV방송’이라는 응답은 0.8%p(2019년 44.4%)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은 7.8%p(2019년 41.5%) 감소함
- [전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방송’(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은 3.1%p(2019년 45.3%)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TV방송’이라는 응답 또한 6.9%p(2019년 14.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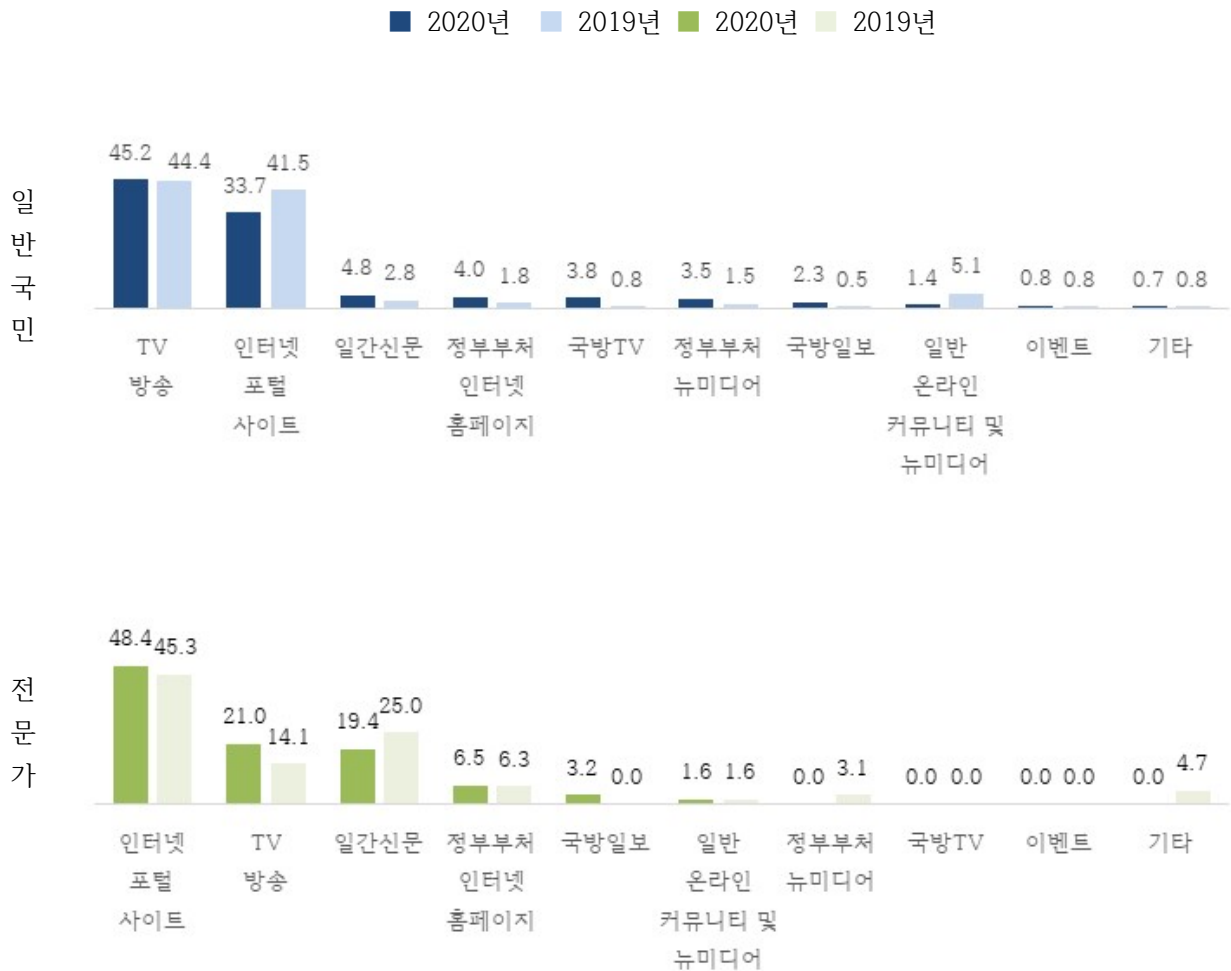
[그림 3-191.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192.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전년도(1순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방법에 대해 ‘TV방송’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 학력별로 고졸이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8.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에 대한 접촉 경로(1순위)]

(단위: 명, %, 홍보 행사장/사진전등 이벤트 0.8%, 기타0.6% 제외)

		사례수 (명)	TV 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일간 신문	정부 부처 인터넷 홈페이 지	국방 TV	정부 부처 뉴미 디어	국방일 보	일반 커뮤 니티 및 뉴미 디어
전체		(1262)	44.0	34.4	5.5	4.1	3.6	3.3	2.3	1.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5.2	33.7	4.8	4.0	3.8	3.5	2.3	1.4
	전문가	(62)	21.0	48.4	19.4	6.5	0.0	0.0	3.2	1.6
소속별	대학	(30)	23.3	50.0	23.3	0.0	0.0	0.0	0.0	3.3
	연구소	(32)	18.8	46.9	15.6	12.5	0.0	0.0	6.3	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45.5	32.6	5.5	3.7	2.8	4.6	2.3	1.4
	중	(497)	44.1	35.2	3.4	4.6	4.8	2.6	2.6	1.4
	하	(136)	47.8	32.4	6.6	2.9	3.7	2.2	0.7	1.5
성별	남성	(720)	42.6	35.4	5.1	4.6	3.5	4.3	1.9	1.5
	여성	(480)	49.0	31.0	4.2	3.1	4.2	2.3	2.7	1.3
연령별	18-29세	(303)	33.7	43.2	4.0	5.0	3.0	4.0	2.6	2.6
	30대	(256)	43.4	37.9	3.5	4.7	4.3	2.7	2.0	0.8
	40대	(314)	50.3	30.6	4.5	3.2	3.8	2.5	2.2	1.3
	50대	(327)	52.3	24.5	6.7	3.4	4.0	4.6	2.1	0.9
지역별	서울	(238)	50.8	31.1	4.2	3.4	4.2	3.4	2.1	0.4
	경기/인천	(393)	52.7	30.3	3.3	2.3	2.5	4.1	1.0	1.8
	대전/세종/충청	(128)	28.1	40.6	7.0	3.9	6.3	3.9	4.7	4.7
	광주/전라	(110)	37.3	33.6	11.8	8.2	2.7	0.0	3.6	1.8
	대구/경북	(109)	51.4	36.7	0.9	3.7	0.0	4.6	1.8	0.0
	부산/울산/경남	(175)	36.6	35.4	5.1	6.3	7.4	3.4	2.3	0.0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36.2	42.6	4.3	4.3	2.1	4.3	4.3	2.1
	대도시	(551)	44.8	34.4	4.7	5.5	3.5	2.4	2.4	1.1
	중소도시	(608)	45.1	34.3	4.8	2.8	3.6	4.1	2.1	1.8
	군지역	(41)	51.2	14.6	4.9	2.4	9.8	9.8	2.4	0.0
직업별	자영업자	(182)	46.7	29.1	8.8	2.7	5.5	2.7	2.2	1.1
	블루칼라	(351)	49.0	31.3	4.3	4.3	1.7	3.4	2.0	2.3
	화이트칼라	(409)	38.4	40.3	4.6	4.4	4.6	2.2	2.7	1.5
	전업주부	(163)	57.1	23.3	1.8	5.5	3.7	4.3	2.5	0.0
	학생	(69)	31.9	46.4	2.9	1.4	4.3	7.2	1.4	1.4
	무직/기타	(26)	50.0	23.1	7.7	0.0	3.8	15.4	0.0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8.2	20.6	5.1	3.1	3.1	4.0	2.3	1.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41.8	38.3	5.5	5.1	3.5	1.6	1.9	1.0
	4년제 이상	(535)	38.5	39.6	4.1	3.9	4.3	4.3	2.4	1.7
생활 수준별	상	(137)	34.3	40.1	10.9	4.4	1.5	2.9	4.4	0.7
	중	(700)	44.3	34.3	4.0	4.1	3.9	3.3	2.4	2.0
	하	(363)	51.0	30.0	3.9	3.6	4.4	4.1	1.1	0.6

24) 지난 1년 간 국방 홍보 매체 접촉 빈도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Q.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본 적이 없다’: 일반국민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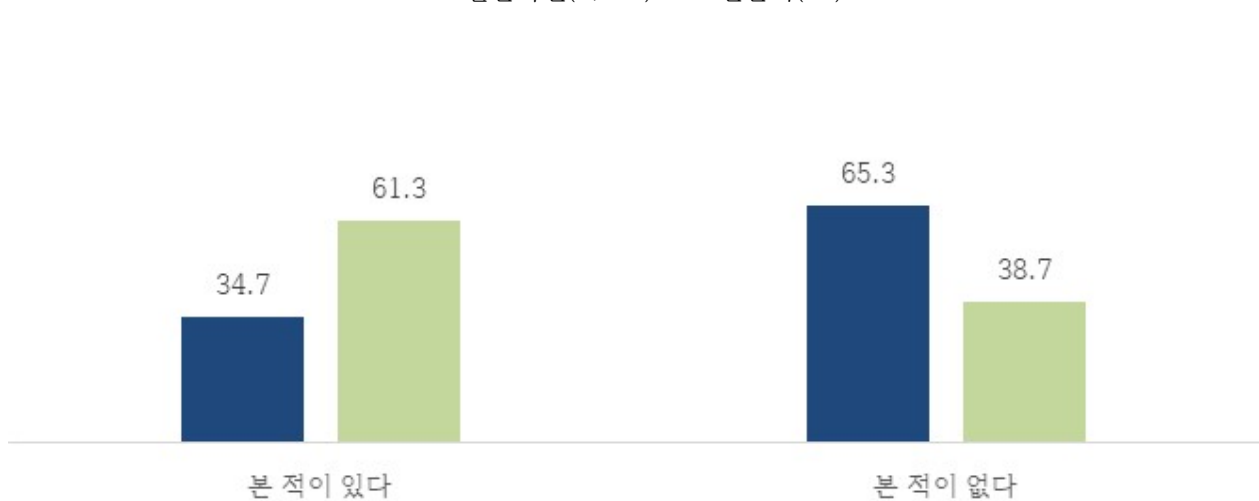
‘본 적이 있다’: 전문가 61.3%

- [일반국민]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5.3%로, ‘본 적이 있다’(34.7%)는 응답보다 30.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9.5%p(2019년 74.8%)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9.5%p(2019년 25.2%) 증가함
- [전문가]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1.3%로, ‘본 적이 없다’(38.7%)는 응답보다 22.6%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1%p(2019년 73.4%)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2.1%p(2019년 26.6%) 증가함

[그림 3-193.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94.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접촉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99.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단위: 명, %)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전체		(1262)	0.3	2.9	10.6	22.1	64.0	36.0	64.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2	2.5	9.3	22.7	65.3	34.7	65.3
	전문가	(62)	3.2	11.3	35.5	11.3	38.7	61.3	38.7
소속별	대학	(30)	3.3	6.7	33.3	23.3	33.3	66.7	33.3
	연구소	(32)	3.1	15.6	37.5	0.0	43.8	56.3	43.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4	2.3	9.0	25.6	62.8	37.2	62.8
	중	(497)	0.0	2.6	9.7	21.5	66.2	33.8	66.2
	하	(136)	0.0	2.9	9.6	14.7	72.8	27.2	72.8
성별	남성	(720)	0.1	2.8	11.5	25.0	60.6	39.4	60.6
	여성	(480)	0.2	2.1	6.0	19.2	72.5	27.5	72.5
연령별	18-29세	(303)	0.0	3.0	11.2	20.8	65.0	35.0	65.0
	30대	(256)	0.4	2.3	9.4	27.7	60.2	39.8	60.2
	40대	(314)	0.3	1.6	9.6	21.7	66.9	33.1	66.9
	50대	(327)	0.0	3.1	7.3	21.4	68.2	31.8	68.2
지역별	서울	(238)	0.0	1.3	15.1	30.7	52.9	47.1	52.9
	경기/인천	(393)	0.3	2.5	9.2	21.4	66.7	33.3	66.7
	대전/세종/충청	(128)	0.0	3.1	8.6	24.2	64.1	35.9	64.1
	광주/전라	(110)	0.0	5.5	4.5	26.4	63.6	36.4	63.6
	대구/경북	(109)	0.0	0.9	7.3	15.6	76.1	23.9	76.1
	부산/울산/경남	(175)	0.0	0.6	4.6	19.4	75.4	24.6	75.4
	강원/제주	(47)	2.1	10.6	17.0	8.5	61.7	38.3	61.7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2	3.1	11.1	23.0	62.6	36.8	62.6
	중소도시	(608)	0.2	2.1	7.7	22.9	67.1	33.4	67.1
	군지역	(41)	0.0	0.0	9.8	14.6	75.6	24.4	75.6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1.6	10.4	20.3	67.6	32.4	67.6
	블루칼라	(351)	0.0	1.7	9.7	27.1	61.5	38.5	61.5
	화이트칼라	(409)	0.2	3.7	10.0	23.7	62.3	37.7	62.3
	전업주부	(163)	0.6	2.5	6.7	18.4	71.8	28.2	71.8
	학생	(69)	0.0	2.9	10.1	14.5	72.5	27.5	72.5
	무직/기타	(26)	0.0	0.0	0.0	11.5	88.5	11.5	88.5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0	2.8	7.6	17.5	72.0	28.0	72.0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3	1.6	10.6	27.3	60.1	39.9	60.1
	4년제 이상	(535)	0.2	2.8	9.7	23.4	63.9	36.1	63.9
생활 수준별	상	(137)	0.7	4.4	13.1	27.0	54.7	45.3	54.7
	중	(700)	0.1	3.0	10.1	22.1	64.6	35.4	64.6
	하	(363)	0.0	0.8	6.3	22.0	70.8	29.2	70.8

(2) 국방백서

Q.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국방백서

‘본 적이 없다’: 일반국민 86.4%
‘본 적이 있다’: 전문가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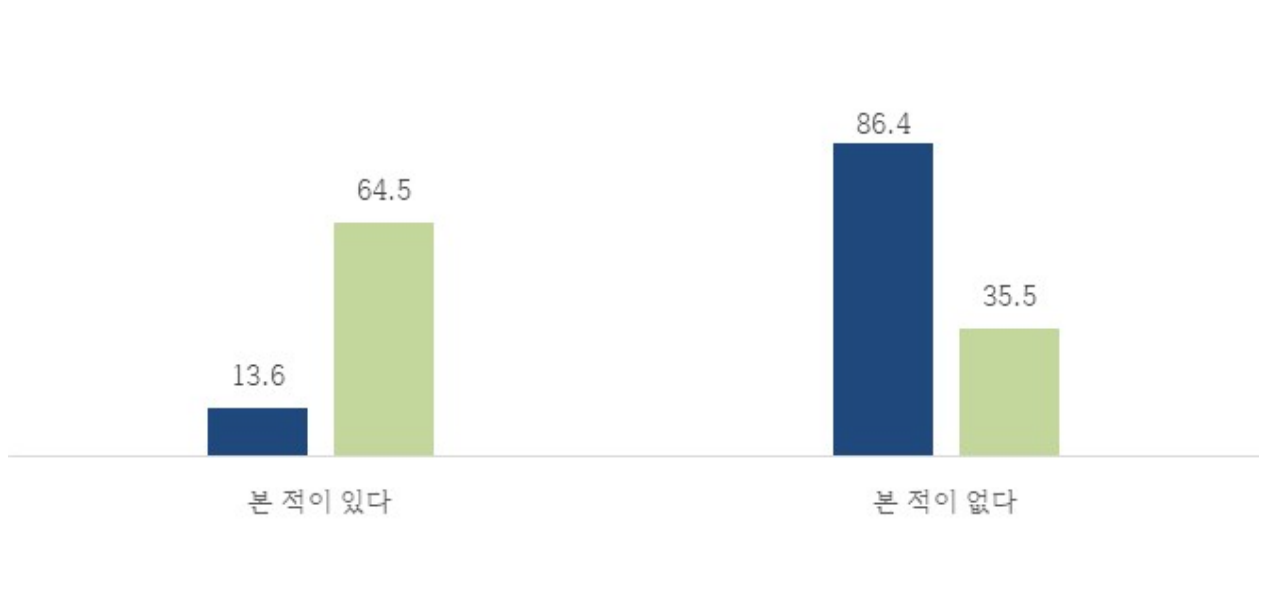
○ [일반국민] 국방백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4%로, ‘본 적이 있다’(13.6%)는 응답보다 72.8%p 높게 나타남

○ [전문가]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4.5%로, ‘본 적이 없다’(35.5%)는 응답보다 29.0%p 높게 나타남

[그림 3-195. 국방백서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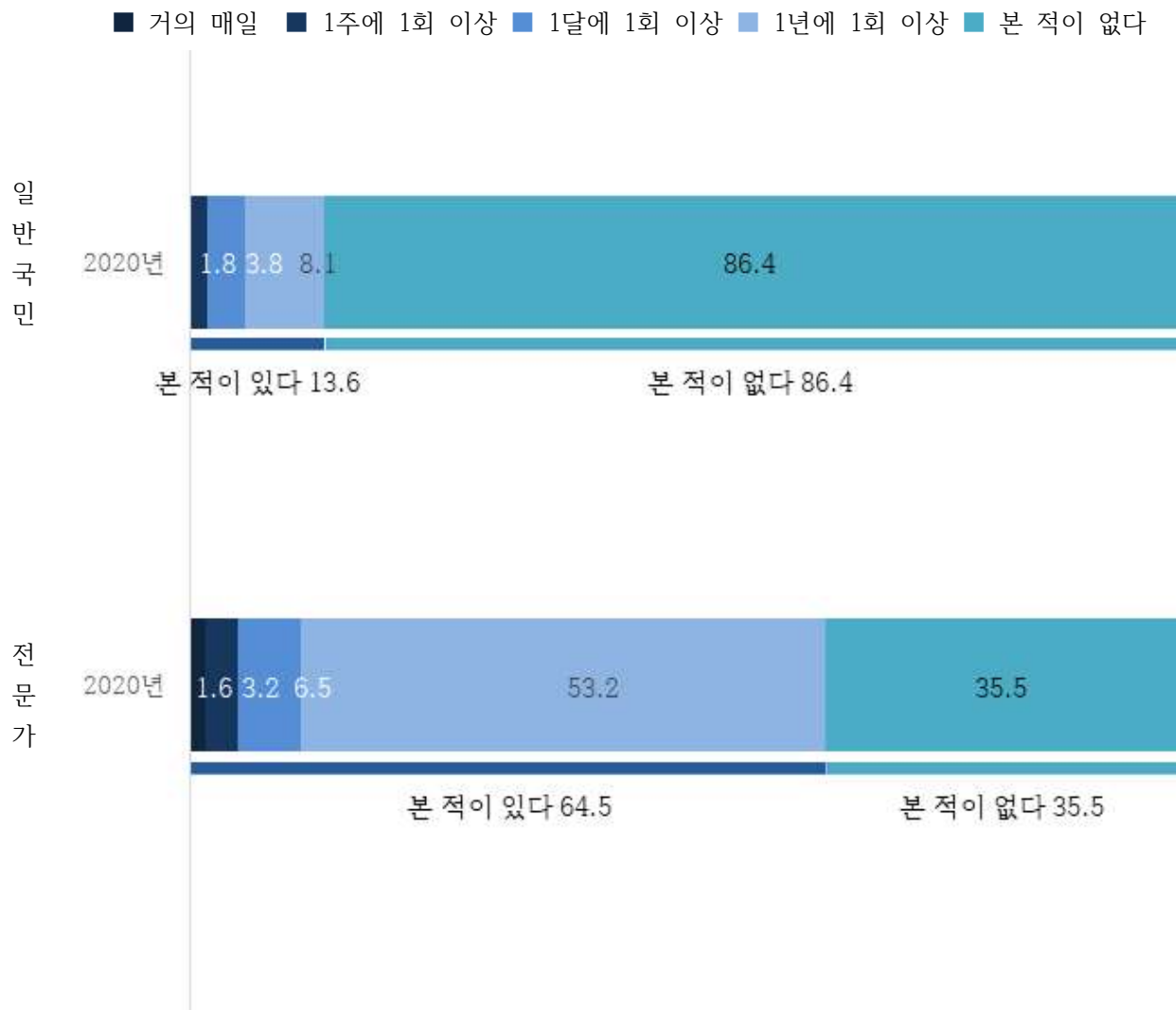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96. 국방백서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세부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백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00. 국방백서]

(단위: 명, %)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전체		(1262)	0.1	1.8	3.9	10.3	83.9	16.1	83.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0	1.8	3.8	8.1	86.4	13.6	86.4
	전문가	(62)	1.6	3.2	6.5	53.2	35.5	64.5	35.5
소속별	대학	(30)	0.0	3.3	6.7	63.3	26.7	73.3	26.7
	연구소	(32)	3.1	3.1	6.3	43.8	43.8	56.3	43.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0	1.2	3.7	8.6	86.4	13.6	86.4
	중	(497)	0.0	2.0	4.2	8.0	85.7	14.3	85.7
	하	(136)	0.0	2.9	2.2	5.9	89.0	11.0	89.0
성별	남성	(720)	0.0	2.2	4.3	10.3	83.2	16.8	83.2
	여성	(480)	0.0	1.0	2.9	4.8	91.3	8.8	91.3
연령별	18-29세	(303)	0.0	2.6	4.3	9.2	83.8	16.2	83.8
	30대	(256)	0.0	1.6	5.1	9.4	84.0	16.0	84.0
	40대	(314)	0.0	1.3	2.2	7.3	89.2	10.8	89.2
	50대	(327)	0.0	1.5	3.7	6.7	88.1	11.9	88.1
지역별	서울	(238)	0.0	3.8	7.1	8.4	80.7	19.3	80.7
	경기/인천	(393)	0.0	1.5	3.1	8.7	86.8	13.2	86.8
	대전/세종/충청	(128)	0.0	1.6	3.1	3.9	91.4	8.6	91.4
	광주/전라	(110)	0.0	1.8	4.5	15.5	78.2	21.8	78.2
	대구/경북	(109)	0.0	0.9	0.9	8.3	89.9	10.1	89.9
	부산/울산/경남	(175)	0.0	0.6	2.9	5.7	90.9	9.1	90.9
	강원/제주	(47)	0.0	0.0	2.1	4.3	93.6	6.4	93.6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0	2.5	5.4	6.5	85.5	14.4	85.5
	중소도시	(608)	0.0	1.0	2.5	9.9	86.7	13.4	86.7
	군지역	(41)	0.0	2.4	0.0	2.4	95.1	4.9	95.1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2.7	6.0	8.8	82.4	17.6	82.4
	블루칼라	(351)	0.0	2.0	1.4	11.1	85.5	14.5	85.5
	화이트칼라	(409)	0.0	2.0	5.1	6.6	86.3	13.7	86.3
	전업주부	(163)	0.0	0.6	3.7	5.5	90.2	9.8	90.2
	학생	(69)	0.0	0.0	2.9	5.8	91.3	8.7	91.3
	무직/기타	(26)	0.0	0.0	0.0	7.7	92.3	7.7	92.3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0	1.4	2.8	6.2	89.5	10.5	89.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0	2.3	2.6	10.6	84.6	15.4	84.6
	4년제 이상	(535)	0.0	1.7	5.0	7.9	85.4	14.6	85.4
생활 수준별	상	(137)	0.0	2.9	4.4	7.3	85.4	14.6	85.4
	중	(700)	0.0	2.3	4.3	8.0	85.4	14.6	85.4
	하	(363)	0.0	0.3	2.5	8.5	88.7	11.3	88.7

(3) 국방일보

Q.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국방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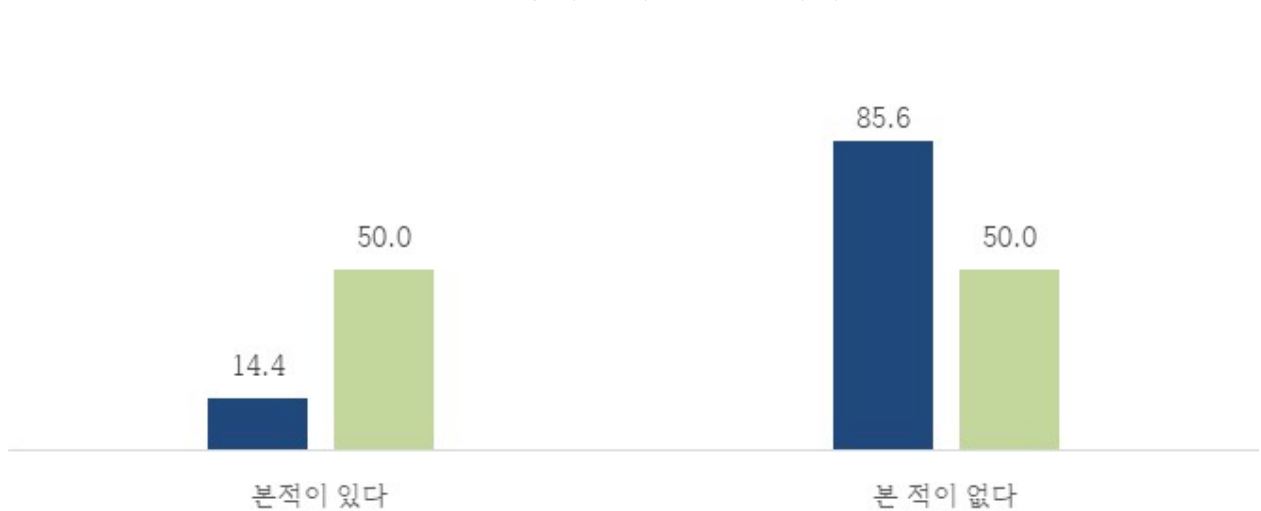
‘본 적이 없다’: 일반국민 85.6%, 전문가 50.0%

- [일반국민] 국방일보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5.6%로, ‘본 적이 있다’(14.4%)는 응답보다 71.2%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없다’(2019년 82.5%)는 응답과, ‘본 적이 있다’(2019년 17.5%)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 ‘본 적이 있다’는 응답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각 50%로 동일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p(2019년 56.3%)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6.2%p(2019년 43.8%) 증가함

[그림 3-197. 국방일보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198. 국방일보 접촉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일보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01. 국방일보]

(단위: 명, %)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전체		(1262)	0.6	1.5	4.4	9.7	83.8	16.2	83.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1.5	3.8	8.8	85.6	14.4	85.6
	전문가	(62)	3.2	1.6	16.1	29.0	50.0	50.0	50.0
소속별	대학	(30)	0.0	0.0	16.7	33.3	50.0	50.0	50.0
	연구소	(32)	6.3	3.1	15.6	25.0	50.0	50.0	5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4	1.6	3.7	8.3	86.1	13.9	86.1
	중	(497)	0.6	1.4	3.8	10.1	84.1	15.9	84.1
	하	(136)	0.0	1.5	3.7	5.9	89.0	11.0	89.0
성별	남성	(720)	0.6	1.5	4.2	10.8	82.9	17.1	82.9
	여성	(480)	0.2	1.5	3.1	5.6	89.6	10.4	89.6
연령별	18-29세	(303)	1.0	2.0	3.6	9.9	83.5	16.5	83.5
	30대	(256)	0.0	1.6	4.7	10.2	83.6	16.4	83.6
	40대	(314)	0.3	1.3	2.5	7.6	88.2	11.8	88.2
	50대	(327)	0.3	1.2	4.3	7.6	86.5	13.5	86.5
지역별	서울	(238)	1.3	2.1	4.6	16.0	76.1	23.9	76.1
	경기/인천	(393)	0.0	1.0	4.6	8.7	85.8	14.2	85.8
	대전/세종/충청	(128)	0.8	0.0	3.9	5.5	89.8	10.2	89.8
	광주/전라	(110)	0.0	5.5	2.7	10.0	81.8	18.2	81.8
	대구/경북	(109)	0.9	0.9	0.0	7.3	90.8	9.2	90.8
	부산/울산/경남	(175)	0.0	1.1	4.6	1.7	92.6	7.4	92.6
	강원/제주	(47)	0.0	0.0	0.0	8.5	91.5	8.5	91.5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9	2.0	4.2	9.1	83.8	16.0	83.8
	중소도시	(608)	0.0	1.2	3.5	8.9	86.5	13.6	86.5
	군지역	(41)	0.0	0.0	2.4	2.4	95.1	4.9	95.1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2.7	6.0	12.6	78.6	21.4	78.6
	블루칼라	(351)	0.6	1.1	3.1	7.7	87.5	12.5	87.5
	화이트칼라	(409)	0.7	1.0	4.2	10.0	84.1	15.9	84.1
	전업주부	(163)	0.0	2.5	3.1	6.1	88.3	11.7	88.3
	학생	(69)	0.0	1.4	1.4	4.3	92.8	7.2	92.8
	무직/기타	(26)	0.0	0.0	0.0	3.8	96.2	3.8	96.2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1.4	4.0	5.6	88.7	11.3	88.7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0	2.3	4.2	10.9	82.6	17.4	82.6
	4년제 이상	(535)	0.7	1.1	3.4	9.5	85.2	14.8	85.2
생활 수준별	상	(137)	2.2	2.9	2.9	8.8	83.2	16.8	83.2
	중	(700)	0.3	2.0	4.4	8.1	85.1	14.9	85.1
	하	(363)	0.0	0.0	2.8	9.9	87.3	12.7	87.3

(4) 국방FM

Q.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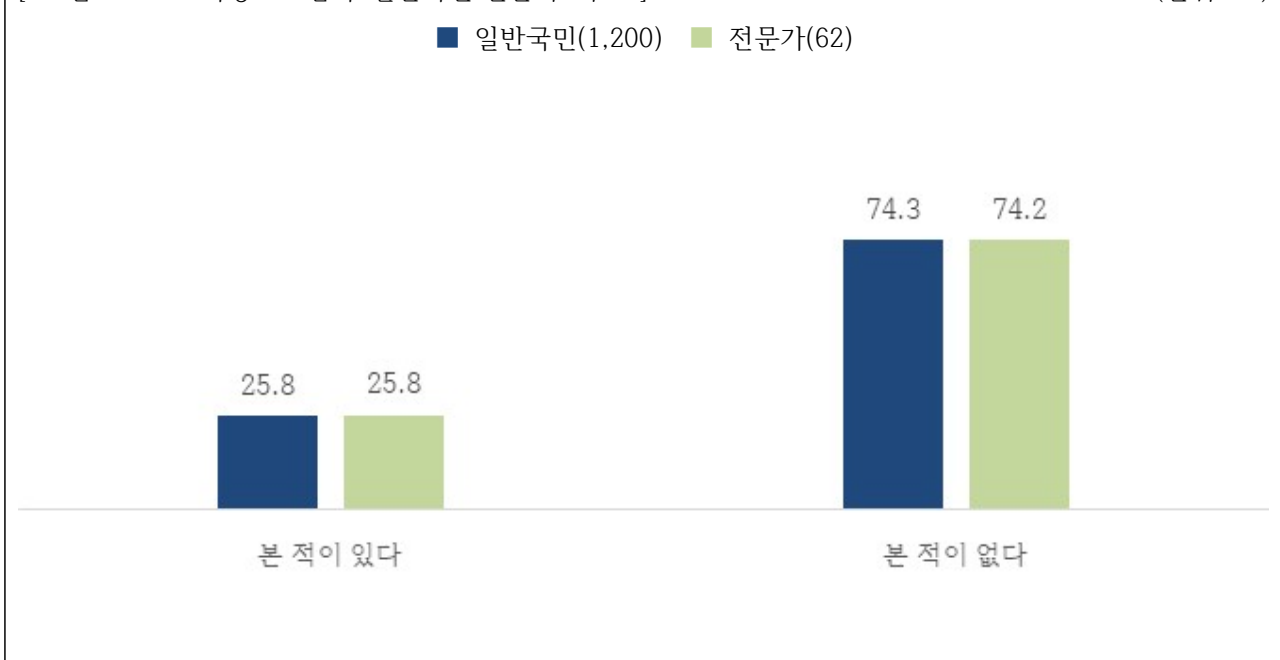
- 국방FM(라디오)

‘본 적이 없다’: 일반국민 74.3%, 전문가 74.2%

- [일반국민] 국방FM(라디오)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3%로, ‘본 적이 있다’(25.8%)는 응답보다 48.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6.9%p(2019년 81.2%)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p(2019년 18.8%) 증가함
- [전문가]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4.2%로, ‘본 적이 있다’(25.8%)는 응답보다 48.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7.0%p(2019년 67.2%) 증가한 반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0%p(2019년 32.8%) 감소함

[그림 3-199. 국방FM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200. 국방FM 접촉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FM(라디오)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 지역 크기별로 군지역, 직업별로 전업주부, 학생일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102. 국방FM]

(단위: 명, %)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전체		(1262)	0.3	2.0	6.6	16.9	74.2	25.8	7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1.9	6.8	16.7	74.3	25.8	74.3
	전문가	(62)	0.0	3.2	1.6	21.0	74.2	25.8	74.2
소속별	대학	(30)	0.0	3.3	0.0	20.0	76.7	23.3	76.7
	연구소	(32)	0.0	3.1	3.1	21.9	71.9	28.1	71.9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2	2.1	6.5	19.4	71.8	28.2	71.8
	중	(497)	0.6	2.0	6.8	15.3	75.3	24.7	75.3
	하	(136)	0.0	0.7	8.1	10.3	80.9	19.1	80.9
성별	남성	(720)	0.4	1.7	9.3	20.7	67.9	32.1	67.9
	여성	(480)	0.2	2.3	3.1	10.6	83.8	16.3	83.8
연령별	18-29세	(303)	0.3	2.3	7.9	16.2	73.3	26.7	73.3
	30대	(256)	0.4	3.1	7.4	17.2	71.9	28.1	71.9
	40대	(314)	0.0	1.0	6.7	17.8	74.5	25.5	74.5
	50대	(327)	0.6	1.5	5.5	15.6	76.8	23.2	76.8
지역별	서울	(238)	0.4	3.8	6.7	21.0	68.1	31.9	68.1
	경기/인천	(393)	0.3	1.0	9.7	19.1	70.0	30.0	70.0
	대전/세종/충청	(128)	0.0	0.8	3.1	13.3	82.8	17.2	82.8
	광주/전라	(110)	0.9	3.6	6.4	30.0	59.1	40.9	59.1
	대구/경북	(109)	0.9	0.0	6.4	8.3	84.4	15.6	84.4
	부산/울산/경남	(175)	0.0	2.3	4.6	6.3	86.9	13.1	86.9
	강원/제주	(47)	0.0	2.1	4.3	10.6	83.0	17.0	83.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5	2.7	7.1	14.2	75.5	24.4	75.5
	중소도시	(608)	0.2	1.3	7.1	19.1	72.4	27.7	72.4
	군지역	(41)	0.0	0.0	0.0	14.6	85.4	14.6	85.4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3.3	11.0	19.2	66.5	33.5	66.5
	블루칼라	(351)	0.3	2.0	6.3	16.0	75.5	24.5	75.5
	화이트칼라	(409)	0.5	1.7	7.3	20.0	70.4	29.6	70.4
	전업주부	(163)	0.6	1.8	4.3	9.8	83.4	16.6	83.4
	학생	(69)	0.0	0.0	4.3	13.0	82.6	17.4	82.6
	무직/기타	(26)	0.0	0.0	0.0	7.7	92.3	7.7	92.3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3	2.0	5.4	13.0	79.4	20.6	79.4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0	1.9	7.1	17.0	74.0	26.0	74.0
	4년제 이상	(535)	0.6	1.9	7.7	18.9	71.0	29.0	71.0
생활 수준별	상	(137)	1.5	5.1	3.6	17.5	72.3	27.7	72.3
	중	(700)	0.1	1.9	7.6	15.3	75.1	24.9	75.1
	하	(363)	0.3	0.8	6.6	19.0	73.3	26.7	73.3

(5) 국방TV

Q.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국방TV(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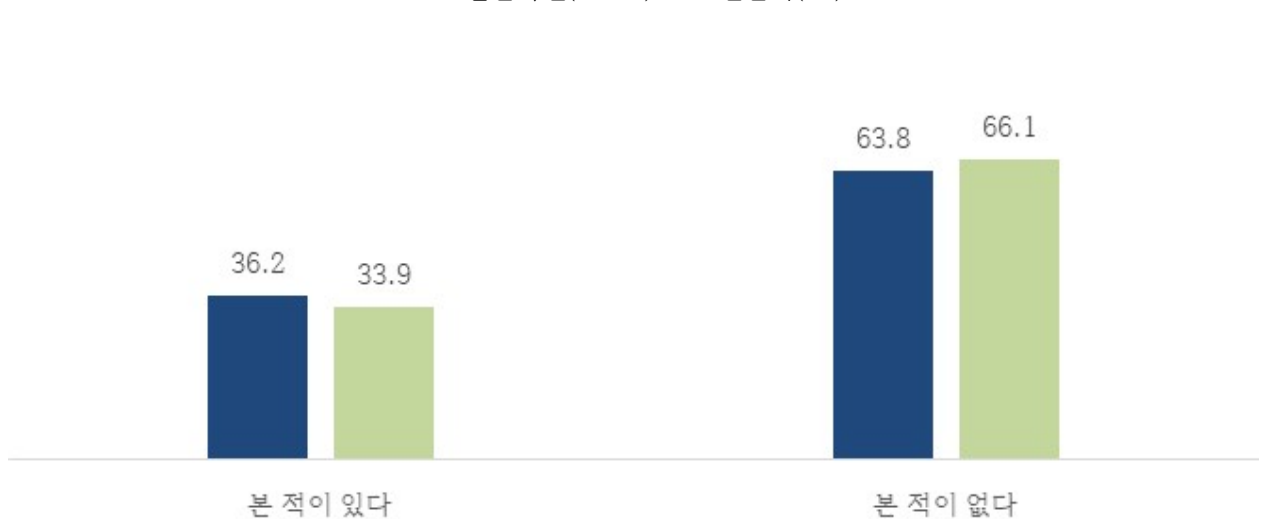
‘본 적이 없다’: 일반국민 63.8%, 전문가 66.1%

- [일반국민] 국방TV(텔레비전)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3.8%로, ‘본 적이 있다’(36.2%)는 응답보다 27.6%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1.1%p(2019년 74.9%) 감소한 반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1%p(2019년 25.1%) 증가함
- [전문가]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1%로, ‘본 적이 있다’(33.9%)는 응답보다 32.2%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11.4%p(2019년 54.7%) 증가한 반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4%p(2019년 45.3%) 감소함

[그림 3-201. 국방TV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202. 국방TV 접촉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TV(텔레비전)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별로 군 지역, 직업별로 학생인 경우 높게 나타남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03. 국방TV]

(단위: 명, %)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전체		(1262)	0.4	1.9	8.8	25.0	63.9	36.1	63.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1.8	8.7	25.3	63.8	36.2	63.8
	전문가	(62)	0.0	3.2	11.3	19.4	66.1	33.9	66.1
소속별	대학	(30)	0.0	3.3	13.3	20.0	63.3	36.7	63.3
	연구소	(32)	0.0	3.1	9.4	18.8	68.8	31.3	6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0.4	2.3	8.3	26.5	62.6	37.4	62.6
	중	(497)	0.6	1.4	9.3	24.5	64.2	35.8	64.2
	하	(136)	0.0	1.5	8.1	22.8	67.6	32.4	67.6
성별	남성	(720)	0.4	2.1	10.8	26.8	59.9	40.1	59.9
	여성	(480)	0.4	1.5	5.4	22.9	69.8	30.2	69.8
연령별	18-29세	(303)	1.0	1.3	8.9	24.1	64.7	35.3	64.7
	30대	(256)	0.8	2.3	9.4	24.2	63.3	36.7	63.3
	40대	(314)	0.0	1.6	8.6	26.8	63.1	36.9	63.1
	50대	(327)	0.0	2.1	8.0	25.7	64.2	35.8	64.2
지역별	서울	(238)	1.7	2.1	6.7	22.7	66.8	33.2	66.8
	경기/인천	(393)	0.0	1.5	16.3	21.9	60.3	39.7	60.3
	대전/세종/충청	(128)	0.0	0.8	1.6	27.3	70.3	29.7	70.3
	광주/전라	(110)	0.0	2.7	6.4	36.4	54.5	45.5	54.5
	대구/경북	(109)	0.0	0.9	0.9	15.6	82.6	17.4	82.6
	부산/울산/경남	(175)	0.6	1.1	7.4	37.1	53.7	46.3	53.7
	강원/제주	(47)	0.0	8.5	2.1	12.8	76.6	23.4	76.6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7	2.7	7.1	23.4	66.1	33.9	66.1
	중소도시	(608)	0.2	1.2	10.7	27.0	61.0	39.0	61.0
	군지역	(41)	0.0	0.0	0.0	24.4	75.6	24.4	75.6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0.5	14.8	24.7	59.9	40.1	59.9
	블루칼라	(351)	0.3	1.4	8.0	22.2	68.1	31.9	68.1
	화이트칼라	(409)	1.0	2.7	6.8	30.1	59.4	40.6	59.4
	전업주부	(163)	0.0	3.1	9.2	25.2	62.6	37.4	62.6
	학생	(69)	0.0	0.0	8.7	14.5	76.8	23.2	76.8
	무직/기타	(26)	0.0	0.0	0.0	23.1	76.9	23.1	76.9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0	1.7	9.3	21.5	67.5	32.5	67.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0.3	1.9	9.3	27.0	61.4	38.6	61.4
	4년제 이상	(535)	0.7	1.9	7.9	26.7	62.8	37.2	62.8
생활 수준별	상	(137)	1.5	3.6	5.1	23.4	66.4	33.6	66.4
	중	(700)	0.4	1.9	10.9	22.7	64.1	35.9	64.1
	하	(363)	0.0	1.1	5.8	30.9	62.3	37.7	62.3

(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Q.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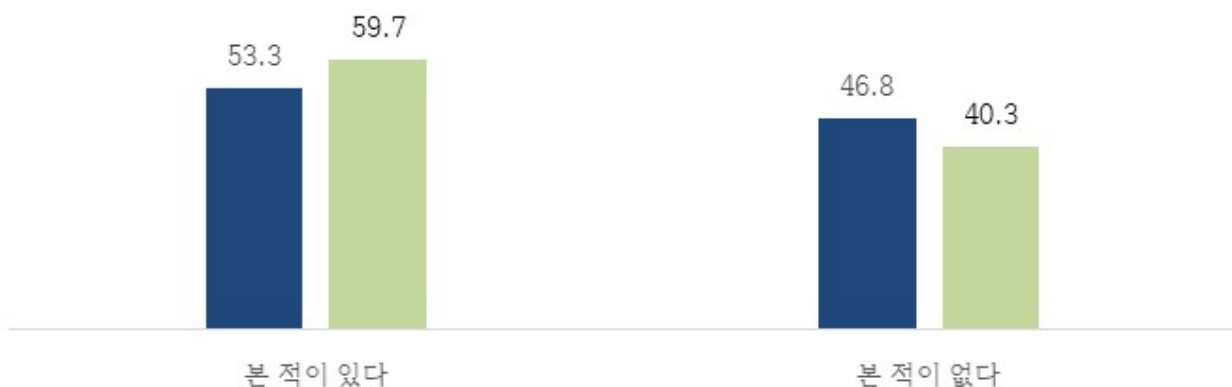
‘본 적이 있다’: 일반국민 53.3%, 전문가 59.7%

- [일반국민]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3.3%로, ‘본 적이 없다’(46.8%)는 응답보다 6.5%p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4%p(2019년 29.8%) 증가한 반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3.4%p(2019년 70.2%) 감소함
- [전문가]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7%로, ‘본 적이 없다’(40.3%)는 응답보다 19.4%p 높게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p(2019년 53.1%) 증가한 반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6.6%p(2019년 46.9%) 감소함

[그림 3-203. 국방관련 뉴미디어 접촉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 일반국민(1,200) ■ 전문가(62)



[그림 3-204. 국방관련 뉴미디어 접촉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인 경우 높게 나타남

[표 3-104.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단위: 명, %)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종합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전체		(1262)	1.1	5.5	12.6	34.4	46.4	53.6	46.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	5.3	12.2	34.7	46.8	53.3	46.8
	전문가	(62)	1.6	8.1	21.0	29.0	40.3	59.7	40.3
소속별	대학	(30)	3.3	13.3	20.0	26.7	36.7	63.3	36.7
	연구소	(32)	0.0	3.1	21.9	31.3	43.8	56.3	43.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1.6	4.4	12.2	34.4	47.4	52.6	47.4
	중	(497)	0.8	6.6	11.5	34.2	46.9	53.1	46.9
	하	(136)	0.0	4.4	14.7	37.5	43.4	56.6	43.4
성별	남성	(720)	0.8	6.8	13.8	34.7	43.9	56.1	43.9
	여성	(480)	1.5	3.1	9.8	34.6	51.0	49.0	51.0
연령별	18-29세	(303)	2.0	5.9	13.9	39.9	38.3	61.7	38.3
	30대	(256)	1.2	5.5	12.1	37.5	43.8	56.3	43.8
	40대	(314)	0.6	5.1	12.7	31.2	50.3	49.7	50.3
	50대	(327)	0.6	4.9	10.1	30.9	53.5	46.5	53.5
지역별	서울	(238)	0.8	5.5	15.1	38.2	40.3	59.7	40.3
	경기/인천	(393)	2.0	5.1	14.2	34.1	44.5	55.5	44.5
	대전/세종/충청	(128)	0.8	10.9	11.7	40.6	35.9	64.1	35.9
	광주/전라	(110)	0.0	1.8	9.1	21.8	67.3	32.7	67.3
	대구/경북	(109)	0.9	1.8	12.8	22.0	62.4	37.6	62.4
	부산/울산/경남	(175)	0.6	1.1	6.3	42.9	49.1	50.9	49.1
	강원/제주	(47)	0.0	23.4	8.5	34.0	34.0	66.0	34.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51)	0.5	6.0	12.3	29.6	51.5	48.5	51.5
	중소도시	(608)	1.6	5.1	12.5	37.8	42.9	57.0	42.9
	군지역	(41)	0.0	0.0	4.9	56.1	39.0	61.0	39.0
직업별	자영업자	(182)	0.0	3.3	12.1	29.1	55.5	44.5	55.5
	블루칼라	(351)	2.0	6.0	9.7	37.3	45.0	55.0	45.0
	화이트칼라	(409)	1.0	7.1	13.2	36.7	42.1	57.9	42.1
	전업주부	(163)	1.2	3.1	11.7	31.3	52.8	47.2	52.8
	학생	(69)	0.0	4.3	21.7	29.0	44.9	55.1	44.9
	무직/기타	(26)	0.0	0.0	7.7	42.3	50.0	50.0	5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0.0	3.7	10.5	33.6	52.3	47.7	52.3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2.6	4.5	12.2	36.3	44.4	55.6	44.4
	4년제 이상	(535)	0.9	6.9	13.3	34.4	44.5	55.5	44.5
생활 수준별	상	(137)	1.5	8.0	13.9	32.8	43.8	56.2	43.8
	중	(700)	1.6	6.6	12.0	34.4	45.4	54.6	45.4
	하	(363)	0.0	1.9	11.8	35.8	50.4	49.6	50.4

25)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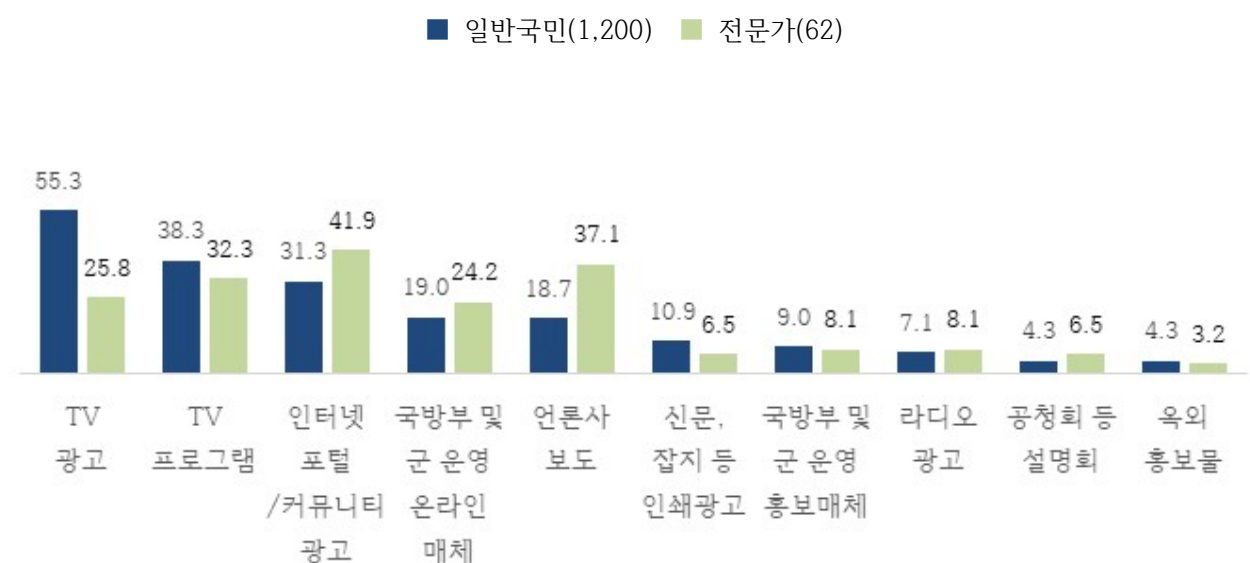
Q. 귀하는 국방부 및 군의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TV 광고’: 일반국민 55.3%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 전문가 41.9%

- [일반국민]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으로 ‘TV 광고’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프로그램’(38.3%),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3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전년대비)] 2019년 ‘TV 광고’는 6.1%p(2019년 49.2%) 증가한 반면, ‘TV 프로그램’은 6.6%p(2019년 44.9%) 감소함
- [전문가]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언론사 보도’(37.1%), ‘TV 프로그램’(3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전년대비)] 2019년 대비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2019년 43.8%)라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이며, ‘언론사 보도’라는 응답은 12.9%p(2019년 50.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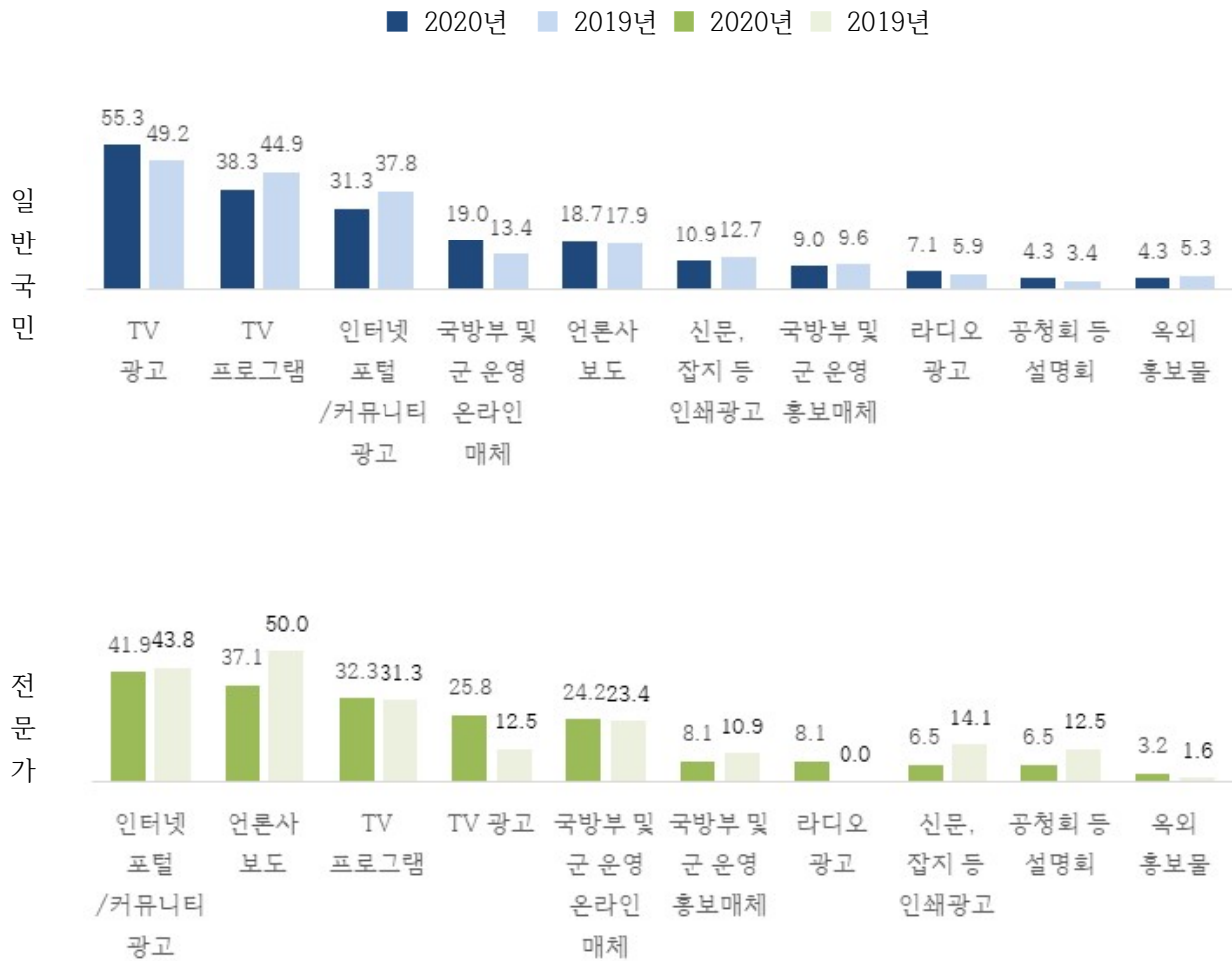
[그림 3-205.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일반국민·전문가 비교]

(단위: %)



[그림 3-206.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전년도 비교]

(단위: %)



응답자의 응답 특성 분석

-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홍보활동으로 'TV 광고'라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III. 세부 조사 결과

[표 3-105. 국방부 및 군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1+2순위)]

(단위: 명, %, 라디오 광고 7.1%, 공청회 등 설명회 4.4%, 옥외 홍보물 4.3% 제외)

1+2순위		사례수	TV 광고	TV 프로 그램	인터넷 포털/커뮤니 티 광고	국방부 및 군 온라인 매체	언론사 보도	신문, 잡지 등 인쇄 광고	국방부 및 군 온라인 매체
전체		(1262)	53.9	38.0	31.8	19.3	19.6	10.7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5.3	38.3	31.3	19.0	18.7	10.9	9.0
	전문가	(62)	25.8	32.3	41.9	24.2	37.1	6.5	8.1
소속별	대학	(30)	26.7	33.3	50.0	13.3	40.0	6.7	6.7
	연구소	(32)	25.0	31.3	34.4	34.4	34.4	6.3	9.4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 수준별	상	(567)	53.3	39.0	32.3	19.6	19.4	12.0	9.0
	중	(497)	56.5	36.2	31.8	18.9	18.3	10.9	8.9
	하	(136)	59.6	43.4	25.0	16.9	16.9	6.6	9.6
성별	남성	(720)	53.9	37.2	32.2	19.9	19.0	11.0	8.6
	여성	(480)	57.5	40.0	29.8	17.7	18.1	10.8	9.6
연령별	18-29세	(303)	54.5	34.7	33.7	27.1	17.2	9.2	9.9
	30대	(256)	55.1	37.9	36.7	19.5	18.0	10.9	9.4
	40대	(314)	56.1	37.9	30.9	16.2	19.4	9.9	8.3
	50대	(327)	55.7	42.5	25.1	13.8	19.9	13.5	8.6
지역별	서울	(238)	61.8	38.2	21.4	16.0	14.7	15.1	11.8
	경기/인천	(393)	50.9	46.3	35.4	16.3	22.6	6.9	8.4
	대전/세종/충청	(128)	30.5	33.6	34.4	32.0	25.0	11.7	11.7
	광주/전라	(110)	66.4	29.1	28.2	15.5	12.7	19.1	10.0
	대구/경북	(109)	50.5	29.4	40.4	20.2	25.7	7.3	3.7
	부산/울산/경남	(175)	70.3	38.9	28.0	18.3	8.6	9.7	8.6
지역 크기별	강원/제주	(47)	57.4	25.5	36.2	29.8	23.4	14.9	4.3
	대도시	(551)	60.3	36.7	25.8	18.7	15.4	15.4	10.0
	중소도시	(608)	50.3	40.0	37.2	19.9	21.2	6.3	8.2
	군지역	(41)	63.4	36.6	17.1	9.8	24.4	19.5	7.3
직업별	자영업자	(182)	53.3	41.2	31.3	11.5	17.6	13.7	9.9
	블루칼라	(351)	55.3	40.2	31.6	19.7	21.4	9.1	8.0
	화이트칼라	(409)	53.3	36.2	32.3	21.8	18.6	12.2	11.0
	전업주부	(163)	60.7	39.9	29.4	16.6	14.7	11.0	5.5
	학생	(69)	58.0	33.3	30.4	26.1	14.5	5.8	11.6
	무직/기타	(26)	61.5	30.8	23.1	15.4	26.9	7.7	0.0
최종 학력별	고졸이하	(354)	58.8	45.8	24.6	11.9	17.2	13.0	6.2
	전문대(재학/중퇴/졸업)	(311)	53.7	33.8	33.4	21.9	20.6	10.9	7.7
	4년제 이상	(535)	54.0	36.1	34.4	22.1	18.5	9.5	11.6
생활 수준별	상	(137)	59.1	32.1	34.3	19.0	13.1	12.4	10.9
	중	(700)	51.0	38.1	30.4	19.6	21.6	12.3	8.3
	하	(363)	62.3	41.0	31.7	17.9	15.2	7.7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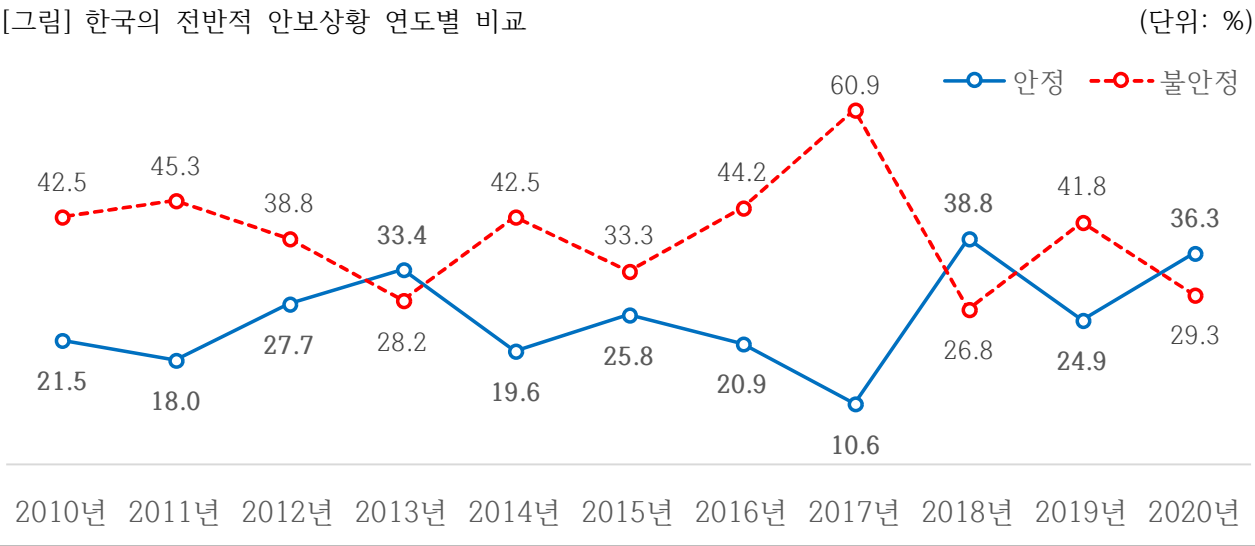
IV. 부록

1. 시계열 분석

1)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Q.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11.4%p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14.8%p 증가함
-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12.5%p 감소하였고, 2010년 대비 13.2%p 감소함



[표]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연도별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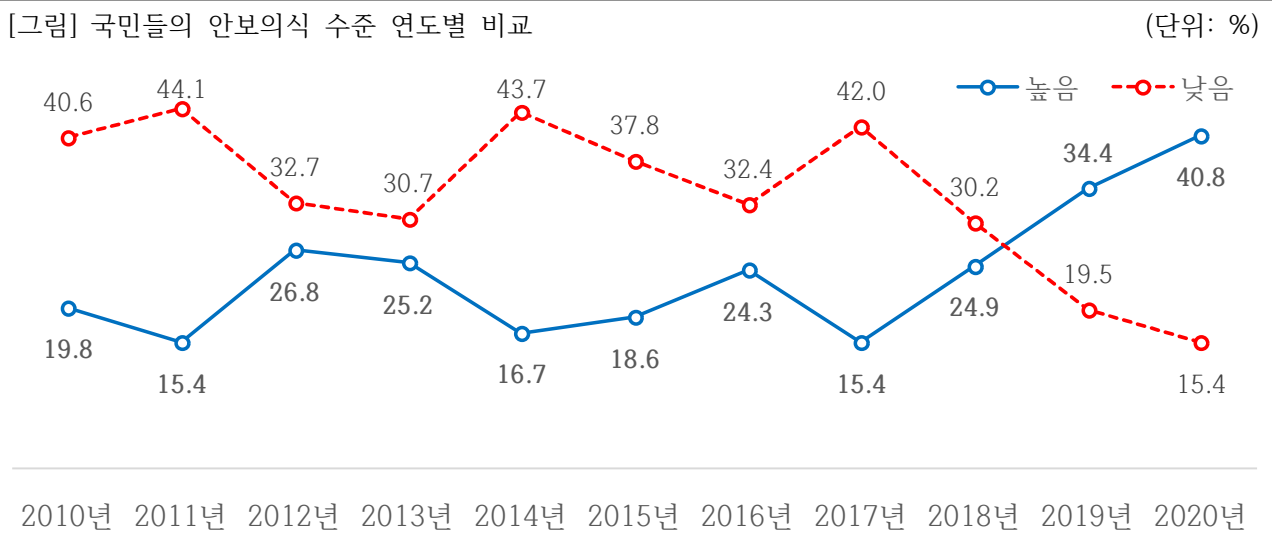
구분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안정 ④	불안정 ⑤	GAP (④-⑤)
2020년 ①	1.4	34.8	34.4	27.0	2.3	36.3	29.3	6.9
2019년 ②	1.0	23.9	33.3	33.3	8.5	24.9	41.8	-16.9
GAP(①-②)	0.4	10.9	1.1	-6.3	-6.2	11.4	-12.5	-
2018년	3.1	35.8	34.3	22.8	4.1	38.8	26.8	12.0
2017년	1.2	9.4	28.5	47.4	13.5	10.6	60.9	-50.3
2016년	1.8	19.1	35.0	38.6	5.6	20.9	44.2	-23.3
2015년	0.9	24.9	40.9	29.8	3.5	25.8	33.3	-7.5
2014년	1.3	18.3	37.9	39.2	3.3	19.6	42.5	-22.9
2013년	2.2	31.2	38.4	25.6	2.6	33.4	28.2	5.2
2012년	1.9	25.8	33.5	35.0	3.8	27.7	38.8	-11.1
2011년	0.4	17.6	36.7	41.6	3.7	18.0	45.3	-27.3
2010년 ③	1.0	20.5	36.0	37.5	5.0	21.5	42.5	-21.0
GAP(①-③)	0.4	14.3	-1.6	-10.5	-2.7	14.8	-13.2	-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Q.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6.3%p 증가하였으며, 2010년 과 비교시 21.0%p 증가함
- 낮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4.1%p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25.2%p 감소함

[그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연도별 비교



[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연도별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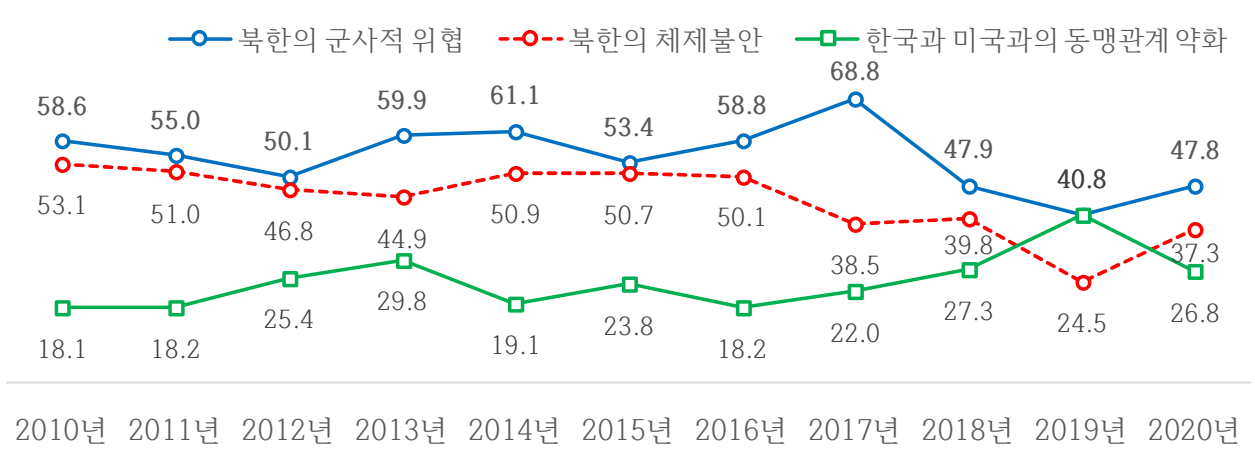
구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높음 ④	낮음 ⑤	GAP (④-⑤)
2020년 ①	1.9	38.9	43.8	14.8	0.6	40.8	15.4	25.4
2019년 ②	1.8	32.7	46.1	17.1	2.4	34.5	19.5	15.0
GAP(①-②)	0.1	6.2	-2.4	-2.3	-1.8	6.3	-4.1	-
2018년	4.5	20.4	44.9	26.8	3.4	24.9	30.2	-5.3
2017년	0.8	14.6	42.6	36.9	5.1	15.4	42.0	-26.6
2016년	2.4	21.9	42.3	28.8	3.6	24.3	32.4	-8.1
2015년	1.2	17.4	43.6	34.1	3.7	18.6	37.8	-19.2
2014년	1.9	14.8	39.6	38.9	4.8	16.7	43.7	-27.0
2013년	1.8	23.4	44.1	27.0	3.7	25.2	30.7	-5.5
2012년	4.5	22.3	40.5	29.8	2.9	26.8	32.7	-5.9
2011년	1.1	14.3	40.5	38.5	5.6	15.4	44.1	-28.7
2010년 ③	0.7	19.1	39.7	33.9	6.7	19.8	40.6	-20.8
GAP(①-③)	1.2	19.8	4.1	-19.1	-6.1	21.0	-25.2	-

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Q.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10.9%p 감소함
- 북한의 체제불안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12.8%p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15.9%p 감소
-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는 2019년 대비 14.0%p 감소, 2010년 대비 8.7%p 증가

[그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연도별 비교(1+2순위 기준, 상위 3개 제시) (단위: %)



[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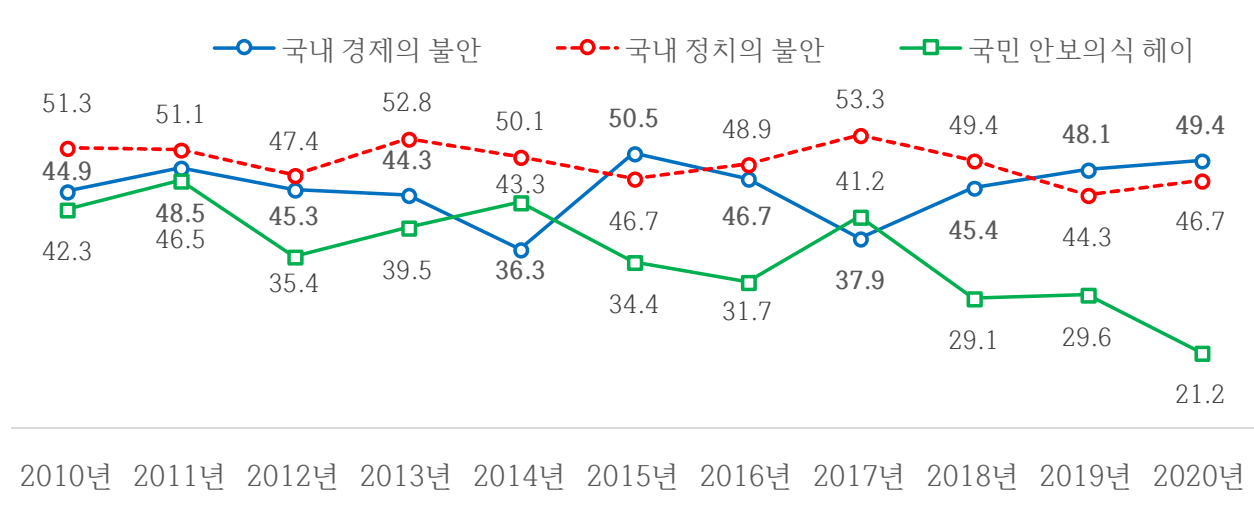
구분	(단위: %, %p)												
	2010년 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②	2020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	58.6	55.0	50.1	59.9	61.1	53.4	58.8	68.8	47.9	40.8	47.8	7.0	-10.9
북한의 체제 불안	53.1	51.0	46.8	44.9	50.9	50.7	50.1	38.5	39.8	24.5	37.3	12.8	-15.9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18.1	18.2	25.4	29.8	19.1	23.8	18.2	22.0	27.3	40.8	26.8	-14.0	8.7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약화	22.9	17.9	21.5	21.8	21.4	22.0	18.5	30.0	27.8	24.7	23.0	-1.7	0.1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20.0	21.8	27.6	16.5	19.3	18.6	18.9	15.8	23.5	29.0	18.6	-10.4	-1.4
감염병(2020년 신규 추가)	-	-	-	-	-	-	-	-	-	-	16.9	-	-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16.9	21.8	20.0	12.8	11.3	16.8	13.5	11.1	17.8	25.4	16.1	-9.3	-0.8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9.5	12.9	8.1	9.5	11.8	10.4	18.9	10.3	11.3	11.0	9.3	-1.7	-0.2
주변국 영토분쟁	-	-	-	4.7	4.7	4.0	2.8	2.3	3.8	3.7	4.3	0.6	-
기타	-	-	-	-	-	-	-	-	-	0.1	-	-	-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Q.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국내 경제의 불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이다 응답은 2019년과 비교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1.3%p 차),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4.5%p 증가함
- 국내 정치의 불안이라는 응답 또한 2019년과 비교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2.4% 차), 2010년 대비 4.6%p 감소함
- 국민 안보의식 헤이는 2019년 대비 8.4%p 감소, 2010년 대비 21.1%p 감소하였음

[그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연도별 비교(1+2순위 기준, 상위 3개 제시) (단위: %)



[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연도별 비교(1+2순위 기준)

(단위: %, %p)

구분	2010년 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②	2020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국내 경제의 불안	44.9	48.5	45.3	44.3	36.3	50.5	46.7	37.9	45.4	48.1	49.4	1.3	4.5
국내 정치의 불안	51.3	51.1	47.4	52.8	50.1	46.7	48.9	53.3	49.4	44.3	46.7	2.4	-4.6
국민 안보의식 헤이	42.3	46.5	35.4	39.5	43.3	34.4	31.7	41.2	29.1	29.6	21.2	-8.4	-21.1
사회 불평등의 심화	33.0	32.8	32.8	26.1	24.9	31.3	35.3	23.1	31.3	29.8	19.2	-10.6	-13.8
감염병	-	-	-	-	-	-	-	-	-	-	17.7	-	-
반미감정	17.8	12.1	16.2	14.3	15.3	11.3	11.8	17.8	16.3	17.4	16.6	-0.8	-1.2
이념갈등	-	-	13.9	9.8	14.0	11.7	12.9	14.6	17.3	14.4	14.4	0.0	-
불충분한 국방비	9.0	7.8	7.9	9.3	11.4	5.8	6.5	7.9	5.7	12.3	10.1	-2.2	1.1
치안불안	-	-	-	3.5	4.0	8.3	5.9	2.9	4.3	4.3	4.8	0.5	-
기타	-	-	-	0.3	0.6	0.2	0.1	0.8	0.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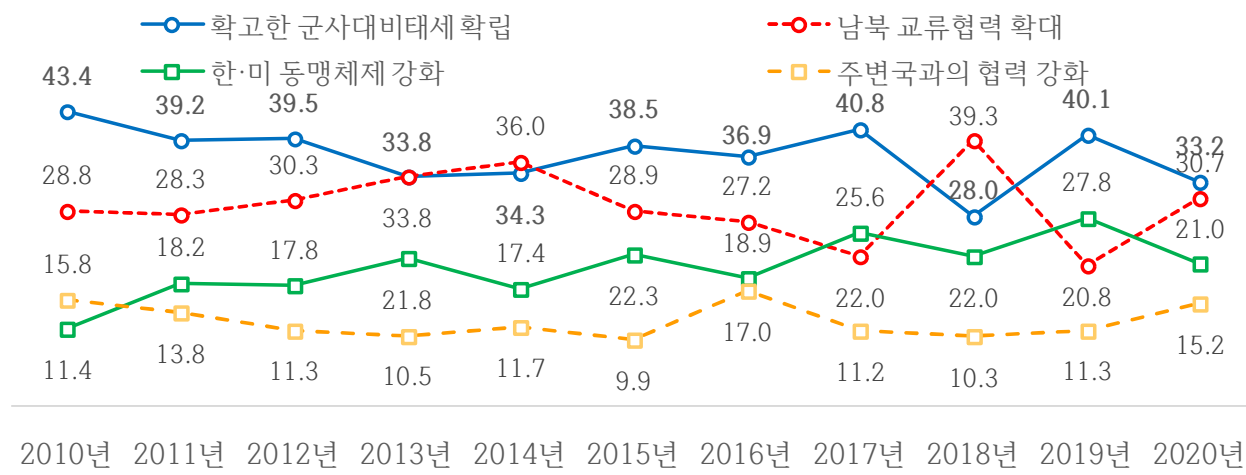
5)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Q.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6.9%p 감소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10.2%p 감소함
-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9.9%p 증가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010년 대비 1.9%p 증가함
-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6.8%p 감소하였고, 2010년 대비 9.6%p 증가함
-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들은 아니지만 2019년 대비 3.9%p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0.6%p 감소함

[그림]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안보위협 요인 감소 방안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2010년 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②	2020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43.4	39.2	39.5	33.8	34.3	38.5	36.9	40.8	28	40.1	33.2	-6.9	-10.2
남북 교류협력 확대	28.8	28.3	30.3	33.8	36	28.9	27.2	22	39.3	20.8	30.7	9.9	1.9
한·미 동맹체제 강화	11.4	18.2	17.8	21.8	17.4	22.3	18.9	25.6	22	27.8	21.0	-6.8	9.6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15.8	13.8	11.3	10.5	11.7	9.9	17	11.2	10.3	11.3	15.2	3.9	-0.6
기타	0.6	0.6	1.1	0.1	0.6	0.4	-	0.5	0.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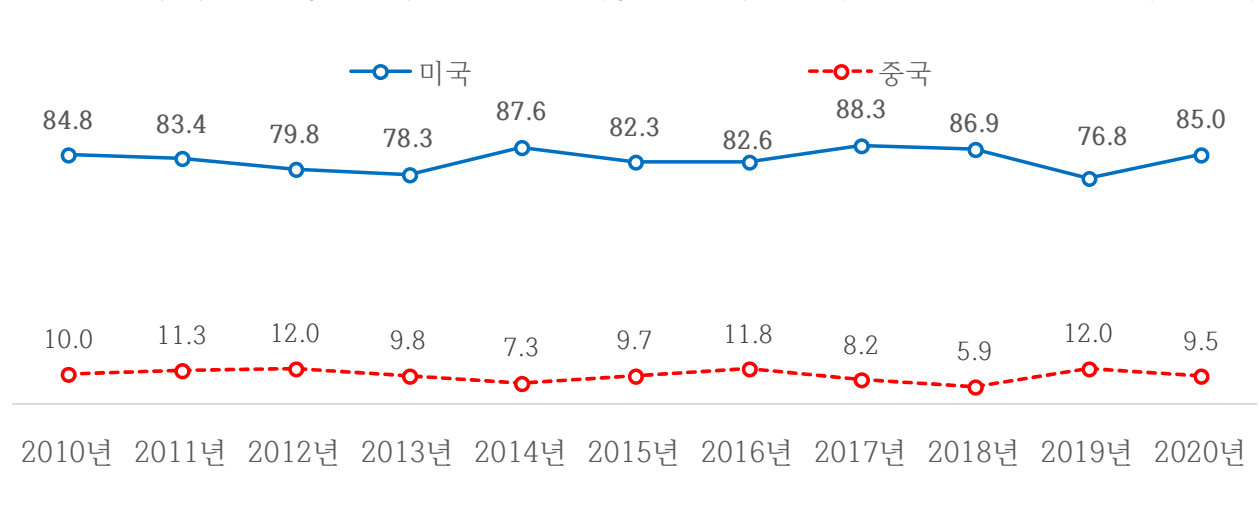
6)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Q. 귀하는 다음 사항에(안보적 측면) 대해 어느 나라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8.2%p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중국, 러시아 각 국가별 응답은 2019년과 2010년 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2019년과 비교시 그 중요도가 4.2%p 감소함

[그림]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상위 2개 국가 제시)

(단위: %)



[표]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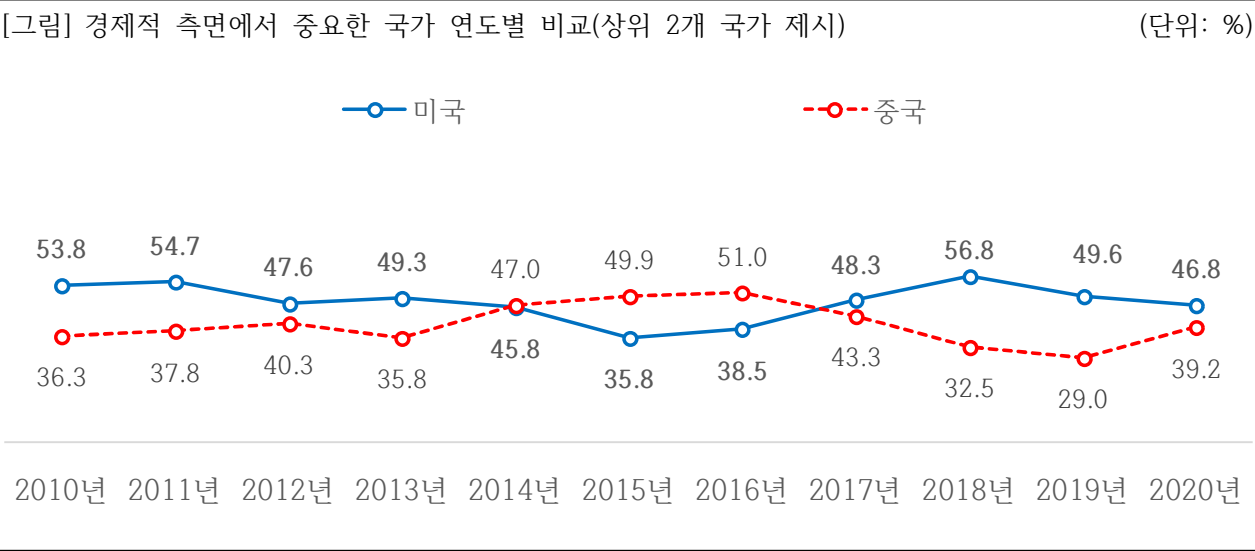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010년 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②	2020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84.8	83.4	79.8	78.3	87.6	82.3	82.6	88.3	86.9	76.8	85.0	8.2	0.2
중국	10.0	11.3	12.0	9.8	7.3	9.7	11.8	8.2	5.9	12.0	9.5	-2.5	-0.5
일본	2.8	3.5	6.2	9.5	3.1	6.0	3.7	1.8	4.3	8.7	4.5	-4.2	1.7
러시아	0.8	0.5	2.0	1.9	0.3	1.8	1.5	1.0	1.7	2.3	0.6	-1.7	-0.2
기타	1.8	1.3	-	0.5	1.8	0.2	0.5	0.8	1.3	0.3	0.4	0.1	-1.4

7)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Q. 귀하는 다음 사항에(경제적 측면) 대해 어느 나라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7.0%p 감소함
- 중국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10.2%p 증가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2010년 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②	2020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53.8	54.7	47.6	49.3	45.8	35.8	38.5	48.3	56.8	49.6	46.8	-2.8	-7.0
중국	36.3	37.8	40.3	35.8	47.0	49.9	51.0	43.3	32.5	29.0	39.2	10.2	2.9
일본	7.7	5.1	8.8	8.9	4.6	10.9	8.1	6.1	7.4	17.6	11.3	-6.4	3.6
러시아	0.7	1.4	3.3	-4.3	1.8	2.6	1.8	1.6	1.9	3.2	1.8	-1.4	1.1
기타	1.7	1.1	-	1.7	0.8	0.8	0.6	0.8	1.4	0.7	0.9	0.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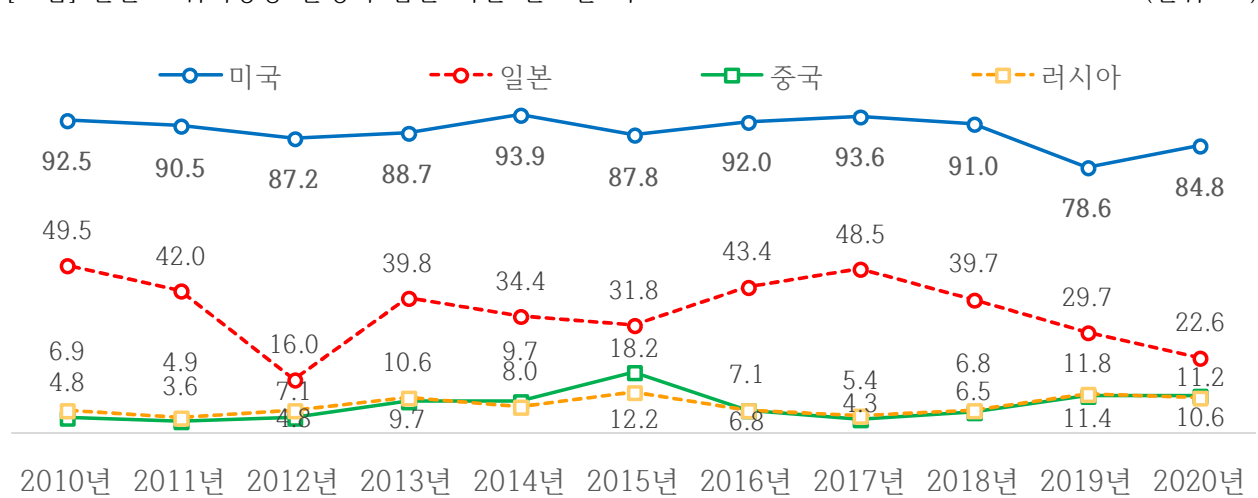
8) 한반도 위기상황(북한의 대남도발)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Q. 만약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시 미국이 남한을 지원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6.2%p 증가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7.8%p 감소함
- 일본이 남한을 지원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7.1%p 감소,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26.9%p 감소함

[그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남한 지원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의 태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④	북한 지원 ⑤	GAP (④-⑤)
2020년 ①	24.3	60.4	14.3	0.8	0.1	84.8	0.9	83.8
2019년 ②	28.5	50.1	18.3	2.9	0.2	78.6	3.1	75.5
GAP(①-②)	-4.2	10.3	-4.0	-2.1	-0.1	6.2	-2.2	-
2018년	42.0	49.0	8.1	0.7	0.3	91.0	0.9	90.1
2017년	49.7	43.9	5.3	1.1	0.1	93.6	1.2	92.4
2016년	48.7	43.3	7.0	1.0	-	92.0	1.0	91.0
2015년	38.1	49.7	10.9	1.1	0.2	87.8	1.3	86.5
2014년	49.5	44.4	6.0	0.1	0.0	93.9	0.1	93.8
2013년	74.3	41.3	9.5	1.8	0.1	88.7	1.8	86.9
2012년	46.0	41.2	11.0	1.9	0.0	87.2	1.8	85.4
2011년	41.3	49.2	8.1	1.3	0.3	90.5	1.6	88.9
2010년 ③	52.0	40.5	6.9	0.5	0.1	92.5	0.6	91.9
GAP(①-③)	-27.7	19.9	7.4	0.3	0.0	-7.8	0.3	-

IV. 부록

[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④	북한 지원 ⑤	GAP (④-⑤)
2020년 ①	1.6	21.0	62.4	14.3	0.7	22.6	15.0	7.6
2019년 ②	4.6	25.1	49.9	15.9	4.5	29.7	20.4	9.3
GAP(①-②)	-3.0	-4.1	12.5	-1.6	-3.8	-7.1	-5.4	-
2018년	6.1	33.6	52.8	6.7	0.9	39.7	7.6	32.1
2017년	5.3	43.3	47.8	3.3	0.4	48.5	3.5	45.0
2016년	5.9	37.5	51.0	5.3	0.3	43.4	5.6	37.8
2015년	2.8	29.0	57.4	10.3	0.5	31.8	10.8	21.0
2014년	3.2	31.2	57.8	6.5	1.3	34.4	7.8	26.6
2013년	7.3	32.5	52.1	7.3	0.8	39.8	8.1	31.7
2012년	4.3	31.7	55.0	8.5	0.5	16.0	9.0	7.0
2011년	6.7	35.3	50.8	6.5	0.8	42.0	7.3	34.7
2010년 ③	6.3	43.2	46.5	3.7	0.3	49.5	4.0	45.5
GAP(①-③)	-4.7	-22.2	15.9	10.6	0.4	-26.9	11.0	-

[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의 태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④	북한 지원 ⑤	GAP (④-⑤)
2020년 ①	1.4	9.8	29.8	43.2	15.8	11.2	59.0	-47.8
2019년 ②	0.8	10.6	31.3	43.3	14.0	11.4	57.3	-45.9
GAP(①-②)	0.6	-0.9	-1.5	-0.1	1.8	-0.2	1.7	-
2018년	1.4	5.1	21.7	52.7	19.2	6.5	71.8	-65.3
2017년	0.9	3.3	25.9	58.3	11.5	4.3	69.8	-65.5
2016년	1.1	6.0	38.3	43.0	11.7	7.1	54.7	-47.6
2015년	0.6	17.6	42.4	32.9	6.5	18.2	39.4	-21.2
2014년	1.1	10.2	45.3	39.4	4.0	9.7	43.4	-33.7
2013년	1.3	8.4	45.3	37.4	7.6	9.7	45.0	-35.3
2012년	0.8	3.9	28.7	48.3	18.3	4.8	66.6	-61.8
2011년	0.6	3.0	29.4	51.1	15.9	3.6	67.0	-63.4
2010년 ③	0.8	4.0	30.6	42.4	22.2	4.8	64.6	-59.8
GAP(①-③)	0.6	5.8	-0.8	0.8	-6.4	6.4	-5.6	-

[표]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의 태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남한 지원 ④	북한 지원 ⑤	GAP (④-⑤)
2020년 ①	1.3	9.3	42.1	38.9	8.4	10.6	47.3	-36.8
2019년 ②	1.0	10.8	38.1	41.4	8.8	11.8	50.2	-38.4
GAP(①-②)	0.3	-1.5	4.0	-2.5	-0.4	-1.2	-2.9	-
2018년	1.5	5.3	37.3	45.8	10.1	6.8	55.8	-49.0
2017년	0.8	4.6	40.0	47.5	7.1	5.4	54.6	-49.2
2016년	1.5	5.3	38.8	49.2	5.3	6.8	54.4	-47.6
2015년	0.7	11.5	43.0	37.5	7.3	12.2	44.8	-32.6
2014년	0.8	7.2	49.2	38.0	4.8	8.0	42.8	-34.8
2013년	1.7	8.9	54.0	30.5	4.9	10.6	35.4	-24.8
2012년	1.6	5.5	44.6	37.8	10.5	7.1	48.3	-41.2
2011년	0.8	4.1	42.8	45.1	7.3	4.9	52.4	-47.5
2010년 ③	1.4	5.5	40.8	42.1	10.3	6.9	52.4	-45.5
GAP(①-③)	-0.2	3.8	1.3	-3.2	-1.9	3.7	-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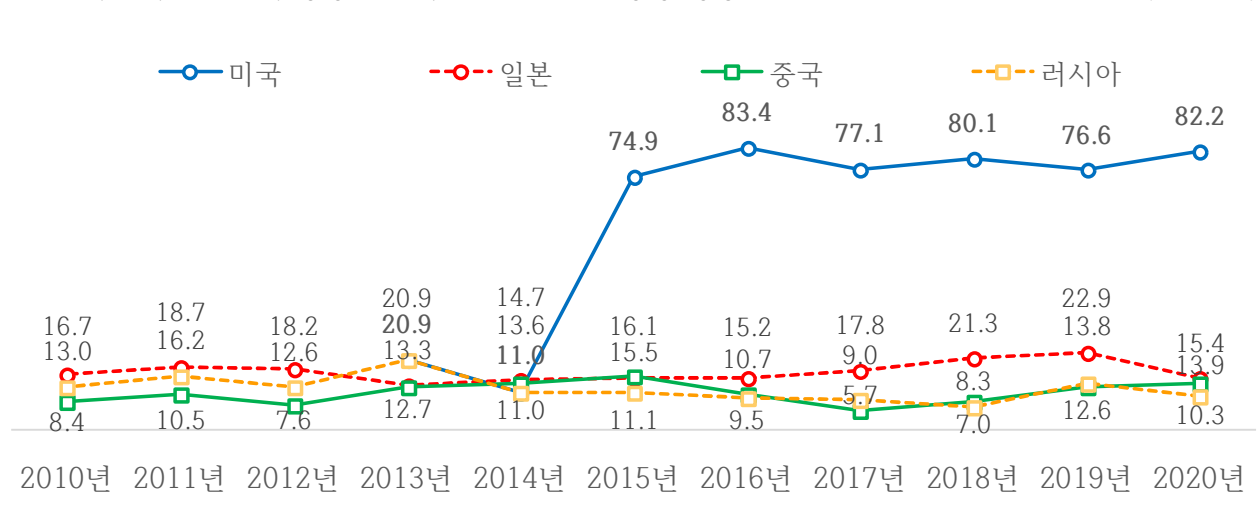
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Q.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6%p 증가함
- 일본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7.5%p 감소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1.3%p 차)

[그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긍정 영향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p)

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④	부정 ⑤	GAP (④-⑤)
2020년 ①	15.1	67.1	14.4	3.4	0.0	82.2	3.4	78.8
2019년 ②	16.2	60.4	17.0	6.3	0.1	76.6	6.4	70.2
GAP(①-②)	-1.1	6.7	-2.6	-2.9	-0.1	5.6	-3.0	-
2018년	26.6	53.5	13.9	5.0	1.0	80.1	6.0	74.1
2017년	28.0	49.1	17.2	5.3	0.4	77.1	5.8	71.3
2016년	23.3	60.2	11.5	4.5	0.6	83.4	11.5	71.9
2015년	21.3	53.6	19.3	5.5	0.3	74.9	5.8	69.1
2014년	1.3	9.7	51.6	32.4	5.0	11.0	37.4	-26.4
2013년	4.6	16.3	44.2	29.9	5.0	20.9	34.9	-

* 미국의 경우, 2013년도 이전에는 조사하지 않음

[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p)

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④	부정 ⑤	GAP (④-⑤)
2020년 ①	0.8	14.7	45.5	32.0	7.1	15.4	39.1	-23.7
2019년 ②	3.9	19.0	31.2	35.6	10.3	22.9	45.9	-23.0
GAP(①-②)	-3.2	-4.3	14.3	-3.6	-3.2	-7.5	-6.8	-
2018년	2.8	18.5	36.7	30.3	11.8	21.3	42.0	-20.7
2017년	1.3	16.5	41.3	32.9	8.0	17.8	40.9	-23.1
2016년	2.1	13.1	46.2	32.6	6.1	15.2	38.7	-23.5
2015년	1.4	14.1	48.5	30.0	6.0	15.5	36.0	-20.5
2014년	2.2	12.5	33.9	38.6	12.8	14.7	51.4	-36.7
2013년	1.3	12.0	38.4	33.5	14.8	13.3	48.3	-35.0
2012년	2.0	16.2	39.7	31.8	10.1	18.2	41.9	-23.7
2011년	2.3	16.4	36.4	32.5	12.3	18.7	44.8	-26.1
2010년 ③	2.2	14.5	30.3	39.8	13.2	16.7	53.0	-36.3
GAP(①-③)	-1.5	0.2	15.2	-7.8	-6.1	-1.3	-13.9	-

[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p)

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④	부정 ⑤	GAP (④-⑤)
2020년 ①	0.8	13.1	30.9	41.1	14.1	13.9	55.2	-41.3
2019년 ②	0.9	11.7	32.3	41.5	13.6	12.6	55.1	-42.5
GAP(①-②)	-0.1	1.4	-1.4	-0.4	0.5	1.3	0.1	-
2018년	1.7	6.6	20.5	51.2	20.1	8.3	71.3	-63.0
2017년	1.3	4.3	27.8	51.8	14.8	5.7	66.6	-60.9
2016년	1.6	9.1	32.1	45.2	12.1	10.7	57.3	-46.6
2015년	1.3	14.8	37.1	38.7	8.1	16.1	46.8	-30.7
2014년	1.3	12.3	33.1	43.5	9.8	13.6	53.3	-39.7
2013년	2.1	10.6	38.2	37.4	11.7	12.7	49.1	-36.4
2012년	1.3	6.3	28.5	44.6	19.3	7.6	63.9	-56.3
2011년	1.6	8.9	24.2	45.8	19.3	10.5	65.1	-54.6
2010년 ③	2.1	6.3	24.2	41.9	25.6	8.4	67.5	-59.1
GAP(①-③)	-1.3	6.8	6.7	-0.8	-11.5	5.5	-12.3	-

[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p)

구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긍정 ④	부정 ⑤	GAP (④-⑤)
2020년 ①	1.5	8.8	42.0	40.0	7.7	10.3	47.7	-37.3
2019년 ②	1.2	12.6	40.4	36.6	9.3	13.8	45.8	-32.0
GAP(①-②)	0.3	-3.8	1.6	3.4	-1.6	-3.5	1.9	-
2018년	1.7	5.3	34.4	43.8	14.8	7.0	58.6	-51.6
2017년	1.9	7.1	47.7	37.4	5.9	9.0	43.3	-34.3
2016년	1.3	8.3	49.5	38.0	3.0	9.5	41.0	-31.5
2015년	0.8	10.3	44.9	37.2	6.8	11.1	44.0	-32.9
2014년	1.3	9.7	51.6	32.4	5.0	11.0	37.4	-26.4
2013년	4.6	16.3	44.2	29.9	5.0	20.9	34.9	-14.0
2012년	2.0	10.6	38.8	40.6	8.0	12.6	48.6	-36.0
2011년	1.8	14.4	38.6	39.8	5.3	16.2	45.1	-28.9
2010년 ③	2.0	11.0	34.1	44.7	8.3	13.0	53.0	-40.0
GAP(①-③)	-0.5	-2.2	7.9	-4.7	-0.6	-2.7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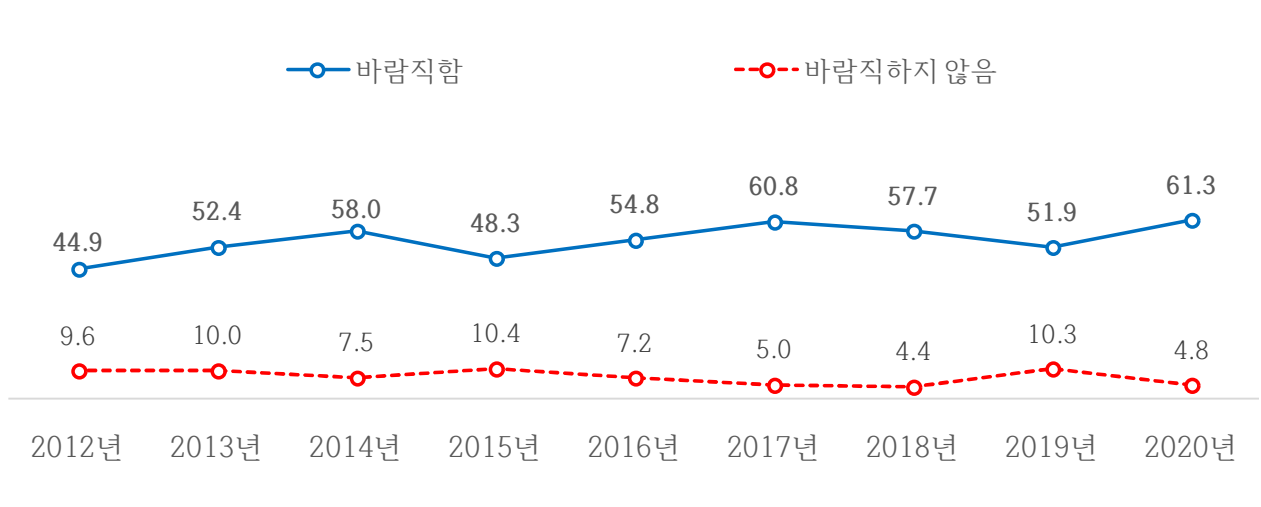
10)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Q. 귀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일 군사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9.4%p 증가하였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5.6%p 감소함

[그림]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한·미·일간 3개국의 군사협력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보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함 ④	바람직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0년 ①	3.3	58.1	33.9	4.7	0.1	61.3	4.8	56.6
2019년 ②	7.2	44.8	37.8	10.0	0.3	51.9	10.3	41.6
GAP(①-②)	-4.0	13.3	-3.9	-5.3	-0.2	9.4	-5.6	-
2018년	11.4	46.3	37.9	3.7	0.8	57.7	4.4	53.3
2017년	12.0	48.8	34.2	4.6	0.4	60.8	5.0	55.8
2016년	8.8	46.0	38.0	6.4	0.8	54.8	7.2	47.6
2015년	5.7	42.6	41.3	10.1	0.3	48.3	10.4	37.9
2014년	10.3	47.7	34.5	7.0	0.5	58.0	7.5	50.5
2013년	7.6	44.8	37.6	8.7	1.3	52.4	10.0	42.4
2012년	9.2	35.7	45.5	8.8	0.8	44.9	9.6	-

* 2012년도 이전에는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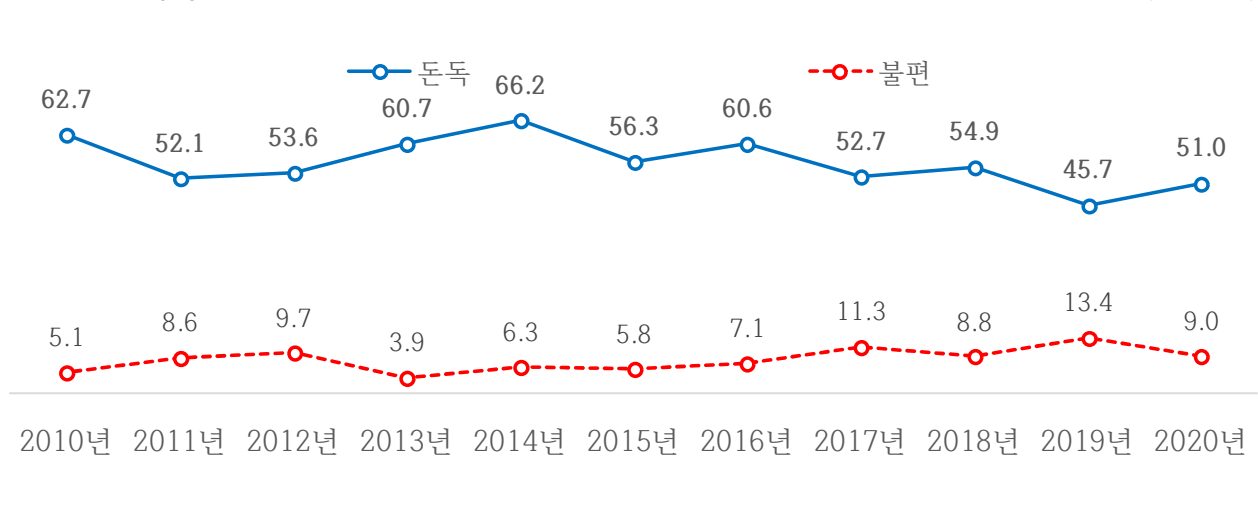
11) 한·미동맹 관계

Q.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3%p 증가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p 감소함
- 불편하다는 응답은 2019년도 대비 4.4%p 감소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3.9%p)

[그림] 한·미동맹 관계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한·미동맹 관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돈독하다	돈독한 편이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돈독 ④	불편 ⑤	GAP (④-⑤)
2020년 ①	3.2	47.8	40.0	8.7	0.3	51.0	9.0	42.0
2019년 ②	2.3	43.4	40.9	11.8	1.6	45.7	13.4	32.3
GAP(①-②)	0.9	4.4	-0.9	-3.1	-1.3	5.3	-4.4	-
2018년	6.1	48.8	36.3	8.5	0.3	54.9	8.8	46.1
2017년	4.3	48.3	36.0	11.1	0.3	52.6	11.4	41.2
2016년	7.1	53.5	32.3	6.7	0.4	60.6	7.1	53.5
2015년	4.2	52.1	37.9	5.5	0.3	56.3	5.8	50.5
2014년	9.1	57.1	27.5	5.8	0.5	66.2	6.3	59.9
2013년	5.6	55.1	35.4	3.4	0.5	60.7	3.9	56.8
2012년	7.2	46.4	36.7	9.1	0.6	53.6	9.7	43.9
2011년	4.8	47.3	39.3	8.0	0.6	52.1	8.6	43.5
2010년 ③	5.3	57.4	32.3	4.7	0.4	62.7	5.1	57.6
GAP(①-③)	-2.1	-9.6	7.7	4.0	-0.1	-11.7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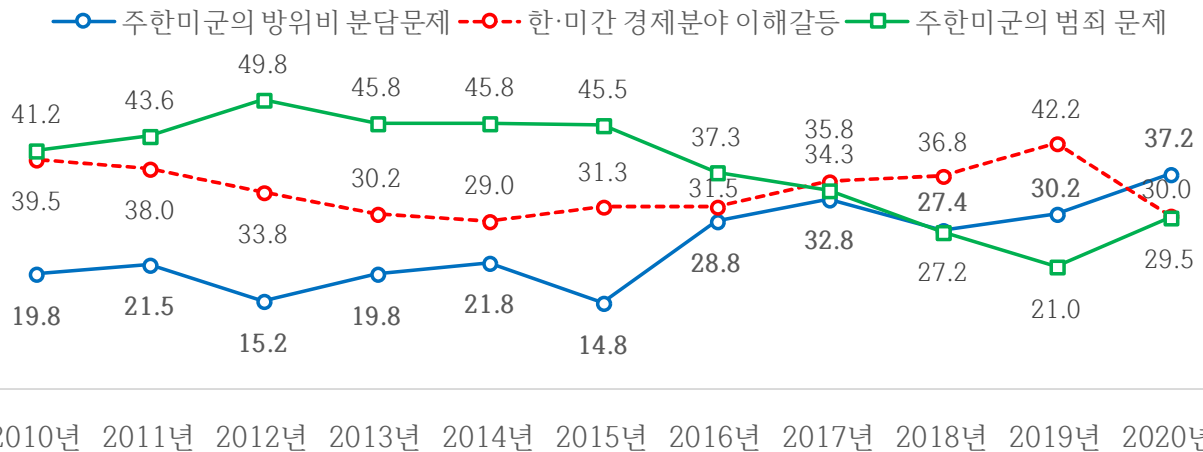
12)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Q.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한·미동맹 관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응답한 경우는 2019년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7.4%p 증가함
-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12.2%p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9.5%p 감소함

[그림] 한·미동맹 관계 저해 요인 연도별 비교(1+2순위 기준, 상위 3개 응답 제시)

(단위: %)



[표] 한·미동맹 관계 저해 요인 연도별 비교(1+2순위 기준)

(단위: %, %p)

구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기타
2020년 ①	37.2	30.0	29.5	26.5	21.4	20.9	17.5	17.0	0.0
2019년 ②	30.2	42.2	21.0	31.2	14.7	22.2	19.9	18.5	0.3
GAP(①-②)	7.0	-12.2	8.5	-4.7	6.7	-1.3	-2.4	-1.5	-0.3
2018년	27.4	36.8	27.2	31.7	18.0	22.8	12.3	22.8	0.8
2017년	32.8	35.8	34.3	27.3	12.8	23.1	10.8	21.9	1.3
2016년	28.8	31.5	37.3	28.0	15.0	23.7	12.8	22.5	0.2
2015년	14.8	31.3	45.5	31.5	10.9	24.4	10.4	31.2	0.0
2014년	21.8	29.0	45.8	34.2	13.8	24.0	13.7	17.5	0.2
2013년	19.8	30.2	45.8	29.8	9.6	25.0	14.1	25.5	0.1
2012년	15.2	33.8	49.8	32.3	11.2	23.8	12.7	20.1	0.6
2011년	21.5	38.0	43.6	32.9	-	26.7	14.3	21.4	-
2010년 ③	19.8	39.5	41.2	40.3	-	19.5	16.7	21.2	-
GAP(①-③)	17.4	-9.5	-11.7	-13.8	-	1.4	0.8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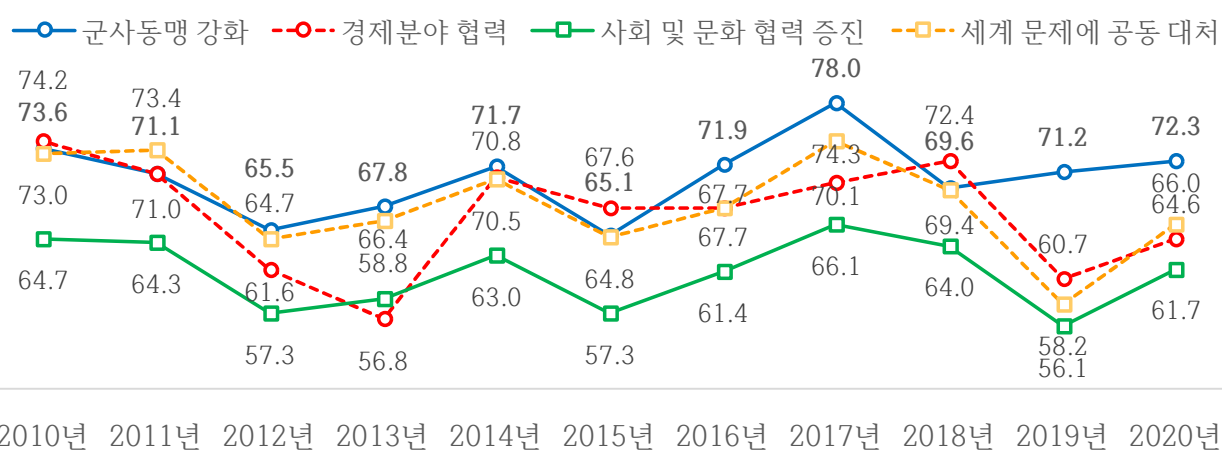
13)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Q.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다른 4개 분야 대비 가장 높지만 시계열적으로 2019년도와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모두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음
- 반면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7.8%p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7.0%p 증가함

[그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분야별 찬성 의견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연도별 비교 - 군사동맹 강화

(단위: %, %p)

구분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0년 ①	11.1	61.2	24.6	3.2	0.0	72.3	3.2	69.1
2019년 ②	14.3	56.9	22.3	6.2	0.3	71.2	6.5	64.7
GAP(①-②)	-3.2	4.3	2.3	-3.0	-0.3	1.1	-3.3	-
2018년	17.3	52.3	25.3	4.6	0.6	69.6	5.2	64.4
2017년	24.3	53.7	17.8	4.1	0.2	78.0	4.3	73.7
2016년	18.3	53.6	21.8	6.1	0.3	71.9	6.4	65.5
2015년	15.8	49.3	26.3	7.3	1.3	65.1	8.6	56.5
2014년	20.2	51.5	22.4	5.6	0.3	71.7	5.9	65.8
2013년	16.3	51.5	26.9	5.0	0.3	67.8	5.3	62.5
2012년	19.8	45.7	27.6	6.6	0.3	65.5	6.9	58.6
2011년	20.4	50.7	23.8	4.8	0.3	71.1	5.1	66.0
2010년 ③	23.1	50.5	21.2	5.2	0.1	73.6	5.3	68.3
GAP(①-③)	-12.0	10.7	3.4	-2.0	-0.1	-1.3	-2.1	-

[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연도별 비교 - 경제분야 협력 강화

(단위: %, %p)

구분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0년 ①	17.4	47.2	30.1	5.3	0.1	64.6	5.3	59.3
2019년 ②	17.9	42.8	31.7	6.9	0.7	60.7	7.6	53.1
GAP(①-②)	-0.5	4.4	-1.6	-1.7	-0.6	3.9	-2.3	-
2018년	20.0	52.4	24.9	2.3	0.3	72.4	2.6	69.8
2017년	24.8	45.3	25.4	4.5	0.1	70.1	4.6	65.5
2016년	19.3	48.4	27.6	4.1	0.7	67.7	4.8	62.9
2015년	16.4	51.2	25.7	5.1	1.6	67.6	6.7	60.9
2014년	20.8	50.0	26.6	2.1	0.5	70.8	2.6	68.2
2013년	17.8	39.0	33.8	8.3	1.1	56.8	9.4	47.4
2012년	16.8	44.8	30.6	7.1	0.7	61.6	7.8	53.8
2011년	22.5	48.5	25.3	3.3	0.4	71.0	3.7	67.3
2010년 ③	25.4	48.8	21.1	4.4	0.3	74.2	4.7	69.5
GAP(①-③)	-8.0	-1.6	9.0	0.9	-0.2	-9.6	0.6	-

[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연도별 비교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단위: %, %p)

구분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0년 ①	12.3	49.4	31.4	6.8	0.0	61.7	6.8	54.9
2019년 ②	13.0	43.1	35.9	7.6	0.4	56.1	8.0	48.1
GAP(①-②)	-0.7	6.3	-4.5	-0.8	-0.4	5.6	-1.2	-
2018년	14.7	49.3	31.3	3.8	1.0	64.0	4.8	59.2
2017년	20.8	45.3	28.1	5.4	0.3	66.1	5.7	60.4
2016년	18.1	43.3	31.9	6.3	0.5	61.4	6.8	54.6
2015년	10.2	47.1	36.2	5.2	1.3	57.3	6.5	50.8
2014년	14.8	48.2	33.2	3.6	0.2	63.0	3.8	59.2
2013년	14.9	43.9	32.4	7.9	0.9	58.8	8.8	50.0
2012년	13.4	43.9	32.5	9.0	1.2	57.3	10.2	47.1
2011년	20.5	43.8	31.4	3.8	0.4	64.3	4.2	60.1
2010년 ③	17.6	47.1	31.4	3.8	0.1	64.7	3.9	60.8
GAP(①-③)	-5.3	2.3	0.0	3.0	-0.1	-3.0	2.9	-

[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연도별 비교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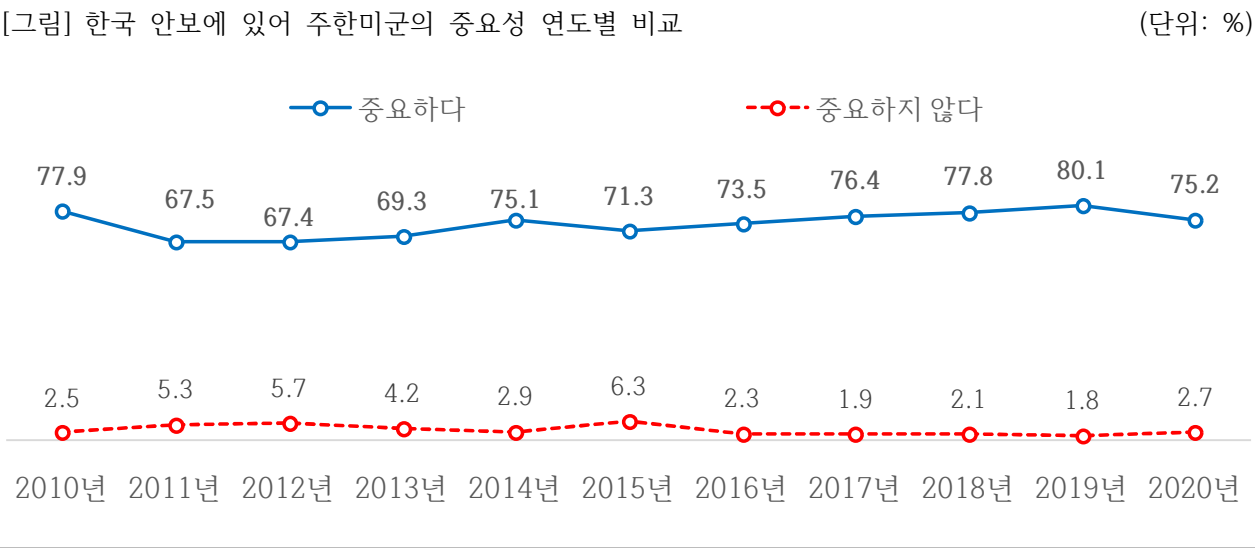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0년 ①	15.4	50.6	29.0	5.0	0.0	66.0	5.0	61.0
2019년 ②	12.4	45.8	34.1	7.5	0.3	58.2	7.8	50.4
GAP(①-②)	3.0	4.8	-5.1	-2.5	-0.3	7.8	-2.8	-
2018년	18.5	50.9	26.0	4.2	0.4	69.4	4.6	64.8
2017년	24.7	49.6	20.2	5.2	0.4	74.3	5.6	68.7
2016년	21.4	46.3	25.5	6.3	0.4	67.7	6.7	61.0
2015년	18.3	46.5	28.2	6.0	1.0	64.8	7.0	57.8
2014년	21.3	49.2	26.3	2.8	0.4	70.5	3.2	67.3
2013년	19.3	47.1	26.5	6.2	0.9	66.4	7.1	59.3
2012년	18.8	45.9	28.3	5.5	1.5	64.7	7.0	57.7
2011년	26.7	46.7	23.6	2.7	0.3	73.4	3.0	70.4
2010년 ③	28.7	44.3	23.5	3.3	0.2	73.0	3.5	69.5
GAP(①-③)	-13.3	6.3	5.5	1.7	-0.2	-7.0	1.5	-

14)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Q. 귀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있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과 비교시 4.9%p 감소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2.7%p 차)
-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 2019년 대비 0.9%p, 2010년 대비 0.2%p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한국 안보에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중요	중요한 편	보통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GAP (④-⑤)
2020년 ①	13.3	61.9	22.2	2.7	0.0	75.2	2.7	72.5
2019년 ②	17.0	63.1	18.1	1.8	0.0	80.1	1.8	78.3
GAP(①-②)	-3.7	-1.2	4.1	0.9	0.0	-4.9	0.9	-
2018년	25.5	52.3	20.1	1.8	0.3	77.8	2.1	75.7
2017년	20.2	56.3	21.7	1.8	0.1	76.4	1.9	74.5
2016년	16.5	57.0	24.3	2.1	0.2	73.5	2.3	71.2
2015년	14.6	56.7	22.4	6.0	0.3	71.3	6.3	65.0
2014년	16.8	58.3	22.0	2.6	0.3	75.1	2.9	72.2
2013년	16.6	52.7	26.5	3.9	0.3	69.3	4.2	65.1
2012년	19.0	48.4	26.9	5.4	0.3	67.4	5.7	61.7
2011년	18.8	48.7	27.2	4.8	0.5	67.5	5.3	62.2
2010년 ③	17.8	60.1	19.6	2.2	0.3	77.9	2.5	75.4
GAP(①-③)	-4.5	1.8	2.6	0.5	-0.3	-2.7	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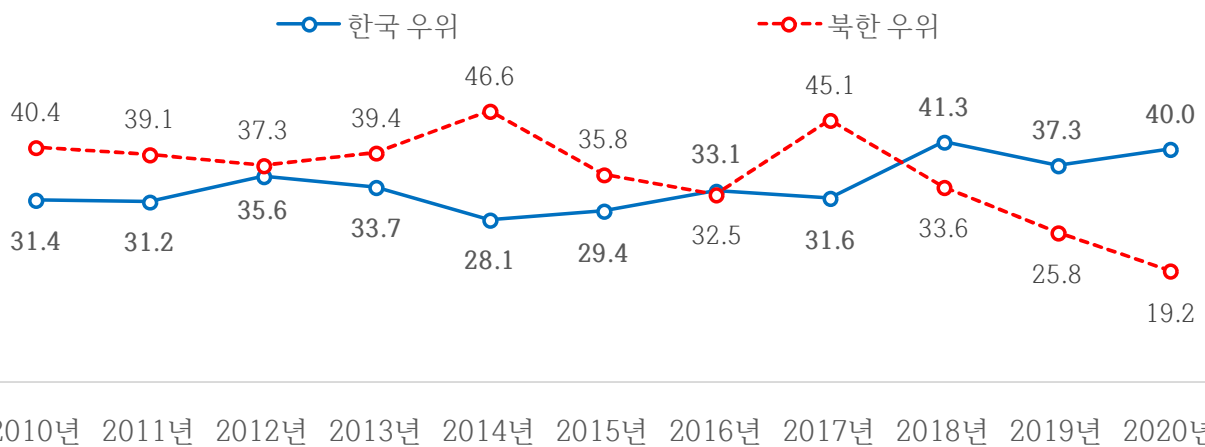
15) 주한미군 제외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Q.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 제외,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시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2.7%p 차),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8.6%p 증가함
- 반면 북한이 우위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6.6%p 감소하였고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21.2%p 감소하였음

[그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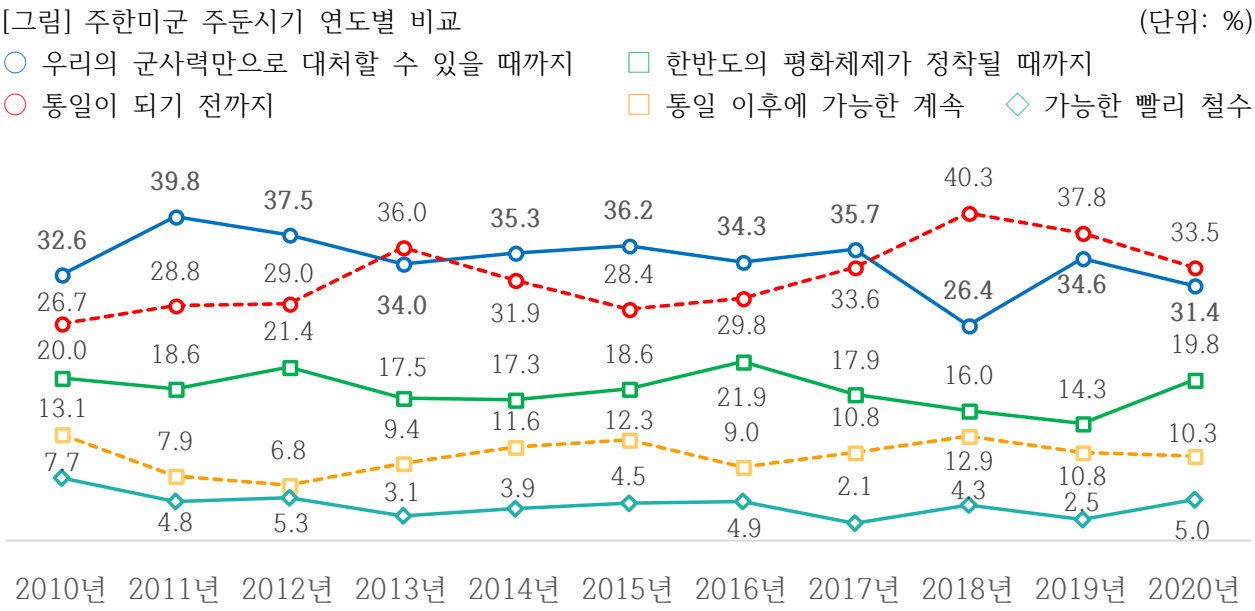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한국 우위 ④	북한 우위 ⑤	GAP (④-⑤)
2020년 ①	4.7	35.3	40.8	17.2	2.0	40.0	19.2	20.8
2019년 ②	3.8	33.5	37.0	20.3	5.4	37.3	25.8	11.5
GAP(①-②)	0.9	1.8	3.8	-3.1	-3.4	2.7	-6.6	-
2018년	14.7	26.7	25.1	27.1	6.5	41.3	33.6	7.7
2017년	7.3	24.3	23.3	34.7	10.4	31.6	45.1	-13.5
2016년	7.8	25.3	34.4	26.0	6.5	33.1	32.5	0.6
2015년	4.2	25.2	34.8	29.1	6.7	29.4	35.8	-6.4
2014년	4.9	23.2	25.3	38.8	7.8	28.1	46.6	-18.5
2013년	6.6	27.1	26.9	31.9	7.5	33.7	39.4	-5.7
2012년	7.9	27.7	27.1	32.7	4.6	35.6	37.3	-1.7
2011년	6.8	24.4	29.7	32.8	6.3	31.2	39.1	-7.9
2010년 ③	7.1	24.3	28.3	31.8	8.6	31.4	40.4	-9.0
GAP(①-③)	-2.4	11.0	12.5	-14.6	-6.6	8.6	-21.2	-

16) 주한미군 주둔시기

Q.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 주둔 시기와 관련해서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4.3%p 감소한 반면 2010년과 비교시 6.8%p 증가함
-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3.2%p 감소, 2010년과 대비 1.2%p 감소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들은 아님



[표] 주한미군 주둔시기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2020년 ①	31.4	33.5	19.8	10.3	5.0
2019년 ②	34.6	37.8	14.3	10.8	2.5
GAP(①-②)	-3.2	-4.3	5.5	-0.5	2.5
2018년	26.4	40.3	16.0	12.9	4.3
2017년	35.7	33.6	17.9	10.8	2.1
2016년	34.3	29.8	21.9	9.0	4.9
2015년	36.2	28.4	18.6	12.3	4.5
2014년	35.3	31.9	17.3	11.6	3.9
2013년	34.0	36.0	17.5	9.4	3.1
2012년	37.5	29.0	21.4	6.8	5.3
2011년	39.8	28.8	18.6	7.9	4.8
2010년 ③	32.6	26.7	20.0	13.1	7.7
GAP(①-③)	-1.2	6.8	-0.3	-2.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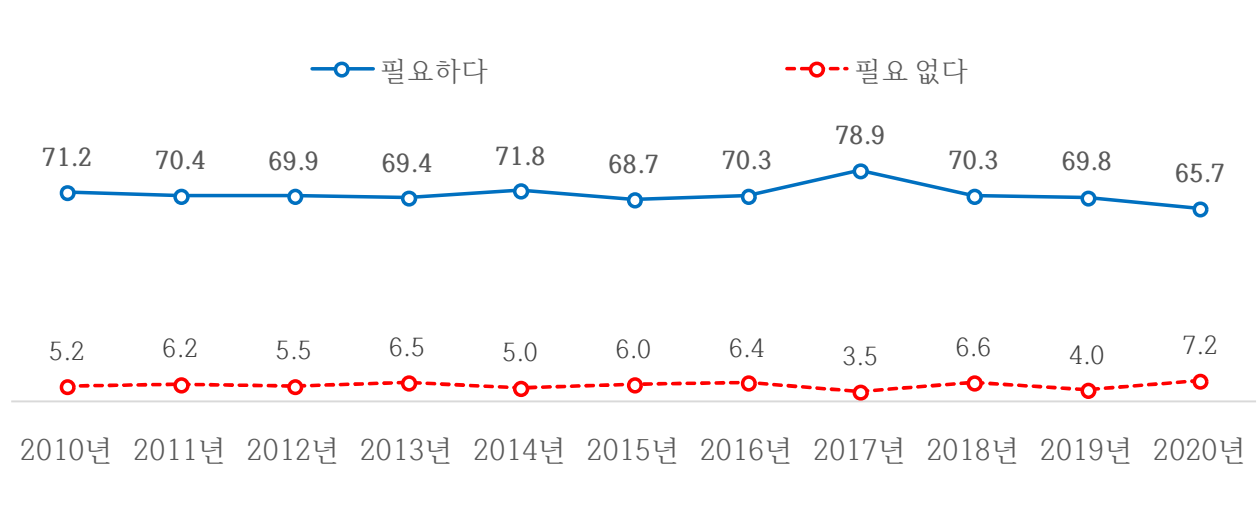
17)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Q. 귀하는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4.0%p, 2010년 대비 5.5%p 감소함
- 필요없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3.2%p, 2010년 2.0%p 차로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필요하다 ④	필요 없다 ⑤	GAP (④-⑤)
2020년 ①	8.2	57.5	27.2	7.0	0.2	65.7	7.2	58.5
2019년 ②	10.8	58.9	26.3	3.4	0.6	69.8	4.0	65.8
GAP(①-②)	-2.6	-1.4	0.9	3.6	-0.4	-4.0	3.2	-
2018년	16.3	54.0	23.2	5.8	0.8	70.3	6.6	63.7
2017년	20.4	58.5	17.6	3.2	0.3	78.9	3.5	75.4
2016년	15.0	55.3	23.3	5.9	0.5	70.3	6.4	63.9
2015년	14.1	54.6	25.3	5.5	0.5	68.7	6.0	62.7
2014년	19.6	52.2	23.2	4.7	0.3	71.8	5.0	66.8
2013년	14.0	55.4	24.1	5.8	0.7	69.4	6.5	62.9
2012년	19.0	50.9	24.6	5.0	0.5	69.9	5.5	64.4
2011년	17.7	52.7	23.4	5.5	0.7	70.4	6.2	64.2
2010년 ③	17.4	53.8	23.7	4.1	1.1	71.2	5.2	66.0
GAP(①-③)	-9.2	3.7	3.5	2.9	-0.9	-5.5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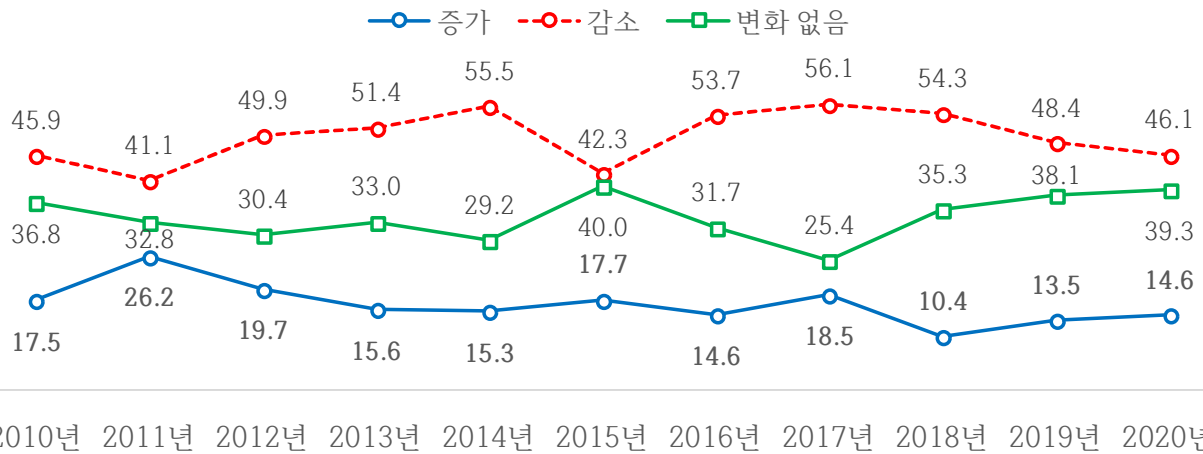
18)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Q. 귀하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우리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2.4%p 차, 2010년도와 비교 시 0.2%p 차)
-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2019년도와 1.0%p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주한미군 감축시 대북 전쟁억제 능력의 변화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크게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가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크게 증가할 것	증가 ④	감소 ⑤	GAP (④-⑤)
2020년 ①	7.1	39.0	39.3	13.8	0.8	46.1	14.6	31.5
2019년 ②	7.7	40.8	38.1	11.3	2.3	48.4	13.5	34.9
GAP(①-②)	-0.6	-1.8	1.2	2.5	-1.6	-2.4	1.0	-
2018년	13.8	40.5	35.3	9.3	1.1	54.3	10.4	43.9
2017년	15.3	40.8	25.4	15.8	2.8	56.1	18.5	37.6
2016년	11.8	41.9	31.7	13.2	1.4	53.7	14.6	39.1
2015년	9.5	32.8	40.0	16.0	1.7	42.3	17.7	24.6
2014년	12.9	42.6	29.2	13.8	1.5	55.5	15.3	40.2
2013년	11.3	40.1	33.0	13.8	1.8	51.4	15.6	35.8
2012년	11.4	38.5	30.4	17.3	2.4	49.9	19.7	30.2
2011년	10.2	30.9	32.8	21.9	4.3	41.1	26.2	14.9
2010년 ③	11.3	34.6	36.8	14.7	2.8	45.9	17.5	28.4
GAP(①-③)	-4.2	4.4	2.5	-0.9	-2.1	0.2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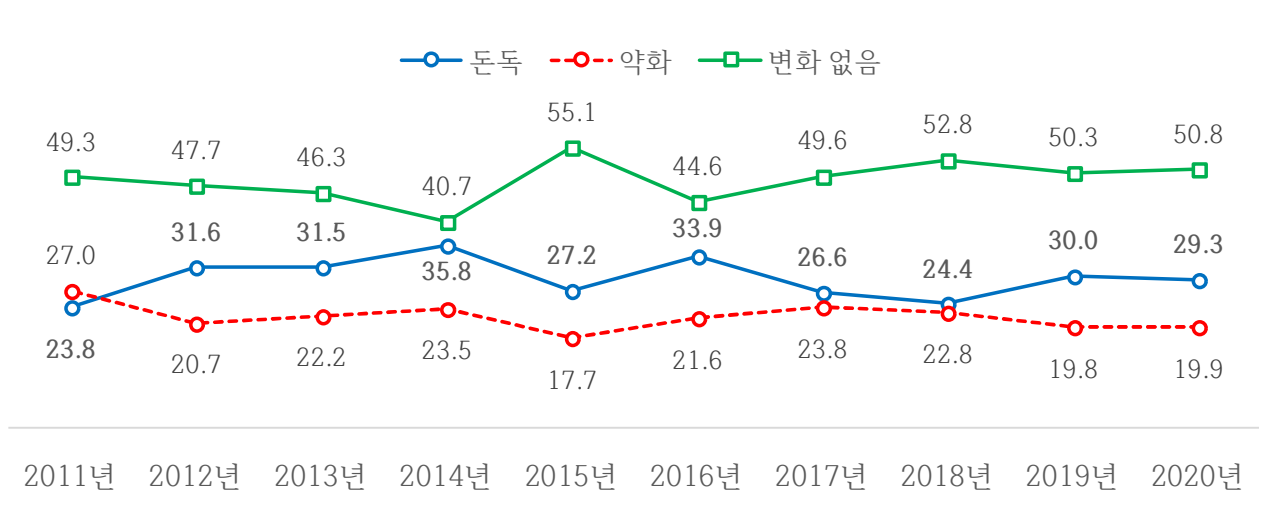
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Q. 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019년과 비교시 0.9%p 차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약화되었다는 응답도 2019년과 비교시 0.1%p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더욱 돈독해질 것	돈독해질 것	현재와 같은 것	약화될 것	더욱 약화될 것	돈독 ④	약화 ⑤	GAP (④-⑤)
2020년 ①	0.8	28.5	50.8	19.7	0.3	29.3	19.9	9.3
2019년 ②	2.3	27.8	50.3	17.7	2.1	30.1	19.8	10.3
GAP(①-②)	-1.6	0.7	0.5	2.0	-1.9	-0.9	0.1	-
2018년	4.0	20.4	52.8	20.3	2.5	24.4	22.8	1.6
2017년	2.6	24.0	49.6	22.8	1.1	26.6	23.9	2.7
2016년	5.2	28.7	44.6	20.3	1.3	33.9	21.6	12.3
2015년	3.1	24.1	55.1	16.1	1.6	27.2	17.7	9.5
2014년	5.3	30.5	40.7	22.7	0.8	35.8	23.5	12.3
2013년	3.7	27.8	46.3	20.3	1.9	31.5	22.2	9.3
2012년	4.2	27.4	47.7	19.4	1.3	31.6	20.7	10.9
2011년	3.1	20.8	49.3	26.5	0.6	23.8	27.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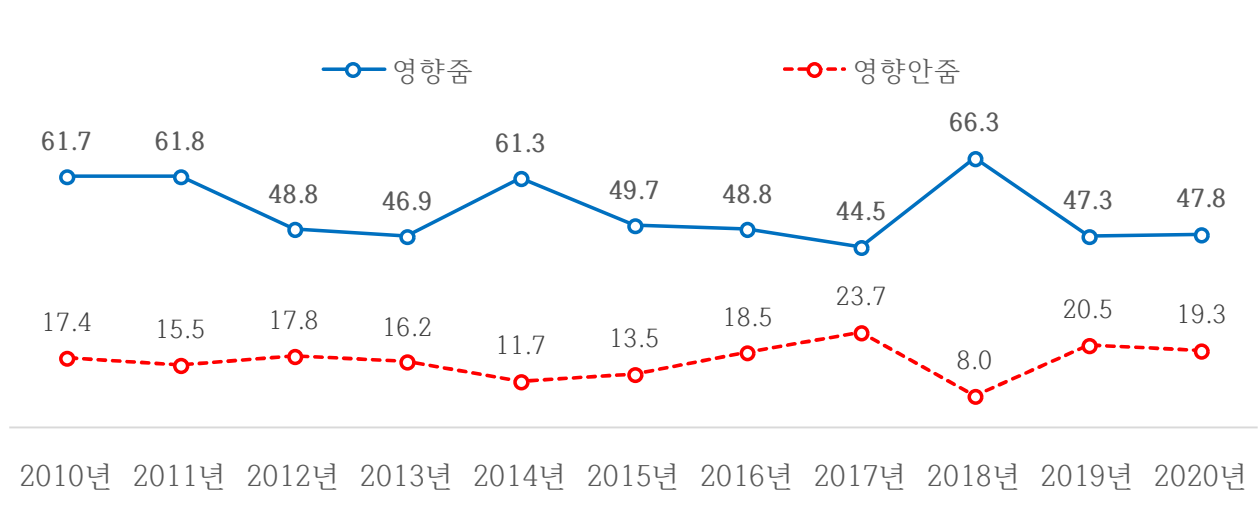
20)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Q.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0.3%p 차), 2010년 대비 14.0%p 감소함
-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9년, 2010년 대비 모두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많은 영향	어느 정도 영향	보통이다	거의 영향 안증	전혀 영향 안증	영향증 ④	영향안증 ⑤	GAP (④-⑤)
2020년 ①	2.8	44.9	33.0	16.3	2.9	47.8	19.3	28.5
2019년 ②	3.8	43.6	32.2	17.9	2.6	47.3	20.5	26.8
GAP(①-②)	-1.0	1.3	0.8	-1.6	0.3	0.3	-1.3	-
2018년	14.1	52.2	25.8	6.7	1.3	66.3	8.0	58.3
2017년	5.3	39.2	31.8	20.5	3.2	44.5	23.7	20.8
2016년	8.2	40.6	32.8	16.3	2.2	48.8	18.5	30.3
2015년	5.3	44.4	36.8	12.1	1.4	49.7	13.5	36.2
2014년	12.1	49.2	27.0	10.2	1.5	61.3	11.7	49.6
2013년	6.0	40.9	36.9	14.1	2.1	46.9	16.2	30.7
2012년	5.7	43.1	33.4	14.5	3.3	48.8	17.8	31.0
2011년	10.0	51.8	22.8	12.7	2.8	61.8	15.5	46.3
2010년 ③	9.4	52.3	20.9	12.9	4.5	61.7	17.4	44.3
GAP(①-③)	-6.6	-7.4	12.1	3.4	-1.6	-14.0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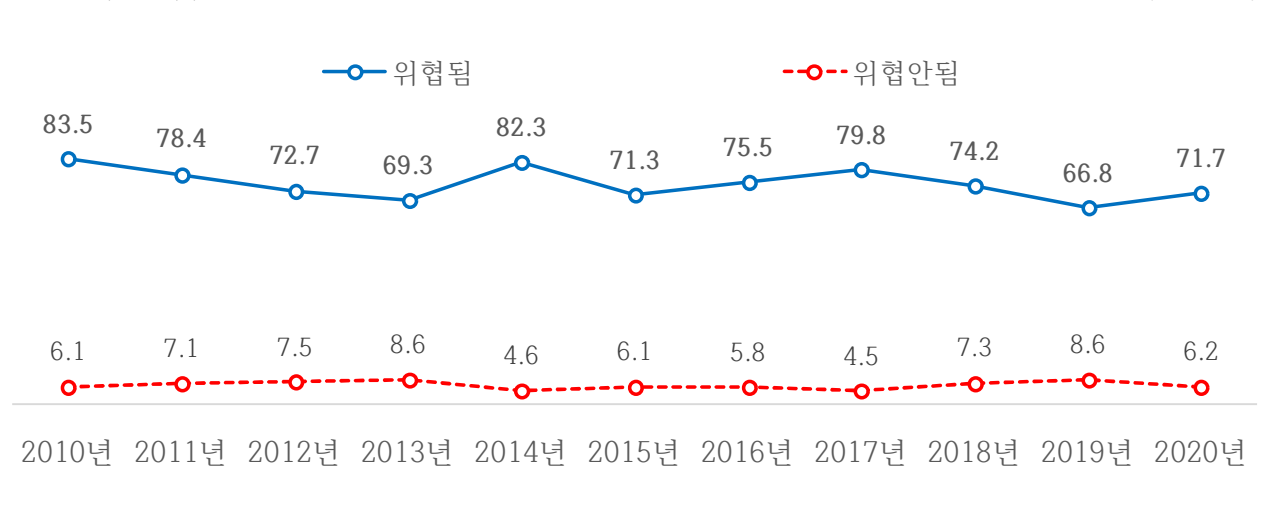
21)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Q.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0%p 증가하였지만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11.8%p 감소하였음
- 위협이 안 된다는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큰 위협	어느 정도 위협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 안됨	전혀 위협 안됨	위협됨 ④	위협안됨 ⑤	GAP (④-⑤)
2020년 ①	18.5	53.2	22.2	6.2	0.0	71.7	6.2	65.5
2019년 ②	21.3	45.4	24.7	8.2	0.4	66.8	8.6	58.2
GAP(①-②)	-2.8	7.8	-2.5	-2.0	-0.4	5.0	-2.4	-
2018년	29.9	44.3	18.6	6.5	0.8	74.2	7.3	66.9
2017년	38.9	40.9	15.7	4.3	0.3	79.8	4.5	75.3
2016년	30.4	45.1	18.7	5.3	0.5	75.5	5.8	69.7
2015년	25.8	45.5	22.6	5.8	0.3	71.3	6.1	65.2
2014년	39.6	42.7	13.1	4.2	0.4	82.3	4.6	77.7
2013년	25.5	43.8	22.1	7.7	0.9	69.3	8.6	60.7
2012년	30.5	42.2	19.8	6.8	0.7	72.7	7.5	65.2
2011년	38.7	39.7	14.5	6.3	0.8	78.4	7.1	71.3
2010년 ③	38.8	44.7	10.4	5	1.1	83.5	6.1	77.4
GAP(①-③)	-20.3	8.5	11.8	1.2	-1.1	-11.8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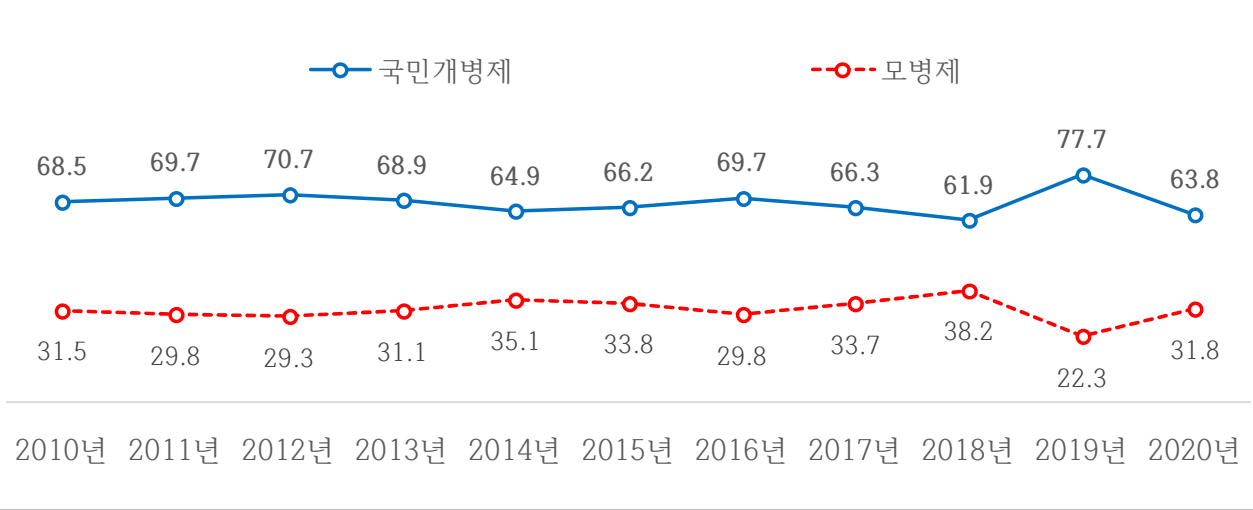
22)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Q. 귀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인 국민개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응답은 2019년 대비 13.9%p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시에는 4.7%p 감소함
- 모병제에 대한 응답은 2019년 대비 9.4%p 증가하였고 2010년과는 비슷한 수준임

[그림] 국민 개병제에 대한 생각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국민 개병제에 대한 생각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자켜져야 한다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살펴야 한다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20년 추가)	국민 개병제 ④	모병제 ⑤	GAP (④-⑤)
2020년 ①	22.1	41.8	25.8	6.0	4.3	63.8	31.8	32.0
2019년 ②	29.1	48.6	18.8	3.6	-	77.7	22.3	55.4
GAP(①-②)	-7.0	-6.9	7.0	2.4	-	-13.9	9.4	-
2018년	27.6	34.3	30.0	8.2	-	61.9	38.2	23.7
2017년	28.1	38.3	28.2	5.5	-	66.3	33.7	32.6
2016년	31.8	37.9	24.3	5.5	-	69.7	29.8	39.9
2015년	31.4	34.8	28.3	5.5	-	66.2	33.8	32.4
2014년	28.4	36.5	28.5	6.6	-	64.9	35.1	29.8
2013년	31.6	37.3	23.6	7.5	-	68.9	31.1	37.8
2012년	38.8	31.9	25.1	4.2	-	70.7	29.3	41.4
2011년	34.4	35.3	25.0	4.8	-	69.7	29.8	39.9
2010년 ③	36.9	31.6	24.9	6.6	-	68.5	31.5	37.0
GAP(①-③)	-14.8	10.2	0.9	-0.6	-	-4.7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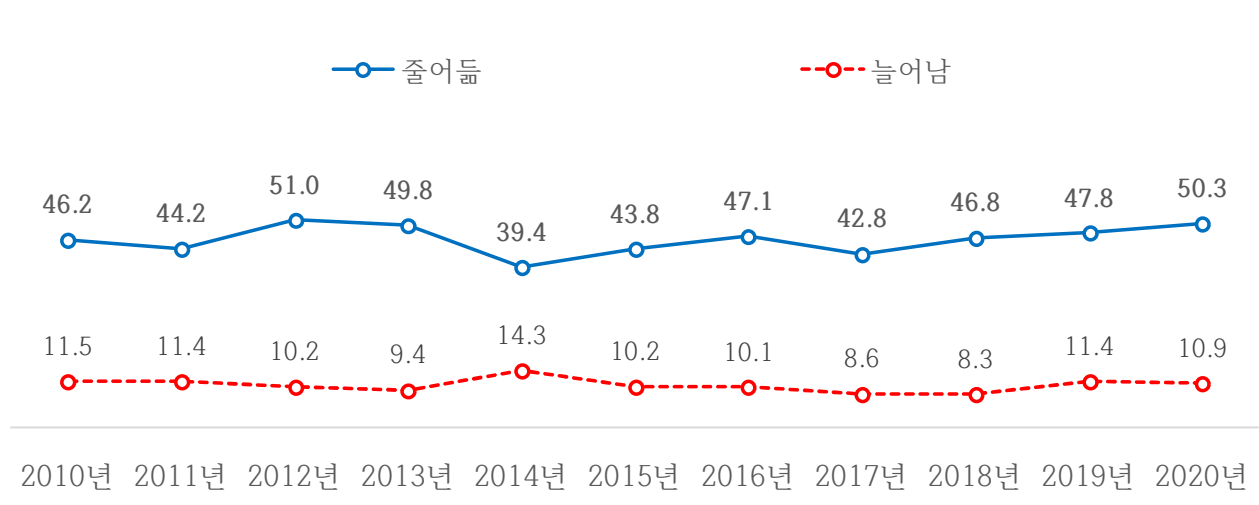
23)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Q. 귀하는 현재 병무 부조리가 이전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병무 부조리 수준이 줄어 들었다는 응답은 2019년과 비교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2.5%p 차), 2010년과 비교했을 때 4.1%p 증가하였음
- 반면 늘었다는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과거 대비 병무부조리 수준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많이 줄어듦	조금 줄어듦	별 차이가 없음	조금 많아짐	훨씬 더 많아짐	줄어듦 ④	많아짐 ⑤	GAP (④-⑤)
2020년 ①	4.3	46.0	38.8	8.8	2.1	50.3	10.9	39.4
2019년 ②	5.0	42.8	40.8	9.8	1.7	47.8	11.4	36.4
GAP(①-②)	-0.7	3.2	-2.1	-1.0	0.4	2.5	-0.6	-
2018년	12.8	33.9	44.9	6.4	1.9	46.8	8.3	38.5
2017년	8.0	34.8	48.6	5.6	3.0	42.8	8.6	34.2
2016년	6.3	40.8	42.9	6.8	3.3	47.1	10.1	37.0
2015년	7.7	36.1	46.0	8.6	1.6	43.8	10.2	33.6
2014년	7.2	32.2	46.3	10.3	4.0	39.4	14.3	25.1
2013년	8.8	41.0	40.8	7.6	1.8	49.8	9.4	40.4
2012년	11.6	39.4	38.8	8.4	1.8	51.0	10.2	40.8
2011년	6.4	37.8	44.3	8.8	2.6	44.2	11.4	32.8
2010년 ③	7.7	38.5	42.3	7.4	4.1	46.2	11.5	34.7
GAP(①-③)	-3.4	7.5	-3.6	1.4	-2.0	4.1	-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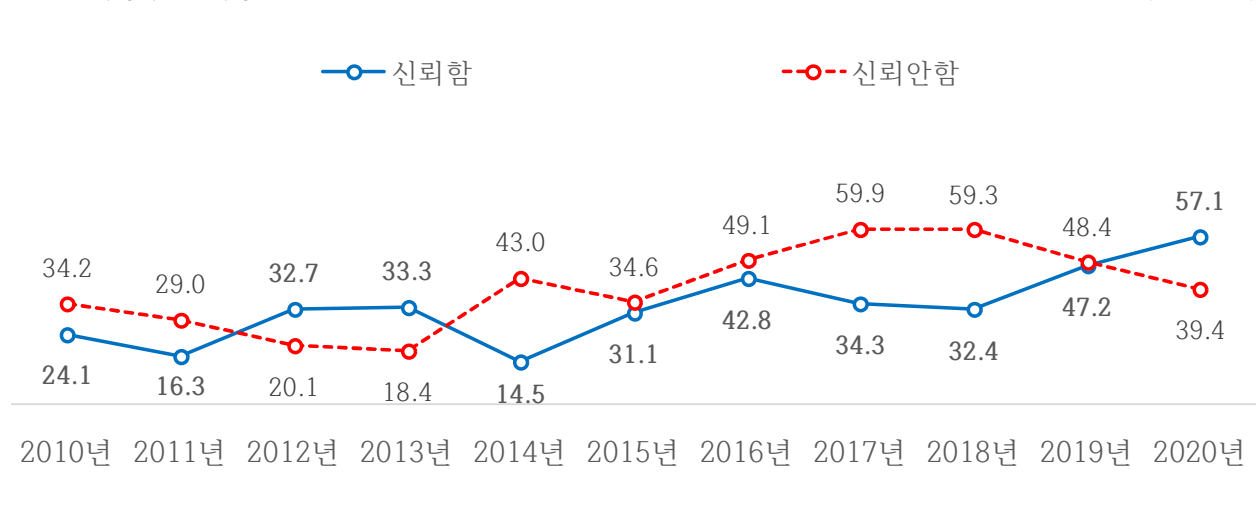
24)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Q.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9.9%p, 2010년 대비 33.0%p 증가
-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9.0%p 감소하였으나, 2010년과 비교시 5.2%p 증가함

[그림]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한 신뢰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신뢰	신뢰하는 편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안함	잘 모름*	신뢰함 ④	신뢰안함 ⑤	GAP (④-⑤)
2020년 ①	1.7	55.4	32.4	7.0	3.5	57.1	39.4	17.7
2019년 ②	1.1	46.1	40.1	8.3	4.4	47.2	48.4	-1.2
GAP(①-②)	0.6	9.3	-7.7	-1.3	-0.9	9.9	-9.0	-
2018년	2.5	29.9	44.8	14.4	8.3	32.4	59.3	-26.9
2017년	2.6	31.7	50.6	9.3	5.8	34.3	59.9	-25.6
2016년	3.0	39.8	40.3	8.8	8.3	42.8	49.1	-6.3
2015년	2.3	28.8	31.5	3.1	34.3	31.1	34.6	-3.5
2014년	1.3	13.2	35.5	7.5	42.5	14.5	43.0	-28.5
2013년	3.8	29.5	17.1	1.3	48.3	33.3	18.4	14.9
2012년	1.7	31.0	18.5	1.6	47.2	32.7	20.1	12.6
2011년	2.1	14.2	24.8	4.2	54.8	16.3	29.0	-12.7
2010년 ③	0.9	23.2	28.0	6.2	41.8	24.1	34.2	-10.1
GAP(①-③)	0.8	32.2	4.4	0.8	-38.3	33.0	5.2	-

* 2010~2015년까지 보통이다로 보기 구성 후, 2016년부터 잘 모르겠다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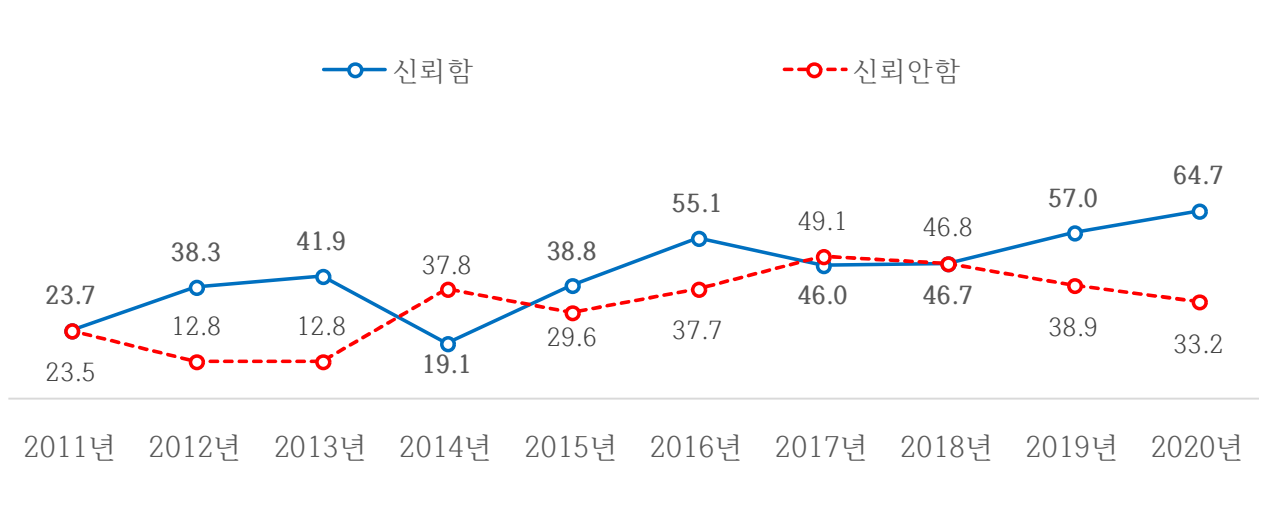
25) 군에 대한 신뢰도

Q.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7.7%p 증가
-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7%p 감소함

[그림] 군에 대한 신뢰도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군에 대한 신뢰도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신뢰함 ③	신뢰안함 ④	GAP (③-④)
2020년 ①	64.7	33.2	31.5
2019년 ②	57.0	38.9	18.1
GAP(①-②)	7.7	-5.7	-
2018년	46.7	46.8	-0.1
2017년	46.0	49.1	-3.1
2016년	55.1	37.7	17.4
2015년	38.8	29.6	9.2
2014년	19.1	37.8	-18.7
2013년	41.9	12.8	29.1
2012년	38.3	12.8	25.5
2011년	23.7	23.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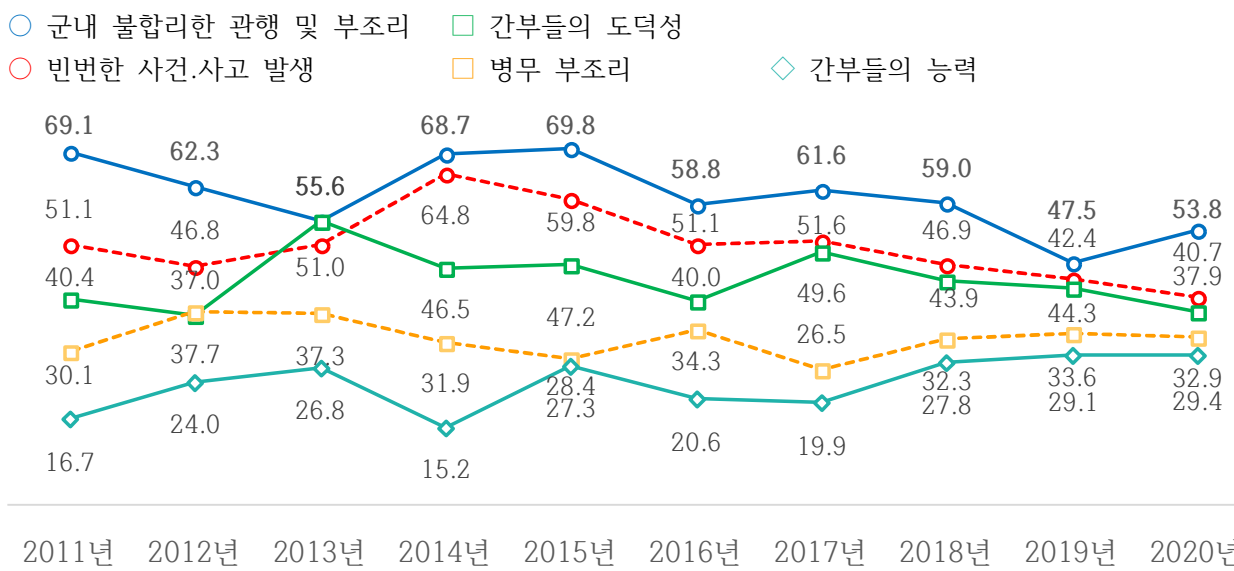
26)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Q.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때문에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6.3%p 증가
-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응답은 3.6%p 차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간부들의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2019년 대비 4.5%p 감소함

[그림]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비교(상위 5개 응답 제시)

(단위: %)



[표] 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	간부들의 도덕성	병무 부조리	간부들의 능력	병 인사관리 불공정성	예산 집행	군의 폐쇄성
2020년 ①	53.8	40.7	37.9	32.9	29.4	28.9	26.1	22.6
2019년 ②	47.5	44.3	42.4	33.6	29.1	34.3	23.1	20.1
GAP(①-②)	6.3	-3.6	-4.5	-0.7	0.3	-5.4	3.0	2.5
2018년	59.0	46.9	43.9	32.3	27.8	19.1	21.6	24.4
2017년	61.6	51.6	49.6	26.5	19.9	23.1	24.3	29.2
2016년	58.8	51.1	40.0	34.3	20.6	22.3	23.9	24.8
2015년	69.8	59.8	47.2	28.4	27.3	11.0	10.0	24.7
2014년	68.7	64.8	46.5	31.9	15.2	12.8	10.6	27.1
2013년	55.6	51.0	55.6	37.3	26.8	18.3	14.4	13.1
2012년	62.3	46.8	37.0	37.7	24.0	13.6	20.1	26.6
2011년	69.1	51.1	40.4	30.1	16.7	19.1	16.7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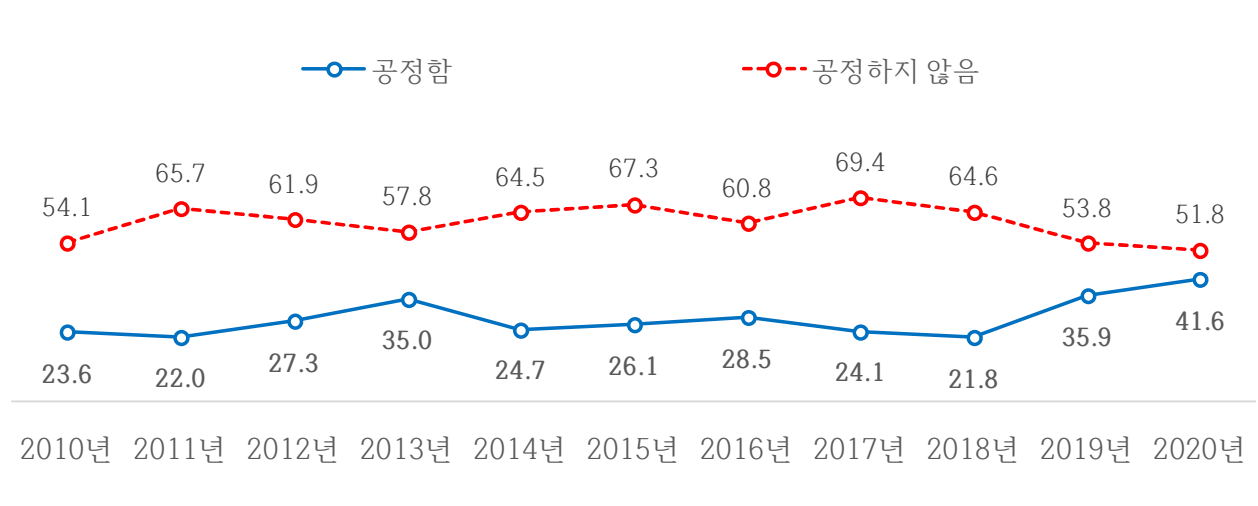
27)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Q. 귀하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 전력증강 사업이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7%p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했을 때는 18.0%p 증가함
-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2.1%p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그림]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군 전력증강 사업의 공정성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매우 공정하게 결정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	잘 모르겠다	공정함 ④	공정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0년 ①	1.3	40.3	42.3	9.5	6.7	41.6	51.8	-10.2
2019년 ②	1.2	34.8	44.0	9.8	10.3	35.9	53.8	-17.9
GAP(①-②)	0.1	5.5	-1.8	-0.3	-3.6	5.7	-2.1	-
2018년	2.4	19.4	42.3	22.3	13.6	21.8	64.6	-42.8
2017년	2.8	21.3	44.6	24.8	6.5	24.1	69.4	-45.3
2016년	2.3	26.2	39.8	21.0	10.8	28.5	60.8	-32.3
2015년	2.4	23.7	42.4	24.9	6.6	26.1	67.3	-41.2
2014년	3.2	21.5	39.3	25.2	7.2	24.7	64.5	-39.8
2013년	4.1	30.9	44.8	13.0	7.2	35.0	57.8	-22.8
2012년	3.3	24.0	47.0	14.9	10.8	27.3	61.9	-34.6
2011년	2.1	19.9	46.8	18.9	12.3	22.0	65.7	-43.7
2010년 ③	1.3	22.3	42.4	11.7	22.3	23.6	54.1	-30.5
GAP(①-③)	-0.1	18.0	-0.1	-2.2	-15.6	18.0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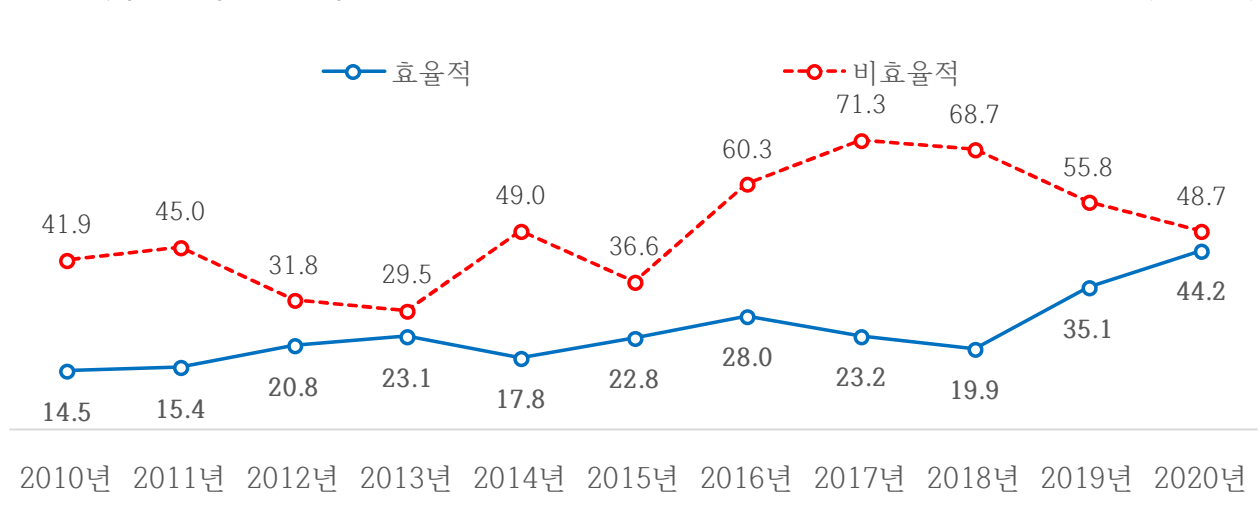
28)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Q. 귀하는 국방부가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9.1%p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시 29.7%p 증가함
- 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7.1%p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시 6.8%p 증가함

[그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효율적 ④	효율적이지 않음 ⑤	GAP (④-⑤)
2020년 ①	44.2	48.7	-4.5
2019년 ②	35.1	55.8	-20.7
GAP(①-②)	9.1	-7.1	-
2018년	19.9	68.7	-48.8
2017년	23.2	71.3	-48.1
2016년	28.0	60.3	-32.3
2015년	22.8	36.6	-13.8
2014년	17.8	49.0	-31.2
2013년	23.1	29.5	-6.4
2012년	20.8	31.8	-11.0
2011년	15.4	45.0	-29.6
2010년 ③	14.5	41.9	-27.4
GAP(①-③)	29.7	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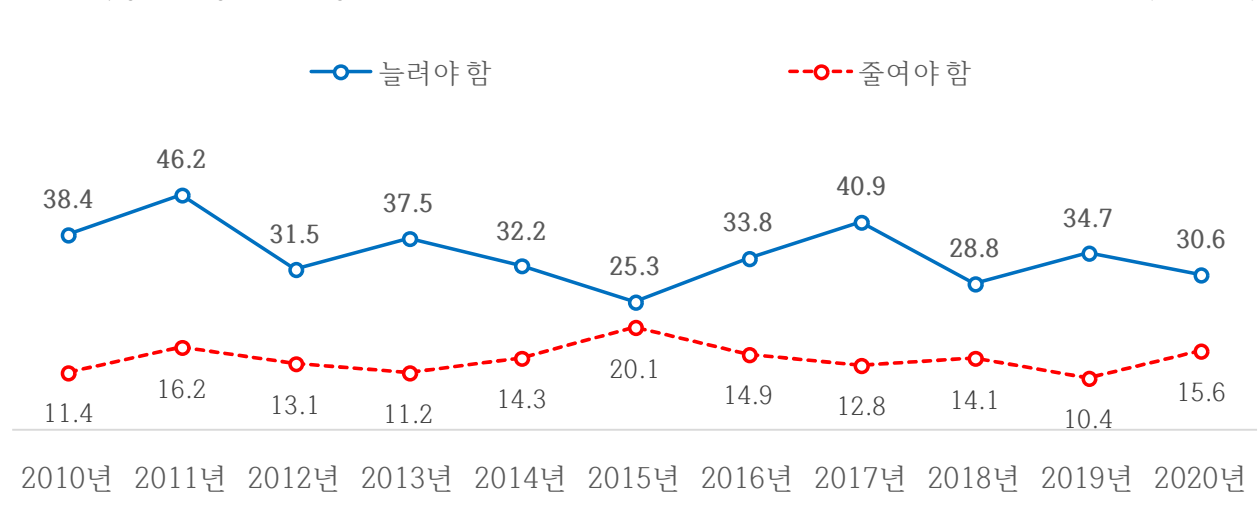
29) 국방비 수준

Q. 귀하는 한국의 국방비 수준(2020년 기준 GDP 대비 2.6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4.1%p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시 7.8%p 감소함
-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2%p 증가, 2010년 대비 4.2%p 증가하였음

[그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국방비 수준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늘려야 함 ④	줄여야 함 ⑤	GAP (④-⑤)
2020년 ①	30.6	15.6	15.0
2019년 ②	34.7	10.4	24.3
GAP(①-②)	-4.1	5.2	-
2018년	28.8	14.1	14.7
2017년	40.9	12.8	28.1
2016년	33.8	14.9	18.9
2015년	25.3	20.1	5.2
2014년	32.2	14.3	17.9
2013년	37.5	11.2	26.3
2012년	31.5	13.1	18.4
2011년	46.2	16.2	30.0
2010년 ③	38.4	11.4	27.0
GAP(①-③)	-7.8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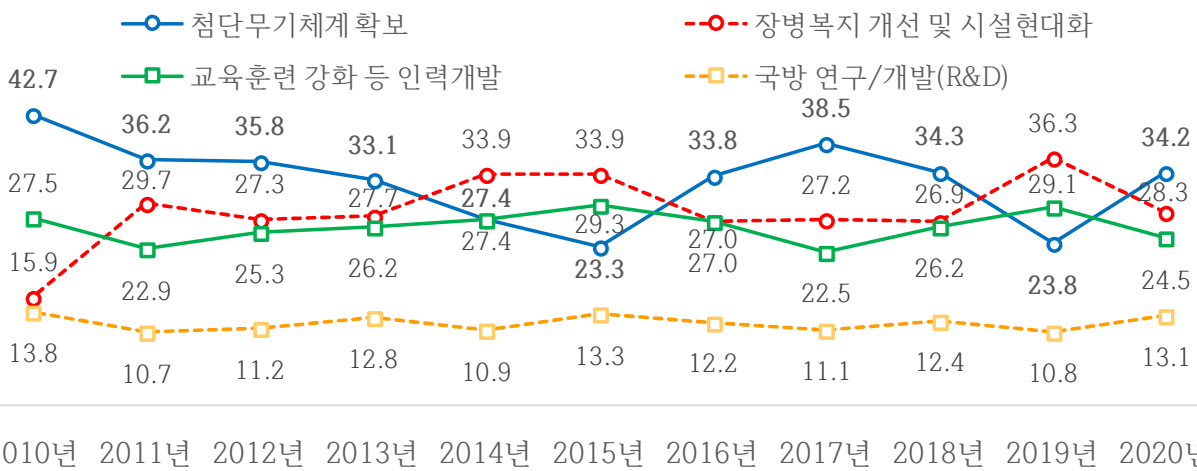
30)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Q.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국방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10.4%p 증가한 반면, 2010년과 비교시 8.5%p 감소하였음
-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8.1%p 감소한 반면, 2010년과 비교시 12.4%p 증가함

[그림]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첨단무기체계 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 연구/개발(R&D)	기타
2020년 ①	34.2	28.3	24.5	13.1	-
2019년 ②	23.8	36.3	29.1	10.8	0.1
GAP(①-②)	10.4	-8.1	-4.6	2.3	-
2018년	34.3	26.9	26.2	12.4	0.3
2017년	38.5	27.2	22.5	11.1	0.8
2016년	33.8	27.0	27.0	12.2	0.2
2015년	23.3	33.9	29.3	13.3	0.2
2014년	27.4	33.9	27.4	10.9	0.4
2013년	33.1	27.7	26.2	12.8	0.2
2012년	35.8	27.3	25.3	11.2	0.4
2011년	36.2	29.7	22.9	10.7	0.6
2010년 ③	42.7	15.9	27.5	13.8	0.0
GAP(①-③)	-8.5	12.4	-3.0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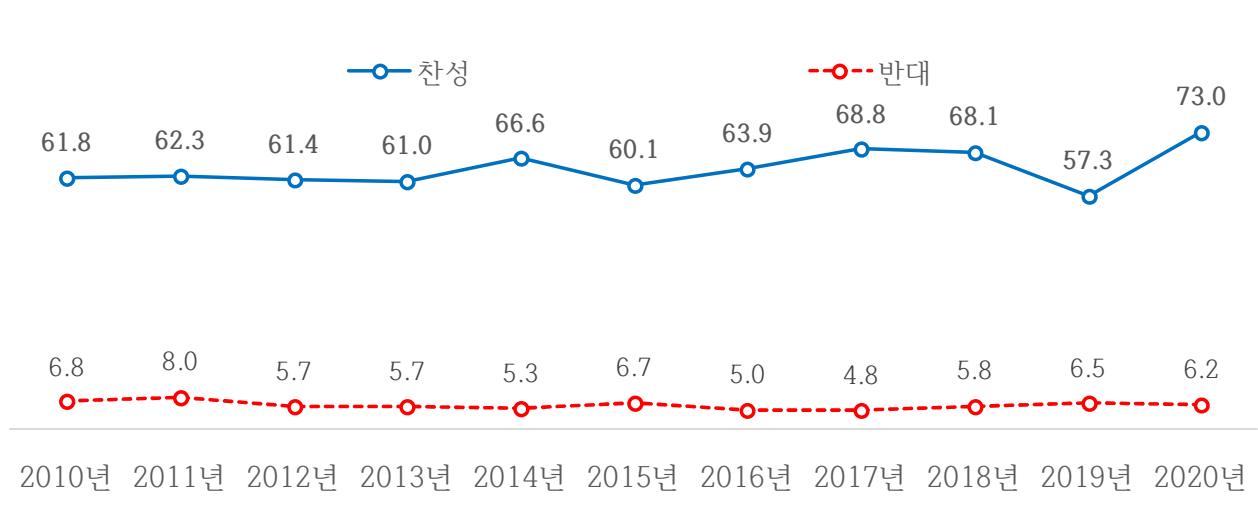
31)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Q. 귀하는 한국군이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계,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019년과 비교시 15.7%p 증가하였으며, 2010년과 비교시 11.2%p 증가함
-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연도별 비교

(단위: %)



[표]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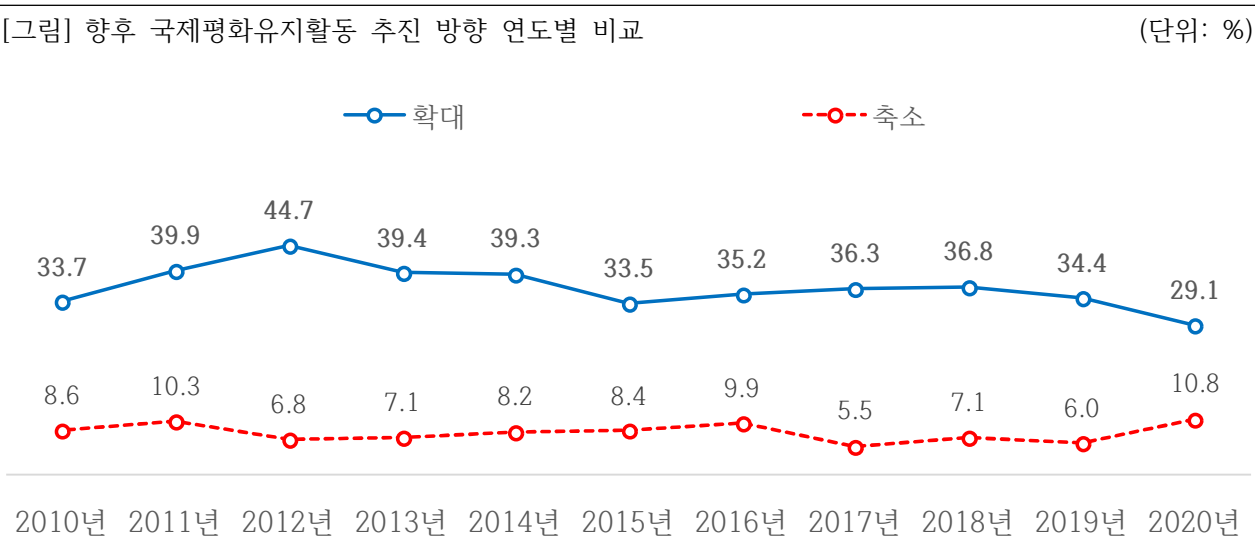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0년 ①	73.0	6.2	66.8
2019년 ②	57.3	6.5	50.8
GAP(①-②)	15.7	-0.3	-
2018년	68.1	5.8	62.3
2017년	68.8	4.8	64.0
2016년	63.9	5.0	58.9
2015년	60.1	6.7	53.4
2014년	66.6	5.3	61.3
2013년	61.0	5.7	55.3
2012년	61.4	5.7	55.7
2011년	62.3	8.0	54.3
2010년 ③	61.8	6.8	55.0
GAP(①-③)	11.2	-0.6	-

32)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Q. 귀하는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5.3%p 감소하였고 2010년 대비 4.6%p 감소함
-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대비 4.8%p 증가함



[표] 향후 국제평화유지활동 추진 방향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분	크게 확대	다소 확대	현재 수준 유지	다소 축소	참여할 필요없음	확대 ④	축소 ⑤	GAP (④-⑤)
2020년 ①	0.8	28.3	60.1	10.1	0.8	29.1	10.8	18.3
2019년 ②	2.0	32.4	59.6	5.8	0.3	34.4	6.0	28.4
GAP(①-②)	-1.3	-4.1	0.5	4.3	0.5	-5.3	4.8	-
2018년	8.3	28.4	56.2	6.4	0.7	36.8	7.1	29.7
2017년	5.3	31.0	58.2	5.3	0.3	36.3	5.6	30.7
2016년	5.2	30.0	55.0	9.3	0.6	35.2	9.9	25.3
2015년	4.2	29.3	58.1	7.9	0.5	33.5	8.4	25.1
2014년	7.5	31.8	52.5	7.3	0.9	39.3	8.2	31.1
2013년	6.8	32.6	53.5	6.5	0.6	39.4	7.1	32.3
2012년	8.1	36.6	48.5	6.3	0.5	44.7	6.8	37.9
2011년	7.2	32.8	47.1	10.3	2.2	40.0	12.5	27.5
2010년 ③	4.7	29.0	56.6	8.6	1.2	33.7	9.8	23.9
GAP(①-③)	-4.0	-28.3	31.1	1.5	-0.5	-4.6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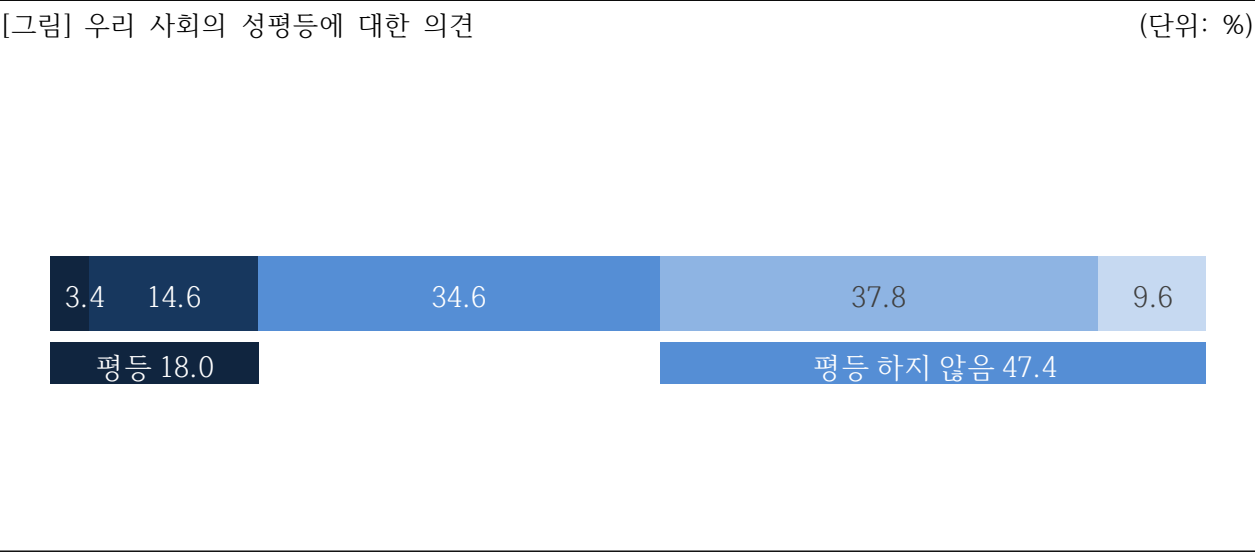
IV. 부록

2. 성평등 조사

1)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의견

Q.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8.0%(매우 평등 3.4% + 평등한 편이다 14.6%)로 평등하지 않다 47.4%(전혀 평등하지 않다 9.6% + 평등하지 않은 편이다 37.8%) 보다 낮게 나타남
- 평등하다는 의견은 남성 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평등하다	평등한 편이다	보통이다	평등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평등하지 않다	평등	평등하지 않음
전체	(1000)	3.4	14.6	34.6	37.8	9.6	18.0	47.4
성별								
남성	(496)	5.3	22.7	32.1	30.7	9.1	28.0	39.8
여성	(504)	1.5	6.6	37.0	44.8	10.0	8.2	54.8
연령								
18-29세	(179)	4.1	4.2	33.6	37.1	21.0	8.3	58.2
30대	(157)	4.5	14.7	34.7	35.2	10.9	19.2	46.1
40대	(189)	2.5	14.4	39.1	38.7	5.3	16.9	44.0
50대	(197)	3.4	19.5	30.3	39.7	7.1	22.9	46.9
60세 이상	(278)	2.9	18.1	35.2	37.8	6.1	21.0	43.8
지역								
서울	(192)	2.1	16.6	34.3	36.2	10.7	18.8	46.9
인천/경기	(310)	3.1	15.9	35.9	40.2	4.9	19.0	45.1
충청	(107)	3.0	12.5	25.7	49.1	9.7	15.5	58.8
대구/경북	(99)	2.4	19.1	45.2	21.7	11.5	21.5	33.3
부산/경남	(98)	5.3	10.0	27.7	45.8	11.3	15.3	57.0
강원/제주	(151)	5.2	13.5	33.7	33.7	14.0	18.6	47.7

2) 우리 군의 성평등에 대한 의견

Q. 그렇다면 귀하는 우리 군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2.9%(매우 평등 1.8% + 평등한 편이다 11.1%)로 평등하지 않다 49.8%(전혀 평등하지 않다 10.9% + 평등하지 않은 편이다 38.9%) 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우리 군의 성평등에 대한 의견

(단위: %)



[표] 우리 군의 성평등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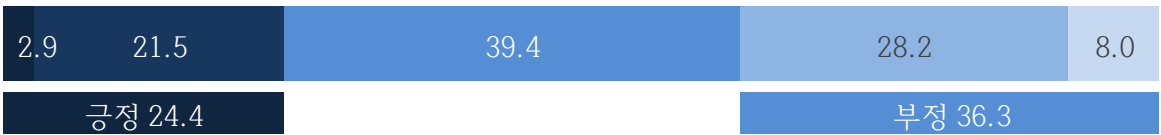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평등하다	평등한 편이다	보통이다	평등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평등하지 않다	평등	평등하지 않음
전체	(1000)	1.8	11.1	37.3	38.9	10.9	12.9	49.8
성별	남성	(496)	2.5	15.2	38.2	31.6	12.4	17.8
	여성	(504)	1.0	7.1	36.5	46.1	9.4	8.1
연령	18-29세	(179)	4.3	3.5	32.5	40.8	18.9	7.8
	30대	(157)	1.5	14.8	37.0	33.9	12.9	16.2
	40대	(189)	1.6	12.8	37.2	41.9	6.6	14.4
	50대	(197)	2.4	10.4	34.0	43.8	9.5	12.7
	60세 이상	(278)	0.0	13.3	43.1	35.1	8.4	13.3
지역	서울	(192)	1.9	14.1	35.4	36.3	12.2	16.0
	인천/경기	(310)	1.3	9.7	37.9	44.5	6.6	11.0
	충청	(107)	3.9	9.9	34.7	38.7	12.7	13.9
	대구/경북	(99)	2.7	9.5	45.0	28.4	14.4	12.2
	부산/경남	(98)	1.4	9.3	31.3	44.3	13.7	10.7
	강원/제주	(151)	1.0	13.9	40.1	32.1	12.8	14.9

3) 지난 1년 우리 군 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도

Q. 귀하는 지난 1년간 우리 군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1년간 우리 군의 성평등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다(긍정)고 응답한 비율은 24.4%(매우 그렇다 2.9% + 그렇다 21.5%)로 부정 평가 36.3%(전혀 그렇지 않다 8.0% + 그렇지 않다 28.2%) 보다 낮게 나타남
- 향상되었다는 의견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았음

[그림] 지난 1년간 우리 군 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도 (단위: %)



[표] 지난 1년 간 우리 군 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부정
성별	전체	(1000)	2.9	21.5	39.4	28.2	8.0	24.4	36.3
	남성	(496)	4.7	29.9	34.8	23.0	7.6	34.6	30.6
	여성	(504)	1.1	13.2	43.9	33.4	8.5	14.3	41.9
연령	18-29세	(179)	4.8	8.4	45.4	26.2	15.3	13.2	41.5
	30대	(157)	2.8	19.3	36.6	31.7	9.6	22.1	41.3
	40대	(189)	2.2	22.8	37.2	34.4	3.4	25.0	37.8
	50대	(197)	2.8	23.6	37.5	27.8	8.3	26.4	36.1
	60세 이상	(278)	2.1	28.8	39.9	23.7	5.5	30.9	29.2
지역	서울	(192)	3.6	23.1	38.0	27.1	8.2	26.7	35.3
	인천/경기	(310)	2.3	24.0	39.1	27.2	7.4	26.3	34.6
	충청	(107)	5.4	25.5	35.2	26.3	7.6	30.9	33.8
	대구/경북	(99)	0.4	20.7	47.5	28.7	2.7	21.1	31.4
	부산/경남	(98)	1.8	10.5	38.6	38.0	11.1	12.4	49.0
	강원/제주	(151)	4.4	20.3	36.5	25.7	13.1	24.7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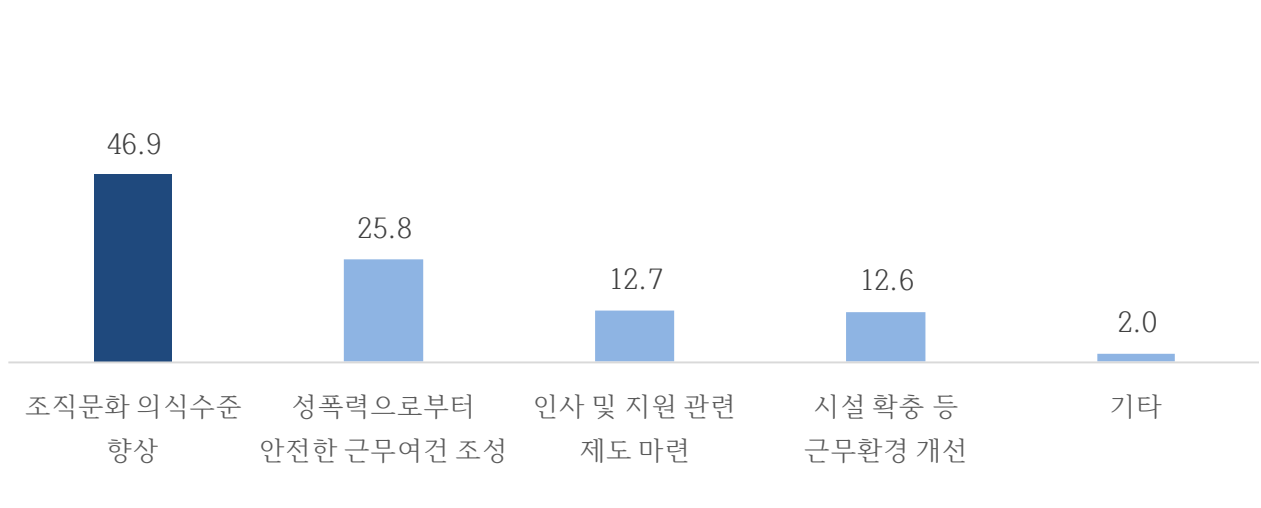
4) 성평등 선진 강군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Q. 성적으로 평등한 선진 강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적으로 평등한 선진 강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직문화 의식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25.8%, 인사 및 지원 관련 제도 마련 12.7%, 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 12.6%로 나타남

[그림] 지난 1년간 우리 군 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도

(단위: %)



[표] 지난 1년 간 우리 군 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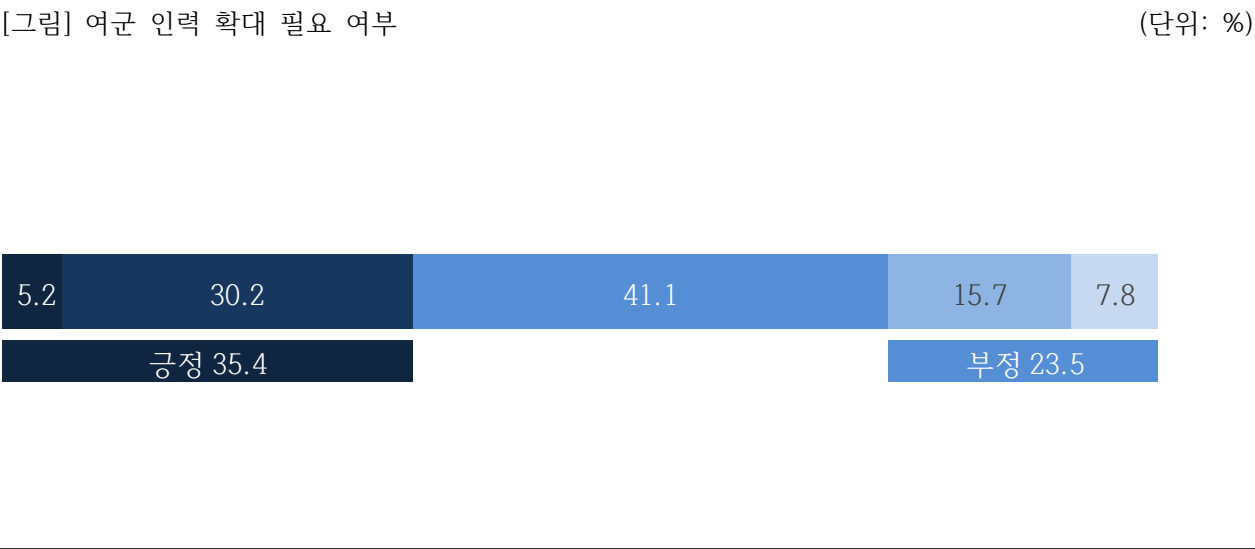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조직문화 의식수준 향상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인사 및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	기타
전체	(1000)	46.9	25.8	12.7	12.6	2.0
성별	남성 (496)	48.2	22.3	12.1	14.1	3.2
	여성 (504)	45.7	29.2	13.3	11.0	0.8
연령	18-29세 (179)	30.3	29.2	10.8	23.1	6.6
	30대 (157)	43.1	28.7	12.3	14.6	1.4
	40대 (189)	49.9	24.1	13.1	11.3	1.6
	50대 (197)	49.2	25.3	13.0	12.0	0.5
	60세 이상 (278)	56.1	23.4	13.8	5.9	0.7
지역	서울 (192)	50.2	26.1	10.4	11.4	1.8
	인천/경기 (310)	47.7	24.2	11.7	15.7	0.7
	충청 (107)	38.1	23.9	20.5	11.1	6.5
	대구/경북 (99)	45.9	24.0	16.6	13.6	0.0
	부산/경남 (98)	48.3	33.9	3.1	10.4	4.3
	강원/제주 (151)	51.9	22.3	16.1	8.4	1.3

5) 여군 인력 확대 필요 여부

Q. 우리 군은 여군인력을 22년까지 8.8%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군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5.4%(매우 그렇다 5.2% + 그렇다 30.2%)로 필요하지 않다 23.5%(전혀 그렇지 않다 7.8% + 그렇지 않다 15.7%) 보다 높게 나타남



[표] 여군 인력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부정
전체	(1000)	5.2	30.2	41.1	15.7	7.8	35.4	23.5
성별	남성 (496)	6.0	30.0	35.4	17.6	11.0	35.9	28.6
	여성 (504)	4.4	30.5	46.6	13.8	4.6	34.9	18.4
연령	18-29세 (179)	5.0	20.0	48.5	11.5	15.0	25.0	26.5
	30대 (157)	6.4	28.3	38.7	16.8	9.8	34.7	26.6
	40대 (189)	3.9	34.0	37.2	17.2	7.7	37.9	24.9
	50대 (197)	8.9	33.7	36.1	17.0	4.3	42.6	21.3
	60세 이상 (278)	3.0	32.8	43.8	15.9	4.5	35.8	20.4
지역	서울 (192)	6.9	28.2	44.9	11.8	8.3	35.1	20.0
	인천/경기 (310)	6.3	33.9	37.2	15.5	7.1	40.1	22.7
	충청 (107)	3.7	35.3	36.4	17.7	6.9	39.0	24.6
	대구/경북 (99)	4.1	32.0	43.3	12.6	8.0	36.0	20.7
	부산/경남 (98)	3.5	29.1	42.1	12.5	12.8	32.6	25.3
	강원/제주 (151)	5.2	20.0	43.0	24.9	6.9	25.2	31.8

IV. 부록

3. 설문지

다음은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안정적이다
2) 안정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불안정한 편이다
5) 매우 불안정하다

문2.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문3. 귀하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문4.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2) 북한의 체제 불안
3)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약화
4)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
5)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6) 세계 경제의 침체나 경제 마찰
7)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의 위협
8) 주변국 영토분쟁
9) 감염병
10) 기타 (내용 기술:)

문5. 다음 항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두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국내 정치의 불안
- 2) 국내 경제의 불안
- 3) 사회 불평등의 심화
- 4) 국민 안보의식 해이
- 5) 반미감정
- 6) 불충분한 국방비
- 7) 이념갈등
- 8) 치안불안
- 9) 감염병
- 10) 기타 (내용 기술:)

문6.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1) 남북 교류협력 확대
2)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3) 한·미 동맹체제 강화
4)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5) 기타 (내용 기술:)

문7.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란

1)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2)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3)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4) 외국으로 가겠다
5) 잘 모르겠다

문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응답란
1)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1	2	3	4	5	
2)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대해	1	2	3	4	5	

IV. 부록

문9. 귀하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가 직업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적극 권장하겠다
- 2) 권장하겠다
- 3)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 4) 만류하겠다
- 5) 적극 만류하겠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나라가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응답란
1) 안보적 측면	1	2	3	4	5	
2) 경제적 측면	1	2	3	4	5	

문11. 만약 북한의 대남도발과 같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남한 적극 지원	남한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2.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3. 귀하는 미래(5년 이후)의 한국과 다음의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현재와 비슷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4. 귀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한·미 양자동맹 강화
- 2)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 3)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 4)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 5) 한·중 양자협력 강화

문15. 귀하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한·미 양자동맹 강화
- 2)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 3)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 4)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 5) 한·러 양자협력 강화

문16. 귀하는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확대해야 한다
- 2) 유지해야 한다
- 3) 줄여야 한다
- 4) 없애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문17. 귀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바람직하다
- 2) 바람직하다
- 3) 보통이다
- 4) 바람직하지 않다
- 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은 한·미동맹 관계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8.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돈독하다
- 2) 돈독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불편하다
- 5) 매우 불편하다

문19.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 2)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 3)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 4)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 5) 한국내 반미감정/미국내 반한감정
- 6)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 7)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 8)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전작권전환, 유엔사 역할 등)
- 9) 기타 (내용 기술:)

문20.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응답란
1)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동맹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1	2	3	4	5	
2) 경제분야 갈등 해소, 과학 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	2	3	4	5	
3) 가치관 차이 해소 등 사회 문화 협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1	2	3	4	5	
4) 국제테러, 기후 변화 등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하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문21. 귀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중요하다
- 2) 중요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22. 귀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 2)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 3)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 4)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 5) 기타 (내용 기술:)

문23.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 2)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 3)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 4)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 5)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문24. 귀하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그저 그렇다
- 4) 아니다
- 5) 전혀 아니다

문25.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방위비를 2019년 기준 1조 389억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많은 편이다
- 2) 많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적은 편이다
- 5) 매우 적은 편이다

문26.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한국이 훨씬 우위
- 2) 한국이 다소 우위
- 3) 비슷하다
- 4) 북한이 다소 우위
- 5) 북한이 훨씬 우위

문27. 귀하는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필요하다
- 2) 필요한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필요없는 편이다
- 5) 전혀 필요없다

문28. 귀하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우리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크게 감소할 것이다
- 2) 약간 감소할 것이다
- 3) 변화가 없을 것이다
- 4) 약간 증가할 것이다
- 5)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29.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안정될 것이다
- 2) 다소 안정될 것이다
- 3) 변화가 없을 것이다
- 4) 다소 불안정해질 것이다
- 5)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문30. 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 2) 돈독해질 것이다
- 3) 현재와 같을 것이다
- 4) 약화될 것이다
- 5) 더욱 약화될 것이다

다음은 북한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1. 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 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문32. 귀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 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문33. 귀하는 향후 5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 2) 안정적일 것이다
- 3) 보통이다
- 4) 불안정해질 것이다
- 5)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문34.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1)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가능성이 높다
- 3) 보통이다
- 4) 가능성이 낮다
- 5)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35.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 3) 보통이다
- 4)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 5)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문36. 다음 사항 중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응답란

- 1) 가능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2)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3)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 4)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 5) 기타 (내용 기술:)

문37. 귀하는 한국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같은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적극 추진해야 한다
- 2) 가능한 한 추진해야 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가능한 한 추진해선 안 된다
- 5)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문38.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은 한국과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국산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귀하는 이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잘 했다
- 2) 잘한 편이다
- 3) 잘못된 편이다
- 4) 매우 잘못했다
- 5) 잘 모르겠다

문39.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큰 위협이 된다
- 2)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 5)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40.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더 얻으려고
- 2)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 3) 미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 4)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 5) 한국을 위협하기 위하여
- 6) 기타 (내용 기술 :)

문41.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 2)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 3)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 4)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 5)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 6)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 7)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문42.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을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미국
- 2) 일본
- 3) 중국
- 4) 러시아
- 5) 기타 (내용 기술 :)

문43. 귀하는 북한이 외교적 협상과정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아니다
- 5) 전혀 아니다

문44. 귀하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1) 1~2년 이내
- 2) 3~5년 이내
- 3) 5~10년 이내
- 4) 10년 이후
- 5)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문45. 귀하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
- 2) 한국군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
- 3) 한미 공동의 즉각적 군사 보복
- 4) 대북 경협 강화와 같은 대북 유화정책의 확대
- 5)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문46. 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1) 1~2년 이내
- 2) 3~5년 이내
- 3) 5~10년 이내
- 4) 10년 이후
- 5) 10년 이후에도 불가능

문47.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5) 30년 이후

문48.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 2)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 3)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 4) 장기간 현상유지
- 5) 잘 모르겠다

문49. 귀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응답란

- 1) 적극적 의지가 있다
- 2) 의지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의지가 없다
- 5) 전혀 의지가 없다

다음은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50. 귀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인 국민
개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 1)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2)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 3)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 4)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문51. 귀하는 현재 병무 부조리가 이전에
비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병무부조리: 병역과 관련한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예)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금품수수 등 병역 부조리를 저지른 경우

- 1) 많이 줄어든 것 같다
- 2) 조금 줄어든 것 같다
- 3) 별 차이가 없다
- 4) 조금 많아진 것 같다
- 5)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다

문52. 귀하는 현재 군 내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 2) 잘 보장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 5)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53. 귀하는 현재 군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은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54. 귀하는 국방부의 각종 발표에 대하여
신뢰 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신뢰한다
- 2) 신뢰하는 편이다
-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54-1.(문54에서 ‘3)번과 4)번’ 응답자
에게만 질문) 귀하가 국방부의 각
종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란

- 1) 국방부와 각군간 협력 부족
- 2) 국민과의 소통부재
- 3) 발표시기 및 내용의 문제
- 4) 무성의한 발표방식의 문제
- 5)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 6) 잘 모르겠다

문55. 귀하는 우리나라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응답란

- 1) 매우 신뢰한다
- 2) 신뢰하는 편이다
-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55-1. (문55에서 '3)번과 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가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 1)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가혹행위, 사적제재 등)
- 2) 간부들의 도덕성
- 3) 간부들의 능력(전문성)
- 4) 빈번한 사건·사고 발생
- 5)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 미흡
- 6) 병 인사관리 불공정성(부대 배치 및 보직, 휴가 등)
- 7) 병무 부조리(병역 기피 등)
- 8) 예산 집행(무기 및 장비구입 등)
- 9) 군의 폐쇄성(정보 공개 제한 등)
- 10) 기타 (내용 기술:)

1순위	2순위	3순위

문60.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첨단무기체계 확보
- 2)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 3)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 4) 국방 연구/개발(R&D)
- 5) 기타 (내용 기술:)

응답란

문61. 귀하는 한국의 향후 한국군의 병력 수(22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많다
- 2) 많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부족한 편이다
- 5) 아주 부족하다

응답란

문62.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이다
- 2) 대체로 긍정적이다
- 3) 별 영향 없다
- 4) 대체로 부정적이다
- 5) 매우 부정적이다

응답란

문63. 귀하는 한국군이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계,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응답란

문64. 다음은 한국군의 해외파병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응답란
1) 국제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u>국가 위상을 증진</u>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	2	3	4	5	
2) 자원확보 등 <u>국가이익 창출</u>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	2	3	4	5	
3) <u>한미동맹 관계</u> 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	2	3	4	5	
4) 해당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u>인도적 차원</u> 에서 필요하다	1	2	3	4	5	

문56. 귀하는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응답란

문57. 귀하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기선정 등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 2)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 3)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 5) 잘 모르겠다

응답란

문58. 귀하는 국방부가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효율적이다
- 2) 효율적인 편이다
- 3)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응답란

문59. 귀하는 한국의 국방비 수준 (2020년 기준 GDP 대비 2.6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 2)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 3)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 4)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 5)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응답란

문65. 귀하는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
- 2) 다소 확대하여야 한다
-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4) 다소 축소해야 한다
- 5) 참여할 필요가 없다

문66. 해외 파병은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그 특성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바, 이 같은 **위험이 있는 지역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 1)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 2)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해야 한다
- 3)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
- 4) 잘 모르겠다

(예비군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67. 귀하는 예비군으로서 **전시 국가 동원령 선포 시 또는 평시 지역 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응소**하시겠습니까?

응답란

- 1) 반드시 응소하겠다
- 2) 상황에 따라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 3) 절대로 응소하지 않겠다
- 4) 잘 모르겠다

문68. 예비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 승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예비전력입니다. 귀하는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중요하다
- 2) 중요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69. 국방개혁 2.0추진에 따른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써 예비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향후 동원예비군의 입영훈련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연간 2박 3일(현행)
- 2) 연간 3박 4일
- 3) 연간 4박 5일
- 4) 연간 2주
- 5) 연간 3주 이상

문70. 귀하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응답란
1) 테러	1	2	3	4	5	
2) 해적, 마약, 조직범죄	1	2	3	4	5	
3) 자연재해	1	2	3	4	5	
4) 원전 사고	1	2	3	4	5	
5) 사이버 테러	1	2	3	4	5	
6) 감염병	1	2	3	4	5	

문71. 귀하는 한국군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의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72. 귀하는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73. 해외 재난,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의 철수·구호를 위해 군 자산(수송기, 함정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국방부가 수행한 재외국민 보호활동의 예로는, '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수행, '18년 사이판 태풍 때 군수송기 지원, '19년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시 해난구조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 1)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2)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3) 군 자산은 전투상황에 대비하여 활용해야 하고 외국인 보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4) 잘모르겠다

문74. 귀하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1)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야후, 네이버, 구글 등)
- 3) 일간신문
- 4) 국방일보
- 5) TV 방송 (KBS, MBC, SBS, 종편 등)
- 6) 국방TV (위성TV 채널 153)
- 7)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8)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 9)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 10) 기타(관련 책자, 영상 등)

문7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 홍보 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거의 매일	1주에 1회 이상	1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본 적이 없다	응답란
1)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1	2	3	4	5	
2) 국방백서	1	2	3	4	5	
3) 국방일보	1	2	3	4	5	
4) 국방FM(라디오)	1	2	3	4	5	
5) 국방TV(텔레비전)	1	2	3	4	5	
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	2	3	4	5	

문76. 귀하는 국방부 및 군의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합한 홍보활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1) TV 광고
- 2) 신문, 잡지 등 인쇄광고
- 3) 라디오 광고
- 4)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광고
- 5) 국방부 및 군 운영 온라인 매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6) 국방부 및 군 운영 홍보매체(국방TV, 국방FM, 국방일보 등)
- 7) TV 프로그램(방송)
- 8) 공청회 등 설명회
- 9) 언론사 보도(신문, 방송뉴스 등)
- 10) 옥외 홍보물(전광판, 지하철 등)
- 11) 기타()

다음은 자료분류용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만 사용되오니, 해당되는 항목을 응답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응답란

- 1) 중졸이하
- 2)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 3) 전문대(재학, 중퇴 또는 졸업)
- 4) 4년제 대학교(재학, 중퇴 또는 졸업)
- 5) 대학원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응답란

- 1)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 2) 자영업자(종업원 9명이하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주인, 개인택시운전자 등)
- 3)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 4) 기능/숙련공(운전자, 선반/목공, 숙련공 등)
- 5) 일반 노무직(토목 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향해사 등)
-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등)
- 9) 전업주부
- 10) 학생
- 11) 무직
- 12) 기타 (내용 기술:)

DQ3. 귀하는 군 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란

- 1) 예
- 2) 아니오

DQ3-1. (DQ3=1일 때만) 군 복무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복무를 하셨습니까?

응답란

- 1) 현역병
- 2) 부사관(하사관)
- 3) 장교
- 4)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 5) 전환복무(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 6) 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 7) 기타 (내용 기술:)

DQ4. 귀하의 가정은 생활 수준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상층
- 2) 중상층
- 3) 중간층
- 4) 중하층
- 5) 하층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면접원 기입사항-----

IQ1. 설문을 진행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집중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응답란

- 1) 매우 집중함
- 2) 집중함
- 3) 보통
- 4) 집중 안함
- 5) 매우 집중 안함

IQ2. 설문 문항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까?

응답란

- 1) 매우 쉬웠음
- 2) 쉬웠음
- 3) 보통
- 4) 어려움
- 5) 매우 어려움

IQ3. 설문 진행 시 응답 거부 또는 협조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응답란

- 1) 매우 협조적임
- 2) 협조적임
- 3) 보통
- 4) 거부함
- 5) 강하게 거부함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보고서 [일반국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